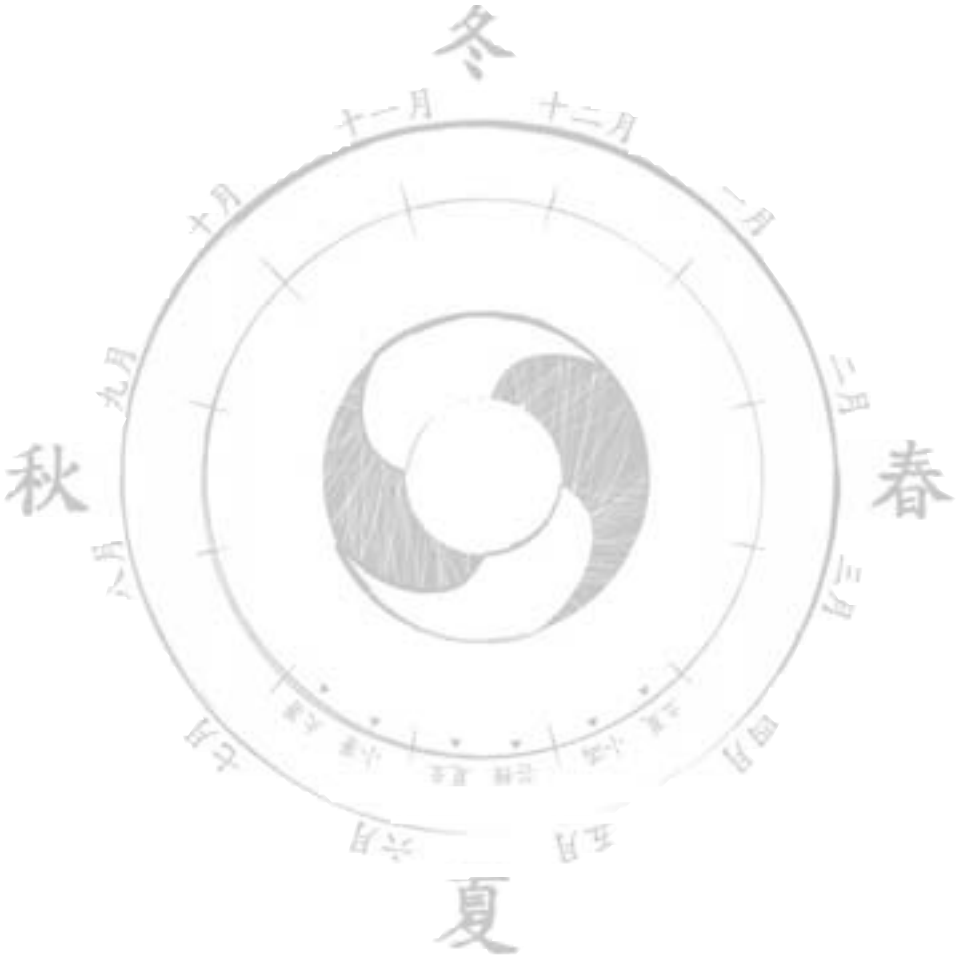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일러두기

❀ 사전의 전체 구성

1. 『한국세시풍속사전』은 정월편, 계절 세시편(봄 · 여름 · 가을 · 겨울), 부록 및 색인편 총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정월편은 일년 세시풍속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분권하였고, 계절 세시편의 경우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로 나누었다. 봄편은 음력으로 2월, 3월에 해당하고 여름편은 4월, 5월, 6월에 해당한다. 가을편은 7월, 8월, 9월에 해당하고 겨울편은 10월, 11월, 12월에 해당한다. 윤달은 겨울편에 배속시켰다. 부록 및 색인편은 마지막권으로 분류하였다.

❀ 표제어 선정 및 배열 원칙

1. 표제어 선정 범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세시풍속은 물론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만들어진 세시풍속을 표제어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2. 표제어 선정 및 배열 원칙
   1) 표제어라 함은 『한국세시풍속사전』에 독립 항목으로 등재되는 단어를 가리킨다.
   2) 표제어는 5층위로 나누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제어의 층위는 표제어의 크기와 비중에 따라 구분하였다.
      가. 1층위 표제어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이다.
      나. 2층위 표제어는 1월, 2월, 3월……12월, 윤달 등이다.
      다. 3층위 표제어는 정일(定日), 절기(節氣), 월내, 생업, 현대세시 등에 해당하는 표제어이다. 현대세시 가운데 축제는 2000년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지속된 축제만을 선별하였다.
      라. 4층위의 표제어는 정일, 절기 등 3층위 표제어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시행위를 말하며 이칭, 의례, 속신, 복식, 절식, 놀이, 구비전승 등을 말한다.
      마. 5층위 표제어는 4층위 표제어의 하위항으로 주로 지역적인 양상과 관련된 표제어이다.
   3) 각 층위 속에서의 순서는 가나다순에 따랐다.

❀ 표기방법

1. 부호와 기호
   1) 맞춤법 및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1) 작은따옴표 ' ' : 기본 표제어로 뜻풀이를 돌릴 때 썼다. 주로 방언이나 비표준어로 나타나는 유의어를 뜻풀이할 때 표기하였다. 시의 제목이나 노래 제목에도 사용하였다. 단, 가운뎃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큰따옴표 " " : 직접 인용의 내용에 표기하였다.
      (3) 겹낫표 『 』 : 문헌이나 저서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4) 낫표 「 」 : 작품이나 책의 하위장 제목 및 논문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5) 대괄호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를 표기할 때와 어려운 한자어를 본문에서 풀어쓰고 본디

음을 한자로 병기할 때, 그리고 ( ) 밖에 또다시 괄호를 넣어줘야 할 경우에 표기하였다.

(6) 소괄호 ( ): 원어, 한자병기, 주석, 설명 등을 넣을 때 표기하였다.

(7) 줄임표 ……: 원문을 용례로 인용할 때 임의적으로 생략할 경우에 표기하였다.

(8) 가운뎃점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와 특정 차례를 일괄적으로 나열할 때, 그리고 특정의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표기하였다.

(9) 온점 .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표기하였다. 직접 인용문의 경우에는 문장을 마칠 때 표기하였다.

(10) 물결표 ~: '내지' 라는 뜻을 나타낼 때와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표기하였다.

2) 한자와 한자어의 표기는 속자나 약자를 피해 정자로 정확히 쓰되, 한자음에 특별한 관용이 있을 경우에는 현실음에 따른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한자는 생략하였다. 또한 고유명사, 특수한 용어 및 한자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 )속에 병기하였다.

3) 외래어와 외국어는 원음대로 표기하고 가급적 외래어와 외국어의 표기를 피했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는 이해가 편하도록 한글을 섞어 표기할 수 있다.

5) 도량형 · 단위의 경우는 미터법에 의한 부호를 우리말로 썼다.

2. 용어 및 인명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단, 표기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용어는 관련 학술기관의 용례집에 따르고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3. 자료

도표, 사진, 삽화, 지도 등 내용 설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를 밝혔다.

❁ 참고 사항

1.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편은 정월편과는 사진의 디자인에서 약간의 차이를 지닌다. 정월편의 경우는 원고매수가 많아 분량의 늘어남을 감안하여 사진의 크기를 작게 했던 반면에 여름편의 경우는 다소 크게 구성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두드리게 하였다.
2. 양력세시의 표제어에 보면 음력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있으나 양력을 기준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여름편 6월에 강릉단오제와 같은 표제어가 들어가게 되었다.

❁ 색인

이 사전에 실린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권말에 가나다순으로 배열해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차 례

일러두기 ····· 02

여름(夏) ····· 12

여름(夏) ····· 14
기후(氣候) ····· 14
동물(動物) ····· 17
생업(生業) ····· 19
세시풍속(歲時風俗) ····· 22
식물(植物) ····· 25

Ⅰ. 사월(四月) ····· 28

4월(四月) ····· 30
이칭 건월(乾月) ····· 32
괴하(槐夏) ····· 32
괴훈(槐薰) ····· 32
맥량(麥凉) ····· 32
맥추(麥秋) ····· 33
맹하(孟夏) ····· 33
사월(巳月) ····· 33
수요절(秀葽節) ····· 34
시하(始夏) ····· 34
앵하(鶯夏) ····· 34
여월(余月) ····· 34
유하(維夏) ····· 34
정양(正陽) ····· 34
중려(仲呂) ····· 35
청화절(淸和節) ····· 35
초하(初夏) ····· 35

Ⅱ. 정일(正日) ····· 36

초파일[初八日] ····· 38
이칭 등석(燈夕) ····· 42
부처님오신날 ····· 43
불탄일(佛誕日) ····· 43
석탄일(釋誕日) ····· 43
욕불일(浴佛日) ····· 43
할마님등국날 ····· 44
의례 관불회(灌佛會) ····· 44
보제(洑祭) ····· 46
연등회(燃燈會) ····· 47
욕불회(浴佛會) ····· 50
초파일불공[初八日佛供] ····· 50
탑돌이(塔-) ····· 52
절식 검은콩[蒸黑豆] ····· 54
느티떡 ····· 54
미나리강회 ····· 54
파강회 ····· 55
홰나무잎떡 ····· 55
놀이 관등놀이(觀燈-) ····· 55
만석중놀이 ····· 57
물장구놀이[水缶戱] ····· 58
수고(水鼓) ····· 59
수부희(水缶戱) ····· 59
연등놀이(燃燈-) ····· 59
줄불놀이 ····· 59
파일놀이[八日-] ····· 60
호기놀이(呼旗-) ····· 61
구비전승 등타령(燈打令) ····· 62
사월 초파일날 굴비 대가리
짓마르듯 ····· 63
사월 파일 등(燈)대 감듯 ····· 63

초파일에 물 담으면 농사 망한다 …… 63

Ⅲ. 절기(節氣) …… 64

입하(立夏) …… 66
구비전승 입하 물에 써레 싣고 나온다 …… 66
입하 바람에 씨나락 몰린다 …… 67

소만(小滿) …… 67

Ⅳ. 월내(月內) …… 68

의례 남이장군사당제(南怡將軍祠堂祭) …… 70
못자리고사(-告祀) …… 70
문소전제(文昭殿祭) …… 70
우사(雩祀) …… 70
웅산신당제(熊山神堂祭) …… 72
종묘대제(宗廟大祭) …… 72
속신 봉선화물들이기[鳳仙花染指] …… 72
절식 어만두(魚饅頭) …… 74
어채(魚菜) …… 74
놀이 등바루놀이 …… 75
구비전승 모심는소리 …… 76
모찌는소리 …… 78
사월 달 부지깽이는 땅에
꽂아도 순 난다 …… 79
사월 무지개에 곡가(穀價)가 오른다 … 79
사월 물살 칼 받아 든다 …… 79

Ⅴ. 생업(生業) …… 80

농업 생강재배(生薑栽培) …… 82
수박재배 …… 83
콩파종 …… 84
어업 전갱이잡이 …… 86
청어잡이(靑魚-) …… 87
톳채취 …… 89

Ⅵ. 양력세시 …… 90

기념일 과학의 날(科學-) …… 92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大韓民國臨時政府樹立記念日) …… 92
법의 날(法-) …… 94
보건의 날(保健-) …… 95
4·19혁명기념일(四一九革命記念日) … 96
식목일(植木日) …… 99
장애인의 날(障碍人-) …… 101
정보통신의 날(情報通信-) …… 102
충무공탄신일(忠武公誕辰日) …… 103
향토예비군의 날(鄕土豫備軍-) …… 104
현대세시 블랙데이(Black Day) …… 105
축제 가락문화제(駕洛文化祭) …… 105
가야진용신제(伽倻津龍神祭) …… 106
기지시줄다리기(機池市-) …… 108
단종문화제(端宗文化祭) …… 109
매헌문화제(梅軒文化祭) …… 110
선농제향(先農祭享) …… 111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牙山聖雄李舜臣祝祭) …… 112
영도풍어제(影島豊漁祭) …… 113
임천충혼제(林川忠魂祭) …… 114
지리산남악제(智異山南岳祭) …… 114
진해군항제(鎭海軍港祭) …… 115
하동문화제(河東文化祭) …… 117

차 례

Ⅰ. 오월(五月) ····· 118

5월(五月) ····· 120

이칭 고월(皐月)····· 123
구월(姤月) ····· 123
매우(梅雨)····· 124
매월(梅月)····· 124
매천(梅天)····· 124
매하(梅夏)····· 125
명조(鳴蜩) ····· 125
순화(鶉火) ····· 125
오월(午月)····· 125
유빈(蕤賓) ····· 125
유열(榴烈)····· 126
유화(榴花)····· 126
조염(早炎)····· 126
주양(朱陽)····· 126
주하(朱夏)····· 126
중하(仲夏)····· 127
포월(蒲月)····· 127
하오(夏五)····· 127
훈풍(薰風)····· 127

Ⅱ. 정일(正日) ····· 128

작은단오[小重午] ····· 130

단오(端午)····· 130

이칭 단양(端陽)····· 134
단양수리(端陽-) ····· 134
며느리날 ····· 135
미나리 환갑날 ····· 135
소 군둘레 끼우는 날 ····· 135
소 시집가는 날····· 135
쇠코 뚫는 날····· 136
수릿날 ····· 136
술의(戌衣)····· 136
여아절(女兒節)····· 137
중오(重午)····· 137
중오절(重五節)····· 137
천중절(天中節)····· 137

의례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 138
군위삼장군제(軍威三將軍祭)····· 146
단오고사(端午告祀)····· 149
단오부채[端午扇] ····· 150
단오선(端午扇)····· 152
단오성묘(端午省墓)····· 152
단오절사(端午節祀)····· 152
단오차례(端午茶禮)····· 153
단오첩(端午帖)····· 153
문소전제(文昭殿祭)····· 153
문호장굿(文戶長-) ····· 153
상음신사제(霜陰神祠祭)····· 155
앵두천신[櫻桃薦新] ····· 156
오금잠제(烏金簪祭)····· 157

속신 궁궁이꽂기[川芎-] ····· 159
단오물[端午雨] ····· 159
단오부적(端午符籍)····· 160
단오장(端午粧)····· 161
대추나무시집보내기 ····· 162
상추이슬분바르기 ····· 163
애호(艾虎)····· 163
약쑥베기 ····· 164
옥추단(玉樞丹)····· 166

익모초즙(益母草汁)····· 166
창포비녀[菖蒲簪] ····· 167
창포탕(菖蒲湯)····· 168
천궁꽂기(川芎-) ····· 170
천중부적(天中符籍)····· 170
추독단(追毒丹)····· 170
치우부적(蚩尤符籍)····· 170
복식 단오빔(端午-) ····· 170
절식 각서(角黍)····· 171
수리취떡 ····· 171
앵두편[櫻桃片] ····· 172
앵두화채[櫻桃花菜] ····· 173
어알탕 ····· 173
제호탕(醍醐湯) ····· 174
창포주(菖蒲酒)····· 175
놀이 강령탈춤(康翎-) ····· 176
강릉관노가면극(江陵官奴假面劇)····· 180
격구(擊毬)····· 183
그네뛰기[鞦韆戱]····· 184
봉산탈춤(鳳山-) ····· 186
석전(石戰)····· 189
송파산대놀이(松坡山臺-) ····· 190
수박희(手搏戱)····· 194
씨름 ····· 196
양주별산대놀이(楊州別山臺-) ····· 200
은율탈춤(殷栗-) ····· 203
추천희(鞦韆戱) ····· 205
택견 ····· 206
한장군놀이(韓將軍-) ····· 208
화상싸움(火桑-) ····· 210
구비전승 도리깨질소리 ····· 211
단오물 잡으면 농사는 다 짓는다 ····· 212
오월 단오 안에는 못 먹는 풀이 없다··· 212

죽취일(竹醉日) ····· 213
이칭 죽미일(竹迷日)····· 213

Ⅲ. 절기(節氣)····· 214

망종(芒種)····· 216
속신 망종보기(芒種-) ····· 217
보리그스름 ····· 217
구비전승 망종 넘은 보리, 스물 넘은 비바리 ··· 217

하지(夏至)····· 217
이칭 장지(長至)····· 219
구비전승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 ····· 219

Ⅳ. 월내(月內) ····· 220

의례 기우제(祈雨祭)····· 222
선목제(先牧祭)····· 224
속신 까마귀울음점 ····· 225
태종우(太宗雨)····· 225
놀이 방천놀이(防川-) ····· 226
구비전승 강릉학산오독떼기(江陵鶴山-) ····· 226
보리타작소리 ····· 229
산유화가(山有花歌)····· 229
깐깐오월 ····· 231
5농 6숭(五農六崇) ····· 231
오월 농부, 팔월 신선 ····· 231

Ⅴ. 생업(生業) ····· 232

농업 모내기 ····· 234
모찌기 ····· 237

차 례

보리도리깨질 ····· 237
보리타작(-打作) ····· 237
이앙(移秧)····· 239
어업 꽁치잡이 ····· 239
도미잡이 ····· 241
멸치잡이 ····· 242
바지락캐기 ····· 245
실치잡이 ····· 246
자리잡이 ····· 248
장어잡이 ····· 249
잡사 멸치젓담그기 ····· 252

VI. 양력세시 ····· 254

기념일 근로자의 날(勤勞者-)····· 256
바다의 날 ····· 257
발명의 날(發明-)····· 257
방재의 날(防災-)····· 258
부부의 날(夫婦-)····· 259
성년의 날(成年-)····· 260
스승의 날 ····· 262
어린이날 ····· 263
어버이날 ····· 264
5·18민주화운동기념일
(五一八民主化運動記念日)····· 265
재향군인의 날(在鄕軍人-) ····· 268
현대세시 로즈데이(Rose Day) ····· 269
옐로우데이(Yellow Day) ····· 269
축제 거북선축제(-祝祭) ····· 269
낙안읍성축제(樂安邑城祝祭)····· 270
동학농민혁명기념제
(東學農民革命記念祭)····· 270
밀양아리랑대축제(密陽-大祝祭) ····· 271
춘향제(春香祭)····· 272

I. 유월[六月] ····· 274

6월(六月) ····· 276
이칭 계하(季夏)····· 280
구월(具月)····· 280
구토월(具土月)····· 280
둔월(遯月)····· 280
만하(晩夏)····· 281
미월(未月)····· 281
복염(伏炎)····· 281
복월(伏月)····· 281
비열(比熱)····· 282
비염(比炎)····· 282
비염(沸炎)····· 282
서월(署月)····· 282
성염(盛炎)····· 282
썩은달 ····· 283
액달(厄-) ····· 283
염열(炎熱)····· 283
염증(炎蒸)····· 283
요염(燎炎)····· 284
유열(庾熱)····· 284
유염(庾炎)····· 284
유월(流月)····· 285
임종월(林鐘月)····· 285
장하(長夏)····· 285
재양(災陽)····· 285
증염(蒸炎)····· 286
차월(且月)····· 286
치염(熾炎)····· 286
형월(螢月)····· 287
혹염(酷炎)····· 287
홍염(烘炎)····· 287

II.정일(正日) ····· 288

유두(流頭)····· 290
의례 농신제(農神祭)····· 292
용신제(龍神祭)····· 295
유두천신(流頭薦新)····· 295
속신 물맞이 ····· 296
유두할아버지 ····· 297
절식 건단(乾團)····· 298
밀국수 ····· 298
밀쌈 ····· 298
밀전병(-煎餠) ····· 298
분단(粉團)····· 298
상화병(霜花餠)····· 298
수교위[水角兒] ····· 298
수단(水團)····· 299
연병(連餠)····· 300
유두면(流頭麵)····· 301
놀이 유두연(流頭宴)····· 302
유두잔치(流頭-) ····· 303
구비전승 유두에 소 타지 말고 팔월에 타라 ····· 303

유월스무날 ····· 303

삼복(三伏)····· 304
이칭 경금(庚金)····· 305
월복(越伏)····· 305
의례 복제(伏祭)····· 305
속신 모래찜질 ····· 306
삼복비[三伏雨] ····· 306
호박순치기 ····· 306
절식 개장국 ····· 307
계삼탕(鷄蔘湯)····· 308
깻국탕 ····· 308
구장(狗醬)····· 308
닭죽 ····· 308
백마자탕(白麻子湯)····· 308
복죽(伏粥)····· 308
삼계탕(蔘鷄湯)····· 309
어죽(魚粥)····· 309
용봉탕(龍鳳湯)····· 310
육개장 ····· 311
임자수탕(荏子水湯)····· 312
콩국수 ····· 312
놀이 복달임(伏-) ····· 313
복놀이 ····· 314
탁족(濯足)····· 314
하삭음(河朔飮)····· 315
구비전승 복날 개 패듯 한다 ····· 315
삼복에 비가 오면 보은(報恩)
처자(處子)가 울겠다 ····· 315
삼복지간(三伏之間)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 316
초복날 소나기는 한 고방의
구슬보다 낫다 ····· 316

토왕일(土旺日) ····· 317
의례 칠사(七祀)····· 317

III.절기(節氣) ····· 318

소서(小暑)····· 320
구비전승 소서가 넘으면 새 각시도 모심는다····· 320

대서(大暑)·····321

차 례

Ⅳ.월내(月內) …… 322

의례 금산농바우끄시기(錦山-) …… 324
기청제(祈晴祭)…… 326
논둑제 …… 326
반빙(頒氷)…… 326
사빙(賜氷)…… 327
써레시침 …… 327
제석할망제 …… 328
참외밭고사(-告祀) …… 329
충제(蟲祭)…… 329
포제(酺祭) …… 329
속신 개똥장마 …… 330
절식 과하주(過夏酒)…… 330
규아상 …… 332
기주떡[起酒餠] …… 332
미만두 …… 333
사마주(四馬酒)…… 333
준치국 …… 333
증편[蒸餠] …… 334
편수(片水)…… 334
놀이 고누 …… 335
관어(觀魚)…… 336
낫치기놀이 …… 336
달팽이놀이 …… 337
두꺼비집짓기놀이 …… 337
방아깨비놀이 …… 338
뱃놀이 …… 339
살냉이놀이 …… 339
서리 …… 340
선유(船遊)…… 341
수희(水戱) …… 342
잠자리잡기 …… 342
천렵(川獵)…… 343
풍뎅이놀리기 …… 344
구비전승 거창삼베일소리(居昌-) …… 344
논매고오는소리 …… 345
논매기소리 …… 346
물푸는소리 …… 347
밭밟는소리 …… 349
쌈싸는소리 …… 350
계집의 말은 오뉴월 서리가 온다 …… 351
늦모내기에 죽은 중도
꿈적거린다 …… 352
메뚜기도 여름이 한철 …… 352
미끈유월 …… 352
여름비는 잠비, 가을비는 떡비 …… 353
여름살은 풋살 …… 353
여름 소나기는 밭고랑을
두고 다툰다 …… 353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 353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아니 앓는다 …… 354
오뉴월 감주 맛 변하듯 …… 354
오뉴월 개팔자 …… 354
오뉴월 녹두 깝대기 같다 …… 354
오뉴월 두룽다리 …… 354
오뉴월 땡볕의 바지락 풍년이다 …… 355
오뉴월 배 양반이요,
동지섣달은 뱃놈 …… 355
오뉴월 병아리 하루 볕이 새롭다 …… 355
오뉴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 355
오뉴월 쇠불알 늘어지듯 …… 355
오뉴월에 똥 도둑도 못 해 먹겠다 …… 356
오뉴월 장마는 개똥장마다 …… 356
오뉴월 장마에 토담 무너지듯 …… 356

유월 발바닥 사흘 뜨거우면
누어서 먹는다 …… 356
유월 보름날은 고양이
코도 따스하다 …… 357
유월 장마는 쌀 창고,
칠월 장마는 죽 창고 …… 357
유월 타작은 애기 젖먹이면서 한다 … 357

V.생업(生業) …… 358

농업 감자캐기 …… 360
김매기 …… 360
담뱃잎따기 …… 362
메밀파종 …… 362
여름바령 …… 363
조파종[粟播種] …… 363
참외수확 …… 364
콩수확 …… 364
팥파종 …… 364
호박따기 …… 364
어업 고등어잡이 …… 365
노랑쟁이 물에 …… 366
농어잡이 …… 366
새우잡이 …… 368
오징어잡이 …… 370
잡사 새우젓담그기 …… 371

VI.양력세시 …… 372

기념일 6·25사변일(六二五事變日) …… 374
현충일(顯忠日)…… 376
환경의 날(環境-)…… 377
현대세시 머그데이(Mug Day)…… 378
키스데이(Kiss Day) …… 378
축제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 378
경산자인단오 한장군축제
(慶山慈仁端午韓將軍祝祭)…… 380
법성포단오제(法聖浦端午祭)…… 381
아우내 단오절 민속축제
(-端午節民俗祝祭) …… 382
옥포대첩기념제전
(玉浦大捷紀念祭典)…… 383
평해남대천단오제
(平海南大川端午祭)…… 384
현산문화제(峴山文化祭)…… 385

색인 …… 386



夏

여름

여름철 복을 비는 풍습에는
개인적인 것으로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풍습이 있다.
사월이 되면
어린 여자아이들은 봉선화 꽃잎으로
손톱에 물을 들인다.
손톱을 물들이는 것은
미용과도 관계가 있지만
붉은색이 벽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夏 여름

여름 풍경
전북 무주군 십디스마

기후(氣候)

여름은 사계절 가운데 두 번째 계절로 봄 다음이고 가을 전으로 가장 무더운 시기를 말한다. 절기로는 입하(立夏)부터 입추(立秋)까지이다. 천문학적으로는 하지(夏至)부터 추분(秋分)까지, 기상학적으로는 양력 6, 7, 8월을 북반구의 여름으로 본다. 음력으로는 5, 6, 7월이 되는데, 윤달이 들어서는 시기에 따라 한 달 정도 앞설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음력 4, 5, 6월이 여름에 해당한다. 계절의 진전은 기울어진 지축을 가진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공전(公轉)에 의해 결정된다.

자연(기상학적, 기후학적) 계절은 기상인자(위도, 해륙 분포, 지형, 고도)와 기상요소(기온, 기압, 바람, 강수량, 기단, 전선)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어떤 계절구분 요소나 인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를테면 기압을 기준으로 하면 초여름은 양력으로 6월 25일~7월 19일, 한여름은 7월 20일~8월 23일, 늦여름은 8월 24일~9월 7일이다. 음력 기준과는 약 1~2개월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반도내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면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기온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평균기온이 20~25도이며 하루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인 시기를 한여름으로, 최고기온이 25도 이상 30도 미만인 경우는 초여름이나 늦여름으로 분류한다. 겨울철의 지역적 기온 차이가 15도인 데에 비해 여름철에는 5도에 불과하다. 한반도 주변의 바다 수온은 8월에 20도에서 25도로 남쪽일수록 높다.

여름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기도 한다. 첫째, 초여름은 늦봄 다음 기간으로 장마가 오기 전 건기(乾期)가 나타나며 농작물을 포함한 모든 초본식물과 과실수, 산림이 울창하다. 기후학적으로 6월 24일 무렵에 장마가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장마는 약 한 달간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7월 24일 무렵에 끝나며, 남쪽일수록 시작과 종료가 빠르다. 둘째, 한여름은 장마 끝 무렵과 장마 이후의 소나기구름 형성과 집중호우가 출현하는 시기이다. 많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작물이 성장하는 데 최적기이다. 한여름의 후

반부는 장마 종료와 더불어 한반도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과 습도가 높고 국지성 소나기와 집중호우가 출현한다. 크게 발달한 소나기 구름에 동반되어 우박이 산간 지방에 자주 내린다. 이 시기의 후반부는 피서철이다. 셋째, 늦여름은 한여름의 무더위가 다소 누그러지며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또한 가을장마가 나타나기도 한다. 가을장마는 여름철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하던 한대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나타난다. 그 강도나 피해 정도는 여름철 장마에 비해 약하지만, 태풍과 연계하여 홍수를 유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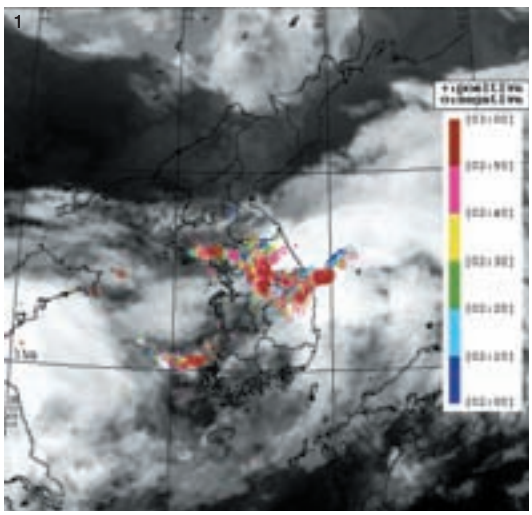
여름 기후를 특징짓는 대표적 현상으로 장마를 들 수 있으며, 1940년 이후 66년 동안 1942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나타났다. 강수량의 많고 적음으로 본 장마의 강도는 변화가 심하고 지속 기간 또한 변동성이 크지만 거의 해마다 찾아온다. 장마의 정의는 비가 연속적으로 오는 시기를 의미하여 비의 양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지만, 장마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은 궂은비는 물론 수재해(水災害)를 동시에 연상한다. 장마전선을 따라 집중호우, 우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홍수가 발생한다. 최근 방재와 예보 기술의 발달로 홍수에 의한 재산 피해는 증가하나 인명 손실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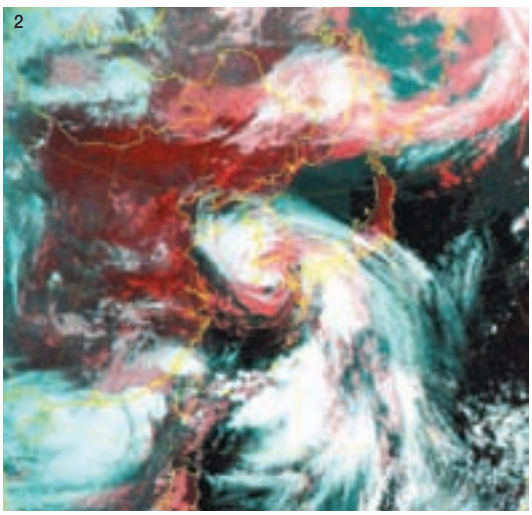
집중호우는 장마 후의 한여름 동안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여 발생한다. 반경 수십 킬로미터의 좁은 지역에 갑자기 많은 비가 오는 현상을 말하며, 때로는 우박(雨雹, hail)을 동반한다. 우박은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데, 특히 엽초(葉草)에 치명적이며 비닐하우스를 망가뜨리고, 큰 우박은 유리 온실을 파괴하기도 한다.

습도가 매우 높고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른 날 한밤의 최저기온이 26도 이상이 되면 취침에 적당한 20도를 크게 웃돌아 잠들기 어려운 열대야(熱帶夜)가 된다. 이는 대도시에서 뚜렷하며 원인은 지표면 구성 물질의 열용량 증가, 대기 오염 물질의 야간 복사 냉각 방해, 높은 습도를 들 수 있다. 또 최근에는 냉방기의 작동에 따른 실외 기온의 상승도 무시할 수 없다.

태풍은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한반도에 내습하며 한 해에 1~3개가 영향을 준다. 태풍은 열대 태평양에서 연중 발생하며 계절에 따라 진로가 변한다. 여름철 평균 진로는 오키나와, 대만, 제주 동쪽, 한반도 남동해안을 통과하는 것이 전형적이나 이동 경로의 변화가 심하다. 일반적으로 태풍이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경우 이에 동반된 호우 피해는 주로 태백산맥 동쪽 사면에 나타나며, 특히 강릉이나 속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반도의 지형과 연관되어 있다. 강풍 피해는 태풍 중심 부근에서 크게 나타난다. 한반도 여름철의 평년기온이 예년보다 낮은 해에 엘니뇨(El-Ninõ)가 많이 발생하였다. 엘니뇨가 발생하는 해의 태풍은 다소 강하며 기후학적인 경로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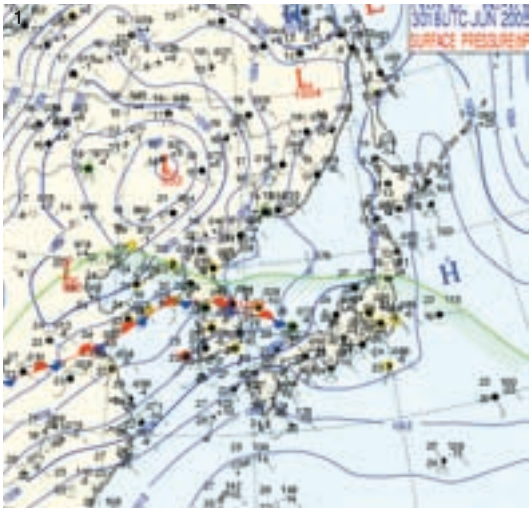
생물학적으로 볼 때 여름의 시기는 거의 모든 동식물의 최대 성장기이다. 특히 대단위 경작지가 필요한 농작물(벼, 옥수수, 콩)의 성숙기로서 이들의 성장에 미치는 기상요소인 일조량, 기온, 강수량이 여름철에는 최적의 상태이다. 최근 영농 기술과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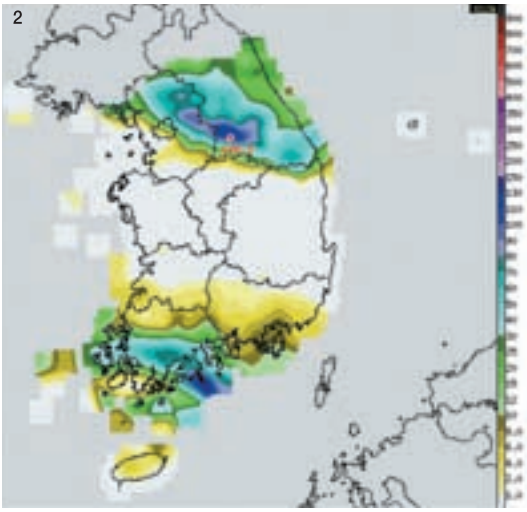




1 일기도(장마전선)
2 기상위성 사진(장마전선)
기상청

1 강수량 분포도
2 태풍 닐(Neil)의 위성사진
기상청





자재, 냉난방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계절적 요인을 극복한 농업으로 채소류와 화초의 온실(비닐하우스) 재배가 있다.

생물학적으로 만물이 최대 성숙기에 이르는 계절이지만, 그에 따르는 기상재해나 건강 악화 요인도 매우 많다.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평소의 운동, 적절한 음식물 섭취를 통한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의 주곡인 벼의 생육은 적산 온도에 크게 좌우된다. 적산 온도는 벼 생육 기간 중 하루평균기온이 0도 이상인 날의 평균기온을 합한 값으로 약 2,500~4,000도이다. 벼의 수확량은 관개시설의 확보로 가뭄 해가 오랜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한 해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리 시설의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잦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여름철 기상현상과 관련된 가축 피해는 주로 여름철 고온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뭄 해에 주로 발생하며 양계장이나 양돈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다.

냉방기 수요나 빙과류의 소비 물량은 여름철 기온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관련업체는 여름철 예보에 큰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여름 용품의 수요 예측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현재의 예보 정확도가 미진하다.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5~10년 후면 계절상품의 수요 예측에 사용될 것이다.

무더운 여름 동안 건강과 작업 능률의 저하를 고려하여 많은 기업이나 관공서가 하계휴가를 실시한다.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지속되며 직장인들의 재충전 기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인의 바캉스(휴가, vacance)는 옛 풍습의 재현일 수도 있다. 한여름[盛夏]인 7월에 초복과 중복이 있으며, 말복은 7월 말 또는 8월의 전반부에 있다. 일년 중 가장 더운 시기로서 '삼복더위'라는 말이 쓰인다. 복(伏)더위를 피해 바다나 계곡을 찾아 음식을 즐기는 풍습은 여전하다. 일부는 복더위를 극복하고자 삼계탕(蔘鷄湯)이나 보신탕[狗湯]을 즐긴다. 반면 세월과 더불어 복날을 금기시하여 혼인(婚姻), 파종(播種), 나들이를 삼가던 옛 풍습은 퇴색되었다.

여름철 강수량의 평균 분포는 7월 기준으로 중부지방 약 500밀리미터, 남부 지방 300밀리미터, 그리고 북한 지방 200밀리미터 정도이다. 산업사회 이후 문제가 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프레온, 메탄)의 대기 중 증가에 따른 지구 변화와 연관된 현상으로 하계 평균기온과 강수량 그리고 강수량의 시공간적 편차가 현재보다 증가하여 한반도의 여름 기후는 돌발적인 집중호우가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여름철 강수량은 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여름철의 높은 기온은 지표면의 지나친 증발을 유도하여 강수량이 부족한 경우 다른 철에 비하여 극심한 가뭄을 부를 수 있다. 제한된 가뭄의 경우 지하수로 극복할 수 있으나, 심한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인공 강우는 자연조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염수의 담수화는 경제성과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韓國의 氣候(金光植 外, 一志社, 1973), 장마季의 綜觀的 特性(李炳卨·金聖三, 韓國氣象學會誌19-2, 韓國氣象

學會, 1983), 장마전 건기의 존재와 대기순환에 관한 연구(변희룡,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한반도 강수량과 북반구 여름철 대기순환의 계절 변화(임규호, 한국기상학회지 28, 한국기상학회, 1992), 장마백서(기상청, 1995), 한국의 기후(이현영, 法文社, 2000), Interannual Variation of the annual precipitations at Seoul, 1771~1990(Gyu-Ho Lim and Hyun-Sook Jung, J. of Korean Meteor. Soc., Vol 28,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1992).

필자 | 임규호(林奎晧)

동물(動物)

여름 동물들은 겨울 추위를 피해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갔다가 봄이 되면 우리나라로 돌아와 여름 동안 번식을 하고, 다시 가을에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이동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여름 동물이란 주로 여름철새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지만, 겨울에 동면에 들었다가 봄에 짝짓기를 하고 여름에 새끼를 낳아 키우는 포유류나 양서류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겨울에는 잠을 자다가 봄에 깨어나 여름에 새끼를 낳아 키우는 여름철 포유류로 고슴도치와 오소리가 있다. '가시가 돋친 동물'이라는 뜻인 고슴도치는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도시지역의 삼림에도 종종 모습을 드러낸다. 주로 해충인 무척추동물들을 잡아먹지만 개구리, 파충류 새끼, 쥐, 도토리 같은 식물성 먹이도 잘 먹는 잡식성이다. 몸무게는 500그램에서 1킬로그램, 길이는 20~30센티미터인 소형 포유류이다. 등에 2센티미터의 가시가 돋아나 있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지만, 고슴도치의 천적인 올빼미 같은 맹금류나 여우는 고슴도치를 뒤집어 부드러운 배 부분을 파먹기도 한다. 번식기가 되면 고슴도치의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 이 침의 거품에는 기름이 함유되어 있다. 이 침을 몸에 뿌려 몸을 청결하게 한 후 짝짓기를 하는데, 약 한 달간의 임신기간을 지나 6~7월이 되면 새끼를 2~4마리 낳는다. 새끼들은 태어난 지 10일 정도 지나면 눈을 뜬다. 그리고 30~40일 지나면 젖을 떼고 어미를 따라 먹이를 찾아나선다. 고슴도치는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고목의 뿌리 틈새나 쓰러진 나무 밑에 둥지를 만드는데, 마른 잎 같은 것을 사용하여 둥지를 마감한 후 겨울잠을 잔다.

오소리는 우리나라 전국의 삼림지대에 분포하는 종이었지만, 요즘에는 밀렵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땅을 파지 못하는 고슴도치와는 달리 땅을 파서 보금자리를 만든다. 오소리는 물이 잘 빠지는 경사진 곳에 굴을 파는 지혜로운 동물이다. 땅을 파서 굴을 만든 후 마른 풀이나 잎 그리고 이끼 같은 것을 사용하여 보금자리를 꾸민다. 오소리는 사용한 이부자리를 말리는 지혜도 가진 동물이다. 사용하던 둥지 마감재가 눅눅해지면 굴의 입구 쪽으로 가져가 말리기도 한다. 오소리는 굴을 파고 10마리 이상씩 무리지어 산다. 봄이 되면 짝짓기를 하는데, 암컷 쟁탈전이 치열하여 먼저 짝을 맺은 수컷을 쫓아내고 암컷과 교미하기도 한다. 교미 후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더라도 자궁에 착상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여름에 1~6마리의 새끼를 낳아 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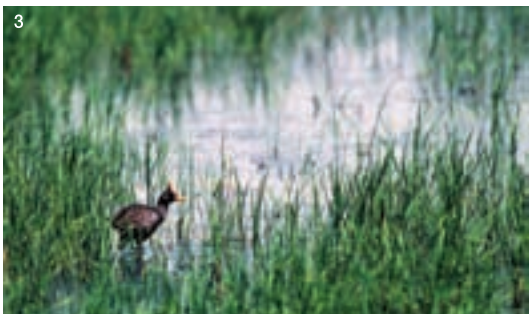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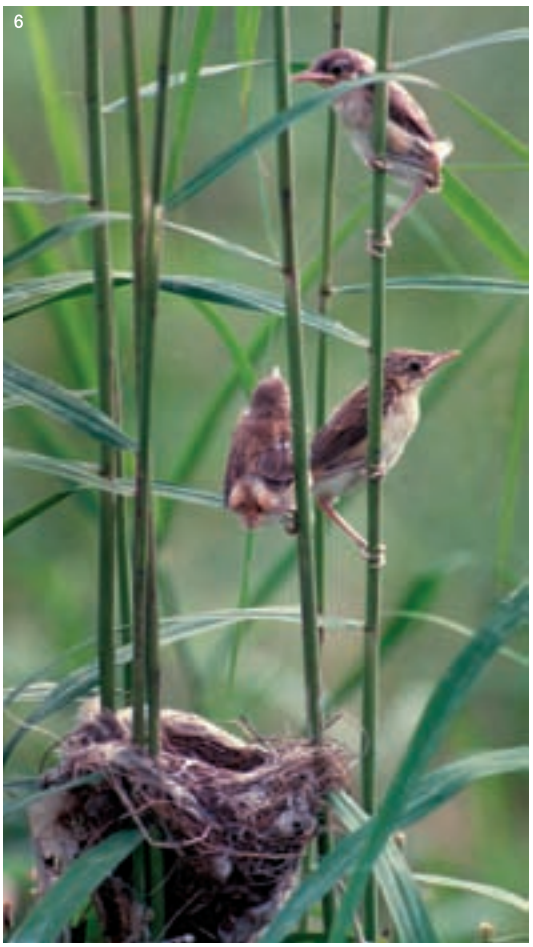




1 고슴도치
2 오소리
김연수

1 뻐꾸기
2 쇠물닭
3 뜸북이
4 물총새
5 백로
6 개개비
김연수





다. 갓 태어난 새끼는 100그램도 되지 않는다. 2주면 눈을 뜨고, 3개월이 지나면 젖을 떼고 어미를 따라다니며 먹이 찾는 법을 배운다. 성체의 몸길이는 50~70센티미터, 꼬리길이는 15센티미터, 그리고 몸무게는 10킬로그램 정도이다. 오소리는 너구리와 같은 소형 포유동물, 민물고기, 개구리와 뱀과 같은 양서류나 파충류를 잡아먹으며,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먹기도 한다. 오소리는 위기에 직면하면 죽은 척 위장하는 의사(擬死) 행동을 잘하는 동물이다. 또 겨울이 오면 동면에 들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먹이를 먹어 동면에 대비한다. 이때 몸무게는 평소의 1.5배 이상 증가하며, 11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겨울잠을 잔다.

여름철새 중 대표적인 새는 제비, 뻐꾸기, 백로, 물총새, 뜸부기, 개개비, 쇠물닭이다. 제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새로, 봄에 우리나라에 와서 번식을 하고 가을에 떠나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이다. 진흙과 짚으로 만든 제비둥지는 윗부분이 개방되어 있어 뱀과 같은 포식자들에게 매우 취약하지만, 실제 큰 문제없이 번식할 수 있는 것은 둥지를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농가 처마 밑이나 마루 위에 틀어 사람들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제비는 90킬로미터의 속도로 공중을 날면서 곤충을 잡아먹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물 찬 제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물을 먹을 때도 날면서 먹는다. 번식기는 4월에서 8월 초까지이고 4~7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알을 품은 지 2주가 지나면 새끼를 부화한다. 하지만 요즘 농촌의 가옥 구조가 많이 바뀌어 제비가 번식할 수 있는 전통 농가가 줄어들고, 농약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다.

뻐꾸기는 여름에 번식을 하고 가을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로 떠나는 여름철새이다. 뻐꾸기란 이름은 "뻐꾹-, 뻐꾹-" 하고 우는 울음소리에 이를 명사화하는 '-이'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졌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기생자로, 둥지를 직접 만들지 않는다. 생물이 기생하는 대상으로 삼는 동물을 말하는 숙주(宿主)인 붉은머리오목눈이(일명: 뱁새)와 개개비 같은 숙주 둥지에 알을 낳아 그들에게 새끼를 키우게 하는 얌체이다. 아름다운 울음소리와는 달리, 뻐꾸기 새끼는 부화하자마자 숙주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혼자 숙주로부터 먹이를 받아먹는다. 뻐꾸기는 나방 같은 곤충을 즐겨먹는다.

백로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번식하고 가을에 떠나는 여름철새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백로류는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노랑부리백로, 흑로, 왜가리, 황로가 있다. 논이나 하천이 있는 삼림지역에 집단으로 둥지를 짓는다. 2~4개의 알을 낳고, 포란한 지 25일이면 부화하는데, 부화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둥지를 떠나는 연습을 한다. 물고기와 양서류를 즐겨먹으며, 뱀이나 쥐 같은 소형 포유류도 잡아먹는다.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말도 있듯이, 예로부터 백로는 고고한 인격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한다.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도시의 하천에서 겨울을 나는 백로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물총새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번식하는 여름새로 하천이나 저수지 같은 물가에서 산다. 18센티미터의 작은 새로, 등은 화려한 푸른 비취색이며 배 부분은 붉은색을 띤 밤색의 아름다운 새이다. 둥지는 물가 흙 언덕에 구멍을 파서 짓는다. 영어이름 'Kingfish'에서 알 수 있듯이, 몸집에 비해 길고 두툼한 부리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채는 능숙한 낚시꾼이다.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은 먹음직한 물고기를 잡아 암컷에게 선물하며 구애하는데, 선물이 마음에 들면 암컷이 이것을 받아먹고 수컷과 교미한다. 알은 4~7개 정도 낳으며, 포란한 지 3주가 지나면 부화하고, 부화한 지 3~4주 지나면 둥지를 떠나 낚시하는 법을 배운다. 가을이 되면 필리핀이나 인도차이나반도 같은 곳으로 가서 겨울을 난다.

대개 7~8월에는 뱀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풀밭이나 삼림을 지날 때 뱀에 물릴 확률이 높다. 그러나 모든 뱀이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륙유혈목이나 능구렁이는 독이 없고, 유혈목이나 살모사는 독을 가지고 있다. 뱀의 천적은 백로류나 올빼미류, 수리류이지만, 가장 무서운 천적은 인간이다. 뱀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농약 사용과 보신이나 약용으로 마구잡이 포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구렁이와 까치살모사를 보호야생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참고문헌 |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유정칠 외, 지성사, 2001).

필자 | 유정칠(劉正七)

생업(生業)

여름은 연중 여러 농작물이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계절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농작물을 관리한다. 그런 다음 가을철 수확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여름철은 봄철의 파종기와 가을철의 수확기를 연결하는 배육기(培育期)라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어촌의 여름철 어로활동은 농사일이 비교적 한가할 때 틈틈이 행해진다.

우리의 전통적 역법은 태양태음력이어서 음력에 양력인 24절기를 절충하여 사용한다. 24절기의 이름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여름은 입하(立夏) 이후부터 대서(大暑)까지이며, 이는 음력으로 4월부터 6월까지이다. 하지만 실제로 음력 7월까지 이어진다.

여름에는 연중 기온이 가장 높아서 무더위가 지속되며 장마가 이어진다. 농작물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가장 잘 자란다. 농작물이 자라는 데에는 물과 거름이 필요하며, 김매기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름

철에는 밭작물 가운데 상당수를 수확한다. 논에 파종한 보리나 밀을 수확한 후에 모내기를 한다. 밭에서는 보리나 밀을 수확한 다음 다시 추곡을 파종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름철 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모내기, 물대기, 거름주기, 김매기, 수확, 파종이다.

우리의 옛 농사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벼농사이다. 16세기 무렵까지는 볍씨를 곧바로 논에 뿌리는 직파를 했고, 17세기부터 모내기법(이앙법)이 남부지역에서 유행하여 차츰 북상하였다. 직파를 하면 봄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여름에는 주로 김매기나 물대기 같은 일을 하지만, 모내기법을 채택하면 여름에 모내기, 김매기, 물대기 등 논농사의 중요한 일을 대부분 처리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모내기는 다른 일보다 중요하다. 모내기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사정이 좋지 않으면 모내기를 제때에 할 수 없고, 논에 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 물이 차츰 줄게 된다. 따라서 모내기 준비가 되면 재빨리 모내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물을 댈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물이 없으면 그 해 모내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내기를 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는 전통이 생겨났다. 가구수에 비해 논의 면적이 넓은 평야지대(전라도, 충청남도, 경기도)에서는 두레를 결성하여 모내기를 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품앗이로 모내기를 했다. 두레는 한 가구당 한 명씩 일꾼이 의무적으로 나와서 마을의 모든 논에 모내기를 해주는 것이고, 품앗이는 마음 맞는 사람이나 이웃끼리 5~10명이 모여서 윤번제로 일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레와 품앗이 방식은 논농사에서 중


1


2


3


4

1 모찌기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이창호

2 모내기
경남 고성군 하일면 이창호

3 김매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4 물대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노동에 해당하는 김매기 때에도 적용된다. 논에서 김매는 것을 '논매기'라고 하는데, 논매기는 두세 차례 한다. 초벌매기, 두벌매기, 세벌매기로 진행되는 논매기가 끝나면 수확할 때까지 힘든 일은 없다. 논매기를 할 때 논호미를 사용하여 잡초를 뽑아 없애고, 논바닥의 흙을 뒤집어서 토양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논매기는 무더운 뙤약볕 아래 벼잎이 얼굴을 찌르는 상황에서 밭호미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논호미로 땅을 깊이 파서 뒤집는 것이기에 무척 힘든 일이다. 그래서 두레로 논매기를 할 때면 '논매기소리'를 하면서 신나게 풍물을 치는데, 이것은 힘든 논매기의 고통을 잊게 하는 문화적 장치였다.

여름철 논농사에서 또 중요한 일은 논물을 보는 것이다. 벼는 본래 수성(水性) 식물이므로 물이 있어야 잘 자란다. 논에는 늘 일정한 깊이의 물을 대주어야 하는데, 물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보(洑)나 저수지를 만들어 보계나 저수지계를 결성하고 계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물을 대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물을 댈 때 중요한 기준은 형평성이다. 전체 논 면적에 고루 물을 댈 수 있도록 순번을 정하든지, 구역을 나누어서 시간제로 물을 대는 것을 보계나 저수지계 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특정 성씨가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또한 가뭄이 극심해지면 몇 개 마을이 연합하여 지역 단위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전통적으로 밭농사의 주된 작물은 보리, 밀, 콩, 조였다. 이 가운데 보리와 밀은 하지(夏至, 6월 21일경) 직전에 수확을 한다. 이와 비슷한 때에 수확하는 것으로는 감자, 마늘, 대마가 있다. 기타 밭작물은 모두 여름철에 왕성하게 자란다. 왕성하게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옥수수는 여름철에 수확하고, 고추도 여름부터 수확에 들어간다. 그 밖에 조, 콩, 수수, 팥, 기장, 참깨, 메밀, 고구마는 여름에 왕성하게 자라서 가을에 수확한다. 이 중에 메밀은 대표적인 대파작물이다. 메밀은 가뭄이 극심하여 논에 모내기를 하지 못할 때나 밭에 어떤 밭작물도 파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작물이다. "메밀은 기왓장도 뚫고 올라온다."라는 옛말이 있듯, 메밀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자랄 정도로 생장력이 왕성한 작물이다.

여름철 밭농사에서 가장 지루하고 힘든 일은 김매기이다. 그래서 밭농사를 잡초와 치르는 싸움이라고도 한다. 경북 안동에서 전통적으로 여름에 행한 밭작물의 김매기 횟수를 보면, 목화가 8회 정도로 가장 많으며, 조는 5회, 기장은 3회이고, 그 밖에 콩, 고추, 수수, 팥과 같은 작물은 2회 정도 김매기를 하였다. 조선 초기의 농서 『농사직설(農事直說)』에서 "옛말에 호미 끝에 백 가지 곡식이 열린다."라는 표현이나 "곡식의 성장은 오직 호미로 김매는 공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은 모두 김매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어촌에서는 예부터 농어업을 겸하였기에, 여름에 농사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어로와 채집활동을 하였다. 어로와 채집활동은 해류의 흐름, 온도, 수심의 차이가 있는 바다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농사일은 사람이 파종을 하여 세심하게 가꾸어 수확하는 철저히 인공적인 것인 반면에, 어로활동은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약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로활동은 농업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과 같이 자연환경 조건에 따라서 불규칙한 모습을 보인다.

동해안에서는 여름에 천초, 우뭇가사리, 해초, 성게, 열합, 멍게, 굴, 톳, 바지락 등을 채취하고 오징어, 광어, 고등어, 가자미 등을 주로 잡았다. 남해안에서는 여름에 넙치, 가오리, 노래미, 장어, 돔, 새우, 농어 등을 많이 잡았다. 서해안에서는 멸치와 까나리를 많이 잡았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하는 고기잡이는 주로 남자들이 했고, 해변에서 하는 채집활동은 여자들이 했다. 또한 여름에는 전통적으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으며, 20세기에 와서 천일염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 農事直說,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朝鮮前期農業經濟史(李鎬澈, 한길사, 1986), 韓國農器具攷(金光彦,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6), 朝鮮後期農業史硏究2(金容燮, 一潮閣, 1990), 朝鮮後期社會 農民의 일과 餘暇(金宅圭, 민속연구1, 安東大學校 民俗學硏究所, 1991), 韓國漁村의 低發展과 適應(全京秀, 집문당, 1992), 韓國의 洛島民俗誌(韓相福·全京秀, 집문당, 1992), 어민의 환경인지와 적응전략(이경미,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농경생활의 문화읽기(배영동, 민속원, 2000),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권삼문, 民俗苑, 2001), 조선후기 답작형 두레의 출현 배경(배영동, 韓國의 農耕文化6, 京畿大學校博物館, 2003).
필자 | 배영동(裵永東)

세시풍속(歲時風俗)

세시풍속은 사람들이 제때 철을 인식하는 철갈이 민속이다. 여름철이 오면 여름에 맞게 철의 바뀜에 따라 주기적으로 때맞춰 살아가려는 삶의 다양한 적응이다. 때에 어둡지 않고 철에 맞게 살아가려면 우주의 변화인 천상(天象)과 기후의 변화인 기상(氣象), 계절적 변화를 지시하는 물상(物象)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세시(歲時)의 기본이며 철을 아는 삶이다. 이에 반해 무시(無時)는 때를 무시한 철없는 삶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천체력, 생업력, 의례력 등은 때를 가르쳐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복잡한 현대인의 삶에서 천체와 계절 변화를 받아들이는 생활상의 주기적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름철은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이다. 속담에 "오뉴월 장마에 돌도 큰다."라고 할 정도로 성장의례와 관련된 풍속들로 이루어지며, 하절기 건강과 관련된 풍습들이 많다. 춘경추수(春耕秋收)와 하장동장(夏長冬藏)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 벗어난 현대에도 여전히 그 의미가 깊다. 춘경하운(春耕夏耘)은 봄과 여름이 우리 삶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씨 뿌리고 김매는 고됨은 수확의 기쁨을 담보하기에 한여름 땀 흘리는 노작은 여름철 성장의례의 핵심이다. 하선동력(夏扇冬曆)과 같이 여름철 부채와 겨울철 달력 나누기는 생색내기에 제격이었고, 하장동저(夏醬冬菹)의 풍속은 여전히 여름과 겨울의 대응적 세시로 지속된다.

여름에는 물이 필요하지만, 홍수가 나면 안된다. 이에 적절히 비를 뿌려 성장을 도와주기 바라는 기원형 세시의례가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탈춤으로 탈[厄]을 막고 부족한 물을 바라는 뜻에서 날이 가물면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기도 한다.

여름 명절에는 4월 초파일[初八日], 5월 단오(端午), 6월 유두(流頭)와 삼복(三伏)이 있다. 4월 초파일은 불교 명절로 굳이 여름철 농경의례라 할 수 없으나, 이때는 일손을 놓고 휴식을 취하는데 이른바 노는 날로 농번기의 한 단락이라고 하겠다. 태백준령의 산간마을에서는 삼짇날, 단오 등의 명절과 더불어 사월 초파일을 택하여 산신제의 일종인 산메기를 하면서 가족들이 한데 모이기도 한다. 5월에는 단오(수릿날)가 있다. 곧 크고 높고 신성한 의미의 태양절이다. 양기(陽氣)가 충만한 때이므로 강릉단오제를 비롯한 단오명절에 복을 빌고 건강을 위해 그네뛰기와 씨름 같은 놀이도 다양하게 벌인다. 6월에는 유두와 삼복이 있다. 더위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건강한 여름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음력 6월 15일 유두는 예전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가에서 머리를 감았다 하여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이라 한 것의 준말이다. 요즘은 강가나 계곡에 탁족(濯足), 피서, 천렵(川獵)을 간다. 유두조, 유두콩, 유두벼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이른 곡물을 내다 팔고, 이 날 씨를 뿌리고 남은 곡식으로 떡을 해먹으며 "씨종자 해 먹는다."라고 한다. 강우량이 많아지면 "유두물을 지운다."라고 말하는데, 정동유(鄭東愈)는 『주영편(晝永編)』에서 유두를 우리의 고유한 풍속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夏至) 뒤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初伏), 넷째 경일을 중복(中伏), 입추(立秋) 후 첫째 경일을 말복(末伏)이라 하여 삼복으로 친다. 이때는 '복달임(복다림)'이라 하여 삼계탕(蔘鷄湯), 개장국[狗醬] 등의 음식을 먹기도 한다.

삼복에 허리 아픈 사람이 삼베옷을 입고 바닷물을 적신 다음, 모래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요통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날을 전후하여 유명한 약수터를 찾아가는 것도 유행이다. 복(伏) 중에 천둥이 많이 치면 머루나 다래와 같은 산열매가 흉년이고, 천둥이 치지 않으면 풍년이라 점친다.

여름철 세시풍속은 복(福)을 바라는 것, 풍년을 기원하는 것, 건강을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복(祈福)과 유희(遊戲) 행사로는 봉선화물들이기[鳳仙花染指], 산메기, 초파일 탑돌이, 탈춤, 단오고사(端午告祀), 창포물에 머리감기, 창포비녀[菖蒲簪] 꽂기, 천중부적(天中符籍) 지니기, 유두날 목욕하기, 삼복날 약수물 먹기, 삼계탕과 개장국 먹기 등이 있다.

여름철 복을 비는 풍속에는 개인적인 것으로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풍속이 있다. 4월이 되면 어린 여자아이들은 봉선화 꽃잎으로 손톱에 물을 들인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염지갑(染指甲)'이라 하였다. 봉선화를 『야채박록(野菜博錄)』에는 '염지갑화'라 불렀고,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에는 '지갑초(指甲草)' 또는 '투골초(透骨草)'라 하였는데, 이것을 백반과 섞어 짓찧은 것을 손톱 위

에 올려놓고 피마자나 봉선화 잎으로 묶어 하루가 지나면 손톱이 빨간색으로 변한다. 손톱을 물들이는 것은 미용과도 관계가 있지만, 붉은색이 벽사(辟邪)의 의미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산간마을에서는 4월 초파일날 마을 앞산에 올라가 산메기를 하기도 한다. 산메기는 산신제의 일종으로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형과 여성 혼자 지내는 개인형이 있다. 가족형 산메기는 개방형으로 멀리 나가 있는 가족까지 함께 참가하고 독경쟁이를 불러 고축(告祝)을 하기도 한다. 개인형 산메기는 비의형태로 전승되는데, '산'이라는 이름의 새끼줄이나 삼베로 만든 금줄을 소나무에 걸거나 양쪽에 걸쳐놓고 가정의 안녕과 가축 번성을 기원한다. 전라도 해안에서는 선주(船主)들이 초파일날 배에 등을 달거나 횃불을 피워 풍어(豊漁)를 빌기도 한다.

단옷날 창포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수복(壽福)'이란 글씨를 새기고 끝에 연지를 발라 머리에 꽂으면 두통을 막고 액을 없앤다고 한다. 색실로 창포뿌리를 꿰어 댕기를 만들어 달고 다니며, 창포뿌리를 파 또는 약쑥과 함께 삶아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지고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물에 띄워 보내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한다. 단옷날 물맞이라 하여 신경통이 있는 사람은 계곡물을 맞으러 간다.

집단적인 기복행사로 초파일에 행하는 탑돌이는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가한다. 오대산 월정사의 탑돌이는 유명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데, 초파일제가 끝나면 승려와 신도들이 함께 불탑을 돌며 부처님께 소원을 빈다. 탑돌이는 처음에는 범종, 북, 운판, 목어만 쓰다가 삼현육각을 더하고 백팔정진가도 부르게 되었다. 탑돌이는 먼저 범패를 목청 높여 부르는 승려가 앞에 서고 다음에 목탁과 징을 든 승려가 반주를 하면, 다른 승려들은 불경을 외우며 탑을 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초파일날 산대놀이를 하고, 불꽃놀이의 일종인 줄불놀이를 한다.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과 농경행사는 써레씻이, 영갈, 보제(洑祭), 태종우(太宗雨), 농신제(農神祭), 팥죽먹기가 있다. 전북에서는 4월 초여드렛날 이전에 비가 오면 그 해 가뭄이 든다고 점친다. 옛 기록에 따라 농가에서는 5월 10일 비가 오기를 고대한다. 이 날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이 비를 '태종우'라 부른다. 조선 3대 임금인 태종이 가뭄으로 흉년이 되자 임종시에, "상제에게 비를 청해 백성을 구제하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운명한 뒤부터 이 날이 되면 소나기가 내린다는 것이다. 여름철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 지역에서는 잘 알려진 폭포나 용소에 가서 기우제를 지낸다. 농가에서는 복날에 농사를 짓는 대주가 백설기나 뭉숭이 시루떡


1


2


3

1 **그네뛰기** 국가기록원
2 **씨름** 국가기록원
3 **물놀이** 국립민속박물관

인 '복떡'을 차려놓고 풍년기원 논굿을 한다. 이 날 호남 지방에서는 "유두할아버지가 온다."며 떡을 해서 논가에 놓는다.

영갈은 농촌의 생산 풍속으로 주로 강원도 사례로 나타나는데 소만(小滿)이 들어 있는 4월 중에 행한다. '갈꺾기'를 하는 것은 퇴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소만 때 갈 꺾으라는 동네어른들의 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영갈'이라 한다. 논물가두기를 위한 보제는 초파일 오시(午時)에 행한다. 제주도에서는 망종(芒種)이 일찍 들고 늦게 드는 것으로 보리수확의 풍흉을 점친다. 6월에는 좁쌀 파종을 위해 밭밟음을 하는데, 제석할망에게 제사를 지내 풍년을 기원한다. 경북에서는 모심기를 할 때 모가 잘 서고 나락농사가 잘되라고 일부러 찰밥을 먹기도 한다.

또한 삼복날 경북 지방에서는 '복제(伏祭)'라 하여 참외가 잘되라는 뜻으로 초복에는 국수, 중복에는 수제비, 말복에는 감주와 메를 차려놓고 제를 지내고, '충제(蟲祭)'라 하여 벌레구제를 위해 전을 지져 기름 냄새를 풍긴다.

여름철 건강을 위한 것으로 단옷날 쑥떡먹기, 약쑥베기, 유두날 유두면(流頭麵), 삼복날 삼계탕, 개장국, 보리밥, 미나리와 파강회가 있다. 단옷날 아침 식전에 쑥을 뜯어 말려놓았다가 여름철 배앓이를 할 경우 다려서 약으로 먹으면 효과를 본다고 한다. 해뜨기 전에 뜯어야 약효가 있다고 하며, 부인들이 출산 후에 몸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쑥을 태워 김을 쐬기도 한다.

유두에는 밀로 만든 유두국수(유두면)를 먹고 밀개떡과 밀수제비를 해서 나누어 먹는다. 복날에는 약병아리에 찹쌀과 인삼을 넣은 삼계탕을 보신용으로 먹거나, 수박을 시원하게 해서 먹고, 개장국을 이열치열로 먹는다. 이것을 복달임이라 한다. 한편 유두날을 '닭 잡아먹는 날'이라고도 한다. 여름에는 보신을 위해 소[牛]보다 개를 선호하는데, 여름 소는 '풀소'라 하여 풀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보양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제주도에서는 단오 무렵 보리를 갈아 만든 미숫가루인 '개역'을 먹는다. 이 밖에 4월에 즐긴 시절음식으로 검은콩[蒸黑豆], 어채(魚菜), 어만두(魚鰻頭)가 있고, 5월에는 각서(角黍), 수리취떡, 어알탕, 앵두편[櫻桃片], 앵두화채[櫻桃花菜]가 있으며, 6월에는 편수(片水), 상화병(霜花餠), 어죽(魚粥), 수단(水團), 수교위[水角兒], 연병(連餠)이 있다.

4월에는 24절기상 입하(立夏)와 소만(小滿)이 들어 있다. 초순에 논갈이를 하는데 무논은 두벌 갈며, 모래 논은 세벌갈이를 한 뒤 써레질을 하고 모를 심는다. 모심기는 대체로 소만을 전후하여 소위 "일공론, 모공론한다."며 서로 상의하여 깊은 못자리부터 모심기를 한다. 이때 "모줄은 앞뒷줄을 다툰다."라고 할 만큼 먼저 심은 곳과 나중이 차이가 나므로 먼저 모심기를 하려고 한다. 초벌매기, 곧 '아이짐'은 음력 3월 20일 무렵부터 시작하고, '두벌짐'은 약 보름 후, '세벌짐'은 말복 10일 전에 매게 된다. 하순경에는 담배를 심으며, 누에고치와 이른 보리를 거둔다. 그믐날에는 '써레쓰시미'를 하고, '찰뭉생이떡'을 해서 서로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보낸다. 어촌에서는 전갱이와 청어를 잡고 톳을 채취한다.

5월이 되면 망종(芒種)과 하지(夏至)가 드는데, 농가에서는 감자밭과 담배밭도 매고 늦은 논에는 아이짐을 맨다. 모심기는 하지가 '모의 환갑'이라 하여 늦어도 이때까지는 모심기를 한다. 첫 감자도 하지 때 캐는데, 작황을 보기 위해 캐는 것을 "감자 밑본다."라고 하며, 그러면 감자가 잘 영근다고 한다. 중순에는 밀과 수수를 거두어 마당질을 하고 마늘도 수확한다. 어촌에서는 꽁치, 도미, 멸치, 실치 등을 잡고 바지락을 캔다.

6월에는 소서(小暑)와 대서(大暑)가 들어 있는데, 더워도 그믐 무렵에 두벌짐을 매고 감자도 캔다. 장마가 거의 끝남에 따라 병충해 방지 약제를 뿌리고 메밀, 조, 팥을 파종한다. 어촌에서는 가자미, 고등어, 농어, 새우, 오징어 등을 잡는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歲時風俗集(방종현, 硏學社, 1946), 韓國의 歲時風俗(崔常壽, 弘人文化社, 1960), 한국세시풍속의 연구(이두현,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인문과학계1, 문교부, 1970), 風俗歌詞集(李石來 譯, 新丘文化社, 1974),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유만공 원저, 임기중 역주, 집문당, 1993),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열두달 민속이야기(리정순외, 근로단체출판사, 2002),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장정룡(張正龍)

식물(植物)

세시 절기에 따르면 여름은 입하(양력 5월 5일 무렵)부터 대서(양력 7월 23일 무렵)까지로, 이 시기에 피는 꽃을 여름꽃이라고 한다. 여름은 번창과 무성함을 나타내는 계절이듯 사계절 중 가장 많은 종류의 꽃이 핀다. 요즈음은 기상이변 때문인지 갑자기 더워지면서 꽃이 시기에 맞춰 피기보다는 한꺼번에 피는 경향이 있다.

함박꽃나무(*Magnolia sieboldii K. Koch.*)는 전국의 산지에서 자라는 나무이다. 목련꽃 비슷한 야생화라 하여 산목련, 또는 꽃이 나무에 핀 난(蘭)꽃 같다 하여 산목란이라 하며, 현재 북한의 국화(國花)이기도 하다. 잎은 어긋나고 긴알꼴형이며, 꽃은 6월 무렵에 흰색으로 핀다. 수술과 암술은 많으며, 수술은 자줏빛이고, 결실기는 9~10월이다. 용도는 관상용 또는 약재로 이용하는데, 꽃은 폐렴과 종기에 효능이 있다.

인동(*Lonicera japonica Thunb.*)은 산과 들에서 자라는 반상록성 덩굴식물로 잎은 마주나고 긴알꼴형이며, 꽃은 6~7월 무렵 흰색으로 피어 차츰 노랑색으로 변한다. 화관은 입술 모양이며 끝이 다섯 갈래로 갈라지고 열매는 장과(漿果)로서 둥글고 검다. 영어이름이 'honeysuckle'이라고 할 정도로 꿀이 많은 밀원용 식물이다. 한방에서는 잎과 줄기를 인동(忍冬), 꽃봉오리를 금은화라고 하여 종기, 내부 장기 염증, 열독으로 인한 피부조직 괴사, 초기 유선염, 감기 해열과 전신통 제거에 사용한다. 민간에서는 해독작용과 이뇨작용이 있다고 하여 차나 술을 만들기도 한다.

봄에 어린잎을 넘나물이라 하여 먹으면 한 해의 근심을 덜 수 있다는 원추리(*Hemerocallis fulva* L.)는 꽃이 하루만 피고 시들어 버린다는 뜻에서 'Day lily'라고 한다. 전국 각처의 산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뿌리에 방추형덩이가 있으며 잎은 길게 골이 져 있다. 꽃은 6~7월에 피고 향기가 있으며 화관은 주황색으로 종모양이고 꽃잎 6장, 암술 1개, 수술 6개이다.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재배하거나 어린잎과 꽃봉오리는 식용하고 뿌리는 훤초근(萱草根)이라 하여 이뇨, 지혈, 소염제로 사용한다.

소설이나 동요, 유행가, 드라마의 제목으로도 사용된 바 있는 찔레꽃(*Rosa multiflora Thunb.*)은 우리의 정서가 묻어 있는 향토색 짙은 다년생 떨기나무이다. 줄기에 가시가 있고 잎은 어긋나며 깃꼴복엽이고 꽃은 5월에 핀다. 꽃에 향기가 있으며, 백색 또는 연한 홍색이다. 둥근 적색 열매는 영실(營實)이라 하여 부종, 수종, 방광염, 야뇨증, 불면증, 건망증에 약용한다. 또한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 울타리용뿐만 아니라 화장수와 향수로 이용하며, 어린 새순은 식용한다.

단옷날 머리 감는 데 사용하는 창포와 혼돈되는 꽃창포(*Iris ensata Thunb. var. spontanea Nakai*)는 전국의 습지에 자라는 붓꽃 종류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잎은 붓꽃과 비슷하나 중맥이 뚜렷한 점이 다르며, 꽃은 6~7월에 짙은 홍자색으로 핀다. 외화피는 안쪽에 노란색 줄무늬가 있으며, 내화피는 위로 서고 열매는 삭과(蒴果)이다. 뿌리가 튼튼하여 습기가 많은 저수지, 연못 주변의 토양 보호용, 경관 조성용으로 효과가 있다. 뿌리와 줄기를 옥선화라 하여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부팽만증, 복통에 효력이 있다. 또한 이뇨작용으로 전신이 붓는 증상을 해소하고 민간에서는 짓찧어 타박상에 붙인다.

소서(小暑)와 대서(大暑)에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식물들이 꽃을 피운다. 더위지기(*Artemisia iwayomogi*)는 산기슭의 양지쪽이나 들에서 자라는 식물로, 인진 또는 부덕쑥이라고도 한다. 줄기의 밑부분은 나무처럼 딱딱하고 잎은 두 번 깃털 모양으로 갈라지며 솜털이 빽빽하게 난다. 꽃은 7~8월에 황색의 통모양 꽃들이 모인 머리모양의 꽃차례가 총상꼴을 이룬다. 잎은 이뇨, 이담, 간염, 황달에 효능이 있고, 줄기와 잎은 더위를 이기는 약재로 사용된다.

엄마에게 이로운 풀이라는 뜻의 익모초(益母草, *Leonurus sibiricus* L.)는 영어이름도 'Siberian mother wort'라 한다. 각처의 텃밭이나 길가의 습기 있는 풀밭에 자라는 2년 초(草)로서 줄기는 사각형이고 백색 털이 있다. 잎은 회록색이 마주나고 줄기에 붙은 잎은 세 갈래로 갈라지며 갈래조각이 다시 두세 갈래로 갈라진다. 꽃은 연한 홍자색으로 7~8월에 잎겨드랑이에 층층으로 핀다. 꽃받침은 종형이고 다섯 갈래이며 화관은 입술모양이다. 밀원용, 방향성 식물이며, 식물전체를 말려 산후통, 생리통, 이뇨, 습진, 생리불순에 이용한다.

꽃잎 끝이 톱니처럼 갈라진 모양이 조선시대 장돌뱅이들이 머리에 쓰던 패랭이를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패랭이꽃(*Dianthus chinensis* L.)은 전국 각처의 들에 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에 마디가 발달하고, 잎은 마주나며, 좁은 피침형이고 식물체 전체가 분백색이다. 6~8월에 진분홍색 꽃이 피며 꽃받침통은 다섯 갈래이고 꽃잎 5장, 수술 10개, 열매는 삭과이다. 전체를 그늘에 말린 것을 구맥(瞿麥)이라 하며 이뇨, 통경 및 소염 등에 약재로 이용한다.

황적색 꽃잎에 호랑이 무늬 같은 검은 자색 반점이 있어 호랑나리로 불리는 참나리(*Lilium lancifolium Thunb.*)는 꽃이 아름다워서 집 뜰 꽃밭이나 큰 화분에 심는 식물이다. 'tiger lily'라고 하는 여러해살이풀로서 줄기는 자갈색을 띠며 잎겨드랑이에 무성번식을 할 수 있는 짙은 갈색의 둥근 주아(珠芽)가 있다. 잎은 어긋나며 피침형이고, 꽃은 7~8월에 피며 꽃잎은 6장으로 뒤로 많이 젖혀지고 수술은 6개, 꽃밥은 검붉은색이다. 한방과 민간에서 자양, 강장, 건위, 진해작용, 진정작용에 약용하거나 어린잎과 비늘줄기는 식용한다.

한여름에 적자색 꽃이 촘촘히 피는 싸리나무(*Lespedeza bicolor TURCZ.*)는 과거 우리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전국의 산과 들에 흔한 여러해살이 떨기나무로서 줄기는 많이 갈라지고 잎은 어긋나며 3장의 작은 잎으로 된 겹잎이고 턱잎이 있다. 꽃은 7~8월에 피고 꽃잎은 5장이 나비모양을 이룬다. 콩열매는 10월에 익는다. 화력이 좋은 땔감으로 싸리꿀의 밀원식물이기도 하다. 싸리비, 소쿠리, 바구니, 삼태기, 울타리와 사립문, 껍질로는 밧줄, 미투리, 모자와 우장을 만들고, 윷이나 교육용 회초리, 어린잎은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이용한다. 젓가락 대용 또는 곶감을 꿰는 꼬챙이용,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껍질을 제지원료로 이용하였다. 한방에서는 잎과 가지를 해열, 해독제, 신장, 임질, 동맥경화의 예방약으로 이용한다. 싸리씨를 호지자(胡枝子), 뿌리를 호지자근(胡枝子根)이라 하여 약재로 썼다. 가지의 즙은 버짐에 효능이 있다.

중부 이남의 늪이나 연못에 자라는 수련(*Nympaea tetragona var. angusta Casp.*)은 여러해살이풀로 꽃이 낮에 피었다가 밤에 오므라들어 잠자는 연꽃[睡蓮]이라는 뜻을 가진다. 연봉초 또는 오시(午時, 낮 11~12시)에 핀다고 하여 자오련(子午蓮)이라고 한다. 땅속줄기는 굵고 짧으며 잎은 둥근 말발굽 모양으로 수면 위에 수평으로 퍼진다. 꽃은 7~8월에 피며 흰색, 붉은색, 분홍색 등 다양하고 암술머리는 납작


1


2


3

1 베롱나무
2 백도라지
3 노랑꽃창포
심디스마

한 공모양이다. 열매는 9~10월에 결실한다. 요즈음 조경용으로 항아리에 심어 재배하기도 하며, 한방에서는 더위먹은 데 또는 술독제거 등에 사용한다.

우리 땅에 자생하는 식물은 아니지만 오래 전에 외국에서 들어와 토속 식물처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거나 민족의 애환을 같이 해온 여름 식물들이 있다. 끝없이 피고 지는 꽃이라는 뜻의 무궁화(無窮花, *Hibiscus syriacus* L.)는 흔례복인 활옷(闊衣)에서 다산을 뜻하는 무궁화 수로 표현된다. 세종 25년 훈민정음 창제 때 우리말로 무궁화라고 불려졌으며, 1896년 애국가에 등장했고,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때 애국가가 국가(國歌)로 채택되면서 국화(國花)가 되었다. 인도가 원산지로 'Hibiscus'라는 속명(屬名)은 'Hibis'(고대 이집트의 아름다운 신)와 'isco(유사하다)'의 합성어로 아름다운 신을 닮았다는 뜻이다. 수피는 제지원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한방에서는 햇빛에 말린 것을 목근피(木槿皮)라 하며 해열, 해독, 소종(消腫), 기관지염, 인두염, 장염, 이질, 탈항, 치질, 대하(帶下), 옴의 치료에 이용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사혈(瀉血)을 멎게 하고, 설사 후의 갈증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어린 잎은 나물과 차로 이용하며 조경공사용, 사방공사용, 가로수용 등으로 유용하다.

일제강점기에 망국의 한을 노래한 가곡으로 유명한 봉선화(*Impatiens balsamina* L.)는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며, 꽃이 봉황의 형상을 닮은 데서 유래한다.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하여 장독간 주변에 심었으며, 백제시대 이전부터 손톱에 빨간 봉선화물을 들였다. 한해살이풀로서 줄기가 육질이며 잎은 어긋나고, 꽃 색은 다양하며 홑꽃과 겹꽃이 있다. 열매는 삭과로서 익으면 탄력적으로 터져 씨를 멀리 퍼뜨리므로 'touch-me-not'이라고도 한다. 공해에 강하며 씨는 간경, 폐경, 습관성 관절통, 월경통, 림프선염의 치료에 쓰고, 발삼(balsam)을 추출하기도 한다. 지상부는 관절통, 타박상, 악창, 종기, 꽃은 요통, 협통, 산후어혈동통, 뿌리는 풍습성 관절염, 목안의 생선가시 제거에 사용한다.

더운 여름 내내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Helianthus annuus* L.)는 기원전 1,000년부터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재배하던 식물이다. 한해살이풀로 잎은 어긋나며 난형이고, 머리모양 꽃차례의 가장자리에 노란 설상화가 피며, 가운데에는 통모양의 황갈색 관상화가 있다. 열매는 수과(瘦果)이며 긴타원형이다. 꽃은 두통, 어지럼증, 혈압강하, 꽃차례의 총포는 관절염, 고혈압, 종자는 유료용, 식용 및 제과용, 이질과 종기에 이용한다. 잎은 건위작용, 줄기는 제지 또는 사료로 이용한다. 해바라기는 대기 중에 노출된 방사능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정화식물로 알려져 있다.

오래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 꽃처럼 여겨질 정도로 정감이 가는 채송화(菜松花, *Portulaca grandiflora Hooker*)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이끼처럼 땅에 붙어 옆으로 기는 꽃이라 하여 'Moss Rose'라 하고, 우리말로는 잎이 솔잎같이 생긴 나물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듯하다. 다즙성 한해살이풀이며 줄기는 붉고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꽃은 6~9월에 피며, 꽃잎은 5개로 꽃 색깔은 다양하다. 맑은 날 낮에 피었다가 오후에 시든다. 한방에서 전초를 반지련(半支蓮)이라 하며, 청열과 해독의 효능이 있어 인후종통, 타박상, 습창(濕瘡), 탕, 화상 등 외용약으로 사용한다. 잎이 말의 앞니 모양 같아서 마치현(馬齒莧), 또는 나물을 만들어 먹으면 오래 산다 하여 장명채(長明菜)라 한다.

맨드라미(*Celosia cristata* L.)는 정선아리랑의 '산수'편과 신사임당의 '초충도'에도 등장하며 닭의 볏에 흔히 비유되어 닭과 함께 그려진다. 열대원산의 한해살이풀로 15~16세기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편평한 꽃줄기의 윗부분이 넓어지고 주름진 모양이 수탉의 볏과 같다 하여 계관(鷄冠) 또는 계두(鷄頭)라 하며, 영어이름도 비슷한 의미로 'cockscomb'이다. 줄기는 붉고, 잎은 어긋나며 달걀모양으로 끝이 뾰족하다. 꽃은 7~8월에 홍색, 황색, 백색 등의 작은 꽃들이 밀집하며, 화피는 5개이다. 열매는 달걀모양이며 종자는 검다. 꽃과 종자를 계관화라 하여 치질출혈, 대변출혈, 소변출혈, 자궁출혈, 토혈, 이질, 부인 대하증에 약용한다. 옛 동치미에 붉은 색을 내기 위해 맨드라미꽃을 섞어 염료용으로 이용하였다.

참고문헌 | 原色韓國本草圖鑑(안덕균, 교학사, 1998), 모든 들풀은 꽃을 피운다(이남숙, 중앙M&B, 2000).

필자 | 이남숙(李南淑)


大雄寶殿



四月

사월

사월에는 모내기와 관련하여
한창 농사일이 바쁘더라도
도서해안지역에서는 조금이 되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금날에는 날이 궂어
비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을 받아 할 일이 생기면
되도록 비가 자주 오는
이 날은 피해서
택일을 한다고 한다.

4월(四月)

개관 음력 4월은 여월(余月), 건월(乾月), 시하(始夏), 유하(維夏), 괴하(槐夏), 맥추(麥秋), 중려(仲呂), 맹하(孟夏), 초하(初夏), 정양(正陽)으로도 일컫는다. 이때가 되면 농사일이 바빠진다. 최근에는 영농기술이 크게 발달하여 농사일이 수월해졌지만, 그래도 봄이 되면 일손이 바쁘다. 4월에는 주로 벼농사 준비가 시작된다. 요즘에는 벼농사 준비가 다소 앞당겨지고 있으며, 음력 3월이면 거의 마무리된다.

초파일 음력 4월의 명절로 초파일이 있다. 불교신자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날이지만, 불교에 국한하지 않고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오랜 역사를 관류하면서 초파일은 우리 고유의 전통명절이 되었다. 농군들은 초파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쉬었다. 불교신자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연등을 사서 걸기도 한다. 그러나 초파일을 불교에서만 중히 여긴 것은 아니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따르면 초파일에 "민가와 관청, 저자에서는 모두가 등간(燈竿)을 세운다. 이 등간은 대나무를 늘어 세워 묶어놓는데, 그 높이가 십여 장(丈)이나 된다. 등간 위에는 비단이나 면포를 잘라서 깃발을 꽂으며, 깃발 밑에는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를 가로 대고, 또 갈고리에는 줄을 얽어서 줄의 좌우 끝이 땅 위에까지 내려오게 한다. 그런 연후에 밤이 되면 등에다 불을 켜는데, 많이 달 때는 십여 개의 등을 달고 적게 달 때는 3~4개의 등을 매달아 놓는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민가와 관청에서 관등행사를 위해 불을 밝혔음을 알 수 있다. 또 옛날 서당에서도 초파일이 되면 연등을 만들어 걸고 학동들은 떡과 음식을 장만하여 훈장을 대접하였다.



연등달기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 심다스마

초파일에는 또 수부희(水缶戱)를 즐겼다. 수부희는 초파일에 즐기던 민속놀이인데, 민간에서는 물장고 또는 물박치기라고도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초파일에 물동이에 물을 담고, 그 위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빗자루로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을 물박치기[水缶戱]라고 한다."라고 하여 초파일의 대표적인 놀이로 꼽고 있다.

절기 4월의 절기로는 입하(立夏)와 소만(小滿)이 있다. 입하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이며, 입하와 입추 사이가 여름이다. 입하는 24절기 중에서 일곱 번째 절기로서, 곡우(穀雨)와 소만(小滿) 사이에 들며, 양력 5월 6일 무렵이다. 황경(黃經)은 대략 40도에 이른다. 산천은 신록으로 물들며, 성장이 왕성해지는 때라서 시골에서는 더욱 농사가 바빠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곡우를 전후해서 수확한 녹차를 으뜸으로 여기지만, 초의선사에 따르면 곡우 전후보다는 입하를 전후하여 채다한 차가 가장 좋다고 하였다. 입하 무렵에는 이팝나무의 꽃이 핀다. 이팝은 쌀밥이라는 뜻이며, 이팝나무 꽃이 피면 마치 쌀밥을 나무에 뿌려놓은 듯 아름답다. 이팝나무꽃이 피는 모양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는데, 한꺼번에 피면 풍년이 들고 여러 차례 나누어 피면 시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

소만은 만물이 왕성하게 생장하여 가득찬다[滿]는 의미가 있다. 24절기 중 여덟 번째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5월 21일 무렵이다. 황경은 대략 60도에 이른다. 이때는 모내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일년 중 가장 바쁜 계절이기도 하다. 모든 산천의 식물이 푸름을 더해가는 시기지만, 대나무는 색이 누렇게 변한다. 이 무렵에 죽순이 자라는데, 죽순에 영양분을 제공하느라 어미 대나무는 영양이 부족하여

색이 누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렵을 죽추(竹秋)라고도 부르며, 시절식으로 죽순이 인기를 끈다. 이 시기는 연중 강우량이 적은 때로서 농촌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한다.

속신 4월은 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이다. 시작을 중시해온 우리 민족은 이달의 기후를 보고 일년의 우순풍조(雨順風調)를 점치는 일이 많았다. 부산 지역에서는 특히 호박순을 보고 날씨를 점치는데, 4월에 호박순이 위를 향하여 올라가면 그 해 바람이 적고, 땅으로 뻗으면 바람이 많다고 믿었다. 또 초하루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초하룻날 동풍이 불면 콩팥 농사가 풍년이 들고, 남풍이 불면 조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하며, 또 초닷샛날 가물면 봄누에가 잘 안된다고 한다.

한편 초파일의 날씨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을 하는 지역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 초파일에 비가 내리는 것을 좋은 징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날씨가 맑아야 풍년이 든다고 말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부산 지역에서는 초파일에 날씨가 맑으면 그 해 시절이 좋고,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고 점치는가 하면, 경남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서는 초파일에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된다고 믿는다. 또 경남 지역에서는 초파일에 비가 오지 않으면 48일간 비가 오지 않고 가문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북 익산에서는 오히려 초파일에 비가 오면 그 후로 48일이 가물어서 좋지 않다고 여긴다. 초파일에 부는 바람을 보고 날씨를 점치기도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초파일날 날씨가 잔잔하면 깨농사가 잘된다고 한다.

절식 4월에 만들어 먹는 시절 음식으로 어만두(魚鰻頭), 어채(魚菜), 미나리강회, 느티떡을 꼽을 수 있다. 어만두는 흰살 생선인 민어나 도미, 광어의 살을 전유어감으로 얇게 떠서 만두소를 넣고 만두 모양으로 접어 녹말을 씌워서 찌거나 삶아 건진 여름철 시절식이다. 어채는 생선과 함께 국화잎, 파, 송이버섯, 전복, 달걀 등을 가늘게 썰어서 섞어 만들며, 여기에 초고추장과 참기름을 함께 쳐서 먹는다. 미나리강회는 미나리를 삶아서 마늘을 넣고 파로 감아서 고추 모양으로 회를 하는 것인데,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느티떡은 연한 느티나무 잎을 따서 멥쌀



논갈이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가루와 섞어 버무려 팥고물을 켜켜이 얹어 찐 설기떡으로, 미나리강회와 함께 사월 초파일에 먹는 대표적인 시절식이다.

금기 4월에는 모내기와 관련하여 한창 농사일이 바쁘더라도 도서해안지역에서는 조금이 되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금날에는 날이 궂어 비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을 받아 할 일이 생기면 되도록 비가 자주 오는 이 날은 피해서 택일을 한다고 한다.

기타 4월에는 보제(洑祭)와 못자리고사를 지낸다. 생업으로 농촌에서는 생강재배(生薑栽培), 수박재배, 콩파종 등을 하고, 어촌에서는 청어를 잡는다. 또 4월이 되면 처녀들과 어린아이들이 곱게 핀 봉선화 꽃을 따서 손톱에 물을 들이는데, 『동국세시기』에는 꽃에 백반을 짓찧어 손톱에 물을 들인다고 하였다.

현대세시풍속 양력 4월의 기념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4·19혁명기념일, 식목일, 충무공탄신일 등이 있으며, 이 달의 현대세시로는 블랙데이(Black Day) 등이 있다. 지방축제는 단종문화제, 매헌문화제, 지리산남악제, 진해군항제, 하동문화제 등이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나경수(羅景洙)



호박순
전북 익산시 심디스마

건월(乾月)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건(乾)은 『주역(周易)』의 64괘(卦) 중 12괘를 뽑아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을 때 건괘(乾卦, ䷀)에 해당하는 달을 뜻한다. 건괘는 상괘(上卦)와 하괘(下卦)가 모두 건괘(建卦, ☰)로 이루어져 있다. 동짓달부터 양기(陽氣)가 처음 생겨난다고 하여 양효(陽爻)가 아래에서 처음 생겨나는 복괘(復卦)를 음력 11월에 배속시켰으므로, 건괘(乾卦)는 음력 4월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周易.
필자 | 변은숙(邊銀淑)

괴하(槐夏)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홰나무꽃이 피기 시작하는 여름을 뜻한다.

내용 중국 송(宋)나라 구양수(歐陽修)의 『육일시화(六一詩話)』에 "용도각(龍圖閣) 학사인 조사민(趙師民)은 순박한 선비이며 큰 학자로 당시에 명망이 높았는데, …… 시 또한 더욱 섬세하였으니 보리 익는 계절에 새벽공기 촉촉한데, 홰나무 꽃피는 오후 그늘 맑도다(龍圖學士 趙師民 以醇儒碩學名重當時 …… 詩思尤精 如麥天晨氣潤 槐夏午陰淸 前世名流皆所未到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또한 중국 송나라 황정견(黃庭堅)의 '봉송유군곤중(奉送劉君昆仲)' 시에 "평원(平原)에 내린 새벽비에 홰나무꽃 반쯤 피고, 분수(汾水)에서 불어오는 한낮의 바람에 보리가 익어가네(平原曉雨半槐夏 汾上午風初麥秋)."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豫章黃先生集, 六一詩話.
필자 | 변은숙(邊銀淑)

괴훈(槐薰)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홰나무꽃이 피기 시작하여 향내를 내뿜는다는 데서 생겨난 말이다.

내용 『강호소집(江湖小集)』「차옥죽재운(次玉竹齋韻)」에 "겹겹의 높은 처마에 괴훈이 불고 비온 뒤 맑은 강촌에는 구름이 떠있네(重簷畝處受槐薰 掃盡江村雨後雲)."라는 구절이 있다. 『어선역대시여(御選歷代詩餘)』「채록음(采綠吟)」에 "물은 북쪽으로 흐르고 구름은 서쪽으로 떠가고 부채질에 괴훈이 일어나네(水北雲西 槐薰入扇)."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江湖小集, 御選歷代詩餘.
필자 | 변은숙(邊銀淑)

맥량(麥凉)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맥추(麥秋)라고도 한다.

내용 보리가 익어 수확하기 시작할 때라는 의미로, 이 무렵은 아침저녁으로 아직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때이다. 『광동통지(廣東通志)』「오일영령외풍토(午日詠嶺外風土)」에 "맥량은 아직 다하지 않았는데, 매미는 벌써부터 울려고 하네(麥凉殊未畢 蜩鳴早欲聞)."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廣東通志.
필자 | 변은숙(邊銀淑)



보리
제주도 북제주군 이창호



보리 수확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맥추(麥秋)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맥량(麥凉)이라고도 한다. 보리가 익어 수확하기 시작할 때라는 의미이다.

내용 『예기(禮記)』「월령(月令)」편에 "이 달에는 온갖 약초를 채집한다. 여린 풀들은 죽고 보리가을이 온다(是月也 聚畜百藥 靡草死 麥秋至)."라는 구절이 있다. 또한 『진호집설(陳澔集說)』에 "가을은 온갖 곡식이 익는 시기이다.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비록 여름이나 보리에게는 가을에 해당되므로 보리가을이라고 한다(秋者 百穀成熟之期 此於時雖夏 於麥則秋 故云麥秋)."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禮記, 陳澔集說.
필자 | 변은숙(邊銀淑)

맹하(孟夏)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이 밖에 여월(余月), 건월(乾月), 유하(維夏), 초하(初夏), 시하(始夏), 입하(立夏), 괴하(槐夏), 맥추(麥秋), 정양(正陽), 중려(仲呂), 사월(巳月)과 같은 많은 이칭이 있다.

내용 『예기(禮記)』「월령(月令)」편에 "맹하의 달에 해는 필성(畢星)에 있고, 저녁 때에는 익성(翼星)이 남중하고 새벽에는 무녀성(婺女星)이 남중한다. …… 청개구리가 울고 지렁이가 나오며, 쥐참외가 나고 씀바귀꽃이 핀다(孟夏之月 日在畢 昏翼中 旦婺女中. …… **螻蟈**鳴 **蚯**蚓出 王瓜生 苦菜秀)."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회남자(淮南子)』의 「시칙훈(時則訓)」, 『여씨춘추(呂氏春秋)』의 「십이기(十二紀)」와 「맹하기(孟夏紀)」에도 「월령」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 | 書經, 呂氏春秋, 禮記, 淮南子.
필자 | 신하령(申河令)

사월(巳月)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사(巳)는 십이지(十二支) 중 여섯 번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력의 역월(曆月)은 중국 하(夏)나라에서 인월(寅月)을 세수(歲首: 1월)로 삼았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월(巳月)은 4월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周易.
필자 | 김정석(金正錫)

수요절(秀蓂節)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아기풀이 패는 계절을 뜻하는 말이다. 요월(蓂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시경(詩經)』 '빈풍(豳風) 7월(七月)' 시에 "4월에는 강아지풀이 패고 5월에는 말매미가 우네(四月秀蓂 五月鳴蜩)."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주(註)에 "꽃이 피지 않고 영그는 것을 수(秀)라 한다. 요(蓂)는 풀이름이다(不榮而實曰秀 蓂草名)."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詩經.
필자 | 변은숙(邊銀淑)

시하(始夏)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여름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초하(初夏)라고도 한다.

내용 단씨(段氏)의 『모시집해(毛詩集解)』에 "시하는 만물이 성대한 때이다. 그러나 성대한 것은 오래갈 수 없다(始夏萬物盛大之時 然盛大者不可久也)."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毛詩集解.
필자 | 변은숙(邊銀淑)

앵하(鶯夏)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꾀꼬리가 찾아오는 여름이라는 뜻으로 명조(鳴鳥)라고도 한다.

내용 『삼국사기(三國史記)』「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유리왕조(瑠璃王條)에 '황조가(黃鳥歌)'가 전하는데, "펄펄 나는 꾀꼬리는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이 내 몸은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라고 했으며, 고려가요 '동동(動動)'에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곳고리 새여 므슴다 녹사(錄事)니문 녯 나롤 닛고신뎌 아으 동동(動動)다리."라고 하여 꾀꼬리가 등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高麗歌謠, 三國史記.
필자 | 변은숙(邊銀淑)

여월(余月)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이아(爾雅)』「석천(釋天) 월명(月名)」편에 "1월은 추(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寎),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차(且),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10월은 양(陽), 11월은 고(辜), 12월은 도(涂)이다(正月爲陬 二月爲如 三月爲如 四月爲余 五月爲皐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소(疏)에 "4월은 모든 만물에 가지와 잎이 생긴다. 그러므로 여(余)라고 하니 여(余)는 펴진다는 뜻이다(四月萬物 皆生枝葉 故曰余 余舒也)."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爾雅.
필자 | 변은숙(邊銀淑)

유하(維夏)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여름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앵하(鶯夏)라고도 한다.

내용 『시경(詩經)』 '소아(小雅) 사월(四月)' 시에 "4월 여름이 되거든 6월에야 더위가 물러가느니라. 선조(先祖)는 사람이 아닌가 어찌하여 나를 차마 이렇게 하시는고(四月維夏 六月徂暑 先祖匪人 胡寧忍予)."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詩經.
필자 | 변은숙(邊銀淑)

정양(正陽)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양기(陽氣)만 가득하고 음기(陰氣)가 아직 싹트지 않은 달로 음력 4월을 뜻한다.

내용 한(漢)나라 동중서(董仲舒)의 『우박대(雨雹對)』에 "양(陽)의 기운이 작용을 하면 온화한 기운으로 모두 양(陽)이 되니, 월건(月建)이 사(巳)인 달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정양의 달이라 한다(陽德用事 則和氣皆陽 建巳之月是也 故謂之正陽之月)."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雨雹對.
필자 | 변은숙(邊銀淑)

중려(仲呂)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동양 음악의 십이율(十二律) 중에서 여섯 번째인 중려(仲呂)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이다.

내용 십이율을 각각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첫 음인 황종(黃鐘)을 양(陽)의 기운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에 배속시켰기 때문에 중려(仲呂)는 음력 4월에 해당한다. 중국 한(漢)나라 반고(班固)의 『백호통의(白虎通義)』 월령(月令)편에 "4월을 중려(仲呂)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양(陽)의 기운이 극도로 자라나서 음(陰)이 다시 속에서 막는 것을 말한다(四月謂之 仲呂何言 陽氣極將 彼故復中難之也)."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白虎通義.
필자 | 홍성훈(洪性薰)

청화절(淸和節)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이르는 말. 간혹 4월 초하루를 일컫기도 한다.

내용 중국 진(晉)나라 시인 사령운(射靈運)의 시에 "첫여름 4월이라 맑고도 온화하니 향기로운 풀들 끝없이 돋았네(首夏猶淸和 芳草亦未歇)."라고 하였는데, 이후 세상 사람들이 4월을 청화(淸和)라고 하였다. 조선 중기 문인 정유길(鄭惟吉)의 『임당유고(林塘遺稿)』 '만제서등(謾題書燈)' 시에 "4월은 청화절(淸和節)이니 관등(觀燈)하며 아름다운 시절을 즐기네(四月淸和節 觀燈樂歲華)."라고 하였고, 황준량(黃俊良)의 『금계집(錦溪集)』 '등석유감(燈夕有感)' 시에 "아름다운 청화절(淸和節)에 큰 즐거움 이어받으니 어찌 불법을 밝히고 등불을 전하는 스님을 본받으리오(淸和佳節罄承歡 豈學照佛傳燈僧)."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錦溪集, 隨園詩話, 林塘遺稿.
필자 | 홍성훈(洪性薰)

초하(初夏)

정의 음력 4월을 달리 부르는 말. 여름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유하(維夏)라고도 한다.

내용 『육씨시소광요(陸氏詩疏廣要)』 '진고(榛楛)' 시에 "개암나무 열매는 초하에 생겨나는데 탄환과 같으며 청록색이다. 6~7월에 이르러서는 붉은색으로 변한다(其實初夏生 如彈丸靑綠色 至六七月 漸深紅色)."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陸氏詩疏廣要.
필자 | 변은숙(邊銀淑)



『樂學軌範』 律呂隔八相生應己圖說
국립국악원





正日

정일

초파일은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이 날의 중요행사로
지혜와 광명을 밝힌다는
신앙적 의미가 부각되어
연등행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이 같은
연등행사는 고대부터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 대 보름의 농경의례 등에
자연스럽게 뒷받침되고 습합되면서
연등행사가 국가적 행사로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초파일[初八日]

정의 불교의 개조(開祖)인 석가모니(釋迦牟尼)의 탄생일.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불탄일(佛誕日), 욕불일(浴佛日), 석탄일(釋誕日)이라고도 한다. 사월 초파일이라 하는 것은 음력 4월 8일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모두 4월 8일을 탄생일로 기념하지만, 일본은 음력이 아닌 양력 4월 8일로 고쳐 기념하고 있다.

초파일은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이다. 2월 8일 석가(釋迦) 출가일(出家日), 2월 15일 열반일(涅槃日), 12월 8일 성도일(成道日)을 합쳐 불교의 4대 명절이라 한다. 이 4대 명절 중 초파일이 가장 큰 명절이다. 그러나 이 날은 불자(佛子)이건 아니건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이 함께 즐겨온 민속명절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 날은 연등행사(燃燈行事)와 관등(觀燈)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갖가지 행사가 벌어진다. 중국에서도 이 날 연등행사가 이루어지나 우리나라처럼 성행하지는 않으며, 일본에서는 연등축제 대신 불전(佛前)에 꽃을 올리는 '하나마쯔리'로 대신하고 있다.

연등행사 연등행사 또는 연등축제로 펼쳐지는 불교의 명절인 초파일이 민속명절로 전승된 것은 재래로 전승되어 온 연등행사와 불교의 연등공양(燃燈供養)이 습합(習合)된 데 연유한다.

불교적 성격을 띤 국가 행사인 연등회(燃燈會)는 551년(진흥왕 12)에 팔관회(八關會)의 개설과 함께 국가적 행사로 열리게 되었고 특히 고려 때 성행하였다. 이는 불교문화권에서 성행하던 불교의례의 하나이다. 불교에서는 불전에 등(燈)을 밝히는 등공양(燈供養)이 차공양(茶供養), 과공양(果供養), 미공양(米供養) 등과 더불어 중요시되었다. 그것은 불전에 등을 밝혀서 자신의 마음을 밝고 맑고 바르게 하여 불덕(佛德)을 찬양하고, 대자대비(大慈大悲)한 부처님께 귀의하여 구제를 받으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경전인 『법화경(法華經)』의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에서는 등공양의 공덕이 무량하다고 지적했으며,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감통편(感通篇)」에도 불등(佛燈)에 관한 설화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등불을 밝히는 참된 의미에 대해 말한 것이다. 등을 밝히는 것이 곧 연등이고, 연등을 보면서 마음을 밝히는 것을 간등(看燈) 또는 관등(觀燈)이라고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에는 관등행사가 매년 정월 15일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연례적으로 이 행사가 행해졌고, 4월 8일의 연등행사 이외에도 민속적으로 전승되어 온 연등행사가 있었음을 일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속적 연등행사와 불교적 연등행사가 습합되어 오늘의 4월 8일, 곧 초파일의 연등축제로 이어진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에 따라서 연등회를 거국적인 행사로 성대하게 시행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정월 15일에 연등이 있었으며, 이것이 987년(성종 6) 10월에 정회(停會)되었다가 현종 때 2월 15일에 다시 시행하였으며, 그 뒤에는 고려 멸망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 행사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에 빈번히 나타난다. 현종 이후의 연등설회(燃燈設會)에 관한 기록은 104번이나 되지만, 2월 연등회로 정하였던 연등회가 반드시 그 날짜를 지켜서 거행되지는 않았다. 1105년(숙종 10)에는 정월에 연등을 행하였고, 의종 때도 정월에 20여 회가 열렸다. 그리고 1105년의 연등에 대하여 『고려사』에는 다른 연등 기사와는 달리 천지신명(天地神明)을 모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태조의 정신을 의식적으로 추종했음을 의미한다. 의종 당시에는 인종의 기일(忌日)을 피하기 위하여 정월 연등을 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명종 때에는 연등행사를 15회 거행하였는데 대부분 2월에 열렸다. 『고려사』에 따르면 인종의 기일이 정월이므로 2월로 하자는 청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연등은 망일(望日)에 여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 날이 한식(寒食)인 경우에는 15일 미리 앞당겨서 열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기적인 연등회뿐만 아니라 특설 연등회가 수시로 열렸음이 기록되어 있다.

1067년(문종 21) 흥왕사(興王寺)가 낙성되었을 때 축제와 함께 연등회가 5일 밤낮 동안 성대히 행해졌다. 또한 1073년 2월에는 봉은사(奉恩寺)에서 불상을 새로 조성하고 경찬(慶讚)을 위한 연등회가 열려 관등(觀燈)과 주연(酒宴)이 밤늦도록 베풀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문종 때는 경령전(景靈殿), 중광전(重光殿)에서 성대한 연등회가 있었고,









1 연등달기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 황현만

2 초파일 기념행렬
서울시 종로구 최호식

3 관불
서울시 종로구 최호식

4 연등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 황현만

선종이 8월부터 11월 초순까지 서경(西京)에 머무르는 동안 서경의 흥국사에서 연등도량(燃燈道場)이 열렸고 거리에도 등을 달았다. 1102년(숙종 7) 9월에도 궁궐에서 신호사(神護寺)까지의 길에 수만 개의 등을 달았고, 1296년(충렬왕 22) 5월에는 공주가 신호사에 가서 연등을 하였는데, 주옥(珠玉)으로 등을 만들어 매우 화려하였다고 한다. 1314년(충숙왕 1) 2월에는 묘련사(妙蓮寺)에서, 3월에는 왕륜사(王輪寺)에서, 1319년 2월에는 강안전(康安殿)에서 공주가 연등하였고, 1324년에는 상왕이 정경궁(廷慶宮)에서 5일 동안 점등하였다고 한다. 12월에는 정경궁에서, 1331년(충혜왕 1) 정월에는 연복사(演福寺)에서 각각 승려 2,000명을 공양함과 동시에 2,000개의 등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만등회도 열렸다고 한다. 만등회는 등 1만 개를 점등하여 공양하는 의식으로, 이 만등회는 이미 1166년(의종 20)에 열린 기록이 있다. 또한 공민왕도 문수법회(文殊法會) 때 성대하게 연등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등 외에도 고려에는 사월 초파일의 연등이 있었다. 이 날은 석가탄신일로서 매우 성대하게 행해져 인도(印道: India)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널리 행해졌다. 고려의 경우에는 4월 8일부터 3일 밤낮 동안 미륵보살회(彌勒菩薩會)를 설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사월 초파일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의종 때 백선연(白善淵)이 4월 8일에 점등하였다는 것이며, 그 후 궁중에서도 사월 초파일연등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공민왕은 직접 초파일에 연등행사를 열었고, 이때부터 초파일연등은 일반 서민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내용 연등은 고려시대에 본격화되어 어린이들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연등 비용을 만들기 위하여 한 달 전부터 종이를 오려서 대나무에 기를 달고 성중(城中)을 다니면서 쌀과 베를 구하는 호기풍속(呼旗風俗)이 생겨났고, 공민왕도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에게 쌀을 하사한 적이 있다.

이 호기풍속은 연등행사에 따르는 결정적인 민속으로 변하여 조선시대 연등행사에 영향을 주었다. 그와 같은 연등 의식과 행례는 왕이 봉은사 행향(行香)에 따르는 원칙에 준해서 총 1,500명이 넘는 대규모로 베풀어졌고, 대회(大會)와 소회(小會)로 나누어 의식을 거행하였다. 연등회 날은 공휴일이었고 이 연등회의 모든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연등도감(燃燈都監)을 설치하였는데, 언제부터 설치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 초기에는 상원연등과 초파일연등이 계속되었으나 1415년(태조 15)에 초파일연등을 중지시켰고, 1416년 이후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상원연등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1414년부터는 정월연등을 대신하는 수륙재(水陸齋)가 열렸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 사는 유주(有主), 무주(無主)의 고혼(孤魂)을 천도하는 의식이다. 조선 태조는 이 수륙재를 2월과 10월에 열었다. 이는 불교에 신심(信心)이 두터웠던 태조가 유생(儒生)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호국신앙의 성격을 띤 봄과 가을의 수륙재를 통하여 연등회와 팔관회를 정기적 행사로 합리화시킨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월 15일 연등은 조선시대에 와서 수륙재라는 이질적인 현상을 나타내었지만, 초파일연등은 많은 기복을 겪으면서도 꾸준하게 전승되어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초파일은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이 날의 중요행사로 지혜와 광명을 밝힌다는 신앙적 의미가 부각되어 연등행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이 같은 연등행사는 고대부터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의 농경의례 등에 자연스럽게 뒷받침되고 습합되면서 고려시대까지는 이 세 가지 연등행사가 국가적 행사로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 연등회의 국가적 행사로서의 의미가 사라지자 점차 쇠퇴일로에 이르지만, 사월 초파일연등만은 불교교단과 신도들에 의해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초파일연등이 석가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계속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여기에는 고려시대까지 계속 성행해 온 민속적 의미가 강한 정월연등, 2월 연등의 행사까지 아울러 행하게 됨으로써 초파일은 단순히 불교적 의미만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월 초파일은 불교인이 아니라도 우리 민족에게 세시명절의 하나로 깊이 자리잡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적 세시명절인 사월 초파일이 절대적인 석가모니의 탄신일은 아니다. 그것은 석가의 탄신일로 상징적 의미를 지닐 따름이다. 왜냐하면 석가탄신

일을 4월 8일로 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뿐이며, 일본은 음력 4월 8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지 않고 양력 4월 8일로 바꾸었고, 동남아 불교국가에서는 5월과 6월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이 탄생을 상징하고 있는 데서 석가의 탄생일이 정해졌다. 만약 그렇다면 이 날은 불교인만의 명절이 아니라 보편성을 지닌 만인의 명절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사월 초파일은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로 정착되어 온 것이다. 그것은 서양인들에 의한 성탄절이 기독교인만의 명절이 아니라 만인의 명절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초파일에 신도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관불회(灌佛會), 연등행사, 탑돌이를 한다. 초파일 행사 중 연등행사가 가장 성대하게 행해지고 초파일 하면 너도나도 등을 다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석가탄신일인 초파일에 등을 단다는 것은 무명(無明)을 밝힌다는 불교적 의미가 일차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모든 민족의 명절로 선행하게 된 데에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보편적 의미와 그것을 농경의례화한 우리 민족의 지혜가 한데 어우러져 세시풍속으로 또는 민족의 명절로 오늘에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등행사에서 등(燈)을 만들 때에도 민속적 취향에 따라 수박등, 거북등, 오리등, 일월등, 학등, 배등, 연화등, 잉어등, 항아리등, 누각등, 가마등, 마늘등, 화분등, 방울등, 만세등, 태평등, 병등, 수복등을 만들어 연등에 민속신앙의 의미를 한층 더 덧붙였음이 『동국세시기』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등을 다는 데에도 등대(燈臺)를 세워서 각종 깃발로 장식을 하고 휘황찬란한 연등을 하며, 강에는 연등을 실은 배를 띄워 온 누리를 연등 일색으로 변화시킨다. 이와 같은 축제 분위기의 연등행사는 자연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이를 관등(觀燈)이라고 한다. 연등과 관등이 있는 곳에는 각종 민속놀이도 성행하였다. 초파일에 하는 놀이를 총칭하여 파일[八日]놀이라고 하는데, 그 중 형형색색의 등과 그 불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만석중놀이가 있다. 이를 영등(影燈)놀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영등 안에는 갈이틀을 만들어 놓고 종이에 개와 매를 데리고 말을 탄 사람이 호랑이, 이리, 사슴, 노루 등을 사냥하는 모습을 그려서 갈이틀에 붙이게 된다. 등이 바람에 의해 빙빙 돌아가면 여러 가지 그림자가 비친다. 그리고 호화찬란하게 장식한 등대에 많이 달 때에는 10여 개의 등을, 적게 달 때에는 3개 정도를 달았다. 이와 같은 등대를 고려시대에는 사찰뿐만 아니라 관청, 시장, 일반 민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달았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사찰과 민가로 제한된 듯하고, 오늘날에는 일가일등운동(一家一燈運動)을 전개하고 있으나 대개 사찰에서만 연등하고 있다. 그리고 등을 다는 숫자도 과거에는 식구 수만큼 달았으나, 오늘날에는 한 등에 식구들의 이름을 모두 써서 붙이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초파일 행사에 관민(官民)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였고, 조선시대에는 민가에서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민속행사로 치러졌으나, 오늘날에는 불교인들만이 참여하는 행사로 제한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에는 불교 이외에도 기독교 등 다른 종교가 수용되어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적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데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재래의 사월 초파일이 비단 불교적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민속적으로도 큰 명절이었음은 그 날 즐기던 여러 가지 민속놀이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날 온 장안 사람들이 절을 찾아가서 등을 달아놓은 광경을 구경하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관등의 즐거움과 더불어 각종 풍악을 울렸으며, 장안은 인산인해를 이루어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한편 이 날 아이들은 등대 밑에 석남(石楠) 잎을 붙인 송편과 검은콩, 미나리, 나물 등을 벌여 놓는데, 이는 석가탄신일에 간소한 음식물로 손님을 맞이하여 즐기는 뜻의 놀이라고 한다. 그리고 등대 밑에 자리를 깔고 느티떡과 소금에 볶은 콩을 먹으며 동이에다 물을 담아 바가지를 엎어놓은 채 돌아가면서 두드리는데, 이 놀이를 수부(물장구)놀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민가의 놀이와 함께 사찰에서는 초파일을 기념하는 법회를 비롯하여 신도들은 성불도(成佛圖)놀이와 탑돌이 등 불교민속적 놀이를 행하였다. 특히 어린이날이 따로 없었던 때에는 이 날이 어린이날 구실을 하였다.

초파일이 되면 절 앞에는 성대한 장이 섰는데, 대부분 어린이 용품이었다.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절에 가서 예불을 올리고 돌아오는 길에 진기한 장난

감을 얻어들고 오는 즐거운 날이 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놀이와 행사가 제등행렬로 변화되었다. 그것은 이전의 관등놀이가 일제강점기에 폐지되었는데, 광복 후에 새롭게 변용된 행사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등행렬에서 각양각색의 등(燈)과 코끼리, 가면과 풍물패가 어우러져 현대적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은 지난날의 축제 분위기를 전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등(燃燈)의 의미도 많이 변하고 있다. 연등이란 등불을 밝히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연등한다는 어원이 변용되어 '연등을 단다'로 바뀌었다. 따라서 종전의 연등행사는 연등을 다는 행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등(燈)도 연등(蓮燈)으로 통일되고 있는 추세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는 깨끗한 꽃이란 불교적 의미가 강조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초파일이라 하면 욕불행사(浴佛行事)를 빼놓을 수 없다. 욕불행사란 석가모니가 태어나자 구룡(九龍)이 와서 목욕시켰다는 전설에 따라, 이 날이 되면 탄생불(誕生佛)을 욕불기(浴佛器) 안에 모셔놓고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바가지로 물을 끼얹어 목욕시키는 의례를 행한다. 이 욕불행사는 초파일에 행하는 연등행사와 함께 2대 행사의 하나로 매우 중요하다.

의의 사월 초파일은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자비와 광명을 준 날이란 뜻에 일차적 의미가 있고, 그와 같은 의미가 민중의 구체적인 관심사와 결합하여 민중의 축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초파일에 행하는 연등행사와 욕불행사의 불교적 의미는 지혜를 밝힌다는 상징성이 담겨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민중문화와 습합되면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민중의 축제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이 날을 공휴일로 제정하여 초파일의 역사성과 문화적 의미를 국민 모두가 되새기고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東國李相國集, 世祖實錄, 太祖實錄, 太宗實錄, 朝鮮佛敎通史(李能和, 慶熙出版社, 1968), 朝鮮金石文總覽(朝鮮總督府 編, 亞細亞文化社, 1976), 佛敎와 民俗(洪潤植, 東國大學校 譯經院, 1980).

필자 | 홍윤식(洪潤植)

등석(燈夕)

정의 음력 사월 초파일을 달리 이르는 말. 관등절(觀燈節)이라고도 한다.

내용 초파일 저녁에 사찰을 비롯하여 여염집과 가게, 관청에 이르기까지 모두 등을 달고 불을 밝히는데, 이는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의 무명(無明)을 밝혀주고 부처님 앞에 등불을 밝혀 불덕(佛德)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등석의 유래는 『고려사(高麗史)』에 "왕궁이 있는 국도(國都)로부터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보름에 이틀 동안 등불 밝히던 것을 무신정권의 최이(崔怡)가 4월 8일로 연등(燃燈)을 바꾸었다."라고 한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4월 8일은 곧 석가모니 탄생일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이 날 등불을 켜므로 등석(燈夕)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에도 "4월 8일은 등석(燈夕)이니, 초하룻날부터 등걸이 장대를 세워 두고 여러 종류의 등을 판다. 등걸이 장대는 대나무와 나무를 묶어서 만드니, 꼭대기에는 꿩깃을 꽂거나 삼나무나 홰나무 잎을 사용하기도 한다. 등걸이 장대가 없는 사람은 처마 아래에 등을 매달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매달기도 한다(四月八日燈夕也 自月一日竪燈竿 賣諸燈 燈竿束竹木爲之 頂揷雉羽 或用杉檜葉 其無竿者 懸燈簷下或於樹枝)."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漢陽歲時記, 조선대세시기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홍성훈(洪性薰)



연등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 심다스파





1 부처님오신날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최호식
2 석탄일 국가기록원

부처님오신날

정의 음력 사월 초파일을 달리 부르는 말.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한다.
내용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나치게 민속화 된 불탄일에 대한 불교적 의미를 복원하고 한자어로 되어 있는 불탄일(佛誕日) 또는 석탄일(釋誕日)을 쉽게 풀이하여 사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불탄일 봉축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석가모니가 탄생하신 것은 곧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란 뜻을 지니며 부처님의 뜻이 강조되고, 자비광명이 도래한 날이란 함축적인 의미를 담게 되었다. 이에 봉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되니 한국불교의 모든 종단이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오늘날은 석가탄일인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통칭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홍윤식(洪潤植)

불탄일(佛誕日)

정의 음력 사월 초파일을 달리 부르는 말. 부처[佛]가 태어난 날이란 뜻이다.
내용 부처에 대한 용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 그 탄생일의 표현도 다양하다. 불탄일(佛誕日)이란 부처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 중 가장 일반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초파일을 공휴일로 제정하고 공식적인 용어로는 여러 가지 이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탄일이라 하고 있다. 그것은 이 용어가 가장 보편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홍윤식(洪潤植)

석탄일(釋誕日)

정의 음력 사월 초파일을 달리 부르는 말. 부처의 이칭인 석가여래(釋迦如來), 석가세존(釋迦世尊)이 탄생한 날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용 부처에 대한 용어는 무척 다양하다. 석가모니(釋迦牟尼), 석가여래(釋迦如來), 석가세존(釋迦世尊), 석존(釋尊) 등이 그것인데, '석가(釋迦)'란 석가모니불이 속해 있던 석가족(釋迦族)을 뜻한다. 석가가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가 된 이후 모니, 여래, 세존 등을 붙이게 되었으며, 이후 제자들은 속성(俗姓) 이외에 석씨(釋氏)를 성으로 쓰게 되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홍윤식(洪潤植)

욕불일(浴佛日)

정의 음력 사월 초파일을 달리 부르는 말. 불탄일에 연등행사와 함께 2대 행사의 하나로 행해지는 욕불행사(浴佛行事)를 행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하기 때문에 연등일(燃燈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내용 욕불(浴佛)이란 부처를 목욕시키는 의례를 말한다. 부처는 마야부인의 왼쪽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일곱 발자국을 걸어가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천상의 구룡(九龍)이 내려와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며 그의 탄생을 찬탄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에 따라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아기 부처, 곧 탄생불을 욕불기(浴佛器)에 모셔놓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탄생불에 붓는 목욕의례를 행한다. 불탄일에는 법회가 끝나고 나면 신도들이 욕불기를 돌면서 욕불의례를 행하는데, 그 복덕이 큰 것이라 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홍윤식(洪潤植)

할마님등국날

정의 제주도에서 사월 초파일을 달리 부르는 말. '맹진국 할마님 등국날'이라고도 하며, 이 날 집의 올래(입구)에 등불을 달아 그 해 운수의 길흉을 판단해 보는 풍속이 있다.

내용 맹진국 할마님은 하늘 옥황의 맹진국이라는 나라의 할머니이고, 그 나라 맹진대왕의 말잣딸(셋째 공주) 아기씨이다. 15세까지 자라는 동안 이웃을 도와 활민공덕을 한 인연으로 특히 15세 미만의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 할마님신으로 받들고 위하게 되었다. 이 할머니가 사월 초파일에 인간 세계에 내려오셨다는 데서 이 날을 기념하여 할마님 등국날이라 한다.

할마님은 사월 초파일에 인간 등국을 하였다. 그러자 인간 백성들은 할마님 오시는 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의논 끝에 "할마님 오시는 길에는 거리를 단속하고 깨끗이 하기로 하고, 집 올래(입구)로부터 흰 모래를 깔고 황토다리를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것을 본 할마님은 "그것도 좋지마는 나는 동양 삼국 불법이노라. 그러니 사월 초파일에 집집마다 올래마다 등불을 내어 달라."라고 하였다. 할마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사월 초파일날 등불을 내어 달기 시작하였고, 이 날을 할마님 등국날로 섬기는 것이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필자 | 진성기(秦聖麒)

관불회(灌佛會)

정의 석가모니의 탄생일인 음력 4월 8일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별도로 마련한 불상의 몸에 물을 끼얹는 의례. 욕불회(浴佛會), 욕화재(浴化齋)라고도 부르며 불탄회(佛誕會), 석존강탄회(釋尊降誕會)라고 하기도 한다.

유래 석가모니는 기원전 544년 무렵 인도와 네팔 인근의 룸비니 땅에서 4월 8일 어머니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나중에 싯다르타 태자로 불린 어린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으며 하늘과 사람 중에 하늘이 가장 존귀하며, 생사의 윤회를 끝마쳐 사람과 하늘에 이익을 주겠다고 사자후(獅子吼)를 토했다. 그러자 두 용왕이 허공에서 차고 따뜻한 청정수를 토해 갓 태어난 태자를 목욕시켰다고도 하고, 제석천과 아홉

마리의 용이 공중에서 향수를 뿌려 태자를 씻어주었다고도 한다. 따라서 관불, 곧 욕불은 장차 부처님이 될 막 탄생한 싯다르타 태자를 경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관불의식은 인도사회에서 성스러운 인물이 탄생했을 때 행하는 전통의식으로써 불교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런 태자의 모습이 고대 인도의 조각 작품으로 남아있다.

인도의 관불은 『욕불공덕경(浴佛功德經)』에서 보듯 초파일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행하기도 하였는데, 중국에 들어와서 초파일 행사로 정착되었다. 불교의 중국 전래와 함께 관불의식은 후한(後漢)대부터 착융(笮融)이 욕불을 행하고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도록 하였다는 데서 시작되어, 남북조시대에는 초파일에 관불을 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清規)』에 규정된 의식 절차에 따라 명·청대에 이어 지금까지 행해진다. 여기에는 불탄일에 화정(花亭)을 설치하여 탄생상(誕生像)을 안치하고 그 곁에 작은 자루를 두어 차례로 향수를 탄생상에 부어 목욕시킨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수용된 이래 초파일 행사로 관불이 행해져 왔다. 최치원이 지은 신라말의 지증(智證)대사 비문에 관불의 표현이 보인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성대한 연등회 행사에 관불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는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불탄일을 욕불일(浴佛日)이라고 불러 이를 기술한 승려 문집이 다수 있어 욕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관불회 시행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내용 관불에 사용되는 불상은 탄생상이다. 갓난아이 모습으로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는 자세로, 상체는 몸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하체만 옷을 입었다. 향반에 작은 불탄생상(佛誕生像)을 맞아들여 안치하고 향을 올린 뒤 대중들이 차례로 찬불 게송(偈頌)을 외우며 주관 승려부터 승려, 재가신도(在家信徒) 순으로 향수를 떠서 불상의 머리에 부어 몸을 따라 흘러내리게 한다. 향수는 전단향(栴檀香), 백단향(白檀香), 용뇌(龍腦), 침향(沈香), 사향(麝香), 정향(丁香) 같은 갖가지 향기로운 재료 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수와 함께 청정수(淸淨水)를 사용하며 감로수(甘露水)라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다시 초파일에 관불의식을 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화반(花盤)에 작은 불탄생상을 안치하고, 그 옆에 청정수를 담아두고 작은 용기로 물을 떠서 불상의 머리에 붓는다. 불탄절 법회를 거행하고 이어 진행되는 관불회






1 관불
2 관불
3 합장
4 기도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 심디스마

는 야간의 화려한 연등행사와 더불어 주간의 가장 중심적인 행사이다. 법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관불에도 참여하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에서는 관불회가 밤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인접국가사례 중국에서는 명·청대 이래로 초파일에 관불회를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헤이안시대 초기부터 석가 탄생을 축하하는 관불회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오색의 물을 불상에 뿌려 공덕을 기리는 의식이었다. 화초로 꾸민 화정(花亭) 가운데 동반(銅盤)에 봉안한 불탄생상을 모시고, 불상의 머리에 향탕(香湯)이나 감차(甘茶)를 붓는다. 지금도 향탕이나 오색수를 부어 부처의 탄생을 기리는 중요한 의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의의 석가모니불이 탄생할 때 향수로 몸을 씻었다는 전설에 따라 이 세상에 빛을 준 큰 성인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의 하나이다. 천인(天人)이나 용왕이 했던 성인 탄생 축하의식 절차를 신도 자신이 직접 행한다는 점에서 자기 만족감이 매우 높다.

참고문헌 | 過去現在因果經, 浴佛功德經, 勅修百丈清規, 韓國佛敎全書(東國大學校 韓國佛敎全書編纂委員, 東國大學校出版部, 1989), 中國佛敎百科全書 儀軌卷(上海古籍出版社, 2001).

필자 | 정병삼(鄭炳三)

보제(洑祭)

정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쌓은 보(洑)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 보가 튼튼하여 물걱정 없이 한 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비는 기원제이다. 보제를 봇제사라고도 일컫는다.

내용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 2리에서는 첫 농사가 시작될 때가 되면, 보를 관리하는 보 유사(有司)가 "보 역사 나와주십시오." 하고 몽리자(蒙利者)들을 불러 보를 수리한다. 이때 보에 쌓여 있는 흙이나 나뭇잎 따위를 제거한 다음 제사를 지낸다. 아침 일찍 고랑의 보로 물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 유사가 준비한 메, 고기, 술 같은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는 아홉 개의 보(洑)가 있는데, 이 가운데 동두보와 장평보에서 보제를 지낸다. 동두보는 10리에 이르는데 송현리와 자월마을 사람들이 매년 사월 초파일 오시(午時)에 보의 위쪽에 제물을 차리고 유교식으로 치성을 올린다. 제관은 반드시 박씨(朴氏)로 선정하며, 감주를 빚고 메와 떡은 각각 쌀 석 되 세 홉으로 장만한다. 예전에는 희생(犧牲)으로 소를 올렸으나, 근년에는 돼지를 올린다. 제사 대상 신위는 산천지신, 산택지신, 박장군지신 등 3위이다. 박장군은 조선 숙종 때 이곳에 살았던 박제룡으로 힘이 세어 장사로 소문이 났다고 한다. 그가 겨울에 박달나무 가래로 보를 쌓았는데, 보를 쌓을 때 비방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동조하는 사람들과는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술과 음식을 똑같이 나누는 풍속이 전해져 온다.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에서는 박지생과 김예순이 보를 만들어 농토를 넓힌 공로를 기려 주민들이 유적비를 세우고, 매년 추수 후 제사를 지냈다. 이 마을에서는 윗마을 죽림곡(竹林谷)과 아랫마을 홍월평(紅月坪) 사이에 보를 쌓는 과정을 놀이화한 '동해보역새[洑役事]' 놀이가 전승된다.

강릉시 구정면 학산마을에서는 봇물싸움놀이가 전해져 온다. 그 과정은 보막기설치, 모심기, 파래푸기와 논물보기, 봇물싸움, 화해의 마당이다. 하지가 지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민들이 모여 보막기 작업과 봇도랑을 설치하여 물을 대는데, 이것을 보역사(洑役事)라 한다.

그러나 해마다 가뭄이 지속되면 이에 대비하여 보계(洑契)를 조직하여 보막기 및 봇도랑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보전(洑錢)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이 갹출하여 경비로 썼으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마을 공동밭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을 '보전(洑田)'이라 불렀다. 이 마을의 보계 운영방법을 보면, 계의 재산은 계원 각자가 부담하고 일부는 보밭을 활용한다. 논이 많이 있는 사람의 보를 수전부보(首錢夫洑)라 하며 계수(契首)로서 운영을 주관하고 발언권도 강하다. 또한 보관감(洑管監)이라 하여 물감독의 임무를 주며, 보계의 규정은 한식 전에 정한다. 이때 결석한 계원에게는 궐전(厥錢)이라는 벌금을 물린다. 지금도 학산마을에는 보계의 전통이 이어져 봇살, 봇도랑, 보밭이 남아 있으며 보전(洑田)이 마을 공동재산으로 유지된다.

참고문헌 | 강원도 민속문화론(김의숙, 집문당, 1995), 동해시 누정서원비각지(장정룡, 동해문화원, 1999),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동해시의 민속예술(장정룡 외, 동해문화원, 2004).
필자 | 장정룡(張正龍)

연등회(燃燈會)

정의 등불을 밝혀 석가의 탄신을 축하하는 의식. 연등(燃燈)은 불교문화권에서 널리 성행해 온 불교의식이다. 불교에서는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을 세상을 밝히는 지혜에 비유하고 석가 생존 시부터 부처님 앞에 불을 밝히는 연등 공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유래 연등 공양은 브라만교의 신들에게 물, 향, 꽃, 등불, 음식을 바치던 인도 전래의 풍습을 불교가 수용한 것으로, 불교 발생 초기부터 불교행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등 공양의 공덕에 대하여는 초기 소승경전인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에서부터 이야기되었으며, 대승경전들이 성립되면서 연등은 육바라밀(六波羅蜜) 가운데 하나인 공덕바라밀을 실천하는 한 방편으로서 확고히 자리하게 되었다.

『화엄경(華嚴經)』에는 등불의 종류와 공덕 내용이 보다 자세히 실려 있고, 연등 공덕만을 단독으로 다루어 연등 공양의 전거 경전으로 일컬어지는 『불설시등공덕경(佛說施燈功德經)』도 성립되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연등을 보시하는 공덕에 대하여 설법하신 내용을 담고 있다. 불탑묘(佛塔墓)에 연등하면 그것이 작은 심지불이라도 복덕은 대단히 커서 임종 시에 네 가지 광명을 보게 되며, 죽어서 도리천(忉利天)에 태어나 다섯 가지 청정(淸淨)을 얻게 되고, 부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보시한 등불을 보고 신심이 청정해져 합장하고 기뻐하면 이것만으로도 여덟 가지 증상법(增上法)을 얻게 된다고 한다.

또한 『현우경(賢愚經)』의 가난한 여인 난타가 지극한 정성으로 바친 초라한 연등 하나가 왕이 바친 셀 수 없이 많은 화려한 연등들이 세찬 비바람에 다 꺼진 후에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난 연등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를 강조하는 예로 흔히 인용되고 있다. 5세기 초 인도로 구법(求法)을 떠났던 중국 동진(東晋)의 승려 법현(法顯)은 중인도 마가다국에서 4월 8일 석가탄신일에 불·보살상 앞에서 밤새도록 연등과 기악을 공양하는 축하행사를 열고 있었다고 전한다.

연등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공양물(꽃, 향, 의복, 장식 깃발, 기악 등) 가운데 하나였으나, 대승불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불교행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다. 불교행사는 종교의례 기능만이 아니라, 집단의 연대감을 고양하는 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의 유력자들은 대규모 불교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역사 우리나라의 연등 행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통일신라시대 경문왕(景文王) 6년(866) 정월 보름에 왕이 황룡사(皇龍寺)로 행차하여 등불들을 구경하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사이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연등행사는 중국 상원연등회의 영향으로 석가탄신일이 아닌 정월 대보름인 상원(上元)에 개최되었다. 중국에서 도교 교단은 불교의 성행에 자극받아 중국 전래 세시풍속인 1월과 7월의 농경제례를 상원과 중원으로 체계화하여 도교 행사일로 정하였다. 도교의 상원행사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정월 농경제례의 연등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불교의 연등 공덕 신앙과 연결되어 상원연등회라는 불교행사가 생겨나게 되었다. 상원연등회는 당나라 현종(玄宗) 때 정례적인 국가 공식 불교행사로 선포되었고, 송대(宋代)에 이르러 민간의 절기 풍속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상원연등회 풍속이 신라로 전파되어 정월 보름에 국왕이 절로 행차하여 연등행사를 하였던 것이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王建)은 바로 이러한 연등행사의 전례를 수용하여 상원연등회를 국가적 차원의 불교행사로 법제화하였다. 그가 상원연등회를 주목한 이유는 그것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와 같은 행사였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상원연등회는 정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설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성내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그리고 궁성대로와 성문들을 오색비단으로 장식하여 등불을 밝히고 궁성의 담을 따라서 등불을 쭉 매달아 야간에도 궁성 안은 대낮 같았다. 연등을 하는 저녁이라는 의미로 등석(燈夕)이라 부르는 보름날 밤 상

원연등회 행사는 절정에 이르렀다. 국왕은 왕족과 백관들을 데리고 절로 행차하여 분향한 후 궁성 정문의 누대에 올라 수만 개의 연등이 밝혀져 있는 장관을 구경하고 주연을 베풀었다. 이때 등석을 축하하는 시와 문장을 짓는 것이 풍류가 되어 유명한 문인들과 관리 대부분이 등석시부(燈夕詩賦)를 남겼다.

백성들도 절에 가서 분향하고 그 해의 복을 빌었으며 궁성 문루 앞 가설무대에서 공연되는 음악과 산대놀이, 백희(百戱)를 구경하기도 하고, 상원연등회 특수를 겨냥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갖가지 특산품과 고금의 진기한 물건들을 벌여놓은 임시 개설 시장인 등시(燈市)를 돌아다니면서 밤새도록 즐겼다. 이처럼 상원연등회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제공하였다.

신라 말 각 지방에 할거한 호족들 가운데 하나였던 태조 왕건은 적대의식을 지양하고 겸양지덕을 전략으로 하여 다른 호족들을 포섭하였으며, 세금 감면 등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을 강구하여 민심을 고려 쪽으로 유도하여 나갔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 부처와 산천신에 대한 신앙이 매우 성행

1~3 연등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 이돈기







하고 있었으므로, 태조는 이처럼 민심과 밀착된 불교를 문화적 공통분모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과 계층의 분열을 극복하고, 고려 왕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원연등회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완벽히 구현해 줄 수 있는 불교행사라고 생각하여 태조는 상원연등회를 국가적인 축제로 만들어 매년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후대 왕들에게도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당부하였다.

상원연등회는 성종(成宗)이 유교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지향하여 유교의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중지되었다가, 현종(顯宗)이 즉위하면서 20여 년만인 1010년에 다시 개최되었다. 그런데 현종은 상원연등회를 부활하면서 개최 일자를 정월 보름에서 2월 보름으로 한 달 늦추어 정례화 하였다. 현종이 개최 일자를 변경한 것은 상원연등회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祈穀祭)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음력 정월까지는 땅이 해동되지 않으므로 농사의 시작은 사실상 음력 2월이 된다. 고려에서는 2월부터 10월까지를 농경이 이루어지는 달로 잡고 있었다. 『흠정고금도서집성(欽定古今圖書集成)』「세공편(歲功篇)」에서 2월 보름은 화조(花朝)인데, 고려는 이 날을 상원절(上元節)로 하고 있다고 전한다. 현종은 중국에서 받아들인 상원연등회를 고려의 농사 절기에 맞게 한 달 늦추어 토착화한 것이다. 고려가요 '동동(動動)'의 "2월 보름에, 아아,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출 모습이구나. 아으 동동다리"라는 가사 내용을 보아도 2월의 대표행사로 상원연등회를 꼽고 있다. 이후 상원연등회는 국가의례로서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고려시대 연등행사는 이와 같이 2월 보름 상원연등회가 대표적이었지만, 석가탄신일인 사월 초파일에도 연등회가 열렸다. 사월 초파일 연등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의종(毅宗) 때 백선연(白善淵)이 석가탄신일에 등불을 밝혔다고 하는 『고려사(高麗史)』의 기사이다. 사월 초파일은 불교문화권에서는 중요한 축일이기 때문에 상원연등회처럼 대규모 행사는 아니더라도 경축행사는 있어 왔다. 이러한 석가탄신일 행사가 무인집권기 최고 권력가였던 최우(崔瑀)에 의해 사월 초파일 연등회로 발전되었다.

내용 고려의 상원연등회는 중국의 상원연등회와 아주 흡사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개경(현 개성)뿐만 아니라 지방 각지의 향읍에서 사찰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는데, 고려 왕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통합이 주요 목적이었으므로 개경에서의 연등회는 후대 왕들에 의해 태조 왕건을 기리는 태조신앙이 의례 절차의 핵심 부분을 이루었다. 『고려사(高麗史)』「예지(禮志)」 가례잡의(嘉禮雜儀)에 수록된 상원연등회의(上元燃燈會儀) 의례절차에 따르면, 상원연등회 첫날인 14일 소회일은 국왕이 왕족과 백관들을 거느리고 3,000여 명의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태조의 원찰인 봉은사(奉恩寺)로 행차하여 봉안된 태조의 초상화에 분향하고 술을 올리는 의식이 중심이 되었다. 이튿날 대회일에는 큰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연회 형식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국왕에게 위계 순서대로 차, 술, 꽃을 올리면 국왕은 이들에게 차, 술, 꽃, 봉약, 과실을 하사하는 절차가 반복되면서 술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군신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아울러 왕의 정치적인 권위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최우에 의해 개설된 사월 초파일 연등회는 상원연등회와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최고 실권자로서 국왕 위에 군림하던 최이는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고종(高宗) 32년(1245)에 국왕이 주체인 기존의 상원연등회와는 별개로 석가탄신일인 사월 초파일에 자신의 집에서 연등회를 화려하게 개최하였던 것이다. 무대를 가설하고 밤새도록 기악과 온갖 잡희를 연출해 즐기도록 하여 도읍 안의 남녀노소 구경꾼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고 한다. 이후 사월 초파일 연등회가 상원연등회보다 성행하게 되었는데, 몽골 간섭기 이후 고려의 자주성이 상실되면서 태조신앙을 절대적으로 내세우며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고려의 사회적 통합을 확인하던 상원연등회는 중단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월 초파일 연등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연등 공덕 자체가 중요시되어, 등롱(燈籠)을 구슬과 옥으로 만드는 등 행사가 극도로 사치스러워졌고, 이러한 등불들을 즐기는 호사스런 잔치가 되었다. 공민왕(恭

愍王) 때 왕권을 위임받은 것과 다름없던 막강한 권력자 신돈(辛旽)이 사월 초파일 자신의 집에서 대연등회를 열었는데, 개경 사람들이 모두 이를 따라하느라 가난한 사람들은 구걸을 해서라도 연등을 하였다고 한다. 점차 국가의례인 상원연등회의 위상은 하락되었고, 도리어 민간에서는 개인적 기복을 위한 사월 초파일 연등회가 가장 중요한 불교행사로 되어 사회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이 건국되자 상원연등회는 건국 주체세력인 사대부들이 고려의 구습으로 혁파를 상소하여 폐지되었다. 반면에 사월 초파일 연등회는 사월 초파일 연등놀이로 계승되었다.

조선시대 사월 초파일 연등놀이는 행사 며칠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다. 민가와 관청, 시장, 거리의 집집마다 대나무를 묶어 등불대를 세우고 오색 비단으로 깃발을 만들어 맨 위에 단다. 깃발 바로 아래 갈고리를 만들어서 줄을 꿴 후 등을 쭉 매달아 서서히 잡아올리면 가장 위의 등이 갈고리까지 올라가 멈추게 된다. 민가에서는 자녀의 수대로 등을 달아서 9일까지 밝히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밤이 되어 불을 켜면 등불 모양이 층층으로 이어져서 마치 구슬을 꿴 것 같았다고 한다. 등은 모양에 따라 수박등, 마늘등, 연꽃등, 칠성등, 오행등, 일월등, 종등, 북등, 가마등, 병등, 방울등, 봉황등, 학등, 거북등, 사자등, 잉어등, 수복등, 태평등, 만세등, 남산등과 같은 각양각색의 등이 있었으며, 바람에 따라 빙빙 도는 등, 수십 발의 종이쪽을 붙여 펄펄 나는 등, 종이로 바른 소박한 등에서부터 오색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값비싼 등까지 여러 종류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이 지속되어 연산군(燕山君) 때 한양 도성 내 절들이 모두 폐지되었고, 인종(仁宗) 때는 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사월 초파일 밤에는 통행금지가 해제되어 온 장안 사람들은 도성 밖 절에 가서 참배하고, 초저녁부터 주위 산으로 올라가 등불을 구경하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떠들썩하게 놀았다. 아이들은 등불대 밑에 자리를 깔고 앉아 느티떡과 소금에 볶은 콩을 먹으며, 물동이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돌려가면서 두드리는 수부(水缶)놀이를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원각사 자리의 탑골공원에 꽃으로 장식한 탄생불을 모셔놓고 관불의식(灌佛儀式)을 행하였으며, 저녁에는 흰 코끼리상을 앞세우고 등을 들고 종로 - 을지로 - 광화문을 도는 제등행진을 하였다. 1975년 사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제정됨에 따라, 1976년부터 연등행사가 부활되어 여의도광장에서 조계사까지 불교신자들의 사월 초파일 제등행진이 다시 시작되었다. 1996년부터 불교 교단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석가탄신일 행사를 영등축제라는 이름의 종합축제로 전환하여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의 제등행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사들로 다양화하였다. 사월 초파일 연등축제는 범종단적으로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는 불교계의 중심 행사이다. 이러한 사월 초파일 석가탄신일 행사에서 여전히 연등 공양이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三國史記, 洌陽歲時記, 太祖實錄, 高麗時代 燃燈會의 起源과 成立(安智源, 震檀學報88, 震檀學會, 1999), 한국의 불교의례 I(정각 문상련, 운주사, 2001),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安智源, 서울대출판사, 2005).

필자 | 안지원(安智源)

욕불회(浴佛會)

⇨관불회(灌佛會): 여름편

초파일불공[初八日佛供]

정의 석가탄신일인 음력 4월 8일에 신도들이 절에 가서 드리는 불공(佛供). 초파일은 불교의 최대 명절이므로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날만은 절에 가서 법회에 참여한다. 초파일의 대표적 행사인 연등(燃燈)이 불공에 포함되며, 관불(灌佛)과 함께 초파일 행사의 주축을 이룬다.

유래 불공이란 부처에게 올리는 공양을 말한다. 부처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부처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향, 등, 꽃, 차, 과일 같은 공양물[五供養物]을 올린다. 불공은 부처님 재세(在世)시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 무렵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재가신자(在家信者)들이 공양을 대접한 데서 유래한다. 공양자가 공양을 청하는 뜻을 밝히고 부처가 이를 허락하면 초청자는 집에 모셔 꽃과 향에 이어

차와 공양을 올린다. 공양을 마치면 부처는 신자들에게 법문을 설(說)한다. 재가신자들이 공양을 올리고 부처는 법문으로 보답하는 재시(財施)와 법시(法施)의 형태가 기본이다. 석존 입멸 후에는 공양의 대상이 탑이나 불상으로 바뀌었다.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불교가 수용된 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공양은 본래의 다섯 공양물의 의미에 더하여 공양자의 소원성취도 빌게 되었다. 신라시대에는 국가적 불공이 성행하였고, 고려시대에는 국가적 불공과 개인 불공이 함께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개인 불공이 일반 서민층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오늘날에는 불공이 개인적인 기복신앙(祈福信仰)에 치우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 앞에 참되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덧붙이기도 한다. 본래 26단계로 구성된 헌공의례의 뜻을 되살려 불공은 귀의, 참회, 공양, 발원, 회향의 다섯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사찰에서는 매일 사시에 불공을 올리는 사시마지(巳時摩旨)가 공양의 전형이 되었고, 재가신자들이 올리는 공양은 다양한 종류로 분화되었다. 재가신자들이 자신

1 불공
2 방생
3 괘불
전남 순천시 승주읍 황전만







의 복을 기원하며 부처 앞에 올리는 불공이 중요한 종교의례가 되었다.

내용 석가탄신일인 4월 8일에 올리는 초파일불공은 이 세상에 깨우침의 길을 연 부처의 탄신을 경하하는 뜻을 담아 등을 달고 자신과 가족의 복을 비는 공양이다. 여러 성인(聖人)의 탄일(誕日)에 공양을 올리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여 4월 8일 부처님 탄일, 11월 17일 아미타불 탄일, 4월 4일 문수보살 탄일, 7월 30일 지장보살 탄일을 길일로 여긴다.

불공은 여자신도들이 주로 드린다. 공양물은 향과 꽃 등이 중심이지만, 공양이 보시 개념과 통하므로 실제로는 공양미(供養米)가 중심이 된다. 불공에 올릴 공양미는 최상의 품질로 준비하여 별도로 보관했다가, 초파일 당일 새벽에 일어나 목욕재계하고 새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언행을 삼가며 불공에 임한다. 보통 때 절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날만은 절에 가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져서 차분하고 정밀한 분위기는 찾기 어렵게 되었지만, 불공드리는 마음가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초파일불공은 불탄 기념행사와 함께 승려의 집전으로 거행된다. 불단에 공양물을 가득 차려놓고 절차에 따라 공양을 올린다. 그리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뜻에서 축원을 하며, 이 과정에서 불공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을 거명한다. 상단불공이 끝나면 마지(摩旨)를 중단에 옮긴 후 중단불공을 올리는데, 지금은 신중단을 향해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어 관불의식을 거행하고 대중들은 큰 방에 들어가 절에서 준비한 음식을 드는 공양의례를 한다. 절에서 만든 작은 등을 신도들이 집에 가져가서 매달아 놓는 것도 초파일 풍속이다.

초파일불공은 등을 다는 것이 중심이며, 그것이 여느 불공과 크게 다른 점이다. 공양물인 향초를 각자 정성스레 준비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공양미나 떡, 과일, 꽃을 준비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 지금은 현금을 공양물로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한 등에 모든 식구의 이름과 주소를 써서 걸기도 하고, 등마다 따로따로 써서 걸기도 한다. 가장 관계가 깊은 절에만 등을 달기도 하고, 인연이 있는 절 서너 군데에 각각 등을 달기도 한다. 법당 안에서부터 차례로 등을 달기 시작하여 절 마당에도 임시로 받침대를 가설하여 등을 달고, 등이 많아지면 각 전각 뜰마다 등이 이어져 모든 도량이 등으로 뒤덮이기도 한다.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사찰 봉은사에는 절 곳곳에 만개나 되는 등을 달아 밤이면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지역사례 지역에 따라서는 초파일에 절에서 탑돌이를 하기도 하고, 세 절을 다니며 복을 기원하기도 한다. 본래 삼사순례(三寺巡禮)는 윤달에 세 곳의 절을 차례로 찾아가 기도를 드리면 액운이 소멸되고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여, 절마다 신도들이 함께 모여 절을 순방하는 것이다. 경북 김천과 강원 영서지역에서는 초파일에 세 절을 순례하면 한 해가 좋다는 믿음이 있어 삼사순례를 한다.

충남 천안이나 전북 진안에서는 초파일에 등을 달 때 초가 잘 타지 않고 그을음이 많이 나면 좋지 않다고 여겨 등이 잘 타는지 지켜보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절에서 전기등을 켜기 때문에 그런 풍습은 기대하기 어렵다. 충남 연기나 천안에서는 초파일에 비가 오는 것으로 그 해 농사를 가늠하기도 했는데, 이슬비가 오면 가물고 많이 오면 물이 풍부하여 대풍이 든다고 여겼다. 초파일은 보릿고개를 지날 무렵의 명절로 마을에서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는 잔치가 열렸으나, 지금은 공휴일로 지정하여 불교신자들은 절에 가고 비신자들은 그냥 쉬는 날이 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광주에서는 초파일부터 여자들이 그네를 뛰는 풍습이 남아있다.

참고문헌 | 釋門儀範(安震湖, 法輪社, 1964),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71~1977), 서울六百年史 -民俗篇-(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90),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정병삼(鄭炳三)

탑돌이(塔 -)

정의 사월 초파일에 사찰에서 봉축행사를 마친 다음 탑을 돌며 개인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풍속. 예전에는 밤을 지새우며 탑돌이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해가 진 다음 연등(燃燈)을 들고 정근(精勤)하며 1~2시간 만에 마친다. 탑돌이는 초파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불사(佛事)를 회향할 때 하는 행사다. 또한 민간에서 전승되던 탑돌이는 이 불교의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1~2 탑돌이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 이돈기

유래 탑은 부처의 사리(舍利)를 안치한 일종의 묘로서 부처 사후 8개의 탑이 세워졌고, 아소카왕 때에는 84,000개의 탑이 세워지기도 했다. 탑은 부처 사후 가장 대표적인 신앙대상이었으며, 이후 불상이 주요 신앙대상으로 자리잡은 후에도 그에 대한 신앙은 지속되었다. 탑신앙은 불교 전래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으며, 최초의 사료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김현감호조(金現感虎條)에 김현이 탑돌이를 하여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다. 이후 탑돌이와 관련한 사료는 무수히 많다. 사월 초파일은 고려 중기 이래 연등회가 민속화된 형태로 전승된 대표적인 날로 자리잡았다. 이에 대표적인 불교의식인 탑돌이가 성행했으나, 억불정책을 편 조선조의 기록은 영성(零星)한 편이며, 본래 종교의식의 장엄함이나 엄숙함보다는 지역민과 함께 즐기는 민속축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내용 탑돌이는 우요삼잡(右遶三匝)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요삼잡은 고대 인도의 고귀한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경법으로 오른쪽으로 세 번 도는 인사법이다. 인도에서는 오른쪽을 더 상위로 본다. 동아시아에서는 왼쪽을 더 상위로 보고 있으나, 불교에서 유래한 우요삼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아시아에서도 준행되었다. 불보살과 더불어 탑에 대해서도 우요삼잡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탑돌이가 단순히 삼잡에 그치지 않고 밤새도록 도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불교의식보다는 대중적인 축제와 기원의 장으로 기능하였으므로, 조선 후기 이래로는 보렴(報念)이나 백팔정진가(百八精進歌) 같은 남도민요풍의 노래를 부르며 탑돌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탑돌이가 가장 성행한 시기는 단연 사월 초파일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사월 초파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여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로는 전국의 사찰에서 법요식 후 저녁 제등행렬을 마치고, 각 사찰에서 탑돌이로 회향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탑돌이는 경건한 수행으로서 예경의례 또는 민속축제로 전승되었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원형을 거의 상실하여 오늘날 예전의 탑돌이 방식을 정확히 살피기는 어렵다. 다만 법주사 팔상전, 원각사지(현재 탑골공원), 통도사 금강계단(金剛戒壇), 불국사 석가 다보탑에서 현재도 행해지는 탑돌이와 해인사의 정대불사(頂戴佛事)에서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중 팔상전을 중심으로 십바라밀(十波羅密) 정진도(精進圖)를 도는 법주사 탑돌이는 1970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용으로 발굴, 재현되어 불교의식으로서의 장엄함과 대중적 축제 분위기가 결합된 예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법주사 탑돌이에는 불교의식용 법구(法具)를 총동원하여 범패(梵唄)와 작법(作法) 같은 불교의식예술을 시연하며, 민속화된 회심곡류의 백발가, 몽한가, 권왕가와 같은 민요를 부른다. 법주사 탑돌이는 오늘날 속리산의 민속축제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 法住寺塔돌놀이(洪潤植,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103號, 文化財管理局, 1972), 속리산의 민속과 축제(김영진·임동철·이창식, 민속원, 199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佛敎民俗놀이 篇-(國立文化財硏究所, 2002).

필자 | 진철승(陳哲丞)

검은콩[蒸黑豆]

정의 사월 초파일 검은콩을 깨끗이 씻어 번철에 볶은 음식. 한자로 증흑두(蒸黑豆) 혹은 염증두(鹽蒸豆)라고 한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아이들은 각각 등대 밑에 석남(石南)의 잎을 넣어서 만든 증편과 볶은 검은콩과 삶은 미나리나물을 벌여놓는다. 이것은 석가탄신일에 간소한 음식으로 손님을 맞이했다가 즐기는 뜻이라 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풍속이 생긴 연유를 중국 송나라 사람 장원(張遠)이 쓴 『오지(吳志)』에 "경사(京師) 풍속에 스님들이 콩으로써 그 수를 헤아린다. 그랬다가 4월 8일 석가모니 탄신일에 이르러 그 콩을 볶는데, 소금을 약간 쳐서 길에서 사람을 맞이했다가 먹여서 그것으로 결연(結緣)을 하였다."라는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송나라 때 중국에서 유행한 풍속으로 다른 말로 사두결연(舍豆結緣)이라 부른다. 홍석모는 당시 서울 풍속에 석가탄신일에 콩을 볶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1909년 6월 1일자 『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의 「아국세시풍속기속」에 4월 8일의 시절음식으로 염증두(鹽蒸豆)를 든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 이 풍속이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西北學會月報 上(韓國學文獻硏究所編, 亞細亞文化史, 1978).
필자 | 주영하(周永河)

느티떡

정의 연한 느티나무 잎을 따서 멥쌀가루와 섞어 버무린 다음 팥고물을 켜켜이 얹어 찐 설기떡. 사월 초파일에 먹는 대표적인 절식이다. 느티나무 잎 대신에 홰나무 잎을 잘게 썰어 만들기도 하는데 이를 홰나무잎떡이라고 한다.

내용 멥쌀을 하룻밤 정도 불린 다음 건져, 소금을 넣고 가루로 곱게 빻는다. 쌀가루에 물을 섞어서 손으로 잘 비벼 고운 체에 내린 후 설탕을 고루 섞는다. 어린 느티잎을 골라 끝부분에 붙은 검은 것과 억센 줄기는 떼어낸 후 씻어서 물기를 빼고 쌀가루에 버무린다. 팥은 하루 전날 물에 불려 껍질을 벗겨 쪄내고 더울 때 소금을 넣고 찧어서 어레미로 내려 팥고물을 만든다. 시루에 팥고물을 넉넉히 넣고 준비해 둔 쌀가루를 두툼하게 넣어 다시 팥고물을 충분하게 얹는다. 계속 반복하여 켜켜이 얹어 쪄낸다.



의의 느티나무는 3~4월에 어린 새싹이 나오는데 독이 없고 향이 좋아 떡에 섞어 찌면 느티잎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다. 주로 사월 초파일 전후에 해먹는 떡으로, 이때가 제일 맛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한국의 떡·한과·음청류(윤숙자, 지구문화사, 1998), 세시풍습과 우리음식(조후종, 한림출판사, 2002).
필자 | 임희수(林姬洙)

미나리강회

정의 연한 미나리를 데쳐 달걀지단, 편육이나 쇠고기볶음, 버섯 등을 가늘게 채 썰어서 미나리에 끼워 예쁘게 말아 초고추장에 찍어먹는 사월 초파일 음식. 강회란 숙회(熟膾)의 일종으로 미나리나 파와 같은 채소를 소금물에 데친 다음, 다른 채소와 함께 말아놓은 것이다. 미나리와 같은 방식으로 파를 이용한 음식을 '파강회'라고도 한다.

내용 강회는 『규곤요람(閨壼要覽)』과 『시의전서(是議全書)』에 비로소 나타나는데, 『시의전서』에는 "미나리를 다듬어 끓는 물에 데쳐 상투 모양으로 도르르 감는다. 달걀지단, 석이버섯, 붉은고추, 양지머리편육을 채치고 실백을 가운데 세우고 다른 채 친 재료들을 옆으로 돌려가며 색색이 세워서 미나리로 감는다. 접시에 담고 초고추장을 곁들인다."라고 하



였으니 지금의 미나리강회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미나리강회를 만들 때 궁중에서는 족두리 모양으로 하였고, 민가에서는 상투 모양으로 똬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미나리의 푸른색과 여러 고명의 오색이 조화로워 보기에도 섬세하고 화려하다.

의의 사월 초파일은 불가의 가장 큰 행사로 가정에서도 손님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다. 이 날은 육류나 어류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소찬(素饌)으로 차리되, 그 대표적인 음식은 느티떡, 콩볶음, 미나리강회이다. 미나리강회는 이 시기에 한창 제 맛인 미나리를 데쳐서 말아 초고추장과 함께 먹는 것으로, 미나리의 향이 향긋하여 미각을 돋우는 음식이다. 특히 미나리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며, 최근에는 암 예방(면역세포의 증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閨壺要覽(延大), 是議全書, 韓國飮食 -歷史와 調理法-(尹瑞石, 修學社, 1980), 韓國의 傳來生活(윤서석박사회갑기념문집간행회, 수학사, 1983),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韓國의 맛(姜仁姬,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87), 한국음식(황혜성, 민서출판사, 1989), 韓國人의 保養食(姜仁姬,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92), 韓國의 菜蔬(李愚卉,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4), 한국음식(염초애 외, 효일문화사, 1999).

필자 | 임희수(林姬洙)

파강회

⇨미나리강회: 여름편

홰나무잎떡

⇨느티떡: 여름편

관등놀이(觀燈-)

미나리강회 궁중음식연구원

정의 음력 사월 초파일을 맞이하여 벌이던 등(燈)놀이의 총칭. 연등놀이(燃燈-)라고도 한다.

내용 한국적 파일놀이의 중핵을 말한다면, 그것은 등(燈)이며 관등(觀燈)놀이이다. 팔일장(八日粧)은 이때의 아동천국(兒童天國)을 상징하며 예쁘게 치장하는 놀이이고, 다른 놀이들은 초파일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놀이의 대부분은 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등놀이야말로 파일놀이의 한국적 보편성이자 불교문화권에서 볼 때는 특수성을 지닌다. 관등놀이의 연원은 고려시대의 팔관회나 정월연등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 유입된 등놀이는 고려시대부터 한국적 등놀이로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시대부터는 초파일의 관등놀이가 일반화되었다.

불교에서의 관등은 마음을 밝히는 등으로 해석하지만, 세간의 관등놀이는 한마디로 등을 달고 논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관등놀이를 넓게 본다면 등을 달고 즐기는 관등, 호기놀이, 굴등놀이, 낙화놀이, 불꽃놀이, 제등행렬, 횃불놀이가 포함된다.

지금은 절에서나 등(燈)을 달지만 과거에는 초파일 며칠 전부터 뜰에 장대를 세우고 그 끝에 가족 수대로 등을 다는 풍습이 있었다. 그것을 등간(燈竿) 또는 등주(燈柱)라고 하는데, 그 위에 꿩깃을 꽂고 물들인 비단으로 기를 매달기도 했다. 기록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등간을 호기(呼旗)라고도 하지만, 호기의 본래 의미는 호기놀이[呼旗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호기놀이란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아동들이 종이를 오려 기를 만들고 또 북을 치면서 거리를 몰려다니며 연등행사에 쓰일 준비물을 얻기 위한 놀이였다.

그 밖에 평양의 굴등놀이가 유명한데, 4~5미터에 해당하는 장대를 양 옆에 세우고 거기에 등줄을 건너 맨 다음 직경 1미터, 높이 1.5미터의 큰 등(그 안에 20여 개의 촛불을 켠다)을 한가운데 맨다. 그 등줄을 잡아당기면 등불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구경하는 놀이이다. 역시 평양의 방석불놀이는 석양이 비낄 때 연광정 앞 대동강 물 위에 수십 개의 방석을 띄우고 거기에 광솔불을 달고는 물 위의 불바다를 구경하는 것이다.









1~4 **제등행렬** 서울시 종로구 최호식

낙화놀이는 줄불놀이라고도 하며 마산, 안동, 영산, 거창, 고성, 진해 등지에서 보고된 바 있다. 느티나무나 참나무 껍질로 숯을 만들어 가루로 빻은 다음 3~5센티미터 정도의 한지를 오려 숯을 넣고 꽈배기 모양으로 꼬아 불씨주머니를 만든다. 빨리 점화시키기 위해 유황을 줄불 끝에 묻히기도 한다. 밤하늘에 불꽃이 연속적으로 튀며 찬란한 불꽃을 흩어놓는 것이 마치 수천수만의 반딧불이 춤추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떨어지는데, 물이 있는 곳에서는 불꽃이 물에 반사되어 더욱 장관이다. 경남 영산에서는 숯가루에 화약을 섞기도 하며, 거창에서는 창호지를 부고(訃告)에 모아 사용했다.

원래 등을 달고 논다는 것은 불꽃놀이같이 딱총이나 폭죽을 이용하여 노는 놀이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불꽃놀이를 대신하여 등을 달고 제등행렬을 거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행렬에는 동원된 학생들이 중심이었고 차츰 시민들도 동원되기 시작하였는데, 일제강점기의 신풍속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거의 비슷한 제등행렬이 규정화되어 있었고, 접이등[倭燈]도 이때 유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제등행렬이 훨씬 더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초파일이 원래부터 종합 문화축제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不咸文化論, 慵齋叢話, 朝鮮常識問答, 중세등불놀이에 관한 연구(김호섭, 력사과학1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초파일민속론(편무영, 민속원, 200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佛敎民俗놀이 篇-(國立文化財硏究所, 2002), 韓國宗敎民俗試論(편무영 외, 민속원, 2004).
필자 | 편무영(片茂永)

만석중놀이

정의 음력 사월 초파일에 행하는 그림자놀이의 하나인 무언인형극(無言人形劇). 만석(萬石)중놀이, 망석(忘釋)중놀이, 망석(亡釋)중놀이, 만석승무(曼碩僧舞), 망석중이놀이라고도 한다.

내용 기본적으로 흰 천을 쳐놓고 횃불로 그림자를 비추어 노는 초파일의 잡희(雜戱)였으나, 그 유래는 영등놀이[影燈戱]와도 관련이 있다. 영등(影燈) 역시 초파일 관등놀이의 하나로 등 자체에 그림자를 비춰서 즐겼다. 『고려사(高麗史)』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는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志)』와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초파일 그림자놀이와 괴뢰(傀儡)를 소개하였는데, 만석중놀이도 그 중의 하나라는 기록이 있다.

영등이란 등의 틀을 두 겹으로 만들어 바깥쪽에는 종이나 붉고 푸른 비단을 붙이고, 안쪽에는 여러 가지 그림을 붙여 풍차가 회전함에 따라 안쪽의 등불이 바깥 틀에 그림자를 비추도록 한 것으로 주마등(走馬燈)을 연상하면 된다. 그림자의 내용도 다양하여 말을 타고 매와 개를 데리고 호랑이, 사슴, 노루, 토끼를 사냥하는 모습을 비추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삼국지의 내용까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부터는 이미 유사한 놀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재철은 『조선연극사』에서 만석중놀이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사방에 등을 달았는데 막이 오르면 십장생이 차례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만석은 목각인형으로 중심에 서고, 오른편에는 사슴과 노루가 만석중과 놀며, 왼편에는 용과 잉어가 나타나 마치 여의주를 상징하듯 서 있는 등(燈)을 서로 얻으려는 듯 희롱하는데, 등이 잉어와 용의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어 꿈틀거리는 화려한 용의 그림자를 배경으로 스님이 삶의 무상함을 뜻하는 '운심게작법(運心偈作法)'의 춤을 춘다. 용과 잉어는 사라지고 스님의 바라춤 속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 막이 내린다.


陰四月八日과
南廟鞦韆놀이
레년음력사월팔일에남대문밧남
묘(南廟)에서거행하는 추천놀
이는 금년에도 대규모로거행한
다는데 특히 조선고래부터유명
하든독망석중이놀이도잇슬터인
바 부근원반주민들은 밤금준
비에 분망중이라더라

음사월 팔일과 남묘추천놀이
동아일보 1929년 5월 12일

만석중 인형의 얼굴은 바가지로 만들고 팔, 다리, 몸뚱이는 나무를 이용한다. 인형의 크기는 아이만한데, 가슴에 구멍을 두 군데 뚫어 좌우 양손과 양다리 끝에 각각 실을 연결해서 움직이게 하였다. 인형 뒤에서 가슴에 난 구멍을 통해 줄을 잡아당기면 양쪽 손은 가슴을, 양쪽 다리는 머리를 치는데 연극의 처음부터 끝까지 쉴 새 없이 뚝딱거린다. 만석중 인형은 옷을 입히지 않고 몸에 색칠도 하지 않으며, 중앙에 고정시켜 놓는다. 사슴과 노루는 두꺼운 종이를 오려서 갈색을 칠하였으며, 사이를 떼어놓고 줄을 당겼다 놓았다 하면 실이 켕기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차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절에서는 정해진 사람이 꽹과리, 북, 장구 같은 타악기 반주에 맞춰 연출을 하고, 마을에서는 누구나 심심풀이로 여러 가지 인형을 조종하며 즐겼다.

개성에서는 1920년대까지 절이나 부근 마을에서 초파일에 불교의 포교수단으로 놀았다고 하나, 그 내용이나 참여자를 보아 민속연희적 성격이 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부터 초파일의 전승성이 약해지고 제등행렬을 비롯한 식전행사가 중요하게 자리잡기 시작하였는데, 만석중놀이도 일제의 '난장취제법'에 의한 지도 대상이었다. 전승놀이 대신 일제가 초파일의 주요 행사로 권장한 것은 아동대회(합창, 무용, 체육대회), 성극(聖劇)·음악의 밤, 제등행진, 시국강연회였다. 특히 불교 포교를 위한 성극·음악의 밤은 성탄절을 의식하여 만든 연극공연으로 일본의 의도대로 동아시아 각국에 퍼졌다.

서울에서는 "매년 음력 사월 초파일 남대문 밖 남묘에서 거행하는 그네뛰기는 금년에도 대규모로 거행한다는데, 특히 조선 고래부터 유명하던 망석중이놀이도 있을 터인바, 부근 일반 주민들은 방금 준비에 분망중이라더라."라고 하여, 남묘에는 초파일을 맞아 수많은 등이 달리고 만석중놀이가 해마다 공연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나 부인네들이었고, 방울등에 밝힌 불빛이 장관을 이루었다.

의의 역사적 우여곡절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온 만석중놀이는 그 희귀성과 다양성, 또 놀이적 효과나 교육적 효과로 보아 반드시 널리 재현시켜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참고문헌 | 高麗史,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東亞日報(1923년 5월 23일자, 1929년 5월 12일자), 朝鮮演劇史(金在喆, 民俗苑, 1981),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편무영(片茂永)

물장구놀이[水缶戱]

정의 물이 담겨 있는 물동이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빗자루로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놀이. 한자어로는 수부(水缶), 수부희(水缶戱), 수고(水鼓), 격부(擊缶), 수포악(水匏樂)이라 한다.

내용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정월 보름에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북을 치며 놀았는데, 이것을 '태평고(太平鼓)'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놀이를 석가탄신일인 4월 8일에 벌인다. 4월 8일 밤, 어린이들은 자기 집에 달아놓은 연등(燃燈) 아래 돗자리를 펴놓고 느티떡과 삶은(혹은 볶은) 검은콩을 먹는다. 그 등간


1


2

1~2 물장구 놀이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김상수

(燈竿) 아래에서 물 위에 바가지를 띄워 엎어놓고 빗자루로 두드리면 단조로운 소리가 난다. 그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며 즐기는데, 이를 물장구놀이라 한다.

전통적으로 석가탄신일은 어린이 중심의 명절이었기에 이 날에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많았다. 물장구놀이도 이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물장구놀이는 어린이들만 즐기는 놀이도 아니고, 석가탄신일에만 즐기는 놀이도 아니다. 권용정의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에 따르면, 석가탄신일 밤에 온 거리와 시장에 남녀들이 두루 섞여 물장구를 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시끌시끌 떠드는 소리에 혼미해져서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조사 자료를 보면 강원도 화천, 인제 등에서 부녀자들이 물장구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부녀자들의 물장구놀이는 특히 '시장군치기'라고 하는데, 그들은 물동이에 둘러앉아 윷짝으로 바가지를 치면서 억압된 감정을 토로하는 노래를 부른다. 다음의 민요가 그 한 예이다. "니 씨에미박 왕당그랑 뚝 딱, 니 씨누이박 쌍당그랑 뚝 딱, 니 씨고모박 꽁당그랑 뚝 딱, 니 씨할미박 호랑호랑 뚝 딱." 지금도 할머니들이 모여 한 손으로 막대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손가락으로 바가지를 치면서 그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疋言覺非, 洌陽歲時記, 漢陽歲時記, 海東竹枝, 韓國人의 奇俗 -性과 迷信-(이규태, 麒麟苑, 1979), 서울民俗大觀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필자 | 전신재(全信宰)

수고(水鼓)

☞ 물장구놀이[水缶戱]: 여름편

수부희(水缶戱)

☞ 물장구놀이[水缶戱]: 여름편

연등놀이(燃燈-)

☞ 관등놀이(觀燈-): 여름편

줄불놀이

정의 공중에 길게 걸어놓은 줄에 숯가루를 넣은 봉지를 주렁주렁 매단 뒤 점화하면, 불꽃이 튀면서 떨어지는 장관을 즐기는 놀이.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에서 전승되었고, 지금은 하회마을과 진동리에서만 전해져 온다. 하회마을의 줄불놀이는 원래 음력 7월 기망(旣望, 16일)에 벌어졌지만, 지금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9월 말~10월 초)에 벌어지며, 진동의 줄불놀이는 사월 초파일에 벌어진다. 놀이 장소는 하회의 경우 마을 앞을 휘감아 도는 꽃내[花川] 일대이고, 진동의 경우 태봉천 문화마당이다.

1~2 줄불놀이
경북 안동군 풍천면 하회리 황천만


1


2

유래 현재 전승되는 하회 줄불놀이와 진동 줄불놀이는 유래와 전승양상이 다르다. 먼저 하회 줄불놀이는 뱃놀이[船遊]의 한 행사로 전승되어 왔다. 풍산 유씨(豊山柳氏)가 세거해 온 하회마을의 양반들은 해마다 7월 기망 무렵이 되면 보름달 아래에서 시와 가무가 함께 하는 뱃놀이를 펼쳤다. 이 놀이에는 다채로운 불놀이가 따랐는데, 달걀껍질 또는 바가지 조각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심지를 박아 띄우는 달걀불[蓮火], 부용대(芙蓉臺) 위에서 꽃내 쪽으로 불붙인 '솟갑단(소나무줄기 무더기)'을 떨어뜨리는 낙화(落火), 그리고 줄불놀이이다. 뱃놀이의 부속 행사로 전승되어 온 줄불놀이는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에 약식으로 몇 번(1945년, 1968년, 1975년) 연행되었다. 그 뒤 1981년에 복원 시도가 있었지만 미흡했던 것을 1991년 제대로 복원하여 안동민속축제의 한 종목이 되었고, 1997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진동의 줄불놀이는 사월 초파일과 특별한 경사가 있는 날 벌어지다가, 1936년의 행사를 마지막으로 전승이 중단되었다. 1995년에 이르러 그때의 장관을 기억하는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진동면 청년회가 앞장서서 줄불놀이를 복원하였으며, '진동불꽃낙화대축제'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줄불놀이를 벌이고 있다.

내용 하회 줄불놀이는 꽃내의 양안에 자리잡은 부용대의 꼭대기와 건너편 만송정 솔숲 사이(약 300미터) 허공에 여러 개의 줄(보통 5~6개)을 걸고 수많은 숯봉지를 매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숯봉지는 한지를 쓰며 크기는 길이 40여 센티미터, 폭 2.5센티미터이다. 봉지에 뽕나무 뿌리로 만든 숯가루와 마른 쑥으로 만든 심지를 넣고 굵은 실로 봉지를 촘촘하게 여민다. 그런 다음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심지에 불을 붙이고 서서히 줄을 잡아당긴다. 줄은 각기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 위 아래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송정 쪽에서 불을 붙여 잡아당기면 숯봉지가 불꽃을 피우며 차츰 부용대 쪽으로 올라간다. 배 위에서는 선비와 기녀들의 시창과 가무가 벌어지고, 꽃내의 상류에서는 수백 개의 달걀불이 떠내려 오며, 하늘에는 여러 개의 줄불이 걸린 모습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선비들이 시를 한 수씩 지을 때마다 부용대에서 던지는 낙화가 절벽에 부딪히며 떨어지는 모습은 일대 장관을 연출한다.

한편 진동의 줄불놀이는 원래 봉래산에서 큰길 양쪽의 수양버들에 이르기까지 줄을 걸어 낙화(落火)를 매달고, 해상의 선착장에서는 수십 척의 배가 돛대를 연결하여 줄을 걸고 낙화를 매달아 장관을 연출하였으나, 지금은 태봉천의 문화마당에서 줄불놀이를 벌인다. 하회의 숯봉지에 해당하는 진동의 낙화를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다. 먼저 느티나무 껍질을 말린 뒤 숯을 만들어 그 가루를 한지에 싼 다음 양쪽에서 꼬아 꽈배기 모양을 만든다. 다 만들어지면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녹인 유황을 발라 쉽게 점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의의 하회의 줄불놀이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양반문화의 소산으로서 양반 풍류문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뱃놀이의 전통 속에서 전승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양반들의 뱃놀이 전통이 단절된 상태이고 더욱이 그 부속놀이인 줄불놀이의 존재를 확인 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하겠다. 한편 진동의 불놀이는 불교적 배경을 지닌 불놀이이다. 매년 사월 초파일에 마을 사람들이 주도하여 벌인 이 놀이는 양주시 유양동의 불놀이와 함께 종교적 불축제의 전통이 담긴 민속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참고문헌 | 하회 선유 줄불놀이(김재구, 안동문화원, 1992), 내고향 鎭東(윤정수, 조양인쇄, 1997), 안동양반의 생활문화(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안동시, 2000).

필자 | 한양명(韓陽明)

파일놀이[八日-]

정의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즐기는 놀이의 총칭.

내용 파일이란 음력 사월 초파일, 곧 석가탄신일을 대신하여 널리 사용하는 말이며, 이러한 호칭은 불교문화권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러므로 파일놀이는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즐기는 놀이를 총칭하는 뜻이며, 관등놀이, 호기놀이, 만석중놀이, 굴등놀이, 방석불놀이, 낙화놀이[落火戱, 줄불놀이], 팔일장(八日粧), 불꽃놀이, 제등행렬, 횃불놀이, 유등놀이, 들놀이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장마당이나





1~2 파일놀이
서울시 종로구 최호식

공터에서는 농악, 기생연주, 씨름, 활쏘기도 하고 또 남사당패도 놀았다고 하니 초파일 놀이의 풍경은 불교적이라기보다 민속적 축제한마당에 가까웠다. 이렇게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축제한마당을 펼치는 나라도 한국뿐이다.

인접국가사례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에서는 석가의 탄생과 열반을 동시에 기념하는 불교적 행사로 거행하며, 날짜도 명칭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또 이때 노는 놀이도 다양하며 같은 날에 설날의 의미를 두는 지역에서는 대단한 규모로 축제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서양력을 사용하면서 날짜의 변동과 함께 축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분산되어 본래의 모습이 퇴색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 욕불(浴佛)이 5월 중순에서 4월 중순으로 옮겨와 물뿌리기축제로 관광화되었고, 스리랑카에서 코끼리행렬이나 기괴한 모양의 장식물들이 축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를 강점했던 일제는 한때 대동아공영권의 종교적 이념으로 불교를 이용하였으며, 특히 파일놀이를 동원화하고 규격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치적 간섭이 있었음에도 불교문화권의 파일놀이가 나라마다 제각기 다르게 남아있다는 것은 문화의 저력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초파일 민속론(편무영, 민속원, 2002).
필자 | 편무영(片茂永)

호기놀이(呼旗-)

정의 사월 초파일 연등회(燃燈會)를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이 벌이던 놀이. 호기(呼旗)는 아이들이 연등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벌인 일종의 걸립행위이다.

내용 아이들은 사월 초파일 연등회를 수십 일 앞두고, 종이를 오려 장대에 붙여 깃발을 만들어 물고기 껍질을 벗겨 북을 만든 후, 깃발을 앞세우고 북을 두드리면서 마을과 거리를 몰려다니며 연등 비용을 보태달라고 외쳤다. 이렇게 하여 쌀과 베를 얻어다가 연등회 비용으로 썼는데, 이를 '호기(呼旗)'라 하였다.

호기놀이[呼旗戱]는 이러한 호기를 해학적인 가무로 만들어서 공연한 잡희(雜戱)이다. '호기아이들놀이[呼旗童戱]'라고도 하였는데, 종교적 의미가 깃든 아동놀이라 할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공민왕(恭愍王)은 사월 초파일에 연등을 하고 궁궐 마당에서 아이들의 호기놀이를 구경한 후 포백 필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 호기는 비록 고려시대만큼 활발하지 못하였어도 전기까지는 지속되었으나, 억불정책(抑佛政策)에 의해 점차 사라졌다. 조선시대 사월 초파일에 집집마다 연등을 하기 위해 대나무로 등간(燈竿)을 세우고, 맨 꼭대기에 깃발을 다는 풍습은 호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호기놀이 송석하

참고문헌 | 京都雜志, 高麗史, 東國歲時記, 慵齋叢話, 한국민속놀이론(金善豊, 中央民俗學 創刊號, 中央大學校 韓國民俗學研究所, 1989), 한·중 두 나라의 가무와 잡희(김학주,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필자 | 안지원(安智源)

등타령(燈打令)

정의 등(燈)을 소재로 부르는 경쾌한 곡조의 민요. 좁은 의미로는 관등일(觀燈日)을 맞아 내거는 등의 종류를 읊은 경쾌한 곡조의 민요이다.

유래 좁은 뜻의 등타령(燈打令)은 음력 사월 초파일을 맞아 관등(觀燈)하는 풍속과 연관된다. 관등풍속은 신라시대 팔관회에서 비롯되었으며, 고려 중엽 이후로는 일반적인 관등절로 성황을 이루었다. 고려시대의 연등(燃燈)은 국가와 왕실의 안위를 목적으로 1월 15일 또는 2월 15일에 열리기도 했다. 사월 초파일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로, 초파일을 앞두고 민간에서는 앞마당에 등간(燈竿)을 세우고 그 꼭대기를 꿩의 꼬리로 장식한 다음 채색 비단으로 깃발을 달았으며, 등간에 줄을 매고 또는 등간을 세우지 못하는 집에서는 추녀 밑이나 나뭇가지에 줄을 매고 그 줄에다 등을 달았다.

등불은 자비와 지혜의 상징으로, 등불이 밝을수록 길(吉)하다고 여기고 초파일 저녁은 등석(燈夕)이라 하여 가족 수만큼 또는 아이의 나이만큼 여러 개의 등을 달았다. 등은 모양이나 등 위의 장식물 또는 매달린 곳에 따라 만화등, 수박등, 자라등, 호랑등, 새우등, 황새등, 숭어등, 붕어등, 연화등, 일월등, 칠성등(七星燈), 거북등, 종경등(鐘磬燈), 선등(仙燈), 북등, 마늘등, 영등(影燈), 알등, 병등(甁燈), 벽장등(壁欌燈), 가마등, 난간등(欄干燈)이라 불렀다.

내용 등타령은 등이 높이 매달려 있음에 착안하여 해학적으로 노랫말을 엮는다. 등타령 가사 예는 다음과 같다.

요모조모 만화등은 채전밭을 엇다두고
저리나 높이 걸리셨나,
둥글둥글 수박등은 채전밭을 엇다두고
저리나 높이 걸리셨나,
오그라졌다 자라등은 짚은(깊은)한강 엇다두고
저리나 높이 걸리셨나,
목 짧다 자라등은 백사지(白砂地)를 엇다두고
저리나 높이 걸리셨나,
얼쑹덜쑹 호랑등은 첩첩산중 엇다두고
저리나 높이 걸리셨나,
꼬부랑 꼽작 새우등은 얼렁이(어레미) 구녕 왜마다고
저리나 껑충 걸리셨나,
목 길다 황새등은 논틀 밭틀 왜마다고
저리나 높이 걸리셨나,
팔팔 뛰는 숭어등은 서해바다 엇다두고
저리나 높이 걸리셨나,
넓적하다 붕어등은 둠벙강을 엇다두고
저리나 높이 걸리셨나.

종류 등타령 같이 등(燈)을 소재로 한 민요에는 달거리, 관등가, 등달어라, 장고도 등노래가 있다. 달거리는 정월부터 섣달까지 다달이 세시풍속을 장절형식으로 읊어나가는 민요이다. 이 노래에서 4월 풍속으로 "사월이라 초파일은, 석가모네도 탄생일이라, 집집마다 등불을 달고, 자손만대를 빌건마는, 우리집 낭군은 어데를 갔걸래, 등달 줄도 모르는고."와 같이 관등 풍속을 그리고 있다. 관등가(觀燈歌)는 『청구영언(靑丘永言)』 끝에 실려 전하는 가사로 '월령상사가(月令相思歌)'라고도 한다. 정월부터 5월에 이르는 매달의 풍속을 읊으면서 옆에 없는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사월 초파일 풍속으로 관등(觀燈)하러 높은 데 올랐더니 갖가지 등이 나열해 있음을 노래하고는 "우리 임은 어디 가고 관등할 줄 모르는고."로 단락을 짓는다.

'등달어라'는 전남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한적마을의 부녀들이 모를 다 심고 어둑해질 무렵 등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며 부르던 노래이다. 받음구는 "등달어라 등달어라, 영사 초로이 여로, 시리렁에 덩당실 등달어라."이다. 메김구 예는 "불밝히소 불밝히소, 영사 초로이 여로, 시리렁에 둥덩실 불밝히소." "못하겄네. 못하나겄네, 한많어 여이여로, 시리렁에 둥덩시리 못하나겄네."와 같이 "AAB시리렁에 둥덩실A" 형태로 고정어와 반복어(A)가 결합되어 있다. 메김선율은 받음선율과 동류이다.

장고도 등노래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에서는 매년 섣달그믐이 되면 풍어를 기원하는 '등불써기놀이'가 15세 전후, 장가가기 전의 소년들에 의해 행하여졌으며, 이때 등의 옆면에 한지를 붙이고 등

채로 쳐 장단을 맞추면서 놀이장소인 동무대로 함께 가며 "이영 이영 아하 이영 이영소리가 아하소리."라는 등타령을 반복하여 불렀다. 장고도의 소녀들이 매년 음력 4월 27~28일 무렵에 모여 놀던 등바루놀이에서도 장고도 등타령을 불렀다.

참고문헌 | 조선풍속집(今村鞆, 書籍店, 1914), 日本民謠事典(仲井幸二郎 編, 東京堂出版, 1972), 한국의 민속(임동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5), 한국가창대계(이창배, 홍인문화사, 1976), 오씨본 청구영언(황순구, 청구영언연구, 1979), 중국음악사전(인민음악출판사, 1985), 歲時風俗(崔常壽, 瑞文堂, 1988), 겨레 노래 선(選) -다함께 노래하기-(이소라, 이화문화사, 1991), 악보1533(이소라, 韓國의 農謠4, 民俗苑, 1993), 보령의 민요(이소라, 대천문화원, 2005).
필자 | 이소라(李素羅)

사월 초파일날 굴비 대가리 짓마르듯

정의 어떤 것이 빨리 없어진다는 뜻.
내용 굴비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가리마저도 서로 차지하려고 해서 굴비가 빨리 사라져 굴비를 구하기 힘들다. 짓마르다는 것은 빨리 없어짐을 의미하여 굴비 대가리조차 서로 차지하려 하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사월 초파일에는 어느 집에서나 조기를 먹는 습관이 있는 데서 유래하여, 저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모두 한다는 뜻으로 쓴다. 불가의 명절인 초파일과 관련지어 속담이 전해온다. 불가에서는 초파일에 물고기를 냇가에 가서 놓아주는 방생(放生)을 한다. 이처럼 생명을 존중하는 날인 초파일에 생명 있는 생선을 먹는다는 것은 반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일을 다한다는 뜻보다는 좋은 일, 값이 나가는 물건에 집착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초파일과 관련지은 것은 이런 일에 집착하지 말고 평상심을 유지하라는 의미라 하겠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강현모(姜賢模)

사월 파일 등(燈)대 감듯

정의 사월 초파일에 걸어놓은 수많은 등처럼 무엇을 휘휘 익숙하게 감아맨다는 뜻.
내용 석가의 탄신을 기념하는 사월 초파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 재(齋)를 올리고 연등놀이를 한다. 『고려사(高麗史)』에 이미 이 날의 연등풍속이 전해져 오는 것으로 보아 오랜 풍습임을 알 수 있다. 가가호호마다 등을 달아매는 풍속이 있어 등석(燈夕)의 날이라 했을 만큼 연등은 사월 초파일의 상징이었다. 이렇듯 민간의 많은 사람들이 연등하는 이 날, 수도 없이 많은 등(燈)대를 감다 보면 그 일이 빠르고 능숙하다. 그래서 아주 능숙하게 무언가를 감는 일, 곧 익숙하게 잘 하는 일의 비유로 쓰이게 되었다.
유사속담 유사한 뜻을 가진 속담으로 "뱃사공의 닻줄 감듯"이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필자 | 천혜숙(千惠淑)

초파일에 물 담으면 농사 망한다

정의 초파일에 물을 귀하게 여기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뜻.
내용 4월은 농사를 시작하는 철이다. 이 시기에 물이 풍족해야 농사가 잘된다. 그런데 이때 농사를 짓기 위하여 물을 담아놓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물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물이 부족하면 농사짓기가 어렵고 그 결과로 농사를 망치게 된다.

초파일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민속이 있었다. 충남 연기에서는 "초파일에 이슬비가 오면 가물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풍부하고, 아예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럭저럭 괜찮다."거나 천안에서는 "초파일에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대풍이 든다."라는 속어가 있다.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는 4월에 물이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천연 강수량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던 옛날에 비가 와서 물이 풍부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여도 자연의 혜택을 이겨낼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강현모(姜賢模)





節氣 절기

이때가 되면 봄은 완전히 퇴색하고
산과 들에는 신록이 일기 시작하며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
또 마당에는 지렁이들이 꿈틀거리고
밭에는 참외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리고 묘판에는 볍씨의 싹이 터
모가 한창 자라고
밭의 보리이삭들이
패기 시작한다.
집안에서는 부인들이
누에치기에 한창이고
논밭에는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가 자라서
풀뽑기에 부산해진다.



오늘 입하
경향신문 1957년 5월 5일

입하(立夏)

정의 24절기 중 일곱 번째 절기. 양력으로 5월 6일 무렵이고 음력으로 4월에 들었으며, 태양의 황경(黃經)이 45도에 이르렀을 때이다. 입하(立夏)는 곡우(穀雨)와 소만(小滿) 사이에 들어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후이다.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으로 맥량(麥凉), 맥추(麥秋)라고도 하며, '초여름'이란 뜻으로 맹하(孟夏), 초하(初夏), 괴하(槐夏), 유하(維夏)라고도 부른다.

내용 이때가 되면 봄은 완전히 퇴색하고 산과 들에는 신록이 일기 시작하며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 또 마당에는 지렁이들이 꿈틀거리고, 밭에는 참외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리고 묘판에는 볍씨의 싹이 터 모가 한창 자라고, 밭의 보리이삭들이 패기 시작한다. 집안에서는 부인들이 누에치기에 한창이고, 논밭에는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가 자라서 풀뽑기에 부산해진다.

속담 옛날 재래종 벼로 이모작을 하던 시절에는 입하 무렵에 한창 못자리를 하므로 바람이 불면 씨나락이 몰리게 되는데, 이때 못자리 물을 빼서 피해를 방지하라는 뜻으로 "입하 바람에 씨나락 몰린다."는 말이 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해는 목화가 풍년 든다는 뜻으로 "입하 일진이 털 있는 짐승날이면 그 해 목화가 풍년 든다."는 말도 있다. 입하가 다가오면 모심기가 시작되므로 농가에서는 들로 써레를 싣고 나온다는 뜻으로 "입하물에 써레 싣고 나온다."라는 말도 있다. 재래종을 심던 시절에는 입하 무렵에 물을 잡으면, 근 한 달 동안을 가두어 두기 때문에 비료분의 손실이 많아 농사가 잘 안 된다는 뜻으로 "입하에 물 잡으면 보습에 개똥을 발라 갈아도 안 된다."라는 말도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81), 民俗誌(光州直轄市·南道民俗學會, 1990), 洪城의 民俗(홍성문화원, 1994),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최인학(崔仁鶴)

입하물에 써레 싣고 나온다

정의 입하(立夏) 무렵에 모심기가 시작되므로 농가에서는 써레를 싣고 논으로 나오게 된다는 뜻.

내용 입하는 양력 5월 5~6일에 해당하는 시기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다. 예전에 재래종 벼로 이모작 농사를 지을 적에는 입하 무렵에 대개 못자리를 만들므로, 이때 농군들은 써레를 사용하여 모판을 판판하게 고른 뒤에 볍씨를 뿌려 못자리를 만든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농사법은 세시절기에 따라 농사일의 시기를 가늠하는 예가 많은데, 이 속담은 바로 이런 농사일의 제철을 알리는 속담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甕津郡誌(甕津郡, 1989),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권태효(權泰孝)

1 입하 풍경 이억영
2 써래질
전북 임실군 덕치면 황현만





입하 바람에 씨나락 몰린다

정의 입하(立夏)에 바람이 불면 못자리에 뿌려놓은 볍씨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좋지 않다는 뜻.

내용 입하는 곡우와 함께 농사력에서 중요한 절기의 하나이다. 재래종 벼로 이모작을 하던 시절에는 이 무렵에 한창 못자리를 만든다. 못자리에 볍씨를 뿌리고 물을 대놓았는데 바람이라도 불면 볍씨들이 한쪽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입하의 바람은 반갑지 않다. 이런 때는 못자리 물을 빼서 볍씨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

24절기의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농사에 이롭고 해됨을 알고 방제하거나 흉풍을 예점하는 풍속이 있다. 그 가운데서 이 속담은 입하바람이 농사에 해로우니 방제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망종의 바람이나 천둥을 꺼려서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라고 한다든지, '유두물' 또는 '유두할애비'라고 하여 유두의 비나 천둥을 길하게 여기고 기다리는 것과 함께 농사력과 관련지어 민간에서 갈무리해 온 소중한 민속지식인 셈이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辭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천혜숙(千惠淑)

소만(小滿)

정의 24절기 중 여덟 번째 절기. 양력으로는 5월 21일 무렵이고 음력으로는 4월에 들었으며, 태양이 황경 60도를 통과할 때를 말한다. 소만(小滿)은 입하(立夏)와 망종(芒種) 사이에 들어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滿]는 의미가 있다.

내용 이때는 씀바귀 잎을 뜯어 나물을 해먹고, 냉이나물은 없어지고 보리이삭은 익어서 누런색을 띠니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 "4월이라 맹하(孟夏, 초여름)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라고 했다. 이때부터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며 식물이 성장한다. 그래서 맹하는 초여름이라는 뜻인 이칭도 있다.

소만 무렵에는 모내기 준비에 바빠진다. 이른 모내기, 가을보리 먼저 베기, 여러 가지 밭작물 김매기가 줄을 잇는다. 보리 싹이 성장하고, 산야의 식물은 꽃



소만 풍경 이억영

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모내기 준비를 서두르고, 빨간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다. 모판을 만들면 모내기까지 모의 성장기간이 예전에는 40~50일 걸렸으나, 지금의 비닐 모판에서는 40일 이내에 충분히 자라기 때문에 소만에 모내기가 시작되어 일년 중 제일 바쁜 계절로 접어든다. 또한 소만이 되면 보리가 익어가며 산에서는 부엉이가 울어댄다. 이 무렵은 '보릿고개'란 말이 있을 정도로 양식이 떨어져 힘겹게 연명하던 시기이다. 산과 들판은 신록이 우거져 푸르게 변하고 추맥(秋麥)과 죽맥(竹麥)이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소만 입기일(入氣日)에서 망종까지의 시기를 다시 5일씩 삼후(三候)로 나누어, 초후(初候)에는 씀바귀가 뻗어오르고, 중후(中候)에는 냉이가 누렇게 죽어가며, 말후(末候)에는 보리가 익는다고 했다. 씀바귀는 꽃상추과에 속하는 다년초로서 뿌리와 줄기, 잎은 식용으로 널리 쓰인다.

초후를 전후하여 죽순을 따다 고추장이나 양념에 살짝 묻혀먹는 것도 별미이다. 또한 냉잇국도 늦봄이나 초여름에 많이 먹는다. 보리는 말후가 되면 익기 시작하므로 밀과 함께 여름철 주식을 대표한다.

모든 산야가 푸른데 대나무는 푸른빛을 잃고 누렇게 변한다. 이는 새롭게 탄생하는 죽순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다. 마치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어린 자식을 정성들여 키우는 어미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그래서 봄철의 누런 대나무를 가리켜 죽추(竹秋)라고 한다.

속담 이 무렵에 부는 바람이 몹시 차고 쌀쌀하다는 뜻으로 "소만 바람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참고문헌 | 四時纂要, 洪城의 民俗(홍성문화원, 1994).
필자 | 최인학(崔仁鶴)


AUTHENTIC
92



月內

월내

봉선화가 피면
꽃과 잎을 섞어 찧은 다음
백반과 소금을 넣어
이것을 손톱에 얹고
호박잎, 피마자잎 또는 헝겊으로 감아
붉은 물을 들인다.
원래 이 풍속은
오행설에 붉은색[赤]이
사귀(邪鬼)를 물리친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첫눈이 내릴 때까지
손톱에 봉선화물이
남아 있으면
첫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남이장군사당제(南怡將軍祠堂祭)

⇨ 남이장군사당제(南怡將軍祠堂祭): 겨울편

못자리고사(-告祀)

정의 못자리를 만들거나 못자리를 낸 후에 풍년을 기원하고 새나 개구리 같은 조수(鳥獸)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내는 개인 고사.

내용 한 해 벼농사의 시작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못자리를 만들면서 여러 짐승들의 피해를 막고 풍년을 비는 고사를 지내는데, 이를 흔히 '못자리고사', '볍씨고사', '고사'라 한다.

절기상 곡우(穀雨, 양력 4월 20일경) 즈음이 되면 못자리를 만들 준비를 한다. 못자리는 일년 농사 중 가장 중요하므로 볍씨를 담그는 것부터 여간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 조수가 들어오는 여드렛날이나 아흐렛날에는 볍씨를 담그지 않는다. 이 날 담는 볍씨로 못자리를 하면 조수의 힘에 의해 모가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부정타지 않도록 씨나락(볍씨)을 담가놓고는 초상집에 문상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성들여 키운 볍씨를 못자리에 뿌릴 때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성을 쏟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루떡과 술을 준비하여 못자리하는 논의 머리 쪽에 놓고 고사를 드린다. 이때 고사는 대주(大主)가 주관한다. 이와 달리 못자리하는 날 점심 먹을 때 제일 먼저 뜬 '첫밥'을 논두렁 위에 올려두고 일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이 밥은 그 논의 주인이 반드시 먹는다. 첫밥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정성인 것이다.

못자리를 한 후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새가 볍씨를 쪼아 먹거나 개구리 같은 짐승이 볍씨를 빼먹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사를 지내는 것이며, 동시에 뿌린 볍씨가 잘 자라서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별도로 밥이나 떡을 준비하지 않고, 못자리를 만든 날 저녁에 밥 한 그릇을 가지고 나가 '고수레'를 하듯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논가에 던지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특별히 개구리 같은 짐승들이 모판에 들어가지 않아 못자리를 온전히 보존하게 된다. 한편 모가 튼튼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못자리를 하는 날 반드시 찰밥을 해먹기도 한다. 찰밥은 메밥과 달리 찰기가 있으므로 모가 잘 서고, 농사도 풍성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이필영(李弼泳)

문소전제(文昭殿祭)

⇨ 문소전제(文昭殿祭): 봄편

우사(雩祀)

정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매년 음력 4월에 거행하던 기우제(祈雨祭). '우사(雩祀)'는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기우제의 별칭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중국에서 전래된 특정한 양식의 기우제 중 하나를 가리킬 때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특정한 양식의 기우제가 우사라는 이름으로 국가의례 가운데 중사(中祀)로 거행되었다.

유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우(雩)'자를 깃털을 가지고 춤추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한 반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는 '우(呼)'와 음이 비슷하여 비를 갈구하며 하늘에 부르짖는 소리라고 해석하였다. 설명은 다르지만 비를 갈구하여 하늘을 향해 소리치거나 깃털을 흔들며 춤추는 우사는 유교의 일반적인 제사와 차이를 보인다. 고대 우제는 『주례(周禮)』에서 '큰 가뭄이 들면 무당을 거느리고 춤추며 비를 빈다[舞雩]'라고 한 것처럼 무당이 주재하는 기우제였다.

유교 경전에 나오는 고대 중국의 우제는 가뭄이 발생하였을 때 지내는 비정기적인 의례일 뿐 아니라, 일년 중 특정한 달에 지내는 정기제였다. 『춘추좌전(春秋左傳)』에는 28수(宿) 중 동방 7수인 창룡수(蒼龍宿)가 다 보이는 음력 4월에 우사를 지낸다고 하였으며, 『예기(禮記)』「월령(月令)」에는 중하(中夏)의 달인 5월에 상제(上帝)에게 대우(大雩)를 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우사는 모든 만물이 자랄 시기에 가물지 않고 비가 흡족히 내려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월력(月曆) 의례 중 하나였다. 이렇게 정기제로 지내던 우사는 당대(唐代)에 이르러 정월의 기곡(祈穀), 맹하(孟夏)의 우사, 계추(季



기우단
「陽川縣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秋)의 대향(大饗), 동지(冬至)의 사천(祀天) 같이 네 가지 제천의례 중 하나로 자리잡는다. 그러나 명대(明代)에 이르러서 정기제로서의 우사는 사라지고, 가뭄이 심할 때 숭우단(崇雩壇)에서 거행하는 비정기적인 의례로 바뀌었다.

내용 중국의 우사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였다. 고려시대 우사는 4월과 가뭄 때 원구단(圓丘壇)에서 호천상제(昊天上帝)와 오제(五帝)를 모시고 지내는 기우제였다. 고려시대 하늘에 대한 제사인 원구제는 정월 기곡제와 사월의 우사 두 가지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우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국가 전례가 제후(諸侯)의 지위에 맞추어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곡이나 기우의 제천의례를 지낼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414년(태종 14) 5월에 원구단과 별도로 동대문 밖에 우사단(雩祀壇)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상제를 대신하여 구망(句芒), 축융(祝融), 후토(后土), 욕수(蓐收), 현명(玄冥), 후직(后稷)의 신들을 제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은 『예기』 「월령」의 중하조(中夏條)에 나오는 "천자는 상제(上帝)에게 우사를 드리고, 제후 이하는 상공(上公)에게 우사를 지낸다."라는 정현(鄭玄)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르면 이 우사는 중사(中祀)에 속하며, 4월 중 택일하여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4월의 정기제 외에 가뭄이 심할 때에도 우사단에서 비를 빌었다. 구망, 축융, 후토, 욕수, 현명 같은 신들이 오방의 방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우사단 기우 제문은 오행의 순환과 연관된 내용이 많았다.

한편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지낸 기우제는 이 우사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가뭄이 발생하면 나라에서는 종묘, 사직, 풍운뇌우(風雲雷雨), 악해독(嶽海瀆), 명산대천(名山大川) 같은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기우제를 지냈다. 1704년(숙종 30)에 정식화된 기우제의 12제차를 보면 '삼각산·목멱산·한강→용산강·저자도→풍운뇌우·산천·우사→북교(北郊)·사직→종묘→각산·목멱산·한강→용산강·저자도→풍운뇌우·산천·우사→북교·석척(蜥蜴)→사직·석척→종묘·석척→토룡제(土龍祭)'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순서를 보면 우사는 풍운뇌우 및 산천과 더불어 거행되었고, 북교의 망제(望祭)나 사직, 종묘에 비해 낮은 단계의 기우제로 취급되었다. 이것은 우사의 대상인 여러 신들의 지위가 낮고 그들의 기능이 비를 부르는 것과 직접 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기우제는 우사의 대상보다 구름과 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은 산천과 용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제의 명칭으로 보아 기우제와 가장 근접한 제사였지만 실제

이름만큼 기우제로 기능하였던 것은 아니다.

의의 벼농사 중심이던 우리나라에서 기우제는 어떤 제례보다 중요하였으므로 그 종류와 제사 대상의 신이 많았다. 우사는 그런 기우제 중 하나로서 애초 제천의례였으나, 조선시대 유교적 명분주의에 의하여 역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형태로 변하였다. 이러한 우사는 중국 전례의 수용과 변용, 유교적 명분과 가뭄의 현실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전례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 說文解字, 禮記正義, 周禮, 春秋左氏傳.
필자 | 이욱(李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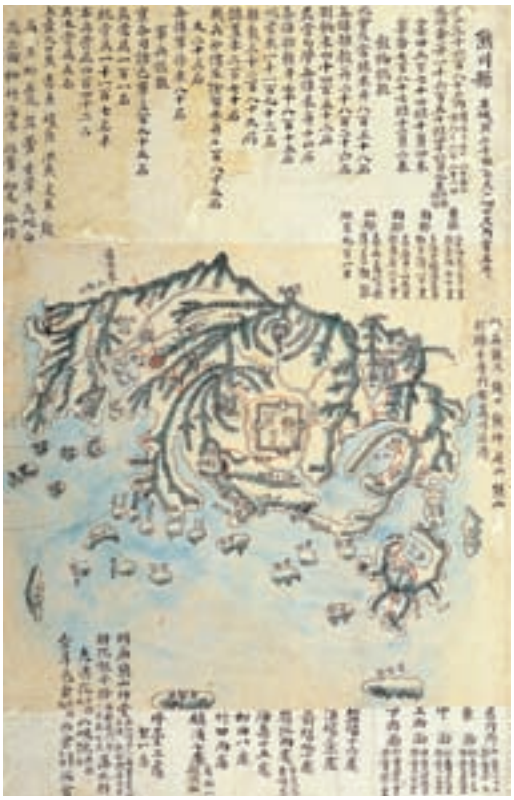
웅산신당제(熊山神堂祭)

정의 조선시대 웅천현(熊川縣; 현재 경상남도 진해시)의 지역민들이 매년 음력 4월과 10월에 웅산신당(熊山神堂)에서 행하던 제의.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웅천현」 사묘조(祠廟條)에 "웅산신당은 산꼭대기에 있다. 지방 사람이 매년 4월과 10월에 신을 맞이하여 산에서 내려와서 반드시 쇠북과 북을 치며 잡희(雜戲)를 벌이는데, 원근 사람이 다투어 와서 제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웅천현은 조선 문종 때 완포현과 웅신현을 통합한 지역이다. 갑오개혁 후 웅천군으로 개칭되었다가 1912년 진해면으로 개편되었고, 다시 1955년 진해시로 승격되었다. 1973년 웅천면이 진해시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웅산은 경남 진해시, 창원시, 김해시에 걸쳐 있는 산으로 곰산, 시루봉이라고도 한다.

웅산신당제에 대한 기록은 상세하지는 않지만, 위의 내용으로 보아 신당은 산꼭대기에 있었으며, 신격은 웅산(熊山), 곧 산신(山神)이라고 추정된다. 지방 사람들이 산에서 신을 맞이하여 내려오고 원근에서 다투어 제사를 지낸 점, 『신증동국여지승람』 사묘조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군현의례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파종과 수확이 이루어지는 음력 4월과 10월에 제의가 행해진 것은 한 해 농사가 잘 이루어져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고 수확물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熊川縣
「熊川縣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新增東國輿地勝覽.
필자 | 김수미(金秀美)

종묘대제(宗廟大祭)

⇨ 종묘대제(宗廟大祭): 정월편

봉선화물들이기[鳳仙花染指]

정의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봉선화로 손톱을 붉게 물들이는 풍속. 한자어로 염지(染指)라고 한다. 봉선화(鳳仙花)는 금봉화(金鳳花), 급성자(急性子), 투골초(透骨草), 지갑화(指甲花), 봉선(鳳仙), 봉황죽(鳳凰竹), 소홍도(小紅桃), 금사화(禁蛇花), 등잔화, 봉숭아라고도 일컫는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4월(四月) 월내조(月內條)에 보면 "계집애들과 어린애들이 복숭아를 따다가 백반에 섞어 짓찧어서 손톱에 물을 들인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봉선화가 붉어지면 그 잎을 쪼아 백반을 섞어 손톱





1 봉선화 꽃잎
2-3 봉선화 물들이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에 싸고 사나흘 밤만 지나면 심홍빛이 든다."라고 했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 봉선화물을 들여 주는 것은 예쁘게 보이려는 뜻보다 병마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곧 귀신이 붉은색을 두려워하므로 손톱에 붉은 봉선화물을 들여 병귀를 쫓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생긴 풍속이다.

봉선화가 피면 꽃과 잎을 섞어 찧은 다음, 백반과 소금을 넣어 이것을 손톱에 얹고 호박잎, 피마자잎 또는 헝겊으로 감아 붉은 물을 들인다. 원래 이 풍속은 오행설에 붉은색[赤]이 사귀(邪鬼)를 물리친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첫눈이 내릴 때까지 손톱에 봉선화물이 남아 있으면 첫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예전에는 남자아이들도 봉선화물을 들였다. 이것은 봉선화가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부터 봉선화는 못된 귀신이나 뱀을 쫓아낸다고 알려져 있다. 집의 울타리 밑이나 장독간 옆, 밭 둘레에 봉선화를 심으면 질병이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 실제 봉선화에서는 뱀이 싫어하는 냄새가 나므로 봉선화를 심으면 뱀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봉선화를 금사화(禁蛇花)라고도 부른다.

인접국가사례 기원전 3,000년 무렵 고대 이집트와 중국에서 손톱을 관리하던 기록이 남아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손톱의 색깔이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 관목에서 추출한 헤나(Henna)로 손톱에 물을 들였다. 왕족은 진한 적색을 칠하고, 계급이 낮을수록 옅은 색을 칠했다. 중국에서도 특권층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밀랍, 계란 흰자위, 아교, 아라비아고무를 섞어서 손톱에 색을 칠했다. 기원전 600년 중국 왕실에서는 금색 옷을 입고 손에 은색을 칠하였으며, 15세기 명나라 왕조의 지배자들은 손톱에 빨간색과 검은색 칠을 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와 중국에서 손톱에 붉은 물을 들인 것은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강미와 주술적 의미를 나타내는 수단으로도 사용하였다.

의의 고대 문명 초기부터 손톱은 건강미의 상징이었다. 선홍색을 띤 길고 아름다운 손톱은 여성에게는 미용의 관심 대상이었고, 남성에게는 젊고 힘찬 용맹의 상징이었다. 매니큐어를 손톱에 바를 경우 산소가 손톱을 통과하지 못하여 손톱 색이 하얗게 되거나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봉선화물은 손톱이 숨을 쉴 수 있어 건강 면에서도 효과적

이다. 봉선화로 물들인 붉은 손톱이 없어지기 전에 첫눈이 내리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병사(病邪) 기원이 애정 기원으로 전이되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林下筆記, 꽃: 윤후명의 식물 이야기(윤후명, 문학동네, 2003).
필자 | 최덕원(崔德源)

어만두(魚饅頭)

정의 흰살 생선인 민어나 도미, 광어의 살을 전유어 감으로 얇게 떠서 만두소를 넣고 만두 모양으로 만들어 녹말을 씌워서 찌거나 삶아 건진 여름철 시식.
유래 어만두는 민어, 광어 등의 흰살 생선으로 만들며 숙채와 곁들이면 모양이 깨끗하고 맛이 담백하다. 만두(饅頭)는 고려시대에 중국 원나라에서 전래된 발효만두인 상화(霜花)의 변천으로, 만두소로는 채소를 많이 썼으며, 육류는 주로 꿩과 닭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 후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따르면 돼지고기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요즘에는 돼지고기와 함께 쇠고기를 많이 사용한다.
내용 민어의 영양소는 물고기 중에서 소화 흡수가 빨라 어린이들의 발육과 노인, 환자들의 건강회복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방에서는 식욕을 촉진시키고 이뇨작용을 돕는다고 한다. 민어는 지질이 풍부해지는 6월에 가장 맛이 좋고, 산란기를 앞둔 여름철에 가장 맛이 좋다.

싱싱한 민어살의 포를 떠서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하여, 다진 쇠고기와 채 썬 표고, 석이를 양념하여 볶고 오이도 채 썰어 절인 후 볶아 소를 만든다. 데친 숙주와 볶은 오이, 볶은 쇠고기 등을 섞어 녹말을 묻힌 생선포에 놓고 동그랗게 싸서 찜통에 넣고 찬물을 뿌리고 찐다. 찔 때나 꺼낼 때 찬물을 뿌리면 윤기가 나서 좋다. 오이와 홍고추, 표고버섯, 석이버섯을 골패 모양으로 썰어 녹말에 굴려 끓는 물에 데친 다음, 찬물에 헹구어 함께 담고 초간장이나 겨자즙과 함께 낸다. 여름철에 교자상이나 주안상에 올리기에 좋은 생선찜이다.

참고문헌 | 한국전통음식 우리 맛(윤숙자, 강원일보사, 1990), 한국음식대관2 -주식·양념·고명·찬물-(조창숙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우리생선 이야기(김소미 외, 효일, 2002).
필자 | 윤숙자(尹淑子)

어채(魚菜)

정의 어채는 회(膾)의 일종으로 생선과 채소에 녹말을 묻혀 데친 다음 색을 맞추어 돌려 담아 먹는 전통요리.
내용 어채는 주안상에 어울리는 음식으로 『옹희잡지(饔餼雜誌)』에 보면 "각종 생선을 회처럼 썰어서 녹말을 묻히고, 고기내장, 대하, 전복, 채소를 한 가지씩 삶아내어 보기 좋게 담는다."라고 되어 있다.

어채의 재료는 숭어, 해삼, 전복, 곤자소니, 양 같은 어육류와 표고, 목이, 석이 같은 버섯채소류가 쓰였다. 차게 먹는 음식이므로 생선은 비린내가 나지 않는 어류를 고른다. 생선은 살이 부서지기 쉬우므로 찬물에 담가서 식혀야 쫄깃한 맛이 살아난다. 또한 녹말을 묻혀 바로 데치는 것보다 녹말이 생선살


1


2

1 어만두
2 어채
궁중음식연구원

의 수분을 다 흡수할 때까지 기다렸다 데쳐야 모양이 깔끔하다.

참고문헌 | 甕餘雜誌, 한국음식대관2 -주식·양념·고명·찬물-(조창숙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韓國의 時節飮食(윤숙자, 지구문화사, 2000),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우리생선 이야기(김소미 외, 효일, 2002).
필자 | 윤숙자(尹淑子)

등바루놀이

정의 음력 4월을 전후한 시기에 서해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져 오던 여성들의 놀이. '등바루(등빠루)'의 어원을 '등불을 밝힌다' 혹은 '등불을 켜들고 마중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하지만 실제 등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불과 관련된 어원은 근거가 미약하다.

내용 등바루놀이는 1950~1960년대까지 충남 서해안의 장고도, 안면도, 간월도, 고대도, 원산도를 비롯한 섬마을과 해변에서 널리 전승되었다. 그 시기는 굴이 많이 나는 음력 4월에 바닷물이 가장 멀리 빠지는 조금 무렵이었으며, 놀이 대상은 초경(初經)을 경험한 15~18세 처녀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부녀자들까지 참석하기도 하였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들을 소(小)처녀, 중(中)처녀, 노(老)처녀로 구분하여 놀기도 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고도에는 속칭 '명장섬'이라 불리는 작은 섬이 있다. 만조 때는 독립된 섬이 되지만 물이 빠지는 간조 때는 장고도와 연결되는 독특한 섬이다. 해당화가 만발하는 계절이 오면 동네 처녀들이 놀이하기에 좋은 날을 잡는다. 그리고 하루 전에 미리 명장섬 백사장으로 나아가 부지런히 돌을 날라 '돌방'을 쌓는다. 이는 삼면에 돌담을 쌓아 만든 타원형의 방을 일컫는데, 남성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바닷가 쪽에 입구를 낸다. 돌방은 등바루놀이를 하는 날 처녀들이 화장도 하고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활용되므로, 바닥은 자갈로 평평하게 다듬고 고운 모래를 펴서 정성껏 꾸민다. 또한 돌담 한 켠에는 모래로 낮은 단을 쌓는데, 이것을 부뚜막 또는 조왕이라고 한다. 여기에 물질할 때 쓰는 어항을 올려놓고 해당화를 꽂아둔다. 예전에 소처녀와 노처녀로 나누어서 놀이할 때에는 돌방을 두 개 만들었다고 한다.

이튿날 동이 트기 전에 마을 처녀들은 작업복 차림으로 화장품과 한복을 가지고 돌방으로 속속 모여든다. 각자 가져온 물품을 이곳에 넣고 해당화와 찔레나무를 꺾어 그것으로 돌방을 장식한다. 아울러 돌방 위에는 대나무를 걸쳐 지붕을 만든 다음, 역시 찔레나무와 해당화로 곱게 단장한다. 이어서 바구니를 메고 개펄로 나아가 굴을 캐는데, 이때 여럿이 굴을 따며 노래를 부르고 누가 더 큰 것을 채취하는지 내기를 하기도 한다.

아침이 되면 처녀의 부모들이 정성껏 준비한 밥과 반찬을 가지고 돌방으로 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온 집의 밥부터 차례로 나누어 먹는다. 식사를 마친 처녀들은 돌방으로 들어가 치장을 하고 형형색색의 한복으로 갈아입는다. 그리고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한데 어우러져 '까그매', '줄방넘기', '해당화뺏기' 같은 동요를 부르고 춤을 추며 흥겹게 논다. 이렇게 해가 질 무렵까지 진종일 놀다가 날이 저물면 비로소 돌방을 허물고 집으로 돌아온다. 등바루놀이는 3~4일 동안 지속되는 것이 통례인데, 대개는 며칠씩 굴을 딴 다음 마지막날 곱게 옷을 입고 놀이를 한다.

등바루놀이는 1973년과 1980년 장고도의 사례가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장려상과 문화공보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때 '여왕뽑기', '굴캐기 경연', '등불마중' 같은 극적인 요소를 새롭게 추가하여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

지역사례 고대도에서는 굴을 캐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등바루놀이를 했다. 아침부터 처녀들이 화사하게 옷을 갈아입고 한자리에 모여서 멍석놀이도 하고 '까그매', '까치놀이' 같은 동요를 부르며 해질 무렵까지 실컷 놀았다. 그러다가 '등빠루 둠벙'으로 가서 백지에 밥을 싸서 바다에 던지며 용왕제를 지내기도 했다.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장마을에서는 등바루놀이를 위해 분홍저고리와 남색치마를 단체로 준비했다. 돌방 대신 백사장의 모래로 각자 집을 짓는데, 이는 자신의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개펄에서 딴 석화는 모래집에 모아놓고 화장을 한 뒤, 소리를 잘하고 똑똑한 처녀 한 명을 선정하여 놀이를 주도하도록 했다. 이때 뽑힌 처녀는 '짐(밥)'을 차려놓

고 용왕제를 지내는데, 이것은 용왕신께 '갯것(해산물)'의 채취가 잘되도록 기원하는 의례이다. 뿐만 아니라 처녀들은 진종일 풍물을 치며 놀다가 두 패로 갈라서 어느 한 편이 "굴아! 조개야!" 하고 외치면, 다른 편에서 이를 받아 "굴아! 조개야!" 하고 반복하여 소리를 지른다. 이어 모래를 한 주먹씩 집어서 바다를 향해 던진다. 이렇게 하면 이듬해에도 굴과 조개를 많이 채취할 수 있다고 한다.

의의 등바루놀이는 어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서해 도서지역의 특징이 잘 갈무리된 미혼 여성들의 놀이였다. 지난날 이 지역 여성들의 주된 어로 활동은 굴과 조개채취였으므로, 성수기인 음력 4월에 놀이를 함으로써 일의 능률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동시에 이 놀이를 통해 장차 해산물 채취의 주역이 될 여아들을 자연스레 생업 현장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문화적 장치의 기능도 있었다. 즉 어촌에서 여아는 15~18세가 되면 가사일은 물론 해산물의 채취에서도 한몫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용왕제를 지내며 굴과 조개를 부르는 의식이지만 한 해라도 놀이를 거르면 마을이 편치 않다는 속설에서 알 수 있듯이 등바루놀이에는 섬마을의 풍어와 평안을 염원하는 여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녹아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등바루놀이는 음력 섣달그믐에 충남 도서지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행하던 또 다른 풍어놀이인 '등불써기놀이'와도 연관성이 있다.

참고문헌 | 향토문화(충남대학교, 1986), 충남의 민속예술(한상수, 충청남도, 1995), 島嶼誌(上·中·下)(忠淸南道·韓南大學校 忠淸文化硏究所 共編, 충청남도, 1997),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하권(김용덕 편, 창솔, 2004).

필자 | 강성복(姜成福)

모심는소리

정의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 소리.

내용 남한의 벼농사는 기원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볍씨를 직파하였으나, 13세기 전후부터 모판에다 볏모를 길러서 심는 이앙법(移秧法)이 시작되었다. 오늘날은 기계모를 심지만,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는 줄모를 심었다. 줄모를 심을 때는 줄을 넘기기 전에 자기가 맡은 일정한 분량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모심는소리'는 신호와 같은 역할을 하여 일을 더욱 질서 있게 하고 능률을 올리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줄모를 심지 않았던 시절에도 모심는소리는 불려왔다. 이앙을 하지 않고 볍씨를 직파하던 시절에는 모심는소리라는 용어 자체가 적합하지 않지만, 벼농사를 짓기 위해 논밭에다 볍씨를 뿌릴 때의 소리가 이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벼농사를 지으면서 '논맴소리'가 없는 마을은 거의 없지만, 경북 상주시 함창의 일부 마을처럼 모심는소리가 없는 곳도 있다. 또한 모심는소리의 민요권(民謠圈)은 논맴소리에 비해 넓고 다양하지 않은 것을 보면, 개별곡(個別曲)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후자가 더 오래된 소리일 것으로 짐작된다.

한반도의 모심는소리 유형을 정리해 보면, 크게 하나류, 상사류, 모노래류, 아라리류, 예천류, 방게류, 북한류 및 기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류는 다시 열소리형, 허나기로구나, 여기도 하나 및 혼합형(김포형·나열형)으로 나누어진다.

열소리형은 중부 경기도의 모심는소리로 고형(古型)에 속한다. 한사람이 "하나 간데 둘이요, 둘 간데 셋"하면 다음 사람이 "둘 간데 셋이요, 셋 간데 넷" 한다. 이렇게 해서 열까지 센 후에 또 "새로 하나 간데 둘이요. 둘 간데 셋"하고 다시 세어나가고, 이러기를 계속해 나가는 형이다. 마을에 따라서는 열까지 세지 않고 일곱까지 세고는 새로 하나로 들어가기도 한다. 대만의 아메족[阿美族]은 모심는소리가 없다고 하나, 논의 크기에 따라 몇 사람이 나누어 벌모를 심되, 일곱 번을 심고 줄을 바꾸거나 또는 다섯 번 심은 후에 줄을 바꾸는 마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열소리 계통의 수를 세는 단순한 형의 모심는소리가 있음직하다. 전파권은 고양, 서울, 과천, 성남,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의정부, 광주, 파주, 남양주, 양주, 화성, 안산 일부, 구리 일부, 포천 및 옹진의 북도면·영흥면에 이른다.

허나기로구나는 황해도 연백평야가 본고장이라고 일컬어지며, 멕받형식(멕이고 받는 가창방법)으로 불린다. 받음구의 예는 "허나 허나 허나기로구나."이다. 일반형은 메김소리(메)와 받음소리(받)가 각각 3분박4박 2마디씩으로 가창된다. 전파권은 황해도(연백, 평산)와 서북부 경기도 방면(파주 일부, 연천, 서북부 포천, 양주 일부, 김포 일부, 동두천) 및 강화 일부 지역이다. 북한 자료에 따르면 황해남

도 연안과 강령, 황해북도 신계와 인산, 개성 개풍에서도 수집된다. 여기도 하나형은 남부 경기도형으로 멕받형식이며, 받음구의 예는 "여기도 하나요, 어하 저기도 또 하나."이다. 전파권은 안성, 이천, 용인, 서남부 여주, 남부 광주, 동남부 화성, 동부 평택과 서북부 충북의 진천·음성 및 충남의 아산 일부 지역에 이른다.

김포형은 허나기로구나와 열소리의 혼합형이며, 받음구의 예는 "허나 허나, 하나 둘이로고나."이다. 김포에서 주로 발견된다. 나열형은 받음구가 없이 "여기는 양석자리, 여기저기 심더래두 삼배출 나는 데루만 심어라……." 하는 식으로 촘촘히 말을 엮어 나가는 형태다. 전파권은 화성의 남양반도, 안산 대부동·본오동, 인천 용유도, 평택 청북, 경기도 광주 퇴촌 및 구리 일부 지역이다.

상사류는 멕받형식이며 받음구에 '상사'계통의 말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받음소리의 차이에 따라 부여형 상사(산유화가), 홍성 결성 방면의 겹상사, 충청도 미호강 유역의 미호형 상사, 농부가형과 전남형(진도형, 고흥형, 나주형, 담양형), 홍성의 긴사지소리 및 잦은상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노래류를 살펴보면, 무후렴(無後斂)의 교창식(交唱式) 모노래는 경상도의 대표적인 모심는소리로써 예천 민요권(예천, 안동, 영주 일부, 상주의 함창)을 제외한 경상도와 남부 충북(영동, 옥천, 보은군), 단양, 괴산 일부, 동남부 청원 및 진주~대전간 옛길을 따라 고속도로가 있는 전북의 무주, 장수, 남원 일부, 진안군 일부, 충남 금산 및 대전광역시 일부 지역에까지 전파되어 있다. 전파의 중심권에 속하는 옛 가야지대와 경주 방면에서는 앞소리꾼이 "농창 농창 저 비루 끝에, 무정하다 울 오랍아."를 소리 내면 뒷소리꾼들은 "나도 죽어 저승가서, 낭군부터 섬길라오."로 응답해 주어야 하는 등 대구(對句)관계가 분명하고 아침·점심·저녁별로 가사를 구별해서 부르기도 한다. 경상도 모노래가 울진군을 거쳐 강원도로 가면 좀더 유장한 민아리(미나리, 메나리)가 되어 지역에 따라 모심는 소리, 화전밭매는 소리 또는 논맴소리로 전해져 온다.

아라리류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모심는 소리로, 엇모리장단의 자진아라리와 강원도 민중의 바탕 선율인 강원도 '어러리'가 있다. 강원도 어러리의 변화



줄모심기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이창호

형인 충주 부근의 '아라성'형(받음구 예: "아하하 리히야하. 아라리요-우-, 아리랑 얼싸, 아라성아")도 이에 속한다.

예천류는 예천 민요권의 모심는소리이다. 통명농요의 '아부레이수나'형(받음구 예: "아부레이수나 이도오 수여")과 공처농요의 '이여송'형(받음구 예: "아오 에이여송아 아오")등이 있다.

'방게'류(받음구 예: "에헤~야, 홍어~에이히야, 히야. 에~오, 바에~홍게 논다")는 충남 당진을 비롯하여 예산, 서산, 아산 일부 지역에서 불린다. 전북의 대표적인 논맴소리인 방게소리가 바다를 통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위의 북한자료 중 황남 연안의 로심덕 창과 청단의 김지손 창, 배천의 리봉순 창은 방게류와 비슷한 '방아가 논다'형을 받음구로 가진다.

북한류로는 그 밖에 푸지기(황북 은율), 헤용소리(황남 옹진·평산), 모헤소리(함남 홍원·보현)가 있다. 이 북한자료 중에서는 황남 재령의 박형식이 부른 잦은소리인 "금뱅댕 금뱅댕, 금뱅댕댕 금뱅댕"이라는 받음구가 눈에 띈다.

기타로는 받음구 예가 "에, 에헤이여라 하하, 사헤헤가 네로, 고나"인 서천형의 긴소리, 또는 모노래에 이어 부르는 멕받형식의 '더디다', '설설이 어데갔노', '새야새야 원앙새' 같은 잦은소리를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부여의 민요(이소라, 부여문화원, 1992), 洪城의 勞動謠(이소라, 홍성문화원, 1994), 潭陽의 民謠(이소라, 潭陽文化院, 1997), 탄자니아의 '음킨도'와 '헴베티' 農謠考(이소라, 比較民俗學15, 比較民俗學會, 1998), 농요의 길을 따라(이소라, 밀알, 2001), 광양의 민요(이소라, 광양문화원, 2002), 보성의 민요(이소라, 보성문화원, 2002), 함평의 민요(이소라, 함평군, 2002), 장성의 민요(이소라, 장성문화원, 2003), 한국 중세의 농업기술과 노동형태(이종봉, 두레노동과 소리문화, 민족음악연구소, 2004).

필자 | 이소라(李素羅)

모찌는소리

정의 모심기에 앞서 모판에서 모를 뽑는 모찌기를 하면서 부르는 소리.

유래 모찌는소리의 출현은 이앙법(移秧法)의 보급과 직결된다. 볍씨를 직파할 때는 모를 찌는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조선조 숙종 연간(1675~1720)에 모의 이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13세기 후반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상당한 지역에서 이앙법이 실시되었고, 개시 시점은 13세기 이전까지 소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모찌는소리의 출현 상한선은 13세기 전후가 된다. 모찌는소리의 창출과 전파는 가족단위 노동보다 품앗이 또는 두레 같은 공동노동 형태에서 나타나므로 이모작 지대가 아닌 곳은 모찌는소리가 없는 곳이 많다.

내용 모찌는소리에는 전남의 '먼데'류와 경상도 모노래권의 다양한 모찌는소리, 충청도의 '뭉치세'류, 황해도와 경기도의 '쩠네'류, 서부 충남의 '철더럭쿵'류, 전남 고흥 도양읍의 '두월래'류, 보성의 '모헤'류 및 기타가 있다.

먼데(먼디, 머난디, 먼들, 무언들)류는 전남에서도 곡성, 화순, 보성, 고흥을 경계로 그 이서(以西)인 서부 전남에서 주로 불린다. 곡성이나 승주에는 모찌는소리가 없으며, 화순군에서는 판소리 춘향가의 삽입 민요인 농부가형 상사를 유용해서 부르는 정도이다.

뭉치세류는 충남 청원과 연기가 문화중심이지만, 뭉치세곡(曲)이 모노래권의 '조리자'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출처지는 모노래권에 속하는 청원이라 할 수 있다. 천안과 공주 및 진천에서도 발견된다. 충주의 '둥치세'형과 음성의 '뭉키세'는 '뭉치세'의 변형이다.

쩠네류는 '하나'류 모심는 소리 중의 하나인 "허나기로구나"의 곡풍(曲風)에다 받음구의 가사만 바꾼 황해도 소리이다. 황해도 연백, 벽성, 평산과 옹진군 일부, 경기도의 서부 파주와 고양 벽제동, 김포 일부 지역, 강화 및 파주시 장단면·진동면에서 볼 수 있다.

1998년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민족음악전집』을 보면 황해남도 해주, 배천, 장연, 강령, 안악과 황해북도 인산, 개성 개풍에서도 쩠네소리를 하며 모를 찐다. 받음구의 예는 "쩠네 쩠구나, 나두 한침을 쩠네."이다. 허나기로구나 곡에서처럼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2마디씩이다.

고양시는 허나기로구나 지대가 아니므로 벽제읍의 쩠네소리는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과 김포시 통진읍 제보자들은 1950년도 6·25전쟁 이전에는 모찌는소리가 없었으며, 전쟁 이후 마을에 피난 온 황해도 사람들에 의해 비로소 쩠네소리가 불리웠다고 증언했다. 현재 쩠네류는 경기도 고양 이북의 서부 쪽에서만 전승된다.

철더럭쿵류와 강원도 강릉, 양양, 고성 방면에서 벼타작소리인 불림곡(曲)을 유용하여 부르는 모찌는소리는 '쩠네'류와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나, 전파의 중심권이 서로 다르므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철더럭쿵류는 비록 바다를 통한 쩠네류와의 교섭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본 고장은 서산과 당진 방면이며, 홍성에도 전파되어 있다.

불림곡 유용류는 강원도의 동해안 지역인 강릉, 양양, 고성 방면의 벼베는소리인 불림곡을 유용하여 가사만 바꾸어 부르는 것으로, 경기도 이천의 이용준(남, 1924, 여주 점동면 출생) 창도 이 부류에 속하는데, 아마도 강릉에 살 때 알게 된 소리일 것으로 추측된다.

두월래류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방면의 모찌는소리로 받음구 예는 "어기야자자 두워얼레헤"이다. 모헤류는 전남 보성군의 개성적인 모찌는소리로 멕받 형식이며, 받음구의 예로는 "에-헤, 헤이-, 모-, 헤에헤라.", "모, 모, 모휘- 아허", "에라- 하, 모위-, 뚜루루루.", "오-오, 에헤헤-에라-하, 모호뒤-요.", "에-이, 모찌기-요.", "모헤라, 사듸여.", "모 헤, 모-찌세."가 있다.

무후렴의 모노래권인 경상도의 모찌는소리로는 모노래곡인 긴 모찌는소리와 조리자, 밀치라 닥치라 등의 잦은소리가 있다. 용인의 일부 지역에서 전승되는 "밀쳤네 달쳤네, 모두 잡어서 밀쳤네."는 모노래권의 잦은소리형에 가깝다. 고흥의 서남부 고흥반도에서 불리는 '방애흥게로다'류, 고흥군 금산면의 "얼싸절싸 세월이나 보내세.", 고흥군 금산면·도양읍의 "세호세", 고흥군 포두면의 "어기야 뒤여여.", 이천의 강원도 어러리 유형 등이 이에 속한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조제우 창은 '하나'류의 범

주에 드는 모심는소리에서 따온 부분도 있으나 다분히 자의적이다.

'방애홍게로다'류는 전남 고흥의 도덕면 용동리 한적마을을 비롯하여 도덕면·풍양면·도양읍 방면에서 부르는 모찌는소리이다. 가창자들은 이를 진방애 또 못방애타령이라고도 일컫는다. 경기도 이천의 대월면과 모가면에서 수집한 모찌는소리는 강원도 어러리 유형이었으며, 충북 충주 방면의 모심는소리인 아라송의 영향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 朝鮮農業史硏究(閔成基, 一潮閣, 1988), 韓國의 農謠2(李素羅, 民俗苑, 1993), 경복궁타령 고(이소라, 民俗學硏究9,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한국중세의 농업기술과 노동형태(이종봉, 두레노동과 소리문화, 민족음악연구소, 2004).
필자 | 이소라(李素羅)

사월 달 부지깽이는 땅에 꽂아도 순난다 (ᄉᆞ월 돌 부지뗑인 땅에 꼿아도 순난다)

정의 생명이 왕성함을 나타내는 뜻. 부지깽이는 죽은 나무를 말한다. 이런 부지깽이에서조차 새순이 난다는 것은 생명력이 강한 계절임을 의미한다.

내용 4월은 적당한 강수량과 적당한 일조량이 조화를 이루어 모든 생물이 약동하는 계절이다. 이 계절은 죽음보다 새로운 생명이 확장하는 시기로, 신록을 벗어나 녹음이 짙어가는 시기이다. '고목생화(枯木生花)'라는 설화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죽어가는 나무 또는 죽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듯이 불에 그슬려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부지깽이조차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계절이다.

이런 속담이 육지에서는 그 시기를 '봄'이라는 일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ᄉᆞ월 돌 부지뗑인 땅에 꼿아도 순난다."라고 하여 4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기와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고목생화 설화의 성격(최래옥, 冠嶽語文硏究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7),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강현모(姜賢模)

사월 무지개에 곡가(穀價)가 오른다

정의 4월에는 강수량이 적어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뜻.

내용 4월에는 못자리를 내거나 모심기 따위로 농사를 시작한다. 이때 비가 오지 않아 농사시기를 놓치면 가을에 곡식 값이 오르게 된다. 벼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에 강수량이 흡족해야 농사가 잘 된다. 무지개는 비가 온 뒤에 생긴다. 무지개가 생기고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게 된다. 따라서 4월 무지개는 비 오는 것이 그쳤다는 말이 된다. 무지개는 가뭄을 상징한다.

충남에서는 "4월 초에 비가 오면 석 달 열흘(또는 40일) 동안 가문다."라는 속어(俗語)가 있다. 특히 금산 지방에서는 "개울에 사는 가재도 4월이 없는 달로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4월은 가물게 마련이다. 물이 부족하여 농사짓기를 실패하면, 그 해 곡식 값이 오르게 되는 데서 생긴 속담이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강현모(姜賢模)

사월 물살 칼 받아 든다 (ᄉᆞ월 물쌀 칼 받앙 든다)

정의 4월에는 물의 냉기가 칼날을 세운 것처럼 매섭고 차다는 뜻.

내용 4월이 되면 금채(禁采)하던 미역을 해금(解禁)하는 미역해경을 했다. 제주 해안가에 사는 어느 여성이든 해녀 아닌 자가 없고, 이때는 나이가 들거나 어린 해녀일지라도 태왁과 망시리, 미역을 베는 종개 호미를 들고 미역을 채취하러 들어간다. 면으로 만든 속옷인 소중기만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물의 차갑기가 이를 데 없어 마치 겨울 바다를 연상시킨다. 칼로 살을 에는 듯한 냉기로 무릎관절이 아프다. 특히 나이 많은 해녀들은 더욱 추위를 탄다.

미역을 채취하여 바다에서 나오면 남자들이 기다렸다가 뭍으로 끌어올린다. 하루 작업 횟수는 2~3회 정도인데, 불턱에서 불을 쬔 후 다시 바다로 들어가면 1회에 30번 내지 50번 정도 물 속으로 잠수한다. 4월 물살은 차가워서 견디기 어렵다. 험한 일기와 싸우면서 힘든 노동을 극복한 제주 해녀들의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속담이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필자 | 좌혜경(左惠景)





生業

생업

생강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토양은 비옥하고
배수가 좋아야 한다.
또한 풍해에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지 않은 곳이 적지이며
깊이갈이[深耕]를 하고
김을 자주 맬수록
생장이 좋고 생산량이 많아진다.
또한 거름을 많이 주면
무성하게 자란다.

생강재배(生薑栽培)

개관 생강(生薑)은 열대성 채소로 고온다습한 토양에서 재배하며, 늦서리의 피해가 없는 4월 하순~5월 상순에 정식(定植)하여 10월~11월에 걸쳐서 수확한다. 근래에는 비를 맞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비가림 재배법'이 보급되어 수확량이 늘고 12월에도 수확이 가능하다.

작물특성 생강은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주로 열대와 온대지역의 고온지대에서 재배되며, 온대 북부 지역에서는 종묘 저장하기가 어려워 재배가 제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생강이 들어온 시기는 고려시대(1018년)로 보고 있으며, 허균이 지은 『도문대작(屠門大嚼)』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서 생산되는 생강이 으뜸이고, 그 다음이 전남 담양의 것이라 한다. 근래 생강 주산지는 충남 서산 둥지이다.

생강의 품종은 크게 소생강(小生薑), 중생강(中生薑), 대생강(大生薑) 세 가지로 나눈다. 소생강은 조생종으로 줄기가 가늘고 매운 맛이 강하고, 중생강은 중만생종으로 매운 맛은 약한 편이다. 대생강은


1


2

3




4


5


6


7

1 생강심기
2 보온
3 생강밭
4 생강밭
5 생강수확
6 생강
7 생강저장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중국에서 도입된 품종으로 육질이 유연하고 매운맛이 적다.

내용 생강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토양은 비옥하고 배수가 좋아야 한다. 또한 풍해에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지 않은 곳이 적지이며, 깊이갈이[深耕]를 하고 김을 자주 맬수록 생장이 좋고 생산량이 많아진다. 또한 거름을 많이 주면 무성하게 자란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보이는데, 허균이 지은 『한정록(閑情錄)』을 보면, "비옥한 땅을 깊게 갈고 3월에 파종을 한다. 누에똥이나 혹은 썩은 퇴비, 똥재, 쇠똥을 거름으로 쓴다. 두둑마다 너비를 3척(尺)으로 함이 편리하며, 물을 주고 싹이 자라기를 기다려 다시 묵은 뿌리를 제거한다. 8월에 수확을 하고 9~10월에 깊은 토굴을 파고 왕겨나 벼쭉정이와 같이 묻어둔다."라고 하였다. 『산림경제(山林經濟)』에도 "생강을 3월에 심고 누에똥, 두엄, 재거름, 쇠똥 따위로 덮어준다. 8월에 거두었다가 9~10월에 깊게 움을 파고, 겨나 쭉정이를 섞어 온화한 데 묻었다가 종자를 한다."라고 하였다.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에도 "생강재배는 흰 모래땅이 좋으며 정지(整地)를 잘하되 자갈 같은 것은 골라 버리고 완숙된 인분을 약간 넣은 후 심는다. 흙덮기는 3치 정도가 알맞다. 누에똥이나 인분을 그 위에 덮고, 싹이 나오는 데 따라 흙을 북돋아준다. 이랑 남쪽에 초마(草麻)를 심어 생강에 그늘이 지도록 해준다. 생강이 고온에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은 생강 밭에 덕을 매어 그늘지게 할 수도 있다. 9월에 생강을 수확하여 온화한 토굴 속에 저장하고, 만일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볏짚 등을 섞어 저장하되 그 위에 두텁게 짚을 덮어 얼어 죽지 않게 한다."라고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생강의 뿌리는 13도 이하의 저온에 일정기간 있거나 서리를 맞으면, 어린싹[幼芽]과 덩이줄기[塊莖]가 동사하여 저장 중에 부패하거나 고사한다. 그러므로 종생강(種生薑)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리와 저온을 피해 수확을 해야 하는데, 보통 10~11월 상순이 적기이다. 수확한 생강은 저온에서 보관하는데, 『색경(穡經)』에는 "짚과 같이 깊은 토굴에 묻는다."라고 하였다.

의의 『사시찬요초』에는 생강 파종시기를 "갑자, 을축, 신미, 임신, 임오, 계사, 신묘일에 하는 것이 길일이다."라고 표기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생강은 조선시대 진상품의 항목이었으며, 향신채소로서 아주 중요하게 이용되었다. 현재 생강은 생식용, 절임용, 약용, 공업용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생강차는 감기에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四時纂要抄, 山林經濟, 穡經, 閑情錄,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필자 | 정연학(鄭然鶴)

수박재배

개관 수박 파종은 늦서리의 피해가 없는 4월 중순 살구꽃이 필 무렵에 하고, "말복 전 수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8월 초순 이전에 수확해야 맛이 좋다.

작물특성 세계에서 재배되는 수박 종류로는 시트론(citron)수박, 사료수박, 절임수박, 종자수박, 보통수박이 있다. 시트론수박의 과육은 백색이며 주로 절임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사료수박은 건조지대에서 주로 돼지사료로 쓰이고 단맛이 거의 없다. 절임수박은 과실이 작고 단맛이 적어 익어도 생식할 수 없으며, 종자수박은 수박의 종자를 볶거나 기름에 튀겨 먹는다. 보통수박은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수박으로 품종에 따라 과형, 과피의 무늬와 색깔, 과육색, 종자의 형태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박품종은 총 180여 종에 이르며, 종피의 색깔은 백색, 적황색, 흑색, 황록색이 있다.

내용 수박은 토심이 깊고, 통기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생육이 잘된다. 산성이 강한 토지에서는 석회를 풀어 사용하여 산성을 중화시키고 돌려짓기를 해야 한다. 수박이 생육하는 데는 낮의 온도가 25~30도, 저녁의 온도는 18~20도가 적당한 온도로 본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수박 재배법을 자세히 적어 놓았는데,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와 『산림경제(山林經濟)』를 보면 "수박 재배는 모래땅이 좋고, 4월에 구덩이를 넓고 깊게 파고, 사토(莎土)와 완숙된 인분을 섞어 채워 넣고 수박씨 4개를 파종한다. 잎이 4개 나오면 흙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3~4차례 하면 결실이 많아지고 실하게 된다. 호미질을 많이 하면 결실이 좋고, 쓸데없는 꽃을 따주면 덩이가 크다."라고 하였다.

수박은 연작장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접목재배



수박밭
경남 하동군 악양면 황현만

를 많이 실시하며, 접목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맞접과 삽접을 행한다. 수박의 암꽃은 크기가 클수록 착과율이 높고 큰 과실이 열리기 때문에 암꽃을 가능한 크게 키우는 것이 좋다. 암꽃은 일조시간이 많고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을수록 발육이 좋다.

수박의 수확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마디의 덩굴손이 말랐거나 과실표면이 윤기가 날 때, 호피무늬가 선명할 때, 두드리면 통통하는 경음이 날 때, 꽃자리를 눌렀을 때 탄력이 있으면 수확 적기로 본다.

의의 수박은 여름철 대표적인 과실로 한자로는 수과(水瓜), 서과(西瓜), 한과(寒瓜), 시과(時瓜)라고 적는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연산군(燕山君)편에는 1505년에 수박이 참외와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으나, 허균(許筠)이 지은 『도문대작(屠門大嚼)』에는 "고려 때 홍다구(洪茶丘)가 개성에 처음으로 심었다는데, 연대를 생각하면 홍호(洪皓)가 강남에서 돌아왔던 것보다 거의 먼저이다. 충주 것이 상이고 원주 것이 그 다음이다."라는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부터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박은 조선시대 진상품이기도 하였다.

수박의 주요 성분은 수분이 91퍼센트이고 당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여름철 갈증해소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또한 수박에 들어있는 특수 아미노산은 이뇨효과가 커서 신장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여름철 더위를 먹어 열이 나고 진땀이 흐르거나 가슴이 답답하면서 갈증이 심하게 날 때 신선한 수박 속껍질을 즙으로 내어 먹으면 효험이 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도 수박은 신장염, 인후염, 편도선염, 방광염, 고혈압, 부종 및 구내염에 좋다고 하였다.

"되는 집에는 가지에도 수박이 열린다."라는 속담은 욕심이 한이 없다는 말과 집안이 잘되어 가려면 가지나무에 가지보다 나은 수박이 열린다는 뜻이고, "수박씨를 깐다."는 말은 속이 엉큼하여 겉으로 우물쭈물하면서 딴 궁리를 하거나 딴 짓을 한다는 의미이다. 수박 홍정은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는 홍정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참고문헌 | 屠門大嚼, 東醫寶鑑, 四時纂要抄, 山林經濟, 朝鮮王朝實錄, 한국 農學史(李春寧, 民音社, 1989),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정연학(鄭然鶴)

콩파종

개관 콩은 야생 돌콩에서 생겨났으며, 만주 부근과 시베리아 아무르(Amur) 강 유역을 원산지로 추정한다. 한반도에서는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여러 종류의 콩을 재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경제성이 떨어져 콩의 국내자급률은 2002년 현재 7.3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작물특성 콩을 한자로 표기하면 '두(豆)'인데, 넓은 의미로 두(豆)류에는 녹두(綠豆), 완두(豌豆)와 팥[小豆]류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대두(大豆)류만을 콩으로 지칭한다. 대두의 품종도 대단히 많은데, 용도와 파종시기, 성장특징, 씨앗의 크기나 색깔에 따라 구분한다.

첫째, 용도에 따라서는 일반용으로 쓰이는 보통콩, 기름을 짜는 기름콩, 밥에 섞어 먹는 밥밑콩, 콩나물을 기르는 데 좋은 콩나물콩(쥐눈이콩), 풋베기해서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풋베기콩이 있다. 둘째, 파종시기에 따라서는 일찍 심어서 늦여름에 수확하는 여름콩(올콩)과 늦게 심어서 늦가을에 수확하는 가을콩(그루콩)으로 크게 나누며, 그 중간 시기인 중간콩도 있다. 셋째, 성장 특징에 따라서는 꽃이 피면 줄기와 잎의 성장이 멈추는 유한성(有限

性)과 그렇지 않고 꽃이 핀 다음에도 계속 자라는 무한성으로 구분된다. 넷째, 씨앗의 크기에 따라서는 왕콩, 굵은콩, 중콩, 좀콩, 콩나물콩으로 구분하며, 색깔에 따라서는 흰콩, 누렁콩, 푸른콩, 붉은콩, 검정콩이 있다.

내용 콩은 뿌리혹박테리아가 공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질소거름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박토(薄土)에서도 잘 자라며 박토를 기름지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성장에 적절한 기후는 고온습윤한 기후이다.

콩은 여러 가지 작부방식에 알맞은 곡식으로, 무상일수(無霜日數)가 짧은 지역에서는 보통 홀로짓기[單作]로 다른 작물과 돌려짓기[輪作]를 하며, 옥수수, 수수, 깨, 고구마와 섞어짓기[混作]도 하고, 지방에 따라서는 맥류나 감자를 거두기 전에 이랑 사이에 사이짓기[間作]를 하기도 한다. 중남부 평야지대에서는 맥류의 뒷그루로 그루갈이[根耕, 이모작]하기도 한다. 그리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이용하며 둘레짓기(주위작)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논두렁은 토양습도나 통기상태가 좋아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홀로짓기는 양력 5월 중하순, 사이짓기는 5월 하순, 뒷그루로 재배할 경우 6월 중순에서 7월 상순까지 가능하다. 『농사직설(農事直說)』에서는 "이른 종자(올콩, 조생종)는 음력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심는다."라고 하였다. 씨 뿌리는 방법은 홀로짓기의 경우, 이랑을 두 자 내외로 짓고 포기 사이를 한 뼘 정도로 하여 포기당 3~4알씩 뿌렸다가 싹튼 후에 솎아서 두 대 정도로 가꾼다. 전통적으로 보릿골에 사이짓기를 할 경우가 많았는데, 그 경우 보리 파종 때 미리 고려하여야 하며, 이랑 너비에 따라 한 줄 혹은 두 줄로 점뿌림을 한다. 뒷그루는 맥류의 그루터기를 갈아 약간 높은 이랑을 만들고 그 위에 점뿌림을 한다. 수수나 옥수수와 섞어짓기를 할 때는 올콩을 한 평당 네 포기 정도로 드문드문 심는다.

싹튼 후 2주일쯤 지나면 밴 곳은 솎아주고, 드문 곳은 보식(補植)하며 밭을 매준다. 밭을 맬 때 2~3센티미터 정도로 북을 준다. 수시로 김매기를 하는데 꽃이 필 때까지 반복한다. 김을 맬 때마다 북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본잎이 붙은 마디까지 북을 주는 것이 좋다. 북주기를 해주면 마디에서 뿌리가 나와 수분과 양분의 흡수를 돕고 쓰러짐을 막는 효과가 있다. 본잎이 5장 정도 자랐을 때 순을 쳐준다. 잎이 너무 무성하면 오히려 소출이 적기 때문이다.

수확 적기는 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가 변색하여 고유의 색깔을 띨 때이다. 좀더 확실하게는 꼬투리 속의 씨앗이 여물어 흔들면 소리가 나는 시기이다. 대개 중부 지방은 양력 10월 상중순, 남부 지방은 10월 중하순 무렵이 된다. 낫으로 밑동을 베거나 뿌리째 뽑아서 널었다가 다발로 묶어 말린 다음에 도리깨로 두들겨 탈곡한다. 전통적인 노동관습에서는 콩타작을 가장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들 콩타작이 끝나는 시점을 한 해 농사의 시필기로 삼는다. 탈곡한 콩은 키로 까불어 일차 선곡하여 보관하였다가, 조리할 때나 상품으로 내다 팔 때 품질에 따라 이차 선곡작업을 한다.

변화 오늘날 콩농사를 많이 하는 농가는 해당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적절한 보급종자를 분양받아 파종하며, 제초의 편리성과 다수확을 위해 비닐멀칭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북주기와 제초작업이 거의 없으며, 비닐의 보온성으로 인해 파종시기가 다소 앞당겨졌고, 단위면적당 소출도 다소 높아졌다. 수확 후 탈곡방식 또한 도리깨 대신 경운기나 일반차량으로 콩더미를 지나다니게 하여 탈곡한다.

참고문헌 | 課農小抄, 農事直說, 작물(서울대학교 농과대학 1종도서연구 개발위원회, 1979), 북한의 농업기술(신동완 外, 오성출판사, 1998), 농업대사전(도서출판 농원, 1999).

필자 | 김재호(金在浩)



콩심기
경남 의령군 방상운

전갱이잡이

개관 전갱이는 농어목 전갱이과의 바닷물고기로, 우리나라 전연안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중국, 일본 등 온대에서 아열대 해역에 걸쳐 분포한다. 우리나라 근방에서 잡히는 전갱이 어획물을 보면 가끔 가라지 종류가 섞여 있는데, 모양이 비슷하여 쉽게 식별되지 않는다. 가라지는 전갱이에 비해 몸이 가늘고 긴 형태를 띠며 꼬리자루에 분리된 한 쌍의 토막지느러미를 가진다.

명칭 및 종류 전갱이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야 찾아볼 수 있다. 김옥균이 1901년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유배되었을 때 쓴 저서에 "작은 물고기 전갱이는 크기가 오륙 치이며 모양이 조기와 비슷하나 약간 좁다. 빛깔은 담황색이고 맛이 담백하며 좋다. 젓갈로 담그는 것이 있는데 본토박이들은 이를 매갈이라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매가리는 부화 후 1년 미만의 어린 전갱이를 부르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전갱이는 고등어와 닮았다고 해서 영어로 홀스 매커럴(horse mackerel)이라 부르고, 일본어로 마아지[**眞鯵**]라고 한다. 전갱이는 외부 형태적으로 고등어와 흡사한데, 전갱이는 몸의 측면을 따라 날카로운 능선을 형성하고 있는 비늘(모비늘, Scute)이 일렬로 나 있어 구분이 가능하다. 전갱이는 성장함에 따라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어린 시기에는 몸 빛깔이 황색을 띤다고 하여 '황전갱이', 성장하면 몸 빛깔이 청색을 띤다고 하여 '청전갱이'라 한다. 전갱이는 또한 지역에 따라 전광어, 매가리, 가라지, 각재기, 매생이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전갱이 종류에는 총 28종이 알려져 있고, 대부분 회유성 어종으로 제주도 근해 또는 동중국해에서 겨울을 나고 수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남해로 접근해 온다. 그러나 모든 전갱이 종류가 이렇게 대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체형에 따라 사는 방식도 다른데, 체고가 높은 계란형은 주로 내만이나 연안의 얕은 암반 주위에 정착해 살면서 갑각류나 어류를 먹고, 체고가 낮은 방추형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갱이는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연안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어린 시기에는 연안이나 내만에 정착해서 요각류나 젓새우류 등 갑각류, 소형새우류를 주로 먹고 자라며, 성장하면 외해로 서식처를 옮겨 작은 어류나 오징어류를 먹는다.

내용 전갱이잡이 도구는 건착망이다. 건착망은 그물배 1척, 어탐선 2~3척, 운반선 2~3척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며, 투망은 일반적으로 어군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시작한다. 이때 그물배가 투망위치에 도달하면 앞잡이배가 그물배에서 분리되어 고삐줄과 조임줄을 잡고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물배가 전속력으로 전진하면서 투망한다. 투망은 어군의 진행 방향 앞을 가로막아 뜸줄 길이의 약 1/3 정도 되는 직경의 원을 그리면서 앞잡이배로 되돌아오면 투망이 끝난다. 이후 조임줄을 감는데, 이때 어구의 모양에 따라 감는 속도를 적당히 조절해야 하며, 조임줄이 갑판에 올라오면 조임고리를 3등분하여 그물에서 조임고리를 분리시킨다. 이 작업이 끝나면 날개그물 옆줄 쪽에 있는 조임줄을 한데 뭉쳐서 양망기로 양망한다. 이어 그물배가 어군을 모으는 동안 운반선은 뜸줄을 끌어올린 다음, 족대나 반두 그물을 이용하여 어획물을 운반선에 올린다. 대부분 밤에 집어등을 켜서 어군을 유인한 다음 조업하며, 보름



소대망 전갱이잡이
경남 통영시 욕지면 욕지도 김상수

전후 4~5일간은 조업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어획되는 어린 전갱이(매가리)는 크기가 작고 체고가 비교적 높으며, 등쪽은 황갈색이 강하고 맛이 좋아 인기가 높다. 또한 우리나라 남해 동부 연안에서 5~6월에 많이 잡히는 크기 5센티미터 내외의 아주 어린 전갱이는 염장 처리해서 보관한다. 전갱이가 많이 어획될 때는 고등어자반처럼 배를 갈라 소금을 뿌려 보관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냉동 보관해서 먹는다.

크기 5센티미터 내외의 어린 전갱이는 염장해서 젓갈로 먹고, 10센티미터 이상의 중대형 전갱이는 튀기거나 삶아 먹으면 맛이 좋다. 전갱이는 회로도 먹는데, 껍질째 회를 떠서 먹는 것이 백미이다. 전갱이회는 옆줄에 붙어 있는 딱딱한 모비늘을 떼어내고 포를 뜬 다음 레몬즙을 살짝 뿌려 비린내를 없앤 뒤, 쇠꼬챙이에 끼워 강한 불에 껍질 부분만 익혀 1센티미터 간격으로 썰어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일본에서는 전갱이를 생선회와 초밥의 가장 맛있는 재료로 손꼽기도 한다.

기타 전갱이는 고등어와 함께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이다. 등푸른 생선에는 DHA, EPA가 가득 들어 있다. DHA는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고, EPA는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등푸른 생선 중에서 참치, 방어, 전갱이와 같은 붉은살 생선에 이런 기능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韓國魚圖譜(鄭文基, 一志社, 1977), 魚類學(김용억, 太和出版社, 1989),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과학원, 2002), 생태와 어장(국립수산과학원, 예문사, 2005), 수변정담(국립수산과학원, 2005), 韓國魚類大圖鑑(김익수·최윤 외, 敎學社, 2005), Sea Fishes of Japan(Okamura O. and K. Amaoka (eds.), Yamakei Pub, 2002).

필자 | 김진구(金眞久)

청어잡이(靑魚-)

개관 청어는 청어과의 한해성 물고기이다. 몸은 늘씬하고 옆으로 납작하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다소 길며, 비늘은 떨어지기 쉬운 둥근비늘로 되어 있다. 몸길이는 35센티미터에 달한다.

청어의 대표적인 이칭은 '비웃'이다. 1527년에 편찬된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청(鯖)자를 풀이하여 "비웃청, 속칭 청어(鯖魚)"라고 하였다. 비웃이라는 명칭이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문기의 『한국어도보(韓國魚圖譜)』에는 다음과 같은 이칭이 기록되어 있다. "동해안에서는 동어(東魚), 서울·경기·강원도에서는 비웃[肥儒: 가난한 선비를 살찌게 한다는 뜻]·구구대(크고 알을 가진 것), 전남 순천에서는 고심청어, 경북 포항에서는 푸주치·눈검쟁이, 경상도 지방에서는 과미기·과목이(그대로 말린 청어)·과목숙국이, 울산에서는 갈청어·울산치"라고 불린다.

분포 청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고기로서 과거에는 한반도 연안의 전 수역에 분포하였다. 조선시대 지리서의 쌍벽인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각 지방 토공(土貢)과 토산에 실린 청어를 보면, 조선시대 초기에 청어가 동서남해안에서 모두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라도의 청어 산지는 모두 서해안 쪽에 있고 남해안 쪽에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서해안산 청어와 동남해산 청어는 상호 교류하지 않는 상이한 계통군의 청어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산어보(玆山魚譜)』를 쓴 정약전은 창대라는 흑산도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청어의 척추골 수가 영남산은 74개이고, 호남산은 53개라고 하였다. 양자의 계통군이 다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남산의 척수골 수는 많이 과장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의 한 조사에 따르면, 동해안산은 평균 54개였고, 해방후 흑산도 근해에서 잡힌 청어는 52개였다.

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청어는 우리나라 어류 가운데 자원이 가장 풍부한 것 중의 하나였다. 정약전은 "청어는 정월에 입포(入浦)하여 해안을 따라 회유하면서 산란하는데 무수한 청어가 떼를 지어 군래하면 바다를 뒤덮는다."라고 하였다. 성숙한 청어는 3월 하순부터 수온이 4~5도 가까이 상승하면 깊은 바다에서 연안의 해조류가 무성한 얕은 곳 또는 내만에 내유(來遊)하여 산란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청어는 자원의 변동이 심하다. 허균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따르면, 청어는 옛날에는 극히 흔하였는데 고려말에는 감산되어 쌀 한 되에 청어 40마리밖에 주지 않았으며, 모로(牡老)는 시를 지어 이를 슬퍼하여 말하기를,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가

거치니 백물이 조모(凋耗)한 까닭으로 청어 역시 희소하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고려 때에도 자원 변동이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자원 변동이 심하였음을 전하는 기록이 여러 문헌에 나타난다. 『중종실록(中宗實錄)』을 보면 중종 6년(1511) 4월 정해(丁亥)의 기록에 위도 주민은 어살[漁箭]을 설치하여 청어를 많이 잡아왔는데, 1505년 이후부터 청어가 불산하였는데도 세공은 여전하여 소득이 세공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변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실학자들의 저서에 변동의 구체적 내용을 밝힌 것들이 있다.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청어는 1799년 이후부터 20마리를 엮어서 1급(級)으로 하여 동전 2~3문과 바꾸었는데, 1830~1831년에는 1급의 가격이 40~50문이 되어 점차 등귀하였고, 1835년 이후부터는 다시 점차 흔해졌으나 끝내 1799년 이후만은 못하였다고 하였다. 청어가 가장 많이 어획되던 서해안에서는 1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청어가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 민족의 기호어(嗜好魚)였던 청어 어획량의 감소로 청어 공급이 부족하게 되자, 구한말에는 이를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하기까지 하였다.

청어 자원의 변동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면서부터 먼저 남해안에서 청어 내유가 중단되고, 이어서 경상남도의 동해안에서도 중단되어 청어 어장은 경상북도 이북 연안으로 한정되다시피 하였다. 해방 후에는 그곳에서도 청어가 거의 잡히지 않게 되었다.

청어 자원 변동의 원인은 태양 흑점설을 비롯하여 몇 가지가 있으나, 자연조건의 변화에 의한 것임은 틀림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영일현 주진(注津)의 기사를 보면 매년 겨울에 청어가 산출되면 먼저 진헌한 뒤에 제(諸) 읍에서 이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 산출의 다소로써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고 한 것이 있다. 청어 어황과 농작물의 풍흉이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청어 주산지였던 홋카이도의 요이치(余市)에서는 사과가 풍년이면 이듬해 청어 어획량이 증가하고 그 반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또 같은 지방의 미곡 작황은 청어 어황과 역상관관계를 보인 때가 있었다고 한다. 한반도에서는 연안 수온의 상승이 한해성 청어의 연안 내유 중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서해안에서도 청어가 잡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서해 저층의 냉수괴(冷水塊)에서 잡힌 것이었다. 청어 자원 변동의 역사적 연구는 해수온도 변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청어는 명태, 조기 같이 대량으로 어획되어 대중이 많이 소비하는 다획성 대중어(大衆魚)의 하나였다. 어구 어법의 발달로 일제강점기에도 상당히 많이 어획되어 1932년에는 어획량이 7만 톤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어획량이 격감하여 청어는 고급어가 되다시피 하였다. 1971년에는 7천 톤 가까이 어획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주로 서해 저층의 냉수괴에서 잡힌 것이다.

어구는 조선시대까지는 발 어구인 어전(漁箭)과 방렴(防簾)을 비롯하여 어장(漁帳)이라는 정치망, 세망(細網)이라는 자망, 후릿거물[揮罹網], 주목망(杜木網), 중선망(中船網), 선망의 일종인 거휘리(擧揮罹) 같은 망어구를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각종 정치망과 함께 기선건착망(機船巾着網)을 사용하였다. 해방 후에는 기선저인망이나 기선건착망으로 냉수괴의 청어를 잡았다.

가공 및 조리 청어는 가의(嘉儀) 때 수요가 많고 특히 설날과 정월에 많이 소비되었는데, 생선으로 소비된 것도 많았으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가공품으로 많이 제조되었다. 청어를 그대로 말린 소건품(素乾品)이 많았는데, 이를 관목(貫目)이라 하였다. 서유구의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 보면 "관목은 오래도록 부패하지 않고 멀리 수송할 수 있는데 어획 후 곧 배 위에서 말린 것이 좋다고 하였고, 또 이를 통속적으로 관목이라고 하는데, 양 눈에 새끼를 관통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붙인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주목을 끄는 것은 훈제품(燻製品)의 제조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따르면, 청어를 연돌에서 연기를 쐬어 부패를 방지하는데, 이를 연관목(煙貫目)이라 한다. 유럽에서 인기 있는 청어 훈제품이 우리나라에서도 19세기에 제조되었다. 이와 같은 건제품 외에 염장품, 젓갈로도 가공되었다.

조리한 청어는 청어구이, 청어지짐이, 청어저냐, 청어백숙, 청어죽, 청어찜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어보인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에는 청어는 구워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蘭湖漁牧志, 惺所覆瓿藁,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 五洲衍文長箋散稿, 牛海異魚譜, 玆山魚譜, 中宗實錄, 訓蒙字會, 韓國水產誌1(農商工部水產局 編, 1908), 韓國水產誌4(農商工部水產局 編, 1911), 韓國청어漁業史(朴九秉, 釜山水產大學論文集17, 1976), 韓國魚圖譜(鄭文基, 一志社, 1977).
필자 | 박구병(朴九秉)

톳채취

정의 톳은 조간대 하부에 군락을 이루며, 면이 평평한 바위에 붙어 보통 10~60센티미터 내외로 자란 톳을 맨손이나 어구를 이용해 뜯는 행위.

명칭 정약전은 『자산어보(玆山魚譜)』에 속명을 그대로 따서 '토의채(土衣菜)'라 불렀다. '토의', '토옷', '톳'에 나물 '채'가 붙어서 토의채, 곧 톳나물이 된 것이다. 그는 톳의 모양새를 "길이는 8~9자 정도이다. 하나의 뿌리에서 하나의 줄기가 나온다. 줄기의 굵기는 새끼줄 정도이다. 잎은 금은화의 꽃망울을 닮았다. 가운데가 부풀었고, 양끝은 뾰족하다. 속은 비어 있다. 지종과 같은 층에서 섞여 자란다. 맛은 담백하고 산뜻하여 데쳐서 먹으면 좋다."라고 하였다. 제주에서는 '톨'이라고도 한다.

내용 톳이 양식되기 전에는 바위에서 채취했다. 톳이 양식되는 바위는 마을 공동어장으로 이를 완도 소안도에서는 '단', '반'이라 하고, 동해시와 삼천포 신수도, 진도 관매도에서는 '갱번', 완도와 진도 일부에서는 '주비'라고 부른다. 공동어장을 일정 구간을 나누어 추첨을 통해 자리를 정해 톳을 채취한다. 각 주비는 마을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참여자가 다르며, 주비장 혹은 단장이 운영한다. 톳채취는 양식이나 바다일 혹은 농사일을 고려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잡아서 공고한다. 이를 "개를 튼다"라고 말한다.

관매도 관매리의 해안을 샛기너머, 어나기미, 목섬, 각흘도, 계림으로 구분한다. 이를 '짓'이라고도 부른다. 갱본을 이렇게 다양한 짓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를 갱본이라고 부르는데, 접근성이 좋은 샛기너머와 각흘도 짓은 나이든 노인들이 작업을 하고, 목섬 같이 멀리 나가야 하는 짓은 젊은 사람들이 작업한다. 갱본 작업이 큰 벌이가 되지는 않지만 노인들의 생활비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가끔씩 해초가 잘 붙도록 바위도 닦아주고, 마르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는 대가로 바다가 주는 생활비, 곧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같은 갱본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가입금이 없지만, 갱본을 바꾸고 싶으면 5만원의 가입금을 내야만 다른 갱본으로 옮겨갈 수 있다. 편하고 좋은 곳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마을공동체의 규칙이다. 이렇게 갱본에 가입하는 것을 '짓을 든다'라고 하며, 자연산 미역과 톳은 공동채취, 공동분배한다. 채취는 8월 여름에 많이 하는데, 파도가 없고 날이 좋은 날을 정해 작업한다.

육지에서 보릿고개에 잡곡밥을 해먹듯 어촌에서는 톳밥을 해먹었으며, 특히 제주에서는 톳밥, 톨밥을 많이 먹었다.





1 자연산 톳채취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포 김상수

2 양식산 톳채취
전남 완도군 김상수

참고문헌 | 玆山魚譜, 어촌사회 변동과 해양생태(김준, 민속원, 2004).
필자 | 김준(金準)





陽曆歲時

양력 세시

양력 사월의 기념일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4·19혁명기념일
신록일, 충무공탄신일 등이 있으며
이 달의 현대세시로는,
블랙데이 등이 있다.
지방축제는 단종문화제
배헌문화제, 지리산남악제
진해군항제, 하동문화제 등이 있다.

과학의 날(科學-)

정의 매년 4월 21일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과학기술부가 주관하여 국민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민생활과학화와 관련된 기념행사를 한다.

내용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 발족 날짜를 기념하여 1968년 4월 21일을 제1회 과학의 날로 정했으며,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공식 제정 및 공포했다. 과학의 날에는 과학기술 진흥에 힘쓴 과학기술계 유공자들을 수상하는 한편, 과학의 날을 전후하여 과학주간 및 과학의 달을 정하고 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한민족과학축제'를 개최하고 로봇테스트, 과학상상그림대회, 과학 골든벨 퀴즈 등을 열었다. 국립중앙과학관과 서울과학관은 과학주간 동안 무료개관하고 사이언스데이(Science Day) 행사를 개최했다. 포항과 부산에서도 가족과학축전을 개최하고 한국천문연구원, 각 시도교육과학연구원 그리고 각 천문대에서는 '2005 별의 축제'를 열고 천체관련 영화상영, 사진전, 강연회 그리고 천체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과학의 날의 유래는 1934년 4월 19일 발명학회가 찰스 다윈의 기일(忌日)을 택하여 설정한 '과학데이'이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운동의 하나로 과학데이와 과학주간 행사가 전개되었다. 과학기술인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언론, 법조, 교육, 종교계를 망라한 지도급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민족운동으로 발전했다. 과학주간의 주요 행사에는 어린이와 부인에게 과학지식 강연, 환등(幻燈) 및 활동사진 상영모임, 중등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강연, 강좌 또는 실험모임, 과학관·박물관·공장 등을 찾는 견학단, 각계 인사들의 자연과학지식 보급을 위한 토론회 등이 포함되었다. 제1회 과학데이 행사는 기대이상의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과학데이 행사는 평양(平壤), 평북 선천(宣川), 함남 원산(元山), 개성(開城), 평남 진남포(鎭南浦), 경북 김천(金泉) 등 지방 도시에서도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과학데이 행사는 발명학회에서 과학지식보급회(科學智識普及會)로 이관되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알차게 발전하고 보급회의 전국적인 조직망도 확장되었다.

일제는 과학이라는 명분을 내건 과학데이 행사를 허가해 주었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민족운동으로 기울어져 가는 기미가 짙어지자, 1938년 제5회 과학데이 행사가 끝난 뒤 이 운동의 실무책임자였던 김용관(金容瓘)을 투옥해 버렸다. 대신 일본인들을 위해 설립한 제국발명협회 조선지부(帝國發明協會 朝鮮支部)가 조선총독부로부터 막대한 조성비를 받아가면서 과학지식 보급운동을 폈다.

인접국가사례 세계 30여 개 국가들이 국민들의 과학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과학주간을 갖고 여러 행사를 하고 있다. 영국은 매년 3월 11~17일, 남아공화국은 매년 5월 7~14일, 호주는 매년 8월 13~21일을 각각 과학주간으로 정해 놓았다. 미국은 주에 따라 과학아카데미 주관으로 '주 과학의 날'을 정하고 각종 과학사상 보급행사를 하고 있다.

참고문헌 | 科學朝鮮2-4(科學朝鮮社, 1934.6), 科學朝鮮3-4(科學朝鮮社, 1935.6), 나의 履歷書(李仁, 한국일보 1973.3.24), 1930年代의 科學振興運動(玄源福, 民族文化硏究1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현원복(玄源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大韓民國臨時政府樹立記念日)

정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여 민족자존의식을 확립하고, 독립운동사를 통한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선포일인 4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다.

배경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上海) 하비로 프랑스 조계 내에서 이동녕(李東寧), 김구(金九)를 포함한 40여 명의 임시정부 요인들에 의해 수립 선포된 이후 1945년 11월 김구 등이 환국할 때까지

국내외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3권 분립의 민주공화제 정부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에 대해서는 4월 11일이라는 견해도 있다.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였던 임시의정원(의장 이동녕)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개원, 국무총리 및 6개 부서의 총장과 차장을 선출하고 조소앙(趙素昻), 신익희(申翼熙)가 초안한 헌법을 축조심의하여 10개조로 된 임시헌장을 철야심의한 후 4월 11일 오전 신석우(申錫雨)의 제청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절충식 내각제인 국무원 체제의 헌장(헌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은 4월 11일이며, 4월 13일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포해 정식으로 국가탄생을 공포한 날이라는 것이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발표는 일곱 군데에서 있었다. 7개의 정부 중에 조선민국임시정부(朝鮮民國臨時政府), 고려공화국(高麗共和國), 간도임시정부(間島臨時政府), 신한민국정부(新韓民國政府)는 전단으로 발표된 것에 불과하고, 서울의 대조선공화국(大朝鮮共和國), 통칭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와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의회(國民議會)에서 수립한 노령정부(露領政府)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각기 수립과정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천도교 측에서 대한민간정부(大韓民間政府)라는 임시정부 수립을 계획하였다.

한성정부는 1919년 3월 중순부터 서울에서 비밀리에 추진하여 4월 2일 인천에서 13도 대표자대회를 열어 구체화한 뒤, 4월 23일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공포한 것이다. 상하이에서는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신한청년당(新韓青年黨)을 조직하고, 신한청년당 인사들이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중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선포하였다. 각료에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 외무총장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 이시영(李始榮),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李東輝),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이 임명되었다. 6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하였다. 9월 6일에는 노령정부와 통합하고 제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중심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후 의원내각제가 정부 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1945년 8·15해방에 이르기까지 상하이(上海, 1919), 항저우(杭州, 1932), 전장(鎭江, 1935), 창사(長沙, 1937), 광둥(廣東, 1938), 류저우(柳州, 1938), 치장(基江, 1939), 충칭(重慶, 1940)으로 청사를 옮기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상해)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 비밀 연락망인 연통제(聯通制)를 실시하였다. 연통제는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체계로, 이 조직망을 이용하여 임시정부와 연락하거나 독립운동에 가담할 수 있었고, 애국공채를 발행하여 군자금도 전달하였다. 또한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1921년 7월 사료편찬소를 두어 9월 말 전4권의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를 완성하는 등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초기에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다가 종전기에는 대중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1919년 4월 임시정부는 외교총장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게 하였으며, 7월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 조소앙을 파견하여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28년까지 유럽과 미주의 외교업무를 맡은 구미위원부는 미국 국회에 한국문제를 상정시키고 한국의 독립을 국제문제로 제기하였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 폴란드, 소련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 지원, 광복군 창설 같은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李奉昌)의 도쿄의거[東京義擧]는 실패하였으나, 4월 29일 윤봉길(尹奉吉)의 상하이의거[上海義擧]는 일본군 사령관을 비롯하여 20여 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 비행사양성소, 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1940년 광복군을 창설하였고,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해방을 맞았다.

해방을 맞이해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와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해외에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점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민주공화제를 새로 도입한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였다는 것, 외교활동, 의열투쟁, 교육·문화활동, 군사활동을 27년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해 왔다는 데 있다.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은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孝昌公園)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해 오다가, 1987년 제9차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한 후 1989년 12월 3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정부기념일로 제정하고, 1990년부터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71주년 기념행사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는 매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3·1운동으로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거행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국민주권을 천명한 최초의 정부인 임시정부의 법통을 기리고 선열들의 순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날로서 기념식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3부요인, 정부 주요인사, 임시정부 관련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각계 대표, 시민이 참여한다. 기념식은 광복회장의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 축시 낭송 순으로 진행되며, 주요행사로는 기념식, 임시정부 요인 유족 위문, 사진전 개최, 선열추모, 독립운동 관련사료 발간 등이 있다. 이 날에 한하여 광복회원과 동반가족 1인은 공공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날까지 전국의 고궁, 능원, 독립기념관, 박물관에 무료입장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日帝强占期 韓國民族史 상, 중(愼鏞廈,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김희곤, 지식산업사, 2004).

필자 | 강혜경(姜惠卿)

법의 날(法-)

정의 매년 4월 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

배경 법의 날(Law Day)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1957년 미국 변호사협회장 찰스 라인(Charles S. Rhyne)의 제창으로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 제정을 위해 모인 법률학 관련 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법의 날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두고 제헌절인 7월 17일로 하자는 의견과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된 9월 27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국회는 1964년 4월 18일 이를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날에관한건'을 제정, 공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였다. 1964년 5월 1일에 열린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법의 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변천 정부는 1973년 3월 30일, '교도관의 날'(10월 28일 일본 정부로부터 인수한 날)을 '법의 날'에 통합하여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포함하고, '법의날에관한건'을 폐지하였다. 법의 날은 노동절(메이데이)과 중복되어 노동계의 성대한 행사에 눌려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또한 정부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의 날 국가기록원

내용 '법의 날' 기념식은 법조계의 가장 큰 행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주관하며, 법무부에서는 인권과가 담당하고 있다. 2005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42번째 행사에서는 법조계 대표들의 식사, 기념사, 훈장·포장 수여식뿐만 아니라 법과 인권의 진정한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념식을 만들고자 음악회, 어린이 1일 법체험교육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병행하였다.

참고문헌 |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
필자 | 이재협(李哉協)

보건의 날(保健-)

정의 국민의 보건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해 1973년에 제정된 국가기념일. 매년 4월 7일이다. 이 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 관련 분야의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유공자를 포상한다.

배경 정부 수립 이후,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제정된 한국의 국가기념일 중에는 근대적인 보건의료 체계의 구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기념일이 특히 많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기념일에는 나병의 날(1월 마지막 일요일, 프랑스 자선단체가 날짜를 정함), 세계보건일(4월 7일, 세계보건기구 헌장 비준일), 세계적십자의 날(5월 8일, 적십자 탄생의 주역인 앙리 뒤낭의 생일), 국제간호원의 날(5월 12일, 나이팅게일의 생일), 구강의 날(6월 9일, 6살에 9개의 영구치가 나온다는 의미에서 6월 9일로 정함), 귀의 날(9월 9일, 귀의 모양이 9자와 비슷해서 9가 두 개 겹치는 9월 9일을 택함), 약(藥)의 날(10월 10일, 약사법이 국회에 상정된 날), 눈의 날(11월 1일, 코를 중심으로 눈이 양쪽에 있다는 의미에서 1이 세 개 겹치는 11월 1일을 택함)이 있었는데, 이 국가기념일들이 1973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될 때 '보건의 날'로 통합되었다. 4월 7일이라는 날짜가 선택된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이 1948년 4월 7일에 비준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리기 위해서이다.

오늘 10회 보건일
한국일보 1961년 4월 7일


오늘10回保健日
紀念우표도

내용 보건과 관련된 기념일은 '근대화'라는 시대적 과제와 직접 연관된 것들로서, 근대화의 상징인 과학기술을 강조한 과학의 날이나 발명의 날, 계량의 날 같은 국가기념일들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위생관념이 없다는 말이 전(前)근대적이다 혹은 미개하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보건과 관련된 기념일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근대화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보건의료 체계의 확립에는 보건소의 전국적인 설립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특히 농촌지역에 근대적 가치를 전파하는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다. 농촌지역에서는 서양의학이라는 과학의 혜택을 거의 입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50년대 후반부터 각 지방의 보건소에서 행한 건강상담, 진료, 가정방문, 예방접종 같은 통상적인 활동과 학교방문, 강연영화회, 좌담회 같은 보건교육 활동은 농촌지역에 근대적인 가치를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보건소 중심의 근대화되고 전국적인 보건의료 체계의 구비와 보건소의 직접적인 활동은 다양한 보건 관련 국가기념일 행사와 연관하여 실시되었다.

1973년에 다양한 보건 관련 국가기념일이 '보건의 날'로 통합된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근대적 보건의료 체제의 틀이 대체로 확립되어 초창기와 같은 적극적인 캠페인을 수행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과학적인 서양의학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의 날짜가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결정된 예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귀의 날'은 귀의 모양이 9와 비슷하다고 해서 9가 두 개 겹치는 9월 9일로 정해졌고, '눈의 날'은 코를 중심으로 눈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1이 세 개 겹치는 11월 1일로 정하였다. 과학적인 보건의료와 비과학적인 날짜 사이의 이러한 간극이 한국전쟁 이후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던 당시 한국 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국경일·법정기념일의 연혁(총무처, 1997),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김민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 김민환(金玟煥)

4·19혁명기념일(四一九革命記念日)

정의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이승만 정권 및 자유당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를 시작으로 민주주의, 통일, 자주, 자립경제를 주장하며 전개되었던 사회변혁운동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날. 4·19혁명은 평가와 의미 부여에 따라 '혁명'에서 '의거'로, 다시 '혁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4·19혁명 기념식은 국가 차원에서 개최되었으나, 박정희 군사정권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점차 축소되었다. 1973년 3월에 '4·19의거기념일'은 정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1994년 '4·19혁명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의의가 격상되었다.

배경 4·19혁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

다. 첫째, 1960년 3월 15일 실시될 정·부통령 선거를 부정으로 일관하던 자유당 정권에 항거하여 2월 28일 대구에서 발생한 학생시위를 시작으로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한정한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시기를 4·19혁명의 제1단계로 보고,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여 사회변혁운동이 좌절되기까지를 제2단계로 본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기념하는 4·19혁명은 첫 번째 시기로 한정하고 있으나, 두 번째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승만 정권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통치체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권을 영속화하기 위해 경찰과 군의 폭력 그리고 반공이데올로기에 의존하였다. 그 구체적 행위는 부정과 부패, 민중의 탄압이었다. 1956년에 실시된 민의원선거에서 알 수 있듯이, 민중은 새로운 체제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였던 이승만 정권은 1960년 3월 15일의 선거를 부정으로 일관하였다.

부정선거에 대한 민중의 항거는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대구에서 개최될 민주당 선거유세에 학생들의 참석을 차단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등교를 시켰으나,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일으켰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발포를 하며 진압하였으나, 이것은 오히려 시위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날의 시위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경찰에 체포 구금된 자가 수백 명에 달했다. 이승만 정권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내무부장관과 현지 경찰 책임자를 교체하고, 구속된 일부 시민을 석방하는 선에서 종결지으려 했으나, 이기붕이 발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 등 표리부동했다.

그리고 3월 15일의 사건 이후 행방불명되었던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모습으로 떠오르면서 이승만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다시 불붙었다. 이 시위는 4월 13일까지 매우 격렬하게 이루어졌고, 또다시 사망자와 총상자 및 구금자가 발생했다. 이승만 정권은 마산에서의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고무되고 조정된 것"이라고 특별담화를 발표하는 등 진압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했다.



묘소엔 참배행렬
조선일보 1969년 4월 20일

마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승만 정권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발전하는 데 불씨가 되었다. 첫 시위는 4월 18일 고려대 학생 3,000여 명이 경찰의 방어선을 뚫고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여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나, 100여 명의 정치깡패들이 귀교하던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상황은 급진전되었다. 서울의 대학생들은 계획하고 있던 시위계획을 앞당겨 4월 19일 오전 대학별로 궐기선언문을 낭독한 후 국회의사당을 목표로 시가행진을 단행하였다. 이에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대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승만 정권의 통치기구들을 공격하였다. 시위대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경무대로 진출했는데, 이를 방어하던 경찰이 발포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중앙청 앞, 덕수궁 파출소 앞과 같이 곳곳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시위가 확산되자 오후 5시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였다. 이 날의 시위는 부산과 광주에서도 일어나 역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무위원과 자유당 당무위원 전원 사퇴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총재직 사퇴와 이기붕의 모든 공직 사퇴에 이르기까지 사건 수습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하지만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모든 정당관계에서 벗어나겠다고 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 이승만 정권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었고, 4월 25일 전국 27개 대학 258명의 교수단이 시민과 학생의 호위를 받으면서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으로써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는 시위는 26일에도 대규모로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이 날 오후 2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일련의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마산에서 시작되어 이승만 하야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서울에서 104명, 부산에서 19명, 광주에서 8명으로 모두 186명이었고, 부상자는 6,026명이었다.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민권확립과 책임정치의 발전, 경제건설 제일주의, 사회정의의 실현' 등을 제시하여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4·19혁명의 주체세력이 아니었던 민주당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혁명과제 수행, 곧 민주반역자 및 부패자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4·19혁명의 열기를 잠재우는 정책을 펴다가 5·16군사정변이 발발하면서 몰락하였다. 한편, 혁신세력과 민중진영은 '2·28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 반대투쟁, 통일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4·19혁명의 실질적 성과를 정착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비록 이러한 활동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좌절되었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에 역사적 자산이 되었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1980년대 이후의 민족·민주·자주운동으로 계승되었다.

내용 4·19혁명기념일 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국립 4·19묘지에서 이루어지는 기념식, 사건이 크게 발생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기념식, 그리고 학생 및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구분된다. 국가보훈처는 2004년 제44주년 기념행사 계획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는 목적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4·19민주이념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식에는 3부 및 헌법기관의 장, 정당대표, 국가보훈처장,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 4·19 및 보훈단체장, 민주화운동 관련단체장이 주요 인사로 참석하고, 이 밖에 4·19 관련단체 회원, 학생, 공무원,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식순은 개식, 국민의례, 헌화, 4·19혁명 경과보고, 기념공연, 추모 헌시 낭송, 기념사, 기념노래 제창, 폐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행사는 주로 4·19혁명 관련 기념시설물이 있는 장소에서 각 자치단체 및 관련단체 주관으로 개최한다. 기타 기념행사는 4·19혁명 관련단체들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추모제, 추모음악회, 사진 및 자료 전시회, 영상제, 정신계승 마라톤대회, 웅변대회, 백일장으로 10여 개 안팎이다.

학생 및 민중·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1980년대에 비하면 대폭 축소되었으나, 각각 기념식을 갖은 후 학술행사, 마라톤대회, 문화행사로 진행하




1~2 4·19혁명 희생자 합동위령제
국가기록원

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념행사는 사회 현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사회운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변천 4·19혁명 기념일 행사는 사건이 발발한 이듬해부터 국가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한편에서는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이는 196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한 4·19혁명 기념행사로 발전하였다.

1962년 학생단체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4·19의거기념일로 지정되어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1973년 3월 30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되면서 4·19혁명은 정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4·19혁명의 기념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박정희 군사정권 초반기부터 급격하게 축소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도 계속되었다.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 4·19혁명을 재조명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기념일도 보다 규모있게 거행하기 시작했다.

기타 최근 경남 마산에서는 3·15의거를 4·19혁명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흐름이 일고 있다. 박정희 정권 때에도 3·15의거 기념식을 독자적으로 개최해 왔고 국립 4·19묘지와 별개로 '국립 3·15묘지'가 조성된 점은 사건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일면 타당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희생자를 안장한 집단묘지로 서울에 국립 4·19묘지가, 마산에 국립 3·15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기붕의 집터에 '4·19혁명기념도서관'을 건립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전국의 주요 대학과 도시에 4·19혁명을 기념 혹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물이 건립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기념사업이 진행중이다.

참고문헌 |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 혁명1,2(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길사, 1990), 1960년대의 사회운동(박태순·김동춘, 까치, 1991), 문민정부의 '4·19' 재조명(국가보훈처, 1995), 달력 속에서 만나는 숨은 우리 날 찾기1(김선섭, 씨앤드씨그룹, 2000), 4월 혁명과 피의 화요일(오유석, 20세기 한국의 야만, 일빛, 2001), 三一五義擧史(삼일오의거기념사업회, 2004).

필자 | 정호기(鄭滸基)

식목일(植木日)

정의 국민 식수(植樹)에 의한 애림(愛林) 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

제도화 과정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한 것은 24절기의 하나인 청명(淸明) 무렵이 나무 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신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날이자(677년 음력 2월 25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5일), 조선 성종이 세자와 문무백관들과 함께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1343년 음력 3월 10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5일)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이다. 한편, 4월 5일이 식목일이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10년 4월 5일 순종이 친경제(親耕祭)를 거행할 때, 손수 밭을 갈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나무를 심었던 데에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가 날짜를 4월 3일로 옮겨 식목일 행사를 거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화천황(昭和天皇)의 생일이 4월 5일이었으므로 이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현재 일본에서는 4월 5일을 '녹색의 날'이라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내년은 소화 천황이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이므로 이를 기념하여 '녹색의 날'이라는 명칭을 '소화(昭和)의 날'로 변경하자는 강력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964년 4월 달력
국립민속박물관

해방 이후 1946년에는 미 군정청에 의해 식목일이 다시 4월 5일로 환원, 제정되었으며, 1949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에는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하면서 식목일을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그러다가 이듬해인 1961년에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식목일이 공휴일로 부활하였고, 1982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다. 1990년에는 일부에서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고 강력하게 제기하였지만, 청명과 한식이 겹치는 날이라 하여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2005년부터 식목일은 국가기념일이라는 위상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내용 해방 이후 매 시기마다 공휴일로 지정된 기념일이 많이 바뀌었지만, 식목일은 그런대로 일관되게 공휴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었다. 식목일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매우 중요하게 간주된 국가기념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식목 관련 사업은 국가에 의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다.

해방 무렵 한반도의 산림 면적은 1,627만 헥타르, 축적(蓄積)은 2억 1,200만 입방미터였다. 1910년 당시의 축적이 7억 입방미터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일제강점기에 무려 5억 입방미터의 축적이 감소된 셈이다. 여기에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산림에 아주 큰 상처를 남겼다. 한국전쟁 당시 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들이 취사와 난방을 해결하기 위해, 또 쌀과 일용품을 구하기 위해 산림을 마구 벌채하였다. 피난민들뿐만 아니라 물자공급이 부족한 군의 연료공급이나 후생사업을 위해서도 산림을 벌채하였으며,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나무를 벌채하여 한반도의 산림파괴는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후 UN의 원조로 벌인 재건사업 중 1955년 민유림 조림사업과 사방사업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편성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적지(適地) 선정이 잘못되거나 올바른 식목 방법을 잘 몰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게다가 민간의 벌목이 계속되어 산림은 계속 황폐화된 채 남아있었다.

1961년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법'이 제정되어 도벌 및 남벌을 금지하고, 일반인들의 입산을 금지하는 일련의 법적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매년 반복되는 수해(水害)와 한해(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림녹화(造林綠化)사업과 사방사업(砂防事業)에 더욱 힘을 쏟았다. 특히 1973년부터 실시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조림 성공국'으로 인정받게 된 출발점이었다.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은 가까운 곳부터 녹화사업을 하고, 빠른 소득을 얻기 위하여 조림 수종을 용재(用材) 수종에서 속성수와 유실수로 바꾸고, 나무 심는 일도 산주(山主)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묘목을 길러서 심어 가꾸는 범국민 조림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전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에 일반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한 것이 바로 식목일과 식목일 전후의 '국민식수기간'(3월 21일~4월 20일) 동안의 식목행사였다. 이 식목행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나무를 심었고,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목표는 4년 앞당겨졌다. 원래 10년 동안 100만 헥타르 면적을 조림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였으나, 6년 만에 108만 헥타르를 조림하였던 것이다.

제1차 치산녹화 계획의 목표를 1978년까지 초과달성함에 따라 1979년부터 제2차 녹화계획을 실시하였다. 추진 방향은 국민 조림체제 정착, 대단지 경제림 조성, 지역적 완결조림이었다. 이 기간 동안 범국민 식수운동을 더욱 확대하여 봄철에는 국민식수기간에 모든 국민이 식수에 참여하도록 하고, 가을철에는 '육림의 날' 행사를 통해 산림을 사후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2차 녹화계획은 제1차 녹화계획 때의 인공조림 일변도에서 천연림 보육에 힘쓰도록 했으며, 각 마을별로 속성수(速成樹) 조림에서 경제림 조림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2차 치산녹화 계획도 일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1, 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기간 동안에 이룩한 성과는 212만 8천 헥타르의 인공조림, 20만 8천 헥타르의 연료림, 2만 6천 가구의 화전민 이주·정착과 8만 6천 헥타르의 화전지 정리, 12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지·해안 사방사업 실시였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과이다.

제1, 2차 치산녹화 계획에서 황폐된 산림의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제3차 계획은 산림의 자원화를 목표로 하여 계획의 명칭을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이라 정하고 산지의 소득을 개발하며 산림의 공익을 증대하는, 소위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지의 합리적 이용, 자원조성과 경영기반의 확충, 임산물 안전공급과 유통체계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 생활환경 조성과 산림문화 창달을 기본목표로 하였다.

제3차 계획의 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전 시기의 범국민 식수운동에 대한 강조는 상당히 줄어든 듯 보인다. 이 영향인지는 몰라도 제3차 계획이 한참 실시되던 1990년 무렵에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된 바 있다. 그러나 산림을 심고 가꾸고 보호한 지 30년밖에 안 되는 한국은 임업선진국이나 산림자원국에 비하면 여전히 산림이 빈약하다. 또 해마다 산불 등에 의해 유실되는 산림의 면적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조림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韓國林政50年史(山林廳, 1997),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김민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 김민환(金玟煥)

장애인의 날(障碍人-)

정의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 원래 법정 장애인의 날 제정 당시는 '장애자(障碍者)의 날'이던 것이 1988년 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障碍人)의 날'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배경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을 제정, 시행해 오면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법에 명시하고, 4월 20일이 있는 4월 셋째 주를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하여 지키고 있다. 1970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킬 것을 의결하고, 1971년 4월 20일부터 해마다 이 날을 장애인의 날로 지킨 것이다. 그러나 1981년 법적으로 명시된 이후에 비로소 범국가적으로 지키게 되었다.

사실 1981년 법정 장애인의 날을 제정할 때와 현재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981년에는 장애인(당시 호칭으로는 장애자)을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로 대별하여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2000년 1월부터는 장애 범주가 뇌병변장애, 발달장애(자폐), 정신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가 추가되었다. 2003년 7월부터는 안면기형, 간질장애, 장루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가 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장애인의 날 대상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장애자올림픽(paralympic games)도 동반 개최하였다. 이 장애자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보장의 의미로서 장애자(障碍者)를 장애인(障碍人)으로 바꾸어 달라는 장애 관련단체의 주장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이다.



장애인의 날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용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참여하고,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기념식과 축하행사를 주관한다. 또 전국 각지에서 시도별로 각각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어 장애인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한다.

행사 목적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 의욕을 북돋우고,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있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및 관련단체, 기업 및 대학 봉사단체, 학생, 일반시민,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여 기념식, 야외문화행사, 먹거리광장 운영 등으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한다.

공식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장·포장·표창이 수여되며,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하여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한편, 4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장애인 주간을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꼭 정해서 하루만 장애인의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365일 장애인을 기억하자는 것이 본 목적이다.

기타 국제연합(UN: United Natio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제정,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장애인복지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법적으로 이 날을 기념일로 만들었다. 또 UN은 92년부터 매년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지키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지킨다.

일본은 국제장애인 권리선언을 선포한 1975년 12월 9일을 '장해자(障害者)의 날'로, 중국은 장애인보장법이 공포된 5월 15일을 그들이 말하는 '잔질인(殘疾人)의 날'로 지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별도의 장애인의 날을 지키지 않는다. 미국은 장애인의 날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매년 9월 셋째 주간을 통상적으로 재활 주간으로 지킨다. 이 주간에는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특별히 대통령의 장애인 재활과 복지,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실행방안을 알리고 선도하는 기간으로 지킨다.

참고문헌 | 희망은 장벽을 넘습니다(김종인, 토기장이, 2000), 재활복지개론(김종인·우주형·이준우, 인간과 복지, 2004),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http//www.kowpad.or.kr).
필자 | 김종인(金鍾忍)

정보통신의 날(情報通信 -)

정의 매년 4월 22일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발전을 다짐하며 정보통신 관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한다.

내용 '정보통신의 날'의 유래는 조선시대 후기 고종(高宗) 18년(1881)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홍영식(洪英植) 등 12명의 시찰단이 4개월간 일본에 머물면서 새로운 제도와 시설을 시찰한 뒤 돌아와서 고종에게 국정개혁의 하나로 신식우편제도의 도입을 건의한 결과, 고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1884년 4월 22일 왕의 칙명으로 우정총국을 개설하고 홍영식을 우정총판(郵政總辦)으로 임명했다. 고종은 "각국과 통상한 이래 내외의 간섭이 날로 증가하고 관상의 신식(信息)이 따라서 번잡해지니 진실로 그 뜻을 속히 체전(遞傳)하지 않으면 서로 연락하기 멀고 가까운 곳이 일체로 될 수 없다. 이에 명하니 우정총국을 설립, 각 항구에 왕래하는 신서를 맡아 전하고 내지(內地) 우편도 차차 확장해 공공의 이익을 거두도록 하라."라는 전교를 내렸다. 이것은 우정사업의 개념과 운영방식을 규정한 단초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정(郵政)의 연혁은 5세기 신라 소지왕 9년(487) 때로, 국가공문서의 송달을 위해 사방에 우역(郵驛)을 설치하였고, 고려 예종 3년



정보통신의 날 조은장

(1149)에는 봉수제도(烽燧制度)를 두었으며, 고려 원종 15년(1274)에는 마패제도(馬牌制度)를 창설했고, 조선 선종 30년(1597년)에는 파발제도(擺撥制度)를 두었다. 하지만 민간을 위한 우편제도는 발달하지 못했으며, 개인간 인편에 의한 우편이 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우정총국은 개설된 해인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홍영식 등 개화당 정객들이 숙청되자 폐지되어 우편제도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1895년 통신원과 우체사(郵遞司)가 설치되어 우편제도가 부활하였다. 조선 광무 1년(1900)에는 만국우편연합기구(UPU)에 참가했으나, 1905년 한일통신합동 운영협정이 체결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체신부가 통신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1949년 만국우편연합기구에 재가입했다. 1956년 이승만 정부는 1884년 4월 22일 우정총국이 개설된 날을 기념하여 '체신의 날'을 정했으며,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으로 정식 공포, 시행하여 오다가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거듭난 1994년 이후에 '정보통신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우리나라 체신제도는 1970년대 이래 비약적인 도약을 거듭하여 1970년 6월 2일에는 금산(錦山) 위성통신국의 개통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통신의 획기적인 향상은 물론 TV 우주중계의 길이 열렸다. 1971년 3월 31일에는 장거리자동전화(D.D.D.) 개통, 그리고 1972년의 직통회선 구성 등으로 전천후 통신망이 구축되었다. 1995년 정보화 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한 이래 5년 만인 2000년 12월에는 전국 144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성되어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인구는 2004년 말 현재 1천 2백만 명 수준으로 세계 정상급 인터넷 이용 국가가 되었다. 또 이동전화 인구도 3천 7백만 명 시대에 들어섰고, 유선과 무선의 통합,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결합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은 빠른 걸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 高宗實錄, 韓國史 -最近世 編-(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9).

필자 | 현원복(玄源福)

충무공탄신일(忠武公誕辰日)

정의 1545년 4월 28일 태어난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의 탄신을 기념해서 충무공의 애국과 충의를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한 날. 음력 3월 8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기념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력으로 환산하여 정하였으며,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 이순신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선조는 삼군수군통제사영이 있는 통영에 사당을 세워 그를 제사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최고의 예우였다. 이처럼 신위를 사당에 모셔놓고 해마다 제사를 받들던 날과 오늘날의 기념일과는 그 위상과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그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뒤에도 이순신을 기리는 사당은 효종 때 남해도의 노량에, 숙종 때 지역 유생의 요청으로 그의 고향이자 묘가 있는 아산에도 세워졌다. 통영과 노량의 사당에는 '충렬'이란 액호(額號)가 내려져 충렬사(忠烈祠)로 불렸고, 아산 사당의 호칭은 현충사로 정해져 역시 편액이 하사되었다. 아울러 숙종 때 고인이 된 신하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인 선정(先正)으로 불리면서 최고의 지위로 격상되었다. 이어 전남 완도군 고금도에 세워진 관우의 사당인 관왕묘에 조선 장수의 대표로서 배향되기도 하였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며,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를 편찬·간행함으로써 그를 기리는 수준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현충사(顯忠祠)는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당시 철폐되었다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



충무공탄신일 국가기록원

한 반발로 을사조약 직후인 1906년 아산의 유생들이 현충사 옛터에 유허비를 건립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5월에는 〈동아일보〉의 주도로 결성된 충무공유적보존회가 성금을 모아 1932년 사당을 짓고 이순신의 영정을 모셨다. 1945년 해방 후에는 충무공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는데, 한국전쟁 후 당시 자유당의 실력자 이기붕이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국방부장관과 3군 참모총장이 이사로 참여할 정도로 이순신 기념사업이 더욱 활발해졌다.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는 군사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애국군인의 상징인 이순신을 구국의 영웅이자 군인정신의 표상으로 삼아 충무공 탄신일을 국가적 행사로 격상시켜 나갔다. 이에 따라 1966년 4월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1967년 1월 16일에는 문교부령 제179호로서 4월 28일을 충무공탄신기념일로 제정, 공포하였다. 1968년에는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이 세워졌고, 이어 1973년 3월 30일에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충무공 현양 및 추모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군사정권은 이순신의 멸사봉공과 자기희생 정신을 국민의 정신을 계도하는 핵심으로 삼는다는 방침 아래 각 학교에 충무공의 정신이 담긴 표어를 붙이고 기념 웅변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박정희는 충무공 탄신일에는 아산 현충사를 방문해 추모하고 경내의 활터에서 활을 쏘는 등 자신과 이순신을 동일한 이미지로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1990년대에 이르러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충무공 기념사업이 소홀해지고, 충무공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낮아지면서 행사 규모도 작아지고 기념일의 성격만 유지되었지만, 1998년 충무공 순국 400돌을 계기로 다시 기념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충무공 탄신일 기념행사는 국방부가 주관하는데, 주요 행사는 해군을 주축으로 거행된다. 해군은 행사 당일 기항 중인 함정 공개 행사인 만함식(滿艦式)을 거행해 성웅(聖雄)의 탄생을 경축하는 한편, 부대별로 충무공 유적지 참배, 부대 개방, 초빙 강연, 마라톤이나 행군을 실시하고, 해군본부 장성 및 주요 참모들은 현충사 참배를 통해 충무공의 우국충절을 기린다.

충무공 탄신일을 전후해서 아산에서는 성웅 이순신 축제, 남해에서는 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가 열린다. 그 밖에 충무공과 관련해서 여수 거북선축제, 한산대첩기념제, 당항포 대첩제, 옥포대전 기념축제가 개최된다.

참고문헌 | 宣祖實錄, 燃藜室記述, 李忠武公全書, 보통 장수에서 구국의 영웅으로 -조선후기 이순신에 대한 평가-(오종록, 내일을 여는 역사18, 서해문집, 2004), 일본 축출의 영웅에서 군사정권의 성웅으로, 다시 인간 이순신으로(이덕일, 내일을 여는 역사18, 서해문집, 2004).
필자 | 한철호(韓哲昊)

향토예비군의 날(鄕土豫備軍-)

정의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 국민적 안보의식과 지역단위 방위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향토예비군이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향토방위와 병참선의 경비 및 후방지역 피해통제 임무와 유사시에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비정규군이다. 이들은 군복무를 마친 자들로 평소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정식 군인인 정규군을 보충하고 나라와 향토의 방위를 위해 예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비정규군, 향군(鄕軍) 또는 예비군이라고 부른다.

배경 향토예비군은 1968년 북한이 청와대 습격을 위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1·21사태와 1월 23일 동해에서 발생한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고, 북한의 4대 군사노선에 대응하기 위해 1968년 4월 1일 창설되었다.

1968년 2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은 경남 하동에서 열린 경전선(慶全線) 개통식 연설에서 향토예비군 창설의지를 밝히며 250만 향토예비군의 무장화를 역설했다. 이를 계기로 1968년 2월 18일 향토예비군 조직을 위한 법령제정에 착수하여 3월 31일 예비군 편성과 조직을 완료하였다. 1968년 4월 1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식이 거행됨으로써 향토예비군이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으며, 5월 29일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공포되면서 체계가 완성되었다.





1 향토방위대 대장선서식
2 향토예비군창설식
국가기록원

내용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향토예비군의 임무는 ①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아래에서의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 ②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 ③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무장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④ 위의 ②와 ③지역 안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⑤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 등이다.

1969년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을 사단별로 실시하였으며, 1970년 2월에는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과 대통령령으로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했다. 향토예비군의 날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거행한다. 이 날 각 지방단체와 기관에서는 최우수 향토사단으로 선발된 부대를 표창하며, 그 밖에 예비군 발전과 향토방위에 이바지한 부대 및 유공자들에게도 예비군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여 예비군 및 관계자를 격려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념행사는 향토예비군과 관계관들을 격려하고, 향토예비군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재인식시킴으로써 정예 예비군 육성과 민·관·군 통합 방위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 對非正規戰史 II 1961~1980(國防軍史硏究所, 1998).
필자 | 강혜경(姜惠卿)

블랙데이(Black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가락문화제(駕洛文化祭)

정의 매년 4월 중순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열리는 축제. 가락문화제는 가야를 건국한 김수로왕의 건국정신과 위업을 기리고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며,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열리는 축제이다. 매년 춘향대제일인 음력 3월 15일에 맞추어 개최하며,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전야제와 공개행사, 민속행사, 축제행사, 각종 부대행사 같은 5개 부문 총 40~50종목이 열린다.

유래 제1회 가야문화제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김해문화회 주관으로 1963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가야문화의 재조명과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그 후 5회까지 계속되었으나 재정 부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중단되었다. 1982년 김해읍이 김해시로 승격되면서 첫돌맞이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가락문화제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결성하여 복원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1982년 제6회부터 1990년 제13회까지는 김해군과 김해시가 번갈아가면서 개최하였으나, 김해군의 재정 악화로 제14회부터는 김해시가 행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단독으로 개최하고 있다. 1993년 가락문화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가락문화제전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1995년에는 도농복합시설 설치에 따라 김해군이 김해시와 병합되었다. 따라서 가락문화제도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내용 전야제 행사는 성화 채화 및 안치와 계욕제, 시가행진, 불꽃놀이가 벌어진다. 계욕제는 옛날 가락

국에서 구간(九干)들이 매년 3월 상사일에 구지봉 아래 호계천가에 모여 계욕을 즐기며 왕의 탄강과 나라의 건국을 기원하는 의식을 가진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공개행사는 춘향대제와 가락국 건국신화에 따른 수로왕 탄강과 건국 및 결혼 재현, 국악 한마당이 열린다. 춘향대제는 경남 무형문화재 제11호인 대제향으로 봄·가을로 나누어 연 2회 올리며, 음력 3월 15일은 춘향대제, 9월 15일은 추향대제라 불린다. 가락국 시조인 김수로왕의 건국과 위업을 기리는 제향은 원래 능에서 모셔오던 중 조선조 고종 15년(1878)에 숭선전(崇善殿) 사액(賜額)을 받아 전각에서 제례와 제수 등이 왕명으로 정해져 지금까지 모셔오고 있다.

시가행진에서는 가락국 건국신화에 따라 육란(六卵)이 담겨 있는 금합 상자를 모시고, 구간과 부족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기쁨을 나누는 길놀이를 전개한다. 구간의 뒤로는 가야문화를 상징하는 철갑옷과 투구를 착용한 병사와 기수들이 창과 칼을 들고 따른다. 또 이들과 함께 횃불과 만장을 든 백성들도 뒤따르는데, 모두 학생들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재현하는 대행렬이다.

민속행사로는 가야 고을 놀이마당과 민속경연대회, 농악경연대회, 민속예술공연, 장유화상 추모제, 석전놀이, 김해오광대, 전국가야금경연대회 등이 열린다. 추모제에서 모시는 장유화상은 수로왕의 왕비 허왕후의 형제인 허보옥의 불명(佛名)이다. 서기 48년 허보옥은 허왕후와 함께 가락국으로 건너와 인도의 불교를 이곳에 전하게 되었으니, 이로부터 남방불교가 전파되었다. 그의 이러한 업적을 기려 매년 가락문화제에서 추모제를 올리고 있다.

김해의 석전놀이는 조선조 중종 5년(1510)에 삼포에 거주하던 왜인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 김해의 석전사들이 동원되어 난을 진압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을묘왜변이 일어났을 때에는 전라도에까지 원정을 가서 왜구를 토벌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김해에서는 매년 사월 초파일 무렵 성의 남쪽에서 좌·우부로 마을사람들이 나뉘어 석전을 행했으나,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1983년 부활되었다.

김해오광대 역시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던 것을 1984년에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도 민속경연대회에서는 줄넘기, 윷놀이, 장기, 씨름대회가 열린다. 또 축제행사로는 각기 다른 지역 공연단체가 출연하는 열린연주마당과 문화예술마당, 청소년놀이마당, 전시·체험마당이 열리는데, 민속자료전시회와 민화전, 문화유산 사진전, 닥종이를 비롯한 한지 공예전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부대행사로는 전국사진공모전, 한시백일장, 미술 및 음악경연대회, 시조경창대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가 축제기간에 열린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祝祭의 理論과 現場(김선풍 外, 月印, 2000), 가락국의 역사와 그 유적 -김해·산청·경주를 중심으로-(김시우 편저, 삼우, 2002), 김해 가락오광대(김해민속예술보존회, 박이정, 2004).

필자 | 류종목(柳鍾穆)

가야진용신제(伽倻津龍神祭)

정의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당곡마을 앞 가야진사(伽倻津祠)와 낙동강변에서 매년 음력 3월 초정일(初丁日)에 행하는 축제. 1997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고, 가야진보존회에서 축제를 관장하고 있다.

유래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2, 「잡지(雜誌)」 제사조(祭祀條)에 따르면, 가야진용신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국가적 제전(祭典)으로 제정한 중사(中祀) 가운데 사독(四瀆)의 하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2, 양산군 산천조에 "가야진은 일명 옥지연(玉池淵)라고도 한다. 고을 서쪽 40리이며 황산강(黃山江) 상류에 있다. 우리 세종조 때 황룡이 물속에 나타났으며, 가물 때 비를 빌면 문득 효험이 있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은 책 사묘조(祠廟條)에 "가야진사는 사전(祀典)에 공주·웅진과 함께 남독을 삼았다고 중사에 실려 있다. 나라에서 해마다 향과 축문을 내려 제사지낸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가야진사는 예로부터 있었으나 창건 연대는 알 수 없다.

가야진사는 1983년 경상남도 지정 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다. 가야진사의 용왕제는 조선조 말기까지는 국가적 제례로 낙동강 도하(渡河)의 안전과 우순풍조를 용신에게 비는 제례였으나,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사당의 복원·정비 공사가 진행될 때 가야진용신제의 예능보유자였던 이장백 옹이 가야진용신제보존회를 조직하고 용신제의 내용을 고증·보완하여 민속놀이인 '용신제놀이'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가야진용신제 축제는 재래의 국가적 제례와 기우제 및 풍물놀이의 복합적 민속축제인 것이다.

내용 가야진사 용신제 축제는 부정(不淨)가시기, 칙사영접, 용신제, 용소(龍沼)풀이, 사신(辭神)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가시기는 제관들이 목욕재계하고 부정을 가시기 위해 제당 주변에 황토를 뿌리고 출입문에 금줄을 친 뒤 제수를 준비한다. 칙사영접은 칙사(勅使, 양산 군수)가 당도하면 선창자가 지신풀이를 창하고 영접길에 오르는데, 풍물패는 풍물을 치며 뒤따라간다. 칙사를 맞이하여 사인교에 태워 제당으로 모셔온다. 칙사가 가야진사에 당도하면 집례관이 칙사의 입실을 고하고 집례관의 집전 하에 용신제를 엄숙히 거행한다. 용신제의 진행 과정은 홀기에 따라 거행한다. 제물은 모두 익히지 않은 제물을 쓴다. 용소풀이는 용소침돈례(龍沼沈豚禮)의 과정이다. 용신제를 마치면 칙사를 비롯한 제관이 강변에 지어놓은 송막(松幕, 불집)으로 가는데, 풍물패가 풍물을 치며 따라가서 송막을 한 바퀴 돌면 칙사가 송막에 불을 지른다. 이때 풍물패의 잡색들은 기우제의 일환으로 짚신을 벗어 불길에 던지며 용의 승천을 기원하고 한바탕 풍물놀이를 벌인다.

한편 알자(謁者)의 안내로 칙사는 집례, 대축, 사령을 대동하고 배에 올라, 희생물인 돼지를 싣고 용소(龍沼)로 향한다. 용소에 당도하면 희생물을 뱃머리에 두고 칙사가 용신에게 헌작 재배한 후 돼지를 강에 던지면서 "침하돈(沈下豚)"이라 세 번 외친다. 사신은 용소풀이가 끝나면 제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풍물패들이 풍물을 치고 춤을 추면서 가야진사로 오면, 알자가 제당을 향해 제향이 끝났음을 고한다. 그러면 칙사는 관복을 벗고 제관을 비롯한 모든 참례자들이 풍물패와 어울려서 술과 음식을 먹고 한바탕 난장을 벌인다.









〈가야진용신제〉
1 부정가시기
2 용신제
3 사신(辭神)
4 사신(辭神)
경남 양산시 원동면 국립민속박물관

의의 가야진용신제 축제는 현재 사독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용신제이다. 가물었을 때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보장해주는 기우제와 풍물놀이가 합쳐진 양산 지방 특유의 민속축제이다.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 三國史記, 增補文獻備考, 내고장 傳統(梁山郡, 1983), 梁山歷史文化觀光選集(梁山文化院, 2001), 梁山市誌 上(梁山市誌編纂委員會, 2004).

필자 | 김승찬(金承璨)

⇨ 가야진용신제(伽倻津龍神祭): 봄편

기지시줄다리기(機池市–)

정의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機池市里)에서 윤년이 드는 해 양력 4월 1일에 인근 마을들을 수하(水下)편과 수상(水上)편으로 나누어 시장의 번성과 지역의 대동(大同)을 위하여 벌이는 줄다리기 축제. 기지시줄다리기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 현재 기지시줄다리기는 보존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윤년마다 하는 대제(大祭)는 나흘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첫째 날은 당제와 용왕제를 지내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여러 민속놀이가 부대행사로 펼쳐지며, 마지막 날에 줄다리기를 행한다. 줄다리기 일시는 양력 4월 1일이다. 소제(小祭)는 매년 음력 정월 그믐과 이월 초하루에 치르는데, 이때에는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다.

줄다리기 한 달 전부터 수상(水上)과 수하(水下)에 속한 마을들이 각각 짚단을 가져와 줄을 만든다.









〈기지시줄다리기〉
1 줄다리기 준비
2 줄다리기
3 줄다리기
4 줄 잘라가기
충남 당진군 송학면 황현만

줄은 암줄과 수줄 두 개를 만드는데, 암줄의 머리는 타원형으로 크게 하고 수줄의 머리는 원형으로 작게 제작한다. 암수줄의 길이는 200미터 정도 된다. 줄이 완성되면 일종의 전야제로서 당제와 용왕제를 지낸다. 당제는 마을 동쪽에 있는 국수봉에서 지내는데, 유교식 제사에 이어 승려의 독경과 무당의 굿이 진행된다. 보존회에서는 이를 유불선(儒佛仙)의 합동제사라고 한다. 다음에는 마을 한복판에 있는 우물에서 용왕제를 모시는데, 제사 방식은 당제와 동일하다. 밤에는 일종의 축원행사로 시장에서 굿을 벌인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풍물경연, 씨름, 그네뛰기, 궁도, 연날리기, 시조경창, 민요경창, 널뛰기, 윷놀이, 새끼꼬기, 베짜기 그리고 효자효부 선발 및 표창이 부대행사로 벌어진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면사무소 광장에서 폐회식을 치르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줄을 옮긴다. 줄을 마련해 놓은 시장통에서 줄을 당기는 홍척동까지 줄을 운반하는 과정이다. 수줄이 앞에 서고 암줄이 뒤를 따른다. 여기에는 자매학교 학생들이 동원된다.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양편 주민들은 풍물을 쳐서 기세를 올리며 줄 옆에 모여 선다. 중앙선에 기지시의 두레농기를 꽂고 좌우에 수상의 청기(靑旗)와 수하의 황기(黃旗)를 세운다. 양편은 대장이 지휘하는데 심판의 신호에 따라서 첫 번째 신호에 줄을 잡고 두 번째 신호에 줄을 들고, 세 번째 신호에서 줄을 당겨 끌어간 쪽이 이긴다. 수하편, 곧 암줄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한다. 매번 수하편이 승리한다. 수하쪽이 수상쪽보다 지형이 낮아서 수하가 줄을 당기기에 유리하다. 승부가 결정되면 줄다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넓은 들판에 널려 있는 줄에 달려들어 칼이나 도끼 등으로 줄을 잘라간다. 이 줄은 개인이나 가정의 각종 소망을 비는 데 여러 용도로 쓰인다. 특히 암줄과 수줄을 결합시켰던 비녀목을 꽂은 부분의 줄은 불임과 요통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또 원줄은 썰어서 논에 거름으로 쓰기도 한다.

의의 기지시줄다리기에는 시장의 번성을 위한 난장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 벼농사 지대의 줄다리기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 예전에는 충남 일부 지역에서도 줄다리기가 전승되었지만, 현재는 기지시줄다리기가 가장 대표성을 지닌다.

참고문헌 | 기지시줄다리기(이우영, 집문당, 1986), 기지시줄다리기(송봉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1998), 기지시 줄다리기의 재조명(이인화, 考古와 民俗4, 韓南大學校博物館, 2001), 기지시줄다리기(이필영,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필자 | 이필영(李弼泳)

⇨기지시줄다리기(機池市–): 봄편

단종문화제(端宗文化祭)

정의 단종(端宗)과 충신들을 위로하고 충의정신을 선양하며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취지로 열리는 강원도 영월군의 대표적인 축제. 매년 4월 한식에 맞추어 2박 3일간 장릉과 동강 둔치,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유래 조선조 6대 왕인 단종(端宗)이 1452년 열두 살의 어린 나이로 문종(文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재위 3년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세조)에게 쫓겨난다. 이에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이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죽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열일곱의 나이에 삶을 마감했다. 단종릉에 대한 제향(祭享)은 중종 11년(1516) 우승지 신상(申常)이 진향한 이래 계속되었으며, 영월군에서는 1967년부터 단종과 충신들의 고혼(孤魂)을 위로하고 충의정신을 선양하며 전통문화를 계승시킨다는 취지 아래 단종문화제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단종문화제는 2005년으로 제39회를 맞은 영월군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행사종목은 47여 종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종대왕 어가행렬, 단종대왕 제향, 단종대왕의 넋을 위로하고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영산대제, 충신들의 넋을 위로하



단종예술제
1969년 4월 6일 국가기록원

기 위한 충신봉화, 향화봉송, 궁녀와 종인 7인의 순절을 재현하는 낙화제, 단종과 사육신의 만남,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 단종과 정순왕후, 충신들과 왕을 따르던 궁인들에 관련된 고사를 중심으로 행사를 구성하고 새끼줄 공차기대회, 칡줄다리기, 게이트볼대회, 씨름대회 같은 체육행사와 사물놀이 시연, 한시공모전, 글짓기대회, 미술대회, 휘호대회, 각종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궁도, 윷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장기, 농악경연, 옛 소리 경창대회 같은 각종 민속행사가 벌어진다.

참고문헌 | 한국의 지역축제(문화체육부, 1996).
필자 | 김태수(金泰水)

매헌문화제(梅軒文化祭)

정의 매헌 윤봉길 의사의 고향인 충청남도 예산에서, 1932년 상해사변 폭탄 투척 같은 구국을 위한 의로운 날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후세에 계승하기 위해 개최하는 문화축제.

내용 매헌(梅軒)은 윤봉길의 호이며, 윤봉길은 1908년에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번지에서 태어났다. 그 후 그는 목바리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우리가 무식하고 가난하며 단결심이 없어서라고 여기고, 부흥원과 월진회를 구상하여 야학과 농촌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월진회 부흥운동이 애국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일제의 의해 좌절되자 1930년 중국으로 망명하였으며, 1932년 4월 29일에는 상해사변 전승기념식장인 홍구공원에 들어가 투폭하여 일본인 거류민단장과 상해파견 사령관을 살해하고 순국하였다. 농민구제, 농촌의 부흥,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아간 애국정신과 농촌사랑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1968년 말에 의사의 영정을 모신 충의사를 목바리에 창건하였다. 곧 충의사는 사적 제229호로 지정되었으며, 1973~1977년에 걸쳐 유적 정화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기념관과 관리사무소가 건립되었다.

윤봉길 의사가 농촌 계몽활동을 하면서 만든 단체인 월진회를 주축으로 예산군의 여러 민간단체가 힘을 합해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1968년 매헌 윤봉길 의사 의거 42주년 기념제전과 제1회 매헌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매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일에 맞추어 제향행사를 거행하다가, 군민단합과 예산군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위해 1982년 4월 28일 매헌문화제로 발전하였다. 매헌문화제는 그 후 지금까지 의거일인 4월 28~29일 양일간에 민간단체들이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1회 매헌문화제는 민속놀이(씨름, 그네뛰기, 윷놀이)와 체육행사가 주축을 이루었지만, 지속적으로 번창하여 지금은 예산의 가장 큰 축제로 자리잡았다. 대표적인 행사는 매년 5월 28일에 읍면 대항 줄다리기 대회(예선), 전통혼례 가장행렬, 보부상 가장행렬, 상두놀이, 글쓰기(서예), 글짓기, 사생실기대회, 읍면 대항 축구대회(예선), 전국 각설이타령 경연대회, 윤봉길 의사 추모 내포제,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가 충의사와 예산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29일에는 윤봉길 의사의 제향행사를 시작으로 많은 볼거리와 군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다. 읍면 대항 윷놀이 대회, 특산물 전시, 글쓰기, 글짓기, 사생실기대회, 읍면 대항 축구대회, 에어쇼(air show), 고공낙하가 열리며, 민속행사로는 널뛰기, 일반인 그네뛰기, 예산군수배 읍면 대항 그네뛰기, 한국국악협회 예산지부배 내포농악 경연대회, 읍면 대항 줄다리기 등이 열린다. 민속오락으로는 팔씨름, 토막뺏기, 턱걸이, 제기차기, 짚신삼기, 투호, 부녀 줄넘기, 새끼꼬기, 용구새 틀기가 열리며, 씨름대회로 초·중·고 일반단체전이 열리고 예산군 씨름대회, 한국건축박물관배 전국 업어치기 장사 씨름대회가 열린다. 그리고 전국고교 역전계주 경기대회가 온양에서부터 충의사까지의 코스로 이루어진다. 그 밖에도 매헌문화제 아가씨 선발대회, 노래자랑 등 많은 볼거리가 있다.

이렇게 50여 개 민간단체들이 행사를 주관하고 개최하며 지역축제의 효과를 높이고, 예산군민의 화합의 장으로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매헌문화제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매헌문화제의 본뜻은 윤봉길 의사의 충의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만든 행사인데,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축제의 의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 일반 축제에서 벌어지는 프로그램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봉길 의사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지만, 아직 매헌문화제는 전국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의의 매헌문화제는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고장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과 더불어 행사를 통해 매헌의 업적을 되돌아보고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가 된다.

참고문헌 | 매헌문화제(인터넷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
필자 | 이필영(李弼泳)

선농제향(先農祭享)

정의 조선시대에 농업신인 신농(神農)과 후직(后稷)에게 연풍(年豊)을 기원하며 드리던 선농제의 전통을 계승하여 1979년부터 매년 4월 20일 서울 동대문구 선농단에서 시행되는 행사.

유래 선농제(先農祭)의 유래는 삼국시대부터 시작











〈선농제향〉
1 시가행진
2 봉축
3 어가행렬
4 음복
5 설렁탕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남윤중

되었으며 고려시대 이후 제도화되었다. 조선시대의 선농제는 고려의 제도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제사의 등급은 중사(中祀)이다. 제일(祭日)은 경칩(驚蟄) 뒤 길한 해일(亥日)이었다. 선농제는 태조 이래 1909년까지 국왕의 친제 및 섭사(攝事)의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1910년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979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주민들이 '선농단친목회'를 조직해 제사를 지냄으로써 재개되었고, 1992년부터는 동대문구 및 각종 기관들의 주관 아래 거행되었다.

내용 선농제향은 매년 4월 20일에 시행되는데, 동대문구청에서 선농단까지의 어가행렬, 선농단에서의 제사의식, 전통 설렁탕 재현, 백일장 개최 등으로 구성된다.

선농제향은 ① 신위에게 폐백을 드리는 전폐례 ② 신위에게 술잔을 드리는 헌례(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③ 제관이 제주(祭酒)와 제육(祭肉)을 맛보는 음복례 ④ 제사의 폐백을 땅에 묻는 과정을 지켜보는 망예례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향이 끝나면 설렁탕을 재현한다. 설렁탕은 의식 후에 국왕이 제사의 희생인 소를 잡아 국말이 밥과 술을 제관 이하에게 내렸다는 '선농탕(先農湯)'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나, 조선시대 문헌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그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의의 조선시대 권농정책(勸農政策)의 상징인 선농제를 복원한 현대의 선농제향은 올바른 전통문화 계승과 대중의 역사교육에는 효용성이 적다. 의식의 진행과정에서 행사의 편의를 위해 국왕이 실제로 농사의 모범을 보였던 적전례(籍田禮)를 생략한 것이나, 전통 설렁탕, 백일장 같은 고증이 수반되지 않은 행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올바른 선농제향의 이해를 위해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春官通考,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한국의 음식문화(이효지, 신광출판사, 1998), 朝鮮初期 中祀祭禮의 정비와 그 운영(韓亨周, 震檀學報89, 震檀學會, 2000),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韓亨周, 一潮閣, 2002), 조선시대 親耕禮의 변천과 그 의미(이욱, 宗敎硏究34, 韓國宗敎學會, 2004).

필자 | 한형주(韓亨周)

⇨ 선농제(先農祭): 봄편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牙山聖雄李舜臣祝祭)

정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국난극복의 위업을 계승하고자 매년 장군의 탄신일(4월 28일)을 전후하여 열리는 충남 아산시의 문화관광축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는 4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온양문화제(溫陽文化祭)'의 명칭을 변경하여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영웅의 생애와 상징성에 초점을 맞춘 축제이다.

유래 아산 성웅이순신축제는 1961년 온양문화원 주관으로 제1회 온양문화제로 첫발을 내디딘 이래 2005년 4월, 제44회를 맞이했다. 1982년 온양문화제위원회가 조직되어 아산군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고, 1986년 온양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행사 내용도 '온양온천제'와 '온행제왕추모제(왕들이 온천에 오는 내용을 재구성한 것)' 등 온천과 관련된 종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1989년에는 시민의식 제고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문화의 달인 10월로 날짜를 옮기기도 했다. 이후 1992년에는 온



이순신장군상
경남 진해시 국가기록원

양시와 아산군에서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명칭을 '온양아산문화제'로 변경하였다가, 1998년 다시 온양문화제로 환원하고 충무공 순국 400주년 행사와 병행하였다. 1999년에는 새로운 법인체를 구성하기 위해 온양문화제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순신 장군과 온천 문화를 혼합한 문화제가 더이상 상품 가치로서 존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04년부터 '아산 성웅이순신축제'로 명칭을 바꾸어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내용 아산 성웅이순신축제는 역사적 실존인물을 주제로 설정한 흔치 않은 지역축제이다. 기간은 매년 충무공 탄신일인 4월 28일을 기준으로 전후 3~4일간 열리는데, 4월 24일 충무공이 순국한 남해 관음포에서 헌정수(獻淨水) 봉송 및 봉치(奉置)와 헌다제례(獻茶祭禮)로 시작된다. 불꽃놀이가 장관을 이루는 전야제에 이어, 4월 28일에는 현충사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다례행제와 서막식이 거행된다. 행사기간에는 연날리기 대회, 무과 전시 재현, 아산줄다리기, 석전이 펼쳐진다. 이밖에 식전행사, 의전행사, 경축행사, 문화예술행사, 전통민속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문화관광축제를 지향한다.

아산 성웅이순신축제의 주제와 행사종목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충무공 탄신 제458주년을 기념하는 2003년 제42회 축제는 '찬란한 영웅(Amazing HERO)'을 주제로 하여 눈길을 끌었다. 곧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소년 이순신, 청년 이순신, 명장 이순신, 성웅 이순신의 4가지 테마로 구성하여 교육문화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창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편 2005년 축제에서는 기존의 행사에 승마와 활쏘기 체험, 거북선 경주대회 및 승선 체험, 해전탐구관, 세계 3대 해군 명장 비교전, 세계 4대 해전 비교전, 조선시대 군영 체험, 조선시대 거리 재현이 각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7년전쟁과 이순신 장군의 리더쉽'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와 전투에 사용되었던 각종 깃발을 재현한 '호국 전승깃발 대행진'은 성웅이순신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이다.

참고문헌 | 한국의 지역축제(문화체육부, 1996).
필자 | 강성복(姜成福)

영도풍어제(影島豊漁祭)

정의 해안지역의 공동체 축제인 별신굿의 전통을 계승한 행사로서 매년 음력 3월 2일에 열리는 축제. 축제 장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항 방파제 입구에 있는 가설 굿당이며, 동삼동 어촌계 풍어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유래 영도풍어제는 본래 동삼동의 별신굿이었다. 별신굿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본래는 동삼동 전체의 생업과 주민을 포괄하는 축제였던 별신굿이 어촌계의 풍어제로 바뀐 것은 1970년대에 일어난 새마을운동 시기이다. 미신을 타파한다는 명목 아래 무속적인 제의를 금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자, 어민들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어제로 이름을 바꾸어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한편 농업과 어업을 함께 아우르던 별신굿이 주로 어업을 겨냥하는 풍어제로 성격이 바뀌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주민들의 생업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원래 이 마을 주민들의 생업은 다른 연안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반농반어(半農半漁)였지만, 점차 전문화된 어업 중심의 마을로 변해감에 따라 마을의 어업을 관장하는 어촌계의 위상이 강화되고, 마침내 어촌계에서 주도하는 풍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동삼동 별신굿은 본래 몇 년마다 한 번씩 전문적인 세습무당들을 불러서 3일, 5일, 7일 등 여러 날에 걸쳐 축제적인 대동굿판을 벌이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매년 하루 동안만 굿을 벌이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내용 영도풍어제는 동삼동 어촌계 풍어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동삼 어촌계는 1962년 수협에 정식 등록되었고, 220명의 어민이 등록되어 있다. 어촌계원의 구성을 보면 해녀가 104명, 어부가 116명이다. 현재 대부분의 해녀는 고령으로 실제 활동하는 해녀는 그리 많지 않고, 어민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등록된 어선 108척 중에서 실제 조업을 하는 배는 20여 척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최근에 어업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풍어제 역시 점차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영도풍어제를 담당하는 무당집단은 강릉단오제팀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의 제례부분 예능보유자인 빈순애 무녀를 비롯해서 신성녀,

신길자, 김명광, 박금천, 김장길, 송명희 등 강원도 속초, 강릉, 경북 울진 후포의 세습무당들이 부산에 와서 굿판을 벌인다. 부산에 김석출 무계의 세습무당들이 있는데도 지역 밖의 무당집단이 굿을 담당하는 것은 그동안의 당골 관계를 고려하고 문화적·경제적 적합성을 따져서 무당집단을 초청하는 관행에서 비롯한 것이다.

영도풍어제는 전날 도착한 무당들이 굿당을 차리면서 시작한다. 임시로 가설한 대형천막에 굿당을 차려놓고 온갖 지화와 제물로 장식한다. 풍어제 당일에는 오전 9시에 부정굿을 시작으로 골매기서낭굿, 조상굿, 세존굿, 성주굿, 손님굿, 군웅장수굿, 용왕굿, 꽃노래굿, 뱃노래굿, 등노래굿, 거리굿(대거리) 등 열두 거리를 진행하는데, 대개 오후 8시에 모든 행사를 마치게 된다. 열두 거리 굿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것이 용왕굿인데, 풍어 깃발을 게양한 배마다 무당이 직접 올라가서 선주와 함께 풍어를 기원한다.

의의 풍어제에는 동삼동 주민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주민, 관계·문화계 인사도 참석한다. 무당들의 다채로운 춤과 노래에 참여자들이 호응하는 가운데 푸짐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신명을 풀어내는, 현대 도시사회의 전통축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남해안 별신굿(김선풍, 박이정, 1997), 남해안별신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동해안 별신굿(李均玉, 박이정, 1998).

필자 | 한양명(韓陽明)

임천충혼제(林川忠魂祭)

정의 백제의 옛 땅인 부여에서 나당연합군에 항전하다 목숨을 바친 무명(無名)의 백제 부흥군의 고혼(孤魂)을 위령(慰靈)하기 위하여 성흥산성 안의 충혼사(忠魂祠)에서 지내는 제사로서, 매년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에서 열리는 축제.

내용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성흥산성은 백제 24대 왕인 동성왕이 쌓은 성으로 백제와 연관이 깊다. 이 때문에 부여 지역민에게는 백제의 옛 땅이라는 강한 역사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산성 아래에는 금강이 한눈에 보이며,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나당연합군에 항전하다가 산화한 수천의 무명 전몰장병을 위무하기 위해 1985년 이곳에 충혼사를 세웠다. 충혼사에는 마지막까지 백제를 수호하던 여러 장졸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위패에는 '수성장졸제신위(守城將卒諸神位)'라고 쓰여 있다.

충혼제는 제각을 짓기 이전인 1979년부터 임천면 번영회의 주관으로 해마다 거행되고 있다. 제사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지내는데, 면민이 모두 참석한다. 제비는 번영회가 주관하여 각 기관이나 재산가의 협조를 받아 충당한다. 면내의 학생이나 부녀회에서 참석하여 풍장을 친다.

제사에 앞서 전야제로 29일 오후 8시부터 임천면 사무소에서 성흥산성 정상까지 연등행렬이 이어지고, 이어 성흥산성 정상에서 제례를 행한 후에 봉화제를 올린다. 이는 백제시대의 통신수단인 봉화를 재현하며 제향을 올리는 것이다.

30일에는 충혼제에 앞서 개막을 산신에 고하기 위해 충혼각 뒤의 빈터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각은 조금 높게 단을 설치하고 제물을 진설해 두어 표시한다. 제관과 헌관만이 참석하여 간소하게 거행한다. 이어 충혼각에서 유교식으로 충혼제를 거행하는데, 이때 백제제례국악관현악단이 백제제례악을 재현하여 연주한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농악놀이를 하며 한바탕 잔치를 벌인다.

참고문헌 | 부여의 민간신앙(이필영, 부여문화원, 2001).

필자 | 이필영(李弼泳)

지리산남악제(智異山南岳祭)

정의 지리산(智異山) 산신제(山神祭)를 소재로 한 민속문화축제. 양력 4월 20일경 곡우(穀雨) 무렵에 열리며, 지리산약수제라고도 한다.

유래 지리산은 오악(五岳) 가운데 하나인 남악이라 하였으며, 지리산에서 행해진 산신신앙은 신라시대의 남악신(南岳神) 숭배가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천왕봉 중심의 산신신앙은 고려초에는 노고단으로 옮겨 건립된 제단에서 이루어졌고, 조선 건국 이후 왕위 찬탈로 인해 민심이 어수선하던 세조 3년에 노고단의 남악사를 좌사리 당동으로 옮겼


오늘 곡우
조선일보 1966년 4월 20일

으며, 1737년 이곳에 사우를 비롯한 부속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남악사의 규모가 일신되었다. 1908년까지 이곳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후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1960년대 초반에 구례군 번영회가 주축이 되어 다시 지리산 산신제를 부활한 바 있다. 1964년에는 제1회 지리산약수제라는 명칭으로 화엄사 일주문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1969년 12월 화엄사 입구 오른쪽에 현재의 신당을 지어 1970년부터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1982년에는 제1회 군민의 날 행사를 같이 거행함으로써 지리산약수제 행사가 더욱 확대되었고, 국가의 태평과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행사가 고로쇠 약수 판매 행사로 잘못 인식됨에 따라 2000년부터 '지리산남악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지리산남악제를 군민의 날과 분리 개최하여 남악제례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행사로 정착하고 있다.

내용 지리산남악제는 전남 구례군과 지리산남악제 전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구례읍과 화엄사 부근, 체육공원 및 군 일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곡우날 고로쇠 약수물을 마시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게 되자, 지리산남악제 시기를 곡우를 전후하여 정하게 되었다.

2005년도 지리산남악제는 국태민안의 제례와 문화예술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7일 동안 진행되었다. 주요행사 내용은 전국마라톤대회, 압화예술공모전, 전국장수부부선발대회, 전야제불꽃놀이, 군민노래자랑,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구례농악시연, 남악제례악연주, 전통다례시연, 남악제례, 도립국악단공연, 지리산녀선발대회, 향제줄풍류공연, 시조경창대회, 구례국악인공연, 전국남녀궁도대회,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영호남볼링대회가 열린다.

가장 역사성이 있는 축제행사는 남악제례를 중심으로 약수제례, 씨름대회, 시조대회, 명창대회, 궁도대회, 축구대회인데, 특히 문화예술 중심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약수제례는 2000년도부터 중단했다. 지리산남악제의 핵심내용은 군민노래자랑, 전야제, 남악제례, 민속예술공연, 민속예술경연대회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 南岳祠址地表調査報告書(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求禮郡, 1992).

필자 | 표인주(表仁柱)

진해군항제(鎭海軍港祭)

정의 벚꽃을 배경으로 열리는 대표적인 축제. 벚꽃이 만발하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열흘간 열린다.

1952년 경상남도 진해시 북원로터리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건립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63년부터 시작한 군항제는 충무공을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선양하며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유래 1963년부터 시작한 군항제는 2005년 제43회를 맞이하였다. 1952년 4월 13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해마다 추모제를 열어오다가, 1963년 해군 진해통제부가 주관하여 군항제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성격도 변화하였다. 충무공의 숭고한 얼을 추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다 향토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목적이 덧붙여져 각종 문화예술 행사, 팔도 풍물시장 같은 것이 새롭게 추가되어 다채로운 내용을 지닌 지역축제로 자리잡았다. 이후 차츰 규모가 커져 1965년 제3회 군항제부터는 군항제위원회에서 행사를 맡았고, 1983년부터는 사단법인 이충무공호국정신선양회와 진해시가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다.

1980~1990년대를 거치면서 군항제는 벚꽃을 즐기는 행사로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벚꽃이 진해의



진해군항제
경남 진해시 국가기록원

명물로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진해를 군항으로 만들면서 도시 미화용으로 이 꽃을 심으면서부터이다. 1905년 일본 연합함대가 진해를 기지로 삼고 각종 군사시설을 세웠는데, 1916년 일본 해군의 진해요항부가 설치되면서 군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현재의 공설운동장 서편 약 일만 평의 농지에 '벚꽃장이'라는 벚나무 단지를 만들어 휴식처로 이용해 왔다. 광복 후 시민들은 벚나무를 일본의 국화라 하여 베기 시작했는데, 벚나무가 모두 없어질 무렵인 1962년 식물학자들이 진해의 왕벚나무 원산지가 일본이 아닌 제주도임을 밝혀냈다. 이때부터 시민들은 벚나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5·16군사정변 이후 '벚꽃 진해'를 되살리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시 벚꽃의 고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진해시의 벚나무는 266,085그루로 가로수 12,316그루, 공원 및 산지에 169,084그루, 벚나무단지에 38,261그루, 유관기관과 녹지대에 46,424그루가 분포되어 있다. 현재 벚꽃은 진해군항제를 표상하는 이미지가 되었으며, 축제기간에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여 벚꽃을 감상하면서 진해 관광을 즐기고 있다. 대표적인 벚꽃 명소로는 장복산공원, 안민도로, 해군사관학교 및 해군기지사령부, 여좌천, 제황산공원, 내수면연구소가 손꼽히는데, 특별히 축제기간 동안 해군기지를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마음껏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내용 행사는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개막식, 추모대제, 관람행사, 기타행사로 나눌 수 있다. 개막식일에는 군악대 취주악, 시립합창단 합창, 의장대 시범, 군항의 북소리, 진해여고 합창이 개막식 식전행사로 열리고, 식이 끝난 다음에는 전광등 점등, 불꽃쇼, 초청공연팀의 공연이 있다.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대제는 군악대 취주악, 삼헌관의 헌작과 제례악 연주, 충무공의 노래, 의장대 시범의 순서로 진행된다. 관람행사는 해군진해기지, 해군사관학교, 진해시립박물관,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양식연구소 등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해군사관학교에서는 거북선과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기타행사로는 벚꽃예술제와 공연행사, 전시회, 외곽행사가 있다. 벚꽃예술제에는 전국국악경연대회, 전국한글시백일장, 전국무용경연대회, 진해전국사진촬영대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가 펼쳐진다. 이 예술제는 보통 축제기간 열흘 중 가운데 날과 마지막 날에 진해시민회관에서 열려, 전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학생들이 모여 기량을 겨룬다. 공연행사는 충무공승전행차, 연극공연, 단학기공시범공연, 전통무예해동검도시범행사, 공군 블랙이글 에어쇼, 직장인 밴드공연, 진하모니 관현악단 열린음악회, 늘푸른예술단 공연, 택견시연, 장복가요제, 해군의장대 시범, 국악 및 무용공연, 중국 정통 서커스 공연, 우리가락 한마당이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속장기대회, 이충무공 호국정신과 평화통일글짓기대회, 민·관·군 테니스대회, 전국벚꽃사진 촬영대회도 개최한다. 전시회로는 임진왜란 신호연전시회, 수석전시회, 에너지절약 순회전시회, 시민휘호대회, 미술협회 회원전, 우표전시회가 열리는데, 이 전시회들은 주로 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이끌어가고 있다. 한편 외곽행사로는 아마추어무선 공개운용, 응급의료소 및 행사안내소 운용, 소방활동 현장체험장 운용, 소방활동 사진전, 해군 바다사진 전시회, 우리고장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팔도풍물시장이 있다.

의의 진해군항제는 충무공이라는 역사문화자원과 벚꽃이라는 자연자원을 결합함으로써 특화한 지역축제로서 외부에 도시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지역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왔으며, 관광 수입

을 올리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충무공이라는 군사적 이미지와 벚꽃이라는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적인 이미지를 조화롭게 결합시켜 축제이미지의 통일을 꾀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큰 축제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한국의 축제(문화예술총서8,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8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진해 군항제2004 팜플렛(진해시, 2004), 진해군항제의 친환경적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문상기, 문명연지14, 한국문명학회, 2005).
필자 | 한양명(韓陽明)

하동문화제(河東文化祭)

정의 경상남도 하동 지역에서 매년 4월 15일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전통문화 축제.

유래 하동문화제는 1981년 11월 1일 하동문화원이 지역민에게 하동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고, 아울러 애향심과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효시이다. 하동문화원이 주관하여 이 날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과 함께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열어 하동문화제라 이름 지은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화제 행사와 더불어 1983년 7월 18일에는 하동군민상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하였고, 1994년 3월 22일에는 하동군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는 하동군민의 날 개최 목적을 "하동군민의 날을 정하여 범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동 군민의 날과 하동문화제 행사는 1981년부터 1993년까지 하동문화원과 하동군이 주관하는 관 주도 행사로 열려왔으나, 1994년부터는 군민의 날이 4월 15일로 변경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순수 민간기구인 '군민의 날 경축 및 문화제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행사를 집행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각종 문화행사 외에 군민의 단합과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체육대회 및 각종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되면서 하동군민의 날로 정착되었다.

내용 하동군민의 날 및 하동문화제 행사는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약속하고, 장엄한 지리산의 정기와 섬진강 푸른 물의 풍요를 이끌어온 하동의 얼을 살려 유서 깊은 전통문화를 자랑하고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이다.

본격적인 문화제 행사가 열리기 전날, 군청 광장이나 군내 학교 운동장에서 하동향교 주관으로 사당이나 신명에게 행사의 시작을 고하는 고유제(告由祭)가 열린다. 그리고 1983년 제정된 군민상 조례에 따라 하동군의 문화향상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하동군민상을 시상한다. 행사 전야에는 섬진강변에서 남녀학생 2,000여 명이 펼치는 유등(流燈)놀이가 벌어지며, 군청 광장에서는 불꽃놀이로 행사 전야의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전야제가 끝나고 다음날 날이 밝으면 본격적인 군민의 날 행사로 문화제 및 축하행사, 민속경연, 체육경기가 벌어진다.

문화제 및 축하행사에서는 각종 경축행사와 문화예술행사, 전시 및 공연, 기념축하행사, 식후 공개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문화예술행사로는 시조경창대회, 한글시짓기, 사생대회가 열리며, 전시행사로는 하동문화예술동호회 주관으로 서예, 사진, 미술작품전이 열린다. 또 농민 특산품전, 토산품전이 함께 열리는데, 특히 차의 시배지(始培地)인 하동을 알리기 위해 향토차 시음회가 열려 이채롭다. 이 기간 동안에는 축하행사로 청소년음악회와 노래자랑 등 군민들을 위한 각종 공연 및 경연대회도 개최된다.

민속경연으로는 전통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하동공설운동장 및 송림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 대회는 주로 읍면대항 및 개인대항전으로 열리는데, 장기대회와 널뛰기대회, 윷놀이대회, 밤깎기대회, 배깎기대회, 투호대회, 농악경연대회, 제기차기대회, 줄넘기대회가 있다. 그밖에도 군민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체력 향상을 위한 행사로 달리기, 마라톤, 줄다리기, 각종 구기 종목이 개인, 단체 및 읍면대항이 함께 펼쳐진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河東郡志(河東郡志編纂委員會, 1996), 韓國祝祭의 理論과 現場(김선풍 外, 月印, 2000).
필자 | 류종목(柳鍾穆)





五月

오월

머리카락이 윤기나고
잘 차라도록 하기 위하여
창포와 버드나무 잎을 함께 넣어 삶아
그 물에 머리를 감거나
단오 전날 창포를 베어
이슬을 맞혀서 삶아
그 물에 머리를 감기도 한다.
그리고 창포뿌리를 깎아 글자를 새기고
연지를 칠하여
딸은, 머리끝에 꽂으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한다.

夏

5월(五月)

개관 5월은 중하(仲夏), 오월(午月), 포월(蒲月)로도 부른다. 이 달에는 망종(芒種)과 하지(夏至)의 절기가 있고, 단오(端午)가 있다. 5월 초순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가을보리를 벤 다음에는 콩을 심고, 고구마 줄기를 끊어 밭에 심는다. 중순부터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모심기 전에 올(이른)마늘, 쪽파, 양파를 수확한다. 모내기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祈雨祭)를 지낸다. 어촌에서는 왕다리멸치 어장이 형성되면 어로작업에 들어가고, 조기잡이와 성게잡이를 시작한다. 경기도 고양, 인천광역시 강화에서는 웅어를 단오까지 잡고, 5월에는 황복을 잡는다. 5월은 양기(陽氣)가 왕성하므로 역동적인 축제나 기축행사도 많지만 잡귀, 잡신과 병이 창궐하는 계절이므로 다양한 금기나 이방, 점복(占卜) 풍속도 많다.

절기 및 명절 망종은 24절기의 하나로 소만(小滿)과 하지 사이에 들며, 음력 4~5월, 양력 6월 6일 무렵이 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75도에 달한 때이다. 망종이란 벼, 보리 같은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이다. 이 시기는 옛날에는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알맞은 때였다. 그래서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볏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요.", "햇보리를 먹게 될 수 있다는 망종"이라는 말도 있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듯이 망종까지는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된다. 망종을 넘기면 바람에 쓰러지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닐 모판에서 모의 성장기간이 10일 정도 단축되었기 때문에, 한 절기 더 앞선 소만 무렵에 모내기를 시작한다. 특히 모내기와 보리베기가 겹치는 이 무렵 보리농사가 많았던 남쪽일수록 더 바빴고, 보리농사가 거의 없던 북쪽의 상황은 또 달랐다. 남쪽에서는 이때가 "발등에 오줌 싼다."라고 할 만큼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5월에 망종이 들면 보리농사가 흉년든다는 속신(俗信)이 있다.

하지는 24절기의 하나로 망종과 소서(小暑) 사이에 들며, 음력으로 5월, 양력으로 6월 21일 무렵이 된다.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길며, 정오의 태양 높이도 가장 높고, 일사 기간과 일사량도 가장 많은 날이다. 북극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으며, 남극에서는 수평선 위에 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동지(冬至)에 가장 길었던 밤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여 이 날 가장 짧아지는 반면, 낮 시간은 14시간 35분으로 일년 중 가장 길다. 남부 지방 농촌에서는 단오를 전후하여 시작된 모심기가 하지 이전이면 모두 끝난다. 강원도에서는 햇감자를 캐어 쪄먹거나 갈아서 감자전을 부쳐 먹는다. 옛날 농촌에서는 흔히 하지가 지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다.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서는 하지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이장(里長)이 제관이 되어 용소(龍沼)에 가서 기우제를 지낸다. 하지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속신 때문이다.

단오는 전통 명절로서 오랜 옛날부터 성대히 맞이하였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봄 파종을 끝마친 5월초에는 그 해의 풍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거족적(擧族的) 대제전(大祭典)을 거행하고 음주가무를 하면서 즐겁게 놀았다. 이 날은 수리, 수릿 또는 수뢰(水瀨)라고 하여 여울에 밥을 뿌려 넣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용신(龍神)을 대접하는 제의행사이다. 한편 『삼국지(三國志)』「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마한사람들은 5월에 파종이 끝나면 한데 모여서 귀신에게 제사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즐겁게 논다고 하였다. 음력 5월초는 한 해 농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힘든 씨뿌리기가 일단 끝나고 모내기나 김매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때이며, 또 숲이 푸르른 가장 좋은 계절이다. 그러므로 화목하고 명랑한 기풍을 가진 우리 조상들은 씨뿌리기가 끝난 다음 다가오는 새로운 농사일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쉬었던 것이다.

속신 단옷날 약쑥을 뜯어 해지기 전에 말린 다음 밤이슬을 맞혀 달여 먹으면 속앓이 병이 들지 않는다고 하며,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단오 약쑥을 캐어 장독 위에 얹어 이슬을 맞혀 삶아 그 물로 머리를 감으면 비듬이 없어진다고 한다. 또 익모초에 밤, 대추를 넣어 삶아 먹으면 한 해 동안 신병(神病)이 없으며, 여자의 경우 익모초탕을 먹으면 불임과 수족 냉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단오에 수리취를 삶아서 찹쌀을 넣어 떡을 해먹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더위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 망종을 '보리 환갑날'이라 하여, 이 날 그 해 벼농사가 잘되고 쥐가 논에 생기지 말라고 보리떡을 해서







1 보리베기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홍현리 황현만

2 창포물에 머리감기
강원도 강릉시 선교장 김종달

3 그네뛰기
강원도 강릉시 선교장 황현만

논에 몇 개 던지고 먹는다. 또 죽순을 달여 먹으면 화채병에 좋다고 한다. '댓부르기'란 제주에서 죽순을 말하는데, 댓부르기는 맛이 좋아 보통 구워먹고 삶아먹는 풍습이 있다. 특히 왕댓부르기는 솥에 삶으면 물렁물렁하여 더욱 맛이 난다고 한다. 댓부르기 곤 것을 죽염이라고 하는데, 시기를 맞춰서 만들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귀한 약으로 여겼다.

단오에 도장을 만들어 두면 좋다고 하여 모과나무나 대추나무의 마른 둥치를 구해서 도장을 판다. 관운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날 도장을 만들어 두었는데, 특히 모과나무를 재료로 도장을 파서 쓰면 길하다고 한다. 단오에 깻잎을 찬물에 담가 우러난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통이 치료되고 비듬도 없어지며 머릿결이 고와진다고 한다. 단옷날 얼굴 고와지라고 상추잎에 맺힌 이슬로 낯을 씻는다. 부산 강서구 천가동과 기장군 학리, 연화리에서는 단오에 바가지에 물을 떠서 덮어쓰면 머리카락도 잘 자라고 몸도 튼튼해진다고 한다. 또 단오에 주부가 아홉 가지 풀이나 아홉 고랑의 풀을 베어와 환(丸)을 만들어 집 주위에 뿌리고 자식에 대한 소망을 비손하기도 한다.

단오에 그 해 잡귀를 쫓고 액운을 막기 위해 절에 가서 부적을 써 방문 위나 부엌 벽에 붙인다. 『용재총화(慵齋叢話)』에 5월 5일을 단오라 하며 애호(艾虎)를 문에다가 걸었다고 하였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이 날 왕은 각신(閣臣)에게 애호(艾虎)를 하사하는데, 이것은 작은 짚줄기로 비단 조화(造花)를 동여 묶어 만든 것이다. 또 관상감(觀象監)에서는 주사(朱砂)로 천중절(天中節, 단오)의 붉은 부적을 박아 대궐 안으로 올리면 문미(門楣, 문 위에 가로 댄 나무)에 붙여 상서롭지 못한 것을 없앴고, 경사대부(卿士大夫)의 집에도 붙여놓았다. 그리고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옥추단(玉樞丹)을 만들어 금박(金箔)을 입혀 바치면, 오색실에 꿰어 차 재앙을 물리치고, 가까운 신하들에게도 나누어주었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애화[艾花, 艾虎]의 형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경도잡지(京都雜

志)』에도 애호와 내의원에서의 양재(禳災)를 위한 옥추단 진상에 따른 패용(佩用) 및 관상감에서의 주사(朱砂) 벽사문(辟邪文)의 문미 부착에 관한 풍속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 벽사(辟邪)라 하는 말은 자래(自來) 5월 5일을 마치 9월 9일과 같이 불길한 액일(厄日)로 알았기 때문에 그 액을 이방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

머리카락이 윤기나고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창포와 버드나무 잎을 함께 넣어 삶아 그 물에 머리를 감거나, 단오 전날 창포를 베어 이슬을 맞혀서 삶아 그 물에 머리를 감기도 한다. 그리고 창포뿌리를 깎아 글자를 새기고 연지를 칠하여 땋은 머리끝에 꽂으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한다. 『열양세시기』에서는 "단오에 남녀 아이들이 창포를 뜯어다 물에 끓여 목욕하고 뿌리의 흰 부분 네댓 치를 깨끗이 닦아 그 끝에 붉은 칠을 하여 머리에 꽂기도 하고 허리에 차기도 하는데, 이는 사귀를 물리치고자 함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부산 강서구와 기장군 청광리, 연화리에서는 여름에 버짐을 이방하기 위해 단오에 밤이슬 맞은 찔레꽃을 따서 먹거나, 찔레꽃잎을 넣고 잘게 떡을 빚어 나이 수대로 먹는다. 강서구에서는 단오에 버짐이나 기미를 막기 위해 상추잎에 맺힌 이슬로 낯을 씻고, 남구에서는 버짐이 난 아이가 보리잎을 뜯어 버짐 난 부위를 문지르면서 "진버짐 잡자, 마른버짐 잡자, 아무것이 오른 버짐 잡자."라고 외치고는 그 보리잎을 땅에 묻었는데, 그 잎이 썩으면 버짐이 없어진다고 한다. 또 이 날 아홉 고랑의 풀을 베어 삶아서 그 물을 먹거나 머리를 감으면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오뉴월의 배앓이와 더위 먹는 것을 이방하기 위해서는 벼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먹는데, 저녁 이슬은 사약과 같다 하여 먹지 않는다.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서는 더위 이방으로 미역국, 미나리나물을 먹고, 해운대구에서는 대추잎을 찧어 물에 타서 머리부터 덮어쓴다. 단오에는 부녀자들이 일할 때 발바닥에 가시 박히지 말라고 그네뛰기를 하기도 하며, 기장군 기룡리, 청광리, 고촌리에서는 집 안에 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에 모깃불을 놓고 새끼를 반 정도 그을려 막대기에 매어 집 안에 끌고 다니다가 담 밖으로 버린다. 기장군 철마면 백길리에서는 여름에 새삼이 나면 "새삼밭에 불났다. 새삼 밭에 불났다."라고 외치며 새삼을 뜯어 태운다.

또 망종날 풋보리 이삭을 뜯어와서 손으로 비벼 보리알을 모은 뒤 솥에 볶아서 맷돌에 갈아 채로 쳐 그 보릿가루를 끓여 먹으면 여름에 보리밥을 먹고 배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망종이 일찍 들면 그 해 보리가 좋고, 늦게 들면 보리가 좋지 않다고 하며, 또 이 날 우박이 내리면 시절이 좋다고 믿었다.

점복 단오 날씨로 그 해의 풍흉을 점치는데, 단오에 그네 줄에 물이 흐르면 그 해 농사는 흉년이 든다고 한다. 곧 단오에 날씨가 맑으면 풍년이 들고, 비가 오고 뇌성이 있으면 흉년이 든다. 부산 기장군 청광리에서는 비가 오면 그 해 팥농사가 안 된다고 하고, 해운대구에서는 단오에 샛바람이 불면 그 해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한다. 반면 부산 남구와 강서구 구랑동 압곡에서는 날씨가 궂거나 비가 오면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또 '망종보기'라 해서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듦에 따라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음력 4월에 망종이 들면 보리농사가 잘되어 빨리 거두어들일 수 있으나, 5월에 망종이 들면 그 해 보리농사가 늦어 망종 내에도 보리 수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경남 도서지역에서는 망종이 늦게 들어도 안 좋고 빠르게 들어도 안 좋으며 중간에 들어야 시절이 좋다고 한다. 특히 음력 4월 중순에 들어야 좋다고 하며, 또 망종이 일찍 들면 보리농사에 좋고, 늦게 들면 나쁘다는 말도 있다. 한편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주도에서는 망종날 천둥이 요란하게 치면 그 해 농사가 시원치 않고 불길하다고 생각한다.

5월 10일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太宗雨)'라 하는데, 태종우가 내리면 그 해 농사는 잘된다고 한다. 태종우란 조선왕조 셋째 왕인 태종이 가물 때 병으로 누워 비를 염원하다가 오월 초열흘날에 승하(昇遐)하자 곧 비가 온 데서 나온 말로, 이 날이 되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동국세시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월에 까마귀가 일찍 울면 그 해 시절이 좋지 않다고 여긴다. 제주에서는 까마귀가 바깥채 지붕 위에서 안채 지붕을 향해 울면 가정주부끼리 싸움이 나고, 까마귀가 "강굴탁탁 강굴탁탁" 울면 손님이 온다고 한다. 또 우는 곳이 팽나무의 높은 데면 어른

양반, 중간이면 중간, 밑이면 하인을 잡아간다고 믿었다. 고양이가 새끼 낳은 숫자를 보고 그 해의 장마를 점치기도 하는데, 고양이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장마가 많이 지고, 적게 낳으면 장마가 덜 진다고 여긴다. 또한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새끼를 낳으면 그 해에는 큰물이 난다고 한다. 고양이는 천기(天氣)를 미리 알아서 큰물이 들면 낮은 곳에 있는 새끼가 위험하므로 높은 곳에 새끼를 낳는다고 예견하는 것이다. 5월에는 달점[月占]을 보는데, 달이 희고 아래로 내리뜨면 마을에 물이 많고, 반대로 올려 뜨면 시절이 좋다고 여긴다.

금기 부산 강서구에서는 오월에 대나무를 베면 이듬해 대나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강서구 천가동에서는 오월에 장을 담그면 장에 머리카락 같은 곰팡이가 피어 장맛이 없어져 못쓴다고 한다. 기장군 연화리에서는 5월 손 있는 날 장을 담그면 장맛이 없다고 하여 손 없는 날을 택해 장을 담근다. 5월이 되면 제비와 비슷하게 생긴 '맹맹이'라는 날짐승이 처마에 집을 짓는다. 이 짐승이 집을 지으면 그 집이 망한다고 하여 못 짓게 한다. 단옷날은 만물의 모든 기운이 치솟아오르는 혈기왕성한 때이므로 부부관계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 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해롭다 하여 내다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모내기를 할 때는 벼가 부정타지 않고 잘 자라라고 개구리나 뱀이 보여도 잡지 않는다. 들에서 밥을 먹어도 처음 뜨는 밥과 국, 술을 논두렁에 먼저 갖다놓은 다음 다른 일꾼들 밥을 퍼주며, 논두렁의 밥은 주인이 먹는다. 지금도 모내기가 시작되어 첫모를 내는 날 어김없이 하는 일이다.

현대세시풍속 양력 5월의 기념일로는 성년의 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등이 있다. 이 달에 행해지는 현대세시로는 로즈데이(Rose Day)와 옐로우데이(Yellow Day) 등이 있으며, 지방축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낙안읍성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춘향제 등이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三國志, 樂學軌範, 洌陽歲時記, 慵齋叢話,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조선족민속(정길운, 연변인민출판사, 1982),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강릉 단오굿(김선풍 외, 悅話堂, 1987), 조선의 민속(선희창, 사회과학출판사, 1991), 민속명절과 풍속(선희창, 금성청년출판사, 1992),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경기민속지Ⅲ -세시풍속·놀이·예술 편-(경기도박물관, 2000),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세시풍속(김이숙, 고양민속대관, 고양시·고양문화원, 2002), 서울·세시·한시(洪錫謨 編著·秦京煥 譯註, 보고사, 2003), 조선대세시기Ⅰ(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Ⅰ-1970년대~1980년대 조사자료-(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김선풍(金善豊)

고월(皐月)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이아(爾雅)』「석천(釋天) 월명(月名)」편에 "1월은 추(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寎),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차(且),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10월은 양(陽), 11월은 고(辜), 12월은 도(涂)이다(正月爲陬 二月爲如 三月爲寎 四月爲余 五月爲皐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 하였다. 그 소(疏)에 "고(皐)는 『이아(爾雅)』「석문(釋文)」편에 고(高)라고도 하였으니 고(高)는 올라가는 것으로, 5월은 음(陰)이 생겨나 아래에서 올라가려고 한다(皐者釋文或作高 同 高者上也 五月陰生 欲自下而上也)."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爾雅.

필자 | 양진조(梁鎭潮)

구월(姤月)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구(姤)는 『주역(周易)』의 64괘(卦) 중 12괘를 뽑아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을 때 구괘(姤卦, ䷫)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이다. 구괘는 상괘(上卦)가 건괘(建卦, ☰)이고, 하괘(下卦)가 풍괘(風卦, ☴)로 이루어진 괘이다. 동짓달부터 양기(陽氣)가 처음 생겨난다고 하여 양효(陽爻)가 아래에서 처음 생겨나는 복괘(復卦)를 음력 11월에 배속시켰으므로, 구괘는 음력 5월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周易.

필자 | 양진조(梁鎭潮)

매우(梅雨)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매우(梅雨)는 매실이 누렇게 익어가는 절기에 내리는 비라는 뜻으로, 매자우(梅子雨), 매림(梅林)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한(漢)나라 응소(應劭)의 『풍속통(風俗通)』에 "5월에 매실을 떨구는 바람이 불어오면 강(江), 회(淮) 지역의 사람들은 신풍(信風)이라고 한다. 이때 내리는 장맛비를 매우(梅雨)라고 하는데, 이 비에 의복을 적시면 모두 손상되고 색이 바랜다(五月有落梅風 江淮以爲信風 又有霖霪 號爲梅雨 沾衣服皆敗黦)."라고 하였다. 중국 명(明)나라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수일(水一) 우수(雨水)」에 "매우(梅雨)를 매우(霉雨)라고도 하는데, 의복이나 물건이 이 비에 젖으면 검게 곰팡이가 생김을 이른 말이다. 망종(芒種)이 지난 뒤 임일(壬日)이 되면 매실을 들이고, 소서(小暑)가 지난 뒤 임일(壬日)이 되면 매실을 내간다. 또 3월에는 매우(梅雨)를 맞이하고 5월에는 매우(梅雨)를 보낸다(梅雨或作霉雨 言其沾衣及物 皆生黑霉也 芒種後逢壬爲入梅 小暑後逢壬爲出梅 又以三月爲迎梅雨 五月爲送梅雨)."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本草綱目, 風俗通.
필자 | 양진조(梁鎭潮)

매월(梅月)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매실이 익는 달이라는 뜻으로, 매천(梅天), 매하(梅夏)라고도 한다.



매실
경남 하동군 무경

내용 매화는 새해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이므로 꽃이 필 무렵은 봄이 시작됨을 뜻하지만, 열매는 음력 5월에 익는다. 매실은 껍질이 연한 녹색이고 과육이 단단하며 신맛이 강한 청매, 향이 좋고 빛깔이 노란 황매, 청매를 쪄서 말린 금매, 청매를 소금물에 절여 햇볕에 말린 백매, 청매의 껍질을 벗겨 연기에 그을려 검게 만든 오매가 있다. 매화는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운다 하여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절의를 나타내는 사군자(四君子)에 속하며, 빙기옥골(氷肌玉骨)이라 하여 천진하고 순결한 처녀에 비유하기도 하고, 많은 씨를 퍼뜨린다 하여 다산(多産)을 상징하기도 한다.

음력 5월은 매화와 관련이 깊은 달이기 때문에 매월이라 부른다. 중국 전촉(前蜀) 관휴(貫休)의 '기왕척(寄王滌)' 시에, "매월(梅月)이 되니 거의 대문을 열어두고 입은 옷이 젖어서 방울지려 하는구나(梅月多開戶 衣裳潤欲滴)."라는 구절이 있다. 또한 중국 남당(南唐) 이정규(李廷珪)의 '장묵결(藏墨訣)' 시에 "더위를 피하려고 갈낭(葛囊)을 걸어두고 바람을 대하면서 매월(梅月)을 보내네(避暑懸葛囊 臨風度梅月)."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全唐詩.
필자 | 양진조(梁鎭潮)

매천(梅天)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매실이 익을 무렵의 비오는 하늘이라는 뜻으로, 매하(梅夏), 매우(梅雨)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당나라 두상(竇常)의 '북고만조(北固晩眺)' 시에 "수국(水國)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니 매천(梅天)에 비바람 시원하네(水國芒種後 梅天風雨凉)."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중국 명(明)나라 고계(高啓)의 '돈리(頓里)' 시에 보면 "곡우(穀雨)에는 차를 거두기 너무 이르고 매천(梅天)에는 약 말리기 분주하네(穀雨收茶早 梅天晒藥忙)."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全唐詩.
필자 | 양진조(梁鎭潮)

매하(梅夏)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매실이 익을 무렵의 여름이라는 뜻으로 매우(梅雨), 매천(梅天)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에서는 5월이 아닌 4월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중국 당(唐)나라 현종(玄宗)의 '단오삼전연군신탐득신자(端午三殿宴君臣探得神字)' 시의 서문에, "맥추(麥秋)가 익어감을 기뻐하고 매하(梅夏)가 무사함을 즐기네(喜麥秋之有登 玩梅夏之無事)."라고 하였다. 중국 송(宋)나라 소식(蘇軾)의 '원우이년단오첩자사황태비각(元祐二年端午貼子詞皇太妃閣)' 시 제2편에 "가는 비 내려 매하(梅夏)가 한창인데 바람이 높아 맥추(麥秋)가 깊어가네(細雨方梅夏風高已麥秋)."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東坡全集.
필자 | 양진조(梁鎭潮)

명조(鳴蜩)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시경(詩經)』「국풍(國風)」'빈풍(豳風) 칠월(七月)'에 보면, "4월에 아기 풀이 패거든 5월에 말매미가 울며(四月秀**葽** 五月鳴**蜩**)"라는 구절이 있다. 이로 인하여 5월을 명조(鳴**蜩**)라고 부르게 되었다. 명조는 몸 색깔이 검고 몸길이는 한 치 정도인 매미의 일종이다. 속범형(續范亨)의 '해우유석옥연하개상만각롱초계(偕友游石屋烟霞開賞滿覺籠初桂)' 시에 "호수가 넓으니 백로(白鷺)가 춤추고 숲이 고요하니 명조(鳴**蜩**)가 은은하네(湖平舞白鷺 樹靜隱鳴**蜩**)."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詩經.
필자 | 양진조(梁鎭潮)



빈풍칠월도 4면(이방운)
국립중앙박물관

순화(鶉火)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순(**鶉**)은 별자리 이름으로, 음력 5월 남쪽 밤하늘에 나타난다. 하늘의 12성수(星宿)에 해와 달이 모이는 것을 12차(次)라고 한다. 『석문(釋文)』에 12차를 12진(辰)에 배속하여 오월(午月)에는 해와 달이 순화(**鶉**火)에 모인다고 하였다. 오월(午月)은 곧 5월을 의미하므로 순화가 5월의 이칭이 된 것이다.

참고문헌 | 釋文, 五洲衍文長箋散稿.
필자 | 양진조(梁鎭潮)

오월(午月)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오(午)는 십이지(十二支) 중 일곱 번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력의 역월(曆月)은 중국 하(夏)나라에서 인월(寅月)을 세수(歲首: 1월)로 삼았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월(午月)의 오(午)는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의 순서에 따라 1월, 2월, 3월, 4월, 5월에 해당한다.

필자 | 김정석(金正錫)

유빈(蕤賓)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동양 음악의 십이율(律) 중에서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내용 고대 중국에서는 12율을 각각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첫 음인 황종(黃鐘)을 양(陽)의 기운

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에 배속시켰기 때문에 유빈(蕤賓)은 음력 5월에 해당한다. 중국 한(漢)나라 반고(班固)의 『백호통의(白虎通義)』「오행(五行)」편에 "5월을 유빈(蕤賓)이라고 하니 유(蕤)는 아래라는 뜻이고, 빈(賓)은 공경한다는 뜻이다. 이는 양(陽)의 기운이 위로 다하여 음(陰)의 기운이 비로소 나타나므로 그를 공경한다(五月謂之蕤賓 蕤者下也 賓者敬也 言陽氣上極 陰氣始賓 敬之也)."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白虎通義.
필자 | 홍성훈(洪性薰)

유열(榴烈)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석류꽃이 피는 무더운 달로 유하(榴夏), 유화월(榴花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석류꽃은 음력 5월에 붉은색으로 피며 가지 끝에 1~5개씩 달린다. 열매는 둥글고 지름이 6~8센티미터이며, 끝에 꽃받침 조각이 붙어 있고, 9~10월에 갈색이 도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으로 익는다. 한방에서 열매 껍질을 석류피(石榴皮)라는 약재로 쓰는데 설사, 이질에 효과가 있고 구충제로도 쓰인다. 중국 명(明)나라 정우문(程羽文)의 『화력(花曆)』에 "오월에는 유화(榴花)가 눈에 비친다(五月榴花照眼)."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花曆.
필자 | 양진조(梁鎭潮)



석류꽃
충남 천안시 심디스마

유화(榴花)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석류꽃이 피는 유화월(榴花月)의 줄임말이다.
내용 중국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한창여집(韓昌黎集)』 '유화(榴花)' 시에, "5월의 유화가 눈에 비쳐 밝고, 가지 끝에는 열매가 익어가네(五月榴花照眼明 枝間時見子初成)."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韓昌黎集.
필자 | 양진조(梁鎭潮)

조염(早炎)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염(炎)은 불꽃이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내용 『설문(說文)』「염부(炎部)」편에 "염은 불꽃이 올라간다(炎火光上也)."라는 구절이 있으며, 중국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시 '남산(南山)'에 "한여름 불꽃 더위에 모든 초목 무성하고, 음울한 기운 점점 쌓여가네(夏炎百木盛 陰鬱增埋覆)."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說文.
필자 | 양진조(梁鎭潮)

주양(朱陽)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삼국지(三國志)』「촉지(蜀志)」 극정전(郤正傳)에 "여름은 가을 기운에 막히게 되고 겨울은 봄 기운에 눌리게 된다(朱陽否於素秋 玄陰抑於孟春)."라는 구절이 있다. 오행에서 5색(色)은 각각 방위와 계절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청(靑)은 동쪽과 봄, 홍(紅)은 남쪽과 여름, 백(白)은 서쪽과 가을, 흑(黑)은 북쪽과 겨울, 황(黃)은 중앙으로 4방위를 총괄한다.

참고문헌 | 三國志.
필자 | 양진조(梁鎭潮)

주하(朱夏)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여름이 되어 번창

한다는 의미로 주명(朱明)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위(魏)나라 조식(曹植)의 「괴부(槐賦)」에 "늦은 봄에 비로소 무성해져서 여름이 되어 번창해졌네(在季春以初茂 踐朱夏而乃繁)."라는 구절이 있다. 중국 청(淸)나라 당손화(唐孫華)의 '하일원거잡영(夏日園居雜詠)' 시에 "삼년간의 객지생활에서 주하(朱夏)를 만나니 한 달 뒤 하늘가에 소추(素秋)를 기다리네(三年客裏逢朱夏 一月天邊盼素秋)."라고 하였다.

필자 | 양진조(梁鎭潮)

중하(仲夏)

정의 여름의 한창때, 곧 한여름을 가리키는 의미로 음력 5월을 달리 이르는 말. 여름의 중간 달이기 때문에 중하(中夏)라고도 한다.

내용 『예기(禮記)』「월령(月令)」에서는 "중하의 달에 해는 동정(東井)에 있고, 저녁에는 항성(亢星)이 남중하고 새벽에는 위성(危星)이 남중한다. …… 소서(小暑)가 이르고 버마재비[農蜩]가 생겨나며 때까치가 울기 시작하고 반설(反舌, 때까치의 일종)의 소리가 사라진다(仲夏之月 日在東井 昏亢中 旦危中. …… 小暑至 螳螂生 鵙始鳴 反舌無聲. ……)."하였다. 또 『서경(書經)』「요전(堯典)」에서는 "해가 길어지고 대화성(大火星)이 나오면 이로써 중하를 정하라. 그리하면 백성은 더욱 흩어져 농사를 지을 것이고, 짐승은 털을 갈 것이다(日永星火 以正仲夏 厥民因 鳥獸褫)." 하였다. 이밖에도 『회남자(淮南子)』의 「시칙훈(時則訓)」, 『여씨춘추(呂氏春秋)』의 「십이기(十二紀)」와 「맹하기(孟夏紀)」에도 「월령」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조선시대 문집인 『다산집(茶山集)』과 『하서선생전집(河西先生全集)』에서는 5월을 가리켜 가운데 중(中)자를 써서 '중하(中夏)'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茶山集, 書經, 呂氏春秋, 禮記, 河西先生全集, 淮南子.
필자 | 신하령(申河令)

포월(蒲月)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창포(菖蒲) 끓인 물로 머리를 감던 단오절(端午節)이 있는 달이란 뜻이다.



창포물 최호식

내용 5월은 장맛비가 오는 계절로 나쁜 병이 유행하기 쉽고, 여러 가지 액을 제거해야 할 달로 여겨, 그 이방으로 여러 가지 풍습이 생겨났다. 또한 중국의 옛 풍속에는 창포로 검(劍)을 만들어 매달아 액을 물리쳤던 데에서 '포월'이라 하였다.

필자 | 양진조(梁鎭潮)

하오(夏五)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하(夏)는 여름이라는 뜻이고 오(五)는 5월을 뜻한다.

내용 조선시대 문인 서거정(徐居正)의 『사가집(四佳集)』 '중오전이일(重午前二日)' 시에 "여름 5월에 춘추(春秋)를 쓰다보니 다시 한 해가 지나 천중절이 되었네(夏五書麟史 天中又一年)."라고 하였고, 박상(朴祥)의 『눌재집(訥齋集)』 '단오일우제(端午日偶題)' 시에 "객지에서 창포주를 잔에 가득 채우고 여름 5월에 흔쾌히 아름다운 절기를 맞이하네(菖陽滿酌客中杯 夏五忻迎令節來)."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訥齋集, 四佳集.
필자 | 홍성훈(洪性薰)

훈풍(薰風)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음력 5월에 부는 훈훈한 바람이라는 뜻으로, 화풍(和風)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한(漢)나라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오제기(五帝記)」에 "남방의 훈훈한 바람이여 우리 백성의 노여움을 풀어주리라(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史記.
필자 | 양진조(梁鎭潮)





正日

정일

단오에는 창포를 넣어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액을 물리치기 위해
궁궁이를 머리에 꽂는다.
궁궁이는 독특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에 꽂으면
액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겼다.
또 창포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거기에 벽사의 색인 연지나 주사를 바르거나
수복(壽福) 글자를 새겨 머리에 꽂거나
패용(佩用)하였다.
특히 비녀에 칠한 연지나 주사의 붉은색은
양색(陽色)으로서
벽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 동안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단옷날 창포비녀를 꽂는 풍속이 생겼다.

작은단오[小重午]

정의 단오(端午) 하루 전인 음력 5월 4일을 가리킴.
내용 소(小)는 '거의 이르렀다'는 뜻이고, 중오(重午)는 단오의 다른 말이므로 작은단오는 단오 하루 전날을 의미한다. 음력 보름 전날인 14일을 작은보름[小望]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단오에 차례(茶禮)를 지내기 위하여 하루 전날부터 음식을 만드는데, 무더운 계절이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음식이 상해서 쓸 수 없으므로, 4일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만든다. 그래서 작은단오에는 밤까지 바쁘다. 또 마을에 따라 청년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짚을 거출하여 그네를 만들어 매기도 한다.

충북에서는 이 날 약쑥을 뜯어 밤이슬을 맞게 한 다음 엮어 말려서, 산모의 약이나 여러 병의 상처에 두루 썼으며, 경북에서는 이 날 약쑥을 베어놓고 단옷날 뛸 그네를 매었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 홍성훈(洪性薰)


약쑥 말리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단오(端午)

정의 음력 5월 5일을 명절로 이르는 말. 단오의 단(端)은 첫 번째를 의미하고, 오(午)는 오(五), 곧 다섯과 뜻이 통하므로 단오는 초닷새를 말한다. 원래 음양철학에서는 기수(奇數)를 양(陽)으로 치고 우수(偶數)를 음(陰)으로 치는데, 기수가 겹쳐 생기(生氣)가 배가(倍加)되는 3월 3일이나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중에서도 단오는 일년 중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하여 큰 명절로 여겨왔다.
이칭 단옷날을 수릿날이라고도 하는데 수리란 신(神)이라는 뜻과 '높다'는 뜻으로 이것을 합치면 '높은 신이 오시는 날[지고(至高)한 신이 하강(下降)하는 날]'이란 뜻이 된다. 단오를 가리켜 중오절(重五節), 천중절(天中節),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단옷날 산에서 자라는 수리취[戊衣翠]라는 나물을 뜯어 떡을 해먹기도 하고 쑥으로 떡을 해서 먹는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둥글기 때문에 수릿날이라는 명절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수뢰(水瀨)에 밥을 던져 굴원을 제사지내는 풍속이 있으므로 수릿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유래 단오는 형초(荊楚)의 풍속으로 전해져 온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초나라에 굴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평(平)이요, 호는 영균(靈均)이었다. 그는 충직 고결하고 문장이 또한 절록(節錄)하여 초나라 회왕(懷王)이 특별히 사랑하였으며, 벼슬이 삼려대부(三閭大夫)에 이르렀다. 간신의 무리가 그를 시기 질투하여 왕께 참소하니 왕이 그를 소원하게 대우하였으나, 그는 유명한 '이소경(離騷經)'이란 글을 지어 왕이 감동하고 깨닫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회왕이 죽고 양왕(襄王)이 새로 임금이 되자 간신의 무리가 더욱 참소하여 끝내 그를 장사 땅으로 귀양보냈다. 그는 비분강개하여 '어부사(漁父詞)' 등 여러 편의 글을 지어 그 심회를 풀고 5월 5일 멱라수(覓羅水)에 빠져서 자살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해마다 그 날이면 죽통에 쌀을 넣어서 물속에 던져 제사를 지내고, 또 그의 혼을 건진다 하여 경쟁적으로 배 건너기를 하였다.

이것이 중국 남방 풍속의 하나인 경도희(競渡戱)가 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한(漢)나라 건무(建武) 연간에 어떤 사람이 대낮에 장사(壯士) 구회(歐回)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옛적 삼려대부인데 그대가 나를 위하여 제사지내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나, 그 제물을 항상 문룡(蚊龍)이 빼앗아 먹어서 얻어먹지를 못하니 만일 제를 지내주려거든 오동나무[楝樹] 잎으로 제물을 싸고 오색 당사실로 매어서 주었으면 좋겠다. 이 두 물건은 모두 문룡이 꺼리는 것이다." 하고 간 곳이 없으므로 구회가 이상히 여겨 그대로 하였다. 그 후 사람들이 그것을 풍속으로 삼아 단옷날에 주사떡을 만들 때 오색 고명을 넣고 쑥이나 수리취를 넣어서 떡을 만들게 되었다 한다.

내용 단옷날은 계절적으로 태양축제에 속한다. 7세기 문헌인 『수서(隋書)』에 신라 사람들을 가리켜 일월신(日月神)을 경배하는 민족이라 하였는데, 정월대보름 축제가 달의 축제였다면 단오 축제는 태양의 축제라 할 수 있다.

단오는 한국 민족만이 아니라 고래(古來)로 북방민족들도 연중 최대 명절로 삼고, 금(金)나라 때는 이 날 배천(拜天), 사류(射柳), 격구(擊毬) 등을 행했다. 신라와 가야시대 이래로 숭상된 단오는 고려시대에는 북방민족의 영향인지 그네, 격구 내지는 석전(石戰) 놀이를 하는 무용적(武勇的) 속절(俗節)로 성립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정조(正朝), 동지(冬至)와 아울러 3절일(節日)이 되었으며, 민간에서도 그네와 씨름이 성행하였다.

유만공의 『세시풍요(歲時風謠)』 5월 5일에 보면 다음과 같은 시가 나온다. "단오 옷은 젊은 낭자(娘子)에게 꼭 맞으니(戊衣端稱少娘年), 가는 모시베로 만든 홑치마에 잇빛이 선명하다(細苧單裳茜色鮮). 꽃다운 나무 아래서 그네를 다 파하고(送罷秋天芳樹下), 창포뿌리 비녀가 떨어지니 작은 머리털이 비녀에 두루 있다(菖根簪墮小髮偏). 단오옷을 술의(戌衣)라고 한다(端午衣曰戌衣)." 한국인은 대략 일년에 세 번 신성 의상인 빔(비음)을 입는다. 설빔, 단오빔, 추석빔이 바로 그것이다. 단오빔을 술의(戌衣)라고 해석한 유만공의 할주(割註)에 따르면 술의란 신의(神衣), 곧 태양신을 상징한 신성 의상임을 알 수 있다.

수릿날은 태양의 기(氣)가 극(極)에 달하는 날이다. 단옷날 쑥을 뜯어도 오시(午時)에 뜯어야 약효가 제일 좋다. 다시 말해, 인간이 태양신[日神]을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는 날이 수릿날인 것이다.

의례 예부터 단오에는 많은 의례가 행해졌다. 궁중에서는 신하들이 단오첩을 궁중에 올리고, 공조와 지방에서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면 임금이 이것을 신하들에게 나누어준다. 단오를 맞아 새로 수확한 앵두를 천신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단오절사(端午節祀)를 지낸다. 또한 집안의 평안과 오곡의 풍년, 그리고 자손의 번창을 비는 단오고사(端午告祀)를 지내기도 한다.

내각(內閣), 옥당(玉堂), 한원(翰院)의 여러 신하들이 단오첩을 올리면 대궐 각 전(殿)의 기둥에 붙인다. 또한 공조(工曹)에서 부채를 만들어 올리면 임금은 이 날 재상과 시종하는 신하에게 나눠주었다. 호남과 영남 양도(兩道)의 방백과 병영, 수영, 통제영에서 단오 때 부채를 지어 나라에 진상하고 으레 조관과 친한 사람에게 차등 있게 보낸다. 시골에서 생색나는 것은 여름 부채, 겨울 책력이라고 했다.

부채 중에 전주와 나주에서 만든 것을 최상품으로 쳤다. 흰 살로 이루어진 부채를 백첩(白貼)이라 하고, 살에 옻칠한 것을 칠첩(漆貼)이라 하는데, 40~50살의 큰 부채이다. 부채의 종류는 승두선(僧頭扇), 어두선(魚頭扇), 합죽선(合竹扇), 반죽선(斑竹扇), 외각선(外角扇), 내각선(內角扇), 살 넓은 것, 좁은 것, 고리 있는 것, 고리 없는 것이 있고, 그 빛은 자주, 유록, 분홍, 아청, 흰 것, 검은 것, 누런 칠, 검은 칠, 구름 빛, 돌비늘 빛이 있었다.

『예기(禮記)』에 보면 중하(中夏)에 함도(含桃)를 제수로 삼아 사당에 천신한다고 하였는데, 함도는 곧 앵두이다. 매양 단오 때 앵두가 익으므로 제철 과일이라 하여 사당에 천신하는 것이다. 또 궁중에서는 근시(近侍)하는 신하에게 앵두를 반사(頒賜)하는 일이 있었다. 서울의 남녀가 앵두 익을 때면 송동과 성북동에 가서 노는데, 이를 앵두회라 한다.

단오에는 마을마다 수호신에게 공동체 제의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군현 단위의 큰 단오제가 지역마다 행해졌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릉단오제이다. 강릉단오제는 대관령 서낭을 제사하며, 본격적인 제의는 음력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동국세시기』에는 영남 군위 옛 풍속에 신라 김유신 장군의 사당이 있는데 속설에 삼장군당(三將軍堂)이라 한다. 해마다 단옷날 고을 아전이 고을 사람을 거느리고 역마를 타고 기를 들고 북을 울리며 신을 맞아서 촌항(村巷)으로 다니며 놀았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 장군당을 복원하여 효령사(孝靈祠)라 하고, 단옷날 제사를 지내고 있다.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서 매년 단오에 문호장(文戶長)을 모신다.

함남 안변에는 상음신사(霜陰神祠)가 있었는데, 그 신은 선위대왕의 부인이라 하며 단옷날 선위대왕도 맞아들여 제사를 지냈다. 또 강원도 삼척의 옛 풍속에는 작은 함에 오금으로 만든 비녀를 담아서 관아 동쪽 나무 밑에 감췄다가 매양 단옷날이면 아전이 꺼내서 제를 지내고 이튿날 도로 감춰 두었다. 속담에 전하기를, 오금잠(烏金簪)은 고려 태조 때의 물건이라 한다. 현재는 이들 제의가 행해지지 않는다.

속신 단오에는 창포를 넣어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액을 물리치기 위해 궁궁이를 머리에 꽂는다. 궁궁이는 독특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에 꽂으면 액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겼다. 또 창포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거기에 벽사(**辟**邪)의 색인 연지나 주사를 바르거나 수복(壽福) 글자를 새겨 머리에 꽂거나 패용(佩用)하였다. 특히 비녀에 칠한 연지나 주사의 붉은색은 양색(陽色)으로서 벽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 동안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단옷날 창포비녀[菖蒲簪]를 꽂는 풍속이 생겼다. 이렇게 창포탕에 머리와 얼굴을 씻고 새 옷을 입고 창포비녀로 치장하는 것을 단오장(端午粧)이라 한다.

단오는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이 날 부적을 쓰면 잡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집안의 제액도 모두 소멸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단오부(端午符), 천중부적(天中符籍), 치우부적(蚩尤符籍)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내의원에서 옥추단을 지어 금박을 올려서 드리면 오색실에 꿰어 차서 재앙을 물리치고, 근시하는 신하에게 나눠주었다. 5월 5일에 실을 다섯씩 팔에 매는 것은 귀신과 병화를 물리치기 위해서이다. 이름을 장명루(長命縷), 속명루, 벽병증이라 부른다. 옥추단을 차는 것도 여기서 유래한 풍속이다.

조선시대에 임금은 신하들에게 애호(艾虎)를 하사하기도 했는데, 쑥이나 짚으로 호랑이 모양을 만들어서 비단조각으로 꽃을 묶어 갈대이삭처럼 나풀거리게 하고, 쑥잎을 붙여 머리에 꽂도록 한 것이다.

단옷날은 쑥을 비롯하여 익모초 같은 약초를 뜯어 말린다. 농가에서는 약쑥을 한 다발 대문 옆에 세워놓아 재액을 물리치려 하였고, 말린 약쑥은 아플 때 뜸을 뜨거나 먹기도 하였다. 예전에는 수리취를 말려서 부싯깃으로 이용했다. 중국 문헌 『하소정(夏小正)』에는 단오에 모든 약을 캐어서 독기를 제거한다 하고,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5월 5일에 쑥을 캐서 사람을 만들어 문 위에 달아 재앙을 물리치고 익모초를 말려 약에 쓴다 하였다.

농사의 기풍을 위해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놓아 많은 열매가 열리기를 비는데, 특히 단오 무렵에는 대추가 막 열리기 시작하므로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라고도 한다. 그리고 단오에 도장을 만들어 두면 신수가 좋다고 하여 모과나무나 대추나무를 재료로 도장을 만든다.

절식 단오 명절식으로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채가 있다. 수리취는 모양이 보통의 취나물과 같이 장원형이나, 이면이 백색을 띠고 마른 잎은 불이 잘 붙고 지구력이 있다. 또 생것은 두드려서 쑥떡에 쑥을 넣는 것과 같이 멥쌀가루와 섞어 떡을 만든다. 이 떡을 수리취떡, 쑥떡이라고 한다. 술의라는 말은 우리말에 거(車)라는 뜻인데, 그 떡의 형상이 거륜(車輪)과 같다 하여 떡 이름도 수리(술의)떡이라고 하고 그 떡에 넣는 취도 수리취라 하며, 단오일을 또한 술의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앵두는 여러 과실 중에 가장 먼저 익으며, 단오절이 한창 제철이어서 궁중에 진상하고 종묘와 사당에 천신하며, 편(떡)과 화채를 만들어 먹는다. 앵두편은 앵두를 살짝 쪄서 굵은 체에 걸러 살만 발라서 설탕을 넣고 졸이다가 녹말을 넣어 굳힌 것으로 생률과 함께 담아낸다. 앵두화채는 앵두를 따서 깨끗이 씻고 씨를 빼서 설탕이나 꿀에 재워 두었다가, 먹을 때 오미자 국물에 넣고 실백을 띄워 낸다. 단옷날 민가에서 즐겨 만들어 먹던 청량음료이다.

조선시대에는 단옷날 내의원(內醫院)에서 제호탕(醍**醐**湯)을 만들어 진상했고, 임금은 이것을 대신들이나 기로소(耆老所)에 하사했다. 제호탕은 더위를

















1 군위삼징군제
경북 군위군 효령면 경림민속마을회
2 그네뛰기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변 김종달
3 단오부채
강원도 강릉시 전교장 김종달
4 창포물에 머리감기
강원도 강릉시 전교장 황현만
5 수리취떡 쌀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6 수리취떡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7 씨름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변 김종달
8 강릉관노가면극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변 김종달

이기고 갈증을 해소하며 보신하기 위해 마시는 전통청량음료이다. 오매육(烏梅肉), 사인(砂仁), 초과(草果), 백단향(白壇香)을 가루로 내어 꿀에 재워 중탕으로 달여서 응고상태로 두었다가 냉수에 타서 마시는데, 주로 단오절에 많이 마신다.

그리고 단오에는 창포로 빚은 창포주(菖蒲酒)를 마시기도 하며, 각서(角黍)라고 하는 고기와 나물을 소로 넣고 밀가루로 만든 둥근 떡을 먹는다. 궁궐에서는 쇠고기 대신 민어 같은 흰살 생선의 살을 다져 양념하여 완자를 빚어 넣고 끓인 어알탕을 절식으로 먹기도 했다.

놀이 단오는 봄철의 큰 명절인 만큼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즐겼다. 마을에서는 단오 전에 청년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짚을 추렴하여 그네를 만들었다. 단오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고운 옷을 입고 그네를 뛰었다. 장정들은 넓은 마당에서 씨름을 하여 승부를 낸다. 그 법은 두 사람이 마주 꿇어앉아서 각기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쪽 다리를 당겨 일시에 일어서서 서로 들어 던져 거꾸러지는 자가 지는 것이다. 그 중에 힘이 세고 손이 빨라 거듭 이긴 자를 판매기라 한다. 중국 사람이 이를 고려기(高麗伎)라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맨손으로 승부를 가리는 수박(手搏)을 놀이화한 수박희도 하였다.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편을 나누어 돌을 던지며 싸우는 석전(石戰)을 단오에 벌이기도 했다.

단옷날 강릉에서는 단오제를 지내기도 하고 또 각 지역마다 봉산탈춤, 송파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같은 탈춤과 가면극들이 장터에서 연희되어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경북 경산시 자인에서는 단오에 한장군(韓將軍)에게 제사를 지내고 여원무(女圓舞)를 추며 노는 한장군놀이가 전승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歲時風謠, 韓國歲時風俗(任東權, 瑞文堂, 1973),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필자 | 김선풍(金善豊)

단양(端陽)

정의 단오(端午)를 달리 부르는 말. 단(端)은 처음을 뜻하고 양(陽)은 중국의 음양(陰陽)철학에서 기수(奇數)인 5를 뜻하므로 단오를 가리켜 단양이라 하였다.

내용 『월령광의(月令廣義)』에 보면 "5월 5일을 단양(端陽)이라고 한다(五月五日曰端陽)."라고 하였다.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단양(端陽)」에 "경사(京師)에서는 단양(端陽)을 오월절(五月節)이라고 한다. 오월 초닷새를 오월 단오(五月單午)라고 하는 것은 대개 단(端)자의 음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다. 매년 단오 이전에 관청과 지위가 높은 사람의 집에서는 모두 종자(粽子)를 서로 선물하고, 앵도(櫻桃), 오디, 발제(荸薺), 복숭아, 살구, 오독병(五毒餠), 매괴병(玫瑰餠)을 곁들여 주기도 한다. 불공을 드리거나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사람도 그대로 종자(粽子)와 앵도, 오디를 정공(正供)으로 올리는데, 이 또한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올리는 뜻이다(京師謂端陽爲五月節 初五日爲五月單午 蓋端字之轉音也 每届端陽以前 府第朱門皆以粽子相餽貽 並副以櫻桃桑椹荸薺桃杏及五毒餠玫瑰餠等物 其供佛祀先者 仍以粽子及櫻桃 桑椹爲正供 亦薦其時食之意)."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燕京歲時記, 月令廣義.
필자 | 양진조(梁鎭潮)

단양수리(端陽-)

정의 전라남도에서 단오를 일컫는 다른 말.

내용 음력 5월 5일을 수리, 단양(端陽), 단오(端午), 중오(重五), 천중절(天中節), 천중가절(天中佳節)이라고도 부르는데, '단양수리'라는 말은 우리말 고어(古語)인 수리와 한자로 된 단양을 겹쳐 쓴 용어이다. 단오와 단양의 단(端)은 처음, 곧 첫 번째를 뜻하고, 오(午)는 오(五), 곧 다섯을 뜻하므로 단오는 초닷새라는 뜻이 된다. 오월 초닷새는 중오(重五), 곧 양(陽)의 수 5가 중복되어 일년 중에서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는 뜻이다. 단양 또한 첫 번째 드는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는 의미이니 중오와 같은 뜻이 된다.

참고문헌 |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선풍(金善豊)

며느리날

정의 경상북도에서 단오(端午)를 일컫는 다른 말.
내용 단오 전날을 '작은단오'라 부르는데, 작은 단오에는 약쑥을 베어놓고 다음날 떨 그네를 맨다. 단옷날만큼은 며느리가 하루 종일 그네를 뛰며 놀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단옷날을 '며느리날'이라고도 부른다. 단오에 친정에서 온 딸과 며느리가 팀을 이뤄 그네뛰기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또 단옷날 아침 단오제(端午祭)를 지내는데, 밥 한 그릇을 해서 조상 수대로 숟가락을 꽂아둔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단옷날을 '과부 시집가는 날' 또는 '돌베개 잠자는 날'이라고도 하는데, 이 또한 며느리날과 유사한 의미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릉 단오굿(김선풍 외, 悅話堂, 1987),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선풍(金善豊)

미나리 환갑날

정의 경기도 동두천에서 단오(端午)를 일컫는 다른 말.
내용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단옷날 생선을 먹어야 한다고 하여, 이 날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먹는 풍속이 있다. 또 단오 무렵이면 미나리가 억세지기 때문에 이 날을 '미나리 환갑날'이라 하여, 마지막으로 미나리를 넣은 조깃국을 끓여먹는 풍속이 있다.

참고문헌 | 경기민속지 III - 세시풍속 · 놀이 · 예술편-(경기도박물관, 2000).
필자 | 김선풍(金善豊)







1 소코뚜레
2 소코뚜레 집게
국립민속박물관

소 군둘레 끼우는 날

정의 강원도 삼척에서 단오(端午)를 일컫는 다른 말. 표준어로는 '소 코뚜레 끼우는 날'이다.
내용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에서는 5월 단오에 마을마다 그네를 뛰는데, 이 날 특별히 해먹는 음식은 없지만 '소 군둘레 끼우는 날'이라 해서 음식을 차리기도 한다. 그리고 제삿술 남긴 것을 꺼내어 쑥을 베어다 술을 뿜어 약쑥을 만들었으며, 이것을 엮어서 매달아 놓았으니 일종의 벽사(辟邪)의식으로 볼 수 있다. 소에게 군둘레가 끼워진다는 말은 소가 행하는 통과의례의 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 삼척민속지3 -노곡 사람들의 삶과 문화-(김진순, 삼척문화원, 2000).
필자 | 김선풍(金善豊)

소 시집가는 날

정의 강원도 삼척지역에서 단오(端午)를 일컫는 다른 말.
내용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풍속으로, 이 날 쇠꼴 중에서 '앉은뱅이' 같이 보들보들하고 좋은 꼴을 베어다가 소에게 먹인다. 지금은 그 같은 전통이 흔하지 않지만 '소의 코를 뚫는 날'이라 해서 '소 시집가는 날'이란 명칭이 생긴 것이다. 황소 한 마리가 장정 16명이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소를 하나의

미나리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방상운

인격체로 다루었다. 소 시집가는 날은 다름 아닌 소가 행하는 통과의례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삼척민속지3 -노곡 사람들의 삶과 문화-(김진순, 삼척문화원, 2000).
필자 | 김선풍(金善豊)

쇠코 뚫는 날

정의 강원도 삼척에서 단오(端午)를 일컫는 다른 말.
내용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과 미로면에서는 소를 인격체로 보아 단오를 소 시집가는 날, 소 군둘레 끼우는 날, 쇠코 뚫는 날이라고 부른다. 이 날 보들보들하고 좋은 꼴을 베어다가 먹이는 풍속이 있다. 정월대보름에는 키에 오곡밥을 담아 먹이지만, 단오에는 양질의 꼴을 먹인다는 점이 다르다. 쇠코 뚫는 날은 '소 군둘레 끼우는 날'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 삼척시 미로지역의 기층문화(관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 보고서, 삼척문화원, 1995), 삼척민속지3 -노곡사람들의 삶과 문화-(김진순, 삼척문화원, 2000).
필자 | 김선풍(金善豊)

수릿날

정의 단오(端午)를 일컫는 고유어.
내용 원래 '수리'란 말은 어원적으로 고(高), 상(上), 봉(峰), 신(神)을 의미하는 고어(古語)이다. 그러므로 수릿날은 신일(神日) 또는 상일(上日)의 뜻이 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문무왕 법민조에는 단오를 민간에서 '술의(戌衣)날'이라고 하였는데, 술의는 우리말로 '달구지'라는 뜻이다. 그리고 고려속요 '동동(動動)'에는 "오월(五月) 오일(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 츰약(藥)은 즈믄 ᄒᆞ 장존(長存)ᄒᆞᆯ샬 약(藥)이라 밥좁노이다." 하여 '수릿날'이라는 고유어가 나타난다. 이 날 쑥을 뜯어서 떡을 만드는데, 그 모양을 달구지처럼 만들어서 먹었기 때문에 술의날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예로부터 이 날 수리치로 떡을 해먹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으며,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수릿날이라 한다는 설도 있다.
의미 수리라는 말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설명처럼 단옷날 수리치떡이 수레바퀴 모양과 같기 때문이라거나, 자신의 지조를 보이려고 5월 5일 멱라수에 투신한 굴원(屈原)을 제사지내기 위해 밥을 수뢰(水瀨: 물의 여울)에다 던진 데서 비롯되었다는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의 해석도 있지만, 수릿날은 신을 모시는 날, 신이 강림하는 날, 높은 날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樂學軌範, 洌陽歲時記, 조선의 민속(선희창, 사회과학출판사, 1991).
필자 | 김선풍(金善豊)


1


2

1~2 떡살
국립민속박물관

술의(戌衣)

정의 단오를 달리 일컫는 말. 다른 말로 단양(端陽), 천중(天中), 수리라고도 한다.
내용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고려가요 '동동(動動)'에 단오를 수릿날이라고도 하였는데, 수리란 말은 상(上), 고(高), 신(神) 등을 의미하니 수릿날은 신일(神日), 상일(上日)이란 뜻을 지닌다. 우리나라 삼한시대 5월 파종기에 신령에게 제사지내며 풍년을 기원한 데서 유래하였다. 두 번째로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단오는 세간에서 수릿날이라고 하니, 수리라는 것은 우리말로 수레라는 뜻이다. 이 날은 쑥잎을 따서 곱게 빻아 멥쌀가루에 넣으면 푸른빛을 내며 두드려 떡을 만드는데,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수릿날'이라고 한다(端午 俗名戌衣日 戌衣者 東語

車也 是日採艾葉 爛搗入粳米粉 發綠色 打而作餻象車輪形食之 故謂之戌衣日)."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高麗歌謠, 東國歲時記.
필자 | 양진조(梁鎭潮)

여아절(女兒節)

정의 단오를 달리 부르는 말. 부모님께 문안드리는 날이다.

내용 중국 명(明)나라 풍응경(馮應京)의 『월령광의(月令廣義)』「세령예절(歲令禮節)」편에 "석류꽃으로 머리를 꾸미고 새옷을 입는 등 성대하고 예쁘게 치장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날은 어린 여자아이들이 예쁘게 치장하고, 이미 시집간 여자들도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기에 이 날을 '여아절(女兒節)'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아절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기간을 말한다는 기록이 있다. 5월 5일은 양기가 성한 날로 이 기간에 여자들이 돌아다님으로써 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였던 데서 유래된 풍습이다.

참고문헌 | 月令廣義.
필자 | 양진조(梁鎭潮)

중오(重午)

정의 음력 5월 5일, 단오를 달리 이르는 말. 단오(端午), 중오(重五)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의 음양철학에서는 기수(奇數)를 양(陽)으로 치고, 양이 겹치는 날을 생기가 있는 날이라 하여 명절로 삼는데, 5는 기수 1, 3, 5, 7, 9 중에서 정 중앙에 해당하여 양기가 가장 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송사(宋史)』「유온수전(劉溫叟傳)」에 "태종이 진저(晉邸)에 있을 때 그가 청렴하고 곧다는 소리를 듣고 관리를 보내 돈 5백천(五百千)을 주니, 유온수(劉溫叟)가 이를 받아 부리(府吏)를 시켜 관청 서쪽 창고에 쌓아두게 하고 관리에게는 봉인하여 서명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다음해 중오(重午)에 또 떡과 부채를 보냈는데 심부름 간 사람이 전에 돈을 전해 준 관리였다. 그가 서쪽 창고를 바라보니 예전에 봉인했던 표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太宗在晉邸 聞其淸介 遣吏遺錢五百千 溫叟受之 貯廳西舍中 令府吏封署而去 明年重午 又送角黍執扇 所遣吏卽送錢者 視西舍封識宛然)."라는 기록이 있다. 소세양(蘇世讓)의 『양곡문집(陽谷文集)』 '임자중오(壬子重午)' 시에 "지난해의 중오(重午)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니 병을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조그마한 절에 머물렀네(去年重午不可說 避病携兒偶小刹)."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宋史, 陽谷文集.
필자 | 홍성훈(洪性薰)

중오절(重五節)

정의 단오를 달리 부르는 말. 오(五)의 수가 겹치는 5월 5일 단오절을 뜻한다. 다른 말로 단양(端陽), 술의(戌衣), 오월절(午月節), 여아절(女兒節)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의 음양철학에서는 기수(奇數)를 양(陽)으로 치며, 양이 겹치는 날을 생기가 있는 날이라 하여 명절로 삼는데, 5는 기수 1, 3, 5, 7, 9 중에서 정 중앙에 해당하여 양기가 가장 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참고문헌 | 周易.
필자 | 양진조(梁鎭潮)

천중절(天中節)

정의 단오(端午)를 달리 부르는 말. 오월절(午月節), 중오절(重五節)이라고도 한다.



추천하는모양
기산풍속도 김준근

내용 『연감유함(淵鑑類函)』「세시부(歲時部)」 5월 5일조(條)에 "제요록(提要錄)에 말하기를 5월 5일 오시(午時)가 천중절이다(提要錄曰 五月五日午時 爲天中節)."라고 한 구절이 있다. 이산해의 『아계유고(鵝溪遺稿)』 '5월 5일(五月五日)' 시에 "일년의 좋은 명절인 천중절이 돌아왔네(一年佳節又天中)."라고 하였다. 또한 허균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단양일(端陽日)' 시에 "단양의 좋은 계절이 천중이니……(端陽令節異天中)."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惺所覆瓿藁, 鵝溪遺稿, 淵鑑類函.
필자 | 양진조(梁鎭潮)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

정의 5월 5일 강릉 지역에서 펼쳐지는 제의(祭儀). 1967년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단오민속은 부족국가 시대부터 행해져 온 파종의례(播種儀禮)에서 출발하여 벽사진경의 신앙적 의미가 강조되었다. 그 후 그네와 씨름 등 민속예능을 결합하여 명절축제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강릉단오제의 표피적 주제는 세시풍속 주기이나, 이면적 주제는 지역 신화와 예능으로 형성되어 있다.

단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춘계 파종 후 5월의 성장촉진 의례가 진행되면서 길일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이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 권5,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오늘날 한국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강릉단오제의 원류인 영동산신제와 고을 풍습에 대해 기록해 놓았다.

1603년 교산 허균의 기록에 강릉단오제의 중심 신격(神格)은 대관령 산신으로 좌정한 김유신 장군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에도 "강릉에는 제사지내는 외에 특별히 다른 것이 있다(江陵則享祀外 別有異者)."라고 하였다. 곧, 마을에서 봄가을로 행해지는 일반적 마을 성황제와 특별히 다른 것은 매년 4월 15일 호장과 무격이 대관령에서 신목(神木)으로 국사신(國師神)을 모셔 와서 봉안하였다가, 5월 5일 굿과 탈놀이 등으로 신을 즐겁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중국 단오와 다른 토착제의의 요체를 말하고자 한 뜻이다. 그것은 삼국통일을 성취한 신라의 김유신을 산신으로, 나말여초(羅末麗初)의 승려 범일(梵日, 810~889)을 국사신격으로 봉안하고 독자적인 축제를 펼쳐왔다는 것이다. 이후 범일국사의 탄생설화는 952년에 편찬된 『조당집(祖堂集)』과 달리 『증수임영지』에서는 양가(良家)의 처녀가 해가 비친 물을 마시고 잉태한 고대형 태양신화의 신비한 화소로 바뀌었다. 오늘날 강릉단오제의 내용은 향토지 『증수임영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마을마다 성황사가 있어 춘추로 제사를 지내는데, 강릉에서는 제사지내는 외에 특별히 다른 것이 있다. 매년 4월 15일 본부의 호장이 무당을 거느리고 대관령 산 위에 있는 한 칸의 신사(神祠)에 가서 고유(告由)하고, 무당으로 하여금 나무에다가 신령을 구하게 한다. 나무에 신이 내려 그 가지가 저절로 흔들리게 되면, 신령의 소의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 그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기운 센 젊은이에게 들게 하고 오는데, 이 행차를 국사의 행차라고 말한다. (중략) 황혼에 관사에 이르면 횃불이 들판을 메우고 관청의 일꾼들이 이를 맞아 모셔 안치하였다."

성황사의 춘추제와 특별히 다른 일을 추적해 보면 단오제의 원형에 대해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이 기록해 놓았다. 이것은 이능화(李能和, 1869~1945)가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서 『추강냉화』에 수록된 것으로 잘못 본 것이나, 남효온은 문집 『추강선생문집』 권5, 유금강산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영동민속에는 매년 3, 4, 5월 중에 날을 가려 무당과 함께 바다와 육지에서 나는 음식을 아주 잘 장만하여 산신제를 지낸다. 부자는 말에 음식을 싣고 가고 가난한 사람은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가서 신의 제단에 제물을 진설한다.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비파를 뜯으면서 연 사흘을 즐겁게 취하고 배불리 먹은 후 집으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매매(賣買)를 시작한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그만 물건도 얻을 수도 없고 주지도 않는다."

추강 선생이 1471년에 영동지역을 다닌 것을 기록한 것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축제를 여는 모습이 강릉단오제와 흡사하다. 특히 3월부터 준비하여 4

월과 5월 단옷날을 택해서 제를 지내는 모습이 그러하다. 실제로 강릉단오제가 시작되는 4월에는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4월 15일 대관령산신제를 전후하여 어촌인 강릉시 강문동마을에서는 성황당에서 별신제 풍어굿을 올리고, 산촌인 강동면 심곡마을에서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산맥이제를 지낸다. 이처럼 지금도 강릉 일대의 어촌과 산촌에서 3월부터 5월까지 마을 제례를 지내는 것을 보면, 추강의 기록은 강원도 산간마을의 산메기나 별신제와 유사한 점도 발견된다.

오늘날의 단오제는 중심신격으로 범일이라는 강릉 출신의 실존 승려를 국사성황신으로 봉안하고 있는 점이 기록과 다르다. 『고려사(高麗史)』에 전하는 김순식 장군 이야기는 그가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출병하였을 때 태조의 꿈에 이상한 중이 군사 삼천 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이튿날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도왔다는 꿈 이야기를 하자, 김순식은 자신이 대관령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승사(僧祠)가 있었으므로 제단을 만들어 기도했다는 기록이 처음이다.

조선 경종 무렵에 펴낸 강릉 향토지 『강릉지(江陵誌)』 풍속조 대관산신탑산기(大關山神塔山記)에 보면, "김순식이 고려 태조를 따라 남쪽을 정벌할 때, 꿈에 승속(僧俗) 두 신이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구해 주었다. 꿈에서 깨어보니 싸움에 이겼으므로, 대관령에 사우(寺宇)를 지어 제사를 올린다."라고 하였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승려는 범일국사, 속인은 김유신 장군이라고 한다.

허균은 조선 선조 36년(1603) 여름, 그의 나이 34세 때 당시 수안군수를 역임하고 잠시 모친과 함께 외가인 강릉 사천의 애일당에 내려와 약 4개월간 머물렀을 때 강릉단오제를 보았다. 문집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권14, 문부11, 대령산신찬병서(大嶺山神贊幷書)에는, 당시 명주사람들이 5월 길일을 택해, 대관령 산신인 김유신 장군을 괫대와 꽃으로 맞이하여 부사에 모신 다음, 온갖 잡희를 베풀어 신을 즐겁게 해준다고 하였다. 신이 즐거워하면 하루 종일 괫대[花蓋]가 쓰러지지 않으며 그 해는 풍년이 들고, 신이 화를 내면 이것이 쓰러져 그 해는 반드시 풍재나 한재가 있다고 말한 수노(首奴)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고 있으며, 이 말을 듣고 자신도 이상하게 여겨 그 날 가서 보았더니 과연 괫대가 쓰러지지 않아 고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경사롭게 여겨 서로 손뼉을 치며 춤을 추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살펴보면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강릉단오제의 주신격은 김유신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 강릉단오제가 산신제의 성격에서 성황제로 옮겨가는 시기는 영조 무렵으로 추정된다.

강릉국사성황제와 관련하여 조선 영조 때 일화가 전한다. 영조 임오년(1762) 여름에 부사 윤방(尹坊)이 삼척에서 사람을 죽인 사건을 살피는 검사관으로 갔다. 금부에 있는 서리를 파면했다는 이유로 이규(李逵)라는 사람이 명을 받고 관아에 와서 아전의 우두머리를 문책하려고 했다. 최광진(崔光振)이 호장(戶長)이었다. 아전이 그를 부르니, 바로 이 날이 국사성황신을 모셨다가 보내는 5월 5일이었다. 호장이 성황사에서 일을 보다가 시간이 흐른 뒤 관아에 도착했다. 이규의 성격이 조급하여 사람을 시켜 결박하고, 마패로 마구 때리면서 "너는 성황신만 중히 여기고 나를 천박하게 대우하니 대체 성황은 어떤 신령이냐? 너는 비록 성황신을 존경할지 모르나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흉악한 말을 하자, 갑자기 사지가 뒤틀리며 뼛속을 찌르는 아픔을 느끼고 결박당하듯이 정신이 혼미해지자 비로소 겁을 내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로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

이 기록을 근거로 본다면, 조선 후기에 성황신의 위엄과 신앙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릉단오제는 향리가 주관하고 향직의 우두머리격인 호장이 초헌관을 맡았으며, 관노들은 탈춤을 추고, 나팔수와 신목잡이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수노(首奴)가 삼헌관을 맡아 성황신 행렬에 참가하였다. 산신에서 성황신으로의 신격 변화는 1600년 무렵 허균의 김유신 산신 기록이 150년 뒤에는 국사성황신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사성황신이 누구인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범일이 국사로 추증(追贈)되었다는 사실이 국사성황신으로서 위상설정에 기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김유신 장군은 강릉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 반하여, 범일국사는 강릉의 굴산사를


1


2


3


7


8


9


10


15

1 신주빚기
2 칠사낭 이동
3 재료 혼합
4 부정치기
5 제물준비
6 대관령국사성황제
7 대관령국사성황제 - 음복례
8 신목 봉송
9 국사성황신 행차
10 대관령국사여성황사
11 봉안제
12 소지올리기
13 강릉관노가면극
14 강릉관노가면극
강원도 강릉시 김종달

15 호개등
16 조전제
17 성주굿
18 심청굿
19 심청굿
20 군웅굿
21 군웅굿
22 놋동이굿
23 소지올리기
24 이동
25 소제
강원도 강릉시 김대벽


16


18


19


20


21


4


5


6


11


12


13


14


17


22


23


24


25

세운 고승으로 일찍이 이 지방에서 존숭했다는 사실로 그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강릉 지역이 일찍이 영향을 받은 바 있는 신라 김유신 장군을 배제하고 제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구심체를 형성하여 이를 토착세력화하려는 의지도 일조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사'라는 칭호는 국사봉, 구수봉, 국수봉이라는 지명이 전국에 퍼져 있으며 동시에 '신이 좌정한 봉우리'라는 뜻이 있음을 감안할 때, 대관령을 신성한 봉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산신제를 지낸 것이 신라 때의 승려와 연계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는 범일국사가 실질적인 중심신격으로 바뀌면서 성황신제를 봉안하는 마을 제의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인 고려시대부터 대관령의 치제를 대략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강릉을 중심으로 동예국(東濊國)의 무천제(舞天祭)가 전승되었는데, 농공시필기(農功始畢期)인 5월과 10월에 국중대회(國中大會)가 열렸다. 다시 말해 10월 상달의 예국 무천제와 연계된 5월 수릿달 축제로 이미 정착되었다가 중국으로부터 단오민속을 수용하면서 길일인 단옷날을 택해 축제를 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강릉단오제는 토착 향토축제에서 일찍이 출발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예국의 무천제는 시기가 지남에 따라 산신제와 성황제로 바뀌어 전승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강릉 고유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전통의 향토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강릉단오제는 3월부터 5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응천순시(應天順時)에 따라 마을의 토착신격을 봉안하고 곡물 성장을 도모하는 파종 후 성장의례와 질병예방의 주술의례가 중심이 되어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강릉단오제는 제례를 중심으로 행해지는데 기예능보유자로는 1967년 지정된 김신묵(金信默, 1893년 3월 18일생, 작고)의 뒤를 1982년 2월 1일 지정된 김진덕(金振悳, 1910년 5월 20일생, 작고)이 이어나갔으며, 또 조규돈(曹圭燉)이 보유자로서 집례를 맡고 있다. 제례와 함께 행해지는 무속행사는 장재인(張在仁, 1907년 4월 25일생, 작고) 무녀의 뒤를 이어 박용녀(朴龍女, 1912년 12월 18일생, 작고)와 신석남(申石南, 1930년 2월 28일생, 작고) 무녀가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신석남의 며느리인 빈순애(賓順愛) 무녀가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음력으로 기록된 단오제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20일: 신주근양(神酒謹釀)
4월 1일(初端午): 헌주(獻酒)와 무악(巫樂)
4월 8일(再端午): 헌주와 무악
4월 14일: 봉영(奉迎) 출발
4월 15일(三端午): 봉영, 대관령성황제 및 산신제
4월 27일(四端午): 무제(巫祭)
5월 1일(五端午): 화개(花蓋), 관노가면극(官奴假面劇) 본제 시작
5월 4일(六端午): 관노가면극, 무악(巫樂)
5월 5일(七端午): 관노가면극, 무악 본제
5월 6일(八端午): 소제(燒祭), 봉영

일정은 다소 신축성이 있으나, 근 50여 일에 걸쳐서 강릉단오제를 준비하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강릉의 충분한 문화적 역량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인 제례, 굿, 관노가면극 이외에도 민속행사로 강릉농악, 향토민요경창, 시조경창, 그네대회, 씨름대회, 궁도대회 같은 수릿날의 전통풍속과 지역 민속놀이가 있으며, 체육행사와 경축행사가 열린다. 강릉단오제의 제례는 전래 유교식 제례양식을 취하는데, 복식과 홀기, 축문을 갖추고 헌관 및 집사들이 산신제, 성황제, 영신제, 봉안제, 조전제, 송신제를 거행한다. 제전행사의 제물은 도가(都家)에서 정성껏 마련하며, 신주(神酒)는 칠사당에서 제관들과 무당이 주관하여 빚는다. 제례진행은 강릉시장과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이 제관이 되어 향토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다. 현재 행해지는 제례의식은 다음과 같다.

① 신주빚기: 강릉단오제를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가장 먼저 행해지는 의식으로 음력 4월 5일에 신에게 바칠 술을 빚는다. 이것을 '신주'라고 하는데, 1960년대에는 음력 3월 20일 제주로 사용되는 술을 도가에서 정성껏 담갔다. 옛날 관아였던 칠사당에는 일주일 전에 미리 금줄을 치고 황토와 소금을 뿌려 부정한 일을 막는다. 당일 칠사당 마루에서 무녀가 부정굿을 하여 사방의 부정과 제관에게 따라온 부정 등 온갖 부정함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굿을

한다. 무녀가 신칼을 휘두르고 재액을 몰아내는 굿 사설을 늘어놓으며, 깨끗한 물로 부정치기를 한다.

신에게 바치는 술은 제관들이 목욕재계하고 의복을 갖추어 입은 다음, 기능보유자가 참여한 가운데 부정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을 못하도록 입을 흰 천으로 감싸고 강릉시장이 보낸 관미(官米) 두 되와 시민들이 보낸 헌미(獻米)로 누룩, 솔잎을 버무려 단지에 넣고 정화수를 붓는다. 제주단지는 한지로 덮고 금줄로 잘 묶어 칠사당 호장청의 아랫방에 두어 익히는데, 이때 무격(巫覡)들이 장단을 울리고 무녀가 술이 잘 숙성되기를 기원하는 축원가를 부른다.

조선시대에는 호장, 부사, 수노(首奴), 성황직(남자 무당의 우두머리), 내무녀가 참여하여 관에서 보내준 쌀이나 제전(祭田)에서 산출된 깨끗한 쌀 한 말에 누룩을 섞어 신주를 빚었다. 신주는 탁주로 쌀과 누룩을 2대 1의 비율로 섞는데, 쌀 한 말을 했을 때 술맛이 좋도록 솔잎 닷 되를 넣는다.

신주를 정성껏 빚는 일은 매년 단오제를 잘 지내 국사성황신과 여성황신이 이곳 주민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한다. 신주는 제의 진행상 중요한 제물의 하나이며, 신주를 빚음으로써 시민뿐만 아니라 이 일에 참여하는 제관들도 제의가 시작된 것으로 믿었다.

② 산신제와 국사성황제: 대관령은 강릉의 진산(鎭山)으로 높이 865미터, 고갯길이 13킬로미터인 아흔아홉 굽이로서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관문이다. 이곳의 북쪽 능선에 산신당과 성황사가 있는데, 음력 4월 15일 헌관들이 산신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40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국사성황사에서 성황제를 지낸 다음 성황신을 모셔온다. 산신당은 한 칸의 기와집으로 '山神堂'이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고, 내부에는 나무 제단에 산신화상과 대관령산신지신(大關嶺山神之神)이라고 쓴 위패(位牌)를 세워놓았다. 산신은 김유신 장군이라고 전하는데, 호랑이와 함께 있는 고승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음력 4월 15일 아침 10시부터 대관령 산신당에서는 산신제가 행해지는데,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헌작과 홀기에 따라 행해지는 유교식 제례이다. 국사성황신제는 11시 무렵부터 행해지는데 성황사(城隍祠)라고 쓰인 한 칸의 기와집에 제물을 차려놓고 지낸다. 내부에는 '대관령국사성황지신(大關嶺國師城隍之神)'이라고 쓴 위패를 세워놓았으며 벽쪽에 걸린 화상은 범일국사를 상징하는데, 전립을 쓰고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이 행사를 자세하게 기록한 『증수임영지』에 따르면 "매년 4월 15일에 강릉부의 호장이 무당을 거느리고 대관령 산 위에 있는 한 칸의 신사에 가서 고유(告由)하고 무당으로 하여금 나무에다가 신령을 구하게 하여 나무에 신이 내려 흔들리면 가지를 하나 꺾어 기운 센 사람이 들게 하고 온다."라고 하였다. 이 행차를 국사(國師) 행차라고 했는데, 날라리를 부는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고 무당들이 징을 치고 북을 울리면서 따르고 호장이 대창역마를 타고 천천히 그 뒤를 따른다고 하였다. 이때는 도로 가에 사람들이 담을 에워싼 것과 같이 모여들어 종이나 천을 신목에 걸고 기원하거나 음식을 장만하여 무당들을 위로했다고 한다. 기록에는 대관령에서 내려와 저녁에 강릉부 관사에 이르면 횃불이 들판을 메우는데, 하급 관노들이 신목을 맞이하여 성황사에 안치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의 행사 역시 이 내용과 큰 차이는 없지만, 자동차로 신목을 봉송하다가 대관령 옛길로 구산성황당까지 내려오는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③ 구산성황신제와 학산성황제: 국사성황신이 대관령 아흔아홉 굽이를 내려오다가 조선조 때 역원이었던 구산에 이르면 구산성황당에 이르러 잠시 머문다. 이곳은 성황지신(城隍之神), 토지지신(土地之神), 여역지신(癘疫之神), 그 밖에도 영산지신(靈山之神)을 모시고 있을 정도로 대관령과 관계가 깊다. 그래서 국사성황신의 아들 성황신이라고까지도 말한다. 국사성황신행차가 윗반쟁이, 아랫반쟁이, 제민원, 굴면이를 지나 도착하면 주민들은 싸리나무와 관솔을 묶어서 만든 횃대에 불을 붙여 들고 신을 영접했다고 한다. 조선 초기까지도 그와 같이 했는데, 이렇게 횃불을 들고 신을 맞이할 때 주민들은 '산유가'라는 영신가(迎神歌)를 부른다. 이것은 구정면 학산리의 '영산홍'이라는 민요와 같은 것인데, 범일국사가 학산리 태생이므로 이 민요를 신맞이 노래로 한 것이다.

이때 부르는 가사는 "꽃바칠레 꽃바칠레 사월보름날 꽃바칠레 어얼사 지화자자 영산홍, 일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우리 연분 지화자자 영산홍, 보고파라 가고지고 어서 바삐 가자서라 지화자자 영산홍, 국태민안 시화연풍 성황님께 비나이다 지화자자 영산홍, 산호원피 야도자절 성황님께 비나이다 지화자자 영산홍"이라고 다른 가사를 섞어 부르며 맞이한다.

한 해 동안 헤어져 있던 대관령국사성황신과 홍제동에 모셔져 있는 정씨가의 딸인 국사성황신이 만나는 날이므로 이들 신격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들뜨게 된다. '어서바삐 가자서라' 하고 부르는 민요는 국사성황신 행차를 재촉하지만, 국태민안을 빌고 시절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며, 호랑이를 피하고 도적도 없게 해달라는 소원도 비는 것이다.

신이 내린 성황목에 삼색 천으로 장식한 국사성황신 행렬을 맞이하면서 이곳 주민들이 횃대에 불을 붙여 신을 맞는 것은 곧 영산홍(꽃)을 바치는 의식이다. 이것은 불교의 산화공덕과 같은 의미이며, 동시에 신라 때 강릉 태수로 오던 순정공의 부인 수로(水路)를 맞이하며 한 노인이 불렀다는 향가 헌화가(獻花歌), 곧 '꽃 바치는 노래'와도 그 의미가 통한다. 횃대의 불꽃과 상상 속의 꽃이 신격을 영접하는 민요로 불려졌다.

학산성황제는 강릉시에서 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구정면 재궁말 마을 성황제인데, 대관령국사성황신인 범일국사의 탄생지이고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굴산사를 짓고 입적한 유적지이므로 1999년부터 이곳을 순례하고 있다. 이 마을은 범일국사의 탄생설화가 깃들어 있는 석천(石泉)과 학바위가 있는데, 국사성황신이 고향을 둘러본다는 의미이다. 학산리 성황당은 마을 입구에 있는데, 당집은 없고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 높이 1미터 되는 돌담을 빙 둘러 쳐놓았다. 이곳에 대관령국사성황신과 제관, 무격 일행이 도착하면 마을에서 제물을 차려놓고 굿을 한다. 성황제가 끝나면 대관령국사성황신을 모신 위패와 신목이 석천과 마을을 한바퀴 돈 다음에 단오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사성황신을 모실 홍제동 대관령국사여성황사로 행차한다.

④ 봉안제(奉安祭): 신목 행차는 영산홍 민요를 부르면서 위패와 함께 홍제동에 있는 대관령국사여성황신 제당에 도착하여 단오제 본제가 시작되는 날까지 부부 성황신이 함께 봉안된다. 국사성황신과 여성황신이 만나는 음력 4월 15일은 강릉단오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이때는 시내 일원을 순례한 다음, 대관령국사여성황사에서 합사를 하고 봉안제를 올린다. 홀기에 따라 헌관의 독축(讀祝) 제례가 진행되고 봉안굿이 행해진다. 이 날은 대관령국사성황신이 여성황신과 부부가 된 날이라고 한다. 대관령국사여성황사는 단청이 칠해진 기와집 세 칸으로 내부 정면 벽에는 여성황신의 화상이 그려져 있다. 대관령국사여성황신의 모습은 머리를 길게 땋아 좌측 어깨에서 앞으로 늘였으며 그 앞에는 호랑이와 시녀가 그려져 있다. 화상 앞에는 검은색 목판에 흰 글씨로 '대관령국사여성황신위'라고 쓴 위패가 세워져 있다. 이 여성황사는 남문동에 있었으나, 지금은 수도관리사무소 뒤에 있다.

대관령에서 음력 4월 15일 국사성황신을 봉안하고 내려오면 단오제가 열리는 날까지 약 보름 동안 이곳 여성황사에 신목과 위패를 함께 모셨다가 단오 이튿날 남대천으로 모셔 제사를 지낸다. 서로 떨어져 있던 국사성황신 부부는 이 기간 동안 함께 있게 된다. 대관령국사성황신을 모셔가는 날에도 여성황사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의례절차는 국사성황제와 동일하고 제물 진설도 대관령국사성황제와 다르지 않으나 합제 축문만 다르다.

전설에 따르면 조선조 숙종 때 대관령성황신이 초계 정씨인 정완주의 무남독녀 경방댁 정씨 처녀가 창원 황씨 황수징과 결혼하였으나, 시댁이 멀어 친정에 머물러 있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고 한다. 대관령국사성황신이 혼자 있는 정씨 처녀를 데리고 오려고 정씨의 꿈에 나타나 청혼했으나 사람이 아닌 신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호랑이를 시켜 야밤에 머리를 감고 대청마루에 얌전히 앉아 있던 처녀를 대관령으로 데리고 가서 영혼결혼식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처녀를 찾아 대관령으로 갔더니 처녀의 영혼은 이미 간 데 없고, 시체는 비석처럼 서 있었다고 전한다. 조선조 후기에 형성된 이러한 전설은 이른바 호환설화(虎患說話)의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해원형(解寃形)의 하나로써 호환당한 처녀가 승화된 신격으로 재생하는 과정을 통해 호환을 방지하고 대관령 험로의 안전과 지역의 안녕, 풍요를 기원하는 공동체 제의의 한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⑤ 영신제(迎神祭)와 국사성황신행차: 강릉단오제의 본제가 시작됨을 알리는 영신제는 음력 5월 3일 남대천 단오제단에서 행해진다. 영신제는 대관령국사여성황사에 모신 국사성황신 부부를 단오제가 열리는 남대천으로 봉송하여 지내는데, 지금도 강릉의 옛 정씨가 살던 경방댁에서는 두 신이 단오장으로 나가는 전야제 때 제물을 차려 맞이하며 두 신도 친정과 처가를 방문하게 된다.

강릉시내 여성황신의 친정인 경방댁에 들른 국사성황신 부부는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최씨 집안에서 장만한 제물 앞에 머무른다. 이 집주인은 제례를 지내기 3일 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을 막고 행동을 조심하고 근신을 한다. 조선조 때 정씨가 살던 이 집은 현재 주인의 5대조인 최윤정이라는 분이 이사와서 지금까지 후손들이 살고 있으므로, 영신제 때 최씨 집안 사람들이 나와서 위패와 신목 앞에 절을 한다. 무녀들은 친정나들이를 축하하는 굿을 한 다음, 소지를 올려 잘 흠향했는지 알아본 후, 두 신을 상징하는 위패와 신목을 앞세우고 남대천으로 향한다. 이때 제관과 무당이 따르고, 관노가면극과 농악대는 꽷대인 화개(花蓋)를 앞세우고 탈놀이와 함께 흥겨운 풍물가락을 연주한다. 주민들은 영산홍 민요를 부르며 창포등을 들고 신의 행차를 따른다. 이렇게 국사성황신 행차가 시내를 한바퀴 도는 신유행사를 마치고 나면 남대천을 건너 가설제단에 봉안된다. 이때 무녀들이 영신굿을 하여 신을 좌정시키고 단오행사를 마칠 때까지 각종 제사를 지낸다.

⑥ 조전제(朝奠祭): 음력 5월 4일부터 단오제를 마치는 날까지 매일 아침 유교식으로 제를 지내는 행사가 조전제이다. 홀기에 따라 유교식 복장을 갖춰 입고 제례부분 기능보유자가 함께 진행하는데, 지역의 단체장이나 인사들이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낸다.

⑦ 무당굿: 강릉단오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무당굿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굿은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달하는 제의로 무녀들이 춤과 굿 사설로 축원하고, 무격은 무악을 연주하여 신을 즐겁게 한다. 강릉단오제에서 전통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열두거리 전체를 단오제 마지막 날인 7일까지 펼친다.

강릉단오굿의 구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데, 1937년대에는 12신악(神樂)으로 ①부정굿 ②감응굿(가족의 安幸을 축원) ③군웅굿(가축의 번식을 축원) ④시중굿[豊年祀] ⑤성황굿[城隍祀] ⑥지신굿[地神祀] ⑦맞이굿[海神祀] ⑧별상굿[疫神祀] ⑨조상굿[祖先祀] ⑩성조굿[家神祀] ⑪조왕굿[竈神祀] ⑫거리풀이굿 순서로 행해졌다. 그 이후 1966년 임동권 교수가 무형문화재 지정조사에서는 강릉 출신 무녀 장대연(당시 85세)을 조사하였는데, ①부정굿 ②서낭굿 ③성주굿 ④군웅굿 ⑤세존굿 ⑥조상굿 ⑦설영굿 ⑧제석굿 ⑨당고마기 ⑩심청굿 ⑪손요굿 ⑫뒤풀이의 순서였다. 이후 20석(席: 거리)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22석 또는 23석을 하기도 했다. 대체로 열두거리를 중심으로 여기에 몇 거리가 더 들어가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상의 굿 절차 외에도 산신굿, 천왕굿(원님굿), 축원굿, 조상굿이 더 들어가기도 한다. 굿거리는 매년 일정하지 않으나 3~4일 동안 행해진다.

⑧ 송신제(送神祭): 단오제 행사를 마치는 음력 5월 7일 저녁 7시에 마지막으로 성황신을 대관령과 홍제동 여성황사로 모시는 제사이다. 이때는 제관들이 단오제 기간 동안 신격이 잘 흠향했는지를 묻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게 된다.

송신제는 소제(燒祭)라고도 하는데, 무녀들의 환우굿이 끝나면 신목과 단오제단에 치장했던 각종 꽃장식과 기물을 불에 태워 보내는 마지막 의식이다. 이때 무녀는 내년에 다시 신을 모시겠다는 굿을 하며 한 해 동안 주민들을 잘 보살펴주기를 간구한다. 신을 모시는 강신의례와 주민들이 신을 맞이하는 영신의례, 마지막으로 신을 보내는 송신의례는 단오제도 절차상 예외가 아니다.

강릉단오제에서 벌이는 가면극은 성황신제 계통극으로 관노들에 의해 연희되어 관노가면극이라고도 불린다. 강릉가면극은 주로 음력 5월 5일 단오 무렵에 행해졌다. 관노가면극 연희자 김동하(金東夏, 1884년 1월 22일생), 차형원(車亨元, 1890년 9월 5일생)을 대상으로 1966년에 조사한 자료 내용을 보면, 음력 5월 1일 본제가 시작될 때 화개(花蓋)를 만들고 이때부터 연희가 이루어져 4일과 5일에 걸쳐 이어졌다고 한다. 경성제대 교수 추엽융(秋葉隆)의 조사에도, 5월 1일 본제 때부터 화개를 꾸미고 가면극을 했는데 화개는 부사청에서 만들었다고 기록되

어 있다. 또한 가면극은 4일에 대성황사 앞에서 놀고 5일에도 계속했다고 한다.

연희장소는 강릉 남대천변이 아니라 대성황사를 비롯하여 여러 곳으로 옮겼는데, 음력 5월 5일에는 오전에 대성황사 앞에서 먼저 행하고, 다음에는 화개를 받들고 약국성황당, 제관청, 여성황당 순으로 순례하며 탈놀이를 했다. 현재는 여성황당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졌으므로 남대천 단오터에서 4일간 연희하고 있다.

1965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어서 1966년 문화재 지정자료가 작성되고, 1967년 1월 16일 강릉단오제의 한 종목으로 강릉관노가면극이 인정되어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면서 확고한 전승체계를 갖추었다. 1993년 8월 2일 기예능보유자로 권영하(權寧夏, 1918년 6월 4일생, 작고)가 지정되었고, 뒤를 이어 김종군(金鍾群, 1942년 3월 5일생)이 지정되었다.

고증에 따르면, 이 탈놀이는 대체로 더운 절기에 행해지므로 약 두서너 시간 놀다가 더우니까 탈바가지를 벗어놓는다고 하였다. 여러 조사보고서에 관노가면극은 무언극으로 이루어지거나 약간의 재담이 들어있다고 한다. 탈놀이의 반주음악은 비교적 소상한 고증이 남아있는데, 차형원 옹은 날라리, 장구, 꽹새, 징을 오음육율에 따라 쳤다고 한다.

등장인물은 모두 개성이 강하게 표출되는데 강릉관노가면극에는 양반광대, 소매각시, 시시딱딱이 2명, 장자마리 2명으로 총 6명이 등장한다. 고증 내용을 바탕으로 추려내면 장자마리의 춤사위는 소위 '마당딱이춤(마당깨끼)'이다. 마당을 닦듯이 추는 춤이라는 뜻인데 매우 독특하다. 이와 함께 '도리깨춤'을 춘다. 배불뚝이 모습으로 도리깨를 쳐내듯이 마당을 넓게 하는 의도로 추는 춤이다.

다음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춤사위로 고증에는 점잖게 추는 맞춤과 어깨춤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다. 시시딱딱이 춤사위는 가면극의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데, 무서운 탈을 쓰고 칼을 휘둘러 재앙을 쫓는 칼춤과 사랑놀음을 훼방하는 '제개는춤'과 소매각시를 유혹하는 '너울질춤'을 춘다. 차형원 옹의 고증에는 날라리, 꽹과리, 북, 장구, 징을 사용했고, 무당들이 반주음악을 연주했다고 한다. 그것은 관노 중에 무격으로 일했던 사람이 많았고, 탈놀이와 무격희를 대성황당이나 여러 곳을 함께 순례하면서 행한 데에도 기인한다. 탈놀이는 고증 내용에 따라 놀이마당을 분류하면 대체로 다섯 마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마당은 장자마리의 개시, 둘째 마당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랑, 셋째 마당은 시시딱딱이의 훼방, 넷째 마당은 소매각시의 자살소동, 다섯째 마당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화해이다.

참고문헌 | 江陵誌, 高麗史, 東國歲時記, 惺所覆瓿藁, 秋江先生文集, 荊楚歲時記, 江陵端午祭(秋葉隆, 日本民俗學2-5, 1930), 增修臨瀛誌(농택성, 강릉고적보존회, 1933), 江陵端午祭(任東權, 文化財管理局, 1966),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研究(張正龍, 集文堂, 1988), 江陵官奴假面劇研究(張正龍, 集文堂, 1989), 강릉단오민속여행(장정룡, 斗山, 1998), 江原道民俗研究(張正龍, 국학자료원, 2002), 강릉단오제(장정룡, 집문당, 2003).
필자 | 장정룡(張正龍)

군위삼장군제(軍威三將軍祭)

정의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에서 매년 음력 오월 단오에 지내는 마을 공동 제의. 장군리 서쪽에 있는 삼정산(三井山)을 장군봉 또는 장군댕이라 부르는데, 그 정상에 세 장군을 모시는 삼장군당(三將軍堂)이 있다. 세 장군은 신라 김유신(金庾信) 장군, 당(唐)나라 소정방(蘇定方) 장군과 이무(李茂) 장군이다. 이 당집을 이곳에서는 흔히 장군당이라 하고, 기록에는 간혹 김유신사(金庾信祠), 효령사(孝靈祠) 또는 삼장군당이라 하였다.

유래 삼장군은 서기 660년(무열왕7) 삼국통합의 첫 발인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략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곳에 전하는 유래에 의하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당나라에 청병(請兵)했다. 당은 곧 원군(援軍)을 파견하였는데, 원군의 대장은 소정방, 부장은 이무였다. 이들이 신라로 오고 있을 무렵, 신라에서는 김유신 장군과 많은 군사를 보내어 마중하게 했다. 김유신 장군은 장군리 넓은 들에서 당군(唐軍)과 만나게 되었다. 나당연합군은 잠시 효령에 군사를 머물게 했으며, 삼장군은 장군봉에 지휘소를 마련하고 백제를 공략할 작전을 수립했다.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후 삼장군은 다시 효령에 들러



〈군위삼장군제〉 1 진설 2 장군당 이동 3 개독 4 관세례 5 분향 6 전폐례 7 독축 8 아헌례 9 종헌례 10 참례자 재배 11 음복례 12 망료례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국립민속박물관

장군봉에 올라 큰 소리로 "삼국통일이 되었으니, 안심하고 살아라."라고 말한 뒤에 떠났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삼장군을 잊고 지냈다. 그런데 고려 후기 어느 때부터인지 장군봉 인근에서는 말을 타고 그냥 지나가면 말발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을사람들은 장군봉 밑에 하마비(下馬碑)를 세우고, 말을 탄 사람은 반드시 내리게 하였다. 또 장군봉 정상 부근에 접근하는 사람이나 가축이 변을 당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이를 괴이하게 여긴 마을사람들이 그 까닭을 캐어보니 삼장군이 삼국을 통일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해주었는데도 백성들이 고마움을 모르고 제사도 올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래 전부터 이 마을에 터를 잡고 살던 사공씨(司空氏)가 나라에 상소하여 마침내 나라의 명으로 삼장군당을 짓고, 매년 오월 단오에 관민이 합심하여 제사를 올리게 되었다.

삼장군제는 19세기 후반까지 전승되어 왔다. 단옷날이 되면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영신(迎神) 행진을 한다. 현의 우두머리 아전이 말을 탄 채 앞장서고, 울긋불긋한 여러 깃발들을 들고 말에 실은 큰 북을 둥둥 치면서 거리거리를 누빈다. 이렇게 영신 행진이 끝나면 장군당에 다같이 올라가서 삼장군께 경건한 제사를 올린다. 제사가 끝나면 꽹과리, 징, 북, 소고를 울리며 뒤풀이를 한다. 이때는 삼신(三神)을 모시고 신유(神遊) 행진을 계속한다.

19세기 후반에 들어 음력 정월 보름 제사가 추가되어 일반 동제와 같은 성격이 되었다. 이 무렵부터 당제에 대한 관의 지원이 끊어지고, 18세기 후반에 불로리에 입촌한 김해김씨들이 제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제례는 김유신 장군의 후손으로서 제사권을 주장하는 김해김씨가 맡고 풍물, 영신 등 오신행위(娛神行爲)는 인근 마을의 사공씨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맡았는데, 이 무렵 제례에 향사적 성격의 홀기(笏記)가 등장하여 민속신앙적 의례행사가 점차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대 들어 일제의 간섭이 심해져 제의 규모가 극도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제의 주체가 주민에서 김해김씨에게로 넘어가면서, 마침내 제례가 향사 祀 . 1953년 김해김씨들이 장군봉 아래에 세운 제동서원(濟東書院)이 자리를 잡자, 삼장군의 신좌를 서원의 숭무전으로 옮기게 된다. 제일(祭日)도 단오에서 삼월 초정일(初丁日)로 바뀌었다가 1981년부터 삼월 삼짇날에 지낸다.

내용 1995년 원래의 장군당 초석 위에 효령사(孝靈祠)라는 삼칸 와가(瓦家)로 복원하고, 세 장군의 위패 또한 바꾸었다. 위패에 김유신 장군은 '개국공순충장열흥무왕지위(開國公純忠壯烈興武王之位)', 소정방 장군은 '신위도대총관소도독(神位道大摠管蘇都督)', 이무 장군은 '좌위중랑장신라연안후(左衛中郎將新羅延安侯)'라고 쓰여 있다.

현재 삼장군제는 단옷날 오전 10시를 기하여 행해진다. 제관들은 미리 선정되는데, 군수가 초헌관을 담당하게 된다. 제물은 조, 쌀, 돼지머리, 녹포, 대구포, 육포, 어포, 미나리, 무, 대추, 잣, 밤, 은행, 호도 같이 날 것을 사용하고 제상(祭床)에는 수저가 없다. 옛날 장군들은 날짐승을 칼로 베어 먹었기 때문이다.

제관을 비롯한 참례자들은 제동서원에서 준비하여 시간이 되면 장군당으로 이동한다. 제의 절차는 향사와 같다. 다만 초헌관이 세 신위에 모두 잔을 올린 다음 축문을 읽고, 아헌관 또한 세 신위에 모두 잔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헌을 한 뒤 초헌관이 음복하고 망료례를 함으로써 제의는 끝난다. 이후 참례자들은 제동서원으로 이동하여 음복한다. 19세기까지 행해졌다는 영신행진과 신유는 행해지지 않고, 유교식 제사만 지낸다.

의의 삼장군당은 원래 마을사람들이 세운 민속신앙 차원의 당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에 초가였던 것이 현의 지원으로 와가로 바뀌었으며, 위패도 열향(列享)이었다가 점차 김유신이 주향(主享), 두 장군이 배향(配享)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세월 전승되면서 외형이나 내용이 변화를 거듭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경상도 군위현에 김유신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 만명을 모시고 있으며, 무녀들이 그 만명을 섬기는데 신당에는 반드시 명도라는 구리거울을 걸어놓았다."라는 내용으로 무당의 신당 이용을 짐작할 수가 있다.

강원도 대관령 산신당은 김유신 장군을 산신으로

모시고 있고, 강릉 시내 김유신 사당인 화부산사(花浮山祠)에서도 매년 단오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군위의 삼장군제는 강릉단오제와 같은 단오문화권(端午文化圈)의 축제였음을 알 수가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新增東國輿地勝覽, 五洲衍文長箋散稿, 將軍堂 復元 學術調査報告書(軍威郡·安東大學, 1988).
필자 | 성병희(成柄禧)

단오고사(端午告祀)

정의 음력 5월 5일 단오에 집안의 평안과 오곡의 풍년 그리고 자손의 번창을 비는 제사.

내용 단오고사는 대체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간지역과 영동지역 일대에서 행한다. 강원도 인제군 기리면 방동리에서는 단오 전날 산에서 채취한 취나물을 삶아서 차좁쌀가루 또는 쌀가루에 버무려 시루에 쪄서 취떡을 만든다. 이때의 곡식은 지난해 10월 상달에 대왕단지 또는 제주단지 안에 넣어두었던 것을 꺼낸 것이다. 고사를 드리는 장소는 뒤뜰 장독대 옆에다 마련한다. 취떡을 시루째 올려놓고 시루 옆에는 갈나무를 꺾어 놓는다. 그리고 집안의 안녕과 오곡이 풍년 들기를 축원한다. 축원이 끝나면 취떡을 갈잎에 싸서 먼저 광에 모신 대왕단지 위에 매달아 놓고, 집 주위의 과일나무 가지 사이에도 끼워 놓았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날 꺼내 먹는다. 같은 지역에서 조상모시기를 하기도 한다. 이는 단옷날 아침 취떡과 전을 마련하여 안방에 모신 조상님들께 제를 올리는 것으로, 일반 제사와는 다르게 집안의 가장이 술을 한 잔 붓고 절을 두 번 하는 것으로 마친다.

또한 단옷날 행해지는 고사의 형태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옥계면 도직리 일대를 중심으로 산메기(산멕이)가 있다. 옥계면 도직리에서는 동이 틀 무렵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고 부엌 한쪽 벽에 걸어둔 산메기줄을 제물과 함께 함지그릇에 담아 머리에 이고 마을 뒷산의 개인 산메기 나무로 향한다. 먼저 나무에 산메기줄을 걸어놓고 제물을 진설하고 잔을 올린다. 제물 진설과 헌주가 끝난 다음 절을 반복한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가족들의 생년월일을 대면서 여러 가지 축원을 한다. 축원이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작은 그릇에 담아서 던지며 "산신님! 산신님! 많이 잡수시고 그저 가내 무사 바랍니다."





1 산메기줄
2 제물 진설
3 산메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황현만

하고 외친다. 동이 틀 무렵 산에 올라 해가 떠오르면 산을 내려온다. 이때 산메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가구의 부녀자 개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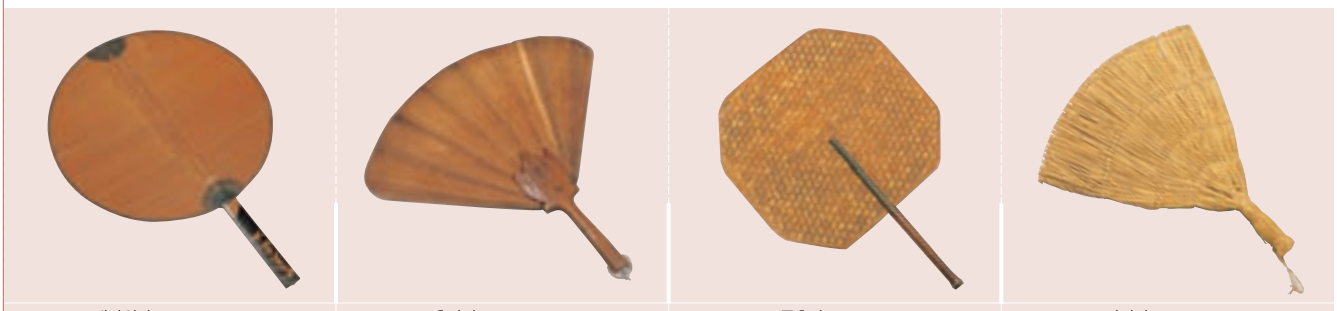
참고문헌 | 영동지역 산멕이 연구(김경남, 臨瀛文化16, 강릉문화원, 1992),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김경남(金京南)

단오부채[端午扇]

정의 단옷날에 선물로 주고받는 부채. 단오선(端午扇), 절선(節扇)이라고도 한다. 단오선의 종류는 접선(摺扇), 합죽선(合竹扇), 단선(團扇)이 있다.

유래 여름이 시작되는 단오절에 부채를 생산하는 영호남지역에서 부채를 진상[端午進扇]하면 임금은 여러 자루의 부채를 시종재신(侍從宰臣)에게 하사[端午賜扇]하며, 부채를 받은 시종재신들은 이를 일가친척과 친지에게 나누어주는 풍습에서 유래한다. 조선 고종 31년 9월 3일(병자일)에 군국기무처에서 단오진선(端午進扇)의 폐지를 제의한 안건이 승인되어 폐지되기까지 단오진선과 단오사선(端午賜扇)은 지속되었다. 그 시원(始源)이 언제부터인지 확실한 전거(典據)는 없으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본성(本省)에서 보낸 학령선(鶴翎扇)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 고려시대의 관청에서 부채를 내려준 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매년 단오에 정기적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한 전거(典據)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종 10년 4월 26일(임술일)에 "해마다 각 전(殿)에 바치는 접선(摺扇)에 모두 칠을 하여 국가 경비를 허비하니 진상(進上) 그밖에는 모두 백질(白質)을 사용하여 절약하자는 사헌부(司憲府)의 상언(上言)이 있어 이를 따랐다."라는 기록은 단오진선을 의미하지만, 단오사선에 대한 명백한 기록은 세종 때부터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8년 4월 28일(신묘일)에 중국 사신 백언(白彦)이 우리나라 단오사선 풍습의 유무를 묻고 자국(명나라)에서는 조관(朝官)과 제로(諸路) 사신들에게 단오사선을 하는 풍속을 이야기하며 부채를 간접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세종이 공조(工曹)에 명하여 단선(團扇) 10자루와 접선 88자루를 만들어 주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5월 4일(정유일)에는 명나라의 두 사신에게 원선(圓扇) 10자루와 접선 80자루를 나누어 증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듬해인 세종 9년 5월 5일(임진일)에도 중국의 세 사신에게 접선과 원선을 하사하였으며, 그 이후 중국 사신에게 단옷날 부채를 하사하는 풍습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대발원선 연세대학교 박물관 | **효자선** 연세대학교 박물관 | **오죽흑선** 국립민속박물관 | **팔덕선** 국립민속박물관



합죽선 국립민속박물관 | **곡두연엽선** 연세대학교 박물관 | **미선** 연세대학교 박물관 | **자수단선** 연세대학교 박물관

국내의 사선(賜扇)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 선조 37년 5월 5일(을묘일)에 "단오절이라 임금이 승정원, 홍문관, 실록청, 교정청의 관원들에게 특별히 주찬과 부채를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다.

내용 단오진선과 사선의 풍습에 대해서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공조에서는 단오선을 만들어 바친다. 그러면 임금은 그것을 각 궁에 속한 하인과 재상, 시종신에게 나누어준다. 그 부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흰 화살 같은 대나무살이 40개부터 50개에 이른다. 이것을 백첩이라 하고, 칠한 것을 칠첩이라 한다. 이것을 얻은 사람은 대개가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그린다. …… 전라도와 경상도의 감사와 통제사는 절선(節扇)을 올린다. 그리고 또 예에 따라 조정의 신사와 친지 등에 선사한다. 그리고 부채를 만든 수령도 진상하고 선사한다."라고 하였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공조와 전라도, 경상도 두 감영과 통제영에서는 단오가 되면 부채를 만들어 진상한다. 그러면 조정에서는 이를 시종관 이상 삼영에까지 모두 예에 따라 차이가 있게 나누어준다. 그러면 부채를 얻은 사람은 다시 그것을 자기의 친척, 친구, 묘지기, 전객(佃客: 소작인)에게 나누어준다. 그러므로 속담에 시골에서 생색내는 것은 여름에는 부채요, 겨울에는 달력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해 놓았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도 전라도와 경상도의 감사와 병사는 부채를 조정과 친구들에게 보낸다고 하였다.

공조에서 진상하는 단오진선의 숫자에 대해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篇)에는 대전(大殿)에 오십죽 백반 첩선(五十竹白斑貼扇) 한 자루, 사십죽 백반 첩선(四十竹白斑貼扇) 두 자루, 사십죽 백첩선(四十竹白貼扇) 백 자루, 식선(食扇) 두 자루이며, 중궁전에 오십죽 주반사 첩선(五十竹朱斑紗貼扇) 한 자루, 사십죽 백반 첩선 두 자루, 사십죽 백첩선 사십 자루, 식선 두 자루이다. 왕대비전에는 오십죽 주반사 첩선 한 자루, 사십죽 백반 첩선 두 자루, 사십죽 백첩선 팔십 자루, 식선 두 자루이며, 혜경궁(惠慶宮; 사도세자 빈 홍씨의 궁호. 정조의 어머니)에는 오십죽 주반사 첩선 한 자루, 사십죽 백반 첩선 두 자루, 사십죽 백첩선 팔십 자루, 식선(食扇) 두 자루이고, 가순궁(嘉順宮; 유빈 박씨의 궁호. 순조의 사친)에는 오십죽 주반사 첩선 한 자루, 사십죽 백반 첩선 두 자루, 사십죽 백첩선 오십 자루, 식선 두 자루로 기록되어 있다.

『만기요람』보다 늦은 고종 때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 공전(工典) 진상(進上)의 단오진상에 "오십죽 백반 첩선은 각 전궁에 한 자루로 하되 내전에는 주반사 첩선, 순화궁(順和宮: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에는 흑칠사첩선(黑漆紗貼扇)으로 한다. 사십죽 백반 첩선은 각 궁전에 두 자루로 한다. 사십죽 백첩선은 대전에 백 자루, 자전에 각 팔십 자루, 중궁전 사십 자루, 순화궁에 열 자루로 한다. 식선은 각 전에 두 자루, 순화궁에 한 자루로 한다."라는 기록이 있어 공조에서 각 궁에 진상하는 단오선의 숫자는 조선 초기부터 위의 기록과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오진선은 조세의 일종으로 진상하지 않거나 조잡할 경우 문책하였으며, 천재지변 같은 재난 시에는 경감하였고 필요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20년 5월 7일(갑자일)에는 선종(禪宗), 교종(敎宗), 원각사에서는 관례(慣禮)에 따라 매년 단오절에 원선을 바치는데, 지금까지 세 사찰에서 모두 진공하지 않은 사정을 끝까지 추문하여 아뢰라는 전교가 있었다. 또 광해군 9년 5월 5일(무진일)에는 경상 좌병사가 단오절에 봉진한 부채가 너무 거칠어서 외방의 신하로서 위를 받드는 정성이 없고 불경스러움이 심하므로 각별히 추고(推考)하여 뒷사람을 경계시키라는 전교를 내리기도 하였다.

정조 17년 8월 29일(기축일)에는 매년 단옷날이면 경상도와 전라도의 감영 및 통제영에서 부채를 조정의 관원들에게 두루 선물하는 일이 예전부터 전해오는 전례인데, 통제사 이윤경(李潤慶)이 임기가 만료되어 체직(遞職)당하게 되자 흉년이 들었다고 핑계하면서 연례로 하는 일을 폐지하였으므로 이를 문제삼기도 하였다.

광해군 8년 5월 10일(기묘일)에는 비망기로 단오에 진상한 유선(油扇)은 여러 도감에 거의 다 나누어주고 내탕고에 저축된 것이 없는데, 뜻밖에 쓸 곳이 생길지도 모르니 유선 각 삼백 자루를 속히 정밀하게 만들어 올려 보낼 것을 경상도와 전라도의 감사에게 하유(下諭)하라고 일렀다.

한편 인조 18년 1월 12일(갑오일) 및 22년 1월 27

일(병진일)에 예조에서 변란(이괄의 난으로 추정) 뒤에 재감(裁減)한 단오부채를 관례에 따라 봉진케 하자는 건의를 윤허하지 않기도 하였다. 현종 11년 12월 3일(병술일) 및 고종 13년, 25년에도 기근과 가뭄 등의 흉년으로 인해 단오에 올리는 부채를 감하도록 하였다.

단오절의 부채는 상부 관청에 대한 중요한 증여품목이 되어 사치해지면서 합죽선(合竹扇)과 같은 재료가 많이 드는 새로운 형태가 양산(量産)되어 대밭을 가진 백성들에게 공출을 강요하고, 죽전(竹田)이 고갈되는 폐단이 생기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권41 11월 27일(신해일)에 정조는 양남(兩南: 경상, 전라)의 암행어사 서유문(徐有聞)을 춘당대에 불러 전남 흥양(興陽: 현 고흥)의 단오진선에 따른 죽전의 피해를 보고하면서 시수(矢數)가 많고 과다하게 큰 부채, 합죽선(合竹扇), 칠선, 뿔을 댄 부채는 일절 금하고 선제(扇制)는 견박(堅朴)하게만 하자고 하였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萬機要覽, 洌陽歲時記, 六典條例, 朝鮮王朝實錄.
필자 | 김삼대자(金三代子)

단오선(端午扇)

⇨ 단오부채[端午扇]: 여름편

단오성묘(端午省墓)

⇨ 단오절사(端午節祀): 여름편

단오절사(端午節祀)

정의 단오를 맞이하여 지내는 조상제사. 절사(節祀)란 계절이나 명절이 바뀜에 따라 지내는 제사이다. 유사한 개념으로 차례(茶禮)가 있는데, 이는 음력 설날이나 매달 삭망일, 곧 초하룻날과 보름날 간단히 음식을 차려놓고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다례라고도 하고 차사(茶祀)라고도 한다. 반면 절사는 사당에서 지내기도 하고, 산소에 올라가서 지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묘제(墓祭)가 발달하였다. 그래서 설날, 한식, 단오, 추석 4대 명절에 주로 행하는 묘제를 절사라고 하는 것이다.

내용 신라에서는 8월의 가배 행사처럼 5월에 단오 행사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 제사와 관련한 절일(節日)로는 현종(顯宗) 6년(1015)에 정월 초하루와 5월 단오에 돌아가신 조부모와 부모에게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사(高麗史)』 지(志) 38권 형법(刑法) 금형조(禁刑條)에는 속절(俗節)로 원정(元正), 상원(上元), 한식(寒食), 상사(上巳), 단오(端午), 팔관(八關), 추석(秋夕), 중구(重九), 동지(冬至)를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통적인 유두(流頭), 정조(正朝)와 함께 단오에 제례 형식을 갖춘 절사를 지냈다. 고려 말기에 오면 사중월(四仲月)에 지내는 정제(正祭)를 제외한 정조, 단오, 추석에는 그 계절에 나오는 음식을 올리고 술을 드리며 축문은 없다고 하여 소위 단오절사가 계속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사대부가에서는 기제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따르게 되지만, 이 중 속절 및 그에 따른 가례 행사에는 여전히 주자가 제시한 중국 것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주자의 『가례』에 따르면 속절은 청명(淸明), 한식(寒食), 중오(重午), 중원(中元), 중양(重陽)이고, 묘제(墓祭)는 3월 상순에 택일하여 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한식, 단오, 중추를 속절로 정의하였고, 왕실의 묘제(墓祭)는 이때 모두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언적(李彦迪)은 『봉선잡의(奉先雜儀)』에서 "정조, 한식, 단오, 중추, 중양을 속절로 여겨 아침 일찍 사당에 나아가 천식(薦食)하고, 이어 묘 앞에 나아가 전배(奠拜)한다."라고 하였다. 이이(李珥)는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속절과는 별도로 사명일(四名日), 곧 정조, 한식, 단오, 추석에 묘제를 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상안(高尙顔)의 『태촌집(泰村集)』에서는 묘제에 관한 언급이 없어 단오 때의 제사가 산소가 아닌 사당에서 행해졌음을 전하고 있다. 이때 올리는 제물은 각서(角黍)로 떡을 대신하고, 어육(魚肉)은 적(炙) 1미(味)와 탕(湯) 2미라고 하였다.

이후 단오 때 묘제를 행하는가의 여부는 예서(禮書)마다 또는 지방마다 다양하게 나타났고, 논농사의 비중이 커진 조선 후기 중부 이남지역에서는 절일로서의 단오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규경(李圭

景)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단오 때 묘(廟)와 묘(墓)에서 모두 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 것처럼, 이의 설정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아 사시제(四時祭)를 대신한 친미진지위(親未盡之位), 곧 고조부모 이하에 대한 우리 고유의 절사체계(節祀體系)로 굳어져 갔다.

의의 묘제의 한 형태로 행해져 온 단오절사는 중국의 주자가례와는 형식이 다른 우리 고유의 제사방식이며, 그 유래도 깊은 세시의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擊蒙要訣, 高麗史, 國朝五禮儀, 奉先雜儀, 五洲衍文長箋散稿, 朱子家禮, 泰村集.

필자 | 정승모(鄭勝謨)

단오차례(端午茶禮)

⇨ 단오절사(端午節祀): 여름편

단오첩(端午帖)

정의 음력 5월 5일 단옷날 신하들이 단오절을 축하하는 시를 지어 궁중에 올린 첩자(帖子).

내용 단오절을 축하하는 시를 짓는 풍습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조선 후기까지 내려온 풍속이다. 우리나라의 기록으로는 『고려사(高麗史)』 권12 「세가(世家)」 12, 예종 11년 5월 병신일조에 "병신일에 왕이 단오시를 지어 좌우에 널리 보이고 화답하여 올리도록 하였다(丙申日 王賦端午詩 宣示左右 令和進)."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단오첩자와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단오절을 축하하여 시를 짓는 풍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 여원명(呂原明)의 『세시잡기(歲時雜記)』 정월, 원일 연상시(延祥詩) 춘첩자(春帖子)에도 "학사원(學士院)에서 단오 한 달 전에 합문(閤門)에 붙일 첩자를 지어서 기일 내에 대궐로 진상해 들여보낸다."라고 하여 우리의 단오첩자와 연관이 있을 듯하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승정원(承政院)에서 시종(侍從)과 당하문신(堂下文臣)들을 미리 뽑아 연상시를 지어 바치게 한다. 관각(館閣)의 제학(提學)에게 오언 혹은 칠언의 율시(律詩)와 절구(絶句)를 짓기 위한 운자(韻字)를 내게 하여, 등수를 매겨 뽑힌 것들을 대궐 각전(各殿)의 기둥과 상인방(上引枋)에 써서 붙인다. 입춘의 춘첩자와 단오의 단오첩도 모두 이 예를 따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에 따라 단오첩을 짓고 진상된 단오첩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한 수를 택하여 궁문에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첩자의 내용은 단오절을 축하하는 축시였다. 『성종실록(成宗實錄)』 23년 5월 2일에 임금이 시 짓는 풍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첩자를 만드는 데 있어 상세하게 장려하였는데, 첩자 자체가 학문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분담해서 옛 풍속을 지키는 것에 그치자 성종이 "요즈음 첩자를 보건대, 대부분 마음을 써서 만들어 바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시를 잘 짓는 재상으로 하여금 그 고하를 매기도록 하여 으뜸에 해당하는 자는 논상(論賞)하도록 하라."라는 전교를 내렸다는 기사가 있고, 『영조실록(英祖實錄)』 38년 5월 3일에는 진상된 단오첩이 옳지 못한 일을 고치도록 사리(事理)를 말하여 간하는 규간(規諫)의 내용이 없이 찬미나 과찬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로 보아 단오첩의 내용은 단오를 축하하는 내용과 더불어 규간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며, 점차 왕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흐르기도 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高麗史, 東國歲時記, 成宗實錄, 歲時雜記, 洌陽歲時記, 英祖實錄, 韓國歲時風俗(任東權, 瑞文堂, 1976), 韓國歲時風俗記(姜舞鶴, 東湖書舘, 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필자 | 김윤정(金潤貞)

문소전제(文昭殿祭)

⇨ 문소전제(文昭殿祭): 봄편

문호장굿(文戶長 -)

정의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에서 매년 단오에 문호장(文戶長)을 모시는 굿. 문호장을 모시기 위한 굿이므로 문호장굿, 호장굿이라 불리며, 단오에 거행되기 때문에 단오굿, 영산단오굿, 봄굿으로도 불린다.

유래 문호장굿에는 문호장을 신으로 모시게 된 내력이 있다. 옛날 영산에 호장(戶長)이라는 향직 벼슬을 하는 문(文)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는데, 도














〈문호장굿〉 1 문호장 탱화 2 유교식 제사 3 굿청 4 문호장제사굿 5 문호장위로굿 6 천왕호장굿 7 문호장역의 제주 8 시왕풀이굿 9 해원천도굿 10 해원천도굿 11 소제 12 소제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국립민속박물관

술과 신통력, 무술에 달통한 사람이었다. 어느 해 관찰사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는 문호장의 능력을 매우 두려워하여 훗날을 망칠 화근으로 여겼다. 이에 문호장을 없애려 하였지만 쉽지 않았다. 이런 차에 문호장은 관찰사에게 찾아가 자신을 위한 당(堂)을 지어줄 것과 단옷날 그 당에서 자신을 위한 굿을 올려준다면 스스로 목숨을 거두겠다는 제안을 한다. 관찰사의 약속을 얻어낸 후 문호장은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고, 관찰사의 약조대로 매년 단옷날 굿을 행하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간 단오굿을 치르지 않은 해도 있었는데, 근처 마을 주민들이 호환(虎患)의 피해를 입었다거나 굿에 사용할 쌀을 먹은 참새가 즉사하였을 때이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보아 당의 영험성을 크게 믿었던 것 같다.

내용 굿은 영취산 중턱에 지어진 문호장 사당에서 거행된다. 옛 사당을 헐고 근래에 다시 지은 것인데 홑처마에 팔작지붕을 얹은 세 칸짜리 건물이다. 현판에는 문성황각(文城隍閣)이라 새겨져 있다. 원래는 문호장과 그의 딸, 본처와 첩 이렇게 각각의 사당이 하나씩 있어 총 네 개의 사당이 영취산 중턱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사당에 모두 모셔져 있다.

현재 하나 남은 사당의 내부 중앙에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문호장을 그린 탱화와 호장문선생신위(戶長文先生神位)라 적힌 위패가 모셔져 있다. 왼쪽에는 문호장의 두 부인과 딸이 그려진 탱화가 있고 오른쪽에는 산신의 탱화가 모셔져 있다. 문호장 탱화와 오른쪽 산신 탱화 사이에 목불상 하나가 모셔져 있는데, 이는 문호장 사당 뒤에 서 있던 나무를 베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이라 전한다.

예전의 문호장굿은 매우 큰 굿이었다. 1968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준비에서부터 굿을 마칠 때까지 닷새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근간 문호장굿은 규모가 축소되어 단오 전날에 준비를 시작하여 단옷날 굿을 연행하고 마친다. 우선 단오 전날 저녁 문호장을 위한 유교식 제사가 치러지고 다음날을 위한 굿청이 마련된다. 단옷날 아침부터 굿이 시작되는데 각 거리는 다음과 같다.

① 팔도당산 선왕마당굿: 팔도의 당산과 팔도 고을의 수호신을 모시고 굿의 시작을 알린다. ② 부정굿: 굿청의 부정한 것을 물린다. ③ 문호장 제사굿: 문호장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린다. ④ 문호장 위령굿: 문호장과 그의 딸, 부인과 첩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각각 맞는 복장으로 등장하여 춤을 춘다. ⑤ 천왕호장굿: 무당이 단지 위에 올라 춤을 춘다. 오방신장기와 장군칼 등을 사용한다. ⑥ 시왕풀이굿: 명부의 시왕을 모셔 죽은 혼의 천도를 구한다. ⑦ 해원천도굿: 죽은 조상을 천도하기 위해 용선을 띄우고 베를 가른다. ⑧ 마당굿: 모든 참가자가 어울려 한바탕 춤판을 벌인다. ⑨ 회향시석굿: 모든 망자와 저승사자를 모셔 놀리고 잡귀잡신을 대접하여 돌려보낸다.

의의 문호장굿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인물을 위해 굿을 거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호장이 실존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당에 모셔진 탱화에서 호랑이를 타고 있는 모습이나 위패 등의 모습을 보건대, 일반적인 산신 개념이 지역 설화와 유착되어 문호장이라는 산신 성격의 구체적 인물로 표현된 듯하다.

참고문헌 | 文戶長굿(金光彦, 韓國文化人類學2, 韓國文化人類學會, 1969).

필자 | 김창호(金昌鎬)

상음신사제(霜陰神祠祭)

정의 단오를 맞아 함경남도 안변 지방의 상음신사(霜陰神祠)에서 벌이던 군현의례의 하나.

유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 사묘조(祠廟條)에 상음신사(霜陰神祠)를 소개하면서 이 신(神)을 선위(宣威)의 부인이라 하고 매년 단오 때 선위대왕(宣威大王)을 모셔와 이곳에서 함께 제를 지낸다고 하였다. 1840년대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 양자간에 300년이 넘는 간격이 있지만 조선 후기에도 지속되어 온 단오절 군현의례로 여겨진다.

내용 상음(霜陰)은 안변군 동부 지방에 있던 통일신라 때의 지역 명칭으로 본래 고구려의 살한현(薩寒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상음으로 고쳐 삭정군(朔庭郡), 곧 안변군에 속하게 하였다. 안변군은 조선시대 태조 3년(1394)에 현(縣)으로서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이듬해 도호부로 승격되었으며, 세조(世祖) 때는 진(鎭)을 두기도 하였다.

상음신사는 속설에 선위대왕, 곧 안변도호부 성황신의 부인을 모시는 사당이라고 전해진다. 매년 단오가 되면 성황사의 선위대왕신을 이 신사로 모셔와 부부를 함께 제사지낸다는 것 밖에는 더 이상 추가할 고증자료가 현재까지는 없다. 그러나 이 지역이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쪽이 강원도에 접해 있으며, 의례의 형식 또한 강원도 강릉단오제와 유사한 점이 있어 지방향리가 주관하는 이 일대 군현의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상음신사제는 대관령 성황사의 성황대신을 부인당으로 모시고 와서 남대천변에서 행사를 하는 강릉단오제와 거의 동일한 의례구조를 갖는다. 지리적으로는 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도 안산 군자봉 성황대신의 경우와도 유사하다. 특히 폐현과 관련하여 기존 향권세력들이나 주민들이 위와 같이 성황신사 간의 연계 의례를 통하여 존속기반을 새로 마련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新增東國輿地勝覽 .
필자 | 정승모(鄭勝謨)

앵두천신[櫻桃薦新]

정의 음력 5월 단오절을 맞아 새로 수확한 앵두열매를 제물로 바치는 천신의례.

내용 천신이란 계절에 따라 새로 난 과일이나 기타 농산물을 제물로 하여 신주나 신에게 먼저 올리는 제사의 일종이다. 여름이 되면 임금은 보리, 밀, 고미(菰米) 등으로 종묘에 천신제사를 지낸다. 『예기(禮記)』「월령(月令)」에 "초여름에 농가에서 천자에게 보리를 올리면 천자는 고기보다 보리를 먼저 맛보시며, 이를 시식하기 전에 종묘에 천신한다."라고 하였고, 함도(含桃)로 침묘(寢廟)에 먼저 천신한다고 하였다. 함도란 앵두를 말한다. 최식(崔寔)의 『월령(月令)』에는 "초복에 보리와 고미를 조상의 사당에 천신한다."라고 하여 중국의 경우 사당이 있는 사대부집에서도 천신제사를 지냈다. 우리나라의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단오절을 맞아 올라가는 과일로써 앵두를 강조하는 뜻에서 앵두천신이란 말이 생겼다.

권벽(權擘)의 『습재집(習齋集)』에 실린 시 중에 "매년 붉은 앵두가 익으니, 곧 단옷날이 되리라."라는 구절이 있고, 김용(金涌)의 『운천집(雲川集)』에는 단오첩을 받고 축하하면서 "앵병(櫻餠)의 맛봄은 단약(丹藥)의 솥이요, 포료(蒲醪)의 향기는 자하배(紫霞杯)를 적신다."라고 하였다. 곧 단옷날에는 새로 난 과일로 앵두를 제상에 올려 천신의례를 행하기도 하였지만, 시에 나오는 것처럼 앵두편[櫻餠]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앵두와 관련한 시절음식으로 앵두를 약간 삶은 다음 꿀을 끓여 담근 앵도숙(櫻桃熟), 꿀에 잰 앵두를 꿀물에 탄 앵두화채, 씨를 뺀 앵두를 졸여 만든 앵두정과가 있다.

지역사례 경상북도 안동 하회의 풍산 유씨 충효당(忠孝堂)은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 공을 세운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고택으로 종손이 살고 있다. 이곳에서 서애의 기일(忌日)에 행해지는 불천위(不遷位) 제사 때 제물로 앵두를 올린다. 서애의 기일은 단옷날 다음인 음력 5월 6일이어서 단오천신을 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習齋集, 禮記, 雲川集, 月令.
필자 | 정승모(鄭勝謨)





1 앵두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2 서애 불천위 제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국립민속박물관





1~3 오금잠제
강원도 삼척시 삼척문화원

오금잠제(烏金簪祭)

정의 강원도 삼척지역에서 마을의 수호신격인 오금잠신(烏金簪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오제(端午祭). 오금잠굿 또는 오금잠놀이라고도 한다. 이 민속행사는 음력 4월 초부터 5월 단오까지 한 달간 무당 집단이 주도하는 마을굿 형태로 진행된다.

유래 구전에 신라 공주 또는 고려 태조의 것이라는 오금잠(烏金簪: 검은빛 비녀)을 함에서 꺼내 모시는 굿이라고 한다.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에는 "읍에는 금비녀 한 벌이 있었다.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는 것인데, 잘 봉함하여 성황사에 넣어두고 주민들이 신명처럼 신봉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채제공(蔡濟恭)의 『번암집(樊巖集)』「오금잠제(烏金簪祭)」에는 "서낭당이 옛 성에 세워져 해마다 5월 5일 단오제 때 잠신을 무당이 출유(出遊)하게 함으로써 삼척 고을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라고 노래하였다. 오금잠은 처음에 고대 신라 또는 고려 때 왕신격(王神格)이었으나 점차 태백산 산신령인 백두옹(白頭翁)으로 인식되어 삼척의 마을신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오금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금잠제는 단오행사로 고대로부터 내려온 무속 중심의 집단 세시의례로 보인다.

변천과정 오금잠제는 고려초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성황사에 모신 비녀신격을 단오 마을굿 형태로 전승해 온 민속행사였다. 16세기 말부터 오금잠제가 삼척부사로 온 남효원(1575), 허목(1652), 정언횡(1653), 이지온(1655) 등에 의해 금지되었다가 거듭되살아나 19세기 초까지 전승되었다. 허목이 쓴 『척주지』에 오금잠제의 실상이 잘 나타나 있다. 아울러 신체물(神體物)인 오금잠도 수난을 겪어왔다. 신체는 비단옷을 입힌 비녀로 기술한 것으로 보아 사람 크기의 신상(神像)이었다. 잠신은 경외의 대상이었고 신이(神異)의 기년행사(祈年行事)로서 마을지킴이였다. 허목이 오금잠을 백두옹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후대로 내려오면서 태백산신(太白山神)으로 받아들여진 듯하다. 구전에는 태백산 백두옹이 단종(端宗)으로 나타난다.

잠신은 단오 굿판에 영신(迎神)되어 오신(娛神)과 송신(送神) 과정을 거쳐 다시 갈야산 두랑당(斗郞堂)에 모셔졌다. 단오 무렵이 되면 오금잠은 신사 밖으로 모셔져 굿판에서 신으로 대접받았다. 무당은 잠신의 신통력을 통해 지역민의 소망을 풀어주는 구실을 하였다. 그 대신 마을 사람들은 굿을 해주는 무당들에게 재물을 주고 운수를 묻기도 하고, 삼재가 들었을 때에는 처방을 받기도 하였다.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는 "관리와 백성들이 신을 받들고 매년 5월 5일 단옷날에 무당과 박수, 재인들이 수십 명씩 무리지어 그 신을 축복하고 관리들이 경내를 돌았는데, 이를 단오사(端午使)라 일컬었다."라고 했다.

단오의 본행사는 무당들이 3일 동안 대제(大祭)를 올리는데 호장(戶長)이 먼저 주관하여 대금계제(大禁戒祭)를 올리고 엄격히 금기를 지켰다. 이 기간에는 나그네도 재우지 않고 부정한 행위를 금했다. 예비행사로 간단한 굿거리 행사를 4월 초부터 거행하고 본 행사는 단옷날을 포함하여 3일 동안 치렀다. 오금잠제는 읍치(邑治) 단위로 이루어졌다. 삼척 일대의 마을 사람들이 고대부터 행해 온 단오의례로서 공동체 민속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오금잠제와 관련된 대동놀이 삼척기줄다리기는 관에서 오금잠제를 제한하자 오히려 집단유희

로 확대되어 전승되었다. 강원도 영동지역의 산간 해안 마을의 단오굿-1960년대까지 큰 마을마다 전승된 단오 마을굿-을 이해할 수 있는 문헌 속의 단오의례인 셈이다. 오금잠제는 1993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오금잠놀이로 재현되었고, 그 후 죽서문화제(竹西文化祭)에서도 오금잠굿으로 시연(試演)되었다.

내용 단오사(端午使)의 기록으로 보아 오금잠제를 주도하는 세습무 집단이 존속한 듯하다. 삼척은 강원도에서 무속권이 강한 곳이었다. 이들은 동해안 단오문화권을 이끌면서 오금잠에 신탁(神託)하여 오금잠제를 주제하였다. 오금잠의 생생력(生生力) 상징은 생산의례의 원초적인 발상이다. 오금잠의 정체는 무속적 신격인 동시에 삼척 지역 수호신의 성격을 지닌다. 4월 초에 신물(神物)을 모시는 과정에서부터 단옷날 굿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단오의례의 봉안굿-무당굿[巫祭]-송신제 순으로 파종의례(播種儀禮)의 벽사진경(**辟**邪進慶)을 강조하였다. 채제공의 「오금잠제」에 무당이 인도하는 굿에서 "큰 부채 펼쳐들고 나풀나풀 춤추니 삼척 고을 난수백 호 들떠있네."라는 표현은 오늘날 강릉단오제를 연상하게 한다. 무당이 잠신의 말을 대신 전하면서 길흉과 화복을 통해 사람들의 소망을 덜어준다고 했다.

잠신은 기자(祈子), 제액(除厄), 초복(招福), 구역(狗疫) 등을 해결하는 권능을 지닌다. 오금잠제에서 무당은 잠신과 인간의 영매자로서 잠신의 신통을 통해 주술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비록 문헌 속 오금잠제의 연행양상이지만 오늘날 동해안별신굿의 형태를 띤다. 현전하는 삼척 미로단오굿에서 보이는 삼척 산메기 요소와 잔받이(점치기와 소지 올리기)나 상다림(조상 치성)의 일면과 상통한다. 무당굿의 절차도 오금잠신의 맞이굿을 중심으로 하여 오금잠의 공수가 이루어지는 풀이굿이 주요 항목으로 연행된 점으로 보아 추정할 수 있다. 풀이굿은 넋풀이, 살풀이, 복풀이 같은 적극적인 주술행위였다.

비녀의 상징은 강릉단오제, 문호장굿, 한장군놀이와 비교해 볼 때 오금잠 문헌 기록대로 본래 특정 인물신(人物神)을 가리킨다. 비녀 신체는 본래 특정 인물을 나타낸 것이었으나, 후대로 전승되면서 본모습은 사라지고 삼척 단오신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후에 무속신, 태백산 백두옹이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그 영험성은 동해안 단오문화권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규모는 삼척 고을을 비롯하여 인근 영동 일대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대표적인 공동체 의례임을 알 수 있다.

오금잠제의 기능은 일차적으로 삼척 지역이 산간과 해안지대로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데 있었다. 농업과 어업 위주의 생업활동에서 정신적 결집의 세시 주기의례라는 점이다. 왕신격과 산신격의 절대적 주술성은 단오문화권에서 무속의례의 구심력으로 작용하였다. 예전부터 단오가 가까웠을 때 잠신을 모시고 오금잠굿을 하면 농사가 잘되고 마을이 안녕하다는 속신이 있었다. 곧 무속 집단은 이러한 오금잠제를 주제(主祭)하면서 오금잠의 신탁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일정 기간 지역민의 신권(神權)을 관리하였다. 오금잠의 생산적 직능은 주제 집단에게는 모의재현 의례이나 타집단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비춰진 일면이 있다. 『목민심서(牧民心書)』에 "주민들이 농사에 관심이 없고 재산을 탕진하고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그 폐해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주술적 권한은 유교적 수령들에 의해 공격 대상이 되어 오금잠제가 유교식 성황제로 대체되는 과정을 초래하였다.

의의 오금잠제는 유교를 신봉하는 위정자들에 의해 소멸될 위기도 있었으나, 단오의례의 원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마을굿이다. 관에 의해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단오유풍 무조신(巫祖神)의 뿌리는 민중의 삶 속에 단오민속소(端午民俗素)로 남아 있다. 관에 의해 오금잠에 신탁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농경의례의 성격을 띤다. 오금잠제의 가치는 태백산신령과 관련해서 볼 때 강원도 산메기 신앙의 요소도 보여, 단오제가 고대부터 내려오는 제천의식(祭天儀式)처럼 공동체 의례를 이루는 축제임을 보여준다. 단오형 세시축제의 원형은 오금잠제이며, 오늘날 강릉단오제와 비교할 만한 서낭굿의 전형이다.

참고문헌 | 東國輿地勝覽, 樊巖集, 眞珠志, 陟州先生案, 陟州誌, 朝鮮巫俗考(李能和, 啓明19, 啓明俱樂部, 1927), 三陟 기줄다리기에 대하여(金善豊, 韓國民俗學8, 韓國民俗學會, 1975), 三陟郡誌(三陟郡, 1985), 許穆의 詩文學과 風俗觀(李

昌植, 韓國文學硏究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6), 三陟地方 烏金簪祭의 構造와 意味(李昌植, 江原民俗學7·8, 江原道民俗學會, 1990), 마을굿 演行樣相 考(김명자, 文化財 25, 文化財管理局, 1992), 강원도민속문화론(김의숙, 집문당, 1995), 民俗文化의 正體性硏究(이창식, 집문당, 2001).
필자 | 이창식(李昌植)

궁궁이꽂기[川芎-]

정의 단옷날 액을 물리치기 위해 궁궁이잎을 머리에 꽂는 풍속. 지역에 따라 궁궁이꽂기, 천궁(川芎) 꽂기라고도 한다.

유래 『제봉집(霽峰集)』에 "창포로 띠를 만들어 땅에 닿도록 드리웠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백주집(白洲集)』에 "창포를 치마에 단다."라는 기록이 있고, 『상촌고(象村稿)』에 "계집아이 새벽에 일어나 창포를 꽂고."라는 기록으로 보아 창포를 머리에 꽂아 벽사(辟邪)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및 지역사례 궁궁이는 천궁(川芎)이라고도 하는데, 미나릿과의 다년초로서 중국 원산의 약용 식물이다. 성질은 온하고 맛은 시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모든 병에 좋고, 외과와 부인병에 많이 쓰인다. 단옷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창포비녀와 함께 궁궁이를 머리에 꽂아 액을 물리치고자 했다. 궁궁이는 독특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궁궁이를 머리에 꽂으면 액을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궁궁이를 머리에 꽂는 것은 주로 여자들의 풍속이지만, 가끔 남자들이 모자 끝에 꽂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풍속은 주로 경상도, 충청북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경북 문경에서는 "궁기(궁궁이) 냄새 좋아 그네 뛴다.", "냄새 좋구나, 궁궁아 내 머리 끝에 돌아라."라는 그네뛰기 노랫말도 있다. 영주에서는 창포뿌리 비녀를 궁궁이라고 한다. 예천, 봉화에서는 천궁을 꽂는다고 한다. 청송에서는 창포와 궁궁이를 함께 꽂는다고 하여 이 둘이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의 궁궁이의 독특한 향을 통해 벽사를 하는 기능은 물론, 단옷날 아침 창포로 머리를 감고 궁궁이를 꽂아 머리의 향을 오래 유지하는 기능성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白洲集, 象村稿, 霽峰集,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신문·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김시덕(金時德)

단오물[端午雨]

정의 단오에 내리는 비[雨]를 이르는 말. 단오물은 단옷날 내리는 비를 말하지만, 단옷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기후점(氣候占)의 하나이기도 하다.

내용 단오물 풍속은 농경문화가 정착되고 단오 같은 속절(俗節)이 정착한 이후에 생겨난 세시풍속으로 볼 수 있다. 단오물에 대한 인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충남 부여·예산·금산·천안, 전북 진안에서는 단오에 비가 오면 논농사에 좋다고 여긴다. 부여에서는 "단오물 든다." 하여 긍정적으로 여기고, 예산에서는 단오에 비가 오지 않으므로 "단오물은 정승하기보다 더 어렵다." 할 정도로 단오물을




1 궁궁이
2 궁궁이 꽃기
경남 경산시 최호식


오늘은 단오절 놀이보다 비가 간절
동아일보 1955년 6월 24일

기다린다. 금산과 천안에서는 모내기에 필요한 비로 여긴다. 전북 진안에서는 "단오물 지워서(기다려서) 모심는다."라고 할 정도이다. 전남에서는 "단오에 비가 오면 시절이 좋다." 하였다.

반면 경남 마산과 양산에서는 단오에 비가 오면 잡곡농사가 잘되고, 맑으면 논농사가 잘된다고 한다. 또 부산에서는 "단옷날 그넷줄에 물이 흐르면 그 해 농사는 흉년이 든다."라고 하였다.

의의 올벼는 단오 무렵에 모내기를 해야 하므로 단옷날 비가 오면 반가워했다. 그러나 단옷날 비올 확률이 낮으므로 단옷날 비를 통해 농사의 풍흉을 점쳐 위안으로 삼았던 지혜가 엿보인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시덕(金時德)

단오부적(端午符籍)

정의 단오를 맞아 그 해의 액을 쫓기 위해서 쓰는 부적. 단오부(端午符), 천중부적(天中符籍), 치우부적(蚩尤符籍)이라고도 한다.

내용 단오는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날이다. 이날 부적을 쓰면 잡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집안의 재액도 모두 소멸될 수 있다고 믿었다. 단오에는 그 해 불길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주부가 절에서 부적을 받아와 집안의 방문 위나 부엌 벽에 붙였다. 또한 단오에 내의원에서 제호탕(醍醐湯)과 옥추단(玉樞丹)을 만들어 바치는 것이나, 창포의 뿌리로 만든 창포비녀도 단오의 양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주술행위이다.

『태종실록(太宗實錄)』 태종 21년 기록을 보면, 태종이 단오부적을 보고 글귀의 내용이 모두 다른 이유를 물었는데, 이때 답변을 한 사람은 경사(經師)로 있는 승려였다. 하지만 이 승려는 자신의 스승이 전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태종은 경사를 없애고 서운관(書雲觀)에서 관장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하들의 만류로 그만두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당시 단오부적의 제작을 천문관측 및 역서와 절기를 담당하던 서운관에서 담당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서운관은 세조 때 관상감(觀象監)으로 명칭이 바뀌고 단오부적을 담당하는 기구가 된다. 따라서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까지 부적의 제작 배포를 승려가 전담했지만, 점차 승려를 배제하고 관리가 전담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관상감에서 주사(朱砂)로 벽사문을 찍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대궐 안의 문설주에 붙였다고 한다. 또한 경사대부(卿士大夫)의 집에서도 이것을 붙인다는 기록으로 보아, 민간에서도 그 풍속이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득공은 단오 풍속이 한나라 때 "도인(桃印), 곧 복숭아나무로 만든 도장으로 사악한 기운을 멈춘다."라는 기록과 『포박자(抱朴子)』에 "적령부(赤靈符)를 만든다."라는 기록을 근거로 중국에서부터 단오풍속과 부적 붙이는 풍속이 생겼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처용의 얼굴을 그린 부적이나 비형랑과 관련한 부적이 사용되었다. 이것으로 보



단오부적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아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이와 유사한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이것과 함께 또 한 장의 부적을 찍는데, 그 내용이 매우 길다. 내용은 12신을 불러 잡귀를 쫓는 것으로 만일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이들의 양식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甲作食凶 **胇**胃食虎 雄伯食魅 騰簡食不祥 攬諸食咎 伯奇食夢 强梁祖明共食**胇**死 寄生 委隨食觀 錯斷食巨 窮奇騰根共食蠱 凡使十二神 追惡凶 **嚇**汝軀 拉汝幹節 解汝肌肉 抽汝肺腸 汝不急去 後者爲糧." 이것은 『후한서(後漢書)』「예의지(禮儀志)」에서 나례(儺禮)를 행하여 역질을 쫓아낼 때 사용한 글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太宗實錄, 抱朴子, 後漢書,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필자 | 김종대(金宗大)

단오장(端午粧)

정의 음력 5월 5일 단오에 나쁜 귀신을 없앤다는 뜻에서 행하던 여자들의 치장(治粧). 벽사의 의미를 담아 옷을 해 입기도 하고 창포탕(菖蒲湯)에 머리를 감기도 하며, 여러 가지 치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 단오는 여름이 접어드는 시기의 명절이다. 양수(陽數)가 겹치는 음력 5월 5일은 세상 만물이 살아 움직이는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로 여겨, 다른 명절과 달리 금기(禁忌)가 많았다. 놀이나 심지어 음식에도 병이나 액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이 담겨 있으며, 이 날 풍습인 단오장(端午粧)도 예외가 아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창포탕에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고, 목욕을 하고, 홍색과 녹색의 새 옷을 입으며, 머리에는 창포잠(菖蒲簪)을 꽂는 것을 단오장(端午粧)이라 하였다. 『세시잡기(歲時雜記)』에는 단옷날 아이들을 위하여 창포를 베어 만든 작은 인형이나 호로(胡蘆) 모양의 장신구를 차게 하여 재앙을 물리치고자 했다고 한다. 이 장신구는 어른들이 만들어 차기도 하였다.

또한 단옷날 창포탕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 윤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여, 여자들은 창포잎과 뿌리를 삶아 창포탕을 만들어 머리를 감았다. 중국의 『대대례(大戴禮)』에도 "5월 5일에 축란(蓄蘭)으로 목욕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창포탕에 감은 머리를 단장하고 창포잠을 꽂는다. 창포잠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수(壽)자나 행복을 기원하는 복(福)자를 새겼고, 창포잠 끝에는 붉은 연지를 발랐다. 붉은 연지를 바른 창포잠을 머리에 꽂으면 액을 물리쳐 머리가 아프지 않게 되고 무병한다고 믿었다. 이는 조선시대 관상감(觀象監)에서 단옷날 주사(朱砂)를 박아 만든 천중부(天中符)라는 붉은 부적을 대궐 문설주에 발라 재액(災厄)을 막은 풍습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단옷날 아침에 창포에 맺힌 이슬을 받아 화장수로도 사용하였다. 이슬을 얼굴에 바르거나 또는 분을 개어 발랐는데, 이 풍습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기 지방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에서 단옷날 이른 아침에 상추에 맺힌 이슬을 받아 분을 개어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고와지고 버짐이 안 생기며, 아이들에게는 땀띠가 안 생긴다고 믿었다. 상추의 이슬뿐만 아니라 충남 청양과 아산, 충북 청원에서는 앵두에 맺힌 이슬을 사용하였고, 충북 청원과 경남 거창에서는 나락의 이슬을 사용하였으며, 강원도 횡성에서는 오이순에서 나오는 물을, 경남 함안에서는 분나무에 맺힌 이슬을, 전북 진안에서는 창포에 맺힌 이슬을 받아 얼굴에 바르고, 경남 고성에서는 참깨 잎을 담가두었던 물에 머리를 감고 상추의 이슬로 세수를 하였다.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이슬에 분을 개어 사용하지만, 경남 거제·창

녕·고성, 전북 진안에서는 이슬만 얼굴에 바른다. 분(粉)도 각 지방마다 재료가 다양하여 충북 청원에서는 분나무의 열매를 으깨어 흰 분을 만들었고, 강원도 횡성에서는 화도대공 열매의 씨를 갈아 분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고형분이나 박가분(朴家粉)을 이슬에 개어 얼굴에 발랐다.

이 날은 단오빔을 입어 치장도 하는데, 단오빔은 설빔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옷감의 재료에서 차이가 있다. 이 날 부녀자들은 녹색 저고리에 빨간 치마, 곧 녹의홍상(綠衣紅裳) 차림이고 부인들은 계절에 맞게 흰 모시저고리에 파란 모시치마를 입기도 한다.

참고문헌 | 大戴禮, 東國歲時記, 歲時雜記, 嶺東地方 歲時風俗에 대한 考察(金起卨, 江原民俗學1, 江原道民俗學會·江陵無形文化硏究所, 1983), 韓國民俗學 -개정판-(金東旭 외, 새문社, 1988), 朝鮮女俗考(李能和 著·金尙憶 譯, 東文選, 1990), 韓國人의 敎育歲時風俗(孫仁銖, 文音社 1991), 조선의 민속전통2 -옷차림풍습-(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한국민속학의 이해(민속학회, 문학아카데미, 1994), 韓國傳統文化의 理解(盧武志, 正訓出版社, 1995), 조선민족의 민속세계(조성일, 한국문화사, 1996), 조선풍속사(김내창 편저, 사회과학출판사,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편저, 미술문화, 1998), 우리 문화 길라잡이(국립국어연구원, 학고재, 2002).
필자 | 최수빈(崔秀彬)

대추나무시집보내기

정의 음력 5월 5일 단오에 대추나무 열매가 많이 열리도록 대추나무를 시집보내는 풍속.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단옷날 대추나무를 시집보내는 것은 정오가 좋다. 또 단옷날 정오에 도끼로 여러 과일나무의 가지를 쳐내야 과일이 많이 달린다. 지금의 풍속은 이를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과일나무시집보내기[嫁樹]는 정월 초하루나 정월 보름날에 행하는 풍속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추나무 시집보내는 풍속도 단옷날과 정월 초하루에 행한다는 두 기록이 있어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주로 단옷날에 행하는 풍속으로 전해져 온다.

중국의 기록인 『농상의식촬요(農桑衣食撮**要**)』에는 "오월(五月) 오일(午日)에 대추나무는 시집보낸다고 하여 도끼로 나무 위를 두루 잘 두드리면 열매가 크게 맺히고 맛도 좋아진다."라고 하였다. 반면 『농상집요(農桑輯**要**)』에는 "정월 초하루 해가 뜰 때 도끼를 뒤집어 얼룩얼룩한 방망이로 두드리는 것을 이르러 대추나무시집보내기[嫁棗]라고 하는데, 두드리지 않으면 꽃은 피지만 열매가 없고 자르면 대추가 시들거나 떨어진다."라고 하여 정월 초하룻날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기록의 시기가 다르지만, 도끼를 사용하여 두드리는 방법은 동일하다. 또한 『제민요술(齊民**要**術)』에서도 가조(嫁棗)는 "두드리지 않으면 꽃이 없고 열매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여 앞의 기록에서처럼 대추나무를 두드려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의의 대추나무를 시집보내는 풍습은 사람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혼인을 하여야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두는 행위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 성교의 모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도끼로 나무를 두드리는 행위는 도끼에 신비한 잉태의 힘이 있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끼로 점을 치기도 하는데, 도끼에는 마귀를 쫓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작은 도끼 서너 개를 끈으로 꿴 것이나 이를 넣은 주머니를 부인들이 허리에 차기도 하였다. 특히 혼인 첫날밤 신부는 도끼를 요 밑에 깔아두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두거나 도끼로 나무를 두드리는 행위에서 돌과 도끼는 성교 혹은 남성의 상징으로 믿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農桑衣食撮要, 農桑輯要, 東國歲時記, 齊民要術.
필자 | 김삼기(金三基)



1~2 대추나무시집보내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상추이슬분바르기

정의 부녀자들이 5월 단옷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밤새 상추잎에 떨어진 이슬을 모아 얼굴에 바르는 풍속. 상추이슬분바르기의 이칭으로 아침이슬로 얼굴씻기, 상추이슬로 세수하기, 못자리이슬로 세수하기, 상추이슬받아마시기, 찰벼이슬먹기, 오뉴월이슬먹기가 있다.

내용 및 지역사례 일반적으로 단옷날 이른 아침에 상추잎에 맺힌 이슬로 얼굴을 문질러 씻으면 버짐이나 기미가 없어진다고 하며, 이슬 맺힌 상추잎을 얼굴에 문지르면 피부가 고와진다고 한다. 그리고 상추잎의 이슬을 받아 세수하면 그 해 더위를 먹지 않으며, 땀띠나 부스럼이 없고 피부가 고와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부산 지방에서는 밤이슬을 맞은 찔레꽃을 따서 먹거나 찔레꽃잎을 넣고 잘게 떡을 빚어 나이 수만큼 먹으면 여름에 버짐이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단옷날 여자들이 상추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서 가루분(장분)에 섞어 얼굴에 바르면 버짐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충남 지방에서 여자들이 바르는 분이라면 박가분과 구루미가 전부인데, 단옷날 상추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 박가분과 섞어 얼굴에 바르면 버짐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전남에서는 단옷날 아침에 상추에 맺힌 이슬로 세수를 하면 여름에 땀띠가 나지 않는다 하여 엄마들이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더위 먹지 말라는 의미로 이슬을 먹이기도 한다. 특히 전남 해남이나 완도에서는 상추에 맺힌 이슬이 아니어도 단옷날 아침, 논에 심어 놓은 벼의 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서 세수를 하면 얼굴이 깨끗해지고 좋아진다고 한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여름에 더위를 먹어서 입맛이 없고 속이 더부룩할 때, 찰벼에 내린 이슬을 그릇에 훑어서 먹으면 좋다고 하며 체증도 내려간다고 한다. 경남에서는 오뉴월에 더위를 먹었거나 배앓이를 하면 상추잎이나 풀에 맺힌 이슬을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하며, 특히 오뉴월의 이슬은 약효가 크다고 한다.

의미 상추는 줄기 높이가 1미터 정도이고, 큰 타원형의 잎을 가진 한해살이 혹은 두해살이풀이다. 큰 타원형의 초여름의 농작물 잎보다는 많은 양의 이슬을 모을 수 있기에, 이슬을 모으는 데 주로 상추잎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슬은 근원적으로 물의 뜻을 지니고 있다. 호남 지방의 씻김굿에 '이슬털기'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슬털기는 망자의 영혼을 쑥물과 향물 그리고 맑은 물로 씻기는 과정으로, 망자의 오염된 영혼을 정화시켜서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한 무속적 수단이다. 망자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승에 오염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오염된 것을 이슬로 털어내는 것은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함이다. 이슬은 순결함과 청정함을 상징하고, 물에는 원초적으로 생명력과 정화력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물은 곧 여성적 생산력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슬을 마시거나 얼굴에 바르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재액을 정화시켜 청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도 아침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요, 정화와 벽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이슬은 더욱 영험한 물인 것이다.

단옷날 아침에 부녀자 혹은 아이들이 이슬을 마시거나 얼굴에 바르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재액을 몰아내고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 생명력이 있고 순결한 몸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얼굴에 부스럼, 버짐, 땀띠가 나고 얼굴의 피부가 곱지 않는 것은 얼굴이 청정함을 유지하지 못하여 비롯된 것이며, 더위를 먹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가(民家)에서는 맑은 이슬을 먹으면 장수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신선이 먹는 신성물(神聖物)이라고 하였다. 또 이슬은 약효를 북돋운다 하여 이슬을 받아두는 풍습도 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이슬은 맑고 깨끗하여 특히 화초에 맺히는 것이 진액이고 이것을 마시면 몸과 마음이 함께 아름다워진다고 여겼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한국문화상징사전1(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동아출판사, 1992),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표인주(表仁柱)

애호(艾虎)

정의 쑥으로 만든 범을 가리키는 것. 단오에 애호(艾虎)를 머리에 꽂거나 문에 매달아 잡귀를 막는다.

유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와 『경도잡지(京都雜志)』에 "쑥호랑이[艾虎]를 규장각 각신에게 나누어 주었다(頒艾虎于閣臣)."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동국세시기』에서는 중국의 『세시광기(歲時廣記)』 권21 「세시잡기(歲時雜記)」에 "쑥으로 호랑이를 만들거나 비단을 오려 작은 호랑이를 만들어 쑥잎을 붙여 머리에 꽂는다(今人以艾爲虎形 或剪綵爲小虎粘艾葉以載之)."라는 기록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애호(艾虎) 풍속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서도 「세시잡기」의 내용이 그대로 보이며, 호랑이뿐만 아니라 "쑥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문에 걸어 사귀를 물리쳤다(採艾以爲人 懸門戶上 以禳毒氣)."라고 하였다. 이 인형을 애인(艾人)이라고 한다.

내용 단오에 쑥호랑이를 만들어 잡귀를 막는 것은 단오, 쑥, 호랑이 세 가지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곧, 쑥호랑이는 쑥의 정화력과 범의 용감함을 결합시켜 두 배의 강력한 힘을 지닌 벽사물이 된다.

단오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로 더위를 피해 독을 지닌 뱀, 거미, 전갈, 지네, 개구리 같은 일명 오독(五毒)이 집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독이 싫어하는 쑥, 마늘, 창포 같은 강한 향기를 내는 식물들을 대문에 걸거나 한쪽에 다발을 세워 접근을 막았다. 이처럼 쑥은 강한 살균력과 독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 정화하는 데 많이 쓰인다.

한편 범은 잡귀를 쫓는 벽사물로 자주 등장한다. 새해를 맞아 각 가정에서는 범과 용의 그림을 문이나 벽에 붙인다. 이와 같은 풍속은 『동국세시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호랑이 그림을 문에 그리는 풍속은 중국 춘추시대 때 이미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설문(說文)』에는 호랑이가 산군으로 나타나 있으며, 『풍속통의(風俗通義)』 권8 화호조(畵虎條)에서는 "호랑이는 양생의 동물이요 백수의 왕으로서 능히 벽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민간에서는 말라리아나 콜레라가 발생할 때 호랑이 그림을 문에 붙이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다. 민가(民家)에서는 호랑이뼈를 문에 걸어두기도 하는데, 이는 짐승의 왕인 범을 보고 잡귀가 달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새로 문을 달거나 새 가구를 사면 그곳에 왕(王)자를 쓰기도 한다. 여기서 '왕'자는 단순히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호랑이를 상징한다. 중국 절강성 지역에서는 설[正月]이 되면 대문에 호랑이 그림을 붙인다. 호랑이 그림이 마련되지 않은 집에서는 대문에 '왕'자를 쓴다. 호랑이 이마에 생긴 주름살이 '왕'자이므로, '왕'자만 써도 곧 호랑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겼다. 중국의 호랑이 인형이나 그림을 보면 이마에 모두 '왕'자가 새겨져 있다. '왕'자가 호랑이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수릿날 풍속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날 어린아이의 이마에 웅황주(雄黃酒)로 '왕'자를 그리는데, 그러면 오독이 호랑이[王]를 보고 어린아이에게 덤벼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호랑이를 돌로 새겨 대문이나 무덤 입구에 세워놓기도 하는데, 이것이 죽은 사람의 순장품이 되어 죽은 자의 혼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무덤 무인석의 갑옷, 대(帶)에도 호랑이를 새겨 용맹스러운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기도 한다.

의의 현재에는 쑥호랑이를 매다는 풍속을 볼 수 없으나, 예전에는 쑥호랑이를 대문에 매달아 집안으로 들어오는 잡귀나 액(厄)을 막고자 하였다. 단오가 되면 쑥을 베어 문에 매다는데, 진한 쑥 냄새 때문에 귀신이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재액, 잡신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다. 또 몸에 쑥호랑이를 꽂음으로써 몸 안에 들어오는 질병도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다. 충북 괴산에서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대문 앞에 걸어두었던 쑥에 소금을 뿌리고 불을 피우면 귀신과 잡귀를 잡는다고 여겼다. 이처럼 애호는 쑥의 정화력과 범의 용감함을 상징화하여 재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說文, 歲時廣記, 周禮, 風俗通義, 荊楚歲時記,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정연학(鄭然鶴)

약쑥베기

정의 단오에 뜯은 쑥[艾]이 약효가 있다고 믿어 채취하여 말리는 풍속.

유래 단옷날에는 쑥과 익모초 같은 약초를 채취하는 풍속이 있다. 고려 속요 『동동(動動)』 오월령(五月令)에 "5월 5일애 아으 수릿날 아츰 약(藥)은 즈

믄 힐 장존(長存)ᄒᆞ샬 약이라 받줍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하고 단옷날 약초 채취하는 풍속을 노래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단옷날 오시(午時)에 익모초와 희렴(**稀薟**: 진득찰)을 캐어 볕에 말려 약용(藥用)으로 만든다는 기록이 있다.

내용 이 날 쑥과 익모초, 인동초를 채취하여 말려 두었다가 약재로 쓰는데, 단오에는 무슨 풀이든 약이 된다고 하여 약을 만들거나 약찜을 하였다. 요즘에도 단오가 되면 쑥과 익모초를 채취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단옷날은 일년 중 가장 양기(陽氣)가 왕성한 날이라고 여겨서 양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오시의 쑥을 약용으로 쓴다. 또 단옷날 아침 해뜨기 전에 이슬 맞은 쑥이 약이 된다고 하며, 단오 하루 전날 쑥을 뜯어 밤이슬을 맞힌 후 엮어 말려서 산모의 약이나 여러 병의 상처에 두루 쓰기도 한다. 소[牛]가 난산을 할 때 소등에 약쑥을 놓고 천을 덮은 후 가래로 문지르면 순산한다고도 믿었다.

익모초는 이름 그대로 산모(産母)의 몸에 이로운 풀이라고 하여 부인병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하므로 몸이 냉한 것을 다스리는 데 매우 좋은 약이다. 또한 여름에 입맛이 없거나 더위를 먹었을 때 익모초즙(益母草汁)을 마시면 효과가 있다.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의 익모초에는 "풀이름 익모라 어찌 그리 기이한고, 단옷날 캐어야 약효가 좋아 아들 낳는 데는 물론이고 차고 다니면 단전과 종옥(種玉)에 뛰어난 효과."라고 하였다. 또 『산림경제(山林經濟)』 제4권에는 『의학입문(醫學入門)』을 인용하여 "자식을 얻고 싶거나 월경(月經)을 고르게 하는데 모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부인(婦人)의 선약(仙藥)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약쑥 말리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인동초는 대표적인 여름 식물로 독을 풀고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 열로 인하여 생기는 감기에 효과가 있다. 인동초는 술로 담그면 효과가 빠르다고 하여 말린 인동꽃(금은화) 100그램 정도를 술 1.8리터에 넣어 한 달 정도 숙성시켜 마시는데, 갖가지 종기나 부스럼,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감기나 해열제로 쓸 때에는 말린 인동꽃을 살짝 볶아서 한 번에 2~3그램씩 더운물에 우려내어 차로 마신다.

지역사례 제주도에서는 단옷날 쑥과 익모초, 그 밖에 우령선, 녹이초, 오갈피, 삼지구엽초, 천문동, 띠뿌리, 인동꽃 등 아홉 가지 풀을 뜯어 두었다가 삶아 찜을 하면 부녀자의 산후병에 좋다고 한다. 또 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 샛불히(띠뿌리: 茅根)와 하늘애기(하눌타리)를 넣어 약탕에 달여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제주시 노형동 광평마을에서는 단오에 쑥을 캐어 말렸다가 일년 동안 끓여서 먹거나 쑥엿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단옷날 아침에 말을 하지 않고, 첫 번째 약쑥을 입으로 뜯어야 약효가 있다고 하여 밭둑으로 약쑥을 채취하러 다닌다. 또한 이슬이 맺혀 있어야 약효가 있다 하여 일찍 나가는데, 약쑥은 여름철 배탈이 났을 때 달여 먹으면 효과를 본다고 한다. 아이들이 놀랐을 때에도 약쑥 삶은 물을 먹이며, 여름철 더위를 먹었을 때에도 약쑥을 삶아 그 물을 먹는다. 평창군 용평에서는 단옷날 아침 해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 말을 하지 않고 나가서 이슬 묻은 약쑥을 한두 타래 분량 뿌리째로 뽑아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약효를 좀 더 있게 하려면 제주나 탁주를 입으로 물고 세 모금 뿜어 응달에서 말리는데, 곳에 따라 하루에 세 번씩 아홉 번을 뿜기도 한다. 그 후 시래기 엮어 말리듯 타래를 엮어 기둥에 매달아 통풍이 잘 되는 응달에서 말린다.

전남에서는 아홉 고랑의 풀을 뜯어 말려 두었다가 약찜을 하는데, 약초를 솥에 삶아 뜨거운 채로 방에 깔아놓고 아픈 사람이 맨몸으로 그 위에 누워서 찜질을 하면 아픔을 면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는 산후병에도 좋다. 전북 진안에서는 백 가지 풀을 뜯어두면 약이 된다고 하여, 아침이슬이 마르기 전에 약쑥이나 인동꽃을 따서 말렸다가 약초로 쓴다. 또 단오에 뜯은 약쑥을 해지기 전에 말려서 달여 먹으면 속앓이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山林經濟,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속초의 향토민속(속초문화원, 1992), 세시풍속(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평창군 민속지 -용평면-(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2002).
필자 | 박선애(朴善愛)

옥추단(玉樞丹)

정의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구급약의 하나. 옥추단(玉樞丹)을 추독단(追毒丹)이라고도 한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단오조(端午條)에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제호탕(醍醐湯)을 만들어 바치고, 또 옥추단을 만들어 금박(金箔)을 입혀 바친다. 그러면 그것을 오색실에 꿰어 차고 다녀 재액을 물리친다. 또 그것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에게 나누어준다."라고 하였고,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6월조(六月條)에 "내의원에서는 계하(季夏)의 토왕일(土旺日)에 황제(黃帝)에게 제사하고, 옥추단을 만들어 진상하면 각신(閣臣)들에게 세 개씩 하사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옥추단을 받은 신하들은 옥추단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오색실을 꿰어 차고 다니거나, 부채 끝에 선초(扇貂) 대신 달고 다녀 재액을 물리치고, 고독(蠱毒)이 든 음식을 먹거나 독충 등에 물려 위급할 때 사용하였다.

이처럼 옥추단을 오색실에 꿰어 차고 다니면 재액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의 「풍속통(風俗通)」에서도 보인다. 오채사(五彩絲) 또는 장명루(長命縷), 속명루(續命縷), 벽병증(辟兵繒)이라고 하여 오색실을 남아(男兒)는 왼팔에, 여아(女兒)는 오른팔에 매어 벽사(辟邪), 연년익수(延年益壽)하였던 풍속과 상통하는 만큼, 옥추단을 오색실에 꿰어 차고 다니는 것은 벽사, 연년의 속신에서 행하던 풍속이라 할 수 있다.

제조법 옥추단의 제조법은 자금정(紫金錠) 또는 만병해독단(萬病解毒丹)이라고도 하는 태을자금단(太乙紫金丹: 오배자, 산자고, 버들옻, 속수자, 사향으로 제조한 환약)에 웅황(雄黃)과 주사(朱砂)를 더하여 만든다. 만드는 방법은 양기(陽氣)가 겹치는 단오, 칠석, 중구일 가운데에 천덕(天德), 월덕(月德) 같은 길성(吉星)이 든 날을 가려 깨끗한 방에서 향을 피워 놓고 몸을 깨끗이 하고 만들되, 여자나 상제(喪制)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닭이나 개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가운데에서 만들어야 약효가 뛰어나다고 한다.

용도 옥추단은 뱀, 지네, 두꺼비 따위의 독(毒)인 고독이 든 음식을 먹고 복통, 가슴앓이, 토혈, 하혈 및 얼굴이 푸르락누르락하는 증세를 일으킬 때, 곽란(癨亂)이나 서체(暑滯)일 때, 신기(神氣)가 좋지 않을 때 한 알을 갈아서 술에 타서 마시면 특효가 있다. 독사나 독충에게 물렸을 때에는 물린 부위에 바르는 여름의 구급약이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東醫寶鑑, 洌陽歲時記, 中華節日風俗全書(趙杏根, 黃山書社, 1996).
필자 | 김승찬(金承璨)

익모초즙(益母草汁)

정의 약효가 있다고 여기는 익모초를 베어 단오에 마시는 즙(汁). 익모초를 약초라고 생각하여 배탈이 났을 경우에 먹기도 하는 민간의료 행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내용 단오는 일년 중에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날이다. 이 무렵의 익모초와 쑥도 약효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하여 베어다 즙을 내어 마시는 풍속이 전해진다. 익모초즙을 마시면 여름 내내 배탈이 없다고 하나, 실제로는 여름에 배탈이 났을 때 익모초를 즙으로 내어 마시면 낫는다고 한다. 익모초를 강원도 홍천에서는 '육모초(六母草)'라고 부르는데, 대가 육각이고 잎도 여섯 개이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익모초즙을 먹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 보통 단오에 익모초즙을 마시면 좋다는 주술적인



익모초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이건욱

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익모초의 약효를 보면 단순하게 민간요법의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개 익모초즙은 새벽 공복에 마시며 간경변, 대하, 불임증, 두드러기, 산후 처리, 생리불순, 천식, 황달에 두루 사용되었다.

익모초는 생으로 즙을 내어 먹기도 하지만, 맛이 매우 쓰기 때문에 그냥 생즙으로는 먹지 않는다. 익모초즙의 색깔은 푸른빛이어서 보면서 마시기에는 거북하지만 일단 목을 넘기면 속은 편안하다. 즙으로 먹기 어렵기 때문에 가루나 알약으로 만들기도 하며, 말렸다가 삶은 물에 먹기도 한다. 지역적으로 6월에 익모초를 즙으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더위를 먹었을 때나 배가 아프고 설사에 걸렸을 때 응급처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익모초는 독성이 있어 대개 하룻밤 이슬을 맞혀야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

지역사례 인천 옹진군에서는 익모초 잎사귀를 뜯어다 말린 후 빻아서 곱게 가루로 만들어 약용한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익모초와 소태나무를 넣고 계속 달여 엿이 되면 알약으로 만들기도 한다. 특히 속이 냉하거나 위장병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고 하며, 임신을 하기 위해 먹기도 한다. 홍석모의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에도 단오에 쑥을 캐면 약효가 좋고, 아들 낳는 데도 좋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이 날 백초(백 가지의 풀)를 캐어 두었다가 아플 때 달여 먹으면 약이 된다고 한다.

참고문헌 | 한국의 전승 민간요법(정승웅, 민속원, 1999),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서울·세시·한시(洪錫謨 編著·秦京煥 譯註, 보고사, 2003),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종대(金宗大)

창포비녀[菖蒲簪]

정의 단옷날 사기(邪氣)를 물리치기 위해 창포뿌리로 만든 비녀를 머리에 꽂는 풍속. 한자어로 창포잠(菖蒲簪)이라 한다.

내용 예로부터 창포의 특이한 향기가 사기나 역귀(疫鬼)를 쫓는다는 속신을 가지고 있어, 잎을 삶은 물에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했다. 그리고 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벽사(辟邪)의 색인 연지나 주사를 발라 머리에 꽂거나 달고 다녔다. 특히 비녀에 칠한 연지, 주사의 붉은색은 양색(陽色)으로서 벽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 동안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는 데에서 단옷날 창포비녀를 꽂는 풍속이 생겼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창포의 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드는데, 수복(壽福)자를 새기고 끝에 연지를 발라 두루 머리에 꽂는다. 이로써 전염병을 물리친다."라고 하였고,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남녀로서 머리를 땋은 처녀 총각들은 창포뿌리의 흰 부분 네댓 치를 깨끗이 씻어 닦아 그 끝에다 붉은 칠을 해서 머리에 꽂거나 허리에 차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요즈음에도 머릿결이 부드럽고 고



창포비녀 윤희경

와지라고 여자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나, 창포뿌리를 머리에 꽂거나 허리에 차는 풍속은 거의 사라졌다.

지역사례 서울에서는 단옷날 창포뿌리를 잘라서 비녀를 만들어 아이들의 머리에 꽂아주는데, 비녀에는 '수복' 두 글자를 새기기도 하고 연지로 붉게 칠하기도 한다. 경기도에서는 창포뿌리로 비녀를 만들어 끝에 붉은 칠을 하여 머리에 꽂는다. 그리고 남자들의 동곳도 창포로 만들어 꽂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벽사(辟邪)가 되기 때문에 일년 동안 잡귀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두통이 없고 일년간 무병하라고 창포뿌리를 비녀같이 만들어 머리에 꽂기도 하고, 뿌리를 골패쪽같이 오려 색실을 꿰어 댕기에 매기도 한다. 또 총각들은 액을 물리치기 위해 창포뿌리를 허리춤에 찬다. 경북에서는 단옷날 부녀자들이 머리 속의 부스럼 예방과 벽사를 위해 창포나 궁궁이를 머리에 꽂거나 붉은 댕기를 들인 후 여기에 창포나 궁궁이를 꽂는다. 반면 남자들은 궁궁이를 귀에 꽂거나 옷고름에 꽂는다. 경남에서는 단옷날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쟁피뿌리를 깎아 글자를 새기고 연지를 칠하여 땋은 머리에 꽂는다. 충북에서는 모기 및 독충의 예방을 위해 단옷날 창포뿌리를 노랑, 빨강 물감으로 염색하여 머리에 꽂고 궁궁이로 댕기를 맨다.

인접국가사례 중국에서는 창포에 벽사의 주술력이 있다고 하여 단옷날 창포로 인형이나 호로형(葫蘆形)을 만들어 이를 포인(蒲人), 포호로(蒲葫蘆)라 하고 머리에 꽂거나 찼으며, 창포를 잘게 썰거나 가루를 내어 술에 띄워 먹었다. 일본에서는 창포가 독기(毒氣)나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역귀를 쫓는다고 하여 단옷날 창포를 처마에 꽂는 풍속이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朝鮮史外史(車相瓚, 明星社, 1947),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속초의 향토민속(속초문화원, 1992), 中華節日風俗全書(趙杏根, 黃山書社, 1996), 형초세시기(종름 원저, 상기숙 역저, 집문당, 1996),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아시아의 단오민속(장정룡 外, 국학자료원, 2002), 한국세시풍속 I -1970년대~1980년대 조사자료-(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김승찬(金承璨)

창포탕(菖蒲湯)

정의 단오에 머리를 감는 데 사용하는 물로 창포를 넣고 삶은 물.

유래 창포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여 향기가 나도록 하는 풍속은 이른 시기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의 『풍류세시기(風流歲時記)』를 보면, 서울에서는 단오 이틀 전쯤에 창포를 거적으로 싸서 팔러 다니던 창포장수가 있었다고 한다. 단옷날 아침이 되면 창포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는데, 이렇게 하면 창포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나쁜 병이 범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의 기록에는 5월 5일을 욕란절(浴蘭節)이라고 하여 난탕(蘭湯)에 목욕을 하고 방화(芳華)에 머리를 감는다고 하였다. 이런 전통을 보면 한국에서는 난(蘭) 대신 구하기 쉬운 창포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석모의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 단오장(端午粧)에도 난탕(蘭湯)으로 세수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의 난은 중국과 같은 난이기보다는 창포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창포를 잘라 썰거나 가루로 내어 술에 띄운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는 먹지 않지만, 고려시대만 해도 창포주(菖蒲酒)를 마셨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이제현의 『익재집(益齋集)』, 정몽주의 『포은선생문집(圃隱先生文集)』, 권근의 『양촌집(陽村集)』에 보면 단오에 창포주를 먹는다는 기록이 눈에 띈다. 당시 단오에 창포주를 먹는 것이 시절식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정몽주의 한시 중에서 '단옷날 객사에서 지내니 누가 창포주 한 병인들 보내주겠나.'라는 대목이 그런 점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당시에는 창포로 김치를 담가먹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쓴맛을 세상살이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조수삼의 『추재집(秋齋集)』이나 최영년의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창포물로 목욕을 했다는 기록도 나온다. 이것은 비단 창포로 머리를 감은 것이 아니라, 온 몸을 깨끗이 했다는 것인데, 창포로 목욕을 함으로써 귀신이 근접할 수 없도록 몸을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운종의 「세시기속(歲時記俗)」에는 창포물로 얼굴을 씻는다는 기록도 나온다.

내용 단오는 양기가 가장 성한 날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잡귀를 물리치거나, 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많이 전해진다. 창포탕도 양기가 극성하다는 점을 활용한 풍속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날이 더워지면서 머리를 감지 않으면 가려움이 더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필요한 행위라 할 만하다.

창포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우물이나 논, 냇가 같이 물이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 창포를 베어다 뿌리와 함께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털이 잘 희어지지 않으며, 잡귀를 쫓을 수 있는 벽사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왔다. 창포뿌리에는 방향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시원할 뿐만 아니라 은은한 향기까지도 나게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유두(流頭)에도 창포탕으로 머리를 감기도 한다.

지역사례 각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던 방식을 보면 머리를 감는 것은 유사하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에서는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는데, 한 제보자의 경우 머릿결이 좋고 흰머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단옷날에는 어디에 가 있더라도 창포로 꼭 머리를 감았다는 것이다.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에서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은 후에 창포잎을 머리에 꽂고 나들이를 다닌다고 한다. 의왕시 고천동에서는 단오 전날 창포를 뜯어서 밤이슬을 맞힌 후 다음날 아침에 삶아 그 물에 머리를 감는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2리에서는 '창푸(창포)'를 베어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머리를 감으면 단지 머릿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골이 드는 것(노환으로 인한 두통)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영월에서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지고 윤기와 향기가 나며 머리카락도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평소에 바른 동백기름을 이때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다. 이 마을에서는 창포잎 대신에 천궁(궁궁이) 잎을 머리에 꽂고 다닌다. 천궁은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장롱 속에 넣어두면 좀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춘천에서는 창포잎에서 나는 향기 때문에 머리에 꽂아서 멋을 내기도 했다. 속초에서는 창포잎보다는 창포뿌리를 삶는데, 이렇게 하면 '미드미'가 먹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미드미는 머리카락의 끝이 갈라지는 것을 말한다.

충북 제천에서는 쑥과 창포를 넣어 삶은 창포탕을 만들었는데, 이 물은 잡귀를 물리치거나 질병을 쫓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처녀시절에는 얼굴이 고와지기 위해서 단옷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포잎에 맺힌 이슬을 얼굴에 발랐다고 한다.

충남 당진군 순성면 광천리에서는 창포뿌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서천군 한산면 원산리에서는 창포잎을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부드럽고 향기가 좋다고 한다. 특히 머리에 풍이 든 사람에게 좋다는 속신이 있어 중풍환자가 있는 집안에서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준다.

전남에서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데, 창포와 함께 쑥을 넣는다. 이 물로 세수를 하면 얼굴이 고와진다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에 더위를 타지 않고, 얼굴에 버짐이나 땀띠도 예방된다고 한다.

경북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에서는 단오 전날 저녁에 창포(쟁피), 궁궁이, 난초, 수양버들, 약쑥을 물에 담가두었다가, 단옷날 아침에 물을 데워 머리를 감았다.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에서는 창포와 궁궁이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부드럽고 향기가 나기 때문이다.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에서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시집가서 머리카락이 잘 자란다는 속신이 있어, 주로 처녀들이 많이 했다고 한다.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에서는 창포(쟁피), 약쑥, 궁궁이, 수양버들을 뜯어다가 단옷날 새벽에 이슬을 맞힌다. 이 풀을 물에 삶아서 머리를 감





1 창포
2 창포탕
강원도 강릉시 선교장 황원만

는데, 이렇게 해야 잔병치레를 하지 않고 건강하며 머리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단오 창포는 미용에도 좋다고 한다. 단오 전날 창포를 그릇에 깔아놓고 이슬을 받았는데, 이 이슬을 덩어리 분에 개서 얼굴에 바르면 마른버짐이 피지 않는다.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에서는 빨간 댕기를 머리에 들인 후 창포를 꽂는다. 흥미로운 것은 과부들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에서는 단옷날 아침에 창포와 쑥, 궁궁이를 넣고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다.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부드럽고 향내가 난다. 특히 그 해 여름 머리에서 쉰내가 나지 않는다. 또한 이 마을에서는 창포와 궁기잎을 머리에 꽂는데, 잎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로 잡귀를 쫓을 수 있다는 속신 때문이다.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에서는 단옷날 아침에 창포를 베어 물에 삶는다. 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곱고 부드러워지며, 땀냄새도 적게 나고 두통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에서는 창포, 굴갱이, 약쑥 등 다섯 가지 약초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다. 또한 창포잎을 머리에 꽂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곱게 잘 자란다고 한다.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에서는 단오 전날에 창포, 천궁, 약쑥을 넣고 삶아서 장독 위에 올려놓아 밤이슬을 맞히고 단옷날 아침에 머리를 감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 風流歲時記(李承萬, 中央日報·東洋放送, 1977), 龜尾·善山의 歲時風俗(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형초세시기(종름 원저, 상기숙 역, 집문당, 1996),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서울·세시·한시(洪錫謨 編著 · 秦京煥 譯註, 보고사, 2003),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종대(金宗大)

천궁꽂기(川芎-)

☞ 궁궁이꽂기[川芎-]: 여름편

천중부적(天中符籍)

☞ 단오부적(端午符籍): 여름편

추독단(追毒丹)

☞ 옥추단(玉樞丹): 여름편

치우부적(蚩尤符籍)

☞ 단오부적(端午符籍): 여름편

단오빔(端午-)

정의 단오에 입는 새옷. 단오비음이라고도 한다.

내용 "옛날에는 단오를 4대 명절(名節)의 하나로 여겨 각 가정에서는 단오차례(端午茶禮)라고 하여 이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가묘(家廟)에 차례(茶禮)를 지내며, 남녀가 다 새옷을 갈아입고, 서로 부르고 모여 하루를 즐기었다."라고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단오에 부채를 서로 선사하고 소녀들이 청홍의 새옷을 입고, 창포 삶은 물에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라는 기록이 있다.

위의 내용에서 남녀의 새옷, 청홍의 새옷, 새로 지은 녹색 저고리와 붉은 치마와 같은 표현은 단오에 새옷을 입는 것에 큰 의미를 둔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새옷을 강조하는 것은 평소에 새옷을 입을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명절 옷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경제적 형편과 사정에 따라 노인과 아이에게는 새옷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새옷은 색동옷 같이 색이 화려한 아이 옷을 일컫기도 한다. 팔월 추석과 정월 설, 5월 단오 같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에는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옷을 선물받는 특별한 날이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색색의 비단조각을 이어서 정성껏 만든 색동옷을 입는다. 색동은 주로 돌부터 6, 7세 어린아이의 저고리, 마고자, 두루마기에 사용하였다. 특히 까치설날 즐겨 입는다고 하여 까치저고리, 까치두루마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색동옷의 역사는 고구려 수산리 벽화의 귀부인이 입은 색동치마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신라에서도 무관(武官)의 직책을 깃의 색으로 구별한 것을 보면, 색에 대한 관념이 오래 전부터 상당히 발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색이 정연해진 것은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받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음양오행설이란 우주나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을

음과 양, 두 원리의 소장(消長)으로 설명하는 음양설과 이 영향을 받아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변전(變轉)으로 설명하는 오행설을 말한다. 오행을 색으로 나타내면 목은 청(靑), 화는 적(赤), 토는 황(黃), 금은 백(白), 수는 흑(黑)이고, 방향으로 나타내면 동은 청, 서는 백, 남은 적, 북은 흑, 중앙은 황이 된다. 그러므로 색동은 청, 적, 황, 백, 흑의 오행색을 중심으로 배열하되, 때에 따라 한두 가지 색을 가감하기도 한다.

색동에는 길상(吉祥)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색동을 쓴 혼례복 원삼은 결혼의 기쁨이나 앞날의 행복에 대한 기원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편 색동에는 무속(巫俗)의 주술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유난히 색동 의복이 많은 무복(巫服)은 신의 능력을 부여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표현매체로써 무당의 주술적 능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의 돌복에 쓰는 색동도 아이들의 천진난만함과 상통하지만 사악한 귀신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로 여겨진다. 어린이나 신부는 주인공이 되는 귀중한 인물로 시각적으로 주변과 분리되도록 하여 외부의 나쁜 능력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왕실에서는 단오 명절에 진상된 의복으로 용포(龍袍), 내작 1작 외에 쾌자, 주의, 저고리, 바지, 행전 등 평상복과 동일하다. 같은 해 초파일보다 용포가 추가되어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단오절의 민속놀이(최상수, 이달의 수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68),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전통 아기 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박성실, 한국전통 어린이 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필자 | 최은수(崔銀水)

각서(角黍)

정의 밀가루로 둥근 떡을 만들어 고기와 나물을 소로 넣어 만든 단오절식.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와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서 옛 사람들이 각서와 종(粽)을 단오의 절식으로 삼았다고 한다. 『성호사설(星湖僿說)』「만물문(萬物門)」에 "우리 풍속은 단오에 밀가루로 둥근 떡을 만들어 먹는데, 고기와 나물을 섞어 소를 넣은 뒤 줄입처럼 늘인 조각을 겉으로 싸서 양쪽에 뿔이 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단오에 각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형태를 알 수 없고 단지 중국의 종자(粽子)에서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서는 사라지고 중국에는 없다고 한 고려의 쑥떡, 곧 수리취절편이 단오를 대표하는 음식이 된 듯하다.

중국의 단오는 기원전 278년, 진나라가 초나라를 멸하자 이 소식을 듣고 굴원은 강에 투신하여 자결하였다. 이 비보를 들은 사람들은 고기떼가 굴원의 시신을 뜯어먹지 않도록 종자를 강에 던져 넣었다고 한다. 이것이 중국인들이 단오절에 용선경기를 하고 종자를 만들어 먹는 이유라고 한다. 여기에서 종자는 처음에는 대통에 쌀을 넣고 쪘는데, 후에 삼려대부라는 고관이 구회(歐回)에게 나타나 "대통의 종자를 교룡과 물고기가 다 먹어치우므로 앞으로는 종자를 멀구슬나무잎으로 쌀을 싸고 겉은 오색실로 단단히 동여매 뿔처럼 만들도록 해라. 물고기나 교룡이 보고서 마름으로 알고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마름모꼴 형태의 종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호남성에서 단오절 점심식사로 종자를 먹는데, 종자 한 쟁반을 내왔을 때 방안에는 갈댓잎 냄새가 가득 퍼진다. 종자를 묶은 끈을 풀고 갈댓잎을 벗긴 다음 설탕을 뿌려서 먹는데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단오에 지마끼[粽]를 먹는데, 지마끼는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가는 댓잎 또는 줄 풀잎으로 싸서 찐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星湖僿說, 洌陽歲時記, 韓國食品史研究(尹瑞石, 新光出版社, 1974), 중국풍속기행(치우환싱(丘桓興) 저, 남종진 역, 프리미엄북스, 2000).
필자 | 윤덕인(尹德仁)

수리취떡

정의 떡 위에 박은 떡살무늬가 수레바퀴 모양을 하고 있는 푸른색의 쑥절편. 차륜병(車輪餠), 애엽병(艾葉餠), 수리치떡이라고도 한다. 5월 5일 단오 명절까지는 쑥이 많아서 햇쑥이나 약쑥으로 쑥국, 쑥버무리, 쑥절편, 쑥인절미를 즐겼다.

내용 쑥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식물로 우리 민족에



게는 신성시되었으며, 재액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겼다. 또한 약효가 있어 위장병, 소염작용, 지혈작용, 설사예방 효과도 있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알려져 예전부터 쑥떡을 해 먹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봉유설(芝峰類說)』 제19에 "송사(宋史)에서 말하기를, 고려는 상사일(上巳日: 후세에는 3월 3일 명절날이 되었다)에 청애병(靑艾餠)을 으뜸가는 음식으로 삼는다. 이것은 어린 쑥잎을 쌀가루에 섞어서 찐 떡이다."라고 청애병(쑥떡)을 기록하고 있어, 신라시대부터 쑥떡을 해먹는 풍속은 절식(節食)으로 전해 내려온 음식임을 알 수 있다.

고려가요 '동동(動動)'에 "오월 오일에 아으 수릿날 아침 약은 천년을 장존(長存)하실 약이라 바치옵니다. 아으 동동다리"라는 노래가 있다. 단옷날 아침 약은 쑥과 익모초다. 익모초로 즙을 내어 먹는데, 익모초가 너무 써서 못 먹는 사람은 약쑥을 캐서 즙을 내어 술에 타서 식전에 마시기도 하였다. 단옷날의 수리취떡은 약떡이라고 생각하여 꼭 먹었다.

수리취는 산야에서 많이 자라는 엉거시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이다. 멥쌀로 가루를 내어 시루에 쪄서 데쳐낸 수리취와 섞어 안반에 쳐서 만든 떡으로 푸르스름한 절편이다. 절편의 모양을 둥글게 하고 그 위에 차바퀴 모양의 떡살로 문양을 내었다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기록되어 있다. 단오를 술의일(戌衣日)이라 하고,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만드는 것을 술의(戌衣)라 하였다.

수리취 절편은 멥쌀 2되를 씻어 충분히 불린 다음 건져, 물기를 빼서 소금 두 큰 술을 넣고 빻아 가루로 만든다. 멥쌀가루에 물을 부어 덩얼덩얼하게 버무려 푹 찐다. 여기에 수리취를 삶아 어레미에 밭쳐 건지를 손으로 짠 수리취즙이 300그램을 풀어넣고 서로 섞이도록 곱게 찧는다. 이 떡을 조금씩 떼어 큰 도마에 놓고 가래떡처럼 비벼 떡살로 눌러 찍어 낸 떡이다. 잘라낸 떡에는 참기름을 바른다.

인접국가사례 중국에서는 현재도 호남성 멱라현에서 굴원을 추모하는 민속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단오절 이른 새벽에 이슬을 머금은 쑥과 창포를 따는 것은 호남성 각 지방의 공통된 관습이다. 쑥대를 출입문 양쪽 벽에 꽂고 창포를 그 위에 건다. 그리고 종자(**粽**子)를 먹는다. 종자는 갈대잎으로 싸서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 한다. 종자는 물에 불린 찹쌀을 갈댓잎에 싸서 원뿔모양으로 만들어 재를 뿌린 소다수에 쪄내어 뜨거울 때 먹는다. 북경에서는 대추를 넣은 종자를 찬물에 식혀 먹는다. 중국 최초의 종자는 대통에 쌀을 넣어 쪘는데 이것을 통종(筒**粽**)이라 한다. 명나라 때에는 쑥잎을 쌀에 넣어 만든 애향종자(艾香**粽**子)도 있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芝峰類說, 한국의 떡과 과줄(강인희, 대한교과서, 1997),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역사(윤서석, 신광, 1999), 중국풍속기행(치우환싱(丘桓興) 저, 남종진 역, 프리미엄북스, 2000), 단오의 명절 음식과 강릉 단오제의 제물·음식에 관한 연구(윤덕인, 關東民俗學15, 關東大學校 江陵無形文化硏究所, 2001).

필자 | 윤덕인(尹德仁)

앵두편[櫻桃片]

정의 앵두에 꿀을 넣고 조려 굳힌 것으로 과편류의 한 종류.

내용 앵두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펄펄 끓여서 체에 걸러 씨를 뺀다. 아직 홍건할 때 거른 앵두에 설탕을 넣고 조리다가 녹말을 넣고 풀처럼 되게 쑤어 편편하고 네모진 그릇에 쏟아 굳혀서 모나게 썬다.

17세기의 기록인 『음식디미방』에는 반숙한 앵두를 씨를 발라 살짝 데친 후 체에 걸러서 꿀을 붓고 한데 조려 엉기면 베어 쓴다고 하였으나, 19세기의 기록인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앵두를 놋그릇에 담아 잠깐 쪄내서 중체에 걸러 백청을 알맞게 타서 새옹에 조리되 숟가락으로 흘려보아 되게 엉긴 죽만큼 조려졌으면 녹말을 풀고 되게 조려서 접시에 더 놓아 족편 어리듯이 엉기면 사기에 펴서 굳은 후 베어 쓴다고 하였다. 녹말을 과하게 섞으면 빛이 뿌




1 앵두편
2 앵두화채
최호식

옇고 단단하며, 또 지나치게 조리면 빛이 검어 좋지 않다고 하여 녹말의 엉기는 성질을 이용하였다. 요즈음에는 간편하게 설탕을 넣어서 만들고 있다.

참고문헌 | 閨閣叢書, 음식디미방, 한국의 떡과 과줄(강인희, 대한교과서(1997).
필자 | 윤덕인(尹德仁)

앵두화채[櫻桃花菜]

정의 5월 단오 무렵에 제철 과일인 앵두에 물과 설탕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먹는 절식.

내용 앵두는 빛깔이 고운 작은 열매로서 과육에 비해 씨가 크다. 화채를 만들어 먹으면 매우 이색적인 음료가 된다. 보통 4월과 5월 단오절에 앵두를 먹는다. 앵두가 나오는 철이라 앵두화채를 만들기도 하고, 앵두 으깬 것을 삶아 녹두녹말과 꿀을 넣어 굳힌 과편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앵두화채를 만들 때는 잘 익은 빨간 앵두를 깨끗이 씻어서 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씨를 뺀다. 앵두 2컵에 화채 국물은 물 2컵, 설탕 2/3컵 비율로 준비하여 끓여 식힌다. 앵두의 반은 옹배기에 갈아서 체에 밭쳐 설탕물과 함께 섞는다. 화채그릇에 나머지 앵두 반을 담고 앵두 설탕물을 부은 다음, 잣 한 큰 술을 띄워 낸다.

또 다른 방법으로 오미자 국물을 넣은 앵두화채가 있다. 굵고 좋은 앵두를 깨끗이 씻어 씨를 빼고 설탕에 달게 재워 둔다. 오미자는 물에 불려 체에 밭쳐서 냉수와 설탕을 탄 다음 차게 식힌다. 앵두가 설탕물에 달게 재워지면, 오미자 국물을 유리그릇에 담고 앵두를 알맞게 넣고 몇 알의 잣을 띄워 낸다.

오미자는 이름 그대로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의 다섯 가지 맛을 내는 열매로 알려져 있다. 물에 담가두면 붉은색을 내는데, 오미자를 사용하기 전날 깨끗이 씻어 찬물에 담가 우린 다음, 면보에 걸러 그 물을 쓴다. 끓이거나 더운물에 우리면 쓴맛과 떫은 맛이 나니 찬물에 우려야 한다. 오미자 우린 물은 오미자화채는 물론 다른 과일 화채의 기본 음료를 만들 때 사용한다.

앵두화채를 만들 때는 여름밀감이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철 과일을 함께 이용해도 좋다. 여름밀감은 알이 터지지 않게 껍질을 깐 다음 알알이 떼어 설탕에 재운다. 따로 해도 되지만 앵두와 같이 해도 좋다. 또 바나나를 둥글게 썰어 몇 조각 띄워 내면 실백과 함께 맛을 돋워서 일품화채가 된다.

참고문헌 | 朝鮮料理法(조자호, 서울, 1938),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鄕土飮食 篇-(文化財管理局, 1984), 전통건강음료(조후종 외, 대원사, 1996), 한과와 음청류(정재홍 외, 형설출판사, 2003).
필자 | 윤덕인(尹德仁)

어알탕

정의 어알탕은 쇠고기 대신 민어 같은 흰살 생선의 살을 다져 양념하여 완자를 빚어 넣고 끓인 맑은 국. 밥을 먹기 위한 반상(飯床)용 국이라기보다 교자상이나 주안상에 어울리는 국으로 수리치떡, 제호탕, 준치만두와 함께 단오 절식이다.

내용 만드는 법을 보면 장국용 쇠고기 약간과 물, 청장이 필요하고, 흰살 생선과 갖은 양념을 준비한다. 먼저 장국용 쇠고기는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양념하



여 물을 붓고 청장으로 간을 맞춰 맑은 장국을 끓인다. 흰살 생선은 살만 포를 떠서 곱게 다지고 소금, 참기름, 다진 파, 마늘, 생강즙, 후춧가루를 넣어 양념한 후 잣을 하나씩 넣으면서 은행알 크기로 완자를 빚는다. 빚은 어알을 녹말가루를 고루 묻힌 후 냉수에 담갔다가 건져내어 다시 녹말가루를 고루 묻힌다. 이 작업을 세 번 정도 반복하여 녹말가루를 입혀서 찜통에 쪄낸다. 장국이 팔팔 끓으면 생선완자와 실파를 넣고 조금 더 끓이다가 그릇에 담고 달걀지단을 띄워 낸다. 또는 민어와 닭고기를 섞어 어알(완자)을 만들기도 하고, 준치로 완자를 만들어 준치국을 끓이기도 한다. 산뜻한 맛이 나는 맑은 장국이다.

참고문헌 | 韓國料理百科事典(黃慧性, 三中堂, 1976), 조선왕조 황혜성의 궁중음식(황혜성, 사단법인 궁중음식연구원, 1998).

필자 | 윤덕인(尹德仁)

제호탕(醍醐湯)

정의 오매육(烏梅肉), 사인(砂仁), 초과(草果), 백단향(白壇香)을 가루로 내어 꿀에 재워 중탕으로 달여서 응고상태로 두었다가 냉수에 타서 마시는 우리나라 전통 청량음료. 더위를 이기고 갈증을 해소하며 보신하기 위해 단오 무렵에 주로 마신다.

내용 조선시대 내의원(內醫院)에서 단오절에 제호탕을 만들어 올렸고, 임금은 이것을 대신들이나 기로소(耆老所)에 하사하였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더위를 피하게 하고 갈증을 그치게 하며 위를 튼튼하게 하고 장의 기능을 조절하여 설사를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어, 단옷날에 제호탕을 음용(飮用)하면 여름을 잘 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단옷날 내의원에서 제호탕을 만들어 진상하면 궁중에서 여름내 더위를 이기는 음료로 마셨고, 임금이 중신들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매육(매실의 껍질을 벗기고 짚불 연기에 그을려 씨를 바르고 살을 말린 것)은 굵게 갈고 사인(縮砂密의 씨), 초과(草豆蔻의 일종), 백단향(단향과의 상록 교목)을 각각 곱게 갈아서 꿀에 재워, 연고상태가 될 때까지 장시간 중탕해서 오지나 사기항아리에 담아 두었다가 찬물에 타서 마신다. 제호탕의 재료는 성질이 모두 더워서 위를 튼튼하게 하고, 장의 기능을 조절하며 설사를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다. 더위가 심해지면 인체 기능이 떨어져 허해지게 된다. 곧 양기가 부족해지니 오행의 원리에 의해 위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건위, 정장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위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더울 때 제호탕을 마시는 것은 더위에 지친 신체의 기능을 항진시키고 허해진 신체의 양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다.

의의 제호탕은 여름에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이(藥餌)성 음료이다.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고, 갈증을 풀어주며 질병 예방을 겸할 수 있다.

기타 제호탕에 얽힌 일화가 있다.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이 임금을 모시고 피난길에서 돌아와, 영의정으로서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려고 매우 분주하던 때의 일이다. 집에 갈 시간도 없는 터라 대궐 가까이에 식사와 의복 시중을 들어줄 소실을 들였다. 정신없이 바쁘던 어느 날 옷을 갈아입으러 들렀는데, 마침 너무 더워서 제호탕이나 한 대접 마셨으면 하는 순간, 소실이 시원한 제호탕을 갖다 바쳤다. 제



호탕을 마신 이덕형은 소실을 한참 쳐다보다가 그 길로 그 집을 나와서 다시는 찾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 이항복(李恒福)이 그 여인을 버린 이유를 묻자, 이덕형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그 날 더위에 지쳐서 제호탕 생각이 간절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선뜻 내어주는 게 어찌나 어여쁘던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녀자에게 빠져서야 되겠나? 그래서 그만 인연을 끊었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東醫寶鑑, 食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12-우리 고유의 청량음료-(유수안, 얼과 문화31, 우리문화연구원, 1991), 전통건강음료(조후종 외, 대원사, 1996), 제호탕(醍醐湯)의 일반영양성분에 관한 연구(윤숙자·조후종,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25-4, 한국식품영양과학회, 1996), 세시풍속과 우리음식(조후종, 한림출판사, 2002).

필자 | 조후종(趙厚鐘)

창포주(菖蒲酒)

정의 단오(端午)에 마시는 창포(菖蒲)로 빚은 술.

유래 종름이 지은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단오에 창포주를 마신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몽주의 『포은집(圃隱集)』, 이색의 『목은집(牧隱集)』에 창포주(菖蒲酒)에 대한 시가 적혀 있다. 이는 적어도 고려말에 단오의 시식으로 창포주를 널리 마셨음을 의미한다. 이후 서거정의 『사가정집(四佳亭集)』, 황섬의 『식암집(息庵集)』 같은 시문집에도 '단오창포주(端午菖蒲酒)'가 등장하므로, 고려에 이어 조선 전기에도 창포주 마시는 행사가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형초세시기』에는 5월 5일을 욕란절(浴蘭節) 또는 단오(端午)라 하고, "오월(五月)을 세속에서 나쁜 달[惡月]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5월은 오월(午月)이며 하짓달이다. 동짓달[子月, 11월]과 하짓달[午月, 5월]을 연결하는 자오선(子午線)은 일년의 음양을 나누어주는 축으로 동짓달[괘명은 지뢰복(地雷復), ䷗]의 동지가 되면 양(陽)이 조금씩 증식하여 새로운 하나의 양이 밑에 싹트고, 동지에서 하지의 방향은 음에서 양으로 가는 방향이다. 하짓달[괘명은 천풍후(天風姤), ䷫]의 하지에 이르면 4월의 완전한 양(䷀)에서 음(陰)이 조금씩 증식하여 새로운 하나의 음이 밑에 싹튼다. 동지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지고 하지부터는 밤이 조금씩 길어진다.

해가 짧아지는 5월[午月]부터 11월[子月]까지의 시간은 음(陰)의 궤(軌)이다. 양(陽)을 남(男)과 불[火]로 환원한다면 음(陰)은 여(女)와 물[水]이 된다. 일년의 추이(推移)에서 5월[午月]은 때의 흐름을 음의 방향인 반대 방향으로 크게 변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 전환이 무사히 이루어져야만 순조로운 추이도 기대할 수 있다. 창포주는 중대한 전환을 자연에 맡기지 않고 인간 쪽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행위가 시식으로 연결된 것이다.

5월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많아지는 음(陰)은 음성의 귀(鬼)와도 연결되고, 음성의 귀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양기가 극에 달해 있던 4월을 지나 5월에 이르면 음기가 싹터 양과 음의 기(氣)는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점차 음이 많아진다. 따라서 5월은 나쁜달[惡月]이다. 질병은 음(陰)인 귀(鬼)가 일으킨다고 생각했으므로 창포주를 마심으로써 질병을 퇴치하고자 했던 것은 귀(鬼)를 쫓으려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창포주가 질병, 곧 귀(鬼)를 퇴치하려 한 데에서 출발한 것과 같이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창포주 제조방법과 그 효능에 대하여, "창포주방(菖蒲酒方), 뿌리를 교즙(絞汁)하여 찹쌀[糯米]의 양과 상반(相半)되게 한 다음, 상법(常法)대로 양조하여 구복(久服)하면 연년익수(延年益壽)하고 신명(神明)을 통한다."라고 적혀 있다.

『동의보감』의 창포주방은 『주찬(酒饌)』과 『농정회요(農政會要)』, 『학음잡록(鶴陰雜錄)』의 창포주 조법(菖蒲酒造法)으로 이어지는데, 이 고조리서에는 『동의보감』에 기록된 내용보다 더 비약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창포주 한국전통주연구소

『주찬』에는 "창포뿌리 잘게 썬 것을 그늘과 햇볕에 말려서 명주 주머니에 넣어 청주 한 말에 담가 단단히 봉해 둔다. 3개월 후에 보면 색깔이 푸르다. 곧바로 생동찰 한 말을 푹 쪄서 넣는다. 단단히 봉해 두었다가 7일 후에 쓴다. 이 술을 마시면 36가지의 병이 저절로 없어진다. 또 풍증도 치료된다(菖蒲酒 菖蒲根細切陰陽乾之以紬袋裹而浸之於淸酒一斗中堅封三朔後視之色靑則粘靑粱米一斗熟烝添入又堅封七日後用之則三十六病自消而又療風症)."라고 하여, 창포주를 마시면 36가지 질환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중풍도 고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農政會要, 東醫寶鑑, 牧隱集, 四佳亭集, 息庵集, 禮記, 酒饌, 圃隱集, 鶴陰雜錄, 荊楚歲時記, (陰陽五行思想으로 본)朝鮮王朝의 祭祀飮食文化(金尙寶, 修學社, 1996).
필자 | 김상보(金尙寶)

강령탈춤(康翎-)

정의 강령탈춤은 황해도 강령(康翎) 지방에서 유래된 마당놀이로서 탈꾼이 탈(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서 노래와 극적인 대사를 하는 종합예술극. 강령탈춤은 주로 정초, 대보름, 초파일, 단오, 추석 같은 명절날 놀았으며, 때에 따라서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대동 행사 때 놀았다. 이를 강령탈놀이, 강령가면극, 강령가면무극이라고도 한다.

유래 강령탈춤이 언제부터 전해져 왔는가를 밝혀내는 일은 쉽지 않다. 강령탈춤의 양반말뚝이과장(科場)에 진한양반, 마한양반, 변한양반이 등장하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나 근거가 없으므로 등장인물만을 가지고 삼한시대부터 유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강령은 몇 개의 작은 마을이 모여 이루어진 지역이어서 독자적으로 탈춤이 전승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주나 인근 지역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리라는 추측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강령탈춤이 미미한 형태로 전승되다가 19세기 말에 체계를 갖추어 비로소 1900년을 전후하여 번성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강령탈춤과 인근 지역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헌 또는 구전 자료가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강령탈춤은 해주, 옹진 같은 황해도 남쪽지역의 탈춤들과 서로 영향을 받으며 전승, 발전되어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황해도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탈춤들의 가면형태, 춤형식, 연기방법, 과장별 순서를 분석하여 볼 때, 크게 봉산, 재령, 신천, 은율의 봉산탈춤형과 해주, 강령의 해주탈춤형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한일합방 후 강령 출신으로서 옥관자(玉貫子)까지 탄 관기(官妓) 김금옥이 은퇴한 후 고향 강령으로 돌아와 탈춤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 강령탈춤은 한국전쟁 때 남하한 전승자들에 의해 서울과 인천에서 재현되었고, 1970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강령탈춤은 원래 전승지인 황해도 강령 지방을 떠나 지금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한 일대에서 폭넓게 전승되고 있다.

강령탈춤은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승 발전되어 오다가 20세기 중반에 들어 대사가 기록되고 탈꾼들은 대사본을 외워서 공연했다. 따라서 강령탈춤은 시대적 사회상을 기반으로 한 즉흥 마당극에서 고정된 대사본에 의해 공연되고 있다. 지금까지 강령탈춤 대사는 여러 명의 채록자와 정리자들에 의해 여러 개의 이본(異本)이 있다.

최초의 대사본은 1943년에 채록되어 1957년과 1972년에 발표된 임석재 채록본이다. 탈춤 현장에서 채록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강령탈춤 지도자 송규흠을 비롯하여 연희자 최승원, 최준봉을 대상으로 채록된 것이다. 이 채록은 당시 양정중학교에 다니면서 은사 임석재 선생에게 강령탈춤에 대해 제보한 김응규의 노고가 있었다.

강령탈춤의 두 번째 대사본은 1955년 김일출에 의해 채록되어 1958년에 발표된 것이다. 이 채록본은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민속탈놀이 연구』에 8쪽 분량으로 수록되었다. 뒤늦게 남북 문화 및 학문 교류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알려져 1998년에 영인본이 나왔다. 본문에 따른 주석 번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석 말미에 보면 1955년 5월에 현지 조사를 통해 함계휘, 최승원 그리고 다른 두 명이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나오는 함계휘나 최승원은 강령탈춤 연희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최승원은 임석재가 채록할 당시 구술자였으며, 함계휘는 김응규와 함께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강령탈춤〉 1 길놀이 2 사자춤 3 말뚝이춤 4 말뚝이춤 5 목중춤 6 양반 - 말뚝이춤 7 노승 - 소무춤 8 미얄할미춤 문화재청

강령탈춤의 세 번째 대사본은 1967년과 1983년에 발간된 최상수 채록본이다. 최상수본 강령탈춤 대사는 해서 지방의 다른 가면극 대사본과 함께 『해서가면극의 연구』로 발간되었는데, 정확한 조사 장소, 일시, 제보자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채록자 최상수는 강령 현지에서 채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1969년에 이두현, 김기수 채록 및 정리본이 나왔는데, 이는 강령탈춤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67호로 문화재관리국에서 간행한 것이다. 탈춤 현장에서 채록된 것이 아니라 주요 대상자들을 미리 선정한 후 임석재 채록본을 토대로 하여 제보자들의 구술을 정리한 것이다. 1979년에는 이재인 정리본이 발간되었다. 이것은 이두현, 김기수가 작성한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 실린 대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1982년에는 양종승 정리본이 문화재보호협회에서 발간한 『탈춤대사집』에 수록되었다. 이는 당시 강령탈춤보존회에서 사용하던 대사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1986년에는 김영석 정리본이 발간되었는데, 기존에 발간된 대사본들을 기초삼아 작성한 것이다. 1989년에는 김정순, 김실자 정리본이 문화재관리국의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다. 강령탈춤보존회에서 공식적인 전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앞서 발간된 정리본과 같이 기존 대본들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2002년에는 정형호 정리본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펼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보존사업으로 간행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대사본은 기존의 채록본과 정리본들 그리고 현재 강령탈춤보존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김정순, 김실자 대사본을 토대로 하고, 강령탈춤보존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희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4년에 새로운 채록본과 정리본이 김응규, 양종승에 의해 발간되었다. 이는 1981년과 1982년에 걸쳐 강령 출신 이겸하, 김응규, 송순희의 구술에 의해 채록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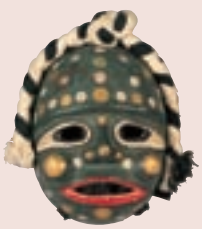
내용 강령탈춤에서 사용하는 탈은 모두 종이탈이며 총 스무 종류가 있다. 원숭이탈, 사자탈, 마부탈, 말뚝이탈, 목중탈, 상좌탈, 진한양반탈, 마한양반탈, 변한양반탈, 도령탈, 취발이탈, 취발이새끼탈, 노승탈, 소무탈, 미얄영감탈, 미얄할멈탈, 용산삼계집탈, 무당탈, 남강노인탈, 문사장탈이 그것인데, 탈은 일회용으로 만들어지며 탈놀이가 끝난 후 뒷놀이에서 모두 태운다. 이는 탈놀이의 종결을 뜻할 뿐만 아니라 탈판과 탈꾼에 끼어들었을지도 모를 나쁜 액을 없애고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탈을 보관하였다가 다시 사용한다.

강령탈춤은 앞놀이, 탈놀이, 뒷놀이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앞놀이는 길놀이와 서막고사로 꾸며지고, 탈놀이는 총 7개 과장으로 짜이는데, 제1과장 사자춤(원숭이춤과 마부춤 포함), 제2과장 말뚝이춤, 제3과장 목중춤, 제4과장 상좌춤, 제5과장 양반-말뚝이춤, 제6과장 노승-취발이춤(제1경 팔목중춤,


사자 국립민속박물관


말뚝이 국립민속박물관


목중 국립민속박물관


미얄할미 국립민속박물관


소무 국립민속박물관


취발이 국립민속박물관


상좌 국립민속박물관


노승 국립민속박물관

제2경 노승춤, 제3경 취발춤), 제7과장 미얄영감-미얄할미춤(제1경 미얄영감춤, 제2경 미얄할멈춤, 제3경 무당춤)으로 되어 있다. 뒷놀이는 탈태우기와 뒷풀이로 구성된다.

강령탈춤의 길놀이는 출연자들이 모두 줄지어 풍악을 울리면서 마을을 돈다. 맨 앞에 깃발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꽹과리, 징, 장구, 북, 새납 등의 악사들이 따라간다. 이어서 말뚝이 2명, 사자 2마리, 마부 2명, 원숭이, 상좌 2명, 목중 2명, 취발이, 노승, 진한양반(맏양반), 마한양반(둘째양반), 변한양반(재물대감), 도령, 미얄영감, 미얄할멈, 용산삼계집, 남강노인, 문사장, 무당 순의 탈꾼들이 악사 뒤를 따른다. 소무는 말이나 가마를 타기도 하고 남강노인은 검정소를 타기도 한다. 길놀이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아 탈판으로 행하는데, 그 목적은 탈놀이의 시작을 알리고 동시에 나쁜 액이나 해로운 기운을 제거하여 마을을 정화시키기 위함이다. 길놀이를 마치고 나면 탈판 중앙에서 서막고사를 지낸다.

강령탈춤 탈놀이는 제1과장 사자춤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 원숭이춤과 마부춤이 포함된다. 사자는 흰 바지저고리에 털이 달린 사자바지를 입는다. 마부는 흰 바지저고리에 검정색 더거리를 입고 허리에 홍색 띠를 뒤로 두르고 양다리에 좌청우홍색의 긴 대님을 허벅지와 허리띠로 연결하여 묶는다. 가면을 쓰고 꽃패랭이를 쓴다. 원숭이는 빨간색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홍색 띠를 허리 뒤로 두른다. 빨간양말과 장갑을 낀다. 사자춤 음악은 길놀이장단, 느린타령, 자진굿거리이다. 사자춤에는 암사자와 숫사자 두 마리가 등장하는데, 앞사자꾼은 사자탈을 양손으로 쳐올려 잡고 뒷사자꾼은 오른손을 뒤로 돌려 사자 꼬리를 잡는다. 마부 두 명이 각각의 사자를 몰게 된다. 원숭이가 사자 주위에서 춤을 춘다.

제2과장 말뚝이춤은 두 말뚝이가 똑같은 가면, 복색, 소도구를 갖추고 왼손에 5척 내지 6척되는 곤장을 든다. 말뚝이 복색은 흰 바지저고리에 홍색 더거리를 입는다. 허리에 황색 띠를 뒤로 두르고 왕방울을 찬 후 채찍을 꽂는다. 양 다리에 좌청우홍색의 긴 대님을 허벅지와 허리띠로 연결하여 묶는다. 가면을 쓰고 꽃패랭이를 쓴다. 두 말뚝이가 각각 탈판 양쪽에서 달음질치듯 껑충껑충 중앙으로 뛰쳐나와 서로 마주보고는 깜짝 놀란다. 이같은 동작을 반복한 후 서로 마주보고 염불, 타령, 자진굿거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염불 장단과 타령 장단에서는 곤장을 들고 추다가 마지막 자진굿거리에서는 허리 뒤에 꽂아 두었던 채찍을 들고 마주 서서 춤을 춘다.

제3과장 목중춤은 첫째 목중과 둘째 목중이 똑같은 가면과 복색을 갖추고 차례로 등장하여 춤을 춘다. 목중의 복색은 흰 바지저고리에 칡베 장삼을 입는다. 허리에 홍색 띠를 뒤로 둘러매고 양다리에 좌청우홍색의 긴 대님을 허벅지와 허리띠로 연결하여 묶는다. 가면을 쓰고 송낙을 쓴다. 첫 목중이 등장하여 염불, 타령, 자진굿거리 장단에 맞춰 장삼춤을 추고 나면 이어서 둘째 목중이 등장하여 장삼으로 첫 목중을 후려쳐 내쫓고 염불, 느린타령, 자진굿거리 장단에 맞춰 춤춘 후 퇴장한다.

제4과장 상좌춤에서는 두 명의 상좌가 똑같은 가면과 복색을 갖추고 양쪽 귀퉁이에서 등장하여 마주 서서 춤을 춘다. 상좌춤의 복색은 흰 바지저고리에 행전을 차고 백장삼을 입은 후 흰 고깔을 쓴다. 홍가사를 어깨에 두르고 염주를 목에 건다. 염불, 느린타령, 굿거리 장단에 맞춰 춤춘다.

제5과장 양반-말뚝이춤은 양반 가문에 못난 네 명의 양반이 두 명의 하인 말뚝이에게 끌려나와 대사와 노래를 하고 춤을 춘다. 진한양반은 흰 바지저고리에 행전을 차고 회색 칡베장삼을 입는다. 허리에 옥색 술띠를 묶고 지팡이를 짚으며 그려진 화선을 들고 머리에 가면을 쓴 후 개가죽관을 쓴다. 마한양반은 진한양반의 차림새와 같고 백색 부채와 지팡이를 짚고 가면을 쓴 후 총관을 쓴다. 변한양반은 흰 바지저고리에 행전을 차고 옥색 도포와 쾌자를 입는다. 허리에 옥색 술띠를 매며 화선을 들고 가면을 쓴 후 홍관을 쓴다. 도령은 흰 바지저고리에 남쾌자를 입고 술띠를 맨다. 백선을 들고 가면을 쓴 후 복건을 쓴다. 두 말뚝이는 말뚝이춤 과정의 차림새와 같고 채찍을 든다. 양반-말뚝이춤 과정은 주로 자진굿거리 장단을 사용하고, 변한양반이 등장해서는 장타령장단, 만세바지장단, 굿장단 등을 사용한다. 양반·말뚝이춤은 장삼춤, 부채춤, 지팡이춤, 병신춤, 무당춤, 한삼춤, 채찍춤으로 이루어진다.

제6과장 노승-취발이춤은 크게 세 가닥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술 취한 취발이가 그를 따르는 일곱 명의 목중과 함께 팔목중춤의 군무를 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명의 상좌를 대동한 노승이 아리따운 소무(小巫)를 보고 동하여 불법을 파계하는 춤이며, 세 번째는 취발이가 노승한테서 빼앗은 소무를 데리고 홍겹게 즐기다가 소무가 낳은 취발이 새끼를 데리고 글공부를 가르치는 춤으로 되어 있다. 목중들은 흰 바지저고리에 더거리를 입고 허리에 홍색 띠를 뒤로 둘러맨다. 양다리에 좌청우홍색의 긴 대님을 허벅지와 허리띠로 연결하여 묶는다. 취발이는 흰 바지저고리에 일월(日月)을 상징하는 둥근 모양의 점박이가 박힌 붉은 더거리를 입고 허리에 황색 띠를 뒤로 둘러매고 왕방울을 찬다. 양다리에 좌청우홍의 긴 대님을 허벅지와 허리띠로 연결하여 묶는다. 양손에 푸른 느티나무 또는 버드나무 한 묶음을 든다. 소무는 홍치마 노랑저고리에 남쾌자를 입고 제비홍띠를 허리 뒤로 둘러맨다. 색동한삼을 손목에 끼고 가면을 쓴 후 벙거지를 쓴다. 상좌는 흰 바지저고리에 행전을 차며 백장삼을 입고 흰 고깔을 쓴다. 홍가사를 어깨에 둘렀으며 염주를 목에 건다. 노승은 회색 바지저고리에 행전을 차며 회색 칡베장삼을 입고 붉은 가사를 어깨에 멘다. 백팔염주를 목에 걸고 화선과 육환장을 들며 가면을 쓴 후 송낙을 쓴다. 노승-취발이춤은 염불, 타령, 자진굿거리 장단에 맞춰 춘다.

제7과장 미얄영감-할미춤은 크게 세 가닥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미얄영감춤, 두 번째는 미얄할멈춤이 이어진다. 여기서는 미얄영감, 미얄할멈, 용산삼계집 세 사람의 삼각관계에서 애정과 갈등을 소재로 한 서민생활의 애환 및 일부처첩(一夫妻妾) 생활상을 다룬다. 영감은 난리통에 할멈을 잃고 돌아다니다가 주막에서 젊은 여자를 만나 첩으로 삼는다. 할멈은 고생 끝에 영감과 상면한다. 영감을 사이에 둔 할멈과 용산삼계집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결국 할멈이 쫓겨난다. 세 번째 춤은 영감과 첩으로부터 내쫓긴 할멈이 죽게 되자 마을의 원로격인 남강노인이 등장하여 무당을 불러 미얄할멈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진오귀굿을 한다.

탈놀이가 끝난 후 사용한 탈들을 모두 모닥불에 태운다. 그리고 뒷풀이가 이어진다. 뒷풀이에서는 탈꾼, 악사, 관객이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밤새껏 신명풀이를 하고 논다. 뒷풀이는 탈판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마지막장이다.

강령탈춤은 해서지역의 다른 탈춤과 함께 사위춤 형식으로 전승 발전되어 왔다. 사위춤 형식이란 예를 들어, 남쪽 지방의 오광대 및 들놀음의 덧뵈기춤이나 중부 지방 산대놀이의 깨끼춤(거드름춤)과는 달리, 북쪽 지방 황해도 일대에서만 전승되어 온 춤 형식으로서 흰색 한삼을 손목에 끼고 활달하게 뿌리면서 동적인 춤을 춘다. 한편, 강령탈춤에는 사위춤과 함께 다른 지역의 탈춤에서는 보이지 않는 칡베장삼춤이 있다. 이는 칡베장삼을 이용하여 활기차게 감고 뿌리면서 추는 일종의 장삼춤이다. 강령탈춤에는 하얀 한삼을 이용하여 추는 한삼사위춤뿐만 아니라 기다란 칡베장삼을 이용한 칡베장삼춤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강령탈춤에는 총 16종의 기본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강령탈춤 전 과장에 두루 쓰이는 기본적인 춤사위이다. 16가지의 기본 춤사위는 겹사위(곱사위), 앉아여닫이, 엇사위(뽑는사위), 엎매기, 고개잡이, 인사사위, 겨누기, 앉아뛰기, 돌며앉아뛰기, 쪼그려뛰기, 양사위, 한삼걷기, 코차기, 엎발찧기, 외사위 그리고 돌며외사위이다.

참고문헌 | 강령탈춤 대사(임석재, 현대문학29, 1957), 조선민속탈놀이연구(김일출, 과학원출판사, 1958),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六七號 康翎탈춤(李杜鉉·金琪洙, 文化財管理局, 1969), 춤사위(鄭晛浩,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81), 海西假面劇의 硏究(崔常壽, 正東出版社, 1983), 康翎탈춤 硏究(梁鍾承, 韓國民俗學17, 韓國民俗學會, 1984), 韓國假面劇硏究(朴鎭泰, 새문사, 1985), 강령 말뚝이 과장 연구 -춤사위 의미론적 연구를 중심으로-(이명경, 한국무용연구4, 한국무용연구회, 1986), 탈(金永石, 銀河出版社, 1986), 황해도탈놀이(徐淵昊, 悅話堂, 1988), 강령탈춤교본(김실자·김정순, 강령탈춤보존회, 1989), 한국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전경욱, 열화당, 1998), 강령탈춤을 통해 본 가면극의 무용적 요소(양종승, 고전희곡연구5, 한국고전희곡학회, 2002),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정형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강령탈춤 자료집-주석 연희본 및 무용적 짜임새(양종승, 민속원, 2004).

필자 | 양종승(梁鍾承)

강릉관노가면극(江陵官奴假面劇)

정의 강릉단오제 때 펼쳐지는 탈놀이로 춤과 동작을 위주로 한 국내 유일의 무언(無言) 가면극. 관노(官奴)라는 특수한 신분에 의해 이루어진 놀이이다. 우리나라 다른 가면극에서 볼 수 있는 양반에 대한











〈강릉관노가면극〉 1 장자마리 개시마당 2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사랑마당 3 시시딱딱이 훼방마당 4 소매각시 자살소동 5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화해마당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변 국립민속박물관

신랄한 풍자나 저항의식보다는 단오제라는 제의를 중심으로 서낭제 가면놀이의 전통을 충실히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단오제 때 행해지는 놀이들과 함께 잘 보전되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내용 관노가면극은 본래 단오제가 시작된 후 5월 5일 본제(本祭) 때 여러 서낭당을 돌아다니며 행했지만, 지금은 남대천변 가설무대에서 열린다.

관노가면극의 등장인물은 양반광대, 소매각시, 장자마리 2명, 시시딱딱이 2명이다. 양반은 배꼽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을 기르고, 담뱃대와 부채를 가지고 위엄을 부린다. 소매각시는 하얀 얼굴에 쪽진 머리를 하였으며 양쪽 볼에 연지를 찍었다. 장자마리는 일명 '보쓴놈'이라 부르는데, 머리부터 자루 모양의 장삼 비슷한 것을 땅에 끌리도록 쓴다. 또한 허리에는 둥근 대를 넣어 두 손으로 안고 춤을 춘다. 옷에는 여기저기 해초를 달았다. 시시딱딱이는 무서운 모습의 벽사가면을 쓰고 손에는 칼을 들었다. 입술은 두껍고 한 자 오 푼 이상 깨졌고, 코는 울뚝불뚝하며 빽빽하게 얽고 붉은 칠, 검은 칠을 한 아주 무서운 탈이다.

이 놀이는 모두 다섯 마당으로 진행된다. 맨 먼저 장자마리가 놀이판을 열고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랑, 시시딱딱이의 훼방, 양반이 소매각시의 정절을 의심하자 소매각시는 자살소동을 빚고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관노가면극의 놀이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과장은 장자마리 개시마당이다. 탈놀이의 시작과 함께 장자마리 두 명이 나와서 연희를 개시한다. 포대자루 같은 것을 뒤집어 쓴 장자마리들이 요란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나와서 배불뚝이 춤과 어깨춤을 추며 장내를 돌아다니면서 관중들을 내몰기도 하고 서로 붙들고 다투고 넘어지면서 웃기는 동작을 한다.

제2과장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사랑마당이다. 양반광대가 소매각시에게 구애하는 과장인데 양반광대가 담뱃대를 물고 뒷짐을 지고 등장한다. 양반이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점잖고 위엄 있게 춤을 추다가 소매각시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구애한다. 처음에는 소매각시가 부끄러운 듯이 돌아선다. 그러나 차츰 뜻이 맞아 나중에는 함께 춤을 춘다.

제3과장은 시시딱딱이 훼방마당이다. 두 명의 시시딱딱이가 무서운 형상의 탈을 쓰고 칼을 들고 등장하여 관중에게 위엄을 보이고 칼을 휘두르며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맞서서 춤을 추기도 한다. 이때 양반광대와 소매각시가 다정하게 춤을 추는 것을 발견하고 모의를 한 후 이들에게 접근하여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

제4과장은 소매각시 자살소동이다. 시시딱딱이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사이를 갈라 한쪽에서는 양반광대를 놀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매각시를 희롱하며 춤추기를 원하지만, 소매각시는 이를 완강히 거절한다. 양반광대는 크게 노여워하면서 결국 시시딱딱이를 밀치고 소매각시를 끌고 온다. 소매각시는 양반의 노여움에 두 손을 모아 빌고 양반광대는 소매각시의 결백을 확인하고 용서한다.

제5과장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화해마당이다. 수염을 감고 자살을 기도하여 결백을 증명하려 했던 소매각시와 양반광대의 관용이 화해의 한마당으로 떨쳐진다.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이 놀이는 흥겨운 공동체의 한마당으로 끝을 맺는다.

특징 강릉관노가면극의 특징은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낭제 계통극으로 팻대라는 신격 상징물을 모시고 연희를 하여 단오제라는 공동부락제 정신을 구현하고 있으며 아울러 토착 놀이를 시사한다. 둘째, 한국 가면극 중에서는 유일한 무언극으로 춤과 몸짓언어(마임)로 전체를 표현하는 묵극(默劇)양식이다. 셋째, 관민 공동 놀이로서 놀이자가 관노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넷째, 양반광대의 희화화를 통한 해학성을 나타내며 희극적 요소와 익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다섯째, 소매각시의 행위를 통하여 규벌성, 도덕성, 정조관을 엿보게 한다. 여섯째, 장자마리의 모의적 행동에서 풍요를 기원하고 벽사진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곱째, 시시딱딱이를 통한 예방주술적 의미와 내용상 갈등 요인으로 충실한 극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강릉 관노가면극의 현장론적 반성(김선풍, 江原民俗學 創刊號, 江原道民俗學會, 1983), 강릉 단오굿(김선풍 외, 悅話堂, 1987), 江陵官奴假面劇研究(張正龍, 集文堂, 1989), 江陵端午祭 實測調査報告書(金善豊 外, 문화재관리국, 1994).

필자 | 김선풍(金善豊)

격구(擊毬)

정의 장시(杖匙)라는 채를 이용하여, 나무공[毛毬]을 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구문(毬門)에 넣는 경기. 고려말에는 단오에 남성 중심의 놀이로 크게 성행하였다. 격구(擊毬)는 한자로 타구(打毬), 격구희(擊毬戱), 농장희(弄杖戱), 격봉(擊棒)이라고 하며, 이것을 민간에서는 공치기 또는 장치기라고도 한다.

유래 격구는 원래 페르시아 지방에서 형성되어 인도, 중국 등으로 전파되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크게 성행하였으며, 이것이 발해, 후삼국으로 유입되었다. 격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한치운의 『해동역사(海東繹史)』에 나타나는데, 발해 사신 왕문구(王文矩) 일행이 889년에 일본에 가서 격구를 하였다고 한다. 당시 발해에서 격구가 매우 성행하였으며, 일본에 직접 전파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사(高麗史)』 태조 2년에 아자개 일행의 환영식을 격구장에서 했다는 기록이 처음 나타난다. 따라서 이미 후삼국시대에 격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때 격구가 크게 성행하여 왕들이 좋아하였는데, 특히 의종이 격구에 능숙하였다. 무신정권이 들어서면서 무관들이 무예를 연마하는 군사적 목적 외에 격렬한 마상놀이로 행해지기도 했다. 고려 말기에는 국가적인 오락 행사로 단오절에 왕이 참관하는 대규모 격구대회가 벌어졌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격구가 널리 성행하였다. 태조는 뛰어난 격구술을 지녔으며, 특히 세종은 격구를 무예로서 중시하여 무과시험 과목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조선 초기에 궁궐에서 이루어진 격구는 지상격구[步擊毬] 형태였다. 대개 지상에서 공을 장시로 쳐서 구문를 통과시키기도 하지만, 작은 구멍에 넣는 일종의 미니 골프 형태도 있었다. 조선 중기에 와서 총포와 화포가 발달하면서 말의 효용성이 점차 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마상격구는 조선 중기 이후에 무과시험에서도 빠지면서 점차 약화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민간화되면서 초동(樵童)들의 장치기로 변모되었다. 곧 지상격구가 민간에 전승되면서 나무꾼들이 겨울철에 나무 작대기를 이용해 소나무 옹이로 만든 공을 쳐서 상대 골문에 넣는 형태로 민간에 널리 전승되었다.

결국 격구의 전승은 고려 초기에는 궁궐에서 왕과 왕족 중심으로, 중기에는 무신 중심으로, 후기에는 단오에 격구장이나 저잣거리에서 상하층이 참여한 대규모 격구대회 형태로 전승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무과시험으로 채택되어 놀이적 성격이 줄어들었다가 점차 장치기로 변모되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상층 유희적 성격 → 단오의 집단 세시풍속적 성격 → 상층 유희 및 무과(武科) 무예연마적 성격 → 민간의 겨울철 남성놀이적 성격으로 변모되었다.

내용 격구의 공은 나무로 만들며, 표면에 붉은색 옻칠을 하였다. 경우에 따라 수놓은 비단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장시(杖匙)는 공을 치는 채인데, 약 1미터 되는 긴 대(병부) 끝에 가운데가 뚫어진 숟가락 모양의 타원형 고리(시부)로 되어 있다.

격구는 말[馬]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마상격구(馬上擊毬)와 지상격구[步擊毬]로 나뉜다. 마상격구는 구문(毬門)을 세우는 위치, 개수, 구문의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단구문(單毬門)인 경우, 격구장의 한쪽 끝에 구문을 세우고, 다른 쪽에서 일제히 말을 달려 서로 공을 차지해서 일정하게 구문 사이를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일

1 마상격구
2 보격구
3 구장도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본의 타구(打球)나 폴로(polo)도 이 방식을 채택한다. 쌍구문(雙毬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로 마주보고 공을 빼앗아 상대방의 구문을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이것은 서로 마주보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매우 격렬하고 부상의 위험이 높다. 고려시대에 성행한 격구 방식이 이에 해당된다. 마상격구도 공을 한 개만 사용하느냐, 여러 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식은 여러 개의 공을 순번에 따라 일정한 구문 속에 넣는 방식이다. 따라서 격렬한 접전이 없는 대신 개인의 기량 발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럴 경우 구장의 크기도 축소된다.

의의 격구는 남성들이 주로 하던 역동적인 놀이이면서 무예 연마의 한 수단이었다. 마상격구는 기마술과 마상무예의 습득이 중심이었다가 점차 놀이적 성격이 더해졌다. 그러나 뛰어난 기마술을 지니고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에 비해 지상격구는 궁중에서 왕이나 왕족, 신하들이 즐겼으며, 마상격구의 지상 훈련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지상격구가 민간화 된 장치기는 상층의 놀이가 기층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로 늦가을부터 정월에 걸쳐 젊은이들이 놀던 역동적인 편놀이 형태이다. 곧 마상격구와 달리 기층 집단의 남성들이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겨울철에 즐기는 놀이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舊唐書, 東國李相國集, 朝鮮常識問答, 朝鮮王朝實錄, 朝鮮風俗資料集說 -扇, 左繩, 打毬, 匏-(朝鮮總督府中樞院, 1937), 韓國蹴鞠·擊毬攷(羅絢成, 民族文化硏究3,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69), 韓國의 民俗놀이 -그 理論과 實際-(沈雨晟, 三一閣, 1975), 韓國 民俗놀이의 硏究(崔常壽, 成文閣, 1985), 타구(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편, 조선의 풍습, 학민사, 1993), 발해와 왜의 문화 교류(송기호, 문화와나6, 삼성문화재단, 1997), 韓國의 馬上武藝(임동권·정형호,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7), 보격구의 역사와 복원(정형호·임동권·박전열, 말문화연구회, 1999), 한국 마상격구의 역사와 전승(정형호, 마사박물관지, 마사박물관, 2002).
필자 | 정형호(鄭亨鎬)

그네뛰기[鞦韆戱]

정의 5월 단오에 젊은 여인들이 그네를 뛰면서 즐기는 놀이. 그네뛰기는 나뭇가지나 두 기둥 윗부분에 가로지른 나무에 길게 두 줄을 매어 늘이고, 줄 아래에 밑신개(앉을깨)를 걸쳐 놓고 올라가서 몸을 날려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하는 놀이이다. 한자어로는 추천희(**鞦韆戱**), 반선희(半仙**戱**), 유선희(遊仙**戱**)라고도 한다.

이칭 및 어원 그네의 방언은 매우 다양하다. 최학근의 『한국방언사전』에 그네의 방언이 66가지가 올라 있다. 빈도수가 많은 것은 구늘, 군대, 군데, 군듸, 군디, 군지, 굴기, 굴리, 그눌, 그늘, 근데, 근뒤, 근디, 훌기이다. 대체로 'ㄹ'음이 들어가는 어휘들은 함북, 함남, 평북, 평남의 방언이고, 'ㄷ'음이 들어가는 어휘들은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의 방언이다. 제주에서는 개동개, 굴매, 굴메, 굼메, 궁글, 줄레로 부른다. 특이한 방언으로는 둥개(전남), 술래(경남), 쉬천(함남), 질매(전북), 춘천(강원·경북·전북), 호수마(충북), 훈주(전북)가 있다.

고어에서 그네는 글위, 그릐, 그리 등으로 나타난다. 『두시언해(杜詩諺解)』(1941), 『훈몽자회(訓蒙字會)』(1527), 『악장가사(樂章歌詞)』(16세기 중엽)에는 글위로, 『역어유해(譯語類解)』(1690)에는 그릐로, 『동문유해(同文類解)』(1748)에는 그리로 각각 나타난다. 19세기 자료에는 근의, 그늬, 근우, 그느로 나타난다. 장자백 춘향가에 근의로, 경판본 춘향가에 그늬로, 고대본 춘향가에 근우로, 신재효 동창춘향가에 그느로 각각 나타난다.

그네의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네 뛸 때 발을 구르다'의 '구르다'가 활용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근의 희', 곧 끈[繩]의 놀이[**戱**]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글위 계열에 주목한 것이고, 후자는 근의 계열에 주목한 것이다. 위의 두 견해는 본격적인 연구 결과는 아니고, 한두 줄로 간단히 언급된 것이다. 이 단어의 변천 과정을 그릐〈그리〉그늬로 본다면 후자는 타당성이 없다.

유래 그네뛰기가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것인지, 외국에서 전래된 것인지, 이에 대해 깊이 연구한 흔적은 없다. 갓난아기의 요람이 발전하여 그네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고, 농민들이 밭에 나갈 때 아이들끼리 집에서 잘 놀도록 대문에 추천을 매어주었는데, 이것이 그네로 발전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추녀를 향해 뛰었기 때문에 추천(**鞦韆**)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중국 춘추시대에 북방의 산융족(山戎族)이 즐기던 추천이 제(齊)나라로 전해졌고, 이

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산융족은 한식 때 추천놀이를 하였고, 제나라가 산융과 전쟁을 하면서 추천이 제나라에 전해졌으며, 중국에서도 한식에 궁중에서 추천놀이를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단오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그네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에서부터 나타난다. 고려 현종(顯宗) 때 중국 사신 곽원(郭元)이 "고려에서는 단오에 추천놀이를 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최충헌(崔忠獻)은 고종 3년(1216) 5월 단오에 개성 백정동궁(栢井洞宮)에다 그네를 매고 3일간에 걸쳐서 4품 이상의 문무관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최이(崔怡)는 고종 32년(1245) 5월에 강화도에서 종실(宗室)의 사공(司空) 이상과 재추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이때 산처럼 높게 채붕을 가설하고 수단 장막과 능라 휘장을 둘러치고, 그 안에 비단과 채색비단 꽃으로 장식한 그네를 매었으며, 은과 자개로 장식한 큰 분(盆) 4개를 놓고 거기에다가 얼음산을 만들었다. 또 큰 통 4개에다가 10여 종의 이름난 생화들을 꽂아 놓아서 보는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였다. 그리고 기악(伎樂)과 온갖 잡희[百**戱**]를 보여주었는데, 팔방상 공인(八坊廂工人) 1,350여 명이 모두 성대히 옷차림을 하고 뜰로 들어와서 주악(奏樂)하여 각종 악기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그네는 고려시대에는 상류계층에서 화려한 놀이로 즐겼다. 그리고 그네는 독자적인 놀이가 아니라 잔치나 기악백희(伎樂百**戱**)에 포함되어 있었다. 고려 고종(高宗) 때 지어진 '한림별곡(翰林別曲)'에서도 그네는 고급스럽고 화려한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그네는 호두나무, 쥐엄나무에 붉은 줄로 매어져 있으며, 젊은 남녀가 즐기는 놀이로 암시되어 있다. 이규보(李奎報)는 그네에 관한 시를 여러 편 남겼는데, 이를 통하여 고려시대에 민간에서도 단오에 그네뛰기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15세기 후반에 한양 한복판인 종로 네거리 뒷골목에 화려하게 그네터를 설치하고, 도성을 남북 두 패로 나누어 내기를 하였는데, 장안의 부녀자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성현(成俔)의 시에 그네가 높이 솟아올라 방울을 울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신광수(申光洙)의 시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인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춘향가'의 최초 자료인 유진한(柳振漢)의 '만화본 춘향가(晩華本春香歌)'(1754)에서 춘향은 그네뛰기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이 장면에서 그넷줄은 붉은색으로 묘사되었고, 그네를 뛰는 춘향은 선녀에 비유하였다.

내용 그네뛰기는 전국적으로 전승되었다. 무라야마(村山智順)의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에 따르면, 그가 조사한 227개 지역 중에서 11개 지역을 제외한 216개 지역에서 그네뛰기가 행해지고 있다. 이 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5월 단오에 젊은 여인들이 그네뛰기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단오뿐만 아니라 사월 초파일부터 단오까지 그네뛰기를 하는 지역이 많고, 젊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들도 그네뛰기를 하는 지역





1 그네뛰기 송석화
2 그네뛰기
전남 영광군 법성포 장장식

도 많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남자는 낮에, 여자는 밤에 그네를 뛰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충남 아산, 전북 옥구, 전남 순천·화순·장흥·강진·담양·해남·함평, 경남 함안·양산·진양·합천, 황해 은율, 함북 명천·성진·부령에서는 추석에도 그네를 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제주도에서는 추석에 그네뛰기를 한다. 그리고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따르면 단오에 젊은 남녀들이 그네뛰기놀이를 하는데, 서울이나 시골이 다 같고 특히 관서지역에서 성대하게 한다. 어디에서나 옷을 곱게 차려입고 그네뛰기를 하며 좋은 음식으로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그네는 버드나무, 느티나무, 소나무의 가지에 매기도 하고, 평지에 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윗부분에 가로지른 나무에 매기도 한다. 후자를 '땅그네'라고 한다. 그넷줄은 볏짚이나 삼으로 만든 새끼줄이나 동아줄을 이용한다. 땅그네를 특별히 화려하게 꾸밀 때에는 색헝겊으로 그네틀을 장식한다. 그넷줄 아랫부분에 두 발을 올려놓는 부분을 밑싣개 혹은 앉을깨라고 한다. 그리고 손으로 잡는 부분에는 안전줄을 달아 놓는다. 안전줄은 부드러운 무명으로 만들며, 두 손목과 그넷줄을 매어 놓는 다.

그네 뛰는 방법은 외그네뛰기와 맞그네뛰기(쌍그네뛰기)가 있다. 전자는 한 사람이 뛰는 것이고, 후자는 두 사람이 마주 서서 함께 뛴다. 맞그네뛰기는 본격적인 외그네뛰기 다음에 여흥으로 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네뛰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첫째, 그네가 닿을 만한 곳에 있는 나뭇가지나 꽃가지를 목표물로 정해 놓고 그네를 굴러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발끝으로 차거나 입에 무는 방법으로, 이것은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 둘째, 그네 앞쪽에 방울줄을 높이 달아놓고 그것에 닿도록 하는 방법으로, 밑에서 조종하여 방울줄을 점점 높여감으로써 최고 높이를 측정한다. 성현의 시로 보아 적어도 15세기에 이 방법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앉을깨 밑에 자눈[尺目]을 박은 줄을 매어 놓고 그넷줄의 정지 지점부터 공중으로 몇 미터 올라갔는지를 측정하여 우열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근래에 창안된 것이다.

5월에 젊은이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젊음의 축제는 발랄한 성(性)이 풍요로운 생산과 맞물리는 주술적 행위이기도 하다. 그네뛰기는 이러한 젊음의 축제에 잘 어울리는 놀이이다. 일상에 갇혀 있던 젊은 여성들은 5월 단오를 맞아 그네를 타고 하늘로 솟으며 젊음을 마음껏 발산한다. 한편, 그네뛰기는 다리의 힘을 길러주며 몸을 탄력 있게 가꾸어주기도 한다. 단오에 그네를 뛰면 한여름에 모기에 물리지 않고, 또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속신(俗信)이 있다. 그래서 그네를 뛰면서, "5월 단오에 모기야 물러가라." 하고 외치기도 한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宋史, 洌陽歲時記, 朝鮮王朝實錄, 訓蒙字會,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朝鮮常識(崔南善, 東明社, 1948), 麗謠箋注 -古歌硏究續篇-(梁柱東, 乙酉文化社, 1954),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方言辭典(崔鶴根, 明文堂, 1987), 어원사전(安玉奎 著, 吳正煥 編, 東北朝鮮民族敎育出版社, 1989), 북한 학자가 쓴 조선의 민속놀이(도유호 외, 주강현 해제, 푸른숲, 1999), 우리나라 민속놀이(沈雨晟, 東文選, 2000).

필자 | 전신재(全信宰)

봉산탈춤(鳳山-)

정의 단오놀이로 황해도 봉산군 동선면 길양리의 경수대에서 전승되던 탈춤.

유래 18세기 중엽 이속(吏屬)이었던 안초목(安草木, 초목은 첫목 역할을 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이 남쪽의 어느 섬으로 유배갔다가 귀향하여 나무탈을 종이탈로 바꾸는 등 탈춤을 많이 발전시켰다는 설이 전해져 온다. 이 설은 탈춤의 역사적 성립 및 발전과 함께 고찰되어야 할 과제이다.

조선시대 전기까지 가면희(假面戱)를 포함한 산대희(山臺戱)나 나례희(儺禮戱)는 궁중과 지방관아에 전승되었다. 1634년(인조 12) 이러한 공적인 의식이 폐지된 이후 거기에 참여했던 연희자들이 사직동이나 아현동을 중심으로 발전시킨 것이 본산대탈춤이다. 본산대란 산대도감(山臺都監)에 소속되었던 연희자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본산대탈춤이 지역으로 퍼져, 지역적 특성이 더해져서 발전한 것이 봉산탈춤이라 할 수 있다. 탈춤의 발전에는 지방 이속들의 역할이 컸으며, 봉산의 안초목도 그런 인물의 하나이다. 봉산탈춤이 단오놀이가 된 것은 북










〈봉산탈춤〉 1 사당춤 2 노장춤 3 노장춤 4 취발이춤 5 신장수춤 6 양반춤 7 미얄할미 - 영감춤 8 미얄할미춤 문화재청

한지역의 기후와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곧, 단오놀이를 위해서 2층 관람석의 사용권은 공연 비용을 내는 상인들에게 맡겨졌다. 탈판은 낮에는 남자들의 씨름판과 여자들의 그네뛰기에 사용되었고, 밤에는 장작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탈춤을 추었다.

내용 1915년경부터 사리원으로 옮겨 경암산 아래에서 전승되었다. 황해도(해서지역)에 널리 전해져 오는 탈춤의 한 종류이다. 해서지역에서는 가면희나 가면극을 고유어로 탈놀이 혹은 탈놀음이라고 하지 않고 탈춤 혹은 놀탈이라고 했다. 사리원으로 옮기게 된 것은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고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라 도시화와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탈춤은 다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였고, 배역의 활달한 춤과 뛰어난 연기로 국내 최고의 탈춤으로 명성을 떨쳤다.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일제의 전통민속 탄압, 광복 이후의 혼란기, 북한정권 수립 이후의 민속행사 제지로 파탄의 길을 걷게 되었다. 6·25 이후 사리원에서 월남한 노장 역의 김진옥(金辰玉)과 놀량창 사자마부 역의 민천식(閔千植)에 의해 복원되었다.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으며, 젊은 계승자들의 우수한 기량과 지속적인 세계일주 공연으로 오늘날 국제적인 한국전통극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놀이 준비는 군민에게 비용을 거두어 탈을 만들고 무당의 의상을 차용하여 약 한 달간 읍내에서 떨어진 백운암(白雲庵)에 가서 합숙하며 연습을 했다. 봉산에서는 경수대 앞에 나지막한 축대를 쌓아 그 위에서 놀았으나, 사리원에서는 경암루 앞 광장에 28개로 나뉜 반원형 다락을 매고 안마당에 멍석을 깔아 탈판을 마련하였다. 이 28개 다락 중 탈판 오른쪽 제3의 구획을 탈막[改服廳]으로 썼다. 놀이는 길놀이, 고사, 무동춤으로 이루어진 전편과 탈놀이로 이루어진 후편으로 구별된다. 길놀이는 탈놀이에 출연하는 일부가 악공의 주악을 선두로 사자, 말뚝이, 취발이 순서로 열을 지어 읍내를 일주한다. 이때 원숭이는 앞뒤로 뛰어다니며 장난한다. 행렬이 광장에 이르면 연희자와 관람객이 모두 어울려서 한참 춤을 추고, 다시 열을 지어 지정된 탈판으로 가서 본격적인 탈춤을 시작한다. 원숭이와 사자는 놀이판이 좁아지면 관객을 정리하기도 한다. 탈춤을 마치면 탈을 태우는 소제(燒祭)를 치르면서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의 무사를 축원한다.

탈놀이는 크게 일곱 과장으로 나누어진다. 제1과장 상좌춤은 사방신(四方神)에 대한 의식무(儀式舞)로 벽사적(辟邪的) 의미를 지닌다. 상좌 4명이 전아한 승무를 춘다. 제2과장은 8목중춤으로 제1경 목중춤과 제2경 법고놀이로 이루어져 있다. 목중춤은 여덟 목중이 사설과 춤으로 각각 자기 소개를 하며 스스로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 법고놀이는 목중 1과 2가 법고를 가지고 남녀가 옷을 벗고 노는 재담을 한


사자 국립민속박물관


말뚝이 국립민속박물관


목중 국립민속박물관


미얄할미 국립민속박물관


소무 국립민속박물관


취발이 국립민속박물관


상좌 국립민속박물관


노장 국립민속박물관

다. 근래에는 법고놀이가 없어졌다. 제3과장은 사당춤으로 7명의 거사들이 화려하게 치장한 사당을 업고 등장하여 함께 어울린다. 홀아비 거사가 사당을 희롱하다 쫓겨나는가 하면, 7명의 거사들은 놀량가를 합창하며 질탕하게 논다. 제4과장은 노장춤으로 제1경 노장춤과 제2경 신장수춤, 제3경 취발이춤으로 나뉜다. 노장춤은 생불(生佛)이라는 칭송을 받던 노장이 소무에게 유혹되어 파계하는 대목으로 파계승에 대한 풍자를 보여준다. 전체가 판토마임으로 이루어진 절정 국면이다. 신장수춤은 노장이 소무의 신을 외상으로 사자, 신발값을 받으려고 신장수가 원숭이를 보냈다가 장작전으로 오라는 노장의 편지에 장작찜(폭력)을 당할까 봐서 급히 도주한다. 수도자에서 세속인이 된 노장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다. 취발이춤은 취발이가 노장과 대결하여 노장을 물리치고 소무와 사랑을 나눈 뒤 아이를 얻고서 자문자답으로 아이를 어르고 글을 가르치고 신세타령을 하는 내용이다. 노장과 취발이의 대결은 늙음과 젊음, 겨울과 여름의 대결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취발이가 소무에게 하는 모의적인 성행위와 출산은 풍요제의적(豊饒祭儀的) 성격을 띤다. 제5과장은 사자춤으로 파계승들을 벌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보낸 사자가 나타나 목중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목중들이 회개하겠다는 말을 듣고 용서하고 함께 춤을 춘다. 제6과장은 양반춤으로 주로 말뚝이와 양반 삼형제와의 재담으로 이루어진다. 새 거처를 정하는 놀이, 시조짓기와 파자(破字)놀이, 나랏돈 잘라먹은 취발이를 잡아오는 놀이를 통하여 말뚝이는 독설과 풍자로써 양반들을 신랄하게 욕보인다. 제7과장은 미얄춤으로 난리 중에 헤어졌던 영감과 미얄할미가 서로 만났는데 영감이 데려온 첩 덜머리집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미얄은 영감한테 맞아죽는다. 남강노인이 등장하여 무당을 불러 진오귀굿을 해준다. 서민생활의 곤궁상과 일부다처제로 인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횡포를 보여주며, 마지막 굿은 탈춤의 기원이 굿에 있음을 보여준다.

탈놀이라고 하지 않고 탈춤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무용성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탈의 특징은 기본재료인 종이를 매우 폭넓게 활용하여 형태나 색채면에서 조형감각이 뛰어나고, 아울러 연극적인 상징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무서운 느낌을 주는 귀면성(鬼面性), 희화적인 입체성, 익살스런 느낌을 주는 해학성(諧謔性)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흑, 백, 청, 적, 황의 오방색은 강렬한 느낌을 준다. 춤은 삼현육각(三絃六角)이 연주하는 염불, 타령, 굿거리, 만신가락에 맞추어 춘다. 팔목중들이 추는 춤이 기본춤이다. 불림(1장단), 고개잡이1(2장단), 고개잡이2(1장단), 무릎올리기(2장단), 황소걸음(1장단), 불림(1장단), 외사위(3장단), 겹사위(2장단), 양사위(2장단), 외사위(1장단), 앉아뛰어외사위(2장단), 앉아뛰어겹사위(2장단)로 구성되어 있다. 장삼 소매를 휘어잡고 뿌리거나 한삼을 경쾌하게 뿌리면서 두 팔을 굽혔다 폈다 하고, 발은 높이 뛰면서 활달하게 추는 춤이다. 이밖에도 연풍대, 까치걸음, 물결사위, 게걸음, 가제걸음, 활개펴기, 개구리뛰기, 물레방아돌기, 도리깨질사위, 만사위, 상우리, 합장재배 같은 여러 가지 춤이 있다. 배역에 따라 다른 춤도 있다.

의의 봉산탈춤은 여러 지역에 전승되는 탈놀이에 비하여 탈의 원형과 기능, 제작기술, 춤사위의 독창성과 연기적인 표현, 다양한 의상과 미적 우수성, 노래와 규모를 갖춘 반주악 등 여러 측면에서 민속적 수준을 넘어 풍부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전통극이라 하면 봉산탈춤을 떠올릴 정도로 국내외 사람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봉산탈춤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봉산가면극각본(송석하, 문장2-6호, 1946), 鳳山탈춤 臺詞(任晳宰, 國語國文學18, 國語國文學會, 1957), 韓國假面劇(李杜鉉, 韓國假面劇研究會, 1969), 황해도탈놀이(徐淵昊, 悅話堂, 1988), 한국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전경욱, 열화당, 1998), 한국 가면극 연구(서연호, 도서출판 월인, 2002).

필자 | 서연호(徐淵昊)

석전(石戰)

정의 조선 중기 이전까지 주로 단오와 정월 대보름 저녁에 편을 나누어 돌을 던지면서 놀던 집단놀이. 석전은 편전[邊戰, 便戰], 석전놀이[石戰戱], 돌팔매놀이[石擲戱]라고도 하며, 개천이나 넓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민들이 편을 갈라 돌을 던져 먼저 쫓겨 달아나는 쪽이 지는 놀이이다.



내용 석전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명종(明宗) 때까지 단오놀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조선 후기 이후 단오놀이가 쇠퇴하면서 차차 정월 보름으로 옮겨졌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는 "국속(國俗)에 5월 5일에 넓은 가로(街路)에 크게 모여서 돌을 던져 서로 싸워서 승부를 겨루는 습속이 있는데, 이것을 석전(石戰)이라고 한다(태종 1년 5월 5일)."라고 하였다. 세종 때는 의금부에서 단오 석전놀이를 금하였는데, 양녕대군(讓寧大君)과 종친(宗親)들이 이 놀이를 구경하고 오히려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하여 탄핵 대상이 되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공민왕(恭愍王) 23년(1374)에 석전놀이[石戰戲]를 금지시켰고, 우왕(禑王) 6년(1380)에는 임금이 석전놀이를 관람하기를 원했다고 하는데, 모두 5월 단오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에 들어와서도 중기까지 석전은 단오놀이로 나온다. 명종(明宗) 10년(1555)에 왜변(倭變)이 일어났는데, 임금이 왜구를 진압할 방책을 의논하던 중 석전꾼[石戰軍]으로 김해(金海) 사람 백 명을 뽑아 보낸 것처럼 안동(安東) 사람들을 뽑아 방어하게 하자는 대책이 나왔다. 당시에도 김해와 안동이 석전놀이로 유명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이후 석전놀이는 단오놀이에서 정월 대보름 놀이로 옮겨갔다. 영조(英祖) 47년(1771)에 임금이 평양(平壤)에서 벌이는 석전을 엄중히 금하라고 하였는데, 그 시기는 정월 대보름이었다. 그러나 김해 지역에서는 그 후에도 5월 단오에 석전을 행하였다.

보리 추수가 단오 이전에 끝나는 밭농사 지역과는 달리 논농사 지역에서는 단오 때 모내기로 한창 바쁜 시기이다. 따라서 석전놀이가 단오에서 정월 대보름으로 옮겨간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의 이앙법 보급 등 농업 발전에 상응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牧隱先生文集, 隋書, 朝鮮王朝實錄, 石戰考(孫晉泰, 朝鮮民族文化의 硏究, 乙酉文化社, 1948), 歲時關聯 記錄들을 통해 본 조선시기 歲時風俗의 變化(鄭勝謨, 역사민속학13,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필자 | 정승모(鄭勝謨)

⇨ 석전(石戰): 정월편

송파산대놀이(松坡山臺-)

정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전승되는 탈춤의 한 종류. 서울, 경기 지방에서 전승되는 탈춤을 산대(山臺)놀이라고 부르며, 현재는 양주와 송파 두 지역의 산대놀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양주는 관원들에 의해 전승되었고, 송파는 장터의 장꾼들과 마을주민에 의해 전승되었으며, 주로 사월 초파일, 5월 단오, 7월 백중에 송파 장터에서 상업적 흥행을 목적으로 펼치던 놀이이다.

어원 산대(山臺)라는 명칭은 일명 채산(彩山), 채붕(綵棚)이라는 가설무대로서 주로 궁중에 설치하였으며, 거기서 가무백희가 열렸고 신라 진흥왕 이래 팔관회와 고려시대의 연등회에서도 펼쳐졌다. 조선시대에는 산대도감(山臺都監)에서 이같은 국가적 행사를 담당하여 산대도감놀이가 성행하였다. 따라서 산대(山臺)는 '산과 같이 큰 무대', '비단으로 장식된 무대'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송파(松坡)라는 지명은 송파나루 지역이 한강줄기의 굴곡이 심한 침식구간이어서 소나무숲이 우거졌던 송파 언덕이 점차 무너져 사람들이 언덕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생겨 붙여졌다고 전한다.

유래 산대놀이는 조선시대의 산대도감놀이와 산희(山戲)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산대놀이가 현실적 삶을 소재로 한 집단놀이로 변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종교적인 요소



















〈송파산대놀이〉 1 탈놀이 행렬 2 탈고사 3 상좌춤놀이 4 먹중놀이 5 먹중놀이 6 노장놀이 7 신장수놀이 8 신장수놀이 9 신할애비 - 신할미놀이 서울시 송파구 최호석

를 간직하고 있다. 조선조의 산대도감놀이는 임진·병자 양란 후 쇠퇴기로 접어들어 인조 이후에는 귀신을 물리치기 위한 나례(儺禮) 규모도 작아지고, 숭명배청(崇明排淸)의 사조와 함께 청나라 사신을 영접할 때의 산대 잡희도 열기가 식었으며, 영조 이후에는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그 후 산대도감의 창우광대들이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본래 지방에서 전승되던 탈춤과 습합되어 산대도감 계통의 민속 탈춤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에서 현존하는 산대놀이의 왜장녀와 소무 배역이 거론되고, 먹중과 파계승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산대도감놀이에서 오늘날 전승되는 산대놀이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산대도감 폐지 후 산대놀이패들이 처음에는 애오개(현재 서대문구 아현동 일대)에 본거지를 두고 민간인들을 상대로 탈춤을 추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산대(本山臺)라고 하였으나, 점차 인근지역으로 퍼져나가 사직골, 녹번, 구파발, 노들(노량진)에서 전승되다가 지금은 본산대의 맥을 이은 것으로 보이는 송파산대놀이와 양주별산대놀이만이 전승되고 있다. 송파산대놀이는 노들산대놀이에서 한강 뱃길을 따라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양주별산대놀이는 구파발산대놀이의 초청 연희에서 자체 놀이로 재구성하여 별산대놀이란 명칭이 생겨났다.

송파는 서울 근교 5대 한강 나루터(송파, 한강, 서빙고, 용산, 마포)의 하나로, 수운(水運)으로는 강원도까지 배가 내왕하였고, 육운(陸運)으로는 보부상과 마행상들이 전국을 돌던 상업 지역이었다.

송파장은 을축년(1925) 대홍수 때까지 270호의 객주가 성업을 이루었다. 이렇게 시장이 번창할 즈음 장판에는 되쟁이, 마쟁이(되나 말로 곡식을 되어주는 직업), 임방꾼(배에 화물은 싣고 푸는 직업), 잡심부름꾼, 술집, 운송점(마루하치: 화물창고와 주문처), 선원, 연초가공, 신탄상, 우시장 같은 갖가지 직업과 거상(巨商), 거부(巨富)가 많아 그들이 추렴하는 기부금으로 매년 대소 명절과 장날에 산대놀이판을 벌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자연히 기부금 또는 주점상들의 성금으로 매년 큰 명절 때 산대놀이를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송파산대놀이가 상업적인 도시가면극의 성격을 짙게 풍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송파산대놀이는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의 뒷받침 아래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경인, 경부 철도가 생기고(1900년 전후) 천호동 광진교가 건설되어 교통수단이 원활해지자 송파진의 경기는 차차 후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을축년 대홍수로 송파장과 마을 전체가 유실되어 신송파로 물러나면서 자연히 송파산대놀이가 시들해졌다.


노장 최호식


소무 최호식


쇠뚝이 최호식


신할배 최호식


신할미 최호식


연닢 최호식


옴중 최호식


왜장녀 최호식


원숭이 최호식


취발이 최호식


신주부 최호식


포도부장 최호식

그 후 송파산대놀이는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어 신송파 옛 장터에서 전수하다가, 1985년 잠실 석촌호수 공원 안에 전수회관과 서울놀이마당을 건립하여 전승되고 있다. 지정 당시 연희자는 허호영, 김윤택, 이범만, 한유성, 이충선이었으나, 지금은 모두 작고하고 대를 이어 김학석, 함완식, 이병옥, 안병인이 전수하고 있다.

내용 송파산대놀이는 정월 초, 사월 초파일, 5월 단오, 7월 백중, 8월 한가위 같은 명절과 장날에 주로 탈춤판을 벌였으며, 특히 5월 단오와 7월 백중에는 7일씩 춤판을 벌인다. 낮에는 줄 걸고(줄타기) 씨름 붙이고 소리판을 벌이다가 산대놀이가 시작되면 먼저 길놀이로 송파장을 중심으로 송파산대기를 앞세우고 마을을 돌며 쌍호적, 징, 제금, 장고 반주에 산대패들이 춤을 추며 산대마당에 돌아와 탈을 늘어놓고 고사를 지낸다. 저녁이 되면 횃불과 모닥불을 밝히고 개복청(탈막)에 들어가 열두 마당 순서에 따라 배역들이 등장하여 춤판을 벌였다.

놀이 형태는 다른 탈춤과 같이 춤이 주가 되면서 재담과 창(唱), 몸짓으로 마당별로 각 배역이 탈을 쓰고 등장하여 판을 흥겹게 이끌어 간다. 반주악기는 삼현육각(장구, 피리 2, 대금, 해금, 북)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쓰지 않는 고형의 염불 12박 장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타령장단이 주가 되고, 굿거리와 당악장단으로 배역별로 춤을 반주한다. 탈은 바가지탈로 소나무 껍질로 요철(凹凸)부위를 붙이고 한지조각으로 여러 겹 붙여 말린 다음 단청으로 채색하여 보자기를 붙여 머리에 쓰고 묶는다.

송파산대놀이의 열두 마당과 배역별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당은 상좌춤놀이, 둘째 마당은 옴중, 먹중놀이, 셋째 마당은 연잎, 눈끔적이놀이, 넷째 마당은 애사당 북놀이, 다섯째 마당은 팔먹중 곤장놀이, 여섯째 마당은 신주부 침놀이, 일곱째 마당은 노장놀이, 여덟째 마당은 신장수놀이, 아홉째 마당은 취발이놀이, 열 번째 마당은 샌님-말뚝이놀이, 열한 번째 마당은 샌님, 미얄할미, 포도부장놀이, 열두 번째 마당은 신할애비, 신할미놀이이다.

탈춤마당 진행은 먼저 길놀이로 용두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악사들의 연주에 맞춰 탈춤 배역 순으로 탈과 의상을 갖춰 입고 출연 배역 순서대로 줄을 지어 동네와 장터를 돌아 탈춤판에 도착하면 탈을 벗어 고사상 앞에, 양반 및 상좌탈은 맨 윗줄에, 팔먹중은 중간줄에, 여성탈은 아랫줄에 놓고 떡과 과일과 술을 진설하여 고사를 지낸다. 초헌과 아헌과 종헌을 하고 연희자 모두 절을 하고 축문을 읽고 소지한 다음, 떡과 술은 관객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개복청으로 옮겨 탈춤판을 정비하여 첫 상좌부터 춤판을 벌인다. 첫 상좌는 먼저 염불장단에 합장재배와 사방재배하며 천신께 춤판의 시작을 알리고 연희자와 구경꾼 모두 안녕을 빌고 탈춤판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춤을 춘다. 마당별로 전개하여 마지막 열두 마당에서 무당이 등장하여 신할미의 지노귀굿을 하며 막을 내린다.

춤사위는 염불장단의 거드름춤, 굿거리장단에 건드렁춤, 타령장단에 깨끼춤을 추는데, 깨끼춤에는 화장무, 반화장, 자진화장, 곱사위, 여닫이, 긴여닫이, 배치기, 어깨치기, 깨끼리, 염풍댕이, 돌단이, 거울보기, 팔뚝잡이, 멍석말이, 덜미잡이, 자라춤, 장단먹기, 궁둥치기, 배춤, 갈지자춤, 양반까치걸음, 취발이까치걸음, 빗사위, 갈지자걸음, 뒷짐걸음, 원숭이재롱춤, 활개걸음, 건드렁, 껑충걸음 등이 있다. 타령장단의 깨끼춤은 송파산대놀이의 기본이 되며 흥과 신을 풀어내는 춤이다. 집단적이며 민중들의 순수한 감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춤이기 때문에 주로 팔먹중, 취발이, 말뚝이와 같은 민중성을 띤 인물들이 춤을 춘다. 염불장단은 특수배역만이 추는 장단으로 첫 상좌의 합장재배와 사방재배춤, 옴중의 용트림춤, 노장의 복무(伏舞)가 있다.

의의 송파산대놀이는 사월 초파일, 5월 단오, 7월 백중의 세시풍습과 관련하여 농번기를 지나 며칠간의 농한기를 맞이할 때, 송파장에서 상인들이 추렴하여 상업적 번성을 목적으로 펼치던 서울 지방의 탈춤이다. 송파산대놀이 열두 마당의 내용에 담긴 주제는 종교적 의식무와 양반에 대한 풍자, 파계승에 대한 조롱, 서민들의 애환, 처첩간의 갈등 같은 당시 사회상을 담고 있어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면서 교훈적인 내용을 탈춤으로 풀어내어 관객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즐거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韓國假面劇의 美學(趙東一, 한국일보社, 1975), 송파산대놀이 연구(李炳玉, 集文堂, 1982), 山臺탈놀이(徐淵昊, 열화당, 1987).

필자 | 이병옥(李炳玉)

수박희(手搏戱)

정의 맨손으로 승부를 가리는 무예 수박(手搏)을 놀이로 삼은 것. 수박은 수박(手拍), 권법(拳法), 슈벽, 수벽치기, 수벽타(手癖打)로도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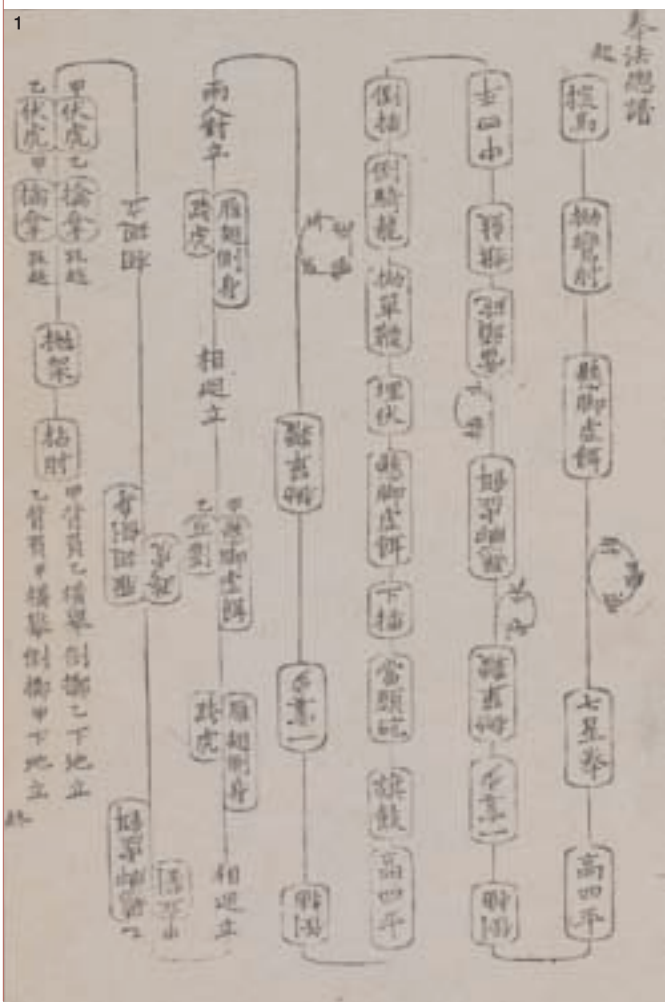
유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따르면 수박의 기원은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내용이 중국의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수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립되고 행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신채호(申采浩)는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에서 신수두 단전(壇前)의 경기회(競技會)에서 뽑힌 선배[先人, 仙人]들이 수박, 격검(擊劍) 같은 각종 기예를 익혔다고 하였는데, 이 설은 아직 문헌으로 뒷받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구려 무용총과 안악 제3호분의 벽화에 그려진 두 사람이 겨루는 장면을 볼 때, 당시에 수박희를 놀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박 및 수박희란 명칭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고려시대이다. 『고려사(高麗史)』「두경승전(杜景升傳)」에 수박하는 자가 경승을 불러 대오(隊伍)를 삼으려 했다고 하고, 「이의민전(李義旼傳)」에는 이의민이 수박을 잘해서 의종(毅宗)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며, 「최충헌전(崔忠獻傳)」에는 수박에서 이긴 군사에게 교위(校尉), 대정(隊正) 자리를 상으로 주었다고 하였다. 또 「정중부전(鄭仲夫傳)」에는 의종이 보현원(普賢院)에서 무신들에게 오병(五兵)의 수박희를 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말의 충혜왕(忠惠王)은 수박희를 즐겨 관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전기에도 고려 수박의 전통은 그대로 계승된다.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

1 권법총보
2 권법총도
『武藝圖譜通志』 서울대학교 규장각





錄)』, 『세조실록(世祖實錄)』에는 수박희로 시험하여 군사를 뽑았다거나, 왕이 수박 잘하는 사람을 별도로 뽑아서 연회 때 하게 했다는 수박과 관련된 기록이 적지 않게 전해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수박희가 15세기에 이미 민간의 세시풍속으로 정착되었다는 사실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충청도 은진현(恩津縣)과 전라도 여산군(礪山郡)의 경계지역인 작지(鵲旨)에서 매년 7월 15일 근방의 두 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박희로 승부를 겨루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이후 중국 권법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수박은 새롭게 체계화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무예도보통지』 제4권 「권법편」에 실려 있다. 『재물보(才物譜)』나 『해동죽지(海東竹枝)』에 따르면, 18세기 이후 전통 수박은 다시 발기술 위주의 탁견(托肩)과 손기술 위주의 슈벽[수벽치기, 手癖打]으로 분화, 발전한다. 최근 택견 인간문화재 송덕기, 신한승의 제자들에 계승되고 있으며, 손기술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손발과 몸을 모두 사용하는 수박과 구별된다. 『재물보』에서 당시의 슈벽이 수박과 다르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무예도보통지』를 보면 두 사람이 하던 수박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데, 전반부에서는 각기 정해진 세(勢)의 변화를 시범하다가 후반부에 이르면 마주 서서 겨루기를 연출한다. 제4권의 권법보(拳法譜)에서는 세의 변화를 그림과 함께 설명하였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두 사람이 각각 왼손과 오른손을 허리에 끼고 나란히 섰다가 먼저 탐마세를 취하고, 오른손으로 왼어깨를 쳐 열면서 즉시 요란주세를 취한다. 왼손으로 오른어깨를 쳐 열고 ② 앞으로 전진해 현각허이세를 취한다. 오른발로 오른손을 차고 왼발로 왼손을 차고 오른발로 오른손을 차고는 바로 순란주세를 취한다. 왼쪽으로 한 번 돌고 왼손으로 오른발을 한 번 치고 ③ 그대로 칠성권세를 취한다. 좌우로 씻고 고사평세를 취한다. 오른손과 왼발을 앞으로 한 번 찌르고 ④ 바로 도삽세를 취한다. 두 손을 높이 든 채 돌아보며 몸을 돌려 뒤를 향해 일삽보세를 취한다. 오른손을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 ⑤ 그대로 요단편세를 취한다. 한 걸음 뛰어 오른손으로 오른쪽 둔부를 치고 그대로 복호세를 취한다. 나아가 앉았다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일어나 다시 현각허이세를 취한다.

⑥ 그대로 하삽세를 취하고 왼쪽으로 한 번 돌면서 오른손과 왼발을 한 번 치고 바로 당두포세를 취한다. 왼손으로 앞을 막고 오른손으로 이마를 가리며 ⑦ 그대로 기고세를 취한다. 좌우를 씻고 다시 중사평세를 취한다. 오른손과 왼발을 뒤로 한 번 찌르고, 그대로 도삽세를 취한다. 앞을 돌아보고 ⑧ 몸을 돌려 도기룡세를 취한다. 왼손과 오른손을 열면서 요단편세를 취한다.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대로 매복세를 취한다. 일자로 나아가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현각허이세를 취한다. 그대로 하삽세, 당두포세를 취하고, 다시 기고세, 고사평세, 도삽세를 취하고, 바로 일삽보세, 요단편세를 취한다.

⑨ 바로 오화전신세를 취하고, 오른손과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돌려 ⑩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안시측신세와 과호세를 취한다. 두 손을 열고 닫으며 좌우로 서로 탐색하다가 ⑪ 갑이 현각허이세를 취하여 좌로 차고 우로 차며 앞으로 몰고 나가면, 을이 구류세를 취하여 좌우 손으로 막으며 물러나 안시측신세, 과호세를 취한다. 서로 돌아선다. 을이 현각허이세를 취하여 진격하면 갑이 다시 구류세를 취하여 물러난다. 두 사람이 바로 안시측신세, 과호세를 취한다. 서로 돌아선다.

⑫ 갑이 나아가 복호세를 취하면, 을이 금사세를 취하고 뛰어넘어 즉시 복호세를 취한다. 갑 또한 금나세를 취하고 뛰어넘어 ⑬ 두 사람이 바로 포가세를 취한다. 두 손으로 오른발등을 치고 다시 점주세를 취한다. ⑭ 갑이 오른손으로 을의 왼어깨를 잡으면, 을은 오른손으로 갑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부터 들어가 목을 꼬아 갑의 왼어깨를 잡고, 각기 등뒤로 왼손을 건다. 갑이 을을 업어서 빗겨 들어 거꾸로 던지면, 을은 물레가 돌듯 순식간에 땅에 내려서고, 을이 다시 갑을 들어 앞의 예와 같이 하고 끝낸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輿地勝覽, 武藝圖譜通志, 才物譜, 朝鮮王朝實錄, 海東竹枝, 朝鮮上古史(申采浩, 鍾路書院, 1948), 韓國 遊戲史 硏究 -甲午更張以前을 中心으로-(羅絢成, 百祥文化社, 1977).

필자 | 안상복(安祥馥)

씨름

정의 두 사람이 맞잡고 힘과 기술을 부리어 상대를 먼저 땅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경기. 경기 방식에 따라 선씨름, 띠씨름, 바씨름, 왼씨름, 오른씨름이 있다. 선씨름은 서서 하는 씨름이며, 띠씨름은 허리에 두른 띠를 두 손으로 잡고 하는 씨름이고, 바씨름은 오른팔과 다리에 샅바를 감고 겨루는 씨름이다. 왼씨름은 샅바를 오른쪽 넓적다리에 매고 상대방이 이를 왼손으로 잡고 겨루는 씨름이고, 오른씨름은 왼다리에 맨 샅바를 상대가 오른손으로 잡고 겨루는 씨름이다. 씨름의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애기씨름, 중씨름, 상씨름이 있는데, 애기씨름은 어린이들의 씨름이고, 중씨름은 젊은이들의 씨름이며, 상씨름은 어른들의 씨름이다. 씨름은 주로 남자들끼리 벌이는 경기지만, 여자들끼리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칭 및 어원 씨름은 각력(角力), 각저(角觝, 角抵), 각희(角戲), 상박(相撲)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이 한자 용어가 반드시 한국의 씨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문헌에 따라서 중국의 씨름 혹은 씨름과 유사한 경기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상박(相撲)은 일본의 스모[相撲]와 표기가 같다.

씨름의 어원은 '서로 버티어 겨루다'의 뜻을 가진 경상도 방언 '씨루다'가 명사화하여 '씨름'이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씨름 경기는 일상적으로 벌이기도 하고, 명절에 벌이기도 한다. 명절 중에서는 5월 단오, 7월 백중, 8월 추석에 씨름 경기를 벌인다.

내용 우리나라 씨름의 기원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아직 없다. 원시사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짐승들과 혹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맨몸으로 싸워야 했다. 맨몸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패권을 잡을 수 있었기에 원시사회 사람들은 적대자와 맨몸으로 싸우는 기술을 익혔을 것이고, 그 기술을 점차 발달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맨몸으로 싸워서 이기려는 소망은 자연스럽게 원시종교에 수용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제의(祭儀)에 맨몸으로 싸우는 행위가 포함되었을 것이고, 세월이 흘러 놀이로 변모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추리가 타당하다면 이것은 온 인류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오늘날 비록 경기 방법은 다르지만, 씨름과 비슷한 경기는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각 민족과 국가 나름대로 고유한 양식의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씨름은 널리 분포되어 있고, 그 기원은 인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씨름의 기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는 어렵다. 유물 자료에 따르면, 기원전 3,000년 무렵에 씨름이 존재하고 있었다. 고대 바빌로니아 유적에서 씨름 장면이 새겨진 청동 제품이 나왔는데, 이 청동 제품의 제작 연대가 기원전 3,000년 무렵이다. 이집트의 씨름 장면 벽화는 기원전 500년 무렵에 제작된 것이다. 문헌 자료에 따르면, 서양의 경우 그리스 최고(最古) 서사시인 호메로스(Homeros)의 『일리아스(Ilias)』에 씨름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동양의 경우,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씨름이 존재하고 있었다. 송(宋)나라 고승(高承)의 『사물기원(事物紀原)』 9권에 씨름은 육국시대(전국시대)에 형성되었다는 기록(角抵昔六國時所造)이 있다.

우리나라 씨름에 관한 최초의 자료는 고구려 고분 벽화이다. 4세기 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길림성(吉林省) 집안현(集安縣)의 씨름무덤[角





1 각저총 씨름도
서울대학교 박물관
2 대쾌도(유숙)
서울대학교 박물관

抵塚]에 씨름 장면이 그려져 있다. 안칸[玄室] 오른쪽 벽에 있는 이 그림은 큰 나무 오른쪽 밑에서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씨름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백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구부정하게 서서 심판을 보고 있다.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네 마리의 까치(혹은 까마귀)는 씨름 경기를 주시하듯 목을 길게 뽑고 있다. 두 사람은 웃통을 벗고 몽골식 짧은 바지만 입고 있으며, 상대방의 허리를 서로 잡고 있다. 나무 왼쪽에는 부엌과 여인이 있다. 여인은 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다. 안칸 왼쪽 벽에는 나무, 수레, 말, 마부가 그려져 있으며, 천장에는 해, 달, 별, 불꽃무늬, 초롱무늬가 그려져 있다. 이 벽화에서 고구려시대에 이미 씨름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씨름의 기원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이 벽화에서 심판, 씨름하는 자세, 나무, 두 사람의 얼굴 모습이 눈길을 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씨름에 엄격한 규칙이 있다는 증거이다. 고구려시대에 이미 씨름은 정밀한 규칙을 가진 경기였음을 알 수 있다. 씨름하는 자세로 보아 두 사람은 띠씨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샅바를 매지도 않았고, 상대방의 넓적다리를 잡고 있지도 않으며, 서로 상대방의 허리를 잡고 있다. 샅바씨름은 후세에 발달한 경기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나무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아 이 나무는 신목(神木)이다. 이들은 신성한 장소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씨름은 제의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신목 왼쪽에 있는 부엌도 제의를 준비하는 부엌이고, 신목 오른쪽 아래에 놓인 그릇도 제의에서 사용하는 그릇일 수 있다. 그런데 씨름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 모습은 서로 다르다. 코가 동그랗고 턱이 짧은 오른쪽 사람은 낯설게 보이지 않는데, 고구려 사람이다. 그러나 왼쪽 사람은 눈이 깊고 크며 코가 유난히 큰데, 심목고비(深目高鼻)로 표현되는 서역인의 모습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무덤 속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은 죽은 사람을 서왕모(西王母)의 세계로 보내려는 염원을 함축하고 있다. 인간은 서역인과 씨름해서 이겨야 불사(不死)의 세계인 서왕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그림 맞은편 벽에 그려져 있는 말, 수레, 마부는 그를 태우고 서왕모가 있는 서역으로 가기 위한 것이고, 천장에 그려져 있는 해, 달, 별, 불꽃무늬, 초롱무늬는 이상세계로서의 서왕모 세계의 모습이다.



씨름
강원도 강릉시 김대벽

고구려의 씨름무덤과 관련해서 중국 섬서성 서안시 장안현의 객성장(客省庄) 4호 무덤에서 출토된 장방형 동패(銅牌)가 있다. 전국시대(기원전 476~221)의 유물이라는 이것은 죽은 사람의 허리띠에 박힌 장식품인데, 여기에 씨름하는 장면이 투각(透刻)되어 있다. 양쪽에 나무가 대칭으로 서 있고, 그 나무 아래에 안장이 달린 말이 각각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두 남자가 맞붙어 씨름을 하고 있다. 나무, 말, 씨름이 함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씨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 씨름무덤의 벽화와 같다. 고구려 씨름무덤(4세기초)보다 5세기 내지 7세기 이전이다. 그런데 이 동패에 묘사되어 있는 씨름 모습은 중국 전역에 통용된 모습이 아니라, 중국 북방 지역의 흉노족 사이에서 성행하던 씨름 모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경기 방법으로 보아 한국의 씨름은 흉노족의 각저와 유사하고, 일본의 스모는 중국의 각저와 유사하다. 한국의 씨름은 흉노족의 각저를 받아들여 발전시킨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5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길림성

집안현 장천(長川) 제1호 무덤에도 씨름 그림이 그려져 있다. 전실 왼쪽 벽에 야외 놀이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씨름이 포함되어 있다. 박쥐양산을 받쳐 든 시중꾼, 마부와 말, 개, 하인을 거느린 주인공인 듯한 인물이 큰 나무 아래에 서 있고, 그 주위에 교예를 노는 사람, 씨름을 하는 사람, 북을 치는 사람, 현금을 타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이 있다. 고구려시대에 씨름이 기악백희(伎樂百戱)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씨름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고려사(高麗史)』(1454)부터이다. 충숙왕(忠肅王)은 국사를 신하들에게 맡기고, 매일 아랫사람들과 씨름에 열중하여 위아래 예절이 없었다. 충혜왕(忠惠王)은 용사를 거느리고 씨름놀이를 구경하였고, 공주가 연경궁(延慶宮)으로 거처를 옮기자 주연을 베풀어 위로해 주고, 밤에는 씨름놀이를 함께 구경하였으며, 고용보(高龍普)와 함께 시가지의 누(樓)에 가서 격구(擊毬)와 씨름놀이를 구경하고, 용사들에게 많은 베를 상으로 주었다. 고려시대에 씨름은 상류계층에서 즐기는 큰 구경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서민들도 씨름을 즐겼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도 씨름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다. 세종(世宗)은 상왕(上王)과 함께 저자도(楮子島)에 행차하여 뱃놀이를 하고, 강변에서 씨름 구경을 하기도 하였고, 경회루 북쪽에 좌정하여 종친들의 활쏘기를 구경하고, 안사의(安思義) 같은 역사(力士)들에게 씨름을 하도록 하고, 차등을 두어 상을 주기도 하였다. 안사의는 역사로서 갑사(甲士)에 뽑혀 부사직(副司直)에 오른 사람이다. 김이(金彝) 또한 이름난 역사였는데, 그는 정원서리(政院書吏)였다. 왕이 강원도 철원에 사냥갔다가 안사의와 김이를 불러서 씨름을 하게 하고, 김이가 이기자 곧 갑사로 삼고 궁중에서 쓰는 말을 상으로 준 일도 있다. 또한 외국에서 온 사신들이 서울의 남산에 올라가 시내와 한강을 내려다보며 감탄을 하고 나서 활쏘기를 하고 역사(力士)들에게 씨름을 시키기도 하였다. 씨름에 관한 기록은 이 이후에도 자주 나타난다. 『명종실록(明宗實錄)』에는 어린이나 유생(儒生)들의 놀이인 씨름이 궁궐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에 유감을 나타낸 기록도 있다. 씨름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고, 씨름하다가 죽는 일도 있었으며, 씨름에 진 분풀이로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인 일도 있었다. 명종 때에는 사헌부에서 씨름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김여준(金汝峻)은 1637년 봉림대군, 소현세자, 인평대군이 볼모로 선양[瀋陽]에 갈 때 그들을 호위한 무관이다. 그가 선양에 있을 때 청나라 장수 우거(禹巨)가 그에게 씨름을 청하였다. 이 씨름에서 우거가 죽었다. 그러나 청나라는 군법이라 하여 김여준을 벌하지 않았다. 조선 역사의 씨름 수준을 알 만하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김덕령(金德齡)은 소년시절에 전라남도 장성현에서 어른 역사를 씨름으로 이겨 이름을 날렸다. 이순신(李舜臣)의 『난중일기(亂中日記)』에도 씨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순신은 군사들에게 씨름을 시키고, 씨름판을 휩쓴 군사에게는 상을 주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씨름은 군사훈련의 한 종목이었고, 왕을 비롯한 지배계층과 외국 사신들을 위한 구경거리였다. 그래서 씨름으로 이름을 날린 역사들도 있었다. 또한 씨름에 대한 열기가 지나쳐서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었고, 경기 방법이 격렬하여 씨름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 각력(角力), 각저(角觝)라는 용어가 씨름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민간 세시풍속으로서의 씨름에 대해서는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조선 정조대),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 『송경지(松京誌)』 그리고 그림으로는 김홍도(金弘道)의 '씨름', 유숙(劉淑)의 '대쾌도(大快圖)'(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김준근(金俊根)의 '씨름(4점)'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씨름을 고려기(高麗技)라고 부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 씨름은 중국의 씨름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맞잡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기 방식도 중국과 다르고 기술도 다르다. 두 사람이 서로 맞붙어서 무릎을 꿇고 각기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쥐고 왼손은 상대의 오른편 넓적다리를 잡은 다음 두 사람이 함께 일어나서 상대를 넘어뜨린다. 『동국세시기』에 묘사되어 있는 이러한 씨름은 왼씨름이다. '대쾌도'에 그려진 씨름은 오른씨름이다. 샅바를 매고 하는 왼씨름과 오른씨름은 19세기 이전에 생겼

음을 알 수 있다(20세기에 들어서는 1972년 대한씨름협회에서 왼씨름으로 통일하였다).

김홍도의 그림은 바씨름이다. 손목에 샅바를 둘렀다. 김준근의 그림 중의 하나는 띠씨름이다. '대쾌도'에서 아래쪽에 그려진 씨름은 선씨름인 듯하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여러 가지 경기 방식이 있었다. 『동국세시기』에는 안걸이[內句], 밖걸이[外句], 둘러메치기[輪起] 기술이 소개되어 있고, 힘이 세고 손이 민첩하여 자주 겨루어 거듭 이기는 사람을 판막음[都結局]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다. 판막음은 여러 판에서 다 이기는 장사, 곧 씨름판을 끝막음한 최후의 승리자이다. 19세기 중기에는 요즘처럼 토너먼트식으로 대전하지 않고, 계속 이긴 자에게 대항해서 싸울 상대자가 없을 때 씨름판을 끝막음했다.

5월 단오에 개성에서는 만월대(滿月臺, 고려 궁궐터)에서, 서울에서는 남산 왜장(倭場, 지금의 藝場洞)과 북악산 신무문(神武門, 경복궁 후문) 뒤에서, 경북 김천에서는 직지사(直指寺)에서 젊은이들이 각각 씨름판을 크게 벌였다. 직지사는 구경꾼이 수천 명 몰려들었다고 한다. 충청도에서는 7월 백중과 8월 16일에 씨름대회를 하였고 술과 음식을 차려 먹으면서 즐겼다. 농한기에 피로를 푸느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무라야마(村山智順)의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에는 씨름을 하는 시기를 사월 초파일, 5월 단오, 7월 백중, 8월 추석, 수시로 밝혀 놓았는데, 이를 지역별로 통계를 내보면 다음과 같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에서는 단오 때 씨름을 하는 지역이 많고(함경도 24개 지역, 평안도 29개 지역, 황해도 16개 지역, 강원도 7개 지역),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추석 때 씨름을 하는 지역이 많다(경상도 17개 지역, 전라도 26개 지역). 충청도에서는 백중에 9개 지역, 추석에 8개 지역,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단오에 8개 지역, 백중에 14개 지역, 추석에 9개 지역에서 각각 씨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함경도에서 추석에 씨름을 하는 지역도 있고(5개 지역), 경상도에서 단오에 씨름을 하는 지역도 있다(9개 지역).

특징 우리나라의 씨름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부딪치되, 매우 강렬하게 부딪치는 경기이자 놀이이다. 씨름에서는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고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맨살로 직접 부딪친다. 씨름은 또한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하고도 할 수 있다. 고려 때 임금이 아래 사람들과 씨름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씨름의 개방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모든 굴레를 벗어 버리고 너와 나 사이의 격의를 없애 버리는 것, 맨살로 건강한 생명력을 내뿜으면서 너와 나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씨름이다.

씨름은 개인과 개인의 합일에 그치지 않고, 집단의 합일 혹은 집단과 집단의 합일로까지 나아간다. 전통사회에서의 명절 씨름이 그것이다. 명절 씨름은 공동체의 주신(主神) 아래에서 여는 것이 관례였다. 그것은 신당(神堂) 앞, 서낭대 혹은 서낭기 아래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일 수도 있다. 박규수(朴珪壽)의 『헌재집(獻齋集)』에 따르면, 경남 합천에서는 매년 봄 정견신모(正見神母) 사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한바탕 씨름으로 자웅(雌雄)을 가린다. 그리고 춤을 추며 돌아올 때에 달이 떠오른다. 정견신모는 가야산 산신이고, 정견사(正見祠)는 가야산 해인사(海印寺) 앞에 있다. 평양의 영명사(永明寺), 김천의 직지사(直指寺), 달성의 유가사(瑜伽寺)는 명절 씨름이 열리던 장소이다.

마을 대항전 씨름은 애기씨름, 중씨름, 상씨름의 순서로 진행하되, 지워내기 방식이다. 곧, 이긴 사람이 계속해서 상대편 선수와 싸워 나가는 대전 방식이다. 여기서의 판막음장사는 개인의 영광이라기보다는 마을의 영광이다. 이러한 명절씨름은 대동놀이적 성격을 가진다. 씨름의 제의적 성격은 중국, 몽골, 일본의 씨름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朝鮮王朝實錄, 獻齋集,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씨름(김광언, 김광언의 민속지, 조선일보사, 1994), 출토문물을 통해 본 중국의 씨름과 手搏(鄭然鶴, 比較民俗學13, 比較民俗學會, 1996), 한·일 비교민속놀이론(김선풍 · 寒川恒夫 외, 민속원, 1997),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대중국의 西王母신앙(임영애, 강좌미술사10,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998), 북한 학자가 쓴 조선의 민속놀이(도유호 외, 주강현 해제, 푸른숲, 1999), 우리나라 민속놀이(沈雨晟, 東文選, 2000), 전통씨름의 대동놀이적 성격에 관한 연구(한양명, 比較民俗學18, 比較民俗學會, 2000).

필자 | 전신재(全信宰)

양주별산대놀이(楊州別山臺-)

정의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 전승되어 오는 가면극. 사월 초파일, 5월 단오, 8월 추석에 공연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이다.

내용 산대는 산의 형상을 본떠 만든 무대이다. 기암괴석이 첩첩한 산의 형상인데, 그 괴암기석 여기저기에 동굴과 절벽이 있고, 그곳에서 잡상(雜像)들이 널리 알려진 고사 장면을 재현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좁은 무대가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다. 산대에는 한 장소에 고정시켜 놓은 대산대(大山臺)와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할 수 있는 예산대(曳山臺)가 있다. 산대는 궁정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현재의 산대놀이는 궁정의 공연물을 계승한 것이 아니다. 산대놀이 연희자들이 그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산대'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별산대는 본산대와 구별하여 붙인 명칭이다. 17세기 말 궁정의 공연문화가 쇠퇴하자 전문 놀이패가 한양의 시정을 중심으로 민간 공연문화를 발흥시켰다. 녹번, 애오개[阿峴], 노량진, 사직골의 본산대놀이가 그것이다. 이 지역은 상업이 융성했던 곳이다. 당시 양주에서는 사직골 놀이패를 초청하여 놀이판을 벌이고는 하였는데, 그들이 지방공연 일정으로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잦아지자 양주 주민들이 스스로 가면을 만들어 산대놀이를 공연하기 시작하면서 '양주별산대놀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한다. 양주는 목사가 주재하는 1천여 호의 고을이었다. 그 후 본산대놀이는 전승이 끊기고 양주별산대놀이만 현재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다.

원래의 놀이터는 마을 북서쪽 불곡산(佛谷山) 아래 사직골이었다. 이곳에 사직당이 있었는데 그 앞 넓은 마당에서 공연하였고, 가면과 여러 도구들은 사직당에 보관하였다. 그 후 사직당과 마당이 없어지자 향교 외삼문(外三門) 안마당에서 공연하다가 1977년에 현대식 전수회관이 완공되고, 1985년 전수회관 앞에 공연장이 완공되면서 공연 장소를 이곳으로 옮겼다. 2001년에는 새로운 전수회관을 건립하였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앞놀이, 본놀이, 뒷놀이의 순서로 진행하였고,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놀았다. 앞놀이는 마을에서 놀이터로 이어지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놀이터에 도착해서 올리는 고사로 끝난다. 이 과정에서 분위기 조성, 비용 염출, 지신밟기, 무사 기원 등이 이루어진다. 뒷놀이는 모든 참여자가 유대감을 다지는 대동놀이이다.

본놀이는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옴과 상좌, 제3과장 옴과 목중, 제4과장 연잎과 눈끔적이, 제5과장 팔목중놀이(염불놀이, 침놀이, 애사당 북놀이), 제6과장 노장(파계승놀이, 신장수놀이, 취발이놀이), 제7과장 샌님(의막사령놀이, 포도부장놀이), 제8과장 신할아비와 미얄할미 순서로 진행된다.

제1과장부터 제6과장까지는 중마당이다. 이 부분에서 표면적으로 승려들의 파계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명을 분출하게 해준다. 곧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신명을 노래와 춤으로 발산시킴으로써 정서적 쾌락을 체험하게 한다. 목중들의 염불은 어느덧 잡가로 바뀌어 신명을 북돋운다. 침놀이에서 침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구가 아니라, 신명이 막혀 죽은 사람에게 신명이 거침없이 터져 나오도록 마음의 장벽을 뚫어주는 주술기구이다. 신명에 체하여 죽은 아들, 손자, 증손자는 침을 맞고 살아나서 신명을 거침없이 분출한다. 특히 일체의 대사 없이 진행되는 노장과 소무의 춤은 노장의 내면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원초적 생명력, 곧 신명이 서서히 표출되어 나오는 과정을 극적으로 형상화한다. 취발이와 노장의 대결에서는 늙음에 대한 젊음의 승리, 노회한 계략에 대한 싱싱한 생명력의 승리를 잘 보여준다.

제7과장은 양반마당이다. 이 과장에서 양반은 위엄 있고 강직하고 점잖은 인물이 아니라, 인색하고 잔인하며 음흉하고 비속한, 그리고 가난이 꾀죄죄하게 흐르는 인물임을 폭로한다. 또한 포도부장과 양반의 대결에서는 늙음에 대한 젊음의 승리, 그리고 낡은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동시에 보여준다.

제8과장은 할미마당이다. 늙은 부부인 영감과 할미, 그리고 아들과 딸, 이렇게 4명이 등장한다. 영감은 옥니가 달린 깍쟁이로서 사람이 붙지 않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고, 할미는 가랑잎에 불붙듯 성미가 빠르고 급하며 도량이 작은 인물로 묘사된다. 그리











〈양주별산대놀이〉
1 길놀이
2 길놀이
3 염불놀이
4 애사당북놀이
5 애사당북놀이
6 파계승놀이
7 신장수놀이
8 포도부장놀이
9 신할아비와 미얄할미
문화재청

고 아들은 빚 갚을 돈을 가지고 가출한 난봉꾼으로 설정되어 있고, 딸은 출가했지만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생과부로 설정되어 있다. 아들과 딸은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다. 그런데 이 가족이 할미의 죽음으로 재결합한다. 남은 가족들은 죽은 할미의 따뜻한 자궁 앞에서 그들의 존재적 근원의 동질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가면극의 배역은 32명인데, 두루 쓰는 가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가면은 22여 개이다. 가면은 주로 바가지로 만든다.

양주별산대놀이는 다른 지역의 가면극에 비하여 사실성이 강하다. 우선 가면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인데, 이것은 과장이 심한 봉산탈춤의 가면과 비교가 된다. 대사는 주로 서민들의 일상어를 사용하고 비속어도 많다. 연희 내용도 사실적이다. 특히 제7과장(샌님과장)이 그러하다. 제7과장 제1경인 의막사령놀이는 인과관계에 의한 탄탄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극적 행동과 현장과 관련된 대사만을 사용하고 있어 근대 사실주의 연극과 유사하다. 과거 사건에 대한 설명도 없고, 노래와 춤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인물의 조직 방법도 주목할 만하다. 쇠뚝이와 말뚝이가 작품 전면에 나와 있고 양반들은 이들에 의하여 가려져 있다. 곧 양반들은 관객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조직 방법은 관객들에게 양반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관객들은 말뚝이와 쇠뚝이의 시선을 통하여 양반들을 바라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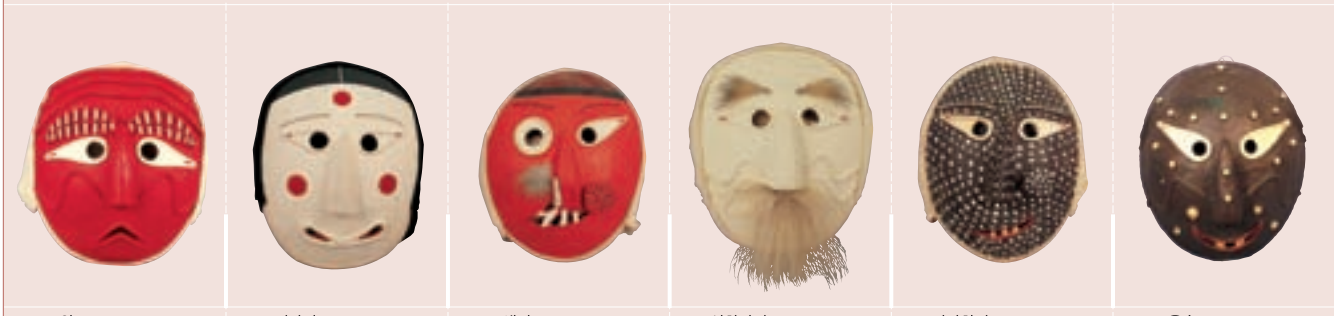
특히 말뚝이는 양반들을 잘 알고 있지만, 쇠뚝이는 양반들을 처음 만나는 것으로 설정하여 관객들은 양반들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주의적 기법은 비일상적이고 운문적인 대사와 함께 노래와 춤을 많이 사용하는 봉산탈춤의 양반마당과 크게 다른 점이다. 양반을 풍자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양주별산대놀이는 하회별신굿탈놀이와 봉산탈춤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봉산탈춤에서는 양반들을 직설적으로 공격한다. 양주별산대놀이의 춤사위는 우아하고 섬세하다. 또한 춤사위의 종류가 다양하다. 이는 경기도적인 특성이며, 움직임이 대담하고 큰 봉산탈춤의 춤사위와 대조적이다.

현대에 와서 양주별산대놀이는 세시풍속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은 거의 사라졌다. 현재 양주의 현대식 전수회관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상설공연을 하고 있으며, 매년 5월 5일과 10월 5일에는 정기공연을 하고 있다. 현재의 공연은 과거에 비해서 신명이 부족하고, 춤사위와 음악 장단이 빨라졌다. 성행위 장면과 외설적인 대사도 거의 생략되었다.

의의 단오절 세시풍속으로서의 양주별산대놀이는



연닢 국립민속박물관 | 노장 국립민속박물관 | 취발이 국립민속박물관 | 상좌 국립민속박물관 | 먹승 국립민속박물관 | 눈끔찍이 국립민속박물관



완보 국립민속박물관 | 왜장녀 국립민속박물관 | 샌님 국립민속박물관 | 신할아비 국립민속박물관 | 미얄할미 국립민속박물관 | 옴순 국립민속박물관

태양숭배와 관련된 축제로서 '해-남성-양기'의 원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것은 대보름 세시풍속인 경상도 지역 오광대와 들놀음이 '달-여성-음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삼은 것과 대조적이다. 양주별산대놀이를 비롯한 단오절의 가면극에서는 두 남성이 한 여성을 소유하려고 투쟁한다. 이것은 오광대나 들놀음에서 두 여성과 한 남성이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과 대조가 된다.

참고문헌 | 탈춤의 역사와 원리(조동일, 弘盛社, 1979), 韓國의 假面劇(李杜鉉, 一志社, 1979), 山臺탈놀이(徐淵昊, 열화당, 1987), 한국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전경욱, 열화당, 1998), 양주별산대놀이의 구성과 주제(전신재, 한국희곡문학사의 연구VI, 중앙인문사, 2000), 공연문화의 전통 樂·戱·劇(사진실, 태학사, 2002), 세시풍속의 관점에서 본 탈놀이의 유형과 갈등구조(박진태, 공연문화연구10, 한국공연문화학회, 2005).
필자 | 전신재(全信宰)

은율탈춤(殷栗-)

정의 단오에 황해도 은율 장터에서 한량과 농민들이 놀던 탈춤의 일종. 황해도 서쪽 구월산 아래에 있는 은율읍은 구한말에는 500호, 광복 후에는 1,500호 정도의 소읍이었다. 쌀, 과일, 면화가 많이 나고 물산의 집산지로서, 이런 물적 기반이 탈춤 전승의 바탕이 되었다.

유래 이 탈놀이는 200~300여 년 전부터 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세기 중후반에 뛰어난 놀이꾼으로 유명했던 조병모와 박동환 3형제의 활동 시기로 보아 최소 19세기 초반에 놀이가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예부터 '놀탈'이 센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농민이나 지역 한량들이 놀이의 주체가 되었다.

은율탈춤은 황해도 지역에 전승되는 해서탈춤이나 경기도 산대놀이와 마찬가지로, 주로 5월 단오에 펼쳐졌다. 이 시기는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기 직전으로, 식물의 생장과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적 성격을 지닌다. 은율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단옷날 낮에 씨름, 그네뛰기 대회가 벌어지고, 밤에 모닥불을 피우고 밤새 탈춤을 추었다.

이 놀이는 단오를 기점으로 2~3일 진행되었다. 예전에는 사월 초파일, 7월 백중, 그 밖에 은율 군수나 지역 유지의 회갑연에 초청되었으며, 인근 지역에서도 공연을 하였다. 가장 전승이 활발했던 시기는 1900년 전후로 보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약화되어 명맥이 유지되는 정도였다.

해방 이후 장용수, 장봉헌에 의해 체계적인 전승이 이루어졌다. 장용수는 공산 치하에서 농악대장으로서 연희를 주도하였는데, 당시 반강제적으로 인민극장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전쟁 이후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월남한 장용수를 중심으로 장봉헌이 힘을 합쳐 1960년대 중반부터 복원하였다. 1976년에 이두현, 김천흥의 채록본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1978년 2월 무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인천시 남구 숭의 4동 수봉공원 입구에 있는 전수회관에서 체계적인 전승과 후진 양성을 하고 있다.

내용 은율탈춤은 마숲의 산당에서 탈고사로 시작된다. 마숲은 풍수적으로 고양이와 솔개 형상의 기운을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숲이다. 이곳에 산신을 모시는 산당(山堂)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탈춤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탈고사 이후에 길놀이가 시작된다. 이후 탈판에 와서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탈춤을 추고, 밤새워 뒷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놀이 기금은 유지들이 찬조를 하고, 일부 주민들이 걸립(乞粒)에 참여하여 충당한다.

탈춤은 고구려 탈춤의 전통을 이어받아 장삼을 끼고 춤을 추는 역동적인 춤사위로 이루어져 있다. 장단은 타령장단, 염불장단, 잦은돔부리장단, 돌장단이 주로 사용되며, 반주는 피리, 젓대, 북, 장고, 해금이 중심이다. 그리고 삽입 가요로 꼬뚝이타령, 중타령, 대꼬타령, 병신난봉가, 나니가타령이 있다.

탈춤을 추는 공간은 원형 야외무대이다. 자유롭게 참여하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일반석은 탈판 주위에 멍석을 깔고 앉으며, 임시로 만든 일부 다락은 자릿세를 별도로 받았다. 특히 상인들에게 다락의 관리를 맡기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 그런 점에서 이 탈춤은 지역 상권의 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탈은 다른 해서탈과 마찬가지로 진흙본을 바탕으로 석고틀을 만들며, 그 위에 두꺼운 마분지를 여러 겹 붙인다. 그리고 눈과 입을

〈은율탈춤〉
1 헛목(상좌)춤
2 목중춤 - 목춤
3 목중춤 - 뭇동춤
4 양반춤
5 양반춤
6 영감·할미광대춤
문화재청


1


2


3


4


5


6


무당 국립민속박물관


원숭이 국립민속박물관


미얄 국립민속박물관


사자 국립민속박물관


상좌 국립민속박물관


먹중 국립민속박물관


말뚝이 국립민속박물관


맏양반 국립민속박물관

뚫고, 코와 혹 따위를 도드라지게 나타낸다. 원래 놀이가 끝난 다음에 탈을 태워 버렸으나 1925년 이후에는 보관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탈의 모양은 흰색과 붉은색 계통이 대부분이다. 상쇠, 첫째·둘째·셋째 양반, 새맥시는 흰색이고, 먹중·원숭이·최괄이·말뚝이는 붉은색이다. 그 밖에 노승은 회색, 할미는 검은색이다. 특히 먹중, 노승, 최괄이, 세양반, 말뚝이의 얼굴에는 3~6개의 둥근 혹이 있다. 혹은 밖에서부터 검정, 흰색, 빨강, 검정색 선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황색의 크고 둥근 점으로 되어 있다. 노승은 다른 황해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선이 굵은 붉은 색 입술을 그려서 호색한을 상징한다.

은율탈춤은 제1과장 사자춤, 제2과장 헛목(상좌)춤, 제3과장 목중춤, 제4과장 양반춤, 제5과장 노승춤, 제6과장 영감·할미광대춤으로 이루어져 있다. 놀이 초반에 나오는 사자춤과 상좌춤은 축귀의식무(逐鬼儀式舞)로, 탈판과 마을을 정화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상좌춤은 상좌 한 사람이 흰 장삼에 고깔을 쓰고 의식무인 사방무를 춘다. 이것은 원래 4방위의 정화 의식무에서 출발하는데, 4인 상좌무가 후대에 1~2인으로 줄어든 것이다.

팔먹중춤은 8명의 먹중이 차례로 등장하여 자기소개와 홍풀이춤을 추는데, 진행 방식은 봉산탈춤과 유사하다. 팔먹중이 함께 흥겨운 춤을 추는 대목은 탈판의 신명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강하게 드러낸다. 먹중이나 옴중은 노장을 희롱하며, 행위가 중의 모습에서 벗어나 불교의 세속화 양상을 보여준다.

양반과 하인과의 관련 내용을 보면, 은율탈춤은 말뚝이를 통해 양반에 대한 언어 희롱보다는 신체 공격이 두드러진다. 말뚝이는 첫째 양반의 얼굴을 채찍으로 후려치기도 하고, 둘째 양반 앞에 엉덩이를 대고 방귀를 뀌며, 심지어는 신체 불구인 셋째 양반을 깔아뭉개는 식으로 공격한다. 특히 셋째 양반이 반신불수의 몸에 입과 코가 비뚤어진 비정상적 모습으로 등장해 외형적인 골계를 통해 양반을 비하한다. 따라서 양반과 하인, 말뚝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하인이 주도하는 유형이다.

노승춤은 중과 소무, 최괄이의 관계에서 중과 소무가 결합하다가 나중에 최괄이가 등장해서 중으로부터 소무를 탈취하여 결합하는 내용이다. 이런 유형은 탈놀이의 중 관련 내용에서 가장 일반화된 것으로 산대놀이, 해서탈춤, 남사당 덧뵈기에 두루 나타난다. 소무가 한 사람 등장하며, 중이 소무를 지키기 위해 최괄이와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결국 소무를 빼앗기게 된다.

할미 관련 내용은 할미와 영감의 반가운 만남도 잠시, 첩인 뚱딴지가 등장하면서 처첩간 갈등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뚱딴지에 의해 할미가 죽게 되며, 영감의 소생 시도와 무당의 진혼굿 순서로 진행된다. 할미는 허리를 노출하고 엉덩이를 심하게 흔들면서 강한 성적 욕구를 나타낸다. 이것은 생산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생산력을 회복하려는 강한 욕구를 의미한다.

은율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과 관련된 내용에 노승과 새맥시(소무역)의 결합이 나오고, 이에 최괄이(취발이역)가 끼어들어 여자를 탈취한다. 그런데 '최괄이가 새맥시 사이에 낳은 아들을 어르는 장면'이 양반 관련 내용의 뒷부분에 나온다. 따라서 일상적인 내용 전개와 조금 다르다.

의의 은율탈춤은 고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무능하고 권위적인 양반을 풍자하며, 불교를 민중적 시각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중의 타락과 파계승 풍자, 가부장제하의 남성의 횡포에 대한 여성의 핍박을 보여준다. 그러나 갈등의 고조에 의한 극단적인 대립보다 일시적인 화해의 양상으로 이끌어 가며 놀이의 성격을 유지한다.

은율탈춤은 탈놀이의 일반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신명을 풀어나가는 대동놀이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또한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 성격을 바탕으로 전승하면서 세시놀이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은율탈춤대사(이두현, 국어교육2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5), 韓國의 假面劇(李杜鉉, 一志社, 1979), 황해도탈놀이(徐淵昊, 悅話堂, 1988), 한국 가면극의 유형과 전승원리 연구(정형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필자 | 정형호(鄭亨鎬)

추천희(鞦韆戲)

⇨ 그네뛰기[鞦韆戲]: 여름편

〈택견〉
1 칼재비
2 걷어차기
3 물구나무 쌍발치기
4 발등걸이
문화재청









택견

정의 주로 발을 사용하여 상대를 공격하고 넘어뜨려 승부를 결정짓는 무예의 일종. 1983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다.

이칭 및 어원 문헌에 나타난 택견의 이칭에는 택권, 태껸, 탁견(卓見), 수박(手搏, 手拍), 각희(脚戱), 권법(拳法), 시박(斯撲), 변(卞)이 있다. 택견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삼국시대 이전은 물론 고려시대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만한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박(手搏) 또는 수박희(手搏戱)를 동일한 용어라고 여겨 『고려사(高麗史)』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표기 방법은 조선시대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수박(手拍), 타권(打拳)으로 나타나며, 특히 우리말 중에 택견이라는 고유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 문헌에서부터이다. 『재물보(才物譜)』, 『해동죽지(海東竹枝)』, 『청구영언(靑丘永言)』에 택견과 유사한 '탁견'이라는 용어가 보인다.

이후 1920년에 간행된 『조선어사전』에는 오늘날의 택견으로 표기되었다가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에 택견을 '태껸'이라고 표기하면서 표준말이 되었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1973년 택견 조사보고서에도 명칭을 택견, 태껸, 탁견(卓見)으로 쓰고 있어 어떤 명칭이 맞는지 확정할 수 없다. 또한 초대 택견 기능보유자였던 고 송덕기는 택견을 탁견이라 하고, 탁견을 하는 사람을 택견꾼이라 하였으며, 한자로는 탁견(卓見)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그도 역시 태껸, 택견의 명칭을 혼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래 살아온 많은 사람들에 의해 택견이라 불림으로써 1983년 문화재 지정 당시 택견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지정 명칭은 택견이지만 태껸의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유래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택견을 수련해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오늘날의 택견의 동작과 비교했을 때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과 유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이미 행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무용총(舞踊塚) 벽화에는 두 남자가 마주서서 택견의 견주기 동작을 취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삼실총(三室塚) 벽화에는 택견에는 품밟기의 굼실거리는 걸음걸이로 활갯짓을 하는 동작이 활달한 필치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신라에서도 택견과 유사한 신체활동을 볼 수 있다. 경북 경주 석굴암 입구에 있는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이 택견의 주먹질 막기와 견주기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분황사(芬皇寺) 층탑(層塔) 출입문 좌우에 부조된 인왕상(仁王像)의 택견 자세는 신라 택견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그러나 백제에서 행한 택견 기록이나 유적은 전해지지 않는다. 백제의 옛 땅이었던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가 되는 작지(鵲旨)마을에서 조선시대에 인근 마을사람들이 모여 택견 경기를 해마다 행했다는 기록을 통해 백제 택견의 유풍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는 『고려사』에서 택견을 수박(手搏, 手拍)이나 수박희(手搏戱)라 기록하였고, 이의민(李義旼)과 두경승(杜景升)이 택견을 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등장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대중들의 경기로 널리 확대되어 무인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에게도 보급되었다.

내용 택견은 발로 차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주로 손으로 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권법, 수박(희)과는 대조적이다. 곧, 우리나라에는 씨름 외에 맨몸으로 하는 전통 투기종목으로 주로 손으로 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권법, 수박(희)과 발로 차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택견으로 구분할 수 있다.

18세기 유숙(劉淑)의 '대쾌도(大快圖)'와 김준근(金俊根)의 '풍속도(風俗圖)'에는 씨름과 택견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 이는 당시 택견이 대중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조말 김민순(金敏淳)의 시조 구절에 '소년 십오 이십에 하던 일이 어제런 듯 소꿉질 뛰염질과 씨름 택견 유산하기'라는 대목이 있다. 따라서 택견과 권법은 더 전문화된 두 가지 무예로 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발로 차는 특수하게 훈련된 기술이므로 이것을 택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시 민중들 사이에 택견이 상당히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택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사료는 극히 드물다. 다만 얼마 전까지 전해 내려오는 민속자료를 통해 짐작할 뿐이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택견을 직접 수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존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우리나라에는 더 전문적으로 분화된 도수무예(徒手武藝)가 널리 보급되어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택견 경기 방법에 대해서는, 고 송덕기의 증언에 의한 몇 가지 단편적인 자료를 소개하려고 한다. 민간에서 행하여진 택견은 일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단오를 앞두고 보름이나 열흘 동안 진행되었다. 단옷날 밤 한 머리에서는 그네를 뛰고 다른 한 머리에서는 택견을 하는데, 동네와 동네가 패를 지어 시합하는 수가 많았다. 이때 으레 애기패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에 대장이 출전하여 승부를 결정하고, 다음에는 두 패가 모여서 서로 치하하며 음식을 먹고 놀았다. 택견 복장은 특별한 것이 없고 고의적삼에 솜버선을 신고 버선발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때로는 가죽신에 징을 박은 갓신을 신는 경우도 있었다. 택견 기술은 기본적으로 20종류가 있고, 그 밖에 살법(殺法), 활법(活法) 같은 비법이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발로 각각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리거나 혹은 좌우로 쳐서 옆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이다. 그리고 뛰어오르면서 역시 발로 각각 상대방의 상반신을 여러 모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잘하는 경우에는 흔히 두 어깻죽지나 목덜미를 차서 넘어뜨린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외발로 차기도 하고 두 발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곁치기, 낚시걸이, 두발낭상, 명치기라는 이름이 붙게 된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하여 얼리거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손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막아서 밀어뜨릴 뿐, 절대로 손으로 잡거나 쳐서는 안 된다. 잘못하여 몸이 닿는 경우가 있어도 머리로 받거나 몸으로 떠밀어서는 안 되며 순전히 발로 차서 넘어뜨려야 한다.

택견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데는 발로 차는 것과 뛰어오르기를 기본으로 한다. 처음에는 짚단 같은 것을 세워 놓고 앞으로 나가면서 차고 뒤로 들어오면서 차는 연습을 하며, 다음에는 공중에 짚단 같은 것을 메달아 놓고 뛰어오르면서 점차 높은 것을 차도록 수련한다.

의의 택견은 경기이면서 놀이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몸을 보호하는 호신술(護身術)이 되고 공격을 하면 무예(武藝)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택견의 몸짓은 우리 조상의 생활풍속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택견은 민족적이요 집단적인 놀이로서 민중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으며, 상무정신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는 오락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택견의 전승은 민중들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민중의 융화를 진작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대쾌도(유숙)
서울대학교 박물관

참고문헌 | 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第102號 택견(芮庸海, 文化財管理局, 1973), 중요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46호(임동권, 문화재관리국, 1983), 重要無形文化財解說 -舞踊·武藝·飮食 篇-(文化部·文化財管理局,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이승수(李承洙)

한장군놀이(韓將軍-)

정의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일대에서 단오에 왜적을 물리친 한장군(韓將軍) 오누이를 추모하는 자인단오굿의 하나. 원래 한장군은 이 지역 단오굿의 중심 행사인 여원무(女圓舞)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으로, 1969년 자인단오굿 때 밝혀졌다. 그 해 한장군놀이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면서 단오에 한장군문화제가 열리게 되었다.

유래 경북 경산시 자인 지역에는 예부터 한장군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 왜의 무리가 도천산에 자리 잡고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때 한장군은 개략을 써서 왜의 무리를 잡아없앴다는 내용이다. 도천산 밑에 버들못이 있는데, 장군은 여자로 가장하여 누이동생과 함께 화려한 꽃관을 쓰고 못둑에서 춤을 추었다. 꽃관을 쓰고 춤을 추는 둘레에는 광대가 늘어서서 놀이를 벌였으며, 풍악을 울려 흥을 돋우고 못에는 화려하게 꾸민 배를 띄웠다. 둘레에는 어느덧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춤과 가락은 한결 흥겨워졌으니 이것이 곧 여원무이다. 장군의 뜻대로 구경꾼 중에는 도천산에서 내려온 왜의 무리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치였으나, 여원무의 신기함에 눈이 팔리고 풍악의 흥겨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가운데서 춤을 추던 한장군이 큰소리로 외치자, 함성이 일어나는 동시에 왜의 무리들은 칡으로 만든 그물에 휘말려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꽃춤의 주인공은 장군으로 바뀌어 "모조리 죽여 저 연못에 던져라." 하고 외쳤다. 무당과 구경꾼들의 손에는 모두 비수가 번쩍였다. 그물에 휘말린 왜의 무리들은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차례로 쓰러져 갔다. 춤추던 사람도 구경하던 사람도 모두 한장군이 미리 배치해 둔 무사요, 칡으로 만든 그물도 미리 깔아 둔 것이었다. 왜의 무리들은 몰죽음을 당했고, 못물은 핏빛으로 바뀌었다. 지금도 못둑에는 왜의 무리들을 벨 때의 칼자국이 남은 바윗돌이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참왜석(斬倭石) 혹은 검흔석(劍痕石)이라고 부른다. 그 후 이 지역에서는 한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생기고 해마다 단오절에 제사를 지내고 놀이를 하였다.

한편, 한장군의 실존 연대를 『자인읍지(慈仁邑誌)』에는 '신라와 고려시대[羅麗之間]'라고 했으며, 임진왜란 때 자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청주 한씨라는 주장과 고려 충렬왕 때 좌정승을 지낸 한종유(韓宗愈, 한양 출신)라는 설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한장군이 신라 혹은 고려시대 사람이라고 전해올 뿐 확실히 알 길이 없지만, 지역에서는 한장군이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왜구를 물리쳐 태수가 된 실존 인물이며, 자인 지역의 수호신으로 추앙되어 왔다.

『자인읍지』와 임진왜란 때 자인의 의병장 최문병의 실록에 나타난 기록, 도천산성의 자취, 버들못가의 참왜석, 통일신라 유물이 출토된 삼정지안의 한장군 무덤, 자인의 계정숲(경상북도 기념물 123호) 안의 진충묘, 마곡리의 진충당으로 보아 한장군을 실존 인물로 믿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듯 보인다.

내용 자인에서는 단오가 되면, 현사(縣司)가 있던 자리(현 자인초교 부근)에 모여 가장행렬로 진장터 광장까지 와서 여원무(女圓舞)를 올리고 한당으로 가서 제사를 올린 후 다시 현사로 돌아와 고을원에게 여원무를 보이고 해산한다.

한장군놀이는 여원화를 쓰고 오색 채의(彩衣)를 입은 한장군 남매를 앞세우고 민호장(民戶長)과 사또가 따르는 가장행렬로 이루어진다. 이 가장행렬(호장굿)은 규모가 대단하여 필요한 구성 인원만도 장산사명기(獐山司命旗), 청룡기, 백호기, 나대유풍기(羅代遺風旗), 영기(令旗)를 든 사람과 농악대, 여원화 2명, 감사뚝, 군노 2명, 사령 2명, 포장(砲將), 포군 20명, 영장(營將), 기생전배(前陪) 4명, 중군(中軍), 삼재비(세민풍악), 전배통인(前陪通引), 일산(日傘) 및 파초선(芭蕉扇), 도원수 인배통인(印陪通引), 수배(隨陪)[독축관(讀祝官)]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행렬도 자인의 남녀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기의 수와 참여 인원이 많이 줄었으며 복장도 바뀌고 행로도 달라졌다.

한장군놀이는 한장군을 추모하는 행사이므로 주












〈한장군놀이〉 1 한장군묘 추모제 2 한장군 복식 3 화관무 4 여원무(1) 5 여원무(1) - 무동춤 6 화관무 7 여원무(2) - 꽃피우는 춤 8 장군의 칼춤 9 여원무(3) - 화관무 10 퇴장 후 정렬 국립문화재연구소

가 되는 것은 한묘제사이다. 가장행렬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그 중 진충묘 제사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제사는 유교의식으로 거행되며, 이는 한장군이 실존 인물임을 나타내는 근거가 된다. 제사에 관한 기록이 남은 것은 정충언 현감 이후이다. 진충묘의 위패는 '증판서한장군신위(贈判書韓將軍神位)'이다. 제사는 먼저 정충언 현감이 지은 축문을 읽고, 동자가 영신사(迎神詞)를 낭송한다. 다음에는 유교식 홀기에 따라 초헌, 아헌, 종헌의 순서로 제사를 모신다. 근래의 제사는 축문을 생략하고 영신사를 읽은 후 홀기대로 제사를 모신다.

여원무는 한장군이 왜구를 유인하기 위해 누이와 함께 꽃관을 쓰고 춤을 춘 데서 유래한 것이다. 먼저 회랭이(무당)의 아들로 13~14세 소년을 여장시켜 여원무가 시작되기 전에 나아가 춤을 춘다. 여장동남의 춤이 끝나면 먼저 높이 10척(약 3미터)의 여원화를 쓰고 땅에 닿는 오색 채의(치마)를 입은 2인의 관무부(官巫夫)가 중앙으로 나아가 덧배기 가락으로 춤을 춘다. 그 속에 무부가 숨어 있는 채의는 화관에 달렸으며,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여원화의 주위에는 30~40명이 원진을 치고 역시 덧배기 가락으로 춤을 춘다.

여원화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많은 금기가 따른다. 단오제를 지내기 전에는 꽃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나, 단오제가 끝나는 마지막에는 모두들 꽃송이를 따가려고 한다. 이 꽃송이를 몸에 품고 가서 집에 두면 풍년, 제액, 치병의 효험이 있다는 믿기때문이다. 이 행사가 끝난 뒤에는 여흥을 돋우고자 팔광대, 말달리기, 씨름, 그네뛰기가 이어진다.

1980년대에는 자인팔광대를 비롯하여 자인 큰굿, 자인큰줄땡기기 같은 새로운 자료 일부가 발굴되었고, 1991년부터는 한묘제사, 여원무, 호장굿(가장행렬), 자인팔광대, 무당굿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1996년에는 경산시가 후원하여 '자인단오-한장군놀이'로 명칭을 정하고, 격년제로 하던 것을 매년 경산시민들의 축제로 열고 있다. 1997년 이후 민요, 씨름, 그네, 창포로 머리감기 같은 민속적 요소를 덧붙여 자인단오굿으로서 한장군놀이를 재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의 한장군놀이는 예부터 자인 지역에 널리 전해온 한장군(韓將軍) 남매에 관한 이야기가 놀이화된 지역 축제이다. 자인에서는 역사 속의 한장군을 왜구로부터 나라를 구한 실존 인물로 믿고, 촌락마다 수호신으로 삼는다. 그러나 장군의 이야기는 영남지역 여러 곳에 널리 퍼져 있는 장군이나 장수 전설과 같이 의역사화(擬歷史化)로 볼 수 있다.

한장군의 남매가 춘 여원무도 농경의례에서 오신(娛神)행사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가야시대의 고분군과 출토품, 장산사령기(獐山司命旗), 한장군 사당이 원래는 동제당의 신당이었다는 점, 그 신위가 영남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남매신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누님이나 누이로 나타나는 신격은 곡령(穀靈)과 곡모(穀母)와 관련 있는 신격으로 생각된다], 한장군 나이가 17세의 동자(대종동), 혹은 42~43세의 장년(자인), 혹은 백발노인[現夢時] 등으로 구전된다는 점 그리고 제의가 무불유(巫佛儒)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과 여러 가지 마나와 타부가 혼재한다는 점과 같은 유무형의 자료를 통해 그 기원과 함께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자인의 세시풍속에는 농경의례적인 요소로 보이는 내농작(內農作), 서리짓게, 줄다리기 등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한장군놀이 시기도 우리의 전통 명절인 음력 오월 단옷날이며, 이 날 한장군의 추모제사, 여원무와 배우잡희(팔광대), 단오굿, 줄당기기, 씨름, 그네 같은 민속행사가 한바탕 펼쳐진다.

참고문헌 | 경북 경산군 자인면 단오굿 -여원무-(김택규, 향토문화1, 향토문화연구회,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重要無形文化財解說 -놀이와 儀式 篇-(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5),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著,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慶北禮樂誌(嶺南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영남대학교·경상북도, 1989), 한장군놀이(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필자 | 석대권(石大權)

화상싸움(火桑-)

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에 전승되던 남성들의 민속놀이. 음력 5월 4일에 마을 중간에 남북으로 흐르는 내[川]를 중심으로 동쪽의 본마을과 정외마을의 주민이 한패가 되고, 서쪽의 여러마을과 거리마을 주민이 한패가 되어 겨루는 집단놀이이다.

유래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이 마을은 예부터 계절

에 관계없이 불이 자주 일어나 늘 근심거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서북쪽 멀리 솟아 있는 학가산(鶴駕山) 꼭지가 앞쪽의 두 산 사이로 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을 원로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이 화기(火氣)를 누르기 위하여 이 놀이를 시작하였고, 이 놀이를 하면서부터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고 평온하게 되었다. 이 놀이를 시작한 연대는 알 수 없으며 다른 형태의 놀이로 1951년까지 놀았고 1982년에도 재현한 적이 있으나 그 후 중단되었다.

내용 놀이방법은 다음과 같다. 날이 어두워지면 각 패가 정한 곳에 모여 "재미있게 놀자"고 의논한 뒤 진세를 펴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린다. 25세 안팎부터 50세에 이르기까지 힘이 센 자는 모두 참가하는데, 많을 때는 각 패가 30명 정도이다. 참가자들은 무명옷을 입고 머리에는 석자 머리띠를 두르는데, 장군과 부장은 머리띠에 한 웅큼의 풀을 꽂아 표시한다. 도구는 묵은 뽕나무 뿌리를 캐어 오랫동안 말려서 등걸에 흠을 낸 화상뿐이다. 화상이라는 명칭은 아마 이 뽕나무의 한자 표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가시 돋친 듯이 뾰족뾰족한 뽕나무 뿌리에 한 발 가량의 새끼줄을 맨다. 새끼는 세 가닥으로 꼬아 뿌리에서 반 발 정도는 삼[麻]을 두드려서 질기게 꼬아 만든 것이며, 여기에 손잡이 막대기를 달았다. 싸울 때는 뿌리에 불을 붙여 머리 위로 휘두르면서 공격하면서 상대편의 화상을 감아서 잡아당겨 빼앗는다. 화상을 많이 빼앗은 편이 승리하는 것이다. 양패가 진세를 펴면 "와아-" 함성을 지르고 화상에 불을 붙인다. 먼저 부장이 나와서 기량과 힘을 겨루고, 승부가 나지 않으면 전체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서로 상대편을 포위하려고 밀고 밀리는데 캄캄한 허공에 휘황한 불꽃 원이 어지럽게 난무하고, 간혹 격렬한 당기기 싸움이 벌어지면 옆에 있던 자들이 합세하기도 한다. 싸움이 한창일 때면 "음지야", "양지야" 하며 아군의 기세를 돋우기도 하고, "꺽꺽" 하며 아군의 위치를 알리기도 한다. 화상을 빼앗긴 자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고, 피곤한 자는 간혹 농주(農酒)로 목을 축여가며 싸우는데, 때로는 머리와 발목을 다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한다. 어느 정도 판세가 기울어지면 양패의 장군이 나와서 마지막 결전을 벌인다. 장군싸움으로도 승패가 나는데, 이때에는 마을의 원로가 큰 소리로 승리를 알림으로써 싸움이 끝난다. 어쩌다가 심한 부상자가 생김으로써 끝나는 수도 있다. 승리한 쪽은 "얼싸, 월싸" 하면서 만세를 부르며 개선한다. 이튿날은 단옷날이라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여 사과도 하고 위로도 하며 음식을 장만하여 하루를 즐긴다.

의의 화기를 누르기 위하여 베푸는 놀이는 경북 예천군 예천읍의 '청단놀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불로써 불을 누르는 화상싸움은 풍수지리설을 믿는 다분히 주술적인 행위 전승이다. 저전리는 한양조씨(漢陽趙氏)의 동성마을이며, 이 놀이는 마을의 안녕 질서를 위한 협동과 단결의 기능도 한다.

참고문헌 | 苧田洞 화상싸움(成炳禧, 鄕土文化2, 鄕土文化硏究會, 1981).

필자 | 성병희(成柄禧)

도리깨질소리

정의 수확기의 보리나 콩, 팥, 조, 깨, 메밀 같은 곡물을 밭이나 마당에서 도리깨를 이용하여 타작하며 부르는 노래. 마당질소리 혹은 타작노래, 타맥요(打麥謠), 보리타작소리라고도 한다. 마당이라는 노동장소의 특성과 노동 도구인 도리깨의 사용, 또한 단오 무렵에 보리를 타작한다는 점에서 타맥요 혹은 보리타작소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내용 타작노래의 역사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고, 타작하는 노동 기능과 노래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마다 도리깨질소리는 다르나, 노래의 노동 기능과 가창 형식은 비슷하다. 도리깨를 들고 목도리깨꾼이 선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10여 명 이상 되는 종도리깨꾼 전체가 후렴을 받는다. 선소리의 사설 내용은 작업의 특성과 노동이 지속되는 상황 등 작업 실태를 주로 노래하며, 농부들의 심정, 남녀의 연정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불려진다. 음악은 노동리듬과 같은 2박으로 구성되며 계속 이어져 나가는 절로 구분되는데, 박자에 맞춰 일꾼들의 동작을 일치시키는 역할과 흥을 돋우어 힘을 내고 일의 지겨움을 덜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 작업은 남녀 구분 없이 하고, 일의 분량에 따라 3~4인이 두 개의 멍석을 펴고 일하거나 10인 이상이 같이 하기도 한다.

도리깨질소리는 지역마다 후렴이 각기 다른 점이 특징이다. 선후창으로 부르는 형식이 기본이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선소리가 의미 있는 사설을 부르면 후렴을 "에헤 마댕이여" 한다. 전남에서도 명칭도 후렴이 다양하다. 진도 군내면이나 지산면에서는 '보리모질소리'라고 하며, 후렴은 "아하-하-라 횡횡해요", "허혀혀라 허 옹해요" 혹은 "옹해야", "엉해요", "홍해야"라고 한다. 해남 문내면에서는 '도리깨타령'이라고 하며 후렴으로 "아 훠랑 훠리", "아하훠라훠리 하리요" 또한 신안 흑산도에서는 '돌깨소리'라고 하고 "넘어가네", 신의면에서는 "어해야 해야"라고 한다. 경북 경주시 현곡면에서는 "호호 호해야", 성주에서는 "응헤야, 어유하, 엥헤야, 옹헤야" 한다. 제주도인 경우는 도리깨의 방언인 '도깨'를 이용한다. 그래서 노래의 명칭도 '도깨질소리'라고 하며 후렴은 "어야도홍아", "어야도하야"가 주로 불린다.

노래는 목도리깨꾼과 종도리깨꾼의 노동 동작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힘에 부친 노동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래를 하므로 아주 규칙적이면서도 신명을 불러일으킨다. 도리깨를 이용하여 곡물을 타작하던 이 도리깨질소리는 탈곡기가 보급되기 전에 많이 불렸고, 탈곡기를 이용하기 시작한 1960년대 말부터는 거의 부르지 않게 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들어보기 어려운 노래이다.



돌이세질하고
기산풍속도 김준근

참고문헌 | 韓國民謠集(任東權 編, 集文堂, 1961~1981), 韓國口碑文學大系(精神文化硏究院, 1980~1995), 民謠論集2(民謠學會, 民俗苑, 1993).
필자 | 좌혜경(左惠景)

단오물 잡으면 농사는 다 짓는다

정의 본격적인 모내기철인 단오 무렵에 논물을 받아 두면 농사를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

내용 단오를 전후한 시기는 본격적인 모내기철이므로, 그때까지 논물을 잘 모아 두어야 제때 모내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오물을 저장해 두면 농사는 다 지어 놓은 것, 곧 풍년이 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속담이 생겨났다. 유사한 속담으로 "단오에 비 오면 농사 다 짓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는 단옷날 오는 비의 풍경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상천(上天)이 지인(至仁)하사 유연(油然)히 작운(作雲)하니, 때 미쳐 오는 비를 뉘 능히 막을쏘냐. 처음에 부슬부슬 먼지를 적신 후에 밤들어 오는 소리 패연(沛然)히 드리운다. …… 샐 때에 문에 나니 개울에 물 넘는다. 메나리 화답하니 격양가(擊壤歌) 아니던가." 오월에 내리는 비는 농사에 긴요하기 때문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농민의 염원에서 "오월 장마는 꿔다 해도 한다."라는 속담이 생겨나기도 했다.

참고문헌 | 農家月令歌, 東國歲時記, 朝鮮常識問答·朝鮮常識(崔南善, 玄岩社, 1973).
필자 | 진경환(秦京煥)

오월 단오 안에는 못 먹는 풀이 없다

정의 양기(陽氣)를 받고 자란 풀들은 건강에 좋다는 의미에서,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인 오월 단오에는 어떤 풀이나 먹어도 좋다는 뜻.

내용 5월 초닷새는 중오(重五), 곧 양(陽)의 수인 5가 중복되어 일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다. 양기를 흠뻑 받아 자란 단오 무렵의 풀들이 건강에 좋으리라는 믿음에서 "오월 단오 안에는 못 먹는 풀이 없다."라는 속담과 함께 쑥으로 떡[수리취떡]을 해 먹거나 창포로 머리를 감는 풍속이 생겨났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저자 도애(陶厓) 홍석모(洪



논물대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錫謨)가 서울의 세시풍속을 노래한 한시집인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 '익모초(益母草)'에서 "풀이름 익모라 어찌 그리 기이한고 단옷날 캐어야 약효가 좋아 아들 낳는 데는 물론이고 차고 다니면 단전과 종옥에 뛰어난 효과(草名益母一何奇 重午日時采綠宜 不啻宜男爭紉佩 丹田種玉是良醫)"라고 하였듯이, 특히 익모초는 단옷날 중에서도 양기가 가장 왕성한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에 뜯어먹으면 아들을 낳는 데 효험이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朝鮮常識問答·朝鮮常識(崔南善 著, 玄岩社, 1973), 서울·세시·한시(洪錫謨 編著, 秦京煥 譯註, 보고사, 2003).

필자 | 진경환(秦京煥)

죽취일(竹醉日)

정의 대나무를 심기에 적당한 날. 음력 5월 13일에 해당한다. 죽미일(竹迷日)이라고도 하며 8월 8일이라고 한 문헌도 있다.

유래 송(宋) 범치명(范致明)의 『악양풍토기(岳陽風土記)』에 "악인이 5월 13일을 용의 생일이라고 부르며 가히 대를 심는다. 『제민요술(齊民要術)』에서 죽취일이라 일컬었고, 또 죽미일이라고도 부른다(岳人五月十三日 謂之龍生日 可種竹. 齊民要術 所謂竹醉日也 又曰竹迷日)." 하였고, 『산가청사(山家淸事)』에 "8월 8일은 죽취일이라 일컫는데, 대를 심으면 쉽게 살기에 죽미일이다(八月八日謂竹醉日 種竹易活 竹迷日)."라고 하였다.

내용 우리나라의 죽취일 세시풍속은 중국과 비슷하다. 유만공(柳晩恭)의 『세시풍요(歲時風謠)』에는 5월 13일을 죽취일이라 하여 대나무 생일이라 하고 대나무를 옮겨 심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지연전서(張志淵全書)』에 "죽취일: 『사민월령(四民月令)』에 5월 13일을 죽취라 이르고 역시 죽미일이라 부르니, 이 날 대나무를 심으면 대나무가 반드시 잘 살고 무성한 고로 대나무를 심는 자는 필히 이 날 한다."라고 하였다.

대나무는 남쪽의 영호남이 주산지이나 중부 지방에서도 볼 수 있다. 죽취일은 대가 물을 좋아하므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인 음력 5월 13일로 정한 듯하다. 대가 취해서 어미 대에서 새끼 대를 잘라내도 아픈 줄 모르고, 어미 곁에서 멀리 옮겨 심어도 어미 곁을 떠나는 슬픔을 알지 못하므로 이 날 옮겨 심는다는 속설이 있다. 이 날을 마을주민의 축제로 삼아 대나무를 심고 죽엽주를 마시며, 화전놀이와 폭죽놀이로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였다.

그 밖에 대나무의 기풍(祈豊)과 관련된 금기와 예방의 습속이 있다. 정송오죽(正松五竹)이라 하여 옛날부터 정월에는 소나무를, 5월에는 대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말이 있다. 곧, 5월에는 물이 잘 오르는 때라 대나무를 이식하고, 대를 베는 일을 삼가는 것이다. 전남에서는 4, 5월은 죽순이 자라는 때이므로 대밭(竹田)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며, 제주에서는 대나무를 5월에 옮겨 심으며, 댓부르기(죽순)를 달여 먹으면 화채병에 좋다고 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中文大辭典(台北: 中華學術院, 1982),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歲時紀時辭典(周一平·沈茶英 편저, 湖南出版社, 1991),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柳晩恭 원저·임기중 역주, 집문당, 1993), 漢語大詞典(上海: 한어대사전출판사, 1995), 서울 六百年史(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97).

필자 | 상기숙(尙基淑)

죽미일(竹迷日)

⇨ 죽취일(竹醉日): 여름편





節氣 절기

망종(芒種)이란 벼 보리 같이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이다.
이 시기는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알맞은 때이다.
그러므로 망종 무렵은 보리를 베고
논에 모를 심는 절후이다.
망종에는 망종보기라 해서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듦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그 해 보리수확의
늦고 빠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망종(芒種)

정의 24절기 중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소만(小滿)과 하지(夏至) 사이에 들며 음력 5월, 양력으로는 6월 6일 무렵이 된다. 태양의 황경이 75도에 달한 때이다. 망종(芒種)이란 벼, 보리 같이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이다. 이 시기는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알맞은 때이다. 그러므로 망종 무렵은 보리를 베고 논에 모를 심는 절후이다.

내용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다. 망종까지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된다는 뜻이다. 망종을 넘기면 보리가 바람에 쓰러지는 수가 많으니 이를 경계하는 뜻도 담고 있다.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볏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요.", "햇보리를 먹게 될 수 있다는 망종"이라는 말도 있다. 아무튼 망종까지는 보리를 모두 베어야 빈터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할 수 있다. 또 이 시기는 사마귀나 반딧불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매화가 열매 맺기 시작하는 때이다. 모내기와 보리베기가 겹치는 이 무렵에는 보리농사가 많은 남쪽일수록 더욱 바쁘다. 그래서 이때는 "발등에 오줌 싼다."라고 할 만큼 일년 중 제일 바쁜 시기이다. 비가 끊임없이 내리며, 농가는 모내기 준비로 바쁘다.

망종에는 '망종보기'라 해서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듦에 따라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음력 4월에 망종이 들면 보리농사가 잘 되어 빨리 거두어 들일 수 있으나, 5월에 들면 그 해 보리농사가 늦게 되어 망종 내에 보리농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곧,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듦에 따라 그 해의 보리수확이 늦고 빠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망종이 4월에 들면 보리의 서를 먹게 되고 5월에 들면 서를 못 먹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다. 보리의 서를 먹는다는 말은, 그 해 풋보리를 처음으로 먹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양식이 부족해서 보리 익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풋보리를 베어다 먹었다고 하니 그때의 삶을 엿보이게 한다. 그래서 망종 시기가 지나면 밭보리가 그 이상 익지를 않으므로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무조건 눈 감고 베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리는 망종 삼일 전까지 베라."는 말이 있다.

지역사례 경남 도서지역에서는 망종이 늦게 들어도 안 좋고 빠르게 들어도 안 좋으며 중간에 들어야 시절이 좋다고 한다. 특히 음력 4월 중순에 들어야 좋으며, 망종이 일찍 들면 보리농사에 좋고, 늦게 들면 나쁘다는 말도 있다. 부산 남구와 강서구 구랑동 압곡에서는 망종에 날씨가 궂거나 비가 오면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망종날 풋보리 이삭을 뜯어서 손으로 비벼 보리알을 모은 뒤 솥에 볶아서 맷돌에 갈아 채로 쳐 그 보릿가루로 죽을 끓여 먹으면 여름에 보리밥을 먹고 배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전남 지역에서는 이 날 '보리그스름(보리그을음)'이라 하여 풋보리를 베어다 그을음을 해서 먹으면 이듬해 보리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한다. 보리가 잘 여물어 그 해 보리밥도 달게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날 보리를 밤이슬에 맞혔다가 그 다음 날 먹는 곳도 있다. 이렇게 하면 허리 아픈 데 약이 되고, 그 해에 병이 없이 지낼 수 있다고 믿었다. 또 망종날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 그 해의 모든 일이 불길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날 우박이 내리면 시절이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전남과 충남, 제주도에서는 망종날 하늘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치면 그 해 농사가 시원치 않고 불길하다고 한다.



망종 풍경
이억영

참고문헌 | 四時纂要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篇-(文化財管理局,1974),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忠淸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民俗誌(光州直轄

市·南道民俗學會, 1990), 濟州道誌3(濟州道, 1993),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1), 한국민속문화대사전 하권(김용덕 편, 창솔, 2004),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조선전기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최인학(崔仁鶴)

망종보기(芒種-)

☞ 망종(芒種): 여름편

보리그스름

정의 망종(芒種)에 풋보리를 베어다 그을음(그스름)해서 먹는 풍습.
내용 및 지역사례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는 망종 무렵(양력 6월 6일)에 풋보리를 베어다가 그을음을 해서 먹는다. 그렇게 하면 다음해 보리농사가 잘 되고 그 해 보리밥도 달게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날 보리 그을음을 해서 밤이슬을 맞혔다가 그 다음날 먹으면, 허리 아픈 데 약이 되고 그 해에 병이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풋보리를 '서포리'라 하는데, 그곳에서도 풋보리를 불에 구워 먹는다. 망종을 고비로 아직 남아 있는 풋보리를 한 줌 베어다가 구워먹으면 그 맛이 구수하고 좋다. 이 보리그스름 말고도 밀그스름은 맛이 더욱 좋아, 소 먹이러 가던 목동들이 재미삼아 그을음을 해서 먹기도 했다. 이렇게 보리그스름을 해서 먹는 것은 풍년과 무병을 기원하는 것과 흉년이 들어 양식이 떨어졌을 때 배고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서해숙(徐海淑)

망종 넘은 보리, 스물 넘은 비바리

정의 망종을 넘긴 보리는 익어서 쓰러져 수확이 적고, 스물이 넘은 여성도 외모나 생리적으로 차츰 기울어지게 된다는 뜻.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내용 망종은 보리 수확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적어도 망종 3일 전까지는 베어야 한다. 망종이 지나면 익고 선 것을 따질 필요 없이 눈을 감고서라도 벨 정도로 보리 수확의 한계선이 다가온다.



보리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과거에는 여자가 스물이 넘으면 결혼 적령기가 넘은 과년한 처녀라고 생각했다. 이팔청춘의 아름다운 모습도 서서히 시들어 가고, 혼사가 오고가지 마는 마땅한 신랑감이 없을 때는 집안 식구나 본인도 조바심이 난다. 일년 양식은 바닥이 난 지 오래되고, 보리가 익기만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은 마치 집안에 과년한 딸이 빨리 결혼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과 같다.
유사속담 "보리는 망종 삼일 전까지 베라.", "망종이 사월에 들면 보리의 서를 먹게 되고, 5월에 들면 서를 못 먹는다." 같은 유사한 속담이 있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필자 | 좌혜경(左惠景)

하지(夏至)

정의 24절기 중 열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하지(夏至)는 24절기 중 망종(芒種)과 소서(小暑) 사이에 들며, 오월(午月)의 중기로 음력으로는 5월, 양력으로는 대개 6월 22일 무렵이다. 천문학적으로는 일년 중 태양의 적위가 가장 커지는 시기이다. 이 무렵 태



하지 풍경
이억영

양은 황도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데, 그 위치를 하지점(夏至點)이라 한다. 북반구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태양의 남중고도(南中高度)가 가장 높아진다. 그러나 남반구에서는 북반구와 반대로 하지에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북위 37도 30분)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하지 때에는 75도 57분이고, 동지 때 29도 3분이다. 정오의 태양 높이도 가장 높고, 일사 시간과 일사량도 가장 많은 날이다. 동지(冬至)에 가장 길었던 밤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여 이 날 가장 짧아지는 반면, 낮 시간은 일년 중 가장 길어져 무려 14시간 35분이나 된다. 일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북반구의 지표면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을 받는다. 그리고 이 열이 쌓여서 하지 이후로는 기온이 상승하여 몹시 더워진다.

내용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5월 중기인 하지 기간 15일을 5일씩 끊어 3후(候)로 나누었는데, 초후(初候)에는 사슴이 뿔을 갈고, 차후(次候)에는 매미가 울기 시작하며, 말후(末侯)에는 반하(半夏: 끼무릇 · 소천남성 · 법반하라고도 하며, 덩이뿌리로 밭에서 자라는 한약재)의 알이 생긴다고 했다.

장마와 가뭄 대비도 해야 하므로 이때는 일년 중 추수와 더불어 가장 바쁘다. 메밀 파종, 누에치기, 감자 수확, 고추밭매기, 마늘 수확 및 건조, 보리 수확 및 타작, 모내기, 그루갈이용 늦콩 심기, 대마 수확, 병충해 방재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남부 지방에서는 단오를 전후하여 시작된 모심기가 하지 무렵이면 모두 끝나는데, 이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 따라서 구름만 지나가도 비가 온다는 뜻으로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라는 속담도 있다. 과거 보온용 비닐 못자리가 나오기 이전 이모작을 하는 남부 지방에서는 하지 '전삼일, 후삼일'이라 하여 모심기의 적기로 여겼다. 하지가 지나면 모심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모내기를 해야 했다.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라는 속담은 여기서 나온 말이다. 또한 이 날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농촌에서는 하지가 지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데, 우리나라는 예부터 3~4년에 한 번씩 한재(旱災)를 당하였으므로 조정과 민간을 막론하고 기우제가 성행했다.

비[雨]에 대한 관심은 이미 단군신화에 나타나 있다. 환웅이 거느리고 하강했다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 세 신은 모두 비에 관한 신이니, 비에 대한 관심은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작물은 물을 필요로 하며, 물은 곧 비를 의미한다. 특히 농업의 주종을 이루는 벼농사의 원산지가 고온다습한 동남아시아 지역이고, 우리나라는 주로 장마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므로 그 전후인 하지 무렵까지는 가뭄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수리시설이 부족한 때일수록 기우제가 성행하였다.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비였으므로 기우제는 연중행사였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되었다.

민간에서는 산이나 냇가에 제단을 만들고, 마을 전체의 공동행사로 제사를 지냈다. 제주(祭主)는 마을의 장이나 지방관청의 장이 맡고 돼지, 닭, 술, 과실, 떡, 밥, 포 등을 제물로 올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당이 제를 관장하기도 한다. 또 민간에서는 신성한 지역에 제물로 바친 동물의 피를 뿌려 더럽혀 놓으면 그것을 씻기 위해 비를 내린다는 생각으로, 개나 소 등을 잡아 그 피를 바위나 산봉우리 등에 뿌려 놓는 풍습이 있었다.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서는 하지 무렵 감자를 캐어 밥에다 하나라도 넣어 먹어야 감자가 잘 열린다고 한다. "하짓날은 감자 캐먹는 날이고 보리 환갑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지가 지나면 보리가 마르고 알이 잘 배지 않는다고 한다. 또 하지가 지나면



논물대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감자 싹이 죽기 때문에 '감자 환갑'이라 한다. 이 날 '감자천신한다'고 하여 감자를 캐어다가 전을 부쳐 먹었다.

참고문헌 | 高麗史, 三國志,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류종목(柳鍾穆)

장지(長至)

정의 음력 5월 절기인 하지(夏至)를 달리 부르는 말. 하지는 24절기 중 열 번째 절기로, 일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내용 망종(芒種)과 소서(小暑) 사이에 들며 양력으로는 태양의 황경이 황도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데, 그 위치를 하지점(夏至點)이라 한다. 천문학적으로는 일년 중 태양의 적위가 가장 커지는 6월 21일 무렵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사력으로 모내기가 끝나며 장마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다. 『예기(禮記)』「월령(月令)」편에 "중하(仲夏)의 달에 태양이 장지(長至)한다(仲夏之月 日長至)."라고 하였다. 손희단(孫希旦)이 집해(集解)하기를,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장지(長至)는 낮이 길어져 지극함을 이른다(孔氏曰 長至者 謂日長之至極)."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禮記.
필자 | 양진조(梁鎭潮)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

정의 하지(夏至)가 지나면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대느라 매우 분주함을 이르는 말.

내용 음력 5월 중에 드는 하지는 대개 모심기가 끝나는 무렵이다. 따라서 하지 이후에는 논이 마르지 않게 물을 대주어야 모가 잘 자란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농부들은 발을 벗고 살아야 할 만큼 바빠진다는 뜻이다. 가뭄이라도 들면 더욱 논에서 벗어날 틈이 없다. 농부가 물꼬에 발을 담그고 산다는 것은 논물대기가 그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물이 넉넉해야 벼농사가 잘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물 욕심에는 사돈도 친구도 없고, 봇물 싸움도 다반사로 벌어진다. 그런가 하면, 자기 논이 말랐을 때 허락도 없이 윗논의 물을 슬쩍 대는 물도둑질은 세상이 다 아는 도둑질이고, 그다지 큰 죄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만큼 벼농사에서 논물이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논농사는 물농사", "논에는 물이 장수"라는 속담도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農漁俗談辭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천혜숙(千惠淑)





月內

월내

우리 민족은 농업을 근간으로
생활해 왔으며
어촌에서도 반농반어 생활을 해 왔으므로
가뭄에 대한 대책은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
가뭄이 계속되면
농작물의 파종이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는데
이를 물제라고도 한다. 夏

기우제(祈雨祭)

정의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의 파종이나 성장에 해가 있을 때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지내는 제의(祭儀). 우리 민족은 농업을 근간으로 생활해 왔으며 어촌에서도 반농반어(半農半漁) 생활을 해 왔으므로 가뭄에 대한 대책은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 가뭄이 계속되면 농작물의 파종이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는데, 이를 '물제'라고도 한다. 또한 기우제는 농작물이 성장하는 데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내므로 농경의례 중에서 성장의례로 구분하기도 하고, 세시풍속과 같이 일정한 시기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계속될 때 부정기적인 의례로 구분한다.

내용 농경의례와 달리 기우제는 비가 내리는 효험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지내는 특성이 있다. 의례를 지내는 제주(祭主)를 바꾸거나 제장(祭場)을 옮기고 주법(呪法)을 바꿔가며 반복하여 반복하여 지낸다. 기우제에 참여하는 주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 기원의 효력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 기인한다. 한 지역에 여러 방법의 기우제가 전승되기도 한다. 또한 효험이 있다고 믿는 기우제는 급속히 다른 지역에 전해져서 한정된 지역에 밀집된 분포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행하는 기우제는 일정한 시기와 한정된 지역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행신앙적인 특성을 지닌다.

기우제의 유형은 ① 산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놓는 형 ② 동물희생이나 인신공희(人身供犧)형 ③ 수신(水神)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에게 기원하거나 절에서 기원하는 형 ④ 성물(聖物)이나 성역(聖域)을 부정화(不淨化)하거나 신을 강압하는 형 ⑤ 재액을 쫓아내는 형 ⑥ 비가 내리는 것을 모방한 주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처럼 산 위에서 불을 놓아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는 가장 널리 행해져 전국적인 분포를 나타낸다. 산 위에서 태울 나무나 짚은 각 호(戶)마다 모아 산으로 운반하는데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1 키 까부르기
2 불놓기
3 불놓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절이나 당(堂)에서 불을 놓고 기원하는 예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나타난다. 산에서 불을 놓으면 타는 소리가 천둥치는 소리같이 난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하며, 연기를 통해 천신에게 기원을 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우제는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등 여러 민족에서 널리 행해진 것으로 연기가 구름을 상징하는 유감주술로 볼 수 있다.

②는 기우제에 돼지, 소, 양 따위를 희생하여 신에게 바치는 의례로 전국적으로 전승된다. 농경의례에는 대부분 동물희생을 따르지 않는데 기우제에만 나타난다. 산신이나 수신에게 바치는 두개골을 성소(聖所)에 묻거나 물속에 던지기도 한다. 희생 동물의 어느 부위가 의례에 사용되는가에 따라 단순한 공물(供物)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점차 쇠퇴하는 수신을 갱신(更新)하기 위한 의미로도 행해졌다.

③처럼 절이나 당뿐만 아니라 수신과 같이 자연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신에게 의례를 통해 기원하거나 춤 또는 노래로 위로를 하기도 한다. 가뭄이라는 재앙의 원인이 신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수신을 위로하기 위해 연희를 벌이기도 한다. 절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에는 불교의례 중에서 큰 행사에만 행한다는 괘불(掛佛)행사를 주로 한다. 수신제(水神祭)는 대부분 산신(山神)이나 용과 관련된 수신에게 기원하는데, 산에 물이 솟아나는 곳을 물의 원천지로 여기고 제장으로 설정한다. 산에서 흐르는 물을 관계수로로 이용함에 따라 수신제나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에도 변화가 있었다. 농경민이 산신을 수신으로 여기는 것은 산신에게 풍요를 기원하거나 우순풍조를 기원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산물의 원천을 산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④는 성물(聖物)이나 성역에 부정물(不淨物)을 뿌리거나 투입하는 등 부정화(不淨化)시킴으로써 신이 비를 내려 정화해 주기를 기대하는 주법이다. 또는 신을 모독하거나 화나게 하여 강압적으로 비를 오게 하기도 한다. 부정물은 개, 돼지의 피나 배설물이 주로 쓰인다. 강원도 횡성, 강릉, 춘천을 비롯하여 함경도, 평안도, 전라도에서도 성스러운 바위나 제단에 피를 뿌리며 비를 기원하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산간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전라도 곡성, 장성, 옥구에서는 동네 부인들이 총동원되어 인근 산에 올라가 일제히 오줌을 누면서 비를 기원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짚으로 용의 형상을 만들어 두들기거나 끌고 다니면서 비구름을 토하라고 강압하기도 한다. 이것은 성인이 아닌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기우방법이다. 부정화에 의한 기우방법 가운데 암장발굴(暗葬發掘)은 한국에만 전승되는 특유의 기우제이다. 울산의 무룡산(舞龍山)과 강원도 고성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전승되는데, 명산(名山)은 풍수지리적으로 길지(吉地)가 있어서 이곳에 묘를 쓰면 생기를 독점한다 하여 마을에서는 이를 규제한다. 가뭄이 들면 누군가가 길지에 암장했다고 하여 이를 파헤쳐 사체(死體)를 산에 뿌린다. 사체로 부정화된 산을 신이 정화하기 위해 비를 내리기를 기원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암장발굴은 풍수설과 부정화 주법이 습합된 기우제이다.

⑤는 한발(旱魃)의 원인인 재앙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쫓아내기 위한 방법이다. 용이 되지 못한 강철이나 이무기를 재난을 가져오는 두려운 존재로 여겨왔는데, 가뭄의 원인을 이들이 성역이나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여겨 이를 쫓아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산과 마을을 돌, 꽹과리, 솥뚜껑, 냄비를 두드리며 비를 기원한다. 기우제뿐만 아니라 전염병이나 재앙이 닥쳤을 때 같은 방법으로 액을 쫓는다. 의례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신과의 교감을 갖기 위한 신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듣기 거북한 소리를 의도적으로 내는 것은 가뭄이나 전염병 같은 재앙을 가져다주는 잡신을 퇴치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⑥은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물이 떨어지도록 하는 유감주술로 강변이나 우물에서 주로 행한다. 부녀자들이 우물에서 키에 물을 붓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듯 물이 떨어지도록 한다. 청주와 춘천에서는 아들을 못 낳는 여자들이 키에 강물을 담아 새어나오는 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춤을 추기도 한다. 경남 합천에서는 15~16세 처녀 세 명을 선정하여 집에 황토와 체, 솥뚜껑을 준비하였다가 밤이 되면 공동 샘가에서 고사를 지낸다. 한 처녀는 부지깽이로 솥뚜껑을 두드리고 한 처녀는 샘물을 바가지로 퍼서 솥뚜껑 위의 체에 물을 부으면서 "쳇님은 비가 오는데 하나님은 왜 비를 내려 주지 않으시나요."

하고 주문을 반복한다. 또한 병에 물을 담은 다음 솜으로 막아 대문 앞에 병을 거꾸로 매달아 두어 물이 똑똑 떨어지도록 한다. 이를 현병(懸甁)이라고 하는데, 각 집마다 문 앞에 걸어 두고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가뭄이 계속되면 지역 주민들은 가뭄의 원인을 찾기에 노력하게 되는데, 여기에 무당이 개입하여 재앙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기우제는 개인의 제의가 아닌 공동 제의이다. 기우제는 일반 의례와 마찬가지로 신과의 합일을 의례적으로 표현하며 비가 내리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때로는 가뭄이라는 재난으로 인해 혼란스러움에 처해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산에 올라가 서로 욕을 하거나 떠들고 싸우기도 한다. 인간 세계가 가뭄이라는 혼란스런 상태에서 벗어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주술 형태로써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질서적인 상황을 질서로 전환하는 데 기우제의 의미가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硏究(朴桂弘, 螢雪出版社, 1973), 韓國의 祈雨風俗에 관한 硏究 -慶尙南道를 中心으로-(康龍權, 石堂論叢6, 東亞大學校 石堂學術硏究奬勵會, 1981), 기우제와 지역사회(임장혁, 민속원, 1999).
필자 | 임장혁(任章赫)

선목제(先牧祭)

정의 음력 5월 사람에게 목방(牧放)을 가르친 신(神) 혹은 처음으로 말 기르는 법을 가르친 신에게 지내는 국가 제의. 말은 전근대에 유일한 운송수단이었고, 특히 전마(戰馬)는 안정적인 군사력의 중요 수단이었기에 국가에서는 사전에 이를 수용하여 제사하였다. 선목제는 고려시대부터 사전에 소사(小祀)로 규정되어 제사를 지냈는데, 비슷한 유형인 마조(馬祖), 마보(馬步), 마사(馬社) 같은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래 선목제는 『주례(周禮)』 권4 하관사마(夏官司馬)에 "여름에 선목에 제사하고 말을 나누어 준다(夏祭先牧頒馬)."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선진(先秦)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당서(新唐書)』「예악지(禮樂志)」에 선목은 소사로 등재되었고 송(宋)대에도 역시 소사로 취급되었지만, 명(明)대에는 제사가 소사에서 빠졌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선목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의종 때 편찬된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에 이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었다. 이를 수용한 『고려사(高麗史)』「예지(禮志)」에 따르면, 선목의 제단은 넓이가 9보, 높이가 3척으로, 사출폐(四出陛)이며, 유(壝)가 25보이며, 예감(瘞坎)이 있다. 그리고 제사의 시기는 5월이고, 희생은 돼지 한 마리이다.

고려의 선목제는 조선으로 이어졌는데, 태종 13년(1413)에 이르러 의식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때 제단 규모는 제후국 체제에 맞게 사방 2장 1척, 높이 2척 5촌, 유(壝)가 하나인 형태로 축소되었고, 제사 시기는 중하(仲夏) 중기(中氣) 후 강일(剛日)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아울러 제사는 보다 유교적으로 바뀌어 사복시(司僕寺)의 관원이 향(香)을 받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그 의식이 수록되었는데, 제단은 마조단, 마사단, 마보단과 같이 전관목장(箭串牧場) 안에 있었다.

선목제는 성종 이후 상당기간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현종 이전까지 연대기에 기록이 없으며, 영조 20년(1744)에 편찬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는 마조(馬祖), 마사(馬社), 선목(先牧) 같은 제사가 폐지되었다고 기술되었다. 물론 영조 25년(1749) 제도(諸道)에서 우역(牛疫)이 심해지자, 마단(馬壇) 가운데에 목신(牧神)을 설치해 제사하고, 기존의 선목의(先牧儀)를 수정한 경우도 보이지만, 이 역시 특별한 조처일 뿐 이후의 선목제 시행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의의 말과 소는 교통과 농업의 중요한 수단이었고, 특히 말은 전마로서의 효용성이 컸다. 이로 인해 선목제는 고려시대 이래 국가의 사전에 포함하여 제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말의 수효가 감소하고 전마로서의 유용성이 떨어지면서 제사 의식이 줄어들게 되었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春官通考,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韓亨周, 一潮閣, 2002), 朝鮮時代 軍事關聯 국가제사의 정비와 그 운영(韓亨周, 東峰申天湜敎授停年記念史學論叢, 2005).
필자 | 한형주(韓亨周)

까마귀울음점

정의 5월에 우는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길흉(吉凶)을 점치는 동물점(動物占).

내용 및 지역사례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치의 울음소리를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좋은 징조로 여기고,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사망 같은 나쁜 징조로 여겼다. 특히 오전에 집안에 이런 짐승이 울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사에 조심한다.

경남 지방에서는 특히 5월에 까마귀가 울면 마을에 사람이 죽어 초상이 나거나 그 해 시절이 좋지 않다고 예측한다. 반면 제주도에는 1989년 12월 말 인위적으로 방사하기 전까지 까치가 서식하지 않았다. 그래서 까치와 까마귀를 대립시켜 길조와 흉조로 보는 양상과 다르게 까마귀 울음소리만으로 길흉을 함께 점쳤다. 5월에 까마귀가 "강글락탁 강글락탁" 울면 손님이 찾아들 길조라고 여긴다. 까마귀가 바깥채 지붕 위에 앉아서 안채를 보고 울면 집안 여자들끼리 싸움이 난다며 조심한다. 또 까마귀가 팽나무의 높은 가지에 앉아서 울면 마을의 어른이 죽고, 중간 가지에 앉아서 울면 중반이 죽고, 낮은 가지에 앉아서 울면 하인이 죽을 징조라고 믿었다. 이는 근래에 반상(班常) 관념이 없어진 뒤에는 까마귀가 높은 가지에서 울면 마을의 노인이 죽고, 중간 가지에서 울면 중년층 사람이 죽고, 낮은 나뭇가지에서 울면 젊은이가 죽는다고 바뀌었다.



까마귀 김연수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정상박(鄭尙朴)

태종우(太宗雨)

정의 음력 5월 초열흘에 내리는 비. '태종(太宗)의 비'라고도 한다. 태종의 기일(忌日)이 음력 5월 10일인데, 태종이 죽자 비가 내려서 이 무렵에 내리는 단비를 태종우(太宗雨)라 하였다.

내용 태종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한다. 조선 제3대 왕 태종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잘 다스린 임금으로, 그가 임종할 때 날이 몹시 가문 것을 걱정하여 "내 마땅히 옥황상제님께 빌어 한바탕 비가 오게 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하였다. 그 후 태종이 붕어(崩御)하자 하늘에서 한바탕 비가 퍼부었고, 태종의 기일이 되면 비가 내렸으므로 백성들은 이 비를 '태종우'라 하고 고마워하였다.

태종은 백성을 무척 아끼는 어진 임금이었다. 그가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 22년 되던 해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의 곡식과 채소들이 말라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태종은 이때 늙고 병이 들어 몸이 매우 수척했으며,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백성을 염려해서인지 병이 더 깊어졌다. 그러나 태종이 죽기 전까지 비는 내릴 줄 몰랐다. 결국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태종은 백성들을 생각하여 다음 왕에 오를 세종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가뭄이 이처럼 심하니 내가 죽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상제(옥황상제)께 청하여 온 누리에 비를 내리게 하리라."라고 하였다. 태종이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고 운명을 하자, 햇볕이 쨍쨍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다. 이에 비가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비는 태종의 유언 덕분에 하늘이 감동하여 내리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 후부터는 음력 5월 초열흘날 내리는 비를 태종우라고 부르게 되었다.

태종이 돌아가신 그 해에 온 나라는 가뭄에서 벗어났으며, 몇 년 만에 한 번 들까말까 하는 큰 풍년을 누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매년 태종이 돌아가신

5월 10일이 되면 태종우가 내리고, 농부들은 그 비를 바라보면서 어진 태종에게 늘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극심한 해도 있었으니, 그때마다 농부들이 태종을 모신 헌릉(獻陵)을 가리키며, "우리 태종대왕께서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겠는가." 하고 스스로를 달래면 반드시 5월 10일에 태종우가 내린다고 한다.

태종은 신라의 왕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장소가 부산에 있는 태종대(太宗臺)이다. 이곳에서는 신라의 태종과 조선의 태종을 혼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태종대는 신라 제29대 태종무열왕이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한 후, 전국을 순회하던 중 이곳의 해안 절경에 심취하여 활을 쏘며 즐겼던 곳이라 하여 유래된 이름이다. 또한 가뭄이 있을 때에는 동래부사가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낸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최덕원(崔德源)

방천놀이(防川-)

정의 음력 5월 단오와 6월 유두 사이에 함경북도 종성(鍾城)에서 행하던 부녀자들의 야외놀이. 이 지방은 봄이 짧아서 강물이 풀리자마자 훈풍이 불고 곧 진달래꽃이 진다. 그러면 점차 초여름 기운이 돌고 녹음과 방초가 한꺼번에 우거진다. 이런 계절적 특성 때문에 화전놀이 대신 방천놀이가 성행하였다.

내용 방천놀이 준비는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공동 준비에는 미리 조직이 있어서 방천놀이에 가지고 갈 음식물과 악기 비용을 모으고 그 날 놀이를 재미있게 진행할 소리꾼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여자 2~3명을 뽑았다. 마을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령이나 온성까지 가서 소리꾼을 초청해 왔다. 개별적인 준비는 하루 먹고 놀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다.

방천놀이를 하는 날 새벽에는 몇몇 사람이 먼저 나가서 자리를 잡고 차일을 치며 멍석도 깔아 놓았다. 해가 중천에 뜨면 징과 장구를 울리면서, 모두 두만강 둑을 향하여 길놀이를 하며 나갔다. 이 놀이에 처녀들은 끼지 못하였으나, 아이들은 따라갔다. 이 지방의 대표적인 민요 애원성, 성주풀이, 왜생경을 부르면서 놀이판이 진행되었다. 그러면 장구잡이가 장단을 짚어 주었으며, 흥에 겨운 아낙네들은 물장구에 바가지 장단으로 좋다, 얼씨구하고 추임새를 붙이기도 하였다. 소리는 점차 돌림소리로 넘어가 아낙네들이 제각기 한 구절씩 받아넘기기도 하였다.

놀이꾼의 흥취가 고조되면 각자 일년 동안 궁리해 낸 새노래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름난 소리꾼들은 놀이판에서 물러나고 새노래의 발표로 넘어갔다. 새노래의 곡조는 기존의 곡조에 맞추어 부르는 것이 많았다. 따라서 이 지방의 많은 부요(婦謠)가 방천놀이를 통하여 창작되었다.

참고문헌 | 조선의 민속놀이(군중문화출판사, 1964),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강릉학산오독떼기(江陵鶴山-)

정의 강원도 강릉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논을 맬 때 부르는 농요. 강원도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오독떼기는 강릉시, 강원도 양양군 남부지역, 동해시 북부지역, 평창군 동부지역에서 널리 불리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전승지는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이다. 이곳에 강릉학산오독떼기보존회가 있어서 전수활동을 하고 있다.

오독떼기는 강릉시의 여러 논매는소리 중에서도 지역적 고유성이 가장 뚜렷한 노래이다. 학산리의 논매는소리는 오독떼기 외에도 잡가, 사리랑, 담성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강원도의 기본적인 음악적 색채라고 할 수 있는 메나리조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노래는 오독떼기이다. 잡가, 사리랑, 담성가에는 서울 경기 지방의 음악적 요소가 배어 있어 학계에서는 이 노래들을 사당패 같은 유랑예인집단의 노래가 변화하여 토착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독떼기는 가사가 매우 짧다. 4마디 1행이 가사 한 편을 이룬다. 달리 말하면 4마디짜리 1행이 독립된 작품단위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강릉이라 경포대는 관동팔경 제일일세.
모시적삼 젖혀들고 연적같은 젖을주오."

이처럼 오독떼기는 가사가 짧은 노래이기에 이것저것 갖추어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 이 노래 가사들은 생각이나 정황이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로 든 가사에도 경포대가 관동팔경 중에 제일이라는 일반화 된 사실과 모시적삼 속의 젖을 달라는 일방적인 요구만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전자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화자 자신의 태도와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고, 후자에는 자신의 요구에 대한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독떼기는 제창으로 부른다. 그런데 거의 모든 민요가 그러하듯 오독떼기의 가사도 부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함께 노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부를 가사를 정하여 소리를 꺼내야 한다. 그리하여 오독떼기 가사는 처음 두 마디는 선창자가 부르고, 나머지 두 마디는 모두 함께 부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곳에 따라서는 선창자가 처음 두 마디를 부른 다음, 제창할 부분의 첫음절을 미리 소리내어 알려주기도 한다. 이제 오독떼기의 가창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창) 강릉이라 경포대는
(제창) 관동팔경 제일일세

오독떼기의 가사는 짧지만, 부르는 시간은 길다. 4마디 1행, 곧 평균 16음절을 노래하는 데 1분 정도 걸린다. 음절당 4초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그러므로 오독떼기의 가창 호흡이 매우 길고 완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오독떼기의 가창에는 소리를 내지르는 창법을 많이 구사한다. 호흡은 길게 가져가면서 소리를 내질러 노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다 오독떼기는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허리 굽혀 잡초를 뽑으며 불러야 한다. 그러므로 오독떼기 부를 때는 뒷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한다고 한다.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노래하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창자들은 오독떼기를 불러야 논매기가 수월해진다고 여긴다. 이것은 소리를 길게 내질러 노래하는 에너지가 여름의 뙤약볕과 노동의 고통을 잠시 밀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독떼기의 가창에 일종의 이열치열과 같은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오독떼기는 메나리로부터 파생된 노래이다. 그러기에 오독떼기는 그 뿌리에 해당하는 메나리와 공통점이 많다. 메나리는 강원도 양양, 속초, 고성 같은 강원도 영동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논매는 소리인데, 이 노래 역시 4마디 1행짜리 가사를 제창으로 부르며, 부르는 시간도 1분 정도 걸린다. 오독떼기가 메나리로부터 파생된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릉학산오독떼기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변
국립민속박물관







1~5 강릉학산오독떼기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변
국립민속박물관

① 메나리: 매여주게 매여나주게 손을세워 매여나주게 ② 오독떼기1: 오늘날엔 여기서놀고 내일날엔 어데노나 어데노나 ③ 오독떼기2: 해는지고 저문날에 어린선비 울고가네

메나리와 오독떼기는 리듬이 자유롭다. 그러므로 노래의 음악적 구조는 호흡 단위에 따라 인식된다. 그런데 위에 정리된 것처럼 메나리의 가사는 크게 4개의 호흡 단위로 나뉘어 불린다. 그리고 오독떼기는 메나리의 제4마디 가사를 한 번 더 반복하는 변주를 시도하면서 오독떼기1처럼 호흡 단위는 5개로 변화되었다. 그런가하면 오독떼기1에 2차적인 변화를 가해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내는 일도 생겨났다. 곧 오독떼기1의 5개 호흡 단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가사는 반복하지 않고, 대신 늘어난 호흡 단위에 제4마디 가사를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 것이다. 그 결과 오독떼기는 곳에 따라 위의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하게 되었다(여기서 호흡 단위는 끊어 부르는 가창상의 감각적 단위일 뿐 시간단위는 아니다. 그러므로 호흡 단위가 늘어도 메나리와 오독떼기의 가창 시간이 같아지는 것이다).

의의 4마디 1행의 가사 구성과 제창이라는 가창 방식은 전국의 논매는소리 중에서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런가 하면 오독떼기는 미나리로부터 분화를 꾀해 영동 중남부지역의 논매는소리를 북부지역과 차별화했다. 그리고 오독떼기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권역 내에서 2차적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오독떼기는 강원도 영동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독자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요대전 강원도 편(문화방송, 1996), 한국민요의 현장과 장르론적 관심(강등학, 집문당, 1996), 양양군의 민요자료와 분석(강등학·이영식, 민속원, 2002), 강릉학산오독떼기(강릉문화원, 2003).

필자 | 강등학(姜騰鶴)

보리타작소리

정의 보리를 베어 타작하면서 부르는 노래.

내용 보리타작소리는 매우 힘든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말이 아주 짧다. 선후창으로 부르는 보리타작소리의 뒷소리는 웅헤애, 오헤야, 어기차, 어여라 같이 다양한데, 힘이 들면 어아, 에화, 오호로 더욱 짧아진다. 대체적으로 한 토막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의 고됨과 희망찬 삶에의 기대가 주된 내용이다.

보리타작은 보리단을 눕혀서 펴놓고 타작을 하는 눕혀베기기와 보리단을 세워 놓고 상도리깨꾼이 보리짚을 배분하면 중도리깨꾼이 보리짚을 때리고 하도리깨꾼이 보리짚을 후리쳐 꺼내주는 세워베기기가 있다. 보통 아침나절에 눕혀베기기를 한번 하고 오후에 세워베기기를 한다. 상도리깨꾼은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가면서 타작을 하는 꼭지치기와 도리깨열을 원을 그리면서 타작을 하는 올리치기, 그리고 밑의 보리짚을 위로 올려서 골고루 배분을 하기 위한 휘둘러치기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타작을 하는데, 넓은 논바닥이나 밭에 타작마당을 만들어서 하는 보리타작은 적게는 5~6명, 많을 때는 20여 명의 타작꾼들이 보리타작소리에 맞춰서 신나게 보리짚을 두드려댄다.

필자 | 박종섭(朴鍾燮)



산유화가(山有花歌)

정의 충남 부여군 세도면 지역의 농요(모심기, 논매기, 수확)에 대한 통칭. 충남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좁은 의미로는 충남 부여, 공주, 논산 지역의 부여민요권에서 부르는 상사류의 모심는 소리인 부여형 상사를 뜻한다.

어원 산유화가는 충남 무형문화재 제4호의 모심는 소리 첫 메김구인 "산유화야 산유화야"에서 따온 명칭이다. 조선 중기의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 권246 백제 가곡조에는 "백제가곡으로 산유화가 한 곡이 있는데, 남녀가 서로 즐거워하는 가사이며 가락은 서글프다(山有花歌一片 男女相悅之辭 音調凄苑)."라는 기록이 있으나 구체적인 노랫말은 전하지 않는다. 단군세기(檀君世紀)의 제16세 단군 위나(尉那) 때의 신가(神歌)에 애환가(愛桓歌)라는 곡명 아래 "산유화야 산유화야, 지난해에도 잔뜩 심고, 금년에도 가득 심었도다, 불함에 봄이 오니 꽃이 만발이라, 천신을 섬기고 태평을 즐기네(山有花 山有花 去年種萬樹 今年種萬樹 春來不咸 花萬紅 有事天神 樂太平)."라는 가사가 실려 있다.

백제의 산유화가를 경상도 지역의 산유해나 미나리와 연관시킨 것은 1931년도 이재욱(李在郁)의 논문 '산유화가와 산유해, 미나리의 교섭'에서 비롯한다. 그도 어느 정도의 황당무계와 미망배리(迷妄背理)를 전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양해 아래 경상도의 산(山)노래인 산유해와 백제지역의 민요인 산유화가 사이에 혹시 약간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였다. 1980년에 전국의 각 읍면별로 농요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여형 상사인 산유화가를 경상도의 산노래(어산영을 의미)와 구미시 선산의 미나리(식물인 미나리를 지칭)와 연관짓는 것은 어불성설임이 밝혀졌다.

1980년대 민초들로부터 산유화가라는 곡명을 들을 수 있었던 예는 충남 부여 세도면의 산유화가와 전북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의 논맴소리인 임봉덕 창의 산유화 15장 및 경북 울릉군 김재조 창의 나무꾼소리인 어산영 곡풍의 산유화가 있으며, 뒤의 두 소리는 세도면의 산유화가와 무관하다.

유래 청동기시대 유적지인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집자리에서 반월형 석도와 함께 출토된 탄화

경직도 국립민속박물관

미는 기원전부터 부여 지역에 벼가 수확되었음을 증명한다. 충남 무형문화재 제4호는 세도면의 홍준기로부터 전승한 소리를 1977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산유화가'로 출품,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1982년에 지정되었다. 홍준기는 세도면의 임윤필과 김학수로부터 제4호의 여러 노래들을 배웠을 뿐, 맨 처음 어떻게 부여형 상사가 형성되었는지, 또는 언제부터 불리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부여형 상사의 전파권이 부여민요권(부여, 공주, 논산과 청양군 일부)에 한정되나 상당한 지역에서 불린 점, 제4호의 모심는 소리 가사 중에 "입포의 남당산은 어찌 그리 유정턴고, 매년 팔월 십육일은 왼 아낙네 다 모인다, 무슨 모의 있다더냐."라는 구절이 있을 뿐이다. 이는 부여군 양화면 암수리에 소재하는 유왕산에서 660년 8월 17일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과 태자 효(孝) 등 12,800여 명이 배에 실려 당으로 끌려가던 것을 전송했던 고로 그 후 매년 팔월 십칠일을 제삿날로 여겨 유왕산에 모이게 된 것이 유래가 되었다. 부여군내의 부녀자들은 이 날을 1920년대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 번 바깥출입을 할 수 있는 날로 손꼽아 기다려 유왕산으로 모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품앗이로 모를 심던 시절 이후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불러온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 좁은 의미의 산유화가인 부여형 상사는 모심을 때 부르는 일노래이며 멕이고 받는 방법(멕받형식)으로 부른다. 받음구 예는 "헤 헤헤, 아- 헤헤이, 에 헤이 에, 여루 상-사-디요"이다. 메김구 예는 다음과 같다.

산유화야 산유화야, 궁야평 너른들에,
논도많고 밭도많다,
씨뿌리고 모엔기어, 충실허니 가꾸어서,
성실하게 - 맺어보세.
산유화야 산유화야, 이런말이 웬말이냐,
용머리를 생각하며,
구룡포에 버렸으니, 슬프구나 어화벗님,
구국충성 - 못다했네.
산유화야 산유화야, 사비강 맑은물에,
고기낚는 어부들아,
왼갖고기 다낚아도, 경칠랑은 낚지마소,
강산풍경 - 좋을씨고.
산유화야 산유화야, 한줌두줌 심는모는,
왼갖정성 다드리고,
한발두발 옮긴발길, 천리마를 비할소냐,
용천마도 - , 못당허네.
산유화야 산유화야, 왕당의- 버꿍새는,
어이그리 지저귀냐, 겉잎은 자자지고,
속잎나라고, 지저귄다.

산유화가에서는 긴 모심는 소리에 해당하는 부여형 상사에 이어 잦은 상사(받음구는 "어화 어화 상사디요")가 불리며, 논맴소리로는 덩어리류를 부른다. 논맴소리도 멕받형식으로 부르며 긴소리(받음구: "에-화, 덩어리")에 이어 잦은소리(받음구: "어화 뎅이")를 부른다. 이러한 논맴소리는 당진, 서산, 홍성 지역인 서부 충남이 본고장인 호미로 논맬 때의 소리인 얼카덩어리의 지역적 특성을 보이며, 부여에서도 다른 마을의 것은 얼카덩어리의 '얼카'를 보유한 예가 많다.

산유화가에는 또 수확요(收穫謠)로서 벼바심소리와 나부질소리, 노적소리를 부른다. 벼바심소리는 나무 절구통을 옆으로 뉘어놓고, 두 사람이 양쪽에 마주보고 서서 자리개로 질끈 묶은 볏단을 교대로 내리치며 소리하는 것으로, 주된 받음구는 "에야-헤헤이"이나 볏단 한묶음을 다 떨군 다음 두 사람이 함께 "에 헤, 아 에, 에야 어, 에야 디여, 나흐 헤" 하며 제창하고는 '나흐 헤' 부분에서 다 떨궈 낸 볏뭇 동가리를 휙 던지는 점이 독특한 충남의 빼어난 농요로서 충청남도에서도 동부지역을 제외한 서부, 중부지역에 전파되어 있다.

나부질소리란 곡식에 섞인 검부러기나 티끌들을 날려 보내기 위해 키질하며 부르는 소리로 드문 노래에 속하나, 충남 부여와 서천에서는 많이 불린다. 일반적인 받음구 예는 "에기여라 나비허" 계통이나 제4호의 받음구는 예외이며 "에- 에헤이여라 솔- 비히야"이다. 노적소리도 드문 농요에 속하며, 제4호의 받음구는 "받어라"이다.

특징 상사류의 모심는소리는 전라도와 충남, 충북 일부지역에서 주로 부르며, 전북의 농부가형 상사와 전남의 다양한 상사류(진도형, 고흥형, 나주형), 충남의 다양한 상사류(겹상사, 천안형, 서천형, 부여형)가 있다. 좁은 의미의 산유화가인 부여형 상사의 받음선율은 상사의 '상'보다 '사'를 떨어뜨려 굵

게 부르는 농부가형에 비해 '상'보다 '사'를 높이 질러내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 增補東國文獻備考, 大阪の民謠(右田伊佐雄, 柳原書店, 1978), 악보1340(이소라, 韓國의 農謠4, 民俗苑, 1990), 부여의 민요(이소라, 부여문화원, 1992), 악보1914(이소라, 韓國의 農謠5, 民俗苑, 1992), 겨레와 함께한 쌀 -도작문화3000년-(국립중앙박물관, 2000), 두레노동과 소리문화(민족음악연구소, 애드파워, 2004), 오야코우타(親子唄)와 경상도 모노래(이소라, 한국사람, 일본사람의 생각과 삶, 경인문화사, 2005).
필자 | 이소라(李素羅)

깐깐오월

정의 음력 5월을 달리 부르는 말. 오월은 하루하루가 깐깐하고도 지루하게 지내는 한 달이라는 뜻으로 매사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으며, 하루해의 길이가 길어서 몹시 지루하게 지나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내용 일반적으로 '깐깐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끈기가 있어 잔득잔득하다. 둘째, 행동이나 성질이 까다로워 사근사근한 맛이 없다. 이런 속뜻 때문에 이 어휘의 큰말은 끈끈하다, 부사는 깐깐히이다. 따라서 오월의 이칭인 '깐깐오월'도 이러한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오월을 속칭 악월(惡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금기가 많기 때문인데, 특히 음식에 관한 금기가 많은 것은 맹하(孟夏)로 접어드는 시기에 옛날에는 지금처럼 냉동 시설이 없어서 음식이 부패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의료 시설도 없어서 부패한 음식물은 생사와 직접 관련이 있기에 그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매사에 '깐깐한 생활'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 荊楚歲時記, 새國語辭典(동아국어사전연구회, 동아출판사, 1989),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필자 | 박상규(朴相圭)

5농 6숭(五農六崇)

정의 오월에는 농어(農魚)가 맛있고, 유월에는 숭어(崇魚)가 맛있다는 뜻.

내용 농어와 숭어의 산란 시기는 겨울철로, 봄이 되면 바다에서 먹이를 찾아 연안이나 내만(內灣)으로 들어오고, 여름에는 내만의 기수(汽水)나 담수역(淡水域)까지 들어와 활동한다. 그런데 특히 음력 오월이 되면 농어가, 음력 유월이 되면 숭어가 알맞게 성장하여 먹기에 좋고,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여서 맛도 가장 뛰어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속담은 물고기를 먹는 데 종류에 따라 각기 제철이 따로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흔히 사용한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5농 6숭이요, 오륙서에 준사철이라.", "오농어 육숭어 사철준치다." 등이 있다.

참고문헌 | 漁村俗談集(全羅南道, 1980),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권태효(權泰孝)

오월 농부, 팔월 신선

정의 농부들이 농번기 동안 힘든 농사일로 고생하다가, 팔월 농한기에 들어서면 신선같이 편안해진다는 뜻.

내용 여름은 농민들에게 바쁘고 고달픈 계절이다. 특히 오뉴월 농번기는 모심기, 보리베기, 김매기 같은 농사일이 계속되거나 겹쳐서 "발등에 오줌 싼다."라고 할 정도로 분주하다. 염천 불더위에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부들의 여름살이는 지옥같이 고생스러운 것이지만, 팔월이 되면 수확의 기쁨으로 신선놀음 하듯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뜻의 속담이다. 특히 팔월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이 날만 같아라' 하고 바라는 추석이 기다리고 있어 더욱 풍성하고 여유로운 때이다.

유사속담 유사 속담으로는 "유월 농부가 팔월 신선이 된다.", "유월 저승을 지나면 팔월 신선이 돌아온다."가 있다. 오월이 유월로 나타나는 것은 지역에 따른 농사력의 차이일 것이다. 다른 달이 보태지거나, 표현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깡깡 오월, 미끄덩 유월, 어정 칠월, 건들 팔월"이라고 하는가 하면, 전남 고흥에서는 "미끈 유월, 건들 칠월, 서드레 팔월"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農漁俗談辭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천혜숙(千惠淑)





生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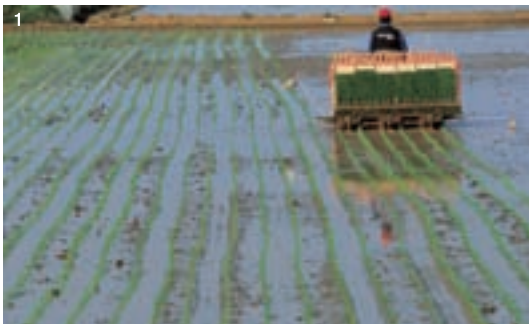
생업

벼농사에서는 적기에 모내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일모작 농가에서는
모내기를 서두른다.
하지만 너무 일찍 모내기를 하면
기온이 낮아 초기 생육이 지연되고
병해충과 후기에 잡초 발생량이 늘어
방제 횟수가 증가한다.
특히 여름철 고온기에는 벼가 익기 때문에
벼알의 호흡 증가로 양분 소모가 많아지고
깨진 쌀이 늘어나
결국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모내기를 너무 늦게 하면
생장을 충분히 하지 못해
벼알수와 수량이 줄고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모내기를 제때 하는 것이
벼농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모내기

정의 못자리에서 기른 모를 쪄내어 본 논에 옮겨 심는 일. 모심기라고도 한다.

유래 모를 심기 위하여 못자리에 볍씨를 뿌리고, 이 볍씨가 일정기간 자라서 모가 되면 논에 옮겨 심는데, 이것을 이앙법(移秧法)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벼농사에서 모내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말 공민왕 18년(1292)에 종자(씨) 대신 모를 키워 심는 모내기 재배법이 사용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내기에 의한 농사법이 널리 보급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논에 물을 대고 논바닥을 고른 다음 종자를 뿌리거나, 밭 상태의 논을 고르고 종자를 뿌리는 직파재배법(直播栽培法)에 의하여 대부분 논농사가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에는 한발(旱魃)을 대비하여 이 재배법을 철저히 금지하였고, 건답 직파 방법인 밭벼를 장려하였다. 1429년에 편찬된 『농사직설(農事直說)』의 종도조(種稻條)에 따르면, 이앙법은 물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매우 위험한 재배법이라고 금하고 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각종 제언(堤堰)과 보(洑) 같은 수리시설이 구축되면서, 농업노동력의 절감과 수확량의 이점 때문에 이앙법이 많이 보급되었다. 조선 후기 영조(英祖) 연간에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47에 "각 지방에서 이를 실시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이미 풍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기록될 만큼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국가에서도 무조건 금지시키지 않고 수리체계를 갖추지 않아서 이앙에 적당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금했다.


1


2


3


4

1 기계모심기
경기도 안성시 방상운
2 줄모심기
경남 고성군 하일면 이창호
3 모
전남 구례군 토지면 최수연
4 모심기
전남 구례군 토지면 최수연

내용 벼농사는 크게 논벼 재배와 밭벼 재배가 있는데, 논에 물을 대고 농사를 짓는 논벼 재배가 여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벼농사는 대부분 수도작(水稻作)이며, 밭벼 재배는 극히 적었다. 수도작의 경우도 못자리에서 육묘를 하여 논에 옮겨 심는 육묘이앙재배(育苗移秧栽培)와 논을 정지하고 물을 댄 후 바로 종자를 뿌리는 담수직파재배(湛水直播栽培) 그리고 논을 밭 상태로 정지한 후 종자를 뿌리고 벼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물을 대는 건답직파재배(乾畓直播栽培)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앙재배가 대부분이고, 최근 서해안 일부 간척지에서 담수직파재배가 실시되고 있다.

모내기에서 이앙법의 장점은 첫째, 어린모가 좁은 면적의 못자리에서 생육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둘째, 못자리 기간에 본 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일정한 간격으로 모를 심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모의 종류는 어린모와 중간모, 손모로 나뉜다. 어린모는 비닐하우스에서 8일 내지 10일간 기른 후 이앙기로 모내기를 한다. 중간모는 논에 모판을 만들고 비닐을 씌워 30일 내지 35일 동안 기른 후 모내기를 한다. 손모는 논에 모판을 만들어 40일 내지 45일 동안 길러 모내기를 한다.

모내기 방식은 산식(散植, 벌모심기)과 정조식(正條植, 줄모심기)이 있다. 벌모심기는 포기 사이와 줄 사이가 고르지 못한 방법으로 최근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줄모심기는 줄 사이와 포기 사이가 일정하여 논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줄모심기로 모를 심을 때도 줄 사이와 포기 사이의 거리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로 줄 사이 21센티미터, 포기 사이 21센티미터와 같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모를 심는 정사각형식, 30×15센티미터와 같이 심는 직사각형식, 직사각형식의 변형인 병목식(竝木植) 또는 2조(二條) 병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벼의 재배조건에 따라서 모내기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비옥한 논, 심경다비(深耕多肥) 조건, 온난한 평야지역, 소식(疏植) 재배 환경에서는 정사각형식이나 이에 가까운 방식으로 심는 것이 좋지만, 추운 지역이나 척박한 토양, 밀식(密植), 조식(早植) 재배 환경에서는 직사각형식이나 병목식으로 모를 심는 것이 유리하다. 직사각형식은 정사각형식에 비하여 포기 사이가 좁으므로 초기 생육은 약간 억제되지만 줄 사이가 넓기 때문에 생육 후기까지 비료의 흡수가 쉬우며, 줄 사이를 통한 통풍과 채광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관리작업은 더 수월하다.

정조식으로 모를 심을 때 줄 사이와 포기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심는 포기수가 결정되며, 이것과 포기당 심는 못수[苗數]를 합한 것을 벼의 재식밀도(栽植密度)라 한다. 벼의 재식밀도는 기후, 토양, 시비량, 재배품종, 모내기 시기, 노동력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분얼(分蘖)이 억제되고 생육이 충분하지 못한 환경, 땅이 척박하고 시비량이 적은 조건, 추운 지역, 늦심기, 이삭이 크고 분얼이 적은 품종 및 작은 모를 심을 경우에는 밀식이 유리하며, 이와 반대로 벼의 생육에 좋은 조건, 땅이 비옥하고 비료를 많이 주는 경우, 따뜻한 지역, 조식, 분얼을 많이 하는 품종 및 큰 모를 심을 경우에는 밀식의 효과가 적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식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모내기 작업은 재래 이앙방법인 손 모내기와 이앙기를 이용한 기계 모내기가 있다. 먼저 손 모내기 작업은 못자리에서 모를 쪄서 묶으며, 심을 논으로 모를 옮기고, 모를 심는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못자리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모를 키우는데, 보통 가로 2미터, 세로 20~30미터의 크기로 만든다. 모를 찌는 작업부터 공동작업으로 하는데, 못자리 한쪽에 또는 양쪽 끝에 각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모를 찐다. 대개 못자리가 여러 개이므로 10~20명이 동시에 공동작업을 할 수 있다. 모의 운반은 주로 지게나 리어카, 경운기를 사용하지만 모를 찐 일꾼들이 모를 낼 논으로 이동하면서 모를 조금씩 옮기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모 운반은 보조 노동력이 담당한다. 특히 옮긴 모를 다시 모낼 논에 적절하게 펴는 작업은 모내기에 서툰 사람이나 보조 일꾼이 맡는다. 이렇게 해서 모낼 준비가 되면 논을 가로질러 하나 또는 둘 정도의 못줄을 치고 열을 지어 모를 낸다.

이때 못줄 양쪽 끝에는 못줄을 옮기는 두 사람의 줄잡이가 선다. 많은 사람들이 못줄 뒤에 늘어서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두 사

람씩 짝을 지어 일정한 구역을 심어 나간다. 물론 이 구역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 간에 서로 조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이 서툰 짝은 좁은 구역을 심게 되며, 짝을 이룬 두 사람이 한 번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모를 심고, 한 번은 같은 방향으로 모를 심어 나간다. 이렇게 해서 4줄 내외를 심으면 줄잡이의 호령과 함께 줄이 새로 심을 곳으로 옮겨지며 반복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못줄잡이도 모를 심기도 하며, 여성들이 참여하는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모를 내고 남자가 못줄잡이가 되기도 한다. 또한 노인들이 못줄을 잡기도 하는데 이렇듯 모내기 작업에서 일정한 분업(分業)이 이루어진다. 일단 모내기를 시작하여 한 명이라도 태만하면 줄 맞추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허리를 펼 때에도 계속 심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속도에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더욱 힘들어진다. 그래서 모내기 작업에서는 속도, 쉬는 시간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못자리나 육묘상자에서 자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이앙기(移秧機)는 인력용과 동력용이 있으며, 모의 생육 정도와 형태에 따라 근세모용[成苗用]과 흙 붙은 모용[幼苗用, 中苗用]이 있다. 근세모용은 종래의 손으로 모내기하던 동작을 가장 충실하게 따라 기계화한 것인데, 본 잎이 5장 이상 나온 모를 모판에서 1주분 집어서 토양 속에 삽입하면 장치 끝이 벌어져서 심어지게 된다. 이것은 관행법(慣行法)으로 이앙하게 되므로 육묘와 재배방법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하여 빠뜨리거나 부러진 모가 많이 생겨, 심기는 정도가 떨어지고, 준비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흙 붙은 모용 이앙기는 본 잎이 2~3장 나온 어린모나 3~4장 되는 중간모의 이앙에 사용되는데, 뿌리에 흙이 붙은 채로 이식한다.

어린모와 중간모는 이앙기 이식을 전제로 하므로 처리하기 쉬운 모를 얻기 위해 특별한 육묘법으로 키우는데, 이식장치의 구조에 따라 줄모, 매트모, 틀모로 나뉜다. 줄모는 육묘상자에서 육묘하여 이앙할 때 띠처럼 계속 연결되도록 칸막이용 육묘지를 넣게 되어 있다. 육묘지로 칸막이된 골 사이에 나일론 종이와 끈을 넣었기 때문에, 모가 자라면서 뿌리가 줄에 엉켜 한 줄로 묘가 연결되어 나오게 된다. 매트모는 육묘상자에 흙을 넣고 일정한 양의 종자를 균일하게 파종하여 15~20일 후에 이앙한다. 매트모는 육묘 비용과 일손이 적게 들고 파종작업도 기계로 쉽게 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한다. 틀모는 25~30일 된 중묘를 사용하여 상자 밑으로 나온 뿌리를 잘라 버리고 상자와 함께 기계에 싣고 이식한다.

이앙기를 이용할 때는 모내기 전의 이앙기에 모를 싣고 단위 면적당 포기수와 한 포기당 못수[苗數]를 알맞게 조절하고 모 심는 깊이를 조절한 후, 유압레버를 이앙상태로 해주는 일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모를 심기 전에 논의 모양을 살펴보고 심어 나갈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계의 전진 방향은 논의 긴쪽 방향으로 하고 논두렁이 곧은 쪽부터 심기 시작하는 것이 좋고, 논두렁의 양쪽이 굽은 논에서는 안쪽에서부터 심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삼각형의 논은 적게 굽은 쪽부터 심어 나간다. 4조식 이앙기인 경우 최초 4줄은 이앙 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천천히 운전하여 똑바로 심어야 하며, 모심기를 시작할 때 논의 양쪽 머리에 이앙기가 회전할 부분 8줄 정도를 남겨 두어야 한다. 마무리 작업은 긴쪽으로 4줄을 남기고 한쪽 머리 논부터 심은 다음 긴쪽 4줄을 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한쪽 머리 논을 심어 주면 끝난다.

1980년대부터 농기계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늘어남으로써 요즘은 대부분의 농가가 이앙기로 모를 낼 뿐만 아니라, 이앙기에 의한 기계 모내기의 작업기간도 훨씬 단축되었다. 재래식 손 모내기에서는 길게는 30~40일 정도 걸리던 모내기 작업이 15일 정도로 단축되었다. 이앙기 작업은 전통적인 육묘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과 시설이 필요하다. 모의 밀도를 높여야 하며 기른 모를 기계의 규격에 맞게 기대에 올려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계 이앙에는 이앙작업보다 육묘과정에 더욱 많은 기술과 노동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적기 이앙의 관건이 된다. 보통 기계 이앙 작업에 필요한 인원은 6명 정도인데, 이앙기 운전자 1명, 육묘상자 운반자 1명, 육묘상자 떼는 사람 1명, 상자 밑의 흙을 떼는 사람 1명, 보식자 2명으로 이루어진다.

시기 모내기는 그 지방의 기후, 재배품종, 병해충 발생, 지력을 고려하여 수확량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시기에 실시하게 되며, 수리체계, 윤작 관계, 노

동력도 고려해야 한다. 작물의 생리적인 면에서는 모를 일찍 내는 것이 유리하지만, 한국과 같은 온대 지방에서는 모의 발근생리(發根生理)로 보아 평균 기온이 13~15.5도 이상 되어야 모를 낸 후 새 뿌리를 뻗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를 일찍 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1모작보다 모내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2모작 논의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모내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늦어도 중부 지방은 6월 하순, 남부 지방은 7월 상순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계 모내기를 할 때는 손으로 모를 낼 때보다 10일 이상 덜 자란 모를 심기 때문에 품종별, 지역별로 늦심기 한계 기일 안에 모를 내야 한다.

모내기 시기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린모 기계 모내기는 대개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 6월 15일까지는 마쳐야 하고, 중간모 기계 모내기는 5월 25일부터 시작하여 6월 20일까지 모내기를 마쳐야 여무는 비율과 수량을 높이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부 지방 중만생종 벼 모내기 적기는 5월 15일~21일까지이며, 중생종은 5월 2일~6월 2일, 조생종은 5월 19일~6월 14일이다. 호남 지방의 중만생종은 5월 23일~6월 13일이고, 중생종은 5월 27일~6월 17일, 조생종은 6월 5일~21일이다. 또한 영남지역의 중만생종은 5월 7일~6월 11일, 중생종은 5월 9일~6월 17일, 조생종은 5월 11일~6월 19일이 모내기의 적기이다. 24절기로 볼 때 모내기는 망종(芒種)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망종은 벼, 보리 등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이다. 그래서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볏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요."라는 말도 있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망종까지는 모두 베어야 논에 벼를 모내기 할 수 있다.

벼농사에서는 적기에 모내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1모작 농가에서는 모내기를 서두른다. 하지만 너무 일찍 모내기를 하면 기온이 낮아 초기 생육이 지연되고, 병해충과 후기에 잡초 발생량이 늘어 방제 횟수가 증가한다. 특히 여름철 고온기에는 벼가 익기 때문에 벼알의 호흡 증가로 양분 소모가 많아지고 깨진 쌀이 늘어나 결국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모내기를 너무 늦게 하면 생장을 충분히 하지 못해 벼알수와 수량이 줄고,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모내기를 제때 하는 것이 벼농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타 벼농사에서는 모내기 작업에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두레, 품앗이, 고지, 놉, 작업반과 같은 조직이 필요했다. 특히 손 모내기 작업에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힘든 모내기 작업에서 농민들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찌는소리와 모내기소리를 하기도 했다. 모내기소리는 풍년을 염원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활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많다. 모내기소리 형식은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후렴 또는 반복구가 있다. '에헤 에헤루 상사뒤여', '허나허나 하나둘이로다' 와 같은 반복구나 '아요 아요'와 같은 감탄사가 붙기도 한다. 보통 4음절로 된 8구로 엮어져 있으며, 앞 4구를 선창하고 뒤 4구로 이를 받는 형식으로 노래를 불렀다. 재래식 손 모내기 때 부르던 모내기 노래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불렀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民俗大觀5 -民俗藝術·生業技術-(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2), 朝鮮時代 前期 農書(金榮鎭 譯註,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4),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농경생활의 문화읽기(배영동, 민속원, 2002), 아시아의 쌀과 문화 -일곱 나라 일곱 농부의 삶-(Unitwin-Unesco Project, 나경수 옮김, 전남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근현대 농민사회연구(조승연, 도서출판 서경문화사, 2004).

필자 | 조승연(趙承衍)

모찌기

⇨ 모내기: 여름편

보리도리깨질

⇨ 보리타작(-打作): 여름편

보리타작(-打作)

정의 거두어들인 보리 이삭을 털어 알곡으로 만드는 작업. 마당질, 탈곡(脫穀)이라고 한다.

시기 보리 수확기는 이삭이 나온 후 35일 지난 망종(6월 5일경) 무렵이 최적기로, 이 때문에 망종을 농가에서는 '보리망종'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보

1 보리털기
2 보리도리깨질
3 풍구질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리를 거두어들인 이후 모내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타작하지 못하고 모내기를 마친 다음에 한다. 늦어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7월 초 이전에 타작을 마쳐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장맛비에 싹이 터 질의 저하와 손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내용 보리 수확은 벼와 마찬가지로 낫으로 하는데, 어른은 하루에 한 마지기를 수확할 수 있다. 누렇게 익은 보리를 베어 4~5일 말린 후 단을 묶어, 지게나 손수레를 이용하여 마당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운반하여 쌓아 놓는다.

모내기가 끝나면 보리타작이 시작된다. 우선 타작마당은 잡풀을 뽑고 평편하게 고른 다음, 굴대를 굴려 매끈하게 다져야 한다. 타작은 햇볕이 나는 쾌청한 날이면 좋다. 우선 보릿단을 풀어헤치고 이삭이 서로 마주보게 일정한 두께로 펼쳐 잠시 말린 후 농군들이 마주보고 서서 도리깨질로 타작을 한다. 타작할 때는 노동의 피로를 줄이고 서로간의 박자를 맞추는 노동요를 부른다. 멕이는 사람이 선창을 하며 도리깨질을 하면, 받는 사람이 받아서 후창을 하며 똑같은 곳을 때린다. 이렇게 한 벌 두들긴 다음에 보릿대를 뒤집어놓고 다시 한 번 도리깨질을 하면 타작이 완료된다. 하지만 날씨가 흐리다든지 보릿단이 잘 마르지 않으면 낟알이 잘 떨어지지 않는데, 이때는 한 번 더 두들기면 완전히 분리된다.

지방에 따라 도리깨질을 하기 전에 태질을 하기도 하였다. 태질은 보릿단을 쥐고 탯돌이나 개상에 내리쳐 보리의 낟알을 터는 작업이다. 탯돌은 둥글넓적한 자연석을 주워다 경사지게 받치거나 받침대 위에 놓고 사용한다. 개상은 통나무 서너 개를 붙여 나무의자처럼 만든 것이다. 더러 절구통을 눕혀 사용하기도 했다. 태질을 하면 낟알이 되기도 하고 이삭꼬투리째 떨어지기도 하지만, 보릿단 속에 든 이삭은 떨어지지 않는다. 태질이 끝나면 떨어진 낟알과 이삭꼬투리는 한쪽에 놓고, 보릿대만 펼쳐놓고 도리깨질을 한다. 보릿대를 걷어내고 타작한 알곡을 마당에 펼쳐놓고 최종적으로 도리깨질을 하여 이삭꼬투리를 알곡으로 만든다. 이러한 태질은 힘든 보리타작을 능률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타작한 보리는 '보리드리기'를 하여 쭉정이와 검부러기를 날려 보내야 한다. 바람이 부는 날은 소쿠리에 알곡을 담아 높이 든 후 조금씩 흘러내리면 검부러기는 자연히 분리된다.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강제로 바람을 일으켜 분리시킨다. 바람을 일으켜 검부러기를 날리는 기구로는 키, 드림부채, 부뚜[風簫]가 있다. 적은 양일 때에는 2인 1조로 키질이나 부뚜질을 하지만, 많은 양을 키질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나비질을 한다. 나비질은 키를 든 사람이 좌우로 나뉘어 대열을 만들어 서서 넉가래(나무가래)로 보리를 하늘로 퍼올려 날린다. 이때 일제히 키를 위아래로 흔들어 바람을 일으켜 잡물을 날려 보내는 것이다. 고르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풍구가 있었는데, 농가당 곡물 수확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까지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고, 일제강점기부터 많이 보급되었지만 소출이 많은 집에서만 장만하였다.

변천 일제강점기에 들어 쇠살이 촘촘히 박힌 보리훌태가 등장하여 힘든 태질 대신 이삭을 따게 되었다. 1960년대에 발동기나 경운기의 동력을 이용하는 탈곡기가 등장하여 논밭의 현장에서 곧바로 알곡으로 작업해 냄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었고, 그동안 땔감으로 사용하던 보릿대도 점차 논밭에 바로 깔아 퇴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1980년대 이후에는 탈맥기 대신 벼와 보리 겸용 콤바인 수확기가 나왔으며, 근래에는 트랙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대형 밀수확 기계로 보리를 거둬들이고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民俗大觀5 -民俗藝術·生業技術-(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2), 韓國의 鄕村民俗誌 I -慶尙北道 篇-(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2), 조선의 민속전통4 -로동생활풍습-(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조선기술발전사5(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전라남도의 향토문화(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필자 | 주인택(朱仁鐸)

이앙(移秧)

⇨ 모내기: 여름편

꽁치잡이

개관 꽁치는 동갈치목, 꽁치과에 속하는 어종이다. 몸 빛깔은 등쪽이 검은 청색이고, 배쪽은 은백색이다. 몸의 형태는 가늘고 긴 편이다.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는 몸의 뒷부분에 있으며,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뒤쪽에는 여러 개의 토막지느러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꽁치는 해양의 표층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부어류(浮魚類)이며, 낮에는 약 15미터 수심까지 분포하나, 밤에는 수심 1미터 이내에 많이 분포한다. 한국 근해에 서식하는 꽁치는 동해계군(東海系群)으로 분포 범위는 동해와 남해 전역 그리고 동중국해 북부에 걸쳐 있으며, 분포 중심은 동해이다. 동해산 꽁치는 북태평양 꽁치와 같은 종이나, 서식 환경이 다른 독립 계군(stock)으로 생각된다.

꽁치의 회유를 보면 월동기에는 대형군(大型群)이 일본 서쪽 해역에 분포하며, 소형군(小型群)일수록 북방에 분포한다. 봄이 되면서 북상 회유가 시작되는데, 동해 남부에서는 소형군과 중형군(中型群)이 먼저 출현하고, 그 뒤에 대형군의 출현 비율이 증가한다. 대형군은 체장이 작은 소형군과 중형군을 추월하여 북방 수역까지 회유한다. 한편 가을(10~11월)이 되어 남하 회유가 시작되면 소형군과 중형군이 먼저 동해 중부 어장에 도달하고, 이들을 뒤쫓아 대형군이 남하한다. 12월 무렵 월동장에 가까워지면 체장이 큰 대형군이 작은 어군을 추월하여 남하하고, 2월에는 대형군이 일본 서쪽 해역까지 분포한다. 추계에는 해양전선(海洋前線)의 장벽 효과가 약하고 수온의 하강 속도가 크므로 어군의 남하 속도는 춘계의 북상 속도보다 크다.

꽁치의 성숙 체장은 약 22센티미터이며, 산란 시기는 보통 5~8월로 알려져 있다. 산란기 동안에 약 1,500~9,000여 개의 알을 낳는다. 동중국해의 대만 난류역에서 월동한 꽁치는 봄이 되면 동해로 북상하며, 해양전선 부근에 떠돌아다니는 물체에 알을 붙이고, 산란 후 대형어는 대부분 사망한다. 꽁치의 알은 장축의 한쪽 끝부분에 수십 개의 가느다란 부착사(附着紗)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들을 이용하여 홍조류(紅藻類)인 모자반 같은 해조류와 표류물에 부착한다.

역사 꽁치는 원래 우리나라 주요 전통 어업의 대상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고문헌에도 꽁치는 잘 보이지 않으며, 꽁치어업에 대한 어법이나 어획에 대한 기록도 없다.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 초기까지도 꽁치는 거의 잡지 않았다. 유망이 꽁치어업의 주어구로 등장하기 전까지 타 어구에 잡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손꽁치잡이에 의하여 어획되었다. 우리나라 꽁치어업의 주요 지역인 강원도에서 꽁치 유자망 어업은 일제강점기 초기 시험 조업을 거쳐서 1938년 후반에 들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조선총독부에서도 일제강점기 초기에 같은

〈꽁치잡이〉
1 꽁치탈망작업
강원도 양양군 김상수
2 꽁치 양륙과 정리
강원도 양양군 김상수
3 꽁치 하역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김상수
4 손꽁치잡이
강원도 양양군 김상수






시험 조업을 실시한 적이 있다. 따라서 1930년대 이전에는 꽁치를 잡는 어법에는 손으로 잡는 손꽁치 어업 그 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일제강점기 중기까지도 꽁치는 주로 손꽁치잡이로 어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동해안의 주문진, 거진과 울진, 울릉도 같은 경북 일부 지역에서 손꽁치잡이를 하고 있다. 선도가 매우 높은 꽁치를 잡을 수 있는 손꽁치잡이가 한때는 매우 성행하였고, 척당 어획량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안 가까이 내유하는 꽁치의 자원량 감소와 유자망(流刺網) 어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손꽁치잡이의 채산성이 약화되어 그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손꽁치잡이 어법이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세기 말에 창안된 것으로 믿고 있다.

내용 동해 및 동중국해의 꽁치는 한국, 북한 그리고 일본의 유자망 어업, 봉수망(捧受網) 어업, 정치망(定置網) 어업 및 손꽁치잡이에 의해 어획되고 있다. 우리나라 꽁치는 주로 유자망 어업과 봉수망 어업에 의해 어획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치망 어업, 손꽁치잡이 그리고 다른 어업에 의해 소량씩 잡힌다.

최근 꽁치 어획량의 약 80퍼센트는 유자망 어업에 의해 잡힌다. 유자망 어업은 꽁치의 주군(主群)이 북한 한계선 이북으로 이동하는 8~9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조업하고 있으며, 성어기는 4~6월이다. 꽁치 유자망 어구의 구성원리는 보편적인 표층 유자망과 같이 아주 긴 그물을 바다 표면에 뻗치는 형태이다. 꽁치는 대단히 예민하여 유영 중 그물에 부딪치면 그물을 따라 유영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표층에 뻗친 그물 끝을 오목한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꽁치를 봉수망 어법으로도 많이 어획한다. 이 어법은 1937년부터 일본에서 시작되었으나, 2차대전 중 등화관제의 문제로 일시 중지되었고, 현재 종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현재 꽁치잡이의 합리적인 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에서는 꽁치를 주로 봉수망 어업으로 어획한다. 꽁치는 특이하게도 손으로 잡는 손꽁치잡이 어법이 있다. 손꽁치잡이는 산란기에 꽁치가 해조류에 알을 낳아 붙이는 습성을 이용하여, 홍조류 모자반과 같은 해조류를 어선 측면에 부착시켜 어군이

뛰어들게 하여 손이나 쪽지로 직접 포획하는 원시적인 어법이다. 해조류를 띄워 꽁치를 모은 뒤 손가락 사이에 낀 꽁치를 잡아올리는 손꽁치잡이는 종래의 어업 분류법에 따르면 어구를 사용하지 않는(without gear) 어업 중 손으로 쥐어잡는(grasping by hand) 어업에 속한다. 어장이 연안 가까이에 형성될 때는 소형어선으로 노를 저어 출어하나, 어장거리가 멀 때는 수척의 소형 어선이 동력선에 예인되어 출어한다. 한편 꽁치는 우리나라 동해안 및 남해안에서 다른 어종의 정치망에서 부수적으로 혼획된다.

이용 및 제조법 등푸른 생선인 꽁치는 단백질 함량이 다른 어류에 비하여 비교적 높으며 칼슘 함량도 높고, 비타민A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꽁치의 붉은 살에는 비타민 B_{12}가 많이 들어 있어 골다공증,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꽁치는 핵산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자주 먹으면 젊음을 오래 간직할 수 있고, 노화방지에도 좋고, 꽁치 지방은 식물류의 리놀산보다 한층 더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EPA(에이코사펜타엔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꽁치는 산성식품이므로 야채와 함께 먹어야 좋다. 꽁치는 대부분 선어(鮮魚)로 소비되지만 일부는 건조품, 염장품, 통조림으로 가공된다. 꽁치 조리는 주로 소금구이나 양념을 해서 조림하여 먹기도 한다. 특히 꽁치는 통조림으로 유명하여 1960년대에는 꽁치통조림이 수산물 통조림의 주종을 이루기도 하였다. 손꽁치잡이로 잡은 꽁치는 싱싱하고 기름이 많아서 맛이 좋아 지역에 따라 시장에 팔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직접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꽁치젓을 담그기도 하고, 싱싱한 꽁치는 회로 먹기도 한다. 그러나 꽁치는 싱싱하지 않으면 식중독에 걸리기 쉬우므로 꽁치의 신선도를 잘 판단해야 한다. 꽁치의 신선도 판단은 꽁치의 꼬리를 잡고서 빳빳하게 세워지면 일단 회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신선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꽁치회는 구수한 맛이 있어서 일단 신선도만 좋으면 그 맛은 일품이다.

참고문헌 | 동해안 지역 손꽁치잡이에 관한 조사연구(이상고, 수산업사5, 1998), 연근해어구어법학(김진건, 유일출판사, 2002).

필자 | 이상고(李相高)

도미잡이

개관 도미는 도미과에 속하는 물고기를 총칭하는 이름으로, 대표적인 것이 참돔이다. 참돔은 농어목 도미과에 속하며, 우리나라 전 연안, 일본 북해도 이남, 대만, 중국, 동중국해, 남중국해 같이 온대에서 아열대 해역에 걸쳐 분포한다.

종류 『전어지(佃漁志)』에 따르면 참돔은 꼬리가 짧고 갈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독미어(禿尾魚)라고 하였고,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몸과 머리가 매우 단단하여 다른 물체와 부딪히면 거의 다 깨뜨려 버린다고 해서 강항어(强項魚)라고 불렀다. 우리나라 도미 종류는 참돔 말고도 감성돔, 실붉돔, 황돔, 녹줄돔, 붉돔, 청돔, 새눈치 같은 다양한 종이 있다. 『자산어보』에서는 감성돔을 흑어(黑魚), 붉돔을 적어(赤魚)라고 하였고, 『전어지』에서는 감성돔을 묵도미(墨道尾), 붉돔을 적두도미(赤頭道尾)라고 하였다.

예전부터 불리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참돔주낙
경남 사천시 늑도 김상수

은 체색이나 체형으로 식별할 수 있지만, 붉돔과 참돔의 경우는 예외이다. 두 종 모두 체색이 붉은색 바탕에 파란색 반점을 가지고 있어 혼동되지만 뒷지느러미 줄기수로 구별할 수 있다. 붉돔은 뒷지느러미 줄기수가 9개인 반면, 참돔은 8개이다.

돔이라는 이름을 가진 물고기는 도미과의 8종 말고도 훨씬 더 많다. 예를 들면 옥돔, 돌돔, 동갈돗돔, 각시돔, 벵에돔, 금눈돔, 뿔돔 그 밖에도 많은 물고기가 '돔'이란 이름을 지닌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우리가 부르는 도미 종류와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도미과 어류는 눈 아래와 위턱 사이가 매우 넓고 11~12개의 등지느러미 가시, 3개의 뒷지느러미 가시가 있다. 참돔은 모양새, 맛 그리고 낚싯줄을 끌어당길 때 강한 전율감을 느끼게 해 낚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어종이며, '바다의 왕자'로 불린다. 도미 종류는 대부분 붉은색을 띠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먹는 먹이 때문이다. 곧 어린 시기에는 새우류나 게의 유생을 먹다가 성장하면서 주로 새우류를 집중적으로 먹는데, 새우류에는 청녹색소가 함유되어 있어 이것이 도미의 체색을 붉게 만든다.

내용 도미잡이 도구는 주낙이다. 어선 1척이 해 뜨기 전에 어장을 탐색한 다음 닻, 부표, 낚싯줄 순으로 투승하여 낚시가 해저에 묻히거나 해류 또는 조류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 5개마다 소형 뜸을 달고, 10개마다 소형 뜸과 발돌을 단다. 어선 1척이 일직선으로 낚시를 투승한 다음 3~4시간 대기했다가 양승한다. 1일 1회 조업을 하며 1회 투승 소요시간은 약 2시간, 양승 소요시간은 약 3~4시간이다.

어두일미(魚頭一味)란 말은 도미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참돔은 일반 물고기와 달리 머리가 가장 맛이 뛰어나다. 참돔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귀한 물고기로 대접받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제사상이나 생일, 회갑 같이 경사스런 날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진귀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다. 홍선표의 『조선요리학(朝鮮料理學)』에서 도미는 봄철에서 여름 사이가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기록하여, 예부터 일반 가정에서 궁중에 이르기까지 도미를 즐겨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미 종류는 흰살 생선으로 횟감으로 최고이며, 특히 감성돔은 육질이 가장 단단하여 낚시꾼들이 최고의 횟감으로 인정하는 물고기이다. 또 양념을 해서 찜으로 먹기도 하며 구워 먹기도 한다. 횟감으로 먹을 때는 활어 상태로 보존하고, 대부분 냉동 보관했다가 조리해서 먹는다. 도미의 눈에는 비타민 B_1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를 푸는 데 좋다고 한다.

참고문헌 | 玆山魚譜, 佃漁志, 朝鮮料理學(洪善杓, 朝光社, 1940), 韓國魚圖譜(鄭文基, 一志社, 1977), 魚類學(김용억, 太和出版社, 1989),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과학원, 2002), 생태와 어장(국립수산과학원, 예문사, 2005), 수변정담(국립수산과학원, 2005), 韓國魚類大圖鑑(김익수·최윤 외, 敎學社, 2005), Sea Fishes of Japan(Okamura O. and K. Amaoka (eds.), Yamakei Pub, 2002).
필자 | 김진구(金眞久)

멸치잡이

정의 주로 대륙붕 해역에서 생활하는 청어목 멸치과에 속하는 물고기인 멸치를 잡는 행위. 멸치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한다. 지역에 따라 이름과 잡는 방식이 독특하고 다양하다.

이칭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추어 또는 멸어(蔑魚), 『임원경제지(林園經濟誌)』의 「전어지(佃漁志)」에는 이추, 그리고 『재물보(才物譜)』에는 잔어라고 나와 있다. 주산지인 전남과 제주도에서는 멸 또는 행어(行魚), 거문도의 경우 몃[幾魚]이라 불렀다. 서울, 경기도 여주 및 함경도 방언은 메르치 혹은 메레치, 강원도 장전에서는 멧치, 황해도 몽금포에서는 돗자래기, 초도에서는 열치라고 불린다. 그 밖에 강원도 고저 지방에서는 시화, 함남 차호에서는 잔사리라 하였다.

내용 멸치는 봄에 연안에 들어왔다가 가을에 남쪽 바다로 이동하여 겨울을 보낸다. 멸치잡이는 그물을 친 뒤에 육지에서 끌어올린 후리어업이 전통적인 어법이다. 그 밖에도 배후리, 챗배, 유자망, 들망, 소대망, 권현망이 있다.

후리어법[地引網漁法]은 갓후리어법이라고도 하며 경사가 완만하고 해저에 장애물이 없는 사빈해안(沙濱海岸)에서 사용된다. 멸치를 비롯한 각종 소형어들이 해안선 가까이 왔을 때 잡는 어법의 하나이다. 중앙부에 불룩한 잘그물이 있고, 그 양쪽 끝에 기다란 날개그물이 달려 있다. 대개 배에 그물을 싣고, 한쪽 끝줄과 그물 끝을 해안에 둔 채 그물을 투



〈멸치잡이〉
1 그물 끌어올리기
2 멸치탈망
3 멸치모으기
4 잡은 멸치
5 멸치담기
경북 영덕군 심디스마

입하여 어군을 둘러싸고 투망이 완료되면 여러 사람이 해안에서 양쪽 끝줄을 잡아당겨서 그물을 해안으로 끌어올린다. 후리어업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배후리어법[船引網漁法]은 후리 또는 갓후리라고 한다. 그물을 해안에서 끌어올리는데 배후리는 배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물을 반씩 나누어 실은 두 척의 배가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서 자루그물을 먼저 투입한 후 서로 떨어지면서 날개 그물을 투입하면서 어군을 둘러싸고, 배가 해안에 도착하면 배에서 밧줄을 내려 해안의 바위나 나무 등에 묶어, 그물을 당기는 힘에 배가 딸려가지 않도록 하고, 갑판 중앙의 물레로 줄과 그물을 감아올린다.

챗배어법[焚寄抄網漁法]은 커다란 수건 모양의 쪽대그물의 좌우변에 막대기(이것을 '채'라고 하기 때문에 '챗배'라고 한다)를 붙인 그물을 뱃전 옆에서 입구가 선수(船首) 쪽으로 향하도록 수면에 펼쳐놓고, 선수 쪽에 장치된 집어등(集魚燈)으로 어군을 모아 노를 저어서 그물을 어군 밑으로 이동시켜 채로 떠서 어획한다. 분기초망(焚寄抄網)이란 불빛으로 어군을 끌어 모아서 멸치가 더욱 몰린다는 뜻이므로, 이 어법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들망어법[敷網漁法]은 집어등으로 집어한 후에 그물을 들어올려서 잡는 점은 챗배와 같으나, 챗배는 그물을 어군 밑으로 이동시켜서 떠올리는 데 비하여, 어군을 그물 위로 유도한 후 그물을 들어올려서 어획한다는 점이 다르다.

들망어법의 그물 기본 형상은 거름소쿠리 모양인데, 까래(소쿠리의 밑바닥)의 앞 끝이 해저에 닿아야 하므로 조업 수심은 10미터를 넘지 않았다. 그물

의 크기는 어장의 수심이나 배의 크기에 따라 다소 다르나, 맨 안쪽 소쿠리의 윗전에 해당하는 뜸줄의 총길이는 70미터, 한쪽 날개 길이는 30미터 정도가 보통이다. 소쿠리 윗전에는 뜸이 달린 뜸줄[浮子綱]을 붙이며, 아랫전은 납을 단 발줄[沈子綱]을 달아 가라앉히고, 또한 그물을 들어올리기 위한 돋움줄[引揚綱]을 열 가닥 정도 달아 날개 끝을 지지하는 앞잡이배[補助船]가 이를 다루게 한다. 조업방법은 일몰 전에 어장에 도착, 목선[主船, 그물을 싣고 다니며 맨 안쪽의 목을 지키는 배]과 앞잡이 배 두 척으로 소쿠리 모양의 그물이 조류를 앞에서 받도록 닻을 놓아 고정시킨다.

한편 집어선(集魚船)은 집어등을 켜서 집어하고 어군을 그물 위로 유도한다. 어군이 그물 위로 완전히 유도되면 집어선은 빠져 나가고 앞잡이배는 돋움줄로써 까래의 발줄을 들어올려 어군의 퇴로를 차단한 후, 그물살을 쳐서 어군을 목선 쪽으로 몰아간다. 목선에 어군이 완전히 모이면 쪽대로 퍼 올리고 삶는다. 그동안 집어선은 다시 집어를 하고 위의 조업방법을 되풀이한다.

유자망 어법은 수건 모양의 그물을 연직(鉛直)으로 펼쳐 놓고 고기가 그물코에 와서 꽂히도록 해서 잡는 어구를 이용한다. 이 어구는 걸그물 또는 자망(刺網)이라고 하는데, 그물의 끝에 닻을 놓아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조류에 따라 그물이 흘러가도록 하면서 잡는 것이 유자망이다. 멸치는 산란기가 되면 연안에 접근해 오는데, 이 시기에 유자망으로 잡는 방법이 일본인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어법의 도입 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널리 쓰이고 있는 어법이다.

소대망어법(小台網漁法)은 대망류(台網類)를 이용한 어법이다. 어군의 통로를 가로지르게 치는 길다란 길그물로써 어군의 진로를 차단하여, 길그물 끝에 길그물과는 직각으로 설치한 우리[圍網, 통그물] 안으로 유도하여 잡는 어구 중 통그물의 모서리에 커다란 뜸을 설치하고, 그 뜸의 부력에 의해서 통그물의 위언저리가 수면에 지지되도록 한 것을 대망류라 하는데, 이 대망류는 한 어기 동안 내내 어구를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정치망이라고도 한다.

이 대망류는 일본에서 방어, 청어 같은 대형 회유성 어족을 잡기 위해 19세기 중엽에 개발된 것인데, 그것이 대한제국 때부터 일본인들이 황실의 허가를 얻어 거제도에서 방어를 잡는 데 써왔다. 수심이 50미터를 넘는 곳에 설치하는 큰 것도 있으나, 경남 연안에서 많이 쓰인 것은 멸치를 잡는 것으로, 수심 10미터 내외의 얕은 곳에 설치하는 소규모라서 소대망이라 일컬었다.

소대망은 1900년대 초에 일본인 시호[四步一與助]가 진해만에서 대구를 잡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원래는 통그물이 길그물의 좌우 어느 한쪽에만 있던 것을 길그물을 대칭축으로 하여 중앙부에 헛통[運動場]이 있고, 좌우에 각각 원통[身網]이 있는 일기양통형(一基兩筒型)으로 개량한 것이 멸치어업에 널리 쓰였다. 길그물과 헛통은 직경 4~5밀리미터가 되게 꼰 새끼로 뻗친 길이 300밀리미터 정도 되게 짠 새끼그물(맡)로서 병풍 모양으로 둘러친 것이고, 원통은 고기를 몰아넣어서 잡는 곳이므로 면사그물이 쓰이는데, 보통 그물코의 크기가 30~40밀리미터 되는 얼금장과 그물코가 아주 작은 직망지로 된 벤장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권현망어법(權現網漁法)도 역시 일본에서 발달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인데, 이 어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1884년 일본 히로시마현(廣島縣)의 쓰보카와(坪川甚三郞)이다. 1887년 무렵 7통(統)의 어선이 통어(通漁)를 한 것이 효시라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이후 통영에 와서 정착하여 조업을 하면서 1919년 히로시마멸치어업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권현망은 멸치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 중 규모나 생산량에서 으뜸을 차지했고, 연안 어업 전체로 보아서도 규모가 큰 것이다. 통영만과 진해만에 좋은 어장이 많아 최성기에는 이 일원에서만 200통이나 조업했다고 한다. 어업 규모가 배후리보다 훨씬 크고, 어선은 그물을 싣고 직접 조업하는 후릿배[網船] 2척, 어로장(물선주)이 타고 어탐과 조업을 지휘하는 지휘선(통칭: 망덴마) 1척, 어획물 운반선 1~2척, 연락용 덴마 1~2척, 15마력 안팎의 발동선 1척 등 여러 척의 어선이 소위 1통의 선단(船團)이 된다.

참고문헌 | 경남어촌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02), 고기잡이 여행(정기태, 바보새, 2004).

필자 | 권삼문(權三文)

바지락캐기

개관 바지락은 백합과에 속하는 이매패류로서 남중국해, 홍콩의 열대 태평양에서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온대 해역, 발해, 사할린, 미국 북서부의 아한대 해역까지 널리 분포한다. 원산지는 필리핀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지락, 모시조개라고도 부른다.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자란 개체는 앞뒤가 짧아서 흔히 오뚝이바지락이라고 한다. 껍데기 표면에는 가늘고 날카로운 방사륵(放射肋)이 있다. 특히 등부분은 거칠고 일부분은 줄모양이다.

내용 바지락 껍데기는 보통 길이가 40밀리미터 높이는 30밀리미터인데, 큰 개체는 길이가 60밀리미터에 달하는 것도 있다. 껍데기 색깔은 변이가 많아 흰색 바탕에 검은색 산모양의 방사무늬 띠가 있는 것과 황갈색 물결 모양까지 다양하다. 껍데기 색깔은 삶거나 오랫동안 보존하면 쉽게 변한다. 내부는 흰색이 대부분이나 보라색을 띤 개체도 있다. 맞물린 이는 작고 껍데기 맨 윗부분의 바로 밑에 방사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 연체 다리는 희며 외투막 가장자리는 연한 주황색을 띤다. 출수관과 입수관은 희고 기부에서 서로 떨어져 있으며 앞 끝에는 검은색의 미세한 돌기가 있다.

바지락은 내만성으로 수심 10미터 안팎의 조간대의 모래나 진흙이 섞인 곳에 분포한다. 어린 조개는 부풀어 오른 정도가 약하며, 족사(足絲)로 돌에 붙어 산다. 산란기는 봄(5월)과 가을(10~11월) 두 차례이다. 알은 지름 63~66미터이고, 수정 후 10시간 정도 지나면 벨리저(veliger)가 되고, 22~24시간이 되면 0.2~0.23밀리미터로 자라서 저서(底棲)생활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족사를 사용하여 모래알이나 돌에 부착한다. 바지락은 성장이 빨라서 양식도 하는데, 1제곱미터 당 0.5~5킬로그램을 수확할 수 있으며, 일년간 성장하면 길이가 1.5~1.6배, 무게는 2.9~3.5배가 된다.

어획방법 바지락과 같이 갯벌에 분포하는 조개류는 주로 간석지에서 간조 때 갯벌이 드러나면 호미나 갈퀴로 바닥을 뒤집거나 긁어서 잡는다. 이 어업은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한 서남 해안의 갯벌이나 수심이 아주 얕은 곳에서 이루어진다. 손으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심이 깊거나 조석 간만의 차가 약할 때는 바지락 채취기를 사용하는데, 철로 된 망사를 틀에 부착하고 아랫변에 여러 개의 갈퀴를 단 망을 긴 손잡이에 달아 작은 배(1톤급) 위에서 갯벌을 긁어 올리는 방법으로 바지락을 잡는다. 그 밖에도 형망과 같이 보다 큰 배(5톤급)와 큰 어구를 이용한 바지락 캐기도 있다. 바지락 형망은 기본적으로 자루그물 입구에 직사각형의 틀을 달고 틀의 밑변에 여러 개의 갈퀴를 단 어구를 배로 끌어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것이다. 바지락 형망은 서해 연안에서는 주로 3월과 7월 사이에 조업이 이루어지며 조업 수심은 3~5미터이다. 한편, 남해 연안에서의 바지락 형망은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연중 이루어지며, 조업 수심은 10~30미터에 이른다.

기타 바지락은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으며, 자원량이 풍부하여 연간

1 바지락캐기
충남 서산시 안면읍 황도리 김상수
2 바지락캐기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김상수





패류 총생산량의 약 18퍼센트를 차지한다. 바지락은 여러 가지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데, 바지락 육질 100그램에 칼슘(80밀리그램)과 계란의 5배나 되는 마그네슘(50밀리그램)이 들어 있다. 또한 생체 방어에 필요한 효소 수퍼옥시드 디스무타아제(SOD)와 효소 생산에 필수적인 구리도 130밀리그램이나 들어 있어 피조개(60밀리그램)보다 2배 이상 많다. 바지락은 미량원소로서 무기질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사 조절작용으로 병후 원기회복에 매우 좋다. 바지락은 갯벌에 흘러드는 각종 오염원에 대하여 천연정화조 역할도 하여 바지락으로 젓갈을 담그거나 날것을 요리하여 먹는 경우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번식기에는 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식품으로 소비되는 것 외에 최근에는 수출용 통조림의 원료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 韓國魚圖譜(鄭文基, 一志社, 1977), 진해 연안산 바지락의 자원생태학적 연구(김현주·장창익, 한국수산자원학회지2, 한국수산자원학회, 1999), 한국연근해 유용어류도감(국립수산과학원, 예문사, 1999),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과학원, 2002).

필자 | 장창익(張昌翼)

실치잡이

명칭 및 생태 실치는 성체로 변태하기 전의 백색의 어린 물고기란 뜻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실제로는, 뱅어류나 흰베도라치를 일컫는다. 우선 뱅어류는 연어목 뱅어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우리나라에 총 7종(국수뱅어, 벚꽃뱅어, 도화뱅어, 젓뱅어, 실뱅어, 붕퉁뱅어, 뱅어)이 알려져 있다.

뱅어에 관한 기록은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모양은 젓가락과 같고 깨끗하기가 은(銀)과 같고 비늘이 없어서 횟감에 좋으며 칠산 바다에 많다고 기록해 놓았다. 『박물지(博物誌)』에는 회잔어(鱠殘魚),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왕여어(王餘魚), 『역어유해(譯語類解)』에는 면조어(麵條魚)라고 다양하게 불렀다.

뱅어류는 주로 바다와 하천(또는 강)이 만나는 기수(汽水) 지역에 서식하는데 최근 환경 오염과 하구둑 건설 등 서식처가 소멸되어 자원 감소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종도 있다. 특히 국수뱅어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에 걸쳐 넓게 분포하였으나, 대만의 경우 1980년대에 멸종되었고, 일본도 최근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과거 부산 낙동강 근방에서 많이 어획되었지만, 하구둑 건설 이후 종적을 감추었다.

내용 뱅어류의 최대 서식처는 서해안이다. 특히 금강 하구역 주변에서 다양한 뱅어류가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충남과 전남 지역에서만 아직 어획되고 있다. 충남에서 잡히는 실치는 뱅어류가 아닌 좀 다른 모양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치는 대부분 흰베도라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흰베도라치는 농어목, 황줄베도라치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11~1월에 산란하고 수정된 알은 2개월 후 부화된다. 부화된 어린 흰베도라치는 지역마다 출현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전라도는 3월, 충청도는 4월, 경기도는 5~6월부터이다. 흰베도라치는 황해 냉수를 찾아 저층으로 서식처를 옮기는 냉수성 어종에 속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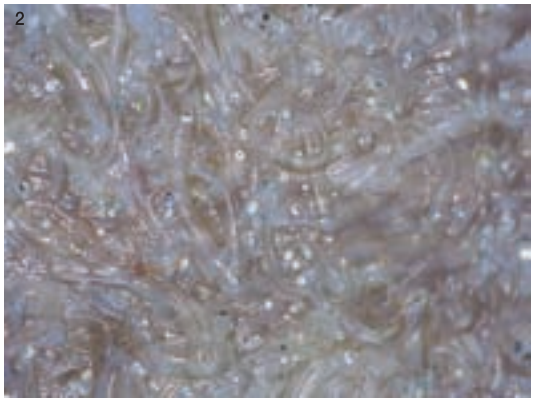
실치잡이 도구는 연안 안강망이다. 날개그물이 없는 긴 자루그물을 물 속에 드리우고 조류를 따라 회유하는 실치가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해서 잡는다. 조업은 만조나 간조 때 물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정조(停潮)를 전후하여 조류가 약할 때 투망했다가 다음 정조시에 걷어 올리며 보통 1일 2회 실시한다. 어선 한 척이 3~5통 가량의 어구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어구마다 부표를 띄워 놓고 어선은 닻을 놓아 대기했다가 자유롭게 걷어 올린다. 어구 한 통당 투망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20분, 걷어 올리는 데는 약 20~30분, 1회 조업시간은 조류가 가장 강한 일곱 내지 여덟물을 전후하여 일주일 가량 조업하며 어획량이 많거나 어획물의 선도 유지를 위해 어구를 부설한 상태에서 잠시 귀항하여 어획물을 뭍으로 운반한 다음 다시 출항하기도 한다. 연안 안간망에서 대부분 실치가 잡히며, 그 밖에 멸치, 까나리, 꽃게도 혼획된다. 일본에서는 아리아케해 또는 미카타 호수에서 잡히며 소형배의 선두에 긴 2개의 쇠봉 혹은 나무봉을 설치한 다음, 그 사이의 그물을 이용하여 마치 뜰채로 들어올리듯 어획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으며 물이 빠지는 시점부터 어획한다. 그 밖에 정치망, 봉수망, 자망이 이용된다.

보관 및 제조법 전라도에서는 예부터 소금을 쳐서 뱅어젓을 담아 진귀한 식품으로 이용하였으며, 어획 즉시 삶아서 잘 말린 다음 보관하기도 한다. 선도가 좋은 경우는 냉동 보관한다.

멸치처럼 삶아서 말린 다음 튀기거나 볶아서 먹는데, 멸치보다 뼈가 약하고 비린내가 없으며 어육이 부드러워서 인기가 좋다. 일본에서는 신선한 상태로 냉동된 뱅어류를 해동시켜 회로 먹으며 대부분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수입한다. 그리고 뱅어류의 알을 먹기도 하며 마치 국수처럼 먹기도 한다. 실치는 뼈째 먹으므로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다.

참고문헌 | 博物誌, 本草綱目, 譯語類解, 玆山魚譜, 韓國魚圖譜(鄭文基, 一志社, 1977),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과학원, 2002), 韓國魚類大圖鑑(김익수·최윤 외, 敎學社, 2005), Freshwater Fishes of Japan(Kawanabe H., N. Mizuno and K. Hosoya (eds.), Yamakei Pub, 2001).

필자 | 김진구(金眞久)







〈실치잡이〉
1 낭장망 실치잡이
2 잡은 실치
3 뱅어포 만들기
4 뱅어포 건조
충남 당진군 김상수

〈자리잡이〉
1 양망자리잡이
2 자리잡이 그물 끌어올리기
3 전통식 테우자리잡이
4 그물 끌어올리기
제주도 서귀포시 김상수

자리잡이

개관 자리돔은 아열대성 물고기이다. 오키나와열도와 일본열도의 중남부 지방,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거문도와 독도에서 서식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물고기를 좋아하여 어획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 따르면 당시 제주도에 282개의 자리그물이 있었다고 한다.

내용 자리돔은 여름철에 산란하면 겨울철에 40밀리미터까지 자란다. 겨울을 넘기고 봄이 되면 60밀리미터까지 자라며 여름에 재생산에 참여한다. 그리고 2년째 여름에 80밀리미터까지 자란다. 이후 다시 한 번 재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나서 죽는다.

제주도 어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생후 1년 된


1


2


3


4

자리돔과 2년 된 것은 산란기가 조금 다르다. 두 살짜리 자리돔의 산란기는 음력 4~5월, 한 살짜리 자리돔의 산란기는 음력 7월이다. 두 살짜리 자리돔을 창자리, 한 살짜리 자리돔을 부종끗자리라고 한다. 여름농사의 으뜸인 조의 부종(付種)이 소서(小暑) 안팎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산란하는 것이라 부종끗자리라고 한다. 창자리의 의미는 알 수 없다. 자리돔은 성장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음력 5~6월 동안에 배 가득 알이 차 있는 자리돔은 알찬자리, 음력 7~8월 사이에 잡히는 25밀리미터 안팎의 자리돔은 쉬자리, 음력 7월 이후 산란하고 나서 가죽만 남은 듯이 살이 쭉 빠져버린 자리돔은 거죽자리라 부른다.

제주도에서는 자리그물을 사둘이라고 한다. 각각 어구(漁具)와 어법(漁法)이 조금씩 다르다. 자리그물은 덕자리사둘, 국자사둘, 동고락사둘 세 가지이다. 덕자리사둘은 배를 타고 나가지 않고 갯가 바다밭 중 '덕'에서 자리돔을 잡는 그물이다. 그래서 덕자리사둘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자리돔을 잡는 일은 높직한 언덕으로 이루어진 갯가에서 이루어진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 동쪽에 있는 자리덕이라는 바다밭은 바로 이와 같은 어법으로 자리돔을 잡아온 '덕'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국자사둘은 그물이 달린 에움이 기다란 막대기에 마치 국자 모양으로 붙어 있다. 그래서 국자사둘 또는 ᄌᆞ럭사둘이라고 한다. ᄌᆞ럭은 자루[柄]의 뜻을 지닌 제주어이다. 곧 기다란 ᄌᆞ럭에 에움이 달린 사둘이라는 말이다. 국자는 사둘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국자와 비슷해서 붙여진 말이다. 국자사둘은 한 사람이 테우를 타고 나가 자리돔을 잡는 자그마한 그물이다. 일정한 어장으로 가서 닻을 드리워 배를 세우고, 배의 이물 쪽에서 배와 거의 직각으로 국자사둘을 드리웠다가 잡아당기며 자리돔을 잡는다. 동고락사둘은 전통적인 자리잡이 어구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둥그런 모양의 사둘을 도르래를 이용하여 드리우거나 올리며 자리돔을 잡아나간다.

자리그물의 어로 대상은 자리돔이나 더러 다른 물고기들을 잡는 수도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에서는 벤자리와 고동베기(잿방어)를 잡기도 한다. 자그마한 벤자리를 알눈이라고 한다. 음력 3월경에는 알눈이가 그리고 장마철에는 좀더 큰 벤자리가 무리를 이루어 다닌다. 자리그물을 드리울 때, 이 물고기들이 자리돔을 좇아 그물 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잡히는 수가 있었다.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앞 형제섬 주위에는 가다리왓이라는 바다밭이 있다. 가다리는 재방어의 제주도 말이다. 이 마을에서는 일부러 가다리와 배애기(점다랭이)를 자리그물로 잡으려고 출어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어기(漁期)는 가을이다. 바다밭으로 나가 그물을 드리우고, 배의 물간에 살려 둔 자리돔을 그물 안으로 뿌린다. 그물 안에 있는 자리돔을 먹으려고 배애기와 가다리가 몰려든다.

기타 갯마을에서 자리돔잡이가 남자들의 일이라면, 이를 파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다. 자리잡이는 주로 여름에 이루어지므로 습기나 열에 상하기 전에 팔아야 한다. 갯마을 사람들은 배가 마을로 들어오면 싱싱한 자리돔을 사려고 포구로 몰려들지만, 산마을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갯마을 아낙네들은 자리돔을 지고 산촌마을로 팔러 다닌다.

참고문헌 | 韓國水產誌2·3(農商工部水產局 編, 1910), 서귀포産 자리돔의 漁獲改善 및 適正利用을 위한 資源生物學的 硏究1(高有峰·全得山 , 硏究報告7, 濟州大學校 海洋資源硏究所, 1983), 寫眞 濟州學1 자리잡이(고광민, 濟州學1, 제주학연구소, 1998),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고광민, 대원사, 2004).

필자 | 고광민(高光敏)

장어잡이

정의 먹장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로 구분되는 장어를 통발, 그물, 작살 같은 어구를 이용해 잡는 행위. 우리나라에서는 삼복더위 복달임으로 보신탕, 삼계탕, 전복죽과 함께 장어탕을 많이 먹는다.

이칭 장어는 몸이 뱀처럼 긴 물고기로 뱀장어목에 속하는 뱀장어, 붕장어(아나고), 갯장어는 경골어류지만 먹장어는 다묵장어, 칠성장어와 함께 연골어류에 속한다.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장어를 해만리(海鰻鱺)라 하며 속명을 장어(長魚)라 하는데, "큰놈은 길이가 1장(丈)에 이르며, 모양은 뱀을 닮았다. 덩치는 크지만 몸이 작달막한 편이고 빛깔은 거무스름하다. 대체로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달리지 못하지만, 해만

리만은 유독 뱀과 같이 잘 달린다.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제대로 다룰 수가 없다. 맛이 달콤하고 짙으며 사람에게 이롭다. 오랫동안 설사를 하는 사람은 이 물고기로 죽을 끓여 먹으면 낫는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붕장어는 해대리(海大鱺)라 하고, "눈이 크고 배 안이 먹빛이다. 맛이 매우 좋다."라고 하였다.

갯장어는 『자산어보』에서 견아리(犬牙鱺), 속명 개장어(介長魚)라 하며 "입이 툭 튀어나온 것이 돼지와 같다. 또 이는 개와 같아서 고르지 못하다. 가시가 매우 단단하며 사람을 잘 문다."라고 하였다.

뱀장어는 드물장어(부산), 배암장어(경기, 충남, 평남북, 강원 통천), 참장어(부산 다대포), 장어, 민물장어(전남 순천, 보성, 구례), 배미장어, 뻘두장어, 은뱀장어, 곤장어(전남 강진), 장치(철원군 김화읍), 비암치(황해도 몽금포), 먹장어(평북 희천)라고 부른다. 붕장어는 지역에 따라 붕어지(충남, 황해도), 꾀장어(전남), 장관, 벵찬(함남), 바다장어, 바다뱀장어라고 부른다. 갯장어는 해장어(전남, 충남, 부산 다대포), 개장어, 놋장어, 뱀장어(부산, 경북 김천), 갯붕장어(부산 다대포), 이장어(경남 통영 봉







〈장어잡이〉
1 장어주낙 미끼 준비
경남 하동군 하동읍 최호식
2 주낙 풀기
경남 하동군 하동읍 최호식
3 장어 낚기
경남 하동군 하동읍 최호식
4 재래식 장어잡이
전남 강진군 탐진강 최호식
5 장어 통발 양륙
경남 통영시 김상수

암도), 참장어(전남 여수, 진도), 노장(경남 포항)이라고 부른다. 먹장어는 묵장어(전남), 형장어(목포), 곤배장어, 꾀장어(전남 완도 청산도), 푸장어(경남 통영 욕지도), 꼼장어(부산)라고 부른다.

여름철 보양식품으로 많이 먹는 장어는 민물장어(뱀장어)와 바다장어이며, 붕장어는 회로 많이 먹는다. 제주의 천제연에 서식하는 무태장어, 전남 고창 선운사 입구 인천강에서 잡히는 풍천장어가 뱀장어에 해당된다.

내용 뱀장어는 강에서 자라다 성어가 되어 산란기가 가까워지면 8~10월 무렵에 열대의 깊은 바다로 돌아가기 위해 강하류로 내려온다. 이곳에서 3~4개월 머물며 왕성한 식욕으로 산란을 준비하며 황금색의 혼인색을 띤다. 그 후 바닷물에 적응을 한 장어는 깊은 바다에서 산란을 한다. 알에서 깨어난 어린 치어(실뱀장어)는 다시 거슬러 강으로 돌아온다.

갯장어는 수심 50미터 안팎의 펄이나 모래바닥, 암초 사이에 서식하며 물고기, 새우, 오징어, 게 따위를 잡아먹는 야행성으로 5월에서 8월에 산란한다. 갯장어는 하모로 많이 알려져 있다. 붕장어는 아나고라 불리며 횟감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가을에는 알을 낳기 위해 제주도 남방으로 회유하고, 12월에서 1월 무렵 쿠로시오 가장자리 대륙사면에서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먹장어는 갯벌에 사는 장어로 흔히 포장마차에서 술안주로 이용되는 꼼장어를 말한다. 연안의 얕은 바다에 서식하며 8~10월 사이에 산란하고, 다른 물고기에 붙어서 기생하며 심한 경우 살을 파고 들어가기도 한다.

장어를 잡을 때 그물, 낚시, 작살, 통발 같은 어구를 이용한다. 붕장어는 기선저인망, 연승, 통발로 잡는다. 기선저인망은 배 두 척이 자루모양의 그물을 양쪽으로 벌리고 바다 밑바닥을 긁어서 잡는 방법이며, 배 한 척으로 잡는 소형기선저인망도 있다. 이러한 고기잡이 방법을 고대구리, 방배라고 부르는데, 최근 어족 자원 보호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다.

연승은 다른 말로 장어주낙이라고 하는데, 몸줄에 1미터 남짓 낚시가 달린 아랫줄을 수십 개 매달아 오징어, 전어, 고등어 따위를 썰어서 미끼로 사용한다. 남해 서부연안은 수심 7~8미터, 남부 연안은 수심 100미터에서 연중 조업을 하지만, 여름철에서 10월까지 많이 한다. 보통 가족노동, 곧 부부가 1톤 가량 되는 작은 배로 조업을 하지만, 5톤 가량 되는 제법 큰 배는 3~5명이 승선하기도 한다. 먼저 고정시키는 멍을, 다음에 부표, 낚시줄 순으로 드리운 다음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걷어 올린다. 1일 1회 조업하며 낚시줄을 드리우는 1시간, 걷어 올리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

장어통발은 대나무 또는 그물감을 싸서 만든 통형태의 어구를 해저에 설치해 들어간 것을 들어올려 잡는다. 통에 들어간 장어는 나올 수 없도록 깔대기 모양의 입구를 만들어 놓았다. 과거에는 통발을 왕대나무로 대오리(충남 홍성)를 만들고 미끼로 정어리, 고등어, 꽁치 따위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그물감을 싸서 만든 통절이(전남 완도)를 이용한다. 장어주낙은 소형 어선을 이용한 가족노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장어통발은 100톤 규모의 대규모 어업이다.

민물장어를 잡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장어대롱을 이용하는 것과 창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1930~1940년대 태화강 하류에서는 맹종죽으로 만든 궁장어태롱으로 잡았으며, 최근에는 PVC 파이프를 이용해 잡고 있다. 장어의 굵기를 고려해 지름 4센티미터, 길이 80센티미터 가량 되는 파이프를 3~6개를 묶어서 장어가 좋아하는 미꾸라지가 많이 서식하는 모래와 진흙이 섞여 있는 곳에 설치한다. 시기는 수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는 6월 초순 이후에 시작해서 서리 내릴 때까지 계속된다. 그 밖에도 헌가마니를 장어가 많이 있는 물속에 고정시켜 두거나 돌무덤을 쌓아 장어가 모이도록 한 다음 잡기도 한다. 낚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끼로 미꾸라지, 땅강아지, 지렁이, 새우를 사용한다.

하천이나 갯벌 바닥에 숨어 있는 장어를 긁어 잡는 도구로 장어갈쿠리(제주 한림), 장어글갱이(전남 신안 증도), 장어곡갱이(강원도 동해)가 있다. 월동하기 위해 음력 9~10월 사이에 갯벌 안 물웅덩이나 하천 하구 벌에 20~30센티미터 파고 들어간 민물장어를 잡는 어구이다. 제주에서는 장어를 윤노리나무에 세 개의 살을 박아 만든 10센티미터 정도의 작은 장어작살로 잡기도 한다.

깊은 바다의 알에서 깨어난 실뱀장어 렙토세팔로스(Leptocephalus)는 댓잎 모양으로 조류를 타고 봄철에 서남해로 올라온다. 이 무렵 군산, 김제, 부안,

서천 등 서남해안의 어민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잡아 생활했다. 영산강 일대의 어민들도 본격적인 낙지계절 이전에는 실뱀장이 잡이로 소득을 올렸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동진강, 만경강, 금강 일대에는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길이 10센티미터 안팎의 작고 투명한 실뱀장어를 특수 제작한 바지선에 그물코가 모기장 같이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잡으며, 부안, 함평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망으로 잡기도 한다. 아직 실용단계인 인공 종묘 생산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뱀장어가 공급되지 않으면 장어양식은 불가능하다. 실뱀장어가 어민들에게 높은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는 층층이 실뱀장어를 잡는 그물이 쳐져 있다.

참고문헌 | 玆山魚譜, 한국동물도감(鄭文基 編, 문교부, 1961), 한국해산어류도감(金容億 외, 도서출판 한글, 2001), 漁具(고광민,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한국의 어구어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필자 | 김준(金準)

멸치젓담그기

개관 멸치젓은 멸치를 20~30퍼센트의 농도가 되도록 소금에 절여 상온에서 일정기간 보관하여, 자가소화분해효소와 미생물에 의한 발효작용으로 생긴 유리아미노산과 핵산 분해산물의 상승작용으로 특유한 감칠맛이 나는 가공식품이다. 소금으로 부패를 막고 저장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 염장품과 같으나, 일반 염장품은 염장 중 될 수 있는 대로 육질의 분해를 억제하여야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는데, 젓갈은 원료를 적당히 분해시켜 독특한 풍미를 지닌다.

유래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쓴 『주례(周禮)』에 오늘날 젓갈의 의미로 해석되는 해(**醢**), 자(**鮓**), 지(**鮨**) 같은 문자가 발견되는데, 해는 술, 누룩, 메주, 식염을 침장원(沈藏源)으로, 동물이나 날짐승, 생선의 고기를 염장 발효시킨 식품이다. 장(醬)과 해를 같은 제조기술로 보고 사용하는 원료가 다른 것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제8 신문왕(神文王) 3년(683)에 왕비를 맞이할 때 폐백 품목에 쌀, 술, 간장, 된장, 육포와 함께 젓갈[**醢**]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어육장해(魚肉醬**醢**)와 식염만을 사용하는 지염해(漬鹽**醢**)가 주종을 이루며 식해류(食**醢**類)도 사용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젓갈과 관련 자료들에는 『오례찬실도(五禮攢室圖)』,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같은 관선 문헌과 유희춘의 『미암일기(眉巖日記)』와 오희문의 『쇄미록(鎖尾錄)』 같은 민선 문헌이 있는데 이것들은 조선시대의 젓갈류의 종류와 식용 배경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때 식염만을 사용하는 지염해(漬鹽**醢**)를 주종으로 하여 뱅어젓, 새우젓, 조개젓, 굴젓이 흔히 사용되었으며, 일부 식해류도 상용되었다.

젓갈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조선중기 홍만선이 저술한 『산림경제(山林經濟)』와 『증보산림경제(增補





1 멸치염장
2 멸치젓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도 김상수

山林經濟)』, 『음식디미방』에 염해법(鹽醢法), 주국어법(酒麴魚法), 어육장법(魚肉醬法), 식해법(食醢法) 네 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식염만을 사용하는 염해법과 밥과 채소를 혼합하여 발효하는 식해법만이 우리나라에서 전통 계승되었다.

내용 멸치젓은 생산량으로 보아 새우젓과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젓갈의 하나이다. 특히 남해안 지방에서 많이 담으며 맛도 좋다. 봄에 담는 것을 춘젓, 가을에 담는 것을 추젓이라고 하는데, 춘젓이 맛이 있다. 또 같은 춘젓이라도 이른 봄의 초물은 아직 살이 오르지 않아 진한 맛이 적고, 담아서 오래 두면 살이 풀어지기 쉽다. 반대로 파물은 기름기가 너무 많아 끈적거리고 멸치 비린내가 가시지 않는다. 시기로 보면 중물을 취하는 것이 좋다.

신선한 멸치를 물에 씻어 물기를 뺀 후, 용기에 소금과 멸치를 번갈아 넣어 절인다. 소금 양은 원료 중량의 20~30퍼센트 정도인데, 보통 멸치 한 되에 소금 세 홉이 표준이다. 원료의 선도가 나쁠수록, 지방 함량이 많을수록, 또 기온이 높을수록 소금 사용량을 높이고, 저온숙성시에는 소금 양을 낮게 조절한다.

소금은 양질의 재제염을 써야 하며 담근 후 수일간은 하루 한 번 휘저어 소금이 고르게 스며들게 하고 밀봉하여 시원한 곳에서 숙성시킨다. 숙성기간은 소금의 양과 숙성온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 2~3개월이 걸린다. 비린내가 많이 남아 있으면 아직 숙성이 덜 된 것이다. 또 표면에 낀 기름기는 걷어내는 것이 좋다. 기름이 산화되어 쓴맛, 떫은맛의 원인물질이 되고, 뒷맛을 나쁘게 한다. 쓴맛, 떫은맛, 또는 냄새가 심할 때는 구연산이나 주석산을 조금 첨가하면 좋아진다.

5~6개월의 숙성기간이 지나면 젓갈이 완전히 숙성된다. 멸치가 삭으면 말간 웃물이 고이는데, 이것을 생젓국이라 하여 따로 떠놓고 조미료로 쓴다. 생젓국을 뜨고 남은 것은 솥에 붓고 소금과 물을 적당히 섞어 달인 후 베보에 걸러서 멸장(멸치젓국)을 만들어 조미료로 쓴다. 보통 3월에 담그면 8~9월에 생젓국을 뜨게 된다.

지역사례 멸치젓을 남해안 지역은 연 1회(음력 3~5월), 동해안지역은 연 2회(음력 4월과 7~8월) 담그는데, 일찍 담근 것은 응달에서 숙성시키고 늦게 담근 것은 따뜻한 곳에서 숙성시켜야 적당히 발효하여 비린내가 없고 맛있게 삭는다. 연 2회 담그는 까닭은 두 번에 걸쳐 멸치가 잡히기 때문이다. 멸치는 난수성 어족으로 동해안은 난류가 봄철에 북상하였다가 가을이면 다시 회유한다. 멸치젓은 보통 소금으로만 담그나, 함흥과 북청에서는 멸치젓을 담글 때 고춧가루를 넣는다. 고춧가루는 발효를 촉진시키기고 낮은 기온에서 숙성된 젓의 비린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인접국가사례 아시아에서는 염해법(鹽醢法)과 비슷한 어간장(fish sauce)으로 담근 제품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베트남의 맘 넴(mam nem, 멸치 이용), 뇨크 맘(nuoc mam, 멸치 같은 잡어 이용)이 있고, 라오스의 남 파(nam pa, 잡어 이용), 캄보디아의 프라 호크(pra hoc, 담수어 이용), 필리핀의 바고옹(bagoong), 태국의 남 프라(nam pla), 미얀마의 가피(nagpi), 말레이시아의 브라칸(belacan, 새우젓), 인도네시아의 테라시(terasi, 새우젓)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정어리나 까나리를 이용한 숏쯔류(shottsuru)가 있다.

의의 단백질과 칼슘 공급원인 젓갈은 전분 위주의 식생활에 부족하기 쉬운 아시아 지역의 쌀 문화권에서 보편화된 식품이었다. 동남아시아 같은 더운 지방에서는 어간장 형태로 애용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젓갈과 어간장의 복합형태가 전래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는 사계절 생선을 잡을 수 있고, 소금 생산량이 적어 식해법이 발달한 반면에, 소금이 풍부한 서해안에서는 젓갈이 발달한 것을 보면 옛 선조들의 환경에 순응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眉巖日記, 山林經濟, 三國史記, 世宗實錄地理志, 鎖尾錄, 五禮撰室圖, 음식디미방, 周禮, 增補山林經濟, 韓國傳來 해류식품 製造史(장지현, 論文集7, 聖心女子大學校, 1976), 우리나라 수산발효기술의 특색(이철호·이응호·임무현·김수현·채수규·이근우·고경희, 韓國食生活文化學會志3,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86), 우리젓갈의 지역성 연구1(徐惠卿, 尹瑞石, 한국식문화학회지, 1987), 우리젓갈의 지역성 연구2(徐惠卿, 한국식문화학회지, 1987), 韓國食品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92), 魚醬과 食醢의 硏究(石毛直道 著, 金尙寶 譯, 修學社, 1995), 水產加工利用學(朴榮浩, 張東錫, 金善奉, 螢雪出版社, 2000).

필자 | 차용준(車庸準)


CHUNHYANG FESTIVAL
제71회 춘향제
축



陽曆歲時

양력세시

남원 사람들은
춘향제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고
공동체성을 확인하며
문화적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춘향 관련 행사와 국악 행사들이 많다.
이러한 배경에는,
춘향제가 남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흔적을 담아내고
지역민의 공동체성을 토대로
생겨났기 때문일 것이다.

근로자의 날(勤勞者 -)

정의 산업사회에서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며, 노사협조 분위기를 진작시켜 노사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제정된 노동자 기념일. 양력 5월 1일이다.

유래 오늘날 국제적으로 기념되고 있는 노동절의 기원은 자본주의가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던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6년 마르크스가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후, 8시간 노동제 문제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를 이행하던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중심과제였다. 한편, 이러한 요구가 미국의 노동운동에도 수용되어 광범위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884년 5월 1일 미국의 방직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조가 이에 호응하여 미국노동조합연맹은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어 1886년 5월 1일 시카고의 노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체포되었다. 미국 노동자의 시위는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세계 20여 개국의 사회주의 운동가와 노조대표자 395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대회에 보고되었다. 이 대회는 미국 노동자의 5월 1일 시위를 기념하여 이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1890년부터 기념하였다.



노동절 국가기록원

내용 한국의 노동계급은 일제강점기에는 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약칭 대한노총)이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실시해 왔다. 1948년 이후 폭력화를 이유로 전평의 메이데이 행사가 금지되었으나, 대한노총의 메이데이 행사는 1957년까지 계속되었다. 1957년 5월 22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메이데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공산도당들이 세계 적화를 위한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5월 1일을 택할 필요가 없이, 이와 구별하여 우리 한국의 자유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노총에서는 상무집행위원의 결의로써 5월 1일이 아닌 다른 노동절을 제정하기로 하고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1959년부터 기념행사를 실시해 오다가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었다. 메이데이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한 된 것은 직접적으로 반공국가라는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이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권이 민정으로 이양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1963년 4월 17일 군사 정권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의 개정을 통해 노동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 노동자의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고 바꾸었는데, 이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도 공포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노동계급의 진출이 확대되고 노동운동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대한노총이 주도하는 종전의 근로자의 날(3.10) 행사와 의미는 점차 형식화되고 민주노조운동 세력을 주축으로 5월 1일 메이데이가 복원되어 행사가 벌어지는 이원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가 1994년 3월 9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변경됨으로써 37년 만에 메이데이가 공식적인 국가기념일로 부활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날 행사는 정부 주최 기념식 외에 각 시도 및 기업, 노동조합별로 실시한다. 정부는 노사 화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

사문화 창출에 공이 큰 근로자, 노조간부, 사용자에게 훈장, 포장, 표창을 수여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지역별로 기념행사와 집회를 열어 지역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한편,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노사 화합과 단결 등을 다진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 중국, 러시아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기념하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김민환, 韓國學報99, 一志社, 2000).
필자 | 이재협(李哉協)

바다의 날

정의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산하여 해양사상을 드높이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 매년 5월 31일 기념식이 열린다.

내용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발효되어 해양 자유 이용 시대에서 해양 분할 경쟁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넓은 해양면적과 대륙붕을 보유하고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경제적 요충지에 위치한 해양국가로서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세계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바다의 날을 제정하였으며,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달인 5월(음력 4월)은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삼는 이들이 참여하기 쉽고 풍어제 같은 각종 행사가 많아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시기라는 매년 5월 31일을 기념일로 정하였다.

기념행사는 전국 지방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서, 해군, 해병대, 관련 기관에서 특성에 맞는 행사를 연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던 완도에서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장보고 축제 기간으로 정해 전국청소년장보고선발대회, 장보고 무역선 승선체험, 장보고배 전국국악경연대회, 바다의 날 기념음악회, 해군함정 관람 행사를 한다. 그 밖에 지역별로 친선을 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초청해



바다의 날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김상수

경비함정, 주요 장비 공개 행사를 하는 한편, 해상정화 및 치어 방류, 기념 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에게 해양개발, 해운항만, 해양환경, 수산진흥, 해양안정 5개 분야로 나누어 훈장, 포장, 표창을 수여한다. 2005년 '바다의 날' 기념식은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 고래축제와 연계해 울산광역시에서 개최하였다.

참고문헌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필자 | 이재협(李哉協)

발명의 날(發明-)

정의 매년 5월 19일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발명사상을 드높이고 기술의 진보를 꾀하며 발명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부추기는 한편, 국민에게 발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발명 유공자를 수상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한다.

내용 '발명의 날'은 세종 24년(1442) 5월 19일 측우기(測雨器)의 발명을 기려 제정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농사에 큰 영향을 주는 강우의 자연현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 조선왕조는 농사철에 대비하여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 각 지방 관청에 땅속에 스며든 빗물의 양을 측정하거나 웅덩이에 고인 물을 측정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다. 세종 23년 봄에는 가뭄과 큰비가 번갈아 기승을 부려 이런 강

수 측정 방법으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세종의 아들 문종이 종래의 방법 대신 일정한 크기의 그릇에 빗물을 받아 측정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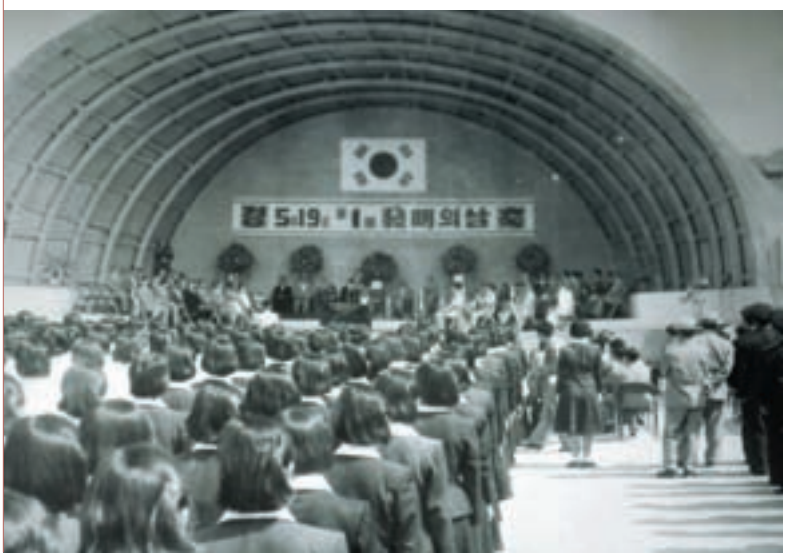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3년(1441) 8월 18일에, "서운관(書雲觀)에 대를 만들고 대 위에 깊이 2자, 지름 8치의 철기를 놓고 빗물을 받아 그 깊이를 재어 보고하게 하는 한편, 외방 각 관에서는 자기나 와기를 써서 객사 뜰에 놓고 물의 깊이를 재어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자고 호조(戶曹)가 건의하여 임금이 따랐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당초의 측우기에 미진한 점이 발견되어 이것을 개량하고 측정제도를 확정한 것은 세종 24년(1442) 5월 8일이었다. 이 날 『세종실록』은 "우량 측정에 미진한 곳이 있어 조례를 다시 구성한다. 우량계의 이름을 측우기라고 명명하고 측우기는 길이 1자 5치, 지름 7치의 철기를 서운관의 대 위에 놓고 비가 그쳤을 때마다 주척(周尺)으로 수심을 측정하며, 강수 및 비가 갠 날과 시각 그리고 수심의 자, 치, 푼[分] 수를 정확히 재어 보고 기록한다. 지방에서는 각 도, 군, 현의 객사 뜰에 두어 강우량을 치, 품까지 측정하여 보고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로써 강우량은 비가 멎었을 때 측정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일시와 날씨가 갠 일시를 기록하며, 수심은 약 2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재는 과학적인 측정방법이 제도화되었다. 조선왕조의 측우제도는 임진왜란 등으로 한때 주춤했으나, 영조 46년(1770) 5월 1일 측우기를 철제 대신 청동으로 다시 만들어 팔도에 설치하게 하여 부활된 측우기제도는 조선왕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정조실록(正祖實錄)』에는 정조 16년(1792)부터 8년간의 강우량 통계가 기록되어 있다.

1957년 5월 19일 상공부는 측우기 발명일을 기려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제정했으나,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으로 '상공의 날'로 통폐합하여 발명사상 함양을 위한 행사를 함께 한다. 그러나 1982년 5월 19일 제17회 발명의 날부터 민간 주도로 바뀌어 한국발명진흥회가 각종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인접국가사례 우리나라가 독창적인 측우 방법을 사용하여 수백년간 전국적으로 실시한 데 비해, 중국은 13세기 송(宋)나라 때 강우량 측정 장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있었다고 해도 한정된 구역에서 부정기적으로 강우를 측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은 1639년 이탈리아의 가스텔 리가 로마에서 처음으로 측우기로 강우량을 관측했으며, 프랑스는 1658년부터 파리에서 측우기로 강우량을 관측했는가 하면, 영국은 1677년부터 측우기로 강우량을 관측했다. 따라서 세종의 측우기는 세계 기상학사에서 측우기 시대를 약 200년이나 앞당겨 놓은 것이다. 특히 서울의 강우량에 관한 기록은 1770년 이래 보관되어 있어 세계 최장기록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특허청은 1885년 4월 18일 특허법 시행일을 기념하여 해마다 4월 18일을 발명의 날로 제정하고, 공업소유권제도의 보급을 위한 각종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발명의 날 국가기록원

참고문헌 | 世宗實錄, 正祖實錄, 韓國史 -近世前期 篇-(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9), 한국과학사(전상운, 사이언스북스, 2000), 역사 속의 과학인물 축가정(竺可楨)(박성래, 월간 과학과 기술, 2005.7),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3(Joseph Needh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필자 | 현원복(玄源福)

방재의 날(防災-)

정의 매년 5월 25일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



내용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 IDNDR)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 각국에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17일 유엔 가입과 함께 다각적인 국제협력사업에 따라 각종 방재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IDNDR에서 권고한 세계 재해 경감의 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다. 1994년부터 재해예방적 차원에서 우기 이전인 5월을 재해예방법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1995년 자연재해대책법 전문 제정에 따라 동법 제23조에 명시하였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방재행정 세미나, 방재 시범훈련, 재해예방 캠페인,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 점검과 정비, 재해참상 및 복구광경 사진전시회,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 같은 것을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서 다채로운 재해예방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접국가사례 일본은 1959년 사상 최대의 피해를 가져온 태풍 사라호 이후에 재해대책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1960년에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9월 초순을 기념해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정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8월 30일~9월 5일 기간을 방재의 주, 1월 15일~1월 21일 기간을 방재 및 자원봉사자의 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필자 | 이재협(李哉協)

부부의 날(夫婦 -)

방재훈련 국가기록원

정의 매년 5월 21일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의 화목함을 지키고자 제정한 국가기념일.

내용 부부의 날은 민간단체인 '부부의날위원회'가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을 시작하면서부터 발단되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를 벗어나서 현대 사회에 맞는 부부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부부의 날을 제정하였다. 2003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념일 제정이 통과되어 2004년부터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정한 이유는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에서이다.

세계적으로는 1981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결혼기념일'이 부부의 날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기독교도들을 중심으로 결혼기념일 제정운동이 전개되었다. 한국에서도 1994년도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부부의 평등의식을 높이는 운동이 여성부와 여성단체 그리고 매스컴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평등부부 담론이나 민주적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운동이 부부의 날 제정의 밑거름이 되었다. 더욱이 최근 이혼율의 증가가 불완전한 부부관계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하나로 기념일을 제정하게 되었다. 어린이 날, 어버이날이 들어 있는 5월에 '부부의 날'을 보태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특별 기간으로 삼고 있다.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부부축제, 부부음악제가 열린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사랑 고백, 사랑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국가기관이 주도한 제1회 부부의 날 행사에서는 영호남 부부, 장수 부부, 남북 부부, 국제 부부 같은 이례적인 인연을 가지고 혼인한 부부들을 뽑아서 시상했다. 부부들끼리는 장미꽃을 선물하거나 외식을 하는 등 조촐하게 보내려는 부부들도 많았다. 부부의 날은 화목한 가정은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새삼 인식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비혼모 가정을 소외시키지 않는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늘어

나는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하고 포용해서 더 이상 소외를 느끼는 집단이나 가정이 없어야 한다.

참고문헌 | 한국의 여성과 남성(조혜정, 문학과 지성사, 1988),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이효재, 한국가족론, 여성한국사회연구회, 까치, 1990),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마르티나 도이힐러, 아카넷, 2003).
필자 | 함한희(咸翰姬)

성년의 날(成年 -)

정의 만 20세 된 젊은이들에게 일정한 의례를 통해서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다.

유래 성년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통과의례로 여겨 왔다. 특히 부족사회나 초기 국가사회에서의 성년식은 사회적 의미가 컸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성년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비로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우리나라 고대사회에서도 성년식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라는 기록은 당시 성년식의 절차와 내용을 말해 준다. 신라시대에는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광종 16년(965)에 태자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대목도 있다. 원복이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원나라의 복장이라는 뜻이지만, 당시 어른들의 평상복인 배자(褙子, 덧저고리)를 말하므로 태자에게 성인복을 입혔음을 뜻한다. 태자의 성년식을 거행해서 공식적으로 성년이 되었음을 알렸다. 조선 초기의 성년식은 양반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고려 말에 명나라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소개되어 사대부 계층에서는 주자가례에 따른 관혼상제 의식을 지키기 시작했다. 관례는 관혼상제의 첫 번째 의식이다.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례는 남자아이에게는 15세와 20세 사이에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리고 복건, 초립, 사모, 탕건을 씌워 주는 의식이었다. 관례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예절을 알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함을 알게 하였다.

관례를 치르는 연령은 보통 15세 이상이나 조선 중기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을 겪으면서 조혼(早婚) 풍습이 생겼다. 그때부터는 관례를 치르


1


2


3

〈성년의 날〉
1 삼가례(三加禮)
2 수자(授字)
3 문중 어른께 인사
경북 안동시 임하면 의성 김씨 청계종가 국립민속박물관

는 연령도 낮아져서 10세 전후에 치르기도 했다. 때로는 10세 전후의 아이들에게 관례의식을 치르지 않고 초립이나 복건을 씌우는 풍습도 생겼다. 그래서 '초립동'이란 말이 생겨났다. 관례는 원래 양반계층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천민들이 혼인을 하고도 탕건, 망건, 갓을 쓰지 못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례는 전해오는 동안 지역과 가문에 따라 조금씩 변모되었다.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개화사상이 퍼지면서 그 의미가 줄어들다가, 고종 32년인 1895년에 단발령이 내린 후로는 관례 의식이 사라졌다.

내용 전통시대의 성년식과 현대의 성년식은 기본 목적이나 의미는 같지만, 식의 절차와 내용은 크게 다르다. 조선의 관례를 중심으로 전통시대의 성년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가 15세가 넘으면 길일을 택해서 일가친척과 하객을 초청하여 일정한 절차와 의식을 올렸다. 이때 성인의 복장인 상투, 망건, 초립, 도포를 입고 아명 대신 관명(冠名)과 자(字)를 지어 주었다. 혼례 및 임관 자격과 향교나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받았다. 여자는 머리에 쪽을 지고 그 위에 족두리를 얹고 용잠을 꽂은 후에 성인이 될 수 있었다. 이 예를 치른 후에야 혼례를 할 수 있었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째 관문인 '관(冠)'이 바로 이 성년식을 말한다. 실제로 관례는 혼례절차에 포함시켜서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20세기 중반까지는 만 20세가 되면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 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 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에 밀려 전통적인 풍습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성년식이 거의 사라질 무렵, 국가에서는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전통 성년식을 부활시켰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 성년식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 줄 목적으로 1999년부터 표준 성년식 모델을 개발하였다. 여기에서는 전통 관례 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손님'을 모셔놓고 상견례(相見禮), 삼가례(三加禮), 초례(醮禮)를 거쳐 성년 선언으로 이어지는 의식을 한다. 1977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공포하여 이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하였다. 만으로 20세가 되면 예부터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었음을 마을 단위로 축하하는 의식을 치렀는데, 이러한 전통을 오늘날까지 계승하여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년의 날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성년의 날의 시작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따라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으나, 1975년에는 5월 6일로 변경하였다. 그 뒤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 지금까지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국가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의식을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특별한 기념식은 거의 하지 않는다. 단지 성년이 된 자녀에게 축하 인사나 선물을 하는 정도이다. 오히려 친구들끼리 성년식 행사를 갖는데, 장미 스무 송이를 선물하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최근에는 디지털카메라, 향수, 속옷 같은 것이 인기 선물 품목으로 꼽힌다.

인접국가사례 성년식은 고대사회에서부터 발달해 온 풍습으로서 각 사회마다 독특한 풍속이 있다. 성인식은 일반적으로 종교의례나 혼례식에 흡수되어 거행된다.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문화권에서는 종교적 의례로 성인식을 치른다. 이를테면 유태교에서는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아버지와 아들이 주고받는 '바 미치바'라는 성년식을 치른다. 천주교에서는 유아영세를 행한 곳에서 견진성사를 행하여 한 사람의 독립된 신자가 되었음을 축하한다. 아프리카의 성인식은 육체적 고행과 각종 시험이 뒤따른다. 많은 부족들이 얼굴이나 등에 상처를 내어 특별한 표식을 하거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시험도 치른다. 하마르족의 경우,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소년을 '아직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우클리(당나귀)라 부른다. 하마르족 소년들은 성인식을 거쳐야 이름을 얻는다. 남태평양의 여러 섬에서는 '미혼자 가옥'에 해당하는 공공건물을 지어 남자들이 2~3년 동안 합숙생활을 한다. 남자들만 모인 외딴 곳에서 젊은이들은 정신적인 인내와 함께 육체적 단련을 받는다. 이 성인식은 강한 생활력과 자립심을 키워주는 계기가 된다.

일본에는 성대한 성인식 전통이 남아 있다. 마을마다 '와까모노야'라는 청소년 합숙소가 있다. 청소년들이 합숙소에 들어가면 자기 집에 가지 않고 합

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결혼한다. 합숙제도는 없어졌으나, 합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대신 1월 15일을 성인의 날이라 하여 만 20세가 되는 남녀들이 이 날 성년식을 행한다. 1948년 제정된 성인의 날은 국민 공휴일로 매년 신궁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린다. 일반가정에서는 부모들이 20세가 된 자녀들에게 옷과 함께 아들에게는 지갑을, 딸에게는 핸드백을 선물한다. 그 안에는 재물운(財物運)을 기원하는 돈을 넣는다.

의의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생애의 통과의례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출생, 결혼, 장례 못지않게 성인식은 개인, 가족 그리고 집단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왔다. 개인적으로는 독립된 인격체가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구성원으로 영입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현대의 성인식은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성년식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는 목적도 있다. 또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성년식을 제정하는 데에는 젊은이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 朱子家禮,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77), 통과의례(아놀드 반 게넵, 전경수 역, 을유문화사, 1985).

필자 | 함한희(咸翰姬)

스승의 날

정의 매년 5월 15일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정한 국가기념일.

배경 스승의 날 행사는 1963년 대한청소년적십자중앙학생협의회(Junior Red Cross, 약칭 J.R.C.) 충청남도 강경여자고등학교 지부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강경여자고등학교 J.R.C. 단원들은 병환으로 오래 자리에 누워 계시는 선생님을 방문하여 정성껏 간호와 문병을 하고, 퇴직한 은사들을 찾아가 은혜에 감사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1963년에는 자신들의 활동을 공식화하기 위해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스승의 은혜를 가슴에 되새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은사의 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은혜 마음에새기고…
오늘 [illegible]日이자 스승의날

1964년 5월 17일에 개최된 전국청소년적십자중앙학생협의회 총회에서 5월 26일의 은사의 날을 정식으로 '스승의 날'로 정하기로 결의하고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그러자 1965년 대한교육연합회 청소년 윤리위원회에서는 스승의 날이 청소년 학생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정된 그 정신과 취지에 찬성하였으며, 협의한 결과 그 날짜를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다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서를 J.R.C.에 제출하였다. 1965년 4월 23일 제15차 J.R.C. 총회에서는 5월 15일을 다시 스승의 날로 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당시 각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에게 호소하여 제2회 스승의 날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스승의 날 행사는 각급 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그 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1974년 대한교육연합회에서 스승의 날 부활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승의 날 부활에 관한 여론을 조성해 왔다. 마침내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각종기념일에 관한규정'에 스승의 날이 포함되면서 국가기념일이 되었다.

내용 1982년부터는 스승의 날 기념식이 정부 주최로 열렸는데, 이때 교육공로자를 정부에서 포상하고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산업시찰의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각급 학교 동창회, 여성단체,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데, 특히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을 전개하여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제관계를 깊게 하는 한편, 은퇴한 스승 중 병

고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찾아 위로하기도 한다. 전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린다.

인접국가사례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배출한 위인의 탄신일을 국가기념일로 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금은 '대통령의 날'로 통합되었지만, 과거의 워싱턴 탄신일이나 링컨 탄신일, 현재의 마틴 루터 킹 목사 탄신일이 그 예이다. 대만에는 공자 탄신일이나 손문 탄신일, 장개석 탄신일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정 인물의 탄신일을 국가기념일로 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스승의 날은 비록 '세종대왕 탄신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충무공탄신일'(4월 28일)과 더불어 한국에서 특정한 인물의 탄신일을 기념일로 하는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이 두 위인을 한국인들이 특별히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문(文)을 대표하는 위인은 세종대왕, 무(武)를 대표하는 위인은 이순신이라는 사실이 국가기념일에도 반영되어 있다.

참고문헌 | 學校行事事典(행사교육연구회, 세명문화사, 1971), 국경일·법정기념일의 연혁(총무처, 1997).

필자 | 김민환(金玟煥)

어린이날

정의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 매년 5월 5일이며, 1970년 이래 2005년 현재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변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라는 이름을 걸고 5월 5일을 기념하기 시작한 최초의 해는 1923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미 1922년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의 사위이기도 한 방정환(方定煥)이 어린이의 고유 문화와 예술 활동을 진작시키며, 어린이의 인권의식을 기를 목적으로 3월 16일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23년 어린이날 선언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1921년에 결성된 천도교소년회가 3·1운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소년들의 민족의식을 배경으로 어린이운동을 시작하였으며, 1922년에는 불교소년회와 조선소년군이 모여 '조선소년운동협회'를 만들고 기념행사를 열기 시작했다는 의견도 있어 결국 20년대 초반의 민족의식과 어린이 인권의식 고양이 1923년 5월 5일 어린이날 선언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23년 5월 5일 발표된 어린이날 선언문에는, "어린이를 종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용하고",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연소노동을 금지하며", "어린이가 배우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가정과 사회시설을 보장할 것"과 같은 아동존중사상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소년)운동은 무산아동의 해방론과 같은 계급적 항일적 성격의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행사가 금지되는 등 탄압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운동단체의 내분이 겹쳐 20년대 말에는 어린이운동이 약화되어, 1931년부터는 일본측의 '유아애호주간(幼兒愛好週間)'으로 어린이날 행사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었으며, 그 성격도 어린이의 권리 차원이 아닌 육체적 건강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총독부의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주관하는 유아애호주간 행사는 어린이의 건강검진, 영양강습회 같은 계몽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날짜는 꼭 5월 5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그 즈음 일주일간에 걸쳐 진행되었



어린이날 국가기록원

다. 1945년 광복 이후는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으며, 1957년에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하였고, 1970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어린이헌장은 1988년 민주시민으로서의 지향을 담은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비롯하여 건강에 대한 권리, 즐겁게 놀 수 있는 권리 같은 기본가치는 1923년 어린이날 선언문의 아동존중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내용 매년 5월 5일에 정부와 어린이 관련단체 주관으로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리는데, 어린이헌장을 낭독하거나 모범어린이를 선발하고, 아동복지사업 유공자를 시상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청와대 기념행사에는 낙도나 오지의 어린이, 소년소녀 가장, 시설보호 어린이 같은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를 초청하여 위안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기념잔치, 체육대회, 글짓기대회, 미술대회 같이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 이날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노래(윤석중 작사)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이 해맑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 날 어린이는 각종 놀이시설, 공원,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날 어린이들은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고, 놀이시설 등에 놀러가서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그러나 점차 어린이날 행사가 상업화되어 백화점의 어린이용품 판매 증대를 위한 중요 이벤트가 되고 있다.

의의 일본에서는 유아애호주간이라는 이름으로 1921년 11월 오사카에서 먼저 시작했으며, 1926년 12월 전국적 행사로 커졌고, 다음 해부터는 5월 5일 단오절을 유아애호데이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애초 일본에서 어린이날 행사의 시작은 유아 사망률 저하와 어린이의 건강 증진 등 건강한 노동자와 병사의 양성과 같은 제국주의적 관심사와 맞닿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특색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1923년 어린이날 선언은 1924년 제네바 국제연합협의회에서 채택된 국제아동인권선언보다도 일년 앞섰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참고문헌 | 어린이운동의 역사(조철호, 동아일보, 1934.5.6), 한국신문화운동사(조용만, 정음사, 1975), 한국유치원교육사(이상금, 이대출판부, 1987),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김혜경,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필자 | 김혜경(金惠慶)

어버이날

정의 매년 5월 8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통적인 효사상의 미덕을 기리기 위해서 정한 국가기념일.

유래 및 제도화 전통적으로 효는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이며 윤리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가치관에서 본다면 어버이날을 별도로 지정하여 둘 필요는 없었다. 어버이의 은덕에 감사드리는 기념일이 제정된 배경은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어머니날을 제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아버지와 어른, 노인들을 포함하여 어버이날로 개칭한 것은 1973년의 일이다.

어머니날의 유래는 서양에서 비롯된다. 영국과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는 종교적 관습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1872년 보스톤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어머니날이 제안되었으나, 범국가적인 어머니날 제정 움직임은 필라델피아 출신 여성인 아나 자비스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1907년 모친의 2주기 추모식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머니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침내 1914년 미국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부터 정식 기념일이 되었다.



어머니날 국가기록원

우리나라의 어머니날도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하였다. 1930년 무렵부터 구세군 가정단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였고, 1932년에는 감리교 연합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하였다. 미국의 기독교 전통에서 시작된 어머니날이 유교적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에 뿌리내리면서 우리 고유의 어머니날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3년부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는 어른, 노인들을 공경해야 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기념일로 거듭나게 되었다. 어버이날이 제정된 초기에는 이 날을 전후해 일주일 동안을 경로주간으로 정하여 양로원과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어른 공경에 관한 사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 경로주간이 폐지되고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해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내용 어버이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각종 기념행사를 한다.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전달하며, 온 가족이 부모를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국가에서도 어버이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모범가정을 정하여 포상하며, 장한 어버이, 효자효부를 선발하여 상을 주고 격려한다. 이들은 훈격에 따라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으로 나누어 포상한다. 부상으로 일정액의 상금도 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효사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행사를 한다. 또 지역민의 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어버이날에 맞추어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열기도 한다. 이 날 가족 노래자랑, 합동 회갑연, 연예인 초대잔치를 비롯해 체육대회, 효도관광, 효행 사례집 발간, 가훈 갖기 운동 전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린다.

인접국가사례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6월 셋째 주 일요일은 아버지날로 정하고 있다. 영국이나 그리스에서는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사순절 기간 동안 부모의 영혼을 기리는 풍습이 있다. 서구의 기념일이 우리나라의 효사상과 결합하여 의미 있는 기념일이 되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母親節, 母の日]로 정하고, 아버지날[父親節, 父の日]은 셋째 주 일요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중국, 일본 모두 어머니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선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의의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범국민적 행사를 벌이는 것은 국가가 효사상, 경로사상 같은 전통적인 우리의 윤리규범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날은 전통적인 효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규범이며 문화적 가치임을 재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어버이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카네이션을 다는 의식은 미국의 기독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양의 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함께 유입된 이 기념일이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에서 유교적인 효사상과 결합되어 가장 전통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참고문헌 | 韓國의 孝思想(金益洙, 瑞文堂, 1977).
필자 | 함한희(咸翰姬)

5·18민주화운동기념일 (五一八民主化運動記念日)

정의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光州)와 전남(全南)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날.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1년 5월 18일 피해자 집단, 학생, 재야운동 세력이 망월묘역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한 것이 발단이었다. 국가는 이 추모행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가했으나, 5월 계승운동의 일환으로 꾸준하게 실행되어 마침내 1997년 5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배경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붕괴된다. 이를 틈타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집권이 가시화되었다. 민중운동 및 반(反)군부 세력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신군부의 집권으로 인해 더욱 후퇴하고 억압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1980년 5월 초에 절정에 이르러 서울을 비롯

하여 전국에서 집회와 시위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광주에서는 5월 초부터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의 주도로 시국성토대회가 연일 개최되었다. 학생들은 5월 14일부터 광주 도심으로 진출하였고, 시민들과 대규모 가두 정치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족민주화성회'로 불리던 이러한 집회와 시위는 5월 16일까지 계속되었다.

시위가 확산되어 가자 신군부는 5월 14일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집회와 시위를 진압할 계획을 현실화하였고, 17일 오후 7시에 공수부대 투입명령을 내렸다. 신군부는 5월 17일 밤 11시 40분에 '비상계엄이 18일 자정을 기해 전국으로 확대되었음'을 발표하는 한편, 전국에서 대학생과 재야인사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광주에서도 5월 18일 자정이 다된 무렵부터 십수 명이 광주 505보안대로 연행되었다. 그리고 제7공수여단은 전남대와 조선대에 계엄군으로 배치되어 학교에 있던 학생 112명을 연행하였으며, 언론사와 방송국, 비롯하여 광주 시내 주요 기관에 제31사단 군인이 투입되었다.

5월 16일에 개최된 집회를 해산하면서 약속한 대로 학생들은 18일 오전에 전남대 정문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전남대에 주둔한 계엄군은 학생들의 해산을 종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첫 충돌이 발생하였다. 계엄군의 진압을 피해 도심으로 진출한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계엄 확대와 계엄군이 자행한 만행을 알렸다. 제7공수여단에 이어 추가로 파병된 제11공수여단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진압봉을 휘둘렀고, 무차별 연행하였다. 이에 시민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계엄군에 맞섰고, 도심은 전쟁터로 변해갔다. 제3공수여단이 추가 투입되는 등 계엄군은 계속 늘어났고 발포까지 이루어져 사상자가 급증하였다. 시위대는 계엄군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무력에 맞서기 위해 전남지역으로 진출하여 무기를 획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일원으로 확대되었다. 무기를 획득한 시민들은 이른바 '시민군'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5월 21일 시민군은 계엄군을 후퇴시킴으로써 27일까지 '민중자치'가 실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시민군은 광주의 치안과 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다수가 도청에서 최후를 맞이하였다.

계엄군이 철수한 광주는 5·18수습대책위원회에서 시민학생민주투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가면서 죽음으로 확보한 성과를 지속시키고자 했다. 이들은 5월 26일까지 매일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민주주의의 사수를 위한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투사회보'를 비롯하여 다수의 홍보물이 발간되어 대안언론의 기능을 했다. 시민들은 시민군과 시위대에게 음식물과 생활용품을 기꺼이 제공하였다. 계엄군과 신군부의 지시를 받던 행정권력이 기능을 상실한 기간은 '시민들이 각자의 생명과 동료 시위대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생명과 완전히 동일시했던 절대공동체가 형성되었던 시기'였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충정작전을 개시하여 전남도청을 다시 점령함으로써 종결되었다. 2001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 218명, 행방불명자 363명, 상이자 5,088명, 기타 1,520명으로 총 7,200여 명에 이른다.



1


2

1~2 5·18 묘역
광주시 북구 망월동 심디스마

비록 5·18민주화운동은 비극적으로 종결되었으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을 쟁점으로 한 '5월운동'을 통해 계속되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0년 8월 6일)되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및 기념사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1995년 12월 19일)되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가해자 다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에도 5·18민주화운동의 청산작업에서 발생한 오류와 미흡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과거사 청산작업'을 위한 선례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 및 사람들의 활발한 교류의 구심이 되어 다른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

내용 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 개최하는 행사는 크게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기념행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관련 행사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국립 5·18묘지에서 개최하는 기념식과 광역시도 주관 하에 개최하는 지방 기념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식에는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3부 및 헌법기관의 주요인사, 국회의원, 장관, 차관급 관료, 5·18민주유공자, 유족, 5·18관련 단체 회원, 각계 대표, 공무원, 시민, 학생이 참석한다. 식순은 개식, 국민의례, 헌화·분향,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 기념공연, 시 낭송, 기념사, 기념노래 제창,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행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관련 행사는 해마다 특정한 대주제를 선정하고, 5월 한 달 동안 개최된다. 5월 행사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10여개 부문(기념정신 계승 행사, 시민참여 행사, 특별행사, 청소년 행사, 문화예술 행사, 국제연대 사업, 학술심포지엄, 기타 행사, 타 지역 기념행사, 전남지역 행사)으로 분류되는데, 40여개의 세부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행사는 5월 17일에 개최하는 추모제와 전야제, 20일에 개최하는 민주기사의 날, 27일에 개최되는 부활제이다. 그 밖에도 해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문화 및 국제연대 행사가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전국으로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6개 도시에서 행사가 개최되었다.

변천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활동은 사건이 종료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해마다 5월에 개최한 '5월제' 혹은 '5월행사'였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5월 18일 희생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망월묘역에서 추도식 또는 추모식이라는 이름으로 추모행사를 거행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추모행사를 열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5·18희생자단체와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매년 추모행사를 개최하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 차원에서 재평가되었고,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주시의회는 1996년 4월 30일 기념일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다. 광주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1997년 5월 9일 이 요구가 수용되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부터 5월 18일에 새로 조성된 국립 5·18묘지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거행되기 시작했다. 한편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기념일도 5월 18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년 전부터 제기하여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기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공식 명칭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흐름에 따라 몇 차례 바뀌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광주사태'로, 노태우 정부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되었다. 사건의 명칭에서 '광주' 이름을 배제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이 지역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이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시민 혹은 민주화운동 단체, 학계에서는 '광주민중항쟁' 또는 '5·18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일원에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장소로 국립 5·18묘지, 5·18민주공원, 5·18자유공원을 비롯하여 100여 개에 이르는 표지석, 안내표시판, 소공원이 조성되었으며, 5·18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나간채 엮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光州 五月 行事의 社會的 起源(정문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5·18은 끝났는가(학술단체협의회 엮음, 푸른숲, 1999), 달력 속에서 만나는 숨은 우리 날 찾기1(김선섭, 씨앤드씨그룹, 2000), 5·18민중항쟁사(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2001).

필자 | 정호기(鄭滸基)

재향군인의 날(在鄕軍人-)

정의 재향군인회가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것을 기념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향토방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제정한 날.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유래 및 제도화 1952년 2월 1일 부산에서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을 앙양하며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수호에 공헌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창설되었다. 1953년 11월 17일 이 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로 이름을 바꾸고, 1957년 1월 17일 대한민국참전전우회와 통합하면서 대한상무회(大韓尙武會)로 발족한 뒤,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다. 그 다음해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World Veterans Federation: WVF)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이사국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12일 재건총회를 거쳐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973년 3월 30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을 제정공포하면서 기념일로 정해졌다. 이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5월 8일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가 2002년 어버이날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념일을 10월 28일로 변경하였다.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날은 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인 회원의 권익향상과 국가발전, 사회공익 증진과 관련된 행사를 벌이는데, 특히 한국전쟁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비롯해 전후 세대들의 안보관과 국가관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접국가사례 미국에서는 재향군인의 날을 휴일로



재향군인의 날 국가기록원

지낸다.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휴전기념일이었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재향 군인과 전사자를 기리는 베터랑스데이(Veterans Day)로 행사를 치러왔는데, 1954년 6·25전쟁이 끝난 후 이날을 미국이 참전한 모든 전쟁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 날에는 버지니아 주 소재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리며, 미국 그 밖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 행사의 일부가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영령기념일(Remembrance Day)로, 영국에서는 11월 11일에서 가장 가까운 일요일을 제1, 2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기리는 영령기념 일요일(Remembrance Sunday)로 선포하였다.

참고문헌 | 재향군인회의 위상 소고(李貞完, 군사논단6, 한국군사학회, 1996), 재향군인회 50년사(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02).
필자 | 한철호(韓哲昊)

로즈데이(Rose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엘로우데이(Yellow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거북선축제(-祝祭)

정의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전라좌수영의 전통과 충무공 이순신의 구국정신을 창조적으로 이어받기 위해 펼치는 지역 축제. 여수시에서 주최하고 진남제전보존회에서 주관하며, 주행사장인 신항 2부두와 거북선공원, 선소, 진남체육관 등 여수시 일원에서 열린다.

유래 1967년에 시작되어 2005년에 제39회가 열렸다. 전남 여수는 이충무공이 1591년부터 1598년까지 8년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및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하면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구국의 성지이다. 특히 거북선을 최초로 만들어 해전사(海戰史)에 길이 남는 업적을 이룬 곳으로 유명하다. 여수 거북선축제는 이충무공의 구국정신을 승계하고 고유의 향토민속을 발굴 재연함으로써 지역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축제에서 내세우는 기치는, 이충무공의 애국정신과 호국 의지가 결집되어 거북선을 창제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여 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수에서 조상들의 슬기로 이루어진 향토민속문화를 개발하고 계승하여 민족문화 창달의 기틀을 삼는다는 것이다. 2005년부터 기존의 '진남제'라는 명칭 대신 '거북선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다.

내용 축제 기간은 3일이며, 축제 내용은 호국문화 선양, 향토의식 고취, 향토예술 개발이라는 3대 목적을 가지고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제39회(2005년) 때 첫날은 호국문화 한마당의 날, 둘째 날은 향토민속문화 한마당의 날, 셋째 날은 화합 한마당의 날로 주제를 정해 각종 행사를 벌였다. 전야제에 소동줄놀이, 마을별 농악, 전라우수영 출전 장면, 거북선 건조 과정을 재현한 가장행렬을 성대하게 연출하는데, 축제 분위기와 규모로 볼 때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향토민속문화를 재현하고 계승하기 위해 용줄다리기, 소동줄놀이, 소동패놀이, 거문도뱃노래, 풍어굿·풍어제, 오관오포 농악경연을 벌인다. 그리고 시민, 학생, 문화예술 단체의 참여를 통해 시민 화합을 다지며 좌수영 유적지 순례, 거북선 문화체험, 한노젓기 체험, 임란해상 유적지 순례를 통해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고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밖에 수륙영혼천도대제, 시조경창대회, 좌수영어린이태권왕, 시민 한마음 건강 걷기 대회, 전국남여궁도대회, 한시백일장, 택견 시연, 소년 이순신장군 선발대회, 시립국악단공연, 해상선박 퍼레이드, 해상불꽃 퍼레이드, 해군함정전시회, 특산품 및 풍물전시장이 있다.

의의 전라좌수영의 전통을 잇고 있는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축제라는 점이 남다르다. 해양문화의 전통을 수용하여 축제의 정체성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리고 대개의 지역축제가 최근에 급조된 데 비해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 전남향토문화백과사전(전라남도·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태학사, 2002), 제39회 진남제 여수거북선축제 계획서(여수시, 2005).
필자 | 이경엽(李京燁)

낙안읍성축제(樂安邑城祝祭)

정의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낙안민속마을 곳곳에서 펼쳐지는 지역 축제. 조선시대 민속 경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낙안읍성에서 전승되고 있는 축제이다. 매년 5월초에 열리며, 순천시와 순천낙안읍성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유래 낙안읍성축제는 토속적인 경관과 전통을 간직한 낙안읍성을 관광지로 널리 알리기 위해 1994년 처음 시작되어 2005년에 제12회 축제가 펼쳐졌다. 낙안읍성에는 91세대 260여 명이 살고 있으며, 고향의 향수를 자아내는 초가집 208동과 초가마을을 둘러싼 성곽 1,410미터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낙안읍성에는 조선 중기 임경업 장군의 비각, 객사, 동헌, 중요 민속가옥, 출입문인 낙풍루와 성내의 누각인 낙민루, 민속자료관 같은 문화재와 볼거리가 갖춰져 있다. 낙안읍성축제는 이런 조건을 활용해 성립되었으며, 현재는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2004년까지는 3일 동안 치러지던 축제기간이 2005년에는 5일로 늘어났다.

내용 낙안읍성축제는 낙안읍성의 성격과 관련된 행사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주요 행사는 낙안군수 부임행사, 비나리제, 민속놀이경연대회, 전국 대학생 전통·창작 풍물굿, 사물놀이 경연대회, 수문장 근무 교대식, 옹기 만들기, 새끼꼬기, 짚물공예, 시군 관광지 사진전시, 축하공연, 민속공연, 성곽 횃불행진, 민속놀이, 전통혼례식, 세계축제 한마당, 전통풍자극, 장타령, 관광객 줄다리기, 관광객 장기자랑이 있다. 제12회 축제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 중기 민초들의 삶 체험 여행'이란 테마로 5일 동안 사또의 하루, 나도 임경업, 조선 5일장, 민초들의 가락, 인생역전이란 주제로 구성되었다. 전국 미혼자 전통혼례, 어린이 옛 동요 경연, 판소리 경연을 비롯하여 성곽돌기 횃불축제, 달집태우기 소원풀이, 불꽃놀이, 낙안읍성 경점의식(수문군 교대의식) 행사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체험 행사로 전통도예, 짚물공예, 떡메치기, 대장간, 옛생활도구 전시, 효행교실, 길쌈 같은 옛생활 체험마당이 마련되었으며, 순천대표음식마당, 봄꽃전시관 같은 특별행사, 옥사마당, 관아마당, 장터마당이 제공되었다. 또한 체류 관광객을 위해 시내 중심과 낙안읍성에서 야간 행사를 준비하여 관광체험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위의 명소는 고인돌공원, 송광사, 선암사, 주암호, 왜교성이 있고, 지역 특산물은 작설차, 사삼주, 낙안배, 송광도자기, 매실, 영지버섯술이 있다.

의의 지역 축제를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민속마을에서 축제가 펼쳐진다는 점이 남다른 부분이다. 지역 축제를 관광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문화활성화의 동력이 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 順天市史 -문화·예술편-(순천시사편찬위원회, 순천시, 1997), 전남향토문화백과사전(전라남도, 2002).

필자 | 이경엽(李京燁)



동학혁명기념
민주일보 1947년 2월 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제 (東學農民革命記念祭)

정의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한 문화행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는 문화행사로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정신이 온 국민의 정신적 지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역사 체험마당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기르게 한다.

유래 1963년 전라북도 정읍 황토현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동학란'을 '혁명'으로 격상된 명칭으로 사용하고 최초의 기념물을 세웠다. 1966년에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를 창립하여 백산 봉기일(양력 1894년 3월 21일)에 제1회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를 정읍농고에서 개최하여 가장행렬, 마라톤, 학술강연이 이후 1971년에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는 황토현전승일(양력 1894년 4월 7일) 4월 7일로 변경하여 진행하여 오다가 1981년 제14회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부터 정읍군에서 주관하였다. 1995년 제28회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부터 다시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 주관, 민간 주도로 환원되었으며, 1998년 제31회 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용 2005년 제3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는 '자유·평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국가기록원

등의 함성으로 평화·상생의 메아리'를 주제로 2005년 5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다. 정읍시 황토현과 정읍시 곳곳에 있는 혁명 유적지와 둔치를 중심으로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교육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행사는 황토현 전승기념공연 및 기념식, 동학농민군 천도제, 동학농민혁명기념 횃불행진, 구민사 및 무명농민군 위령탑 참배, 신사발통문 만들기 대회,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하프마라톤대회, 인형극, 황토현백일장·사생·서예대회가 열렸다.

2005년 현재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는 전국에 20여 개 이상 있으며, 이 단체들이 동학농민혁명 관련 행사를 다양하게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서 이루어진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의 동학농민활동과 관련한 행사가 이루어진다. 전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농민군의 전주성 입성과 집강소와 관련된 행사가 매년 열린다.

의의 1894년 고부 농민 봉기를 시발점으로 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항쟁으로서 근대사회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1차 농민항쟁은 자유민권을 위한 반봉건 항쟁이었으며, 2차 농민항쟁은 일본침략군을 이 땅에 몰아내기 위한 민족자존의 반외세 항쟁이었다. 지배, 예속 관계에 기초한 봉건적 사회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평등, 자유, 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의 수립을 목표로 한 동학농민혁명은 결국 보수 양반계층의 연합세력, 그리고 이들이 끌어들인 외세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맥은 활빈당 운동, 영학당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항일 의병항쟁과 3·1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강제진압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기까지 민간의 노력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이끌어 왔다.

참고문헌 | 동학농민혁명기념문화제 평가보고서(갑오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01), 정읍지역축제의 개선방안(전북전통문화연구소, 2003).
필자 | 이종진(李鍾振)

밀양아리랑대축제(密陽 – 大祝祭)

정의 매년 4월말에서 5월초에 나흘 동안 남천강변 야외공연장과 시내 일원에서 열리는 경상남도 밀양의 대표적 축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선 사명대사의 충의정신과 조선시대 성리학의 태두인 점필재 김종직의 지덕정신, 그리고 한국 여성의 지조와 정절의 표상인 아랑낭자의 정순정신을 기리고,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래 밀양아리랑대축제는 2005년에 48회를 맞는다. 1957년 10월 제1회 밀양문화제를 시작으로 매년 행사를 하다가 1963년에 '아랑제'를 처음 열게 되어, 이때부터 봄(4월말~5월초)의 아랑제와 가을(10월)의 밀양문화제로 이원화하였다. 1968년에 이르러 두 축제가 밀양아랑제로 통합되어 1999년까지 30여 년 동안 진행되었으나, 유림과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단체들이 아랑에 대한 제사를 문제 삼고, 지역민 축제에 특정 인물의 제의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명칭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종교계의 의견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부터 밀양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 후 2003년까지 이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구별되지 않고, 밀양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문화제와 아랑제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정하고, 2004년부터 이 이름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다.

내용 축제는 나흘간 펼쳐진다. 첫 번째 날은 중요무

형문화재 초청공연으로 축제 분위를 한층 드높이고, 표충서원(충의불씨채화), 예림서원(지덕불씨채화), 아랑사당(정순불씨채화)에서 고유제를 지낸 뒤, 세 곳에서 채화한 불씨를 봉송하여 단군성조를 모신 천진궁에 봉헌하는 고유제를 지낸다. 또한 남천강변에서는 사명대사의 평양성 탈환을 재현하는 행사가 불꽃놀이와 함께 화려하게 펼쳐진다. 둘째 날은 전날 천진궁에 봉헌한 불씨를 전년도에 선발한 다섯 명의 아랑규수들에게 넘겨주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어서 성화를 실은 꽃차행렬과 사명대사 승장행렬, 점필재 사림행렬, 고적대, 취타대, 읍면동 풍물패 등 시민과 관광객 1,500여 명이 한데 어우러져 대규모 행진을 하며, 서막식장에 도착해서 성화대에 점화하는 것으로 아리랑대축제의 막이 오른다. 이 날 행사장 곳곳에서 아랑규수선발대회, 한시·한글백일장, 시민바둑대회, 웅변대회, 휘호대회가 열린다. 셋째 날에는 밀양백중놀이를 위시한 무형문화재 단체들의 길놀이를 벌인 다음 남천강 둔치에서 무안용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 법흥상원놀이, 작약산영산재 등 밀양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민속놀이판을 펼쳐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 즐긴다. 마지막 날에는 밀양문화제의 대표 행사인 국악한마당을 열고 아랑대관식을 벌인다. 아울러 시민화합 한마당을 열어 "하나로 미래로 번영하는 밀양"이라는 불글씨[火書]에 점화함으로써 축제의 막을 내린다. 부대행사로 영호남 농특산물 직거래장, 공예품 전시회, 서도 전시회, 미술 전시회, 우리농산물 맛자랑 경진대회, 팔도풍물시장이 펼쳐진다.

의의 지역과 관련된 유교와 불교, 그리고 전통신앙의 상징적 인물을 축제의 인물로 내세우고 풍성한 민속공연을 제시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며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축제이다.

참고문헌 | 밀양아랑제 40년사(밀양아랑제집전위원회, 1999), 아랑전설의 축제화 양상과 그 사회 문화적 의미(김은정,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 한양명(韓陽明)

춘향제(春香祭)

정의 양력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전라북도 남원시 광한루와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 춘향전(春香傳)의 주인공인 '춘향'의 정절과 사랑을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의 하나로서 행사 기간 동안 춘향묘 참배, 춘향 제향, 창극 춘향전, 전통길놀이, 춘향선발대회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역사 춘향제는 1931년 6월 20일(음력 5월 5일, 단옷날) 남원의 지방유지를 중심으로 남원사람들이 뜻을 모아 광한루원 동편에 춘향사를 준공하고 권번의 기생들이 사당에서 춘향제사를 지냄으로써 시작되었다.

춘향제사는 제일(祭日)을 춘향과 이도령이 광한루에서 처음 만난 5월 5일 단옷날에 맞추어 지내오다가 1934년 제4회 때부터 단오 무렵 분주한 농번기를 피해 춘향의 생일인 음력 사월 초파일로 바꾸어 지냈다. 이후 1999년 제69회 때부터 개최 시기를 양력으로 고정하여 매년 5월 5일에 행하고 있다.

내용 일제강점기에 춘향제사는 엄숙한 유교식으로 한복을 차려입은 전국 각지의 권번에 소속한 대표급 기생들이 제관을 맡고, 뜻있는 남원의 유지들, 판소리를 좋아하는 국악인들이 함께 하는 형식으로 지냈다. 제주는 줄곧 남원 권번의 수기 최봉선이 맡았고, 초기의 제사비용은 제사에 참여한 제관들의 헌금으로 충당하였다. 이는 1949년 제19회까지 이어지다가 1950년부터 남원군에서 제례를 주관하면서 춘향제사는 그동안의 단순한 제례에서 향토문화제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곧 그동안 춘향제사의 제관을 맡았던 기생들 대신 남원 지역 여고생들이 제관과 제원이 되고, 명창대회와 춘향뽑기, 한시백일장 행사가 곁들여지면서 춘향제사는 남원 향토문화제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춘향제사 외에 다양한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 춘향제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무대가 따로 없어 광한루 경내에 멍석을 깔고 남원 명창들이 춤과 노래를 공연하는 흥겨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춘향제는 1950년대까지는 주로 광한루 주변에서만 행해졌다. 그러나 1962년 전라북도에서 직접 춘향제를 주관하게 되었고, 관련 행사도 광한루를 벗어나 시내 중심가 여기저기로 확대되었다. 이를 계기로 춘향제는 차후 행사 경비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남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하였다. 이후

1982년 남원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춘향제는 다시 남원시 주관으로 1985년 제55회 때까지 개최되었다. 그동안 관(官) 주도의 향토문화제로 발전해 온 춘향제는 1985년 사단법인 춘향문화선향회가 창립됨에 따라 1986년 제56회 때부터 선양회가 주관하는 민간 주도의 행사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가 확산되자 남원시는 춘향제를 '춘향과 국악의 고장, 남원'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기획하였다. 여기에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열어 1998년부터 춘향제를 사랑을 테마로 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취지 아래 한국의 대표 축제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와 남원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춘향제는 춘향과 관련된 행사와 국악 행사를 주축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첫날 춘향묘 참배와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를 시작으로 등불행렬, 개막시가행진, 춘향제향, 춘향사랑길놀이, 민속씨름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춘향그네뛰기, 춘향국악대전, 국악대향연, 사랑의 영화제, 우리옷의 향기, 전통혼례식, 밀양백중놀이, 춘향선발대회가 열린다. 상설 행사로는 창극춘향전, 사랑캐릭터상품전, 사랑의 퍼포먼스, 코미디춘향전과 또랑광대 페스티벌, 사랑의 맹세 타임캡슐, 전국춘향사진촬영대회, 미꾸라지잡기체험 행사가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사랑의 광장, 춘향 테마파크, 춘향예술회관 광장, 요천둔치 같은 남원시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야제와 춘향사랑길놀이 같이 화려한 행사를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전국적 규모의 행사를 늘리는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부터이다. 또한 남원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재천년 사랑의 남원' 이미지 창출과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춘향제를 민족 정서에 맞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로 자리 매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는 남원시장을 춘향제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외부전문가를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춘향제를 문화상품으로 공고히 하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의의 춘향제는 75년이라는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남원 사람들은 춘향제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고 공동체성을 확인하며, 문화적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춘향 관련 행사와 국악 행사들이 많다. 이러한 배경에는 춘향제가 남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흔적을 담아내고 지역민의 공동체성을 토대로 생겨났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 春香祭60年史(春香文化宣揚會, 1992), 南原의 名勝과 古蹟(남원문화원, 1994), 전북의 축제(이정덕 외, 신아출판사, 2000), 民俗祝祭의 文化觀光商品開發 戰略에 관한 硏究 -南原 春香祭를 中心으로-(金永晩, 全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필자 | 추명희(秋明希)





1~2 춘향제
전북 남원시 이석홍





六月

유월

유두 무렵에는
참외와 수박 같은 햇과일이 나기 시작하여
천신제 제물로 올린다.
햇과일과 밀음식을 사당에 진설하여
유두제사를 지내고
성주를 비롯한 가신(家神)에게 고한다.
밀음식으로는 국수나 밀전병이 있는데
특히 유두국수를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장수(長壽)한다는 말이 있다.
논이나 밭에서는
풍년을 비는 용제(龍祭)
또는 밭제를 지내기도 한다.



여름 풍경
강원도 인제군 원통 무경

6월(六月)

개관 12간지를 기준으로 할 때 6월은 여덟 번째 달로서 미월(未月), 계하(季夏), 복월(伏月), 혹염(酷炎) 혹은 미끈유월이라 한다. 역법(曆法)으로 보아 6월은 양기(陽氣)를 바로잡는 달이며, 만일 양기를 바로잡지 못하면 음기(陰氣)가 성하여 만물을 상하게 하는 달이라 하였다. 실제로 6월은 무더운 햇볕으로 만물을 무성하게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장마철에 습기가 차서 만물을 썩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6월을 썩은달, 액(厄)달이라고도 한다.

절기 6월은 24절기 가운데 소서(小暑)와 대서(大暑)가 들어 있고, 무더위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한 초복(初伏)과 중복(中伏)이 들어 연중 가장 더운 때이다. 그러나 참외, 수박 같은 과일과 채소가 풍성하고 녹음이 울창한 계절이기도 하다. 소서 때부터는 한반도에 장마전선이 걸쳐 있어 자주 장맛비가 내린다. 소서는 양력으로 7월 5일 무렵에 들며 더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날이다. 대서는 양력 7월 23일 무렵에 들며 더위가 기승을 부림을 알리는 날이다.

24절기 외에 더위를 체감하게 하는 날이 초복과 중복이다. 6월은 밭작물을 수확할 때여서, 이를 기리는 천신제(薦新祭)를 지낸다. 특히 유두에는 유두천신을 하고 논밭에서 용신제를 지내는데, 복날에 용신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반면 6월은 썩은 달이어서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유두(流頭) 유두는 6월을 대표하는 보름 명절이다. 농경국가에서 보름달은 농사의 풍요와 관련하여 중시하였는데 우리나라에는 정월 대보름과 6월 유두, 7월 백중, 8월 추석에 차례의 보름 명절이 있다. 오늘날에는 추석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통사회에서는 다른 보름 명절도 각별한 절일이었다.

유두는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약자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하면 부정을 가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동류수(東流水)에 머리를 감는 까닭은 동방(東方)이 청(靑)으로 양기가 왕성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물로 몸과 마음을 통해 정화하는 날이 유두이다.

유두는 신라 때부터 있어 온 명절이다. 고려 명종 때 학자 김극기(金克己)의 문집에는 "경주 풍속에 6월 보름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을 씻어 버린다. 그리고 액막이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 계음(禊飮)을 유두연(流頭宴)이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명종 15년에 왕이 시어사(侍御史), 환관과 함께 유두음(流頭飮)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밖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각종 문집에는 유두의 서정을 읊은 시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유두에는 동류수에 머리를 감고 모든 궂은일을 털어 버리는 불제(祓除)를 지내고 음식을 차려 먹으며 놀이를 했다. 그러나 단오나 추석 같이 공동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인들은 이 날 약수물로 머리를 감으면 부스럼을 앓지 않는다 하여 약수터를 찾았다. 또한 산이나 계곡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물밑에서 물맞이를 했다. 약수터에서 '노구메'를 드리는 일도 많았다. 노구는 놋쇠로 만든 작은 솥을 말하며 메는 밥을 이르니, "노구메 드린다."는 것은 노구솥에 밥을 지어 올리며 기원한다는 뜻이다. 가정에서는 밀전병을 장만하여 유두천신을 하기도 했다. 이 시기는 밀과 같은 밭작물이 풍성하게 나올 때여서 잡곡천신을 하는 것이다. 원래 천신이란 계절에 따라 새로 나는 각종 음식물을 먼저 신위(神位)에게 올리는 제사를 일컫는데 천신 또는 천신제라고도 한다.

유두 무렵에는 참외, 수박 같은 햇과일이 나기 시작하여 천신제 제물로 올린다. 햇과일과 밀음식을 사당에 진설하여 유두제사를 지내고 성주를 비롯한

가신(家神)에게 고한다. 밀음식으로는 국수나 밀전병이 있는데, 특히 유두국수를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장수(長壽)한다는 말이 있다.

논이나 밭에서는 풍년을 비는 용제(龍祭) 또는 밭제를 지내기도 한다. 경북 안동에서는 유두날 아침 국수를 만들어 수박 밭고랑에 뿌린다. 이는 수박의 줄이 국수처럼 쭉쭉 뻗어 나가라는 의미이다. 또 수제비를 해서 참외밭에 뿌려 둔다. 이 역시 수제비 같은 참외가 주렁주렁 열리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고사를 지낸 뒤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밭제를 지낼 때에는 밭작물의 수확을 기념하며 팥죽을 장만하는 가정도 있다. 이 밖에도 유두를 각별한 명절로 여겨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신자도 있다.

유두날 날씨나 이 날의 천둥소리를 듣고 그 해 일을 점치기도 한다.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 있는 일론마을(금대리)에서는 유두날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 머루와 다래가 흉년든다는 말이 있다. 유두날 우레소리가 일찍 들리면 서리가 일찍 내린다고 하는데, 이때의 우레소리를 유두뢰(流頭雷)라고 한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 영당마을에서는 유두날 천둥이 치면 "유두하네비 운다." 하며 이 천둥소리를 듣고 그 해 농사를 점쳤다. 유두하네비가 일찍 울면 이른 곡식이 풍년이고 늦게 울면 늦은 곡식이 풍년이라고 점친다.

유두에 내리는 비를 유두물 또는 유두수(流頭水)라고 한다. 유두물을 좋게 생각하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이 있다. 전자의 경우, 유두에 비가 오면 농사에 길하다고 한다. 특히 비가 오면 깨 모종을 할 수 있으므로 유두물을 농사에 이로운 물로 여기며, 가물면 유두까지 모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유두 전부터 유두물을 기다린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유두날 비가 오면 "유두물한다." 하고 비가 많이 오면 "유두물난리났다." 하여 꺼린다. 6월은 모내기를 끝내고 잘 크기만을 기다리는 시기로 날씨가 맑아야 곡식이 잘 자란다. 특히 유두날 내리는 비로 인해 논둑이 터질 수도 있으므로 농사에 이로운 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유두 무렵이 더운 때인데다 장마철이어서 자칫 큰물이 나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꺼린다. 이 밖에도 유두물이 많으면 그 해에 비가 많을 거라고 예견한다.

삼복(三伏) 6월에는 초복과 중복이 들어 있으며 말복은 대개 7월에 든다. 이 세 복날을 삼복이라 한다. 초복은 하지 후 셋째 경일(庚日)이며, 중복은 넷째 경일, 말복(末伏)은 입추 후 첫 경일인데 이를 통틀어 삼복이라 한다. 유두는 신라 때부터 명절이었지만 후대에 와서는 복날 복놀이가 더 성했다. 조선 헌종 때의 학자 정학유(丁學游)가 지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도 "삼복은 속절(俗節)이요, 유두는 가일(佳日)."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미 예전부터 복날은 절일이었던 듯하다. 중국에서는 진덕공(秦德公) 2년(679)에 처음으로 삼복제사를 지냈는데, 개를 잡아 사대문(四大門)에 매달고 충재(蟲災)를 방지하였다는 내용이 전해온다. 따라서 삼복은 중국에서 유래된 속절로 짐작된다.

경일과 경일 사이는 열흘이고 복날은 10일마다 오는데, 입추가 늦게 들어서 경일을 하나 건너뛰게 되면 20일 만에 말복이 온다. 이를 '월복(越伏)'이라 한다. 삼복 기간은 여름철 가운데 가장 더운 때여서 '삼복더위'라 한다. 원래 경(庚)은 오행설에서 금기(金氣)에 해당되며 가을 기운이다. 복은 여름의 화기(火氣)를 두려워하여 엎드려 감춘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이다. 따라서 삼복더위란 멀리서 서서히 밀려오려던 가을 기운이 불같은 더위에 녹아 아무소



오늘은 유두날
경향신문 1957년 7월 12일

리도 못하고 잠복하는 날이란 뜻이다.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 곳곳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복놀이를 즐긴다. 이를 '복달임(복다림)'이라고 한다. 특히 복더위를 피해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야외로 나가 시원한 냇물에 발을 담그며 몸을 식힌다. 이를 '탁족놀이'라고 했다. 유두에도 탁족놀이를 즐기지만 복날의 놀이는 더욱 성했다. 탁족(濯足)은 글자 그대로 "발을 씻는다."라는 뜻인데, 이는 세속을 벗어난다는 의미도 지닌다. 탁족회(濯足會)라 하여 지난날에는 여름철에 산수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발을 씻고 노닐던 선비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때 시를 지어 읊으며 운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는 물놀이의 성격이 한층 강해졌다.

유두 때와 마찬가지로 복날에도 약수터를 찾거나 폭포에서 물맞이를 한다. 이 날 해변에서 모래찜질을 하기도 한다. 전남에서는 삭신이 아프거나 신경통이 있는 사람이 이 날 모래찜질을 하면 약이 된다.

복날 무렵이면 한창 더울 때여서 원기를 회복하는 음식을 먹으며 이열치열로 열을 다스리기도 한다. 우선 더위를 피해 물가를 찾아 천렵(川獵)을 하고, 잡은 물고기로 국을 끓여 먹으며 더위를 피한다. '복죽'이라 하여 팥죽을 쑤어 먹는데, 전남에서는 복날 팥죽을 먹으면 논[畓]이 생긴다는 속설이 있다. 초복에는 나락이 검으라고 팥죽, 말복에는 나락이 패라고 흰죽을 먹기도 한다. 복죽과 함께 복수제비라 하여 생선탕을 먹는데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민어탕이다. 호박을 큼직큼직하게 썰어 넣고 얼큰하게 끓인 민어탕은 복날의 시절식이다. 육개장 역시 이 날 제 맛을 낸다.



물놀이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육개장은 쇠고기 살코기를 찢어서 개장국처럼 끓인 것이다. 원래 복날에는 개장국을 일미로 여기는데, 이를 꺼리는 사람은 육개장을 먹는다. 개장국은 비린 냄새가 나므로 부인들이 주방에서 다루기를 꺼리고 특히 부정탄다고 하여 먹지 않는 가정이 많다. 특히 불자(佛者)들은 절대 금하는 음식이다. 이 밖에도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먹고 참외와 수박을 깊은 우물에 넣어 차게 해서 먹기도 한다. 닭백숙에 마늘을 많이 넣는데, 전남에서는 이를 '마늘계'라 한다. "마늘계 세 마리만 해먹으면 겨울에 감기가 안 든다."라는 말이 있다.

유두에 용왕제를 지내지 않는 곳은 보통 복날에 지낸다. 이를 특별히 복제사라 일컫는다. 유두고사와 마찬가지로 떡을 해서 논바닥에 묻고 그 위에 깃대를 꽂아 둔다. 초복, 중복, 말복에 걸쳐서 복제사를 지내는 마을도 있다. 초복에는 수박밭에서 국수로 제사를 지내고, 중복에는 조밥으로, 말복에는 떡과 수제비로 제사를 올리며 작물의 성장에 따라 제물(祭物)을 달리 쓰기도 한다.

강원도에서는 논멕이기라 하여 마을에 따라 초복이나 삼복 중 하루 또는 초복, 중복, 말복 모두 논이나 밭에 나가 나뭇가지에 흰 문종이로 깃발을 달고 전을 부쳐 기름 냄새를 풍기고 제사를 지내면서 풍농을 기원했다. 이는 유두날 지내는 농신제와 흡사하다.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금당실)에서는 초복날 용지(용제)를 지냈다. 벼가 제일 잘 자란 논 한복판에 버드나무를 꺾어 그 위에 배추와 미나리적을 꽂아 두는데, 이 버드나무를 '용지대'라 일컫는다.

함경남도 북청에서는 주부들이 삼복에 팥을 넣은 찰밥을 지어 고사를 지냈다. 밭에 나가 상 위에 팥찰밥과 정화수를 올려놓고 밥에 젓가락을 세 개 꽂는다. 절을 세 번 하고 소지(燒紙)를 올린 후 밥을 사방에 뿌리면서 "고시레!" 하고 외친다. 이를 밭제라 한다.

복날이나 유월 중의 날씨를 보고 그 해 운수나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전남에서는 복날 비가 오면 대추와 다래에 좋다고 여긴다. 농가에서는 복날의 비를 농사비라 하여 비 오기를 고대한다. 농사비가 와야 그 해 풍작을 기대할 수 있다.

점복 농가에서는 오뉴월에 오는 비로 그 해 시절의

풍흉을 판단하였다. "오뉴월 장마는 개똥장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장마가 거름이 되는 개똥처럼 농사에 이롭다는 뜻이다. 또 김맨 뒤에 오는 비를 '서두우(鋤頭雨)'라고 하는데, 이 날 뇌성이 이르고 늦은 것으로써 서리 기후를 증험하였다. 그 밖에도 공기가 맑고 먼 산이 가까이 보이면 큰 비가 오고, 엷은 안개가 끼어 흐리면 가문다고 예측한다. 아침노을이 뜨면 비가 오고 저녁노을이 뜨면 날이 가물고, 아침노을이든 저녁노을이든 꺼멓게 변하면 곧 비가 온다고 한다. 또 은하수에 작은 구름이 생겨서 은하수를 따라가면 곧 비가 온다. 이 밖에도 달 근처에 별이 가까이 있으면 비가 온다고 한다. 개미나 쥐가 옮겨 가면 홍수가 진다.

전북 진안군 부귀면 회구룡마을에서는 6~7월에 들에 나가서 잎이 넓은 피풀을 보고 장마 오는 횟수를 점친다. 피풀의 마디가 많으면 장마가 여러 번 지고 마디가 적으면 장마가 적게 진다고 한다.

6월 중 동쪽에 무지개가 뜨면 비가 많이 오고 서쪽에 뜨면 가물 것이라고 예측한다. 여름철 아침에 안개가 산허리에 끼었다가 곧 벗겨지고 해가 붉은 빛을 발하면 그 달에는 가물고, 잔잔하다가 진시(辰時, 7시~9시)에 갑자기 바람이 일어도 가물며, 회오리바람이 일어 남(南)으로 나가면 가문다고 믿는다. 섬사람들은 여름철에 남풍이 불면 비가 오고 동풍이 불면 큰 비가 오며 서풍이 불면 날이 가문다고 생각한다.

달무리를 보고 운세를 점치기도 한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에서는 달무리가 자주 지면 그 해 바람이 많이 불고 날이 궂다고 한다.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에서는 달무리가 달에서 가깝게 지면 시절이 좋고 멀리 지면 좋지 않다고 하고, 고촌리에서는 반대로 달무리가 달에서 멀리 지면 시절이 좋다고 한다.

뇌성(雷聲)으로 그 해 일을 점치기도 한다. 6월 엿샛날 새벽에 천둥치면 풍년이고 저녁에 천둥치면 흉년이다. 오뉴월 뇌성이 심하면 세상이 태평하지 않거나 흉년이 든다고 꺼린다. "6월에 치는 첫 천둥에 서울 양반 망건 벗어진다."라고 한다. 이는 쓰고 있던 망건이 벗겨지는 것이므로 서울 양반네가 망함을 빗댄 말이다. 오뉴월의 천둥을 꺼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벼락 예방법도 있다. 부산 강서구와 기장군 일대에서는 여름철 집에 벼락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를 태워 연기를 내거나 담배를 많이 피운다.

바람으로 날씨를 예측하기도 한다. 6월에 맞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샛바람이 불면 큰 비가 오고 갈바람이 불면 날이 가문다고 한다. 또 6월에 갈바람이 불면 좋고 샛바람이 불면 안 좋다고 한다.

금기 6월은 좋지 않은 달로 여겨 흔히 썩은달, 액달, 언짢은달이라고 한다. 이 달에는 집안의 불개미 집조차 허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며, "앉은 방석 이사도 안 간다." 또는 "앉은 방석 움직이지도 않는다."라고 할 만큼 매사에 조심한다. 요즘도 가리는 가정에서는 유월에 이사를 하지 않는다. 이사를 하면 사람들끼리 잘못 지내는 등 좋지 않다고 믿는다. 현실적으로도 무더운 한여름에 집을 옮기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닐 뿐더러 후유증을 앓을 수도 있어 피할 수밖에 없다. 또 유월은 악달 또는 액달이라서 문병을 가지 않는다. 문병을 가게 되면 문병 간 사람이 아프거나 환자의 병이 잘 낫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그 밖에 복날에는 아이들이 목욕하는 것을 금한다. 이 날 목욕하면 몸에 살이 안 오른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초복에 목욕을 했으면 중복과 말복에도 꼭 목욕을 해야 된다. 6월의 무더운 여름에는 소가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미리 소의 목둘레에 붉은 헝겊을 매달아 예방한다. 역시 예방으로 소에게 황톳물을 칠하기도 한다.

전남에서는 6월 유두일 오전에 들에 나가지 않는다. 이 날 용신(龍神)이 모든 곡식을 여물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면 방해가 된다고 해서 들일까지도 삼간다. 또한 유두에 논밭에서 수확량을 한정(限定)해서 기농(祈農)하는 말을 절대로 삼가기도 한다.

구비전승 "6월 개띠는 잘 산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6월에 낳은 사람은 유복하다는 속설에서 나온 말이다. "6월 장마에 돌도 큰다."라는 속담도 있다. 6월 장맛비가 올 때에는 들엣것이 매우 잘 자라므로 이르는 말이다. "6월 저승이 지나면 팔월 신선이 온다."라는 속담도 있다. 한창 더운 6월에 죽을 고생을 하여 농사를 지은 이의 추수의 기쁨을 이르는 말이다.

현대세시풍속 양력 6월의 기념일로는 6·25사변일, 현충일 등이 있으며, 지방축제로 강릉단오제, 법성포단오제, 아우내단오절민속축제, 옥포대첩기념제전, 평해남대천단오제, 현산문화제 등이 있다. 또 이 달의 현대세시로 머그데이(Mug Day)와 키스데이(Kiss Day) 등이 있다.

참고문헌 | 農家月令歌, 東國歲時記, 俗談事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韓國歲時風俗記(姜舞鶴, 東湖書舘, 1981),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유만공 원저, 임기중 역주, 집문당, 1993), 北韓民俗 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한국세시풍속 I -1970년대~1980년대 조사자료-(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김명자(金明子)

계하(季夏)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늦여름을 가리킨다. 이 밖에 차월(且月), 계월(季月), 복월(伏月), 만하(晩夏), 상하(常夏), 재양(災陽), 소서(小暑), 유월(流月), 형월(螢月), 임종월(林鐘月), 미월(未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차월은 『이아(爾雅)』「석천(釋天)」에 나오는 이름이고 계월은 원래 각 계절의 끝 달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계하는 여름의 마지막 달이라는 뜻이다. 복월은 삼복이 든 달, 만하는 늦여름, 상하는 언제나 더운 여름, 재양은 양의 기운이 다 타버린 달, 소서는 소서가 든 달, 유월은 유두가 든 달, 형월은 반딧불이의 달(『예기(禮記)』「월령(月令)」에 따르면 "이 달에는 썩은 풀이 반딧불이 된다."라고 한다), 임종월은 12율 가운데 임종에 해당하는 달, 미월은 12지(支) 가운데서 미(未)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이다.

참고문헌 | 詩經, 禮記, 爾雅, 夏小正.
필자 | 신하령(申河令)


遯卦 『周易諺解』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구월(具月)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온갖 과일과 채소가 풍성해지고 밀과 보리도 먹을 수 있는 시기라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뜻으로 구토월(具土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이때가 되면 일년 농사의 파종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들판에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고 모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다. 『광재물보(廣才物譜)』「천도부(天道部) 6월(六月)」에 "6월은 건미월(建未月), 구토월(具土月), 유하(流夏), 장하(長夏), 유월(榴月), 복월(伏月), 구월(具月)이다(六月 建未月具土月流夏 長夏榴月 伏月具月)."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廣才物譜.
필자 | 장정수(張貞守)

구토월(具土月)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오행설(五行說)에 따르면 목(木)은 동쪽으로 봄을 관장하고, 화(火)는 남쪽으로 여름을 관장하고, 금(金)은 서쪽으로 가을을 관장하고, 수(水)는 북쪽으로 겨울을 관장한다고 한다. 한편 토(土)는 중앙을 관장하면서 계절과 계절 중간에(3월, 6월, 9월, 12월) 17일씩 들어 있는데, 특히 목(木: 봄), 화(火: 여름)에서 금(金: 가을), 수(水: 겨울)로 넘어가는 지점이 가장 대표적이다. 『광재물보(廣才物譜)』「천도부(天道部) 6월(六月)」에 "6월은 건미월(建未月), 구토월(具土月), 유하(流夏), 장하(長夏), 유월(榴月), 복월(伏月), 구월(具月)이라고 한다(六月 建未月具土月流夏 長夏榴月 伏月具月)."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廣才物譜.
필자 | 장정수(張貞守)

둔월(遯月)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둔(遯)은 『주역(周易)』의 64괘(卦) 중 12괘를 뽑아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을 때 둔괘(遯卦, ䷠)에 해당하는 달이다. 둔괘는 상괘(上卦)가 건괘(乾卦, ☰)이고 하괘(下卦)가 간괘(艮卦, ☶)로 이루어져 있다. 둔월(遯月)은 군자는 은퇴하여 형통하고 소인은 바른 길을 지켜서 이익을 보는 달이라는 뜻이다.

참고문헌 | 周易.
필자 | 장정수(張貞守)

만하(晩夏)

정의 늦여름인 음력 6월을 뜻하는 말. 계월(季月) 혹은 계하(季夏)라고도 한다.

내용 일년 열두 달을 사계절로 나누어 1~3월을 춘(春), 4~6월을 하(夏), 7~9월을 추(秋), 10~12월을 동(冬)이라 하고, 각 계절에 속한 석 달을 나누어 첫 달을 초(初) 혹은 맹(孟), 두 번째 달을 중(仲), 마지막 달을 모(暮) 혹은 만(晩), 계(季)라고 한다. 따라서 4월은 맹하(孟夏) 혹은 초하(初夏), 5월은 중하(仲夏), 6월은 계월(季月) 혹은 만하(晩夏)라고 한다. 당(唐)나라 낙빈왕(駱賓王)의 시 '만박강진(晩泊江鎭)'에 "연꽃 향기에 6월 더위 물러가고, 국화 기운에 초가을이 새롭구나(荷香銷晩夏 菊氣入新秋)."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駱賓王文集.
필자 | 장정수(張貞守)

미월(未月)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미(未)는 십이지(十二支) 중 여덟 번째에 해당한다. 지금의 음력은 중국 하(夏)나라에서 십이지의 세 번째인 인(寅)을 정월로 삼았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월(未月)은 6월에 해당한다. 『광재물보(廣才物譜)』「천도부(天道部) 6월(六月)」에 "6월은 건미월(建未月), 구토월(具土月), 유하(流夏), 장하(長夏), 유월(榴月), 복월(伏月), 구월(具月)이라고 한다(六月 建未月具土月流夏 長夏榴月 伏月具月)."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廣才物譜.
필자 | 김정석(金正錫)

복염(伏炎)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복(伏)은 삼복의 무더위가 있는 달이라는 뜻이다.

내용 하지(夏至) 후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初伏), 넷째 경일을 중복(中伏),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末伏)이라고 한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과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리게 되지만, 말복은 입추 뒤에 오기 때문에 20일 간격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월복(越伏)이라고 한다.

복(伏)의 어원에 대해서는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에 "더운 기운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제압하여 굴복시켰다."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염(炎)은 '덥다, 불타다'의 뜻으로, 『서경(書經)』「윤정(胤征)」에 "곤강(崑岡)에 불꽃이 일어 옥석(玉石) 모두 타버렸네(火炎崑岡 玉石俱焚)."라고 한 구절이 있다. 따라서 삼복의 불꽃 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달이라는 뜻이다.

참고문헌 | 書經, 朝鮮常識.
필자 | 장정수(張貞守)



한여름밤 피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김창호

복월(伏月)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일년 중 가장 무더운 삼복이 들어 있는 달이라는 뜻으로, 복염(伏炎)이라고도 한다.

내용 『광재물보(廣才物譜)』「천도부(天道部) 6월(六月)」에 "6월은 건미월(建未月), 구토월(具土月), 유하(流夏), 장하(長夏), 유월(榴月), 복월(伏月), 구월(具月)이라고 한다(六月 建未月具土月流夏 長夏榴月 伏月具月)."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廣才物譜.
필자 | 장정수(張貞守)

비열(比熱)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비(比)는 '매우, 언제나'의 뜻이고, 열(熱)은 당나라 백거이(白居易)의 시 '효도잠체(效陶潛體)'에 "추운 날씨에 처마 아래에서 해를 등지고 뜨거운 날씨에 계곡 샘물에 발을 담그네(寒負簷下日 熱濯澗底泉)."라고 한 구절에서 뜨거운 날씨를 뜻한다.

내용 음력 6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여 뜨거운 공기가 끊임없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무더위가 심해진다. 6월의 절기로는 소서(小暑), 대서(大暑)가 있으며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곳을 찾아가 물맞이를 하거나 개장국, 삼계탕으로 보양(補陽)하며 지냈다. 『한훤차록(寒暄箚錄)』「시령(時令)」에 "6월은 고열(敲熱), 증열(蒸熱), 고증(敲蒸)……비열(比熱), 임우(霖雨), 임습(霖濕)이라고 했다(六月 敲熱蒸熱敲蒸……比熱霖雨霖濕)."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白氏文集, 寒暄箚錄.
필자 | 장정수(張貞守)

비염(比炎)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매우 뜨거운 불꽃 같은 더위라는 뜻으로 비열(比熱)이라고도 한다.

내용 비(比)는 '언제나, 매우'의 뜻이고, 염(炎)은 '덥다, 불타다'의 뜻으로, 『서경(書經)』「윤정(胤征)」에 "곤강(崑岡)에 불꽃이 일어 옥석(玉石)이 모두 타버렸네(火炎崑岡 玉石俱焚)."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書經.
필자 | 장정수(張貞守)

비염(沸炎)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가마솥이 끓는 듯한 불꽃같은 더위를 말하며 비열(比熱), 비염(比炎)이라고도 한다.

내용 이때 밭에 나가 일을 하면 밭의 지열(地熱)이 후끈 달아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고, 논에서 일을 하여도 벼 포기 사이에서 내뿜는 열이 정신을 아찔하게 한다. 농부의 몸에서 땀방울이 흘러 타는 듯한 대지를 적시고, 하늘의 태양이 온 천지를 가마솥처럼 뜨겁게 달구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비(沸)는 '끓는다'의 뜻이고, 염(炎)은 '덥다, 불타다'의 뜻으로, 『서경(書經)』「윤정(胤征)」에 "곤강(崑岡)에 불꽃이 일어 옥석(玉石)이 모두 타버렸네(火炎崑岡 玉石俱焚)."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書經.
필자 | 장정수(張貞守)

서월(暑月)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덥고 찌는 듯한 달이란 뜻으로, 소서(小暑)와 대서(大暑)가 들어 있다.

내용 『제서(齊書)』「주군지(州郡志)」에 "한(漢)나라 때에 교주자사(交州刺史)는 매년 더운 달에는 문득 더위를 피해 높은 곳에 머물렀다(漢世交州刺史 每暑月 輒避處高)."라는 구절이 있다. 또한 『남사(南史)』「육혜효전(陸慧曉傳)」에 "더운 달에도 또한 서리의 기운이 있다(暑月亦有霜氣)."라는 구절이 있으며, 중국 당(唐)나라 이상은(李商隱)의 「뇌인(惱人)」에 "더운 달에는 대자리를 밀치고 오래 앉아 있는다(暑月排筵久坐)."라는 구절도 있다.

참고문헌 | 南史, 李商隱雜纂, 齊書.
필자 | 장정수(張貞守)

성염(盛炎)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한더위라는 뜻으로 염열(炎熱) 혹은 요염(燎炎)이라고도 한다.

내용 성(盛)은 가장 심하다는 뜻으로, 『장자(莊子)』「덕충부(德充符)」에 "평평하다는 것은 물이 가장 조용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모습이다(平者 水停之盛也)."라는 구절이 있다. 각 계절 중에서 가장 그 계절다운 달을 일컬어 성춘(盛春), 성하(盛夏), 성추(盛秋), 성동(盛冬)이라 하며, 그래서 성염(盛炎)은 더위가 가장 심한 시기인 음력 6월을 가리키는 말이다.

참고문헌 | 莊子.
필자 | 장정수(張貞守)

썩은달

정의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6월은 습도가 높고 질병이 많아 썩은달 혹은 액달[厄月]이라고 하여 꺼렸다.

내용 '썩다'라는 말은 물질이 부패균의 작용으로 본래의 질보다 나쁘게 변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활용되어야 할 자재나 물건 따위가 활용되지 않고 아깝게 묵혀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말하자면 6월은 무더운 햇빛으로 생물체와 식목(植木)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반면, 자칫 잘못 관리하면 만물이 썩을 수도 있기에 '썩다'의 언어적 특징처럼 '물질의 부패'와 '아깝게 묵혀 두는 것'에 조심하여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연유로 6월은 '썩은달'이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선인들의 지혜를 통해서 6월에는 부패할 수 있는 음식과 묵혀 둔 물건들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듯하다. 곧 극과 극은 통한다고 '무성함'과 '썩음'을 동시에 본 선인들의 조심스러움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교훈적 의미는 현대의 과학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더 깊이 새겨야 할 생활적 교훈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한국세시풍속기(강무학, 集文堂, 1987), 동아새국어사전(이기문, 두산동아, 1989).
필자 | 박상규(朴相圭)

액달(厄-)

정의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액달'의 액(厄)은 재앙을 의미하며, 재앙(災殃)이란 천변지이(天變地異)라는 것으로, 불행한 변고를 뜻한다. 6월에 삼복(三伏)이 들어 악달 또는 액달이라고 한다. 이러한 명칭은 농경사회에서 모내기를 끝내기 위해 몸을 혹사할 만큼 일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삼복을 맞이하여 농민들은 몸을 보신하여야만 다음 농사일을 준비할 수 있었다. 민간에서는 특히 이열치열(以熱治熱)로 보신탕이나 삼계탕 같은 자양분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였으며 가물치, 자라, 뱀장어를 고아서 먹고, 닭에 지네와 지렁이를 넣어 달여 먹었다. 6월을 달리 '액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창 더운 계절이기에 음식이 쉽게 변해서 썩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또한 유두(流頭)에는 남녀 구분 없이 동쪽으로 흐르는 냇물을 찾아 목욕을 하면 모든 액(厄)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서양에서 말하는 카타르시스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액달이라는 말은 '운수가 사나운 달'이기에 모두 삼가며 조심하고, 다음 농사철을 대비하여 몸을 건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달이라는 뜻을 강조한 선인들의 지혜임을 알 수 있다. 언어와 민속 현상을 서로 연결하여 비교해 보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언어란 생활을 바탕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가 바로 생활자체가 민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의 명칭 속에는 민중의 생활상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동아새국어사전(이기문, 두산동아, 1989).
필자 | 박상규(朴相圭)

염열(炎熱)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심한 더위라는 뜻이다.

내용 염(炎)은 덥다, 불타다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서경(書經)』「윤정(胤征)」에 "곤강(**崑**岡)에 불꽃이 일어 옥석(玉石)이 모두 타버렸네(火炎**崑**岡 玉石俱焚)."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書經.
필자 | 장정수(張貞守)

염증(炎蒸)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찌는 듯한 더위라는 뜻이다.

내용 염(炎)은 덥다, 불타다의 뜻으로, 『서경(書經)』「윤정(胤征)」에 "곤강(**崑**岡)에 불꽃이 일어 옥석(玉石) 모두 타버렸네(火炎**崑**岡 玉石俱焚)."라는 구절이 있으며, 증(蒸)은 뜨겁다는 뜻이니 『소문(素問)』「오운행대론(五運行大論)」편에 "그때는 매우 뜨겁다(其令鬱蒸)."라고 한 구절이 있고, 그 왕빙(王**冰**)의 주(註)에 "울(鬱)은 무성하다이고, 증(蒸)은 뜨겁다이다(鬱盛也 蒸熱也)."라는 구절이 있다.

하지가 지나고 음력 6월이 되면 소서와 대서를 맞이하는데 이때가 일년 중에서 가장 더운 시기로, 낮 기온은 무려 30도를 웃돌고 밤에도 더위가 계속 이어져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북태평양에 있는 해양성 열대기단의 세력권 안에 들게 되므로, 남쪽의 계절풍의 영향이 커 고온다습한 기류의 유입이 많기 때문이고 지형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기 쉽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書經, 素問.
필자 | 장정수(張貞守)

요염(燎炎)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온 들판을 태우는 듯한 더위라는 뜻이다.
내용 밭에 나가 일을 하면 밭의 지열(地熱)이 후끈 달아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고, 논에서 일을 하여도 벼 포기 사이에서 내뿜는 열이 정신을 아찔하게 하며, 하늘에서는 태양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같은 것을 형용한 것이다. 요(**燎**)는 들판의 잡초를 사르는 불이라는 뜻으로, 『시경(詩經)』「소아(小雅) 정월(正月)」편에 "들판에 타오르는 불길 누가 끌 수 있으랴(**燎**之方揚 寧或滅之)."라고 한 구절이 있으며, 『서경(書經)』「반경상(盤庚上)」편에 "언덕 위에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가까이 할 수 없네(若火之**燎** 于原 不可嚮邇)."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書經, 詩經.
필자 | 장정수(張貞守)

유열(庾熱)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들판의 벼가 잘 자라도록 돕는 더운 기운이라는 뜻이다.
내용 하지 무렵이면 모내기를 끝낸 모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때 일조량이 많으면 벼가 튼튼하여 수확도 많지만 일조량이 적으면 병에 걸리기 쉽고 수확량도 차이가 난다. 이때 농부들은 김을 매거나 피사리를 하여 벼가 잘 자라도록 돕는다. 『시경(詩經)』「소아(小雅) 보전(甫田)」편에 "증손자



의 곡식이 지붕처럼 즐비하고 바위가 높이 솟은 듯 증손자네, 노적가리 높은 언덕 같고 산등성이 같네(曾孫之稼 如茨如梁 曾孫之庾 如**坻**如京)."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詩經.
필자 | 장정수(張貞守)

유염(庾炎)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무더운 여름이 온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뜻으로 여름의 마지막 달을 의미하며, 달리 유열(庾熱)이라고도 한다.
내용 유(庾)의 의미는 곡식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서(漢書)』「식화지(食貨志)」하(下)에 "그 물건이 흔해져서 가격이 낮아진 사물들은 백성들 스스로 사고팔게 하여 가격이 높아질 때까지 물건을 쌓아두는 일을 방비하였다(其賈**氐**賤 減平者 聽民自相與市 以防貴庾者)."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漢書.
필자 | 장정수(張貞守)

유월(流月)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일년 중에서 가장 더운 때로 유두(流頭)가 들어 있는 달이라는 뜻이다.

내용 음력 6월에는 유두가 있고, 절기로 소서와 대서가 들어 있어 한 해 중 가장 더운 때이다. 유두에는 맑은 개울물을 찾아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으며 하루를 즐겼다. 그러면 상서롭지 못한 것을 쫓고,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유두의 풍속은 신라 때에도 있었으며, 동류(東流)에 가서 머리를 감는 것은 동방은 청(靑)이고 양기가 가장 왕성한 곳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필자 | 장정수(張貞守)

임종월(林鐘月)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임종(林鍾)은 동양 음악의 12율(律) 중에서 여덟 번째에 해당한다. 12율을 각각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첫 음인 황종(黃鐘)을 양(陽)의 기운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에 배속시켰기 때문에 임종월(林鐘月)은 6월에 해당한다.

내용 중국 후한시대의 반고(班固)가 편찬한 『백호통의(白虎通義)』 오행(五行)편에 "6월을 임종(林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임(林)은 많다는 뜻으로 만물이 익어 가는데 종류(種類)가 매우 많음이다(六月謂之林鐘何 林者衆也 萬物成熟種類衆多)."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白虎通義.
필자 | 홍성훈(洪性薰)

장하(長夏)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낮이 긴 여름이라는 뜻으로 차월(且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소문(素問)』의 「육절장상론(六節藏象論)」에 "기백(岐伯)이 말하기를 사계절 중에 가장 경치가 좋은 때는 봄이 장하(長夏)보다 낫다(岐伯曰 所謂四時之勝者 春勝長夏)."라는 구절이 있으며, 왕빙(王氷)의 주(注)에 "장하(長夏)는 6월을 말한다(所謂長夏者六月也)."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素問.
필자 | 장정수(張貞守)

재양(災陽)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재앙이 될 만큼 혹독하게 뜨거운 무더위를 뜻한다.

내용 음력 5월이 지나 장마가 그치고 음력 6월의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災)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앙을 가리키는데, 이와 유사한 뜻으로 『춘추좌씨(春秋左氏)』 「선공(宣公)」 16년 전(傳)에 "무릇 불은 사람에 의해 일어난 불을 화(火)라 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불을 재(災)라고 한다(凡火 人火曰火 天火曰災)."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春秋左氏.
필자 | 장정수(張貞守)



갈라진 논바닥
전남 승주군 심다스마


숨막히는 더위도 이제부터

증염(蒸炎)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찌는 듯한 무더위를 이르는 것으로 치염(熾炎), 혹염(酷炎) 혹은 홍염(烘炎)이라고 한다.

내용 우리나라는 음력 6월에 해당하는 시기가 한여름이니, 북태평양에 있는 해양성 열대기단의 세력권 안에 들게 되므로 남쪽의 계절풍의 영향이 커지고 고온다습한 기류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기 쉽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특징이 있다. 증(蒸)은 뜨겁다라는 뜻이니, 『소문(素問)』「오운행대론(五運行大論)」편에 "그 때는 매우 뜨겁다(其令鬱蒸)."라고 한 구절이 있고, 그 왕빙(王**冰**)의 주(註)에 "울(鬱)은 무성하다이고, 증(蒸)은 뜨겁다이다(鬱盛也 蒸熱也)."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素問.
필자 | 장정수(張貞守)

차월(且月)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차(且)는 '차차(次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음기(陰氣)가 막혀 머뭇거리면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내용 『이아(爾雅)』「석천(釋天) 월명(月名)」편에 "1월은 추(**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寎**),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차(且)를 의미하고,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10월은 양(陽), 11월은 고(辜), 12월은 도(**涂**)이다(正月爲**陬** 二月爲如 三月爲**寎** 四月爲余 五月爲皐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소(疎)에 "차(且)는 머뭇거리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6월에 음기가 점차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나, 양(陽)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는 것이다(且者 次且 行不進也 六月陰漸起 欲遂上 畏陽 猶次且也)."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爾雅.
필자 | 장정수(張貞守)

치염(熾炎)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온 세상이 타는 듯한 무더위라는 뜻으로 증염(蒸炎), 혹염(**酷**炎) 혹은 홍염(烘炎)이라고 한다.

내용 음력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어지는 지리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불꽃더위가 찾아오는데, 이때를 삼복(三伏)이라고 한다. 농작물이 더위와 가뭄에 말라죽기도 하며 사람들도 더위로 인해 고통 받는 시기이다. 치(熾)는 '불의 기운이 왕성하다'는 뜻으





반딧불이 이수영

로, 한(漢)나라 왕충(王充)의 『논형(論衡)』「논사(論死)」에 "불기운이 왕성하니 가마솥이 끓고 끓기를 멈추니 화기가 다한 것이네(火熾而釜沸 沸止而氣歇)."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論衡.
필자 | 장정수(張貞守)

형월(螢月)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반딧불이가 나오는 시기를 말한다.

내용 형(螢)은 개똥벌레 혹은 반디를 뜻하는 말로, 음력 6월에 반딧불이가 많은 시기이므로 6월을 가리켜 형월이라 부른다. 반딧불이는 개똥벌레과 곤충으로 몸길이는 12~18밀리미터이며, 몸빛은 등판이 검고, 앞가슴판은 붉다. 대부분의 성충은 배 끝에 발광기(發光器)가 있어, 여름밤에 날아다니며 빛을 낸다. 물가의 풀숲에 살고, 반디라고도 한다. 『예기(禮記)』「월령(月令)」에 "늦여름이면 매는 날아서 새 잡는 법을 배우고 썩은 풀은 변하여 반딧불이가 된다(季夏之月 鷹乃學習 腐草爲螢)."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禮記.
필자 | 장정수(張貞守)

혹염(酷炎)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몹시 심한 더위를 이르는 말로 치염(熾炎) 혹은 홍염(烘炎)이라고 한다.

내용 음력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어지는 지리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불꽃더위가 찾아오는데, 이때를 삼복이라고 한다. 삼복 무더위는 사람을 지치게 하므로 시원한 곳을 찾아가 물맞이를 하거나 개장국, 삼계탕으로 보양하며 지냈다. 혹(**酷**)의 뜻은 『문선(文選)』 '임종시(臨終詩)'에 "위로 어머니의 은혜를 저버리니 마음의 고통이 심장을 찢는 듯하네(上負慈母恩 痛**酷摧**心肝)."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연제(呂延濟)의 주(註)에 "혹(**酷**)은 고통이다."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文選.
필자 | 장정수(張貞守)

홍염(烘炎)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화톳불이 이글거리는 듯한 더위로, 증염(蒸炎), 치염(熾炎) 혹은 혹염(**酷**炎)이라고도 한다.

내용 불꽃더위가 찾아오는데 이때를 삼복이라고 한다. 농작물들이 더위와 가뭄에 말라죽기도 하며, 사람들도 더위로 인해 고통받는 시기이다. 무더위를 뜻하는 의미로 홍(烘)자가 쓰였는데, 『시경(詩經)』「소아(小雅) 백화(白華)」편에 "뽕나무 가지 잘라다가 아궁이에 불을 때네(樵彼桑薪 **卬**烘于**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詩經.
필자 | 장정수(張貞守)





正日

정일

유두에는 동류수에 머리를 감고
궂은일을 털어버리는 불제를 지내고
음식을 차려먹으며
놀이를 했던 날로 전해 온다.
이 날 약수를 찾아가서
머리를 감으면
부스럼을 앓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산이나 계곡을 찾아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밑에서
물맞이를 한다.
약수터에서
노주메를 드리는 일도 많았다.
노주는 놋쇠로 만든 작은 솥
메는 밥을 의미하므로
노주메 드린다는 것은
노주솥에 밥을 지어 올리며
기원한다는 뜻이다.

유두(流頭)

정의 음력 유월 보름날. 소두(梳頭), 수두(水頭)라고도 한다. 소두란 머리를 감는다는 의미이며, 수두란 물마리(마리는 머리의 옛말), 곧 물맞이라는 뜻인데, 이는 모두 유두날의 행사와 관련이 있다.

어원 유두는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약자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다는 뜻이다. 동류수를 선택하는 까닭은 동방이 청(靑)을 상징하며, 양기가 왕성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두라는 글자가 신라 때의 이두(吏讀)식 표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유래 유두는 신라 때부터 있어 온 명절로 알려져 있다. 고려 명종 때의 학자 김극기(金克己)의 문집에는 "경주 풍속에, 6월 보름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을 씻어 버린다. 그리고 계음(禊飮)을 유두연(流頭宴)이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유두음(流頭飮)에 대해 "명종 15년 6월 계축일(癸丑日)에 왕이 봉은사에 행차하였다. 병인일에 시어사(侍御史) 두 사람이 환관 최동수(崔東秀)와 함께 광진사에 모여서 유두음을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풍속에는 6월 15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음으로써 좋지 못한 일을 제거한다고 했으며, 이로 인해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이것을 유두음이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정동유(鄭東愈)는 『주영편(晝永編)』에서 우리나라 명절 중에 오직 유두만이 고유의 풍속이고, 그 밖의 것은 다 중국에서 절일이라고 일컫는 날이라고 했다.



머리감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유두에 대한 기록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둔촌잡영(遁村雜詠)』, 『목은선생문집(牧隱先生文集)』 등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집과 세시기에도 나타난다.

유두는 물과 관련이 깊은 명절이다. 물은 부정(不淨)을 씻는 것, 그래서 유두음을 계음이라며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유두날 탁족놀이도 즐기는데, 이 역시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오늘날 유두는 거의 잊혀져 가는 명절이 되었다. 그래서 유두연은 점차 물맞이로 축소되고 다시 여름 바캉스로 변용되어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최근까지도 유두날이면 논과 밭에서 제를 지내기도 했다.

내용 유두에는 동류수에 머리를 감고 궂은일을 털어버리는 불제(祓除)를 지내고, 음식을 차려먹으며 놀이를 했던 날로 전해 온다. 이 날 약수를 찾아가서 머리를 감으면 부스럼을 앓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산이나 계곡을 찾아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밑에서 물맞이를 한다. 약수터에서 노구메를 드리는 일도 많았다. 노구는 놋쇠로 만든 작은 솥, 메는 밥을 의미하므로 노구메 드린다는 것은 노구솥에 밥을 지어 올리며 기원한다는 뜻이다.

유두날 가정에 따라 유두천신을 한다. 천신이란 계절에 따라 새로 나는 각종 음식물을 먼저 신에게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유두 무렵에는 참외, 수박 같은 과일이 나기 시작하므로 햇과일과 함께 밭작물인 밀로 만든 국수, 또는 밀전병을 조상에게 제물로 올려 유두제사를 지낸다.

이 날 조상뿐만 아니라 논과 밭에서 용신제(龍神祭) 또는 밭제를 지낸다. 이는 풍농을 위한 농신제로서 유두에 지낸다고 하여 유두제라고도 한다. 고사 때에는 제물로 으레 팥시루떡을 찌지만, 밭제를 지낼 때에는 밭작물의 수확을 기념하며 각별히 팥죽을 쑤는 집안도 있다.

전북에서는 찰떡을 논둑 밑이나 물꼬에 한 덩이씩 놓고 물이 새지 않고 농사가 잘 되기를 농신(農神)에게 빈다. 찰떡 대신 밀떡이나 송편을 해서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이 떡들을 논둑에 두거나 혹은 나무에 떡을 꽂았다가 논둑에 둔다. 고사를 마치면 동네 아이들이 급히 떡을 먹는데, 이 떡을 유두알이라고 한다.

경북 지역에서는 농신제를 용지[龍祭, 용왕제]라 일컫는다. 용지 때에는 차노치(찹쌀노티)를 굽고 시루떡을 기름에 부치며, 호박전과 같이 전 종류의 음식을 차린다. 용지의 제물에는 기름이 들어가야 좋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기름냄새가 해충을 쫓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동 지역에서는 유두날 아침에 국수를 수박 밭고랑에 뿌린다. 이는 수박줄기가 국수처럼 쭉쭉 뻗어 나가라는 의미이다. 또 수제비를 참외밭에 뿌려둔다. 이 역시 수제비 같은 참외가 주렁주렁 열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고사를 지낸 뒤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안동시 송천동의 경우 부부가 함께 논에 가서 논머리에 차노치, 시루떡, 호박전 같은 제물을 차려놓은 뒤 부인이 "논에 나락을 심어 놓았으니 올 농사도 잘되게 해주이소."라고 용왕님에게 빈다. 이렇게 치성을 드린 뒤에 대주(大主)가 제물을 조금씩 떼어 논에 던진다.

유두를 각별한 명절로 여겨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한다.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주민들은 유두에 절에 가서 치성을 드린다. 안동시 송천동에서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이때에는 집에서 특별히 음식을 장만하지 않고 쌀과 양초를 가지고 절에 가서 직접 밥을 지어 올리고 불을 밝힌 뒤 불공을 드린다.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에서는 유두에 올베심리(올게심니)를 한다. 아직 덜 익은 햇벼의 끝부분을 훑어 올베심리를 하는데, 이를 행할 때 조상단지의 쌀을 갈아주기도 한다. 이때 묵은 쌀을 보고 한 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한다. 단지 안의 쌀이 단지의 바깥으로 넘쳐흐르면 그 해는 길하다고 여기고, 쌀이 줄어들고 벌레가 먹었으면 길하지 않다고 여긴다. 추석 때에는 이 올베심리를 하고 나서 조상단지에서 쌀 세 줌을 꺼내 그것을 섞어 메를 짓는다. 전남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에서는 추석과 더불어 유두에 강강술래를 하기도 한다.


오늘 流頭節

오늘 유두절
서울신문 1958년 7월 31일

여름 명절 음식은 대개 밀전병, 밀국수와 같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보편적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유두의 명절식으로 수단(水團)과 건단(乾團), 연병(連餠), 상화병(霜花餠), 수교위[水角兒]가 있다고 하였다.

수단은 멥쌀가루를 쪄서 구슬같이 만든 다음, 그것을 꿀물에 넣고 얼음에 채워서 먹는 것이며 건단은 물에 넣지 않은 것이다. 멥쌀 대신 찹쌀가루로 만들기도 했다. 상화병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콩이나 깨에 꿀을 섞은 소를 싸서 찐 것이다. 또 밀가루를 반죽하여 기름에 지지고 줄나물로 만든 소를 싸거나 콩과 깨에 꿀을 섞은 소를 싸서 각기 다른 모양으

로 오므려 쌈을 만든 것이 연병이다. 수교위는 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밀어 껍질로 하고 오이, 버섯, 고기 등을 양념하여 소를 넣고 빚어 삶거나 찐 것이다. 이 밖에 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슬 모양으로 만든 유두국은 벽사를 위한 것이다. 유두국은 유두면(流頭麵)이라고도 하는데, 유두국에 오색물감을 들이고 세 개씩 이어 색실에 꿰어 차고 다닌다. 문설주에 걸어놓고 액을 막기도 한다.

유두에도 농사의 풍흉을 가늠하는 속신이 있다. 유두날에 내리는 비를 유두물 또는 유두수(流頭水)라고 한다. 전남과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박리에서는 가물면 유두까지 모를 내지 못하므로, 그 전부터 유두물을 기다린다. 특히 비가 오면 깨 모종을 할 수 있으므로 유두물을 농사에 이로운 물로 여긴다. 그러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서원마을에서는 유두날 비가 오면 "유두물한다"라고 하며 비가 많이 오면 "유두 물난리났다"라고 하여 꺼리기도 한다. 6월은 모내기를 끝내고 벼가 잘 크기만을 기다리는 시기이므로, 날이 맑아야 곡식이 잘 자라기 때문이다. 모를 다 심었는데 비가 와서 잘못하면 논둑이 터지기도 하므로 농사에 이로운 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유두물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나타난다. 반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유두날 우레소리가 일찍 들리면 서리가 일찍 내린다고 하는데, 이때의 우레소리를 유두뢰(流頭雷)라고 한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 영당마을에서는 유두날 천둥이 치면 "유두하네비운다."라고 하며 이 천둥소리를 듣고 그 해 농사를 점친다. 유두하네비가 일찍 울면 이른 곡식이 풍년이고, 늦게 울면 늦은 곡식이 풍년이라고 점친다.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 있는 일론마을(금대리)에서는 유두날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 머루와 다래가 흉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유두날 유두국수를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장수한다는 믿음이 있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유두날 유두국수나 부침반죽에 고추장을 풀어 장떡을 해 먹으면 더위를 피한다고 한다. 또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가서 머리를 감고 국수를 먹으면 약이 된다고 한다.



유두절『漢陽歲時記』
국립중앙도서관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曆法의 原理分析(이은성, 正音社, 198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속초의 향토민속(속초문화원, 1992),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 I -1970년대~1980년대 조사자료-(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김명자(金明子)

농신제(農神祭)

정의 절기상 유두(流頭)나 삼복(三伏), 칠석(七夕)에 음식을 마련하여 논밭에서 풍농을 기원하며 지내는 제사.

명칭 유두에서부터 칠석까지 농한기이자 농작물이 성장하는 시기에 올리는 농신제는 풍농에 대한 희구와 농작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농신제는 넓은 의미에서 논밭의 주신인 농신에게 지내는 제사라 하여 농신제라 부르지만, 제사 시기, 제사 대상 신령, 제사지내는 곳 등에 따라 유두고사, 유두제, 칠석고사, 복제(伏祭), 말복제사(복제사), 용신제, 용왕제, 용제, 농신제, 논고사, 밭고사, 밭제, 충제(蟲祭), 참외제, 참외밭고사, 원두제, 쥐밥주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충북과 충남에서는 제사의 형태나 의미는 동일하나 특별한 명칭으로 부르기보다는 '유두에는 논에 나가 기름 냄새를 피워야 한다.'라는 식으로만 표현한다. 강원도에서는 복제와 밭고사의 비중이 높으며, 경기도에서는 참외밭제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전북에서는 논고사의 명칭이 두드러지며, 전남에서는 용신제와 유두제의 비중이 높다. 경북에서는 용제와 복제의 비중이 높으며, 경남에서는 용신제와 유두고사라 즐겨 부른다. 제각각 명칭은 달라도 이들 제사는 한 해 농사의 풍년을 희구하는 것이다.

내용 유두(流頭, 음력 6월15일), 삼복[三伏, 초복(양력 6월10일), 중복(양력 6월20일), 말복(양력 7월10일)], 초복을 지난 첫 용날[辰日], 칠석(七夕) 즈음은 보리나 밀 등의 밭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이며, 마지막 모내기와 김매기가 동시에 행해진다. 일년 농사의 중간 마무리를 하는 시기로, 한 해의 농작물 소출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수확한

밭작물로 한 해의 결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천신(薦新)을 하고, 더불어 애써 지어 놓은 농작물이 잘 성장하여 결실을 맺고 어떠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관심은 유두, 삼복, 칠석 같은 속절(俗節)과 연관되어 의례로 응축되어 나타난다.

유두와 삼복은 긴 장마철(보통 음력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이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농작물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즈음이 되면 벼의 주요 해충인 이화명나방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다. 이 나비의 제1회 발생은 6월이고 제2회 발생은 8월이다. 이 해충은 유충이 벼 줄기 속을 파먹어 벼잎이 마르고 잎집[葉鞘]이 부러지며 잎이 쳐져 물에 뜬다. 또 이삭이 나오지 못하고, 설사 나오더라도 흰 이삭이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유충이 생기는 시기인 6월에 이화명나방을 제거해야 그 해의 소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이 풍농을 희구하고, 벌레도 박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농신제에 담기는 것이다.

특히 복날은 일년 중 가장 덥다는 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강한 햇볕 아래 비로소 과일이나 밭작물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다. 초복, 중복, 말복에 모두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초복이나 말복에만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에는 여름 과일의 대표 작물인 참외가 첫 열매를 맺는다. 참외는 보통 재배 방식으로 할 경우 양력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에 노지에 씨를 뿌려 7, 8월에 수확하는데, 유두 즈음이 되면 참외가 첫 출시된다. 여름 과일의 시작을 알리는 참외 생산을 앞두고, 참외의 풍작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참외제를 지낸다. 수박, 포도와 달리 참외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집중되는 것은 여름철의 첫 열매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에서는 참외제를 다른 지역의 농신제와 유사하게 지낸다. 참외제 역시 농신제의 범주에서 베풀어지는 의례였음을 보여준다.

농신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논이나 밭에 기름 냄새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햇밀과 햇보리를 이용하여 천신을 하듯 제물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고 기름이 묻은 음식을 논이나 밭에 넣거나 두둑에 묻는다. "복에 기름 냄새를 피우면 더위 먹지 않는다.", "유두에 기름내를 풍겨 병충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기름은 한여름 복더위의 논에 생길 각종 병충해를 없애는 특효약 중 하나이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던 시절에 논에 낀 이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름을 논에 넣는 일이다.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는 기름떡으로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작은 병에 석유를 담아서 병의 입구를 솔가지로 틀어막고, 그것을 논에 넣어 한 바퀴 빙 도는 것으로 대치하기도 했다. 얼핏 보면 비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농민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이다.

농신제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과 기름 냄새를 피워 해충이나 쥐의 피해를 막고, 까치나 까마귀가 곡식을 파먹지 말며, 장마에 물 내려가는 장둑(논둑, 밭둑)이 터지지 말고, 나락이 잘 여물기를 바라며, 논에 두더지가 없어지고, 바람이 불어도 벼가 쓰러지지 말기를 바라면서 지낸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를 기다리는 농민의 절실한 바람이 집중되어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제사 대상이 농사를 주관한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신령들이다. 흔히 농사짓는 것을 처음 알려주었다는 신농씨(神農氏), 토지신, 농신님 혹은 웃논의 용왕님, 아들 논의 용왕님네, 길 아래의 용신님네, 길 위의 용신님네가 그 대상이다. 용제는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를 관장하는 용왕(龍王) 혹은 용(龍)을 대상으로 삼는다. 제사는 아침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저녁 무렵에 지내기도 하며, 집안에서 미리 가신(家神)에게 치제한 후에 지낸다.

지역사례 집안 논 중에서 가장 큰 논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경남에서는 '제사 받는 논', 전남에서는 '유두배미'라고 아예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집안의 가장이 치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상도와 전남 지역에서는 주인 대신 일꾼(머슴)이 지내기도 한다. 일꾼이 지낼 때는 보다 의례적으로 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입고 제사를 지내는데, 간혹 도롱이를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기도 한다. 도롱이나 삿갓은 모두 비와 관련한 것으로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가 많이 오기를 바라는 바람이 보다 강하게 표현된다. 이 날 주인은 일꾼에게 음식을 넉넉하게 마련해 준다.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로 음복을 하면서 모처럼 하루를 쉰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감자와 메밀을 이용하여 감자전이나 유두국수를 제물로 올리며, 경상남도에서는 송편이나 시루떡을 만들고, 밀 부침개도 한다. 경북에서는 보리개떡이나 밀떡, 국수, 송편, 찹쌀부침개를 올린다. 전남에서는 보리개떡과 밀개떡을, 그 밖의 지역에서는 밀 부침개를 즐겨 사용한다.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 1리의 용신제에는 특별한 제물을 올린다. 우선 종이에 '이화병충대장군'이라는 글귀를 써 놓고 논에서 직접 전을 부친다. 전을 부칠 때 이 병균에 전염된 나락을 뽑아내어 그 중 심하게 전염된 부분에 기생하는 '뻘기'라는 벌레를 잡아서 전 위에 올려 굽는다. 뿐만 아니라 수확할 때까지 병충해의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 부엌의 가마솥 위에 못을 하나 박고 벌레가 든 나락을 가져다가 걸어둔다. 부엌에서는 항상 기름질을 하므로 기름 냄새가 나락에 스며 병충해를 막을 수 있다고 여긴다. 이와는 별개로 전남 진도 하사미 마을에서는 마을 단위로 충제(蟲祭)를 지내기도 한다.

제물은 보통 논의 물구멍 위에 짚이나 종이를 깔고 올리는데,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에서는 삼대나 수숫대, 미루나무대, 버드나무대를 삼발이처럼 묶어 세우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거나 막대기에 떡을 꿰어 둔다. 이 대에는 흰 종이나 천을 매달아 둔다. 제사를 마친 후에도 치우지 않고 논의 중앙이나 물고 앞에 꽂아두어 제사 지냈음을 표시한다.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 1리 새터에서는 '용지(용제)'라 하여 솔가지를 꺾어다가 종이를 붙여서 논 중앙이나 두렁에 꽂고 그 위에 제물을 마련한다. 특히 추수를 마치고 벼를 소에 실어 나르고 난 후에 바닥에 떨어진 나락인 '시발나락'을 모아서 송편을 만들어 바친다. 작은 나락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은 제물인 셈이다.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 2리에서는 특별히 '노치'라는 전을 부쳐 제사를 지내고, 논 가운데 꼬챙이에 종이를 달아 꽂아 두고, 그 아래에는 구멍을 파고 종이에 노치(전)를 싸서 묻는다.

간단히 제사를 마친 후에는 부침개를 논이나 밭 주위에 던지거나, 한쪽에 그대로 놓거나, 막대기에 떡을 꿰어 논두렁 위에 꽂아 두기도 한다. 이 제물은 절대 집으로 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 두는데, 일꾼이나 동네 아이들이 주워 먹곤 한다. 때문에 이 떡을 일꾼떡 혹은 복떡이라 부른다. 간혹 이 떡과 부침개는 벌레를 잡는 데 특효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아예 벌레를 넣어 지지기도 한다. 논에 떡을 던질 때는 "벌레들아! 이거 먹고 벼 먹지 말아라!"라고 하기도 한다.

참외밭고사 농신제가 베풀어지는 시기에 여름 과일인 참외가 첫 출시된다. 다양한 과일이 생산되기 전에 첫선을 보이는 참외는 다른 과일과 달리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참외는 삼국시대부터 재배되어 온 작물로 역사가 오래되었다. 참외가 익기 시작하면 소출이 많고, 별 피해 없이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둘러 제사를 지낸다. 유두나 복날 혹은 원두막을 지은 날 행한다.

경기도,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참외밭에 터주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고사를 모신다. 농신제와 마찬가지로 밀떡을 밭에서 직접 부쳐서 올리고, 떡과 막걸리도 추가한다. 참외가 익어 갈 무렵에 여자들이 참외밭에 들어가거나 여자가 그곳에서 소변을 보면 참외가 갈라져서 좋지 않다고 하여 삼간다. 때문에 참외밭에는 여자들이 접근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외제 역시 남자가 주관한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서원마을에서는 남자 성기 모양처럼 기다랗게 크라고 남자가 주관하는 것이라고 한다. 참외밭고사는 참외가 썩지 말고 많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는 참외서리를 예방하고 개구리가 참외를 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낸다.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에서는 참외밭에서 수제비를 쑤어 그것을 밭고랑 사이에 뿌리면서 "이걸랑 먹고 참외랑 건드리지 마라!" 하고 주문을 왼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 2동 작은말에서는 참외를 수확하기 전에 미리 장어를 사다가 구워서 참외밭의 원두막에 걸고 첫 수확한 참외를 놓고 고사를 지낸다. 장어 혹은 뱀이 참외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함으로써 장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기 1리에서는 복날마다 논과 참외밭에서 복제를 지낸다. 특히 참외농사를 위해서 특별한 제물을 마련한다. 초복 때는 참외 넝쿨

이 잘 뻗어 나가라는 의미에서 국수를 제물로 올리고, 중복 때는 찹쌀로 둥그렇게 새알을 만들어 올린다. 둥근 새알처럼 참외 열매가 실하게 맺히라는 뜻이다. 말복에는 밥을 지어 올린다. 특히 초복에는 첫 수확한 참외 주변에 솔가지를 베어다가 둥글게 천막처럼 세우고 그 안에 국수를 올린다. 그 앞에서 참외제를 지내는데, 이것은 "집을 지으면 성주를 앉혀야 하듯 외밭에도 (성주를) 앉히는 것이다."라고 한다.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 2리 가늠골에서는 초복에는 국수를, 중복에는 수제비를, 말복에는 감주(甘酒, 식혜)를 만들어 올린다. 초복 국수는 참외넝쿨이 국수처럼 잘 자라기를 바라는 뜻이고, 중복 수제비는 참외가 수제비처럼 차지고 단단하게 여물라는 뜻이다. 말복의 감주는 참외가 감주처럼 단맛을 지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처럼 참외의 성장에 맞추어 복날마다 제물을 달리 올리는 것은 참외의 성장에 따른 의례임을 나타낸다. 또한 유두와 초복이 시간상 별 차이가 없어서인지 유두에 먹는 국수를 참외제의 제물로 즐겨 사용한다. 여기에는 길고 가느다란 국수처럼 참외의 줄기가 죽죽 뻗어 소출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참외의 수확을 앞두고 풍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참외제는 결국 한 해의 소출에 대한 기대로 베푸는 농신제와 마찬가지로 농작물의 성장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례이다. 그러나 수박제, 포도제, 그 밖의 과일에 대한 제사와 달리 참외제는 두드러진다. 삼국시대부터 재배되어 온 참외가 오랜 기간 동안 농민들의 먹거리로 활용된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어서 그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결국 참외제로 표현된 것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龜尾 · 善山의 歲時風俗(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생태적 불균형과 공동체문화의 위기(전경수, 똥이 자원이다, 통나무, 1992),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이필영(李弼泳)

용신제(龍神祭)

⇨ 농신제(農神祭): 여름편

유두천신(流頭薦新)

정의 유두날 새로 난 과일과 몇 가지 곡식을 음식과 함께 장만하여 조상에게 올리는 일종의 차례. 왕실에서는 종묘에 올리고 양반가에서는 사당에 올린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햇과일이나 햇곡식을 사람이 먹기 전에 조상에게 먼저 올리는 풍속이 전해 왔는데, 새로 난 것을 바친다는 뜻으로 이를 천신(薦新)이라고 한다.

내용 천신의 대표적인 예는 추석에 햅쌀을 마련하여 조상께 차례를 올리는 풍속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추석 전에 올게심리라 하여 아직 여물지 않은 벼를 훑어 조상께 메를 지어 올리고 가족끼리 나누어 먹는 풍속이 있었다. 가택신앙으로 추수가 끝난 후 성주동이나 조상단지에 새로 수확한 쌀을 갈아 담는 것도 모두 천신에 해당한다.

유두 즈음하여 참외나 수박 같은 햇과일과 피, 조, 기장, 콩, 벼의 햇곡 또 유두의 시절음식인 유두면(流頭麵), 수단(水團), 건단(乾團), 연병(連餠), 상화병(霜花餠)을 사당에 올려 차례를 지낸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6월 월내조(月內條)에 피, 기장, 벼를 종묘에 올린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왕실에서 행하던 천신의례의 하나였다. 특히 이 날 올리는 곡식을 유두피, 유두기장, 유두벼라 부르기도 한다. 왕실이나 양반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조상에게 천신을 하는 의례가 있었다. 지역이나 집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명절처럼 새벽녘에 조상께 새로 난 과일들을 위주로 차례상을 올린다. 여름 명절로 유두와 백중이 있는데, 둘 다 차례상을 올리는 마을도 있고, 둘 중 한 날만 차례상을 올리는 지역도 있다. 민간에서 유두에 해먹는 음식은 개떡, 밀국수, 밀전병 같은 밀가루 음식이다. 개떡은 쌀가루가 아닌 보릿가루로 대충 떡처럼 만들어 쪄먹기 때문에 가짜 떡이라는 뜻에서 개떡이라 했다.

유두천신은 독립적인 풍속이 아니라 유두잔치[流頭宴]와 함께 지내는 풍습이다. 우리는 명절을 '쇠다'라고 하는데, 이때 쇠다라는 뜻은 조상께 차례를 잘 올렸는지를 묻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설 잘 쇠셨습니까?", "추석 잘 쇠셨습니까?" 하는 인사말이 그래서 자연스럽다. 명절은 신에 대한 '쇠다'라는 기능과 인간에 대한 '쉬다'라는 기능도 함께 가

진다. 쇠다가 종교적 의미로 조상의례를 뜻하는 말이라면, 쉬다라는 말은 휴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명절에 쉬는 것은 다른 날의 휴식과는 다른 맥락을 가진다. 일을 하지 않고 즐겁게 놀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즐겁게 놀 때 필요한 것이 음식과 놀이판이다.

유두천신이 우리말로 '쇠다'에 해당하는 신을 위한 의례라면, 유두잔치는 '쉬다'에 해당하는 인간을 위한 휴식인 셈이다. 이 날 양반들은 계곡이나 정자에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누면서 시회(詩會)를 열기도 하였으며, 일반인들도 음식을 마련하여 물맞이를 하는 등 시원한 곳에 가서 하루를 즐기며 놀기도 하였다.

『예기(禮記)』「월령(月令)」을 보면, 중하(仲夏)의 달에 농촌에서 기장을 진상하면 천자가 맛을 보고 먼저 종묘에 올린다고 하였다. 그러고 보면 유두의 천신풍속은 이미 중국 주나라 때부터 행해지던 것으로 본래는 여름에 하곡(夏穀)을 수확하면 천자와 종묘에 먼저 올리는 풍속이었다. 중국의 유두천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조상숭배의 풍속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민간에까지 보급되어 차례 형태로 전승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禮記,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나경수(羅景洙)

물맞이



물맞이

정의 유두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는 풍속.

유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유두는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준말로, 유두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는 풍속이 신라시대에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양기(陽氣)가 풍부하여 여기서 머리를 감으면 한여름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풍습이 부인들의 물맞이 행사로 변천된 듯하다. 또한 유두를 이두로는 소두(梳頭), 수두(水頭)로 표기하였는데, 수두란 물마리(마리는 머리의 옛말), 곧 '물맞이'란 뜻이다. 신라의 옛 땅인 경상도 지방에서는 지금도 유두를 물맞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친가(思親歌)'에서는 "유월이라 유두일에 건곤이 유의(有意)하야 양진(良辰)이 삼겼세라. 홍로유금(紅爐流金) 되었으니 나체노발(裸體露髮) 못견디네. …… 어와 벗님네야 빈천을 한치마라. 이렇듯 노닐 적에 슬프다 우리 부모 유두절을 모르시나."라고 노래한 것으로 보아 유두날의 풍속을 짐작할 만하다.

내용 유두날의 물맞이 장소로는 서울 정릉계곡, 광주 무등산 물통폭포, 제주도 한라산 성판봉폭포가 유명하였다. 서울은 정릉계곡과 송림, 물이 좋은 악박골, 사직단이 있는 황학정 활터 근방, 낙산 밑이 물맞이하기 좋은 장소였다고 한다. 그 밖에도 각 지방과 마을마다 물맞이 명소가 있어 물맞이는 유두날을 비롯한 여름철의 주요한 연중행사였다. 이러한 명소에는 주로 여자들이 끼리끼리 모여들었는데, 여염집 부녀자들은 흰 차일을 쳐놓고 머리를 감고 몸을 씻으면서 하루를 지냈다. 이렇게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것은 물의 정화력을 이용해 심신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로, 중국의 상사계욕(上巳禊浴), 중국의 항하침욕(恒河浸浴), 기독교의 세례와 불교의 관정(灌頂)과 같은 종교의식이 모두 여기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유두날뿐만 아니라 삼복(三伏), 칠석(七夕), 백중(伯仲), 처서(處暑)에도 폭포 밑에서 물을 맞는데, 물에 들어서면서 바가지로 떨어지는 물을 한 모금 받아 마셔야 한다. 물의 영(靈)을 마셔야 수신(水神)

과 통하여 물 맞는 효력이 더한다는 것이다. 피서로 가는 사람도 있으나 체증, 신경통, 냉병, 속병, 허리병에 좋다 하여 지금도 행해진다. 이처럼 사람들은 유두날을 즈음하여 산수 좋은 곳을 찾아가 폭포수를 맞으며 더위를 식혔다.

지역사례 물맞이의 명칭은 지역마다 다르다. 평남에서는 "냉청 맞으러 간다." 하여 폭포수가 있거나 특히 맑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았다. 냉청은 '차고 깨끗한 물'이라는 뜻으로, 이 날 머리에 찬물을 맞으면 한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고 무병하여 건강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 또 물맞이를 "니수맞는다."라고 한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약수터에 가서 속옷을 입고 물을 적시거나 울산바위 밑의 냉정터에 가서 물을 몸으로 받는다. 이렇게 물맞이를 하면 무병하다고 한다. 경남에서는 '약물맞이'라 하여 유두날 여름에 땀띠 나지 말고 건강하라고 약수터에 가서 물을 먹고 목욕을 하거나 폭포에 가서 물(벼락수)을 맞는다. 특히 인천 백령도에는 폭포가 없어서 대청도의 도장골에 있는 폭포로 가거나 육지에 나가는 이들도 있었는데, 피부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한다.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에서는 남녀 모두 유두놀이를 했는데, 남산골에 물이 내려오고 동쪽 해변에 약수가 있어서 이를 마시고 목욕하며 머리를 감았다고 한다. 전남에서는 6월에 비가 많이 오면 다음날 물이 떨어지는 곳 아래에 앉아 물을 맞거나 경치 좋은 계곡으로 물을 맞으러 간다. 물을 맞으면 부스럼 같은 피부병과 신경통에 좋다고 한다. 이렇게 물맞이를 하러 갈 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해야 효험이 있다고 해서 그 전날부터 비린내 나는 음식을 금한다. 심지어 물맞이 하러 가던 길에 뱀 등 부정한 것을 보아도 물맞이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오기도 한다. 물맞이는 날이 가물 때 더 약이 된다고 해서 이러한 때 한층 더한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甕津郡誌(甕津郡, 1989),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속초의 향토민속(속초문화원, 1992),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세시풍속(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서해숙(徐海淑)

유두할아버지

정의 유두에 천둥소리 나는 것. "유두할아버지 운다."라고도 하는데 유두할아버지는 두류님[頭流, 머릿님]의 음이 변한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 유두하네비, 유두할배, 유두할아벵이, 유두천둥이 있다.

내용 천둥은 번개, 비, 구름, 바람과 함께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음과 양이 부딪쳐서 나는 소리인데, 유두할아버지 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천둥소리를 신격화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천둥은 한자어 천동(天動)에서 '동'이 '둥'으로 발음된 말이다. 중국에서 천동은 천체의 운행이라는 뜻이 있을 뿐이다. 농경사회에서 천둥소리는 가뭄에 비를 몰고 오는 길조(吉兆)로 생각했기 때문에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자연관상점(自然觀象占)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유두할아버지가 유두날 어느 때 우는가에 따라 그 해의 농사점을 치는데, 일반적으로 유두날 천둥소리가 울어야 농사가 잘된다고 믿었다. 곧 천둥소리가 일찍 울면 그 해 이른 곡식이 잘되고 늦게 울면 늦은 곡식이 잘된다고 한다. 전남에서는 천둥소리가 비를 몰고 온다고 생각하여 유두날에 하늘이 한 때 "욱클" 하고 진동하는 소리가 울어야 그 해 농사 시절이 좋고, 유두날에 천둥소리가 나지 않으면 좋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유두날에 비가 와야 농사에 길하다고 해서 유두비를 기다린다. 부산에서는 유두날 뇌성(雷聲)이 들려야 풍년이 들고 이 뇌성을 "하늘이 운다." 또는 "유두할배가 운다."라고 한다. 그리고 유두날 뇌성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켜 울리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는 유두날 뇌성이 들리면 그 해 서리가 일찍 내리기 때문에 농사에 피해가 있다고 하며, 강원도에서는 유두일에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 머루와 다래 흉년이 든다고 한다.

참고문헌 |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한국세시풍속 I -1970년대~1980년대 조사자료-(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표인주(表仁柱)

건단(乾團)

☞ 수단(水團): 여름편

밀국수

☞ 유두면(流頭麵): 여름편

밀쌈

☞ 연병(連餠): 여름편

밀전병(-煎餠)

☞ 연병(連餠): 여름편

분단(粉團)

☞ 수단(水團): 여름편

상화병(霜花餠)

정의 밀가루에 술을 넣고 반죽하여 발효시킨 다음 그 안에 팥이나 깨, 고기, 나물을 넣고 둥글게 빚어 찐 음식.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유두에 먹는 절식이라 하였으며, 주로 여름에 먹는다. 제주도에서는 상애떡이라 한다.

내용 쪄낸 모양이 둥글게 부풀어 올라 색깔이 뽀얗고 촉감이 말랑말랑하며 보드랍다. 마치 서리가 하얗게 앉은 것 같아 상화병이라 부른다. 밀가루로 만든 찐빵과 같으며 개화 이후 만두의 한 종류로도 보인다. 개화 후 서양의 영향으로 밀가루로 만든 것을 빵이라 하는데, 초기에는 쌀이 아닌 밀가루로 만든 것도 병(餠)이라 하였다. 정확히 전하지 않지만 상화(霜花)라고 쓰며 『명물기략(名物紀略)』에 상애라 하였고, 부풀어 오른다는 뜻에서 기수(起溲), 기주떡 외에 찌는 떡으로 분류하여 증고(蒸餻), 증병(蒸餠)이라 하였고 중국의 영향으로 포자(包子), 만두(饅頭)라고도 불렀다.



상화병 궁중음식연구원

상화란 명칭이 정식으로 문헌에 나타난 것은 고려가요(高麗歌謠)이다. 고려시대에는 밀가루가 매우 귀하여 비싸게 수입해 왔으며, 그 밀로 만든 상화는 특별히 쌍화점에서 팔았다. 가게주인과 아가씨가 농을 하는 가요에서 "쌍화점(雙花店)에 쌍화(雙花)사러 가고신 댄 회회(回回)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라고 하였다.

상화는 고려시대에 들어온 외래 음식이지만 조선 후기까지 별미 떡류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중국 기행문인 『연행일기(燕行日記)』에 "유박아(柔薄兒)란 우리나라의 상화떡처럼 만든 것인데, 밀가루를 써서 우리의 만두처럼 가장자리가 쭈글쭈글하다."라고 적혀 있다. 이 글에서 보면 상화병의 재료는 밀가루이며 생김새가 주름 잡혀 있는 것으로 상화와 만두가 구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귀한 음식이라 조선 궁중의 빈객을 담당하던 사도시(司導寺)에서 사신 영접상에 올렸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闈閣叢書, 東國歲時記, 名物紀略, 歲時風俗集, 燕行日記, 洌陽歲時記, 要錄, 飮食知味方, 朝鮮常識, 우리나라 세시기(李尤熙, 金龍圖書, 1948),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한국의 음식용어(尹瑞石, 民音社, 1991), 우리말 조리어 사전(윤숙경, 신광출판사, 1996).

필자 | 한복려(韓福麗)

수교위[水角兒]

정의 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밀어서 오이, 버섯, 고기로 만든 소를 넣고 빚어 삶거나 쪄서 먹는 만두의 일종.

어원 우리는 예부터 얇은 반대기에 소를 채워 넣고 만든 것을 모두 만두라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교자(餃子)라 한다. 특히 조리방법에 따라 수교자(水餃子), 증교자(蒸餃子), 전교자(煎餃子)라 한다. 수교위는 물만두의 중국어를 빌려 이두로 표기한 것으로 짐작된다.

내용 당대(唐代) 단공로(段公路)의 『북호록(北戶錄)』「식목(食目)」에 "안지추(顔之推)가 말하기를

지금의 혼돈(**餛飩**)은 모양이 반월형(半月形)과 같아서 천하의 통식(通食)이다."라고 하였다. 교자의 모양을 정리하면서 당시 모두가 먹는 음식으로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의전서(是議全書)』와 『요록(**要**錄)』에는 수고아(水羔兒)로 기록되어 있는데, "밀가루를 반죽하여 개암만한 크기로 떼어 얇게 밀어서 쇠고기 다진 것, 표고, 느타리, 오이를 볶아 소로 해서 대추만큼씩 빚어 감나무 잎을 깔거나 어레미(굵은체)에 담아 찐 음식"이라 하였다.

『음식디미방』에는 수교위법이라 하여 "표고, 석이, 외(오이)를 가늘게 썰고 백자(잣), 후춧가루로 양념하여 밀가루를 깁(고운체)에 쳐서 국수같이 반죽하여 얇게 밀어 놋그릇 굽으로 박아서 도려낸다. 껍질에 소를 가득 넣고 오므려서 오래 삶아 기름을 묻혀 초지렁(초간장)에 놓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시의전서』에는 슈교의라 하여 "밀만두(편수)처럼 밀어 대소(크기)도 그만치 버히고 소는 오이를 채쳐 잠깐 절여 빨아 잘 짜고 황육 다져 넣고 표고, 느타리, 석이, 고추, 계란 부쳐 여러 가지 채쳐 섞어 양념 갖춰 넣어 볶아 소를 넣되 괴불처럼 접어 만두 모양같이 초롬초롬하게 쥐여 감잎을 깔고 쪄서 가로 세로 다듬어 기름을 많이 발라 초장에 먹으라." 하였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고운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조금씩 떼어 방망이로 고루 손바닥 두께로 민다. 그리고 늙은 외를 잘게 썬 것과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에 기름과 간장 양념을 넣고 섞어 소를 만든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밀가루에 오그려 빚으면 꼭 만두 모양과 비슷하니 이것을 푹 쪄서 초장에 찍어 먹는다."라고 하였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여름에 만들어 먹지만 유월 유두에 만들어 먹는 것은 늙은 외를 껍질과 씨를 빼고 실같이 썰어 쇠고기와 정육과 마고(표고버섯의 한 종류)와 석이버섯과 파흰 것을 모두 잘게 이겨 오이 썬 것과 같이 장과 기름을 치고 주물러 놓고 밀가루 반죽한 것을 얇게 밀어 주무른 소를 넣고 만두처럼 빚어 틀에 쪄서 참기름을 바르고 잣가루 뿌리고 초장에 먹나니라."라고 하였다. 『이조궁정요리통고(李朝宮廷料理通攷)』의 궁중만두로 알려진 규아상은 수교위와 같은 것이다. 규아상은 오이소가 많이 들어가고 반을 접어 등에 주름을 많이 넣고 쪄 낸 여름만두이며, 해삼모양으로 빚었다고 미만두라고도 부른다.

참고문헌 | 宮廷料理通考, 北戶錄, 是議全書, 洌陽歲時記, 要錄, 음식디미방, 李朝宮廷料理通攷,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한국의 음식용어(尹瑞石, 民音社, 1991), 우리말조리어사전(윤숙경, 신광출판사, 1996).

필자 | 한복려(韓福麗)

수단(水團)

정의 삶은 햇보리나 작고 동글납작하게 만든 멥쌀 흰떡을 녹말가루를 묻혀 끓는 물에 데쳐 차가운 꿀물이나 오미자국에 띄워 시원하게 먹는 화채.

내용 수단(水團)은 한문으로 물에 동그란 것이 떠 있다는 말이다. 알갱이인 떡을 띄우면 떡수단, 보리를 띄우면 보리수단이다. 물기가 있는 것은 수단이지만 물기가 없는 것은 건단(乾團)이다. 건단은 멥쌀가루를 쪄서 흰떡가래처럼 만들어 구슬만하게 작게 썬 것을 물에 넣지 않은 것으로 곧 냉국(冷**掬**)의 하나이다. 혹 찹쌀가루로 만들기도 한다.

여영공(呂榮公)의 『세시기(歲時記)』에 단오에는 수단을 만드는데 일명 백단(白團)이라 하고, 가장 정(精)한 것을 적분단(滴粉團)이라 한다고 했다. 『천보유사(天寶遺事)』에 보면, 궁중에서는 매양 단오가 되면 분단(粉團)과 각서(角黍)를 만들어 정금함(釘金艦) 가운데 놓고 작은 각궁(角弓)으로 쏘아 분단을 맞힌 사람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분단이 매끄러워 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에 넣지 않았으니 건단이라 볼 수 있으며, 중국의 단오 음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두로 옮겨졌다.



수단 궁중음식연구원

『세시잡기(歲時雜記)』에 보면, 단오에 만든 것을 수단 또는 백단(白團)이라고도 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유두에 먹는 음식 중 멥쌀가루를 쪄서 동그랗게 긴 다리같이 만들어 잘게 썬 다음 구슬같이 만든다. 그것을 꿀물에 넣고 얼음을 채워서 먹고 제사에도 쓴다. 이것을 수단(水團)이라고 한다." 하였으며, 『경도잡지(京都雜志)』와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도 그와 같은 기록이 있다.

유월 유두에는 보리와 밀 같은 햇곡식과 참외, 오이, 수박 같은 햇과일이 나오므로 새 산물을 조상께 올리는 천신(薦新)이 우선이다. 천신한 곡물들은 햇것이라 별미로 만들어 먹는데, 밀로는 국수나 전병, 상화를, 보리로는 수단이나 상화를 해 먹는다.

보리수단은 햇보리가 통통하게 되도록 삶아서 녹말을 고루 묻혀 끓는 물에 데친 다음 냉수에 담근다. 그런 다음 다시 건져서 녹말을 묻혀 데쳐낸다. 두세 번 반복하면 마치 유리구슬처럼 투명해진다. 고운 분홍빛의 달콤새콤한 오미자국에 작은 구슬 같은 보리알갱이가 동동 떠 있어 보기도 좋지만, 매끄럽게 혀에 닿으며 톡톡 씹히는 맛이 특별하다.

가래떡을 하는 것처럼 멥쌀가루에 물을 조금 섞어서 찐 후 잘 치면 끈기가 나는 떡덩이가 된다. 이것을 가늘게 늘려 콩알만하게 떼어 엄지와 검지로 살짝 누르면 동글납작해진다. 녹말을 묻혀 보리수단처럼 만들면 유리알 같은 알갱이가 된다. 이것을 얼음을 탄 시원한 꿀물에 띄워 마신다. 여름에는 곡물을 이용한 음료로 미수나 수단을 먹지만 우리나라의 화채는 국물도 중요하나 건지도 충실하게 먹도록 만들었기에 요기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고조리서에 나타난 수단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의전서(是議全書)』의 수단은 "흰떡을 쓸 때 같이 밀어서 콩알만하게 썬 다음 녹말을 묻혀 삶아서 냉수에 넣었다가 건져놓고, 냉수에 꿀물을 진하게 타서 수단을 넣고 잣을 띄운다."라고 하였다. 흰떡가래를 가늘게 밀어 잘게 썰어서 구슬같이 만들거나 쌀가루나 밀가루를 반죽하여 젓가락만큼씩 밀어 한 푼 반 길이로 썰어서 삶아 찬 꿀물에 넣어 먹는 음식이며, 6월 유두일에 만들어 먹는 시절음식이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의 수단은 "흰떡을 젓가락 굵기만큼씩 부벼가지고 한 푼 반 길이씩 썰어 마르기 전에 꿀물에 타서 먹나니 꿀물 한 대접이면 떡 썬 것 한 보시기쯤 넣고 실백을 띄우나니라."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수단을 통보리가 아니고 가루를 반죽하여 만들었다. 이 책에는 "보리를 작말하여 고운 체에 여러 번 쳐서 극히 곱게 하여 맹물에 반죽하여 적은 개암만큼씩 동글게 하여 삶아서 냉수에 넣었다가 곧 건져서 꿀물에 넣어 먹으면 씹을 수 없이 매끄러워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게 매끄러우니라."라고 하였다.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의 수단은 "흰떡을 젓가락 굵기만큼씩 부벼가지고 구 푼 길이씩 썰어서 녹말가루를 묻혀 펄펄 끓는 물에 잠깐 삶아서 냉수에 넣는다. 즉시 채반에 쏟아 물을 빼고 차게 식힌 후에 물에 꿀을 풀어서 세 그릇에 나누어 담고 흰떡 썬 것을 나누어 넣고 실백을 넣어서 상에 놓나니, 새로 만든 흰떡이 없을 때에는 마른 흰떡을 젓가락만큼 가늘게 썰어서 한 푼 길이씩 썰어서 위의 법과 같이 하여도 좋으니라."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보리를 잘 대껴서 삶아 가지고 찬물에 건져서 물이 다 빠지거든 녹말가루를 묻혀서 또 다시 잠깐 삶아 가지고,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건져서 꿀물에 넣고 실백을 띄워 놓나니라."라고 하였다.

궁중의 수단은 위와 같이 흰떡을 꿀물에 띄우거나 또는 멥쌀가루를 경단처럼 빚어서 익혀 넣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순조 29년(1829) 진찬의궤(進饌儀軌)에 따르면, 순조의 사순(四旬)과 어극(御極) 30년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수단을 차렸으며, 재료로 멥쌀 석 되, 꿀 다섯 홉, 잣 두 작이 쓰였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歲時雜記, 是議全書, 洌陽歲時記,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朝鮮料理製法, 天寶遺事.
필자 | 한복려(韓福麗)

연병(連餠)

정의 얇게 부친 밀전병에 깨나 팥을 달게 하여 넣거나 각색 나물을 넣어 돌돌 말아서 먹는 음식. 밀쌈이라고도 한다.

내용 연병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크고 작게 거죽을 만들고 소는 소대로 달게 하거나 짜게 간하여 끝에서부터 말아 원통형으로 만든 것이다. 궁중이나 양반가에서 밀쌈을 가장 화려하고 맛있게 먹도록 만든 것이 구절판이다.



연병 궁중음식연구원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밀가루를 반죽하여 기름에 지지고 줄나물로 만든 소에 싸거나 콩과 깨에 꿀을 섞은 소를 싸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오므려 만든 것을 연병이라 하였다. 육방옹(陸放翁)의 '검남시고(劍男詩藁)'라는 시에 "쟁반을 씻고 연전(連展) 쌓아 놓는다."라고 하였다. 주(註)에 "회땅 사람이 보리떡을 연전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조선의 연중행사(朝鮮の年中行事)』에서는 "연병(連餠)은 밀가루에 물을 조금 붓고 반죽하여 얇게 펴서 기름에 지진다. 그리고 깨, 팥, 꿀을 섞어서 소를 만들어 각각에 넣고 말아 싼다. 그것을 찌거나 해서 먹는다."라고 하였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주로 여름에 먹는다. 밀가루를 되직하게 반죽해서 국수로 만들어 닭국물에 끓여 먹는 칼국수, 감자 같은 여름 채소를 넣고 멸치장국에 끓이는 수제비, 묽게 반죽하여 기름에 지지는 부침이 있다. 부침은 부치미, 부꾸미, 부치개, 밀적, 빈대떡이라고 하며, 반죽 안에 호박, 부추, 파, 미나리 같은 채소를 넣고 얇게 부친다. 지역에 따라 밀가루가 아닌 메밀이나 수수, 찰기장, 차조로도 만들고, 계절에 따라서 찹쌀을 쓰기도 하고 소도 다르게 넣는다.

지역사례 지역에 따라서는 먹기 쉽게 별미로 만들어 먹는데 빙떡, 총떡과 같이 여름 나물이나 팥고물을 넣어 간식으로 먹는다. 총떡은 강원도에서 먹는 연병의 일종이다. 메밀가루를 묽게 풀어 밀전병 부치듯 하면서 소를 넣고 말아 지진 떡이며 소는 배추김치와 볶은 돼지고기 또는 오이채, 표고버섯채 나물에 쇠고기 다진 것을 양념하여 함께 쓴다. 빙떡은 제주도에서 먹는 연병의 일종이다.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넓적하게 지지고 채 썬 무를 양념하여 볶아 무나물을 만들어 소로 넣고 돌돌 말아 만든 떡이다. 넓게 펴서 만든 것이 멍석 같다 하여 멍석떡(망석떡)이라고도 한다. 제주 사람들은 잔칫집이나 상갓집에 부조로 빙떡을 보내는 풍습이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朝鮮の年中行事(朝鮮總督府, 1931),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한국의 음식용어(尹瑞石, 民音社, 1991), 우리말조리어사전(윤숙경 편저, 신광출판사, 1996).

필자 | 한복려(韓福麗)

유두면(流頭麵)

정의 음력 6월 15일 유두에 밀가루를 이용하여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것에 오색 물감을 들여 차고 다니기도 했던 것.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6월조에는 유두에 유두면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소맥(小麥, 밀가루)으로 구슬 같은 모양을 만들어 유두면이라 한다. 거기다 오색 물감을 들여 세 개를 이어 색실로 꿰어 차고 다닌다. 혹 문설주에 걸어 매어 액을 막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아 오늘날 긴 실 모양의 국수는 아닌 듯하다. 구슬 모양으로 만든다고 하였으니 단오 절식인 수단(水團)과 비슷한 모양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수단은 쌀가루로 만들지만, 유두면은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 다르다.

만드는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밀가루를 같은 분량으로 다섯 그릇에 담아 둔다. 여기에 물을 붓고 오색을 내는 재료를 넣는다. 보통 오색은 오방색에서 연유한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이다. 청색에는 쑥즙, 적색에는 오미자즙, 황색에는 치자즙, 흑색에는 깨즙을 주로 사용한다. 이것을 각각 익반죽하



유두면 국립민속박물관

여 구슬 모양으로 만든 후 끓는 물에 넣고 삶아낸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면(麵)이라 하는 것은, 밀가루를 재료로 만든 것을 모두 일컫는다. 그러나 밀가루가 많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쌀가루나 메밀가루로 만든 떡, 경단, 송편, 국수 따위도 모두 '면'이라 불렀다. 따라서 『동국세시기』에 나오는 유두면은 오늘날 우리가 여기는 국수가 아니라 밀가루로 만든 경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이후 밀가루가 풍부해지고, 덩달아 신문과 잡지, 책을 통해 유두절에 유두면을 먹었다는 지식이 널리 퍼지면서 유두면이 밀가루 국수로 변했다.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먹으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믿음도 생겨났다. 아울러 유두일에 조상이나 신에게 제사나 고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로 밀국수를 쓰는 사람도 늘어났다.

지역사례 경남에서는 유월 유두에 논에서 용왕제를 드리고 밭에서 외제를 드렸다. 그런데 용왕제에 올리는 주된 제물은 송편이고, 외제에는 국수를 썼다. 참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열릴 무렵인 유두에 국수를 넉넉히 해서 유두면을 제물로도 썼다. 국수를 삶아 참외 밭에 가서 참외 넝쿨에 국숫발을 걸치면서 "외가 주렁주렁 내리소."라고 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풍속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食生活風俗(姜仁姬·李慶馥, 三英社, 1984).

필자 | 주영하(周永河)

유두연(流頭宴)

정의 음력 6월 보름인 유두일에 산간 폭포나 동류수(東流水)에 가서 머리를 감아 액(厄)을 씻어 버리고 준비해 간 음식물을 베푸는 유두 잔치.

내용 유두(流頭)를 신라의 옛 땅인 경상도 지방에서는 물맞이라고 부른다. 물맞이의 이두 표기는 수두(水頭)인데, 이는 물마리(마리는 머리의 옛말)로서 머리에 물을 맞는다는 뜻이다. 『중경지(中京誌)』 권2 풍속조에 "6월 15일 동류수에 머리를 감아 상스럽지 못함을 없앤다. 그리고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이를 유두음(流頭飮)이라 한다. 혹 폭포에서 머리를 풀어헤쳐 물을 맞는데, 이를 타두회(打頭會)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고려사(高麗史)』 명종 15년조에도 유두음에 대한 기록이 보이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김극기집(金克己集)』을 인용하면서 유두가 동도(東都, 경주)의 오래된 풍속이며, 이 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을 없애고 계음(禊飮)을 하는데, 이를 유두연이라 한다고 하였다.

유두일 아침 각 가정에서는 밀가루로 만든 여러 가지 음식과 햇곡식, 햇과일을 사당에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는데, 이를 유두천신(流頭薦新)이라 한다. 이때 사당에 올리는 이른 벼, 콩, 조를 각각 유두벼, 유두콩, 유두조라 한다. 농가에서는 이 날 반드시 천둥[天動, 우레]소리가 난다고 하여 천둥소리가 이르고 늦음에 따라 그 해 서리가 일찍 오고 늦게 올 것을 점쳐 농사에 대비한다. 유두에 먹는 음식은 유두면, 밀전병, 수단(水團), 건단(乾團), 상화병(霜花餠), 편수가 있다. 이 중 유두면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슬같이 모양을 만들어 오색으로 물들인 것인데, 세 개씩 포개어 색실로 꿰어 몸에 차거나 문 위에 걸면 재앙을 물리치고, 먹으면 여름 내내 더위를



溪深魚肥圖(유숙) 덕원미술관



물놀이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밀가루로 국수나 수제비를 만들어 먹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상화병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콩가루나 깨를 섞어 꿀에 버무려서 찐 떡이며, 편수는 만두의 일종이다.

유두천신이 끝난 뒤 사람들은 산간 폭포나 동쪽에서 흐르는 맑은 시내에 가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다. 그리고 고려가요 '동동(動動)'의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린 빗"이라는 노랫말과 같이 그동안 쓰던 빗을 물가 벼랑에 던져버린다. 이는 한여름 무더운 복중(伏中)에 들어있는 유두일에 더위를 피하여 건강을 유지하고자 한 조상들의 지혜이다. 또한 양기가 가장 왕성한 동쪽의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상스럽지 못한 기운을 씻고, 그동안 사용해 오던 머리빗을 버림으로써 재액(災厄)을 떨쳐 버리고자 한 믿음에서 생긴 풍속이다. 특히 선비들은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계곡이나 물가에 있는 시원한 정자를 찾아서 머리를 감고 풍월을 읊조리며 하루를 즐기는 유두연을 베풀었다.

의의 정학유(丁學游)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 유두는 좋은 날이고 참외와 밀국수를 조상에게 바친다는 내용이 있다. 이로 보아 유두는 햇곡식과 햇과일로 정성을 다해 절식을 장만하여 조상과 농신에게 바치며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시원한 물로 머리를 감아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깨끗이 씻어 무더위를 피한 좋은 날로서 우리 민족의 오랜 풍속 중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中京志, 韓國風俗誌(全海壹, 同人文化社, 1956), 한국세시풍속기(강무학, 도서출판 청화, 1985),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朝鮮의 占卜과 豫言(村山智順 著·金禧慶 譯, 東文選, 1990),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이찬욱(李澯旭)

유두잔치(流頭-)

☞ 유두연(流頭宴): 여름편

유두에 소 타지 말고 팔월에 타라

☞ 오월농부, 팔월신선: 여름편

유월스무날

정의 음력 6월 20일로 닭을 잡아먹는 날. 제주도 사람들은 유월 스무날을 '둑(닭) 잡아먹는 날'이라고 한다. 이 날 닭을 잡아먹으면 만병에 좋고 보신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모두 닭을 삶아 먹는다.

내용 몸이 허한 사람은 일부러 약닭을 고른다. 약닭으로는 오계(烏鷄)를 최고로 친다. 중병을 앓는 이에게는 오계의 창자를 꺼낸 뒤에 마늘과 옻나무를 넣고 고아 먹인다. 어린이에게는 앵두나무, 쌀, 황톳물을 넣고 고아 먹인다. 이렇게 하면 회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부인병을 앓는 이에게는 황계(黃鷄)에 마늘, 쌀, 백토란, 지네를 넣고 고아 먹인다. 남자는 암탉, 여자는 수탉을 먹어야 더욱 효과가 있다고 한다.

유월 스무날은 조 김매기를 기준으로 할 때 초벌 방골름, 두벌 방골름이 이루어지고 난 뒤 세벌 방골름을 하기 전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방골름은 조가 잦게 자란 곳과 듬성듬성 자란 곳을 고르게 해주는 일을 말한다. 조 김매기는 이러한 방골름을 병행해야 한다. 불볕더위에 김매기를 하느라 심신이 피곤하지만 마음 놓고 쉴 수는 없고, 바로 다음 김매기에

들어가야 하는 잠깐 동안의 휴식기이다. 이 즈음에 닭을 고아먹음으로써 지친 몸을 추스르고, 다음 김매기를 할 힘을 되찾게 된다. 이 날 닭을 잡아먹으면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적절한 시기에 영양식을 보충함으로써 원기를 회복하기 때문이다.

유월 스무날은 단지 닭을 잡아먹고 몸을 보신하는 날만은 아니다. 이 날 닭을 잡아먹는 일은 생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셈이다. 제주도와 경남에서는 이 날 날씨를 보아 한 해 농사를 점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날 저녁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맑고 해가 수평선 위를 붉게 물들이면서 지면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들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 濟州道民俗 -歲時風俗-(진성기, 濟州民俗硏究所, 1969),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濟州道誌3(濟州道, 1993),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필자 | 강정식(姜晶植)

삼복(三伏)

정의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의 절기로 초복, 중복, 말복을 가리킴. 하지로부터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初伏), 넷째 경일을 중복(中伏),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末伏)이라 하며 이를 삼복(三伏) 혹은 삼경일(三庚日)이라 한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들기 때문에 초복에서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린다. 이처럼 20일 만에 삼복이 들면 매복(每伏)이라고 한다. 하지만 말복은 입추 뒤에 오기 때문에 만일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이 되면 달을 건너 들었다 하여 월복(越伏)이라 한다. 삼복은 음력의 개념이 아닌 양력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소서(양력 7월 8일 무렵)에서 처서(양력 8월 23일 무렵) 사이에 들게 된다.

내용 복날은 장차 일어나고자 하는 음기가 양기에 눌려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뜻이다. 복(伏)자는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 가을철 금(金)의 기운이 대지로 내려오다가 아직 여름철의 더운 기운이 강렬하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려 복종한다[屈伏]는 의미로, 여름의 더운 기운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제압하여 굴복시켰다는 뜻이다. 곧 오행에서 여름은 불[火]에 속하고, 가을은 쇠[金]에 속하는데, "여름 불기운에 가을의 쇠 기운이 세 번 굴복한다."라는 뜻으로 복종한다는 뜻의 복(伏)자를 써서 삼복이라 하였다.

천간(天干: 십간) 중 경일을 복날로 삼은 까닭은, 경(庚)은 속성상 약하고 오행으로 볼 때 금(金)이며, 계절로는 가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금은 사계절 중 가을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내장되어 있는 경일을 복날로 정해 더위를 극복하라는 뜻이다.

삼복은 중국 진(秦)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년 중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여서 삼복더위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복날에는 개장국과 삼계탕을 즐겨 먹었다. 특히 복날 한적한 숲속의 냇가로 가서 개를 잡아 개장국을 끓여 먹는 풍속을 복달임, 복놀이라 했으며, 함경도에서는 개 잡는 것을 개놀음이라 불렀다. 또 복날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여 팥죽이나 수박, 참외를 먹었다. 1800년대 유만공(柳晩恭)은 복날의 풍경을 이렇게 읊었다.

"참외 쟁반에다가 맑은 얼음을 수정같이 쪼개 놓으니, 냉연한 한 기운이 삼복을 제어한다. 푸줏간에는 염소와 양 잡는 것을 보지 못하겠고, 집집마다 죄 없는, 뛰는 개만 삶아 먹는다."

복날 개고기를 먹는 것은 더위를 이기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이 개장(狗醬)이다. 닭이나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다. 또 개장국에 고춧가루를 타고 밥을 말아먹으면서 땀을 흘리면 기가 허한 것을 보강할 수 있다. 생


삼계탕 먹는 모습
서울시 종로구 최호식

각건대 『사기(史記)』 진덕공 2년(기원전 676)에 비로소 삼복 제사를 지냈는데, 성안 대문에서 개를 잡아 해충의 피해를 막은 것으로 보아 개를 잡는 것이 복날의 옛 행사요, 지금 풍속에도 개장이 삼복 중의 가장 좋은 음식이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복날 개고기를 먹는 까닭은 다름 아닌 부족한 쇠[金]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이다. 오행으로 보면 개는 서쪽에 해당하며 금(金)에 속한다. 화기가 극성을 부리는 복날은 불이 쇠를 녹이는 화극금(火克金)이 되어 금의 기운이 쇠퇴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왕성한 개를 먹어 부족해진 쇠를 보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야만 더위로 허해진 심신의 균형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었다.

복날 각 지방에서는 술과 음식을 준비해 계곡이나 산을 찾아 하루를 즐겁게 보내며 더위를 잊었는데, 서울에서는 삼청동 성조우물물을 먹으며 계곡물에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였다. 이 날 부녀자들은 약수에 머리를 감으면 풍이 없어지고 부스럼이 낫는다고 하여 해마다 행하였는데, 이를 '물맞는다'라고 한다.

또한 일년 중 가장 무더운 복날의 날씨가 벼를 자라게 한다. 그래서 벼는 복날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는다고 하여 초복은 벼가 한 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 날 떡과 전을 장만하여 논에 가지고 가서 농사가 잘 되도록 비는데, 이를 복제(伏祭)라 한다.

삼복 날씨로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삼복에 비가 오는 것을 삼복비라고 하는데, 전남에서는 복날의 비를 농사비라 하여 기다리며 부산에서도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천둥이 치면 산과가 흉년이 든다고 여긴다. 또한 대추나무는 삼복 즈음에 열매를 맺는데, 이때 비가 오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여 "복날 비가 오면 보은 처녀가 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보은 지역은 대추농사를 많이 짓는데, 복날 비가 오면 대추가 흉년이 들어 가계가 어려워지므로 시집가기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주로 초복에 거미를 잡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두며, 감기에 걸렸을 때 그 가루를 먹는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海東竹枝,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정종수(鄭鍾秀)

경금(庚金)

정의 삼복(三伏) 더위를 달리 일컫는 말. 복(伏)은 하지(夏至) 후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 넷째 경일(庚日)을 중복, 입추(立秋) 후 첫째 경일(庚日)을 말복(末伏)이라고 한다.

내용 조운종(趙雲從)의 「세시기속(歲時記俗)」 삼복조(三伏條)에 "경금(庚金)의 기운이 화(火)의 기운을 만나 굴복했으니 이때를 복날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이 시기를 가장 소중히 여겨 설날과 복일(伏日), 납일(臘日)을 함께 일컬었다. 우리 풍속은 비록 그만큼 일컫지는 않으나, 복날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 개를 삶아 국을 만들어 먹었으며 중복(中伏)이나 말복(末伏)에도 마찬가지이다(庚金遇火而伏 是謂伏日 中國最重玆辰 幷稱歲時伏臘 東俗則雖不甚稱道 而遇庚日 輒烹狗爲羹 會客喫之 中末庚同)."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歲時記俗.
필자 | 홍성훈(洪性薰)

월복(越伏)

정의 삼복(三伏)을 달리 부르는 말.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을 이르는 말로 한국에서 가장 더울 때를 일컫는다.

내용 복날은 하지(양력 6월 22일)로부터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初伏), 넷째 경일을 중복(中伏), 입추(양력 8월 8일 무렵) 뒤의 첫 경일을 말복(末伏)이라 하며, 이를 삼복 혹은 삼경일(三庚日)이라 한다. 복날은 10일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과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리지만, 입추 뒤 첫 경일이기 때문에 말복은 흔히 달을 건너 뛰어 월복(越伏)하게 된다. 이처럼 말복이 달을 건너뛰어 들면 월복이라 한다. 만일 월복이 되면 말복은 중복 뒤 20일 만에 오게 되므로 삼복은 소서(양력 7월 8일 무렵)에서 처서(양력 8월 23일 무렵) 사이에 들게 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海東竹枝.
필자 | 정종수(鄭鍾秀)

복제(伏祭)

⇨ 농신제(農神祭): 여름편

모래찜질

정의 삼복(三伏) 무렵에 강가나 바닷가의 뜨거운 모래 속에 몸을 묻고 땀을 내는 풍속. 지역에 따라 모래뜸질, 모살뜸, 사욕(沙浴), 사증(沙蒸)이라고도 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모래찜질을 하는 시기는 단오와 유두, 삼복, 백중 등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여름은 강가나 바닷가의 모래가 뜨거운 태양열로 달구어지는 시기이다. 이때 뜨거운 모래로 찜질을 함으로써 건강은 물론 신경통에 좋다는 경험에서 나온 민간요법의 하나이다.

단오에 모래찜질을 하는 곳은 서울 동작구, 전북 부안·고창·김제·군산, 전남 영암·나주이다. 유월 유두에 하는 곳은 경남 합천, 전북 순창·부안·군산, 전남 나주 등이다. 삼복에 하는 곳은 경남 울주·합천·창녕·양산, 부산, 전북 부안·순창, 경북 달성·영양·고령, 강원도 강릉 등이다. 칠월 백중에 하는 곳은 전남 곡성·순창, 제주도, 경북 구미 등이다. 그러나 전북 부안·순창, 전남 나주에서는 오월 단오와 유두, 삼복, 백중에 모래찜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북 익산과 완주에서는 4월 중에 날을 정하여 모래찜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모래찜질을 하는 방법은 이렇다. 먼저 강가나 바닷가의 모래밭에 한 사람이 누울 만큼 얕은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뜨거운 모래로 온몸을 덮는다. 뜨거운 모래에 직접 피부가 닿으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삼베옷을 입거나 얇은 옷을 입고 모래찜질을 한다. 물에 들어가 몸을 식힌 후 찜질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모래찜질을 하는 시간은 보통 30분 정도가 가장 좋으며, 산후통으로 알려진 여성의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다.

제주시 삼양동 해안은 철분이 많이 함유된 검은 모래로 이곳의 모래뜸질이 유명하다. 이 해변에서 모래뜸질을 하면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사람들이 피서를 겸하여 모여든다. 60~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 모래로 여성들이 배꼽 밑에 뜸질을 하면 아기를 못 낳던 사람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나서 육지에서도 이곳 모래를 퍼갔다고 한다.

의의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래찜질은 뜨거운 모래 열기로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법이다. 그러나 뜨거운 모래찜질을 통해 신경통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경험을 세시풍속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선조들의 피서법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강릉의 민속문화(장정룡, 대신출판사, 1991), 銅雀區誌(서울特別市 銅雀區, 1994),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필자 | 김시덕(金時德)



모래찜질 국가기록원

삼복비[三伏雨]

⇨ 삼복(三伏): 여름편

호박순치기

정의 삼복(三伏) 중에 호박이 크고 많이 열리도록 호박 넝쿨의 순을 치는 풍속. 막대기로 호박순을 톡톡 쳐서 순을 자르기 때문에 호박때리기, 호박잎때리기, 호박순자르기, 호박넝쿨두드리기, 삼대로 호박때리기라고도 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호박은 곁가지 사이에 열리므로 곁가지를 발달시켜 호박이 많이 열리도록 순치기를 한다. 호박순치기는 삼복 중에 웃자라는 순을 쳐 가지치기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호박이 많이 열리게



호박순
강원도 봉평군 최수연

하는 것이다. 열대성 식물인 호박은 삼복 중에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때 호박순을 치지만, 충남 천안과 보령, 전남 익산에서는 유두나 칠석에 하는 경우도 있다. 전북 부안과 익산에서는 "호박 많이 열어라, 세금 무는 땅에서 놀면서 호박은 왜 안 여느냐?"라고 말하고, 진안에서는 "복이다."라고 말하면서 호박순을 친다. 충남 청양에서는 겨릅대로 "구실 무는 땅에서 왜 안 여냐."라고 말하고, 천안에서는 "마디마다 많이 열어라." 하면서 작대기로 호박순을 자른다. 충남 청양, 전남 구례에서 겨릅대를 사용하는 것은 쉽게 부러져 호박에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의의 호박순치기는 호박의 순을 치는 농사일의 하나이지만, 단순한 순치기가 아니라 호박때리기로 풍속화되면서 호박이 많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로 발전한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故事通(崔南善, 三中堂書店, 1943), 李朝農業技術史(李春寧, 韓國硏究院, 1964),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김시덕(金時德)

개장국

정의 된장을 푼 국물에 개고기를 넣고 갖은 양념을 해서 끓인 국. 태음력 6월과 7월 사이에 있는 초복(初伏), 중복(中伏), 말복(末伏)의 삼복에 계삼탕(鷄蔘湯)이나 팥죽과 같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 먹는 시절음식의 하나이다. 개장국은 다른 말로 개장, 구장(狗醬), 지양탕(地羊湯), 보신탕(補身湯), 영양탕(營養湯), 사철탕이라 부른다.

내용 고고학 유물과 문헌에 따르면, 개고기를 먹은 시기는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개장국을 식용한 기록은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온다.

안동 장씨의 『음식디미방』에는 개장, 개장국 누르미, 개장고지 누르미, 개장찜, 누런 개 삶는 법, 개장 고는 법과 같은 각종 개고기 조리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閨閤叢書)』에도 증구법(蒸狗法)이라 하여 개장 조리법이 나온다. 『산림경제(山林經濟)』 동과증선법(冬瓜烝膳法)에도 개장 조리법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이와 같이 개장에 대한 자세한 조리법이 17세기 이래 등장한 것만 보아도, 조선 후기에는 이미 보편적인 음식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19세기 중반이 되면 시장에서 개장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목로주점도 생겼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당시에 삼복이 되면 개장국 먹는 것이 유행했다고 한다. 곧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을 구장(狗醬)이라 한다. 닭이나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다. 또 개장국에 고춧가루를 타고 밥을 말아서 시절 음식으로 먹는다. 그렇게 하여 땀을 흘리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것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도 이것을 많이 판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동국세시기』를 쓴 홍석모(洪錫謨)는 삼복에 개장 먹는 풍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원을 밝혀 놓았다. "『사기(史記)』에 진덕공(秦德公) 2년에 비로소 삼복 제사를 지내는데 성 안 사대문에서 개를 잡아 충재(蟲災)를 막았다고 했다. 그러므로 개 잡는 일이 곧 복날의 옛 행사요, 지금 풍



개장국 국립민속박물관

속에도 개장이 삼복의 가장 좋은 음식이 되었다."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의 문집에는 삼복 풍속에 개장 먹는 일이 없고 팥죽을 먹는다고 했으니, 그 유행이 조선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을 찾은 구미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개장 먹는 풍습을 조선에서 가장 특이한 모습으로 보고 기록을 남겼다. 프랑스인 가톨릭 선교사 달레(Dallet, Claude Charles)는 『조선천주교회사』에서 "돼지와 개가 엄청나게 많으나, 개는 지나치게 검이 많으므로 푸주의 고기로밖에 거의 쓰이지 않는다. 개고기는 맛이 퍽 좋다고 한다. 그야 어쨌든 조선에서는 가장 훌륭한 음식의 하나다."라고 했다. 아마도 달레 신부는 개고기를 구미에 소개한 최초의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 개장국은 야만적인 음식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그래서 1942년 무렵에 개장국이란 이름을 보신탕으로 바꿔 개고기가 주재료임을 숨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영양탕이나 사철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장국을 더운 여름에 양기(陽氣)를 보충해 주는 음식으로 이해하였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개고기가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혈맥을 조절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골수를 충족시켜 허리와 무릎을 온(溫)하게 하고, 양도(陽道)를 일으켜 기력을 증진시킨다."라고 하였다. 『동국세시기』에는 개장국을 먹으면서 땀을 내면 더위를 물리쳐 보허(補虛)한다고 했으며,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복날에 개장국을 끓여 양기를 돕는다고 했다. 특히 개장국의 재료로는 황구(黃狗)가 으뜸으로 쓰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개장국은 전골, 찜과 함께 삼복에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다. 개장국 끓이는 방법으로 쇠고기를 이용한 음식은 육개장이 있다.

참고문헌 | 閨閣叢書, 東國歲時記, 東醫寶鑑, 洌陽歲時記, 음식디미방, 조선천주교회사, 高麗以前의 韓國食生活史研究(李盛雨, 鄕文社, 1978),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필자 | 주영하(周永河)

계삼탕(鷄蔘湯)

⇨ 삼계탕(蔘鷄湯): 여름편

깻국탕

⇨ 임자수탕(荏子水湯): 여름편

구장(狗醬)

⇨ 개장국: 여름편

닭죽

⇨ 복죽(伏粥): 여름편

백마자탕(白麻子湯)

⇨ 임자수탕(荏子水湯): 여름편

복죽(伏粥)

정의 삼복(三伏)에 먹는 팥죽.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삼복조에 "붉은 팥으로 죽을 쑤어 초복, 중복, 말복에 모두 먹는다."라는 기록이 있다. 보통 팥죽은 동지 때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삼복 때도 개장국, 계삼탕(鷄蔘湯)과 함께 팥죽을 먹는 풍속이 전해진다. 중국의 『한서(漢書)』에서 복(伏)은 음기(陰氣)가 장차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다. 곧 비록 양기(陽氣)가 가득 차 있지만 음기가 일어날 것이라 하여 그 이름을 복일(伏日)이라 하였다. 당연히 복일에는 만귀(萬鬼)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삼가는 것이 좋다. 이로 인해 사악한 기운을 쫓기 위해 삼복에 팥죽을 먹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제강점기에 나온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 다음과 같이 팥죽 만드는 방법이 적혀 있다. "팥죽은 쌀이 한 되면 팥은 두 되 가량 쓴다. 먼저 팥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 오랫동안 삶



아서 팥과 물을 그릇에 퍼놓고 손으로 으깨 굵은 체에 물을 쳐가며 걸러서 한참 가라앉힌다. 그 후 웃물만 솥에 붓고 쌀을 씻어 넣고 불을 때어 끓이다가 한참 끓거든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힌 것을 모두 붓고 끓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삼복 때 팥죽을 먹는 풍속보다 개장국이나 계삼탕을 먹는 풍속이 유행했다. 이것은 여름의 더위를 이기기 위해 보양식(保養食)을 먹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복날에 팥죽보다는 닭죽을 즐겨 먹는다. 닭죽은 닭에 물을 넉넉히 부어 살이 풀어지도록 곤 다음, 육수에 닭고기 찢은 것과 불린 쌀을 함께 넣어 끓인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朝鮮料理製法, 漢書.
필자 | 주영하(周永河)

삼계탕(蔘鷄湯)

정의 닭에 인삼을 넣어 끓인 국으로, 삼복 시식의 하나. 계삼탕(鷄蔘湯)이라고도 한다.

내용 『삼국지(三國志)』와 『수서(隋書)』에 한(韓)에는 꼬리 길이가 5재[尺] 되는 세미계(細尾鷄)가 있고, 백제에는 닭이 있다 하였다. 백제시대에는 인삼도 있었으나 적어도 초기 철기시대 이후 식용으로 해오던 닭이 백제시대에 들어와 인삼과 함께 조리된 삼계탕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창원(正倉院) 문서에는 일본의 나라(奈良)시대인 756년, 시약원(施藥院)에 인삼 50근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인삼을 일본에까지 수출한 점으로 보아 강장약으로서의 인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알 수 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황색의 암탉은 성평(性平)하고 소갈을 다스리며, 오장을 보익하고 정(精)을 보할 뿐만 아니라 양기를 돕고 소장을 따뜻하게 한다.", "인삼은 성온(性溫)하고 오장의 부족을 주치하며 정신과 혼백을 안정시키고 허손(虛損)을 보한다."라고 하였다.

삼복 더위에 보신을 위하여 알 낳기 전의 어린 암탉인 연계(軟鷄, 생후 6개월까지의 닭) 뱃속에 찹쌀, 밤, 대추, 마늘을 넣고 푹 끓여 먹는 것이 연계백숙(軟鷄白熟)이고, 연계백숙에 인삼을 더하면 계삼탕이 된다. 『서울잡학사전』에는 "여름철 개장국보다 더 여유 있는 집안의 시식이다. 계삼탕이 삼계탕이 된 것은 인삼이 대중화되고 외국인들이 인삼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자, 삼을 위로 놓아 명칭을 다시 붙인 것이다."라고 계삼탕이 삼계탕이 된 이유를 소개했다. 한편, 『음식지미방(飮食知味方)』, 『산림경제(山林經濟)』, 『규합총서(閨閤叢書)』, 『시의전서(是議全書)』, 『주방문(酒方文)』, 『부인필지(婦人必知)』 같은 고조리서에는 삼계탕이나 계삼탕과 같은 찬품에 대한 기록은 없고, 다만 연계탕, 연계찜은 기록되어 있다. 19세기 말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시의전서』에서 연계탕 조리방법을 "좋은 연계를 백숙하여 건져서 뼈를 다 바르고 살은 뜯어 육개장 하듯 하되……."라고 한 것을 보면, 19세기 말의 연계탕은 육개장과 같이 끓인 탕임을 알 수 있다.

의의 연계탕 역시 육개장과 마찬가지로 구장(狗醬)이 식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20세기에 들어 복날의 대체식품이 된 것이며, 이후 인삼이 대중화되면서 삼계탕이 된 것이다. 닭이 가진 평(平)한 성질에 인삼이 가진 온(溫)한 성질을 결합시켜 이것을 상극설에 적용시키면, 삼계(蔘鷄)인 화(火)가 복(伏)인 금(金)을 극살한다는 음양오행설의 상극(相剋) 법칙인 화극금(火剋金)설에 따라 복날의 시식이 되었다.

참고문헌 | 東醫寶鑑, 婦人必知, 山林經濟, 三國志, 隋書, 是議全書, 飮食知味方, 酒方文, 서울잡학사전(趙豊衍, 정동출판사, 1989),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金尙寶, 광문각, 1997), 正倉院展(奈良國立博物館, 平成5年).
필자 | 김상보(金尙寶)

어죽(魚粥)

정의 흰살 생선을 져서 살을 으깨고 뼈와 머리는 다시 고아서 체에 밭쳐 그 국물에 쌀과 생선살을 넣고 쑨 죽. 또는 신선한 생선을 고아서 발라낸 살과 곤 국물에 쌀을 넣어 끓인 죽으로 여름 보양음식이다. 해안지역에서의 향토음식이며 별미음식이기도 하다.

내용 『산림경제(山林經濟)』에 붕어죽[鮒魚粥]이 기록되어 있으며,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는 붕어죽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큰 붕어를 창자를 빼내고 비늘째 푹 삶아 꺼내어 대나무체에 내려 살을 발라내고 뼈와 껍질은 버리고 원 즙에다 맵쌀을 넣어 죽을 쑨다. 후추와 생강을 넣어 먹는다.


어죽 궁중음식연구원

닭죽, 우낭죽과 함께 노인에게 좋다."라고 하였다. 그 이후의 조리서에도 생선의 이름을 붙인 죽이 많이 보인다.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정조지편에 붕어죽, 홍합죽, 백합죽, 『시의전서(是議全書)』에 삼합미죽(북도의 해삼, 동해의 홍합, 쇠고기), 향토음식 편에서는 제주도의 옥돔죽, 고등어죽, 게죽, 전복죽, 강원도의 담치죽(담치, 섭조개), 함경도의 섭죽(섭조개죽), 여수의 홍합죽, 미꾸라지를 푹 고아서 애호박과 불린 쌀과 함께 끓이는 죽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향토음식으로 나와 있다. 한편 계절적으로 더위에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는 보양식으로, 평안도와 충청도에서는 복날의 절식으로 먹기도 한다.

어죽에 쓰이는 생선은 갓 잡은 신선한 것으로 만든 것이 특히 맛있고 영양가도 높다. 어종은 도미, 붕어, 옥돔, 청어, 가자미, 대구, 미꾸라지 외에 게, 낙지, 섭조개, 대합, 미꾸라지, 굴, 우렁이, 전복, 홍합이 있다. 어죽 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쌀은 깨끗이 씻어 불린 다음 건져 놓고, 생선에 물을 넉넉하게 부어 푹 고아 국물을 만든다. 국물은 체에 받치고 머리, 뼈, 가시 따위를 깨끗하게 골라내고 살을 살살 으깨 놓는다. 국물을 생선살과 함께 냄비에 담은 다음 불려 건져 놓은 쌀을 넣고 끓인다. 거의 끓었을 때 소금, 후추, 마늘 다진 것으로 삼삼하게 조미하여 다시 뭉근한 불에서 쌀알이 알맞게 퍼졌을 때 불에서 내린다.

의의 어죽은 영양가가 높고 반유동식이므로 환자음식, 노인음식, 아이들의 이유식으로 많이 이용된다. 한편 입맛을 돋우고 단백질과 지방, 무기질 같은 영양을 보충하는 여름철 보양음식으로도 좋다. 우리나라는 식물성 식품에다 생선 등 동물성 식품을 알맞게 배합하는 요리 기법이 잘 발달했다.

참고문헌 | 山林經濟, 是議全書, 林園十六志, 增補山林經濟, 韓國料理百科事典(黃慧性, 三中堂, 1976), 한국의 음식용어(尹瑞石, 民音社, 1991).
필자 | 조후종(趙厚鐘)

용봉탕(龍鳳湯)

정의 잉어와 닭을 함께 넣어 끓인 국으로 삼복 시식의 하나. 잉어를 용(龍), 닭을 봉(鳳)에 비유하여 붙인 이름이다.

내용 중앙아시아가 원산인 잉어[鯉]는 오래 전에 중국에 전파되어 중국에서는 기원전 1000년 무렵 이미 양식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잉어가 뛰어넘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인 등용문(登龍門)은 황하 상류의 삼문협(三門峽) 폭포에서 커다란 잉어들이 많이 모여 이 폭포를 뛰어넘으려고 경쟁하였는데, 모든 잉어들은 실패했지만 한 마리의 잉어만이 성공함으로써 신통력을 얻어 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설로부터 입신출세의 관문을 등용문이라 하였고, "66이 변하여 99개의 비늘이 된다."라는 속담도 생겨났다. 66은 잉어 비늘의 숫자인 6×6=36, 99개의 비늘이란 9×9=81, 곧 81개의 비늘을 가진 용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출세 전설과 좀처럼 죽지 않는 잉어의 생명력은 사람들의 건강을 염원하는 세시풍속에 연결되어 삼복 시식이 되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성한(性寒)하고 황달, 소갈, 수종, 각기를 다스리며 기(氣)를 내린다. 냉기(冷氣)를 부수고 태동(胎動)과 임신부의 붓기를 다스리고 안태(安胎)한다. 잉어는 민물고기의 왕인데 신변(神變)하며 36린(鱗)이니 성수(成數)이다."라고 하였다.


용봉탕 궁중음식연구원

용, 기린, 거북과 함께 상서로운 사령(四靈)의 하나인 봉황(鳳凰)은 죽지 않는 새로 알려져 있다. 머리는 닭의 형상을 하였다 하여 흔히 민가에서는 닭을 봉(鳳)으로 부른다. 수컷이 봉(鳳), 암컷이 황(凰)인데, 『동의보감』은 붉은 수탉에 대하여 "성은 온(溫) 또는 한(寒), 여인의 대하를 다스리고, 허(虛)를 치료하며 통신(通神) 살독(殺毒)할 뿐만 아니라 불상(不祥)한 것을 물리친다."라고 하였다.

용봉탕은 잉어와 수탉이 가진 신기(神氣)를 먹고 장수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출발한 시식으로 잉어가 가진 강한 생명력과 죽지 않는 봉이 결합하여 용봉탕이라는 자양식(滋養食)이 생겨나 복날 음식이 되었다.

참고문헌 | 東醫寶鑑, たべもの日本史總覧(新人物往來社, 1993), 조선왕조연회식 의궤음식의 실제(김상보, 수학사, 1995).
필자 | 김상보(金尙寶)

육개장

정의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뜯어 갖은 양념을 하여 얼큰하도록 맵게 끓인 국으로 삼복 시식의 하나. 육개탕(肉芥湯)이라고도 한다.

내용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2000년대 말 이미 소를 가축화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함북 입석리, 함북 오동, 함북 호곡동 유적에서 기원전 1000년대 전기(前期)에 소뼈가 출토되었다. 이 시기의 유적에서 보습이나 극쟁이가 나온 것으로 보아 소가 농경용 가축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초기 철기시대의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마한, 진한, 변한에서 『후한서(後漢書)』와 『삼국지(三國志)』의 기록을 보면 소를 가축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희생수(犧牲獸)로서 소가 등장하므로 그 고기를 조리하여 먹은 음복(飮福)의 역사는 오래되었다고 하겠다.

고려 때 가축이 식용으로 발달하여 내장에서부터 고기까지 이용하던 몽고족의 침입으로 1000년 불교 역사와 함께 쇠퇴하였던 육식문화가 부활하게 되었다. 아울러 주대(周代)의 복고주의에 따른 조선 왕조의 숭유주의는 강력한 절대 왕조의 통치 수단으로 제사를 통한 의례를 강조하였고, 이에 따르는 희생수(犧牲獸)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했다. 희생수에 의한 제사 음복문화가 육식문화의 발전을 가져왔음은 물론이다.

『의례(儀禮)』「공식대부례(公食大夫禮)」에서 분명히 제시한 것은, 밥과 갱(羹, 국)을 주인인 공(公) 스스로 손님인 빈(賓, 大夫)을 위하여 진설함으로써 진설 음식 중 밥과 국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예기(禮記)』「내측(內則)」에 "식(食)과 갱은 제후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똑같고"라든가, 『맹자(孟子)』의 「고자(告子)」와 「진심(盡心)」에 "단(簞)의 식(食), 두갱(豆羹)"이라는 표현, 『전국책(戰國策)』「한책(韓策)」의 "두반(豆飯) 곽갱(藿羹)"이라는 기술은 음식의 기본은 밥과 국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 말이다. 밥과 국이 세트가 되는 식사 형태에 대한 기록은 은(殷)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일 것이다.

음양사상은 음식 상차림에도 적용되었다. 밥은 음(陰)이고 고깃국은 양(陽)으로, 음양 이분현상(二分現象)이 적용되어 음은 양과 합해지고 양은 음과 합해지는 것이다. 곧 음인 밥과 양인 고깃국이 합해져서 차려진 밥상은 하나의 우주이며, 음양이 결합된 음식을 섭취하여야 완전식품을 섭취한 것이라는 이론이다.

한반도에서 탕반(湯飯) 음식이 발달한 것은 음양오행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교사상의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경도잡지(京都雜志)』에 나타난 삼복 시식에서의 구장(狗醬)은 향음주례(鄕飮酒禮)에서 술안주인 구포(狗脯)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개고기가 상용화되고 있었다.



육개장 국립민속박물관

『경도잡지』에 기록된 개고기, 파, 고춧가루를 넣은 구장은 『규곤요람(閨壼要覽)』의 육개장 재료인 쇠고기, 파, 후춧가루와 비교된다. 『동국세시기』에는 구장에 대하여 "삼복에 개를 삶고 파를 넣어 푹 삶는 것을 구장이라 하며, 또 국을 만들어 고춧가루로 조화하여 백반을 넣고 말아 먹는다. 발한(發汗)하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다 하여 보허(補虛)한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곧 구장의 주재료는 개고기와 파이며 땀을 더 내기 위하여 고춧가루를 넣는다 하였으니, 구장이 식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나온 것이 육개장이라 하겠다. 발한을 위하여 고춧가루를 넣으면 오늘날의 육개장이 된다. 그런데 쇠고기나 개고기는 성온(性溫)하여 화(火)에 해당되며, 삼복(三伏)은 금(金)에 해당된다. 음양오행의 상극설에 의하면 화극금(火克金)에 해당되므로, 쇠고기나 개고기는 복(伏, 더위)을 극살한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閨壼要覽(延大), 東國歲時記, 東醫寶鑑, 孟子, 三國志, 洌陽歲時記, 禮記, 儀禮, 戰國策, 晋書, 後漢書,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陰陽五行思想으로 본)朝鮮王朝의 祭祀飮食文化(金尙寶, 修學社, 1996),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金尙寶, 광문각, 1997).
필자 | 김상보(金尙寶)

임자수탕(荏子水湯)

정의 어린 암탉인 연계(軟鷄)를 곤 국물에 찢어 놓은 닭고기와 껍질을 벗겨서 볶은 깨[荏子, 白麻子]를 갈아 밭친 물을 섞고, 미나리, 오이채, 버섯을 살짝 데쳐 넣어 먹는 삼복 음식. 깻국탕 또는 백마자탕(白麻子湯)이라고도 한다.


임자수탕 궁중음식연구원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하월시식(夏月時食)으로 밀로 국수를 만들어 호박과 닭고기를 조합하여 백마자탕에 말아 먹는다."라고 하였다. 흰 참깨[白麻子, 荏子]와 닭이 가진 성질을 이용하여 복(伏)을 물리치고자 한 것이 임자수탕인데,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흰깨에 대하여 "성평(性平)하여 허로(虛勞)를 보하고 오장을 윤(潤)하며, 풍기(風氣)를 소통(疏通)하고 대장에 풍열(風熱)이 결체(結澁)한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소변을 이(利)하게 하고 열림(熱淋)을 다스린다. 또한 대변을 통리(通利)한다."라고 하였다.

임자수탕은 허로를 보하면서 열림을 다스리는 깨와 양기(陽氣)를 돕고 오장에 보익한 닭을 결합시킨 삼복의 시식이다. 이는 더위를 물리치고자 한 약선(藥膳)적 성격의 시절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東醫寶鑑.
필자 | 김상보(金尙寶)

콩국수

정의 불린 콩을 삶아 맷돌에 갈아 낸 즙을 차게 해서 국수에 말아먹는 음식. 입맛이 없고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별미일 뿐 아니라 보양음식이기도 하다.

내용 콩국수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23년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 "……맷돌에 갈아 정액만 취해서 두부로 만들면 남은 찌끼도 얼마든지 많은데 끓여서 국을 만들면 구수한 맛이 먹음직하다."라는 콩음식에 대한 글이 있고, 1800년대 말에 나온 조리서 『시의전서(是議全書)』에 콩국수와 깻국수가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음식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예부터 콩국수는 서민들이 즐겨먹던 여름철 음식이며, 양반들의 여름철 음식은 깻국수였다. 깻국수는 임자수탕(荏子水湯)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각산 계곡의 고찰 진관사 스님들도 중복 때가 되면 콩과 들깨를 갈아 만든 콩국수를 별식으로 먹는다고 한다. 한편 경북 지방에서도 삼복의 절식으로 먹고 있다.

콩국수는 콩을 씻어 불렸다가 껍질을 벗기고 비린내가 가실 정도로 삶는다. 믹서에 갈아 체에 걸러 즙을 만들어 차게 해둔다. 국수를 삶아 차게 해 둔 콩



국에 넣고, 오이채와 지단채를 얹어 얼음을 띄우면 좋다. 콩은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으로 피로 회복을 돕고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시켜 동맥경화와 노화를 방지해 주는 효능이 있다. 그러므로 콩국수는 여름철에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시원한 입맛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음식이다. 같이 먹는 밀국수는 성질이 차면서 열을 내리게 해주므로, 콩국과 어울려 여름철에 잘 맞는 계절 음식이다.

특징 콩음식은 일찍부터 우리 한국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몫을 했다. 특히 서민들에게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영양을 보충해 주는 음식이며, 식물성 섬유가 풍부해 변비를 막아준다. 또한 콩 속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비만 체질을 개선하는 효능까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식으로도 좋다. 최근에는 콩 속에서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생리기능성 성분들이 발견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콩 속의 플라보노이드 때문에 콩을 많이 먹는 동아시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서구 여성에 비해 갱년기 장해가 적고, 순환기계 질환에 걸릴 확률도 적다는 보고가 있고, 콩 속의 레시틴과 사포닌이 신체와 두뇌의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으며, 콩제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유방암과 대장암에 대한 위험도 줄어든다는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연구가 계속되어 콩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참고문헌 | 星湖僿說, 是議全書, 韓國飮食 -歷史와 調理法-(尹瑞石, 修學社, 1980), 우리 음식 이야기(조후종, 한림출판사, 2001).

필자 | 조후종(趙厚鐘)

복달임(伏-)

콩국수 궁중음식연구원

정의 삼복에 몸을 보하는 음식을 먹고 시원한 물가를 찾아가 더위를 이기는 일. 흔히 복놀이라고 한다.

내용 삼복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절기이다. 하지가 지난 다음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初伏), 넷째 경일을 중복(中伏), 입추 후 첫 경일을 말복(末伏)이라고 하는데, 이를 삼경일(三庚日) 또는 삼복(三伏)이라 한다. 이 시기는 가장 무더운 여름에 해당하므로 몹시 더운 날씨를 가리켜 '삼복더위'라 부르기도 한다. 삼복은 일년 중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기간으로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더위를 이겨내라는 의미에서 높은 관리들에게 쇠고기와 얼음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귀한 쇠고기 대신 개고기를 끓여 먹었으며, 시원한 계곡을 찾아 발을 담그거나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며 더위를 물리쳤는데, 이를 복달임 또는 복놀이라고 일컫는다. 복달임은 주로 허해진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 보양식을 먹음으로써 더위를 물리치는데, 이때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개장국, 삼계탕, 팥죽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방법으로 더운 복날에 열기가 많은 동물인 개를 끓여 만든 개장국을 먹음으로써 원기를 회복하고 영양분을 보충하였다. 그래서 개장국을 보신탕(補身湯)이라고도 한다. 복날 개장국을 끓여 먹었다는 내용은 『동국세



물놀이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국립민속박물관



복달임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국립민속박물관

시기』에 "개장국을 먹으면서 땀을 내면 더위를 물리쳐 보허(補虛)한다." 하였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도 "황구(黃狗)의 고기가 사람을 보한다."라는 구절이 전해진다.

개장국과 함께 복날에 즐겨먹는 삼계탕은 어린 닭을 잡아 인삼과 대추, 찹쌀을 넣고 오랫동안 삶아서 먹는 음식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입맛을 돋우는 데 효과가 좋다.

이 밖에도 삼복에 팥죽을 쑤어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복날에 여귀(礪鬼)가 나다니기에 문을 닫고 일을 폐하였으며, 팥죽을 쑤고 개를 잡아 여귀를 물리치고자 했다고 한다.

삼복더위를 피하는 방법으로 피서의 술자리를 하삭음(河朔飮)이라 하는데, 이는 후한말에 유송(劉松)이 원소(袁紹)의 아들들과 하삭(河朔)에서 삼복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風俗誌(全海淳, 同人文化社, 1956), 한국세시풍속기(강무학, 도서출판 청화, 198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朝鮮의 占卜과 豫言(村山智順 著·金禧慶 譯, 東文選, 1990),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이찬욱(李燦旭)

복놀이

☞ 복달임(伏-): 여름편

탁족(濯足)

정의 산간 계곡의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쫓는 일. 가정에서 대야에 물을 떠놓고 발을 담그는 것은 세족(洗足)이라고 한다.

내용 탁족은 전통적으로 선비들의 피서법이다. 선비들은 몸을 노출하는 것을 꺼렸으므로 발만 물에 담근 것이다. 그러나 발은 온도에 민감한 부분이고, 특히 발바닥은 온몸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발만 물에 담가도 온몸이 시원해진다. 또한 흐르는 물은 몸의 기(氣)가 흐르는 길을 자극해 주므로 건강에도 좋다. 음식이나 기구로 더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더위를 잊는 탁족은 참으로 선비다운 피서법이다.

탁족은 피서법일 뿐만 아니라 정신 수양의 방법이기도 하다. 선비들은 산간 계곡에서 탁족을 함으로써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도 하였다. 탁족이라는 용어는 『맹자(孟子)』의 "창랑의 물이 맑음이여 나의 갓끈을 씻으리라. 창랑의 물이 흐림이여 나의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한 구절에서 취한 것이다. 굴원(屈原)의 고사에서 유래한 이 구절은 물의 맑음과



高士濯足圖(이경윤)
고려대학교 박물관

흐림이 그러하듯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의 처신 방법과 인격 수양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부터 탁족은 문사들과 화백들에게 좋은 소재가 되어 왔다.

탁족을 소재로 한 그림에는 이경윤의 고사탁족도(高士濯足圖), 이정의 노옹탁족도(老翁濯足圖), 작가 미상의 고승탁족도(高僧濯足圖), 최북의 고사탁족도(高士濯足圖)가 있다. 이들 그림은 한결같이 간결하고 고답적인 분위기를 지닌 그림들이다. 그런데 탁족을 소재로 한 그림이 중국에서는 송(宋) 무렵부터 등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에 등장한 것을 고려하면 선비들의 탁족 풍속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고답적인 해석과 관계없이, 서민들의 피서법인 산유(山遊)에서 탁족을 하는 일은 자연 발생적 풍속이라고 생각된다. 탁족은 기계문명을 떠난 자연친화적이고 소박하며 건강한 피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孟子, 海東竹枝, 한국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장주근, 대한기독교서회, 1974), 우리나라 세시기(李允熙, 金龍圖書株式會社, 1998).
필자 | 전신재(全信宰)

하삭음(河朔飮)

⇨ 복달임(伏-): 여름편

복날 개 패듯 한다

정의 무자비한 폭력을 빗대어 꼬집을 때 쓰는 속담.
내용 복날은 하지 후 셋째 경일(庚日)인 초복, 넷째 경일인 중복, 입추 후 첫 경일인 말복을 통칭하는 삼복(三伏)을 일컫는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무더위에 시달려 사람들의 체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복날이 되면 그 동안 쇠진해진 몸을 보신하기 위해 개를 잡아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개들이 마구 맞아 도살되는 현상이 속담으로 전용된 것이다.
유사 비슷한 속담으로 "복날 개 맞듯 한다.", "유월 보름날 닭 모가지 비틀 듯 하다.", "섣달 그믐날 흰떡 맞듯 한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조선속담(북한어학자료총서40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속담사전(임동권,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삼복에 비가 오면 보은(報恩) 처자(處子)가 울겠다

정의 절기에 따른 기상 여건과 대추농사 풍흉의 상관성을 되새길 때 쓰는 속담. 삼복 무렵에 비가오면 대추농사가 망쳐서 보은의 처녀들이 시집을 갈 수 없게 되어 운다는 뜻이다.
내용 예부터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은 '보은 대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추 생산지로 유명하다. 그런데 대추농사는 벼농사와는 달라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발육이 좋지 않고 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수확이 준다. 특히 삼복 때 내리는 비는 작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꺼렸다. 이처럼 날씨가 변수로 작용해서 경제작물로 기대를 걸었던 대추가 흉작이 들면, 그만큼 농가 수익이 줄어들어 혼인을 앞둔 처녀들에게는 혼사 밑천이 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은의 처녀가 운다는 것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곡우에 비 오면 풍년 든다.", "백로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 "백로에 비가 오면 십 리에 백 석이 준다.", "백중에 비가 오면 백 가지 곡식이 해롭고, 처서에 비가 오면 천 가지 곡식이 해롭다.", "삼복에 비가 오면 과일이 떨어진다.", "이월 춘사일에 비가 오면 과일 흉년 든다.", "처서에 비가 오면 독 안에 곡식이 준다.", "처서에 비가 오면 천 석을 던다.", "처서에 비바람 치면 폐농한다.", "처서에 비가 오면 흉년 든다.", "처서에 비가 오면 십 리에 천 석이 줄고, 백로에 비가 오면 백 석이 준다.", "춘분에 서풍이 불면 보리가 귀하다.", "춘상갑에 비가 오면 오백 리 안이 가문다." 같은 것들이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농사속담집(전라남도 농촌진흥원, 1979),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피서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삼복지간(三伏之間)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정의 삼복 기간에는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몸의 기운이 쉽게 약해지고, 따라서 입술에 붙은 가벼운 밥알도 무겁게 느껴질 만큼 사소한 일조차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뜻.

내용 복날을 나타내는 복(伏)은 엎드린다는 뜻이다. 복날은 가을의 서늘한 금기(金氣)가 여름의 무더운 화기(火氣)를 두려워하여 세 번(초복, 중복, 말복) 엎드리고 나면 무더운 더위가 거의 지나가게 되는 셈이다. 삼복 기간에는 더위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쉽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나 기운이 허약해지기 쉬운 때이기도 하며, 농가(農家)의 일이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쉽게 피곤해지는 때이기도 하다. 입술에 붙은 밥알조차도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기력이 쇠하기 쉬운 계절이므로, 피곤해진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잠시 더위를 잊고 하루를 청유(淸遊)하거나 탁족(濯足)을 하고, 더위로 인하여 손상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보신(補身)음식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속담이다.

참고문헌 |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조선말속담분류사전(김영철 엮음, 연변인민출판사, 1998).
필자 | 박환영(朴奐榮)

초복날 소나기는 한 고방의 구슬보다 낫다

정의 초복 무렵에는 날씨가 무덥고 가뭄이 들기 쉬워서 조금의 비가 와도 농사에는 매우 귀중하다는 뜻.

내용 농사철에 적절하게 비가 와야 풍년이 든다. 특히 초복 무렵은 벼의 성장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계절이므로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벼가 충분히 자라는 데 좋다.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서면서 대지와 공기는 점차 뜨거워지고 이러한 기운은 논밭 작물과 과일이 성장하는데 주요한 원동력을 제공한다. 그런데 일년 중에서 가장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이 되면, 강한 햇빛이 너무 지나쳐서 대지의 수분이 증발하여 논이 메마르기 쉽다. 따라서 초복 때가 되면 심한 가뭄이 들기도 한다. 이런 때에 잠깐 내리는 소나기라도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고, 더욱이 벼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므로 농부들에게는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타들어 가는 논바닥을 보는 농부의 근심과 걱정을 한순간에 씻어 버리는 초복의 소나기는 세간 따위를 넣어 두는 광 속에 가득 차 있는 구슬보다도 나을 만큼 절실함을 강조한 속담이다.

참고문헌 | 조선말속담분류사전(김영철 엮음, 연변인민출판사, 1998),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풀잎문학, 1999).
필자 | 박환영(朴奐榮)



소나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토왕일(土旺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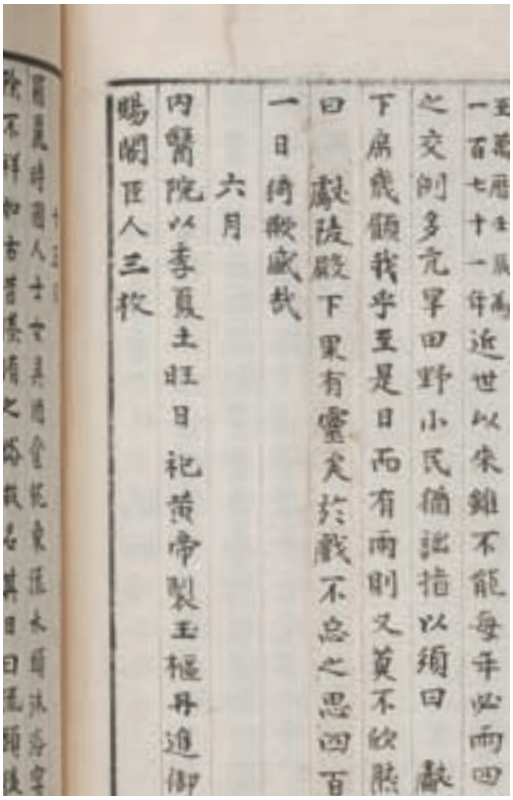
정의 오행(五行)에서 토기(土氣)가 왕성한 날. 토왕일은 일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기간에 드는데, 그 중 여름의 토왕일을 가리킨다. 토왕용사(土旺用事)는 토왕지절(土旺之節)이 시작되는 첫째 날로 토왕일과 의미가 같으며, 토왕(土王)이라고도 쓴다. 한 기간을 18일로 하는데 화기(火氣)가 성한 입하(立夏) 전 18일을 봄의 토왕, 금기(金氣)가 성한 입추(立秋) 전 18일을 여름의 토왕, 수기(水氣)가 성한 입동(立冬) 전 18일을 가을의 토왕, 목기(木氣)가 성한 입춘(立春) 전 18일을 겨울의 토왕이라 한다.

토왕일에는 국가제의로 칠사(七祀)를 지내는데, 그 대상은 중류(中霤)이다. 내의원에서 황제(黃帝)에게 제사를 올리고, 옥추단을 만들어 임금에게 올린다.

내용 『당서(唐書)』「예악지(禮樂志)」에 "칠사는 각기 그 절기에 따라 봄에 사명과 호에 제사지내고, 여름에 부엌에 제사지내고, 계하(季夏) 토왕일에 중류(경대부 집에서 토신을 제사지내는 곳으로 방의 중앙)에 제사지내고, 가을에 문과 여(악귀와 역질)에 제사지내고, 겨울에 행(길귀신)에 제사지낸다(七祀各因其時享司命, 戶以春, 竈以夏, 中霤以季夏土王之日, 門厲以秋, 行以冬)."라고 하였고,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 송(宋) 고종(高宗) 소흥(紹興) 3년에 "황제는 계하 토왕일에 제사지낸다(黃帝以季夏之土王日)."라고 하였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내의원에서는 계하 토왕일에 황제께 제사를 드리고 옥추단을 만들어 임금께 올린다. 그러면 임금은 그 약을 각 신들에게 각각 세 개씩 하사한다."라고 하였다. 여름철은 병이 들기 쉬우므로 몸을 보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와 『열양세시기』에는 토왕일에 반화(頒火)하는 풍속이 기록되어 있다. 개화(改火)라고도 하는데, 불을 새롭게 하는 뜻으로 궁중과 각 관아에서 보관하던 불씨를 사계절마다 갈아주는 행사이다. 고대 중국의 『주례(周禮)』에서 비롯된 풍습으로 계절에 따라 새로 불씨를 갈아 쓰면 음양의 기운이 순조롭고 질병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조선 태종 1년(1401) 3월에 개화령을 내려 전국에 시행하게 하였다. 서울에서는 내병조가, 지방에서는 수령이 매년 5회씩 나무를 비벼 새 불씨를 내었는데, 입절일(立節日)과 6월의 토왕일에 실시하였으며 각 궁전, 관아, 대신들의 집에 나누어주었다.



土旺日『洌陽歲時記』
연세대학교 도서관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中文大辭典(台北: 中華學術院, 1982),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서울六百年史 -民俗 篇-(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漢語大詞典(上海: 한어대사전출판사, 1995), 한국민속문화대사전 하권(김용덕 편, 창솔, 2004).

필자 | 상기숙(尙基淑)

칠사(七祀)

☞ 칠사(七祀): 봄





節氣

절기

이 시기는 여름 장마철로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 지방을 가로질러
장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린다.
예전에는 이때쯤이면
하지 무렵에 모내기를 끝낸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농가에서는 모를 낸 뒤
소서 때에 논매기를 했다.
또 이때 논둑과 밭두렁의
풀을 베어 퇴비를 장만하기도 하고
가을보리를 베어낸 자리에
콩이나 조나 팥을 심어
이모작을 하기도 하였다.

소서(小暑)

정의 24절기 중 열한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하지(夏至)와 대서(大暑) 사이에 든다. 음력으로 6월, 양력으로는 7월 5일 무렵이며, 태양이 황경 105도의 위치에 있을 때이다. 소서(小暑)는 '작은 더위'라 불리며, 이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

내용 중국에서는 소서 무렵의 15일을 3후(三侯)로 나누었는데,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소서는 6월의 절기로 초후(初候)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차후(次候)에는 귀뚜라미가 벽에서 살며, 말후(末候)에는 매가 새를 잡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여름 장마철로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 지방을 가로질러 장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린다. 예전에는 이때쯤이면 하지 무렵에 모내기를 끝낸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농가에서는 모를 낸 20일 뒤 소서 때에 논매기를 했다. 또 이때 논둑과 밭두렁의 풀을 베어 퇴비를 장만하기도 하고, 가을보리를 베어낸 자리에 콩이나 조, 팥 등을 심어서 이모작을 하기도 하였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의 모내기는 보통 '하지 전 3일, 하지 후 3일'이라고 하는데, 대략 소서 때가 모를 심는 적기이다. 두레를 행하던 당시에는 어느 논이나 보리를 심기 때문에 모를 내는 시기가 지금보다 훨씬 늦었다. 하지 전에 삶아서 대개 소서 때까지 심었다. 김매기는 모를 매고서 약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시작하였다. 절기상으로 초벌은 하지와 소서를 지나서 하게 된다.

이 무렵은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여서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며, 밀과 보리도 이때부터 먹게 된다. 대체로 음력 6월은 농사철치고는 한가한 편으로 밀가루 음식을 많이 해 먹는다.

참고문헌 | 高麗史,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한국의 두레(국립민속박물관, 1994),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류종목(柳鍾穆)

소서가 넘으면 새 각시도 모심는다

정의 소서(小暑) 전에 보통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소서가 지나면 모내기가 늦은 편이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쳐 하루 빨리 모내기를 끝내야 한다는 뜻.

내용 소서는 24절기 중의 하나로 대서(大暑)와 함께 여름의 끝자락인 계하(季夏)에 해당한다.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하지(夏至)와 더위가 최절정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대서 사이에 놓인 소서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을 알리는 절후(節候)이다. 따라서 여름의 무더운 기운이 도래하기 전에 모심기를 마치는 것이 벼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서 전에는 모내기를 마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농가의 사정으로 모내기가 늦어지면, 모든 일손을 동원해서라도 모내기를 마쳐야 함을 강조한 속담이다.

1 소서 풍경 이억영

2 모심기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야목리 황원만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소서(小暑) 모는 지나가는 행인도 달려든다.", "7월 늦모는 원님도 말에서 내려 심어 주고 간다."가 있다.

참고문헌 | 농사속담집(전라남도 농촌진흥원, 1979),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박환영(朴奐榮)

대서(大暑)

정의 24절기 중 열두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소서(小暑)와 입추(立秋) 사이에 든다. 대서(大暑)는 음력으로 6월에 있으며, 양력으로는 7월 23일 무렵에 든다. 태양의 황경이 대략 120도 지점을 통과할 때이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이 시기는 대개 중복(中伏) 때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한 시기이다. 예부터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다. 여름의 토용(土用)은 이 계절에 들어간다. 토용이란 토왕용사(土王用事)의 준말로 토왕지절(土旺之節)의 첫날을 말한다. 토왕지절은 오행설(五行說)에서 목화토금수 가운데 토기(土氣)가 왕성하다는 절기이다. 사계절은 사립(四立, 입춘·입하·입추·입동)에서 시작하므로 사립 전의 18일간이 토(土)에 배당되는데, 토왕용사에 태양은 각각 황도 위의 황경 27도, 117도, 207도, 297도의 위치에 온다. 오행설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태양의 황경에 기준을 둔 것이므로 계절의 변화와 일치한다. 특히 겨울의 토왕용사는 혹한(酷寒)의 시기이고, 여름의 토왕용사는 혹서(酷暑)의 시기이다. 이것을 각각 겨울의 토용, 여름의 토용이라고도 한다. 토왕용사에 흙일을 하면 해롭다는 속신(俗信)이 전해지기도 한다.



장마 밀어낸 大暑
조선일보 1970년 7월 24일



대서 풍경 이억영

옛날 중국에서는 대서 입기일(入氣日)로부터 입추까지의 기간을 5일씩 끊어서 삼후(三候)로 하였는데,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보면 대서는 6월 중기로 초후(初候)에는 썩은 풀에서 반딧불이 나오고, 차후(次候)에는 흙에 습기가 많으며 무덥고, 말후(末候)에는 큰 비가 때때로 온다고 하였다.

대서는 중복 무렵일 경우가 많으므로, 삼복더위를 피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계곡이나 산정(山亭)을 찾아가 노는 풍습이 있다. 때때로 이 무렵 장마전선이 늦게까지 한반도에 동서로 걸쳐 있으면 큰 비가 내리기도 한다. 불볕더위, 찜통더위도 이때 겪게 된다. 무더위를 삼복으로 나누어 소서와 대서라는 큰 명칭으로 부른 것은 무더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이 무렵이 되면 농촌에서는 논밭의 김매기, 논밭두렁의 잡초베기, 퇴비장만 같은 농작물 관리에 쉴 틈이 없다. 또한 참외, 수박, 채소 등이 풍성하고 햇밀과 보리를 먹게 되는 시기로 과일은 이때가 가장 맛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과일의 당도가 떨어지고, 가물면 과일 맛이 난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의 歲時風俗 II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류종목(柳鍾穆)





月內 월내

제방이 붕괴되면
마을과 농경지는 큰 피해를 입으며
논둑이 터져도 농사에 피해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것을 도깨비나 구렁이의
장난 때문으로 여긴다.
특히 황해도 연백에서는
구렁이를 둑지이라 했다.
그래서 도깨비나 구렁이를 달래고
갈둑이나 논둑의 붕괴를
방지하려는 것이 바로
논둑제의 목적이다.

금산농바우끄시기(錦山-)

정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에 있는 농바우를 대상으로 전승되는 여성이 주도하는 기우제(祈雨祭). 장수의 갑옷이 들어 있다고 전해지는 농바우에 동아줄을 매고 이를 잡아당기면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 풍속이다. 여기에서 '끄시기'란 '끌다' 또는 '끌어내린다'는 뜻을 지닌 금산 지역의 사투리로 농바우끄시기는 농(籠)처럼 생긴 바위를 끈다는 뜻이다.

유래 농바우끄시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주변마을에서 농바우에 얽힌 다양한 전설이 지금도 전해져 온다. 옛날에 어재리 느재마을에 두 아내를 거느린 장수가 살고 있었다. 부인들은 투기가 심하여 서로 장수를 차지하려고 늘 다투었다. 그러던 중 전쟁이 발발했다. 장수는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벗어놓은 갑옷을 두고 또다시 다투기 시작했다. 화가 난 장수는 갑옷을 빼앗아 바위로 된 단단한 농에 넣고는 다시는 꺼내볼 수 없도록 뒤집어 놓았다. 그때 장수의 갑옷을 보관한 농이 지금의 농바우라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아기장수 전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옛날에 후사가 없어 근심하던 마음씨 착한 부부가 뒤늦게 아들을 얻게 되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겨드랑이에 날개와 비슷한 비늘이 달렸는가 하면, 세 살이 지나면서 신이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눈치 챈 부모는 장차 집안에 화근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식을 질식시켜 죽였다. 아이가 죽자 갑자기 뇌성벽력이 치더니 백마 한 마리가 슬피 울면서 농바우 곁에 와서 죽었다. 그 백마는 아이가 장성해서 탈 말이었고, 농바우 속에는 장수가 되면 입을 갑옷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욕심 많은 석공이 소문을 듣고 갑옷을 꺼내 입을 요량으로 농바우를 건드렸다가 혹독한 가뭄을 불러왔다. 이에 길을 지나던 노승이 농바우를 흔들어서 하늘을 노하게 만들면 비를 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노승의 처방대로 농바우를 끄시니 과연 효험이 있어 장대비가 쏟아졌다. 그 뒤부터 한발이 들면 이웃마을의 부녀자들이 농바우를 끄시며 비를 기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금산농바우끄시기〉
1 용줄꼬기
2 농바우끄시기
3 농바우끄시기
4 개막기
5 날궂이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강성복

이와 같이 장수 혹은 아기장수의 갑옷이 들어 있다고 전해져 오는 농바우에는 또 하나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 그것은 산 중턱에 걸려 있는 농바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날에는 천지가 개벽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날이 가물면 아낙네들이 농바우를 끌어당기는 시늉을 하는 것인데, 이를 보고 깜짝 놀란 하늘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전에 비를 준다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내용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느재마을에는 반닫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농바우가 벼랑 위에 걸려 있다. 한발이 닥치면 부녀자들은 이 바위에 동아줄을 매고 그 줄을 끌어당기며 비를 기원한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농바우끄시기가 모의되는 것은 아니다. 가뭄의 징조가 엿보이면 집집마다 대문 앞에 황토를 깔고, 물병에 솔가지를 꽂아서 사립문에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그러면 솔잎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 비가 오는 것처럼 똑똑 떨어지는데, 이는 잘 알려진 대로 비가 오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도 운우(雲雨)를 기원하는 유감주술이다. 이렇게 정성을 드린 뒤에도 해갈의 조짐이 없으면 비로소 농바우를 끄셔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된다.

농바우끄시기는 ① 용줄(동아줄)꼬기 ② 용줄매기 ③ 기우제 ④ 농바우끄시기 ⑤ 개막기 ⑥ 날궂이 순으로 진행된다. 마을총회를 거쳐 날짜가 정해지면 밤새 꼰 동아줄을 농바우에 걸고, 부녀자들은 각자 바가지와 키를 가지고 농바우 앞으로 가서 소지를 올리며 치성을 드린다. 이를 '무지' 또는 '무제 지낸다'라고 한다. 이윽고 입심 좋은 선소리꾼이 농바우 날망(꼭대기)에 올라앉아 비를 기원하는 선소리를 메기면, 아낙네들은 뒷소리를 받아넘기며 농바우를 끄신다. 이와 같이 선소리꾼과 아낙네들이 호흡을 맞추며 농바우끄시기는 반나절 가량 계속된다.

그런 다음 신기(神氣) 있는 할머니나 단골네가 신장대를 잡고 언제쯤 비가 내릴 것인지를 알아본다. 점괘가 좋게 나오면 아낙네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금강변의 갯여울로 내려가서 돌을 쌓아 냇물을 막는다. 이를 '개[洑] 막는다'라고 하는데, 가뭄이 심해 강물조차 바닥을 드러낼 지경이니 여울물을 막아서 날궂이를 하기 위함이다. 날궂이가 시작되면 아낙네들은 옷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가서 갯여울이 떠나가도록 물장난을 치고 논다. 혹은 더러운 고쟁이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강물에 속곳을 빨면서 온갖 해괴망측한 행동을 다한다. 뿐만 아니라 바가지로 물을 떠서 서로 머리에 부으면서, "비 맞아라, 비요! 비요! 이 비 맞고 목깡(목욕)이나 하거라!" 하고 소낙비 맞는 흉내를 낸다. 그런가 하면 챙이(키)에 물을 담아 마을을 향해 까부르거나, "우리 동네 처녀들이 빨래를 못해 시집을 못가니 오늘내루(로) 비 좀 내려 주시오." 하고 간곡하게 호소를 드린다. 곧 날궂이는 단순한 물놀이가 아니라, 그 자체가 비를 염원하는 강력한 주술적 장치이다.

촌로들의 말에 따르면 농바우끄시기는 인명을 좌우하는 극심한 가뭄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천지개벽을 도모하는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곧 농바우를 끌어내리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위협이자 역습이요, 하늘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금단의 영역인 것이다. 그러므로 농바우끄시기는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호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폐농 직전의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비장의 카드인 셈이다.

의의 농바우에 깃든 전설을 매개로 성립된 농바우끄시기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우 풍속 중에서도 전례가 드문 사례이다. 이 독특한 방식의 기우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 아기장수 전설과 같은 혁세사상과 절묘하게 결합되면서 그 경외감은 한층 증폭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것은 곧 농바우끄시기가 금강 최대의 기우 행사로 확산되는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도 전설이 지닌 상징성과 벌거벗은 아낙네들에 의한 날궂이 기우, 그리고 동아줄을 바위에 매고 끌어내리는 주술적 행위, 곧 천지개벽의 관념을 역이용하여 비를 부르는 역동적인 의례는 파격적인 연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 속에 내재된 다양한 주술적 의미와 민간 사고는 우리나라의 기우 풍속과 생활문화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금산의 민속놀이(강성복, 금산문화원, 1994), 한국민요대전 충청남도 편(문화방송, 1995), 충청민속문화론(강성복, 민속원, 2005).

필자 | 강성복(姜成福)

1 함흥의 빙고 「환유첩」 국립민속박물관

2 해주의 석빙고 국립민속박물관

기청제(祈晴祭)

☞ 영제(禜祭): 가을편

논둑제

정의 강둑이나 논둑이 터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내는 의례. 밭고사, 둑직이제, 제방제라고도 한다.

내용 제방이 붕괴되면 마을과 농경지는 큰 피해를 입으며, 논둑이 터져도 농사에 피해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것을 도깨비(충남 당진)나 구렁이의 장난 때문으로 여긴다. 특히 황해도 연백에서는 구렁이를 둑직이라 했다. 그래서 도깨비나 구렁이를 달래고, 강둑이나 논둑의 붕괴를 방지하려는 것이 바로 논둑제의 목적이다.

둑제는 황해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서 지낸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행해졌지만, 제사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정월 초사흘(충남 논산), 2월 중에(충남 당진)도 하고,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인 6월에도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6월 유두에 많이 행해졌다.

제사 방법은 둑에서 메밀떡을 붙이거나 명태대가리를 구렁이 구멍에 넣어 두거나 국수를 해가지고 논에 가서 지내기도 했지만, 충남 논산 은진면 성평 1리의 '뚝제'는 마을 전체의 동제로 치르기도 하였다.

둑에 제사하는 예는 중국 고대에서도 확인되는데, 8사(八**蜡**)의 하나인 방(坊)이 그것이다. 8사란 12월에 천자가 농사에 도움을 준 여덟 신에게 드리는 제사이며, 이 가운데 방은 곧 제방을 가리킨다.

참고문헌 | 禮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黃海·平安南北篇-(文化財管理局, 1980), 龜尾·善山의 歲時風俗(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論山의 民俗(論山文化院, 1992),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서영대(徐永大)

반빙(頒氷)

정의 여름에 나라에서 관청 및 벼슬아치에게 얼음을 내려주는 제도. 사빙(賜氷)이라고도 한다. 평상시 뜻은 더위를 이기라는 것이며, 상사(喪事) 때에





도 특별히 내렸고, 퇴임한 고관을 예우하는 뜻에서도 시행하였다.

내용 장빙고(藏氷庫), 빙고전(氷庫典)과 함께 "여름에는 음식을 얼음 위에 재운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신라시대부터 얼음을 저장하여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정종 2년(1036) 6월 임신(壬申)에 "문하시중으로 퇴임한 유방(庾方) 등 17인에게는 입추절(入秋節)까지 한하여 매 10일에 1회씩 얼음을 내려주소서."라고 하였으며, 문종 3년(1049) 6월의 "해마다 6월로부터 입추까지 얼음을 나누어 주되 퇴임한 여러 보신(輔臣)들에게는 3일에 한 번씩 하고, 복야, 상서, 경, 감, 대장군 이상에는 7일에 한 번씩 함을 제도로 삼으라."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반빙제도는 비변사, 승정원, 홍문관, 시강원, 익위사, 춘추관, 내병조, 내의원, 양현고 이상은 5월 보름 이후부터 시작하여 7월 보름 전에 이르러 그치며 종친, 동서반 정2품 이상과 육승지, 삼사 장관, 종친부, 의정부, 충훈부, 돈녕부, 의빈부,

의금부, 규장각, 육조 이상은 6월 1일에 시작하여 그믐날에 이르러 그친다.

참고문헌 | 高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唐書, 增補文獻備考.
필자 | 신종원(辛鍾遠)

사빙(賜氷)

☞ 반빙(頒氷): 여름편

써레시침

정의 모내기를 한 후 써레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간단히 행하는 농경의례. 지역에 따라서는 '써레쉬임한다', '써레씨시한다'라고 하며, 충청도에서는 '필모떡먹는다'라고 하였다. 써레시침이나 써레씨시란 '써레를 씻는 것'이라는 말에서 왔다. 물론 이 말에는 써레질의 고통을 모두 씻어 버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한편 필모떡먹는다고 한 것은 모내기를 마치고서 떡을 먹는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내용 써레시침의 유래를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려우나, 모내기가 일반화된 17~18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써레시침은 우리 민족이 농사를 지을 때 써레를 사용함으로써 비롯된 농경의례이다. 써레시침에서 말하는 써레는 논에서 사용하는 써레를 가리킨다. 논에서 써레를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못자리판을 조성하기 위해서나 모내기 할 논바닥을 부드럽게 삶기 위해서이다. 논을 삶는 일은 조선 초기 『농사직설(農事直說)』 종도조(種稻條)에 나오는 '향명 수사미(鄕名 水沙彌)'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다. 『농사직설』의 이 표현은 곧 무삶이로서, 물을 대고 논을 삶는다는 뜻이다. 물론 『농사직설』에서 말하는 무삶이는 벼 파종의 한 유형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뜻은 물을 대고 논을 삶아서 곧바로 볍씨를 뿌리는 벼 직파의 한 형태이다. 하지만 『농사직설』에서 무삶이는 물을 대고 논을 써는 써레질의 과정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무삶이, 무살미, 무사미라는 말은 곧 물을 대고 논을 삶는 것을 의미한다.

논을 삶는다는 것은 논바닥의 흙을 부드럽게 짓이겨 죽처럼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은 써레를 사용하면 매우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 써레는 평야지대에는 이[齒]가 10개 정도, 산간지대에는 7개 정도 있는 농기구로써, 써레의 이가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물론 소가 써레를 끈다. 논에 써레질을 하여 삶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흙을 부드럽게 하여 모내기 할 때 모를 쉽게 논바닥에 꽂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흙을 미세하게 분쇄함으로써 논바닥으로 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부터 모내기를 하기 직전에 소에 써레를 메워서 논을 삶았다. 그런데 이 써레질은 논갈이, 논매기와 함께 농부의 3대 중노동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므로 써레질이 끝나거나 써레질에 연속해서 하는 모내기를 마치면 한시름 놓게 되므로 쉬고 싶어진다. 써레시침은 바로 이러한 농부들의 심리에서 비롯된 농경의례이다. 한 뙈기의 논에서 연중 벼와 보리를 연속적으로 재배하는 도맥(稻麥) 2작 체계에서는 맥작을 수확한 후 곧바로 모내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몹시 바빠진다. 따라서 모내기를 마치면 하루쯤 쉬게 되는 것이다.

써레시침은 시기로 보아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모내기를 마치고서 하고, 또 하나는 그 집의 마지막 모내기를 위한 써레질을 마치고서 하는 것이다. 대개 모내기를 마치고 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다가 봄철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써레질을 하고서 써레시침을 한 예도 있다.

써레시침은 다른 농경의례에 비해 농가 단위로 이루어진다. 집단화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전승력도 약하고 시행 강도도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논농사가 성하지 않은 경상도에서는 써레시침으로 집에서 하루를 쉬었는가 하면, 모내기를 끝내는 날 논둑



써레
전북 임실군 덕치면 구담리 황현만

이나 들판에서 간단하게 술과 떡을 준비해서 이웃 농부들과 나누어 먹는 형태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충남 아산처럼 들이 넓은 지역에서는 좀더 규모 있게 행해졌다.

아산시 읍내동에서는 부농을 중심으로 모내기가 끝나는 날, 또는 그 다음날 백편이나 인절미를 만들어서 이웃집에 돌려가며 먹었다. 이를 필모떡 혹은 필모떡 해 먹는다고 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필모떡을 만들면 접시에 담아서 성주, 조왕, 삼신, 터주, 뒷곁, 광에 먼저 올린 후에 이웃에 돌리고 자기 집에서도 먹는 것이었다. 이 사례의 경우, 가신에게 모내기한 벼가 잘 자라기를 비는 뜻이 담겼다고 하겠다. 써레시침의 애초 모습이 이러한 주술적 의례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의의 써레시침은 초여름에 집중적인 노동력을 요하는 모내기를 끝냄으로써 중요한 농번기를 넘겼음을 자축하고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모내기 종료의례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朝鮮時代前期農書(金榮鎭 譯註,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4),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농경생활의 문화읽기(배영동, 민속원, 2000).
필자 | 배영동(裵永東)

제석할망제

정의 제주도에서 여름철 조를 파종한 후 마소[牛馬]로 밭을 밟을 때 준비해 간 음식을 제물로 차려놓고 농경신인 제석할망에게 빌던 고사. 이뿐만 아니라 김매기를 할 때 밭에서 밥을 먹게 될 경우, 제석할망 몫으로 먼저 밥 한 숟가락씩을 조금 떠서 밭 주위에 던지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것은 고수레와 같은 것으로 절은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제석할망코시, 밧볼리는코ᄉᆞ(밭 밟는 고사), 밧볼리는 테우리코ᄉᆞ(밭 밟는 목동고사)라고도 한다.

내용 제주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지만 논농사는 거의 없고, 밭농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주로 재배 작물도 보리와 조가 많았다. 화산회토(火山灰土)로 이루어진 밭은 여름철 비와 바람에 쉽게 날리고 쓸려 다녔으므로 하절기에 파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제주도 여름 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조는 토심(土深)과 기온에 민감한 작물이다. 해안마을보다 기온이 낮은 산간마을에서는 파종 시기가 조금 더 빨랐으나, 보통 조는 소서(小暑)를 기준으로 전후 3일 안에 파종하였다. 조는 퍼석한 듯한 뜬 땅에 파종하였는데, 쉽게 날리거나 쏠리는 것을 막고 건조해져 발아(發芽)가 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파종한 후 마소를 이용하여 흙을 다져주어야 했다. 이것을 제주에서는 '밭 볼린다'라고 한다.

밭을 밟는 날에 밭주인은 큰 암탉을 잡고 술과 푸짐하게 차린 점심을 준비해서 밭에서 제석할망에게 고사를 지낸 다음 테우리들을 잘 대접한다. 처음으로 밭을 밟는 날 고사를 잘 지내야 농사가 잘될 뿐만 아니라, 여름 동안 말에게도 탈이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테우리가 '밭 볼리는 소리'를 부르며 수십 마리의 말떼를 앞세워 골고루 밭을 밟아준다. 그래야만 씨앗이 바람에 날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좁씨가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골고루 서게 된다고 한다.

말은 물론 여러 개의 나무로 말발굽처럼 만들어 박은 남테와 사람들도 동원되었으며, 특히 이때는 말을 조종하는 테우리들에게 술과 해어(海魚)로 잘 대접하여야만 밭의 네 귀퉁이 구석구석을 탄탄하게 밟아주었으므로 이들을 잘 대접하였다. 이 시기가 되면 밭을 밟는 사람과 말들로 제주의 온 밭들이 출렁거렸다.

의의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제주 고유의 농경 민속의 하나이다. 짧은 기간에 밭을 밟아야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돈과 정성을 들여 밟은 만큼 결실이 수확으로 돌아온다고 확신하고 있어 서로 협력하면서 순서를 정하여 밟았다고 한다. 또한 그 대가를 돈으로 지불하기보다 다른 농사일로 갚음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물론 조농사가 많을 때에는 남테를 여러 개 가진 사람이 몇 마리의 말과 함께 전문으로 밭을 밟아주는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濟州道의 農機具(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8),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김동섭(金東燮)

참외밭고사(-告祀)

☞ 농신제(農神祭): 여름편

충제(蟲祭)

☞ 농신제(農神祭): 여름편

포제(酺祭)

정의 지난날 벼, 보리 같은 농작물과 산림에 피해를 주는 황충(蝗蟲=누리; 메뚜기과의 곤충)을 막기 위하여 그 재해(災害)를 내리는 포신(**酺**神)에게 지내던 국가 제의. 제의 시기는 일정하지 않고, 충재(蟲災)가 발생하면 서울에서는 마보단(馬步壇)에, 지방에서는 성(城)의 동쪽에 나가 기양(祈禳)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는 제주도의 유교식 마을제로 알려져 있는 포제(**酺**祭)와 명칭과 한자 표기까지 같으나 서로 성격이 다르다.

내용 포제는 농사와 관련된 제사이므로 유래가 오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고대 예서인 『주례(周禮)』에 '포(**酺**)'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 주석에 "인물(人物)을 재해(災害)하는 신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유래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역대 사전(祀典)에는 포제가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국가적 차원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인 제사로 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시대에 포제를 시행했는지는 『고려사(高麗史)』를 비롯한 사서(史書)에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종 8년(1408) 국가의 사전(祀典)에 포제가 소사(小祀)로 등재되고, 그 제사는 서울의 경우 마보단에서, 외방의 경우 황충이 발생한 군현에서 수령의 주도하에 시행하도록 결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성종 5년(1474)에 편찬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황명(蝗螟)이 발생하면 인(人), 물(物)에 재해(災害)를 주는 신에게 포제를 지내는데, 그 축판에는 국왕(國王)이라 칭하고 신위는 포신(**酺**神)이라 하며, 마보단에 나가서 시행하되 주현에서는 성의 동쪽에 나가 제사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서울의 포제를 마보단에서 시행한 것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었다. 성종 5년(1474) 예조에서는 『주례』에 봄, 가을에 포제를 지내되 별도의 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동일한 단에서 마보제와 포제를 서로 번갈아 제사하는 것은 예의 대체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마보단 근처에 별도의 단을 설치해 제사하도록 주장하였다. 이는 국왕의 재가를 받아 그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17세기까지 서울에서 포제를 시행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 이 규정의 준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17세기 이후에는 포제가 여전히 마보단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포제는 일반적인 국가 제사와 달리 재해(災害)를 예방하고자 매년 상시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황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방지 혹은 축소하기 위해 시행하던 기양제(祈禳祭)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리고 제사는 산(山)의 나무를 좀먹는 병충해의 방지를 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뭄과 홍수가 지난 뒤 수확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대규모 누리떼의 피해를 막는 것에 일차 목적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이와 관련된 수십 개의 사례가 보이는데, 대부분 6월부터 8월 사이에 지방에서 시행된 포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테면 어느 지방에서 황충이 발생하면, 그 지방의 수령이 중앙에 보고하고, 이후 중앙에서 관원을 보내 축사(祝詞)와 의주(儀註)를 보내면 그를 바탕으로 다음날 관찰사 또는 수령의 주재 아래 제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포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포제는 『국조오례의』에 중앙과 지방의 의식으로 구분해 기록해 놓았다. 포제는 국가 제사에서 소사로 규정하였고, 중앙에서는 3품관이, 지방에서는 관찰사 및 수령이 제관으로 제사를 주관하였다. 제사는 산재(散齋) 2일, 치재(致齋) 1일로 3일간의 재계(齋戒)를 시행한 뒤 전폐례(奠幣禮) → 삼헌례(三獻禮) → 음복례(飮福禮) → 철변두(徹籩豆) → 망예(望瘞) 5단계로 시행되었다. 지방의 의식에는 전폐례가 설정되지 않아 초헌(初獻)에서 전폐를 시행하고, 음복 단계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중앙과 구분하였다.

의의 전근대 사회에서 농업은 국가 재정 및 농민 안정의 기초였다. 봄부터 가을까지의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뭄, 홍수 같은 자연재해의 극복은 풍흉(豊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에 위정자들은 국가차원에서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였고, 한편으로 기우제나 영제를 비롯한 각종 제사를 통해

농민과의 일체감을 꾀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 중에 하나가 곡식이 여물어 갈 때 발생하는 각종 충재를 방지하기 위한 포제의 시행이었다. 일년간 계속된 농민들의 노력이 각종 벌레들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한 포제는 농본(農本)을 강조했던 위정자들의 예(禮)의식과 풍년을 염원하는 농민들의 이해가 결부되어 나타난 것이다.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 朝鮮王朝實錄, 春官通考,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韓亨周, 一潮閣, 2002).
필자 | 한형주(韓亨周)

개똥장마

정의 오뉴월 장마를 이롭게 여겨 비를 기다리고, 그것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豊凶)을 점치는 풍속.

내용 개똥은 천하고 흔한 것이지만 농사에는 유익한 거름이 된다. 6월이면 논매기의 '만드리 풍장'을 하고 써레시침(풋구)을 할 때이므로 이제는 벼가 잘 자라도록 비를 빌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오뉴월 장마는 개똥장마"라는 말도 생겼다. 이때 내리는 비는 거름으로 쓰이는 개똥처럼 농사에 이롭다는 뜻이다. 기우제를 주로 6월에 행하는 것이나, 유두(流頭) 또는 삼복(三伏)의 비를 길하게 여기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흔히 농가에서는 이 시기에 비 오기를 염원할 뿐만 아니라,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때 내리는 비를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한국 민속의 세계5 -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천혜숙(千惠淑)

과하주(過夏酒)

정의 봄과 여름 사이에 곡류로 술을 빚어 발효시켜 소주를 넣어 저장성을 높인 술. 여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하주(過夏酒)라고 한다.

내용 과하주는 고조리서인 『음식디미방』, 『양주방(釀酒方)』, 『규합총서(閨閤叢書)』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음식디미방』에는 "누룩 2되에 끓인 물 한 병을 식혀 부어서 하룻밤 재워 두었다가 주물러 체에 밭쳐서 걸러 찌꺼기는 버린다. 찹쌀 한 말을 여러 번 씻은 후 쪄서 식거든 누룩물에 섞어 넣었다가 3일 후에 소주 14국자를 부어 두면 7일 후에 맵고 단 술이 된다."라고 하였다.

『양주방』에는 "찹쌀 한 말로 지에밥을 쪄서 차게 식힌 것에 누룩 5홉을 고르게 치대면서 섞어 하룻밤 둔 다음, 소주 20대야에 누룩 7홉 정도를 부어 20~30일간 삭힌다. 이때 누룩이 많으면 색깔이 붉어지고 맛이 안 좋다."라고 하였다.

『규합총서』에는 "멥쌀 한 되나 두 되를 가루 내어 죽을 끓여 차게 식힌 후에 가루 누룩을 버무려 밑술로 한다. 이것이 고이기 시작하면 찹쌀 한 말로 지에밥을 쪄서 차게 식혀 밑술에 버무려 두었다가 7일 후에 소주 20국자를 넣어 소주 맛이 없어질 때 마신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에서 보듯 과하주는 곡류(찹쌀, 멥쌀)를 주재료로 하여 술을 빚은 후에 소주를 넣은 술이다. 조선 초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지방에서 빚었는데, 그 중에서 경북 김천 과하주와 전북 전주 과하주가 유명하다.

김천 과하주는 다른 과하주와는 달리 소주를 넣지 않고, 과하천의 물로 빚은 것이 특징이다. 누룩은 통밀을 곱게 갈아 밀가루와 밀기울을 과하천의 물로 빚어 짚, 쑥, 황국으로 한 달 가량 띄운다. 과하천의 물에 누룩가루를 섞어 우려낸 누룩물에 찹쌀 고두밥을 섞어 반죽하여 쳐서 떡처럼 되면 독에 옮겨 담는다. 독의 뚜껑을 창호지로 여러 겹 싸고 발효시켜 약 90일 정도 되어야 향미가 좋아진다. 알콜 농도는 23~25퍼센트 정도로 한여름에도 술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전주 과하주는 소주를 부어 주도를 높였으며, 여러 약재나 꿀을 넣어 땅 속에 묻은 후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였다. 봄과 여름 사이에 멥쌀 한 되를 가루로 만들어 범벅처럼 개어 아주 서늘하게 식으면 누룩가루를 넣어 밑술을 만든다. 일주일 후에 멥쌀 2말로 지에밥을 쪄서 물을 20되를 넣고 끓여서 식혀 밑술에 넣는다. 맛이 써지면 찹쌀 한 말을 쪄서 식혀 그 술밑에 버무려 두었다가 맛이 써진 후에 고아서 붓고 7일 만에 소주 20국자씩 부어서 마신다.



〈과하주빚기〉
1 누룩물
2 누룩 찌거기 거르기
3 걸러놓은 누룩물
4 쌀 불리기
5 고두밥
6 고두밥에 누룩물 붓기
7 고두밥과 누룩물 섞기
8 항아리에 담기
9 발효중인 과하주
한국전통주연구소

의의 과하주는 여름에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곡주에 소주를 넣어 저장성을 높인 술이다. 알콜 농도가 높아 한여름에도 술맛이 변하지 않으며, 곡주 특유의 향기와 맛이 일품이다.

참고문헌 | 閨閣叢書, 釀酒方, 음식디미방, 한국의 음식용어(尹瑞石, 民音社, 1991), 한국의 전통 민속주(이효지,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6), 한국음식대관4 -발효·저장·가공 식품-(장지현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필자 | 임희수(林姬洙)

규아상

정의 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만두 껍질에 육류와 채소로 된 소를 넣고 해삼 모양으로 빚은 만두. 해삼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미만두라고도 한다.

내용 미만두는 규아상의 재료와 모양이 같으나 삶은 만두이다. 궁중에서 여름철에 쪄서 먹던 만두이다. 만드는 법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밀어 지름 8~9센티미터 크기로 둥글게 떠서 만두피를 만들고, 오이는 속을 남기고 껍질만 얇게 떠서 가늘게 채 썰고 소금에 잠깐 절였다가 꼭 짜서 살짝 볶는다. 쇠고기는 곱게 다져서 표고버섯 채 썬 것과 섞고 갖은 양념을 한 후 볶는다. 오이와 쇠고기 볶은 것을 섞고 잣은 몇 개로 쪼개 넣어 소를 만든다. 만두피에 소를 넣고 해삼 모양으로 주름을 많이 만들어 가며 빚는다. 찜통에 담쟁이 잎을 깔고 만두를 넣어 살짝 찐 다음 참기름을 바른다. 소의 재료를 모두 익혀 사용하므로 살짝 익혀도 된다. 상에 낼 때는 접시에 새 담쟁이 잎을 깔고 규아상을 보기 좋게 담아 초장을 곁들인다.

규아상은 오이가 많이 나오는 여름철에 주로 만들어 먹는 만두로 소에 오이를 넣었기 때문에 쉽게 쉬지 않으며, 특히 담쟁이 잎을 깔아 한층 시원하고 멋스러운 운치를 더해 주는 요리이다. 담쟁이 잎을 깔면 향이 좋고, 만두를 붙지 않게 하여 한꺼번에 많이 찔 수 있다.


규아상 궁중음식연구원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음식대관6 -궁중의 식생활·사찰의 식생활-(황혜성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한국음식대관2 -주식·양념·고명·찬물-(조창숙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우리생활 100년·음식(한복진, 현암사, 2001).
필자 | 이영옥(李永玉)

기주떡[起酒餠]

정의 술로 괴어오르게 하여 찐 떡. 『음식디미방』에서는 증편(蒸片) 또는 기증병(起蒸餠)이라 하고, 『태상지(太常誌)』에서는 이식병(酏食餠)이라 하며, 그 밖에 기지떡, 술떡, 벙거지떡, 징편 등 방언도 많다. 술맛이 나면서 달콤한 맛이 별미이다. 다른 발효제로 술 또는 콩물을 함께 넣는 경우도 있다.

내용 밀가루를 술로 반죽하여 소를 넣고 찐 떡인 상화(霜花)는 고려시대 원(元)으로부터 전래되었음을 고려가요에서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에는 밀가루가 귀해서 밀가루 대신 쌀가루에 막걸리를 넣고 부풀게 하여 찐 기주떡으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멥쌀가루에 막걸리를 탄 더운물로 되직하게 반죽하여 더운 곳에 둔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증편틀에 보자기를 펴고 반죽을 부은 다음 그 위에 채 썬 대추와 석이채, 실백을 뿌리고 찐다. 또 하나는 반죽을 국자로 떠담아 한 켜 깔고 꿀, 팥, 계피가루를 섞은 소를 밤 크기만큼 떼어놓고 소가 덮일 정도의 반죽을 다시 떠 붓고 위에 잣, 대추, 석이를 채쳐 뿌리고 찐다. 이것이 오늘날 '방울증편'으로 보인다.



기주떡(증편) 국립민속박물관

의의 이 떡은 술을 넣어 만들어서 다른 떡에 비해 쉽게 쉬지 않고 노화가 가장 느려서 여름철에 많이 만들어 먹었다. 충청도에서는 익반죽한 쌀가루에 콩물과 막걸리를 한데 섞어 발효시킨 다음, 틀에 붓고 고명을 얹어서 찐다. 증편은 초파일 음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참고문헌 | 閨閣叢書, 음식디미방, 韓國食品史硏究(尹瑞石, 新光出版社, 1974), 한국의 음식용어(尹瑞石, 民音社, 1991).

필자 | 윤숙경(尹淑澋)

미만두

⇨ 규아상: 여름편

사마주(四馬酒)

정의 말날인 오일(午日)마다 네 번[四馬] 양조를 거듭하여 여름철에 마시는 술. 사오주(四午酒)라고도 한다.

내용 『수운잡방(需雲雜方)』에는 삼오주(三午酒)와 사오주(四午酒)에 대하여 그 차이를 기록해 놓았다. 삼오주와 사오주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말날[午日]에 담그는 것은 같지만, 백미를 말날[午日]마다 세 번 넣느냐 네 번 넣느냐의 차이가 있고, 사오주는 삼오주보다 재료에 백미가 하나 더 들어간다. 또한 재료를 다루는 기법도 세련된다. 곧 삼오주는 누룩과 술밥을 재료로 삼는데 사오주는 누룩을 가루로 하여 깁체로 친다든가 또는 백미를 가루로 하여 찐다. 어쨌든 삼오주와 사오주는 모두 정월 첫 말날[午日]에 담가서 단옷날과 여름철에 마시는 술이다.

삼오주(三午酒)			사오주(四午酒)		
일 수	재 료	열말빚이	일 수	재 료	열말빚이
정월 첫 말날[午日]	밀가루 누룩 냉수	7되 7되 4동이	정월 첫 말날[午日]	밀가루 누룩가루 냉수 백미	7되 1되 8동이 1말(설기떡)
둘째 말날[午日]	백미	5말(술밥)	둘째 말날[午日]	백미	5말(설기떡)
셋째 말날[午日]	백미	5말(술밥)	셋째 말날[午日]	백미	5말(설기떡)
넷째 말날[五日]	백미	5말(술밥)	넷째 말날[午日]	백미	5말(설기떡)
시음(時飮)		단옷날	시음(時飮)		단옷날

『수운잡방(需雲雜方)』의 삼오주와 사오주

삼오주는 『음식디미방』과 『역주방문(曆酒方文)』에도 『수운잡방』의 삼오주와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수운잡방』에 "사오주 …… 이것은 또 소곡주라고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오주라는 술은 『수운잡방』 이후 거의 소개되지 않고, 다만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처음으로 사마주(四馬酒)라고 보이며, 『조선세시기(朝鮮歲時記)』에는 3월의 시식으로 '호서(湖西)의 사마주'를 소개하고 있다.

『동국세시기』에는 "오일(午日)마다 네 번 양조를 거듭해 두면 봄이 지나야 익는데, 일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 이름하여 사마주(四馬酒)라 한다."라고 하였다. 곧 정월에 담가 단옷날 이후 여름철에 마시는 소국주, 두견주, 도화주, 송순주와 함께 대표되는 과하주(過夏酒)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需雲雜方, 曆酒方文, 음식디미방, 朝鮮歲時記.

필자 | 김상보(金尙寶)

준치국

정의 뼈가 많은 준치로 끓여 먹는 국. 사철 준치가 나기는 하지만 여름, 특히 단오 무렵이 가장 맛있다고 한다.

내용 준치[鱒魚]는 생선 중에 가장 맛이 있다고 하여 진어(眞魚)라고도 한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는 진어라고 기록하였다. 국, 회, 만두소, 조림, 구이로 요리한다. 맛에 비하여 뼈가 지나치게 많다.

준치의 뼈가 많은 데 대해 전설이 있다. 옛날의 준치는 맛도 좋거니와 가시도 없어서 사람들이 준치만 먹어 멸족의 위기에 빠졌다고 한다. 이에 용왕이 모든 어류를 모아 놓고 준치 멸망지환(滅亡之患) 대책을 의논한 결과 준치에게 가시가 많게 해 주자는 의견이었다. 그래서 용왕은 모든 물고기는

자기의 가시 한 개씩을 뽑아 준치 몸에 꽂아주도록 명령했다. 제각기 가시 한 개씩 준치의 몸에 꽂으니, 가시가 너무 많아서 준치가 아픔을 견디다 못하고 달아나는 데도 뒤쫓아 가 가시를 꽂았다. 그래서 준치는 꽁지 부근에까지 가시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

『규합총서(閨閤叢書)』나 『증보산림경제』에 준치의 뼈를 없애는 방법이 실려 있다. "토막 낸 준치를 도마 위에 세우고 허리를 꺾어 베나 모시 수건으로 두 끝을 누르면 가는 뼈가 수건 밖으로 내밀 것이니 낱낱이 뽑으면 가시가 적어진다."라고 하였다. 또 "준치 토막을 삶아 체에 걸러 갖은 양념을 하여, 다시 준치처럼 만들어 녹말을 씌워 먼저 삶던 물에 다시 넣고 유장, 파를 넣고 끓이면 뼈 하나 없어 좋다."라고 하였다.

준치국 끓이기를 보면 먼저 준치는 싱싱한 것을 준비하여 깨끗이 씻어 내장을 빼고 지느러미를 뗀 다음, 앞뒤로 참기름을 칠해서 알맞게 찐다. 잔가시를 모두 골라내고 살만 추려서 갖은 양념으로 버무린다. 이것을 둥글넓적하게 빚어 밀가루, 달걀물을 씌워 번철에 부쳐서 완자를 만든다. 준치국의 기본 국물은 쇠고기를 잘게 다져서 갖은 양념에 재워 맑은 장국을 끓여 사용한다. 장국의 국물이 충분히 우러나면 준치완자 부친 것을 넣어 한소끔 끓인다. 먹기 직전에 쑥갓을 넣는다.

또 다른 준치국 끓이기 방법은 깨끗이 손질한 준치의 머리부분을 자르고 알맞게 토막을 치고 살이 두꺼운 등쪽은 잔칼질을 해서 식초를 앞뒤로 뿌려 둔다. 5분 정도 지나 깨끗이 씻는다. 쇠고기는 곱게 다져 갖은 양념을 하여 재웠다가 맑은 장국을 끓인다. 국물이 충분히 우러나면 손질한 준치토막을 넣어 끓인다. 쑥갓은 다 끓은 뒤 먹기 직전에 넣어 살짝 익혀 국물 위에 얹어 낸다.

참고문헌 | 閨閤叢書, 增補山林經濟, 朝鮮料理法(조자호, 서울, 1938),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우리의 음식이야기(이규태, 기린원, 1991).

필자 | 윤덕인(尹德仁)

증편[蒸餠]

⇨ 기주떡[起酒餠]: 여름편

편수(片水)

정의 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밀어서 정사각형으로 썬 후, 육류와 채소로 만든 소를 넣고 네 귀를 서로 붙여 익혀서 먹는 여름 음식. 변씨만두, 밀만두, 수각아(水角兒), 과녹두(瓜綠兜)라고도 한다.

어원 물 위에 조각이 떠 있는 모양이라고 하여 편수(片水)라는 이름이 붙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밀가루를 가지고 세모 모양으로 만든 만두를 변씨만두(卞氏饅頭)라 하는데, 변씨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명물기략(名物紀略)』에는 변식(匾食)이 편식, 편수로 바뀌었다고 한다.

내용 편수는 유두에 만들어 먹던 전통음식이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 "편수는 여름에 만들어 먹나니 다른 만두와 같이 만들되, 빚은 모양이 네모지고 납작하게 하고, 둥글게 보쩜처럼 만들어 먹는다. 유월 유두에 만들어 먹는 것은 늙은 누른 오이를 껍질과 씨를 빼고 실같이 썰어 쇠고기, 마고(蘑菰, 표고버섯의 한 종류), 석이버섯, 파 흰 부분을 잘게 이긴 것과 함께 간장과 기름을 치고 주물러 놓고 밀가루 반죽한 것을 얇게 밀어 이 소를 넣고 만두처럼 빚어 틀에 쪄서 참기름을 바르고 잣가루를 뿌리고 초장에 찍어 먹는다."라고 하였다. 『시의전서(是議全書)』에서는 "밀만두를 일명 편수라고도 하는데, 밀가루를 네모모양으로 반듯하게 베어 네모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로 여름철에 만들어 먹는 만두이며, 개성 지방의 향토음식이기도 하다. 『간편조선요리제법(簡便



朝鮮料理製法)』에서 "편수는 여름철 음식인데 냉면과 같이 만두를 차게 만드는 것이니, 밀가루 반죽한 것을 얇게 밀어 네모모양으로 반듯하게 썰어 만두소를 가운데 넣고 네 귀를 접어 싼 뒤 삶아내어 찬물에 건져 식혀서 장국을 식혀 붓는다."라고 하였다.

겨울철의 만두와 다른 점은 모양을 둥글게 보쌈처럼 만들기도 하나, 주로 네모로 만들고 소도 쇠고기에 오이, 호박, 버섯, 실백을 섞어서 담백하게 만드는 점이다. 찜통에 찌거나 삶아내어 국물 없이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양지머리를 삶은 물을 식혀서 차게 하여 띄워 먹기도 한다. 편수를 찬 장국에 띄울 때는 육수에 기름이 뜨지 않도록 깨끗이 기름을 걷어서 사용한다.

참고문헌 | 簡便朝鮮料理製法, 東國歲時記, 名物紀略, 是議全書,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음식대관6 -궁중의 식생활·사찰의 식생활-(황혜성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한국음식대관2 -주식·양념·고명·찬물-(조창숙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필자 | 이영옥(李永玉)

고누

정의 땅이나 밭에 그린 판에 말을 움직여 상대편 말을 잡거나 가두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놀이.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여름철 민속놀이이다. 주로 어린이들의 놀이이지만 어른들이 즐기기도 한다. 고누는 지역에 따라 꼬누, 고니, 꼬니, 꼰, 꾼으로 불리는데, 이는 방언에 따른 이칭으로 뜻에는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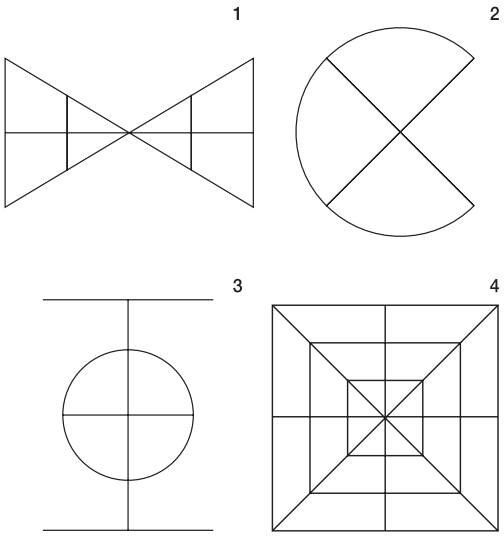
어의 고누에 대한 어의(語義)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견주다 또는 겨누다라는 옛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는 『물보박희(物譜博戱)』에 기술된 우물고노[格五]라는 명칭에서 고누의 고어형인 고노를 찾고, 고노는 고노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으로 보면서, 『소학언해(小學諺解)』에 기술된 고노다에서 비롯된 명사로 간주하여 고노다에서 고노로, 이것이 다시 고누로 변한 것이라고 해석해 왔다.

이와는 달리 중국 소수민족의 놀이인 루치나 몽골의 보거인지러거에서 어원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다. 루치와 보거인지러거에서 양편의 말을 각각 개[狗]와 사슴[鹿]으로 부르는 점을 주목하고, 개와 사슴을 갖고 노는 놀이라는 뜻의 구(狗)+록(鹿)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다. 이를테면 고우+루〉고우루〉고루〉고누가 생겼고, 고누의 축약으로 '곤'이 되는 한편, 이것이 꼰이나 꼬니와 같은 이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물보박희』에서 우물고노를 격오(格五)로 표기한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고누가 언제부터 놀이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유물을 통해 연원이 오래된 놀이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유물은 북한 학계가 보고한 10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갑자'이다. 이것은 황해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 가마터에서 수습된 것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던 것인데, 여기에 참꼬니판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다. 이 유물만으로 본다면 고누는 10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진 놀이가 된다.

내용 고누는 놀이방법이 가장 단순한 우물고누를 비롯하여 밭고누, 호박고누, 참고누, 네바퀴고누, 팔팔고누, 장수고누, 왕고누 같은 다양한 놀이가 있다. 이 가운데 우물고누는 몽골의 낙타발굽과 똑같으며, 참고누는 몽골의 지르게와 같다. 이 고누는 중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에게도 두루 발견되며, 고대 이집트, 중앙아시아, 유럽에도 널리 퍼져 있는 놀이이기도 하다.

다양한 고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물고누이며, 좀더 놀이의 흥미를 더하여 즐길 수 있는 것이 참고누이다. 우물고누는 우물이라 불리는 장애



1 나비고누
2 우물고누
3 호박고누
4 곤질고누



고누
경기도 파주군 심디스마

물을 설정했는데, 이를 샘 또는 강이라 하여 샘고누, 강고누라는 별칭이 있다. 놀이 방법은 대개 다음과 같다. 놀이자는 각각 두 개의 말을 가지고 노는데 순서대로 한 칸[目]씩 이동하여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야 한다. 물론 우물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보다 다소 복잡한 놀이방법을 가진 참고누는 지역에 따라 곤질고누, 짤고누, 꽂을고누라 불리나 놀이 방법은 모두 같다. 먼저 놀이자는 순서에 따라 말 하나씩을 24개의 목에 놓아 나가는데, 일직선상에 종횡 혹은 사선으로 세 개가 한 줄이 되도록 한다. 세 개의 말이 한 줄이 되었을 경우 곤, 고니, 꼰이라 하여 상대의 말 하나를 집어낼 수 있다. 준비된 말을 다 놓았을 경우, 목에 놓인 말을 한 목씩 움직이면서 곤을 만들어 나간다. 상대의 말이 2개가 되면 판이 마감된다.

참고문헌 | 몽골의 놀이1(남질도르지, 울란바타르, 1963),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중화민족전통체육지(中華民族傳統體育志)(중국체육박물관 편, 광서민족출판사, 1990), 조선의 민속전통5 -민속명절과 놀이-(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한몽 고누놀이 비교연구(장장식, 한몽 민속문화의 비교, 민속원, 2002), 동아시아의 놀이(김광언, 민속원, 2004).

필자 | 장장식(張長植)

관어(觀魚)

⇨ 선유(船遊): 여름편

낫치기놀이

정의 청소년들이 풀을 베거나 나무를 하러 가서 낫을 던져 꽂히는 것으로 승부를 정하는 놀이. 낫+치기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장치기, 돈치기, 자치기와 같은 민속놀이 중에서 'ㅇ+치기'의 결합은 일반적인 현상인 만큼 낫치기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놀이 명칭이라고 하겠다.

내용 풀을 베고 나무를 하는 일은 과거 농촌이나 산촌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풀은 소의 여물로 쓰거나 농사짓는 데 퇴비로 사용하고,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전통사회에서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따라서 낫치기놀이는 한국 전역에서 사례가 나타난다. 놀이방법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는 풀이나 나무를 베어다 쌓아 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그곳에 낫을 던져 제대로 꽂히면 이기고 땅에 떨어지면 지는 방법이다. 둘째는 풀이나 나무더미가 아닌 맨 땅에다 낫을 던져 꽂힌 사람이 이기는 방법이다. 이때는 낫이 꽂혀야 할 지점과 낫을 던지는 지점을 지정하는 선을 그어놓고 내기를 하기도 한다. 한계선을 정할 경우 낫이 꽂히지 않으면 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계선 안에 낫이 꽂혀도 지게 된다. 낫을 던질 때는 그냥 던지기도 하고 돌려서 던지기도 한다. 이 놀이는 재미로도 하지만 나무 한 짐이나 풀 한 단을 몽땅 걸고서 내기를 하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놀이로 갈퀴치기와 호미던지기가 있



낫치기 놀이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국립민속박물관

다. 겨울철에 낙엽을 긁어모으는 갈퀴를 가지고도 낫치기와 같은 방식의 놀이를 하며, 경북 안동에서는 꼴더미에 호미를 던져 꽂히는 사람이 꼴을 따먹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놀이 내용은 같고 놀이 도구만 다른 경우라고 하겠다.

의의 전통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놀이와 노동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다. 풀을 베거나 나무를 하는 일은 힘들고 단조로울 수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친구들과 함께하다 보면 놀이의 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곧 풀과 나무를 베는 노동의 도구를 놀이 도구로 활용하면서 노동 현장을 놀이 현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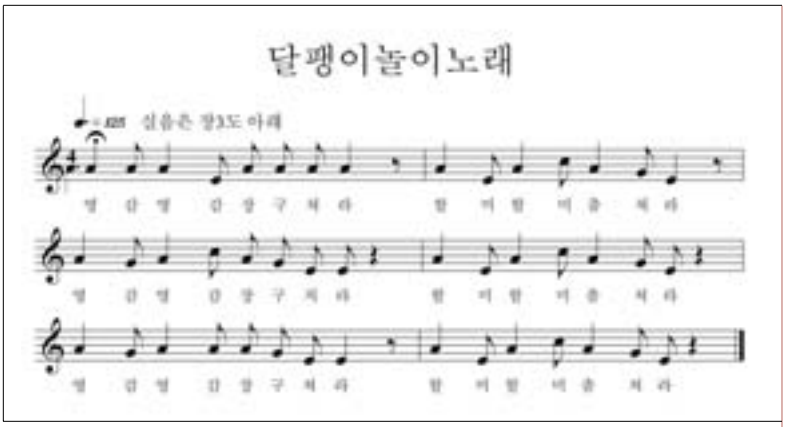
참고문헌 |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民俗大觀4 -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谷城歲時風俗(谷城文化院, 1987), 민속놀이 -전남 곡성군 오곡면·죽곡면 일대-(이명진, 南道民俗硏究10, 南道民俗學會, 2004), 한국세시풍속 I -1970년대~1980년대 조사자료-(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이옥희(李玉姬)

달팽이놀이

정의 주로 여름철에 마당이나 공터 같은 평평한 땅에 달팽이집 모양의 놀이판을 그려놓고 하는 어린이들의 놀이.

내용 이 놀이는 10~30여 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놀이이다. 놀이 방법은 마당이나 공터에 막대기를 이용하여 달팽이집을 그린다. 나선형 원을 여러 개 그리면 놀이를 할 때 더 재미가 있다. 편을 나누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긴 편은 달팽이집





달팽이놀이노래
구송 : 우상림(경북 칠곡군 지천면)
채록 : 코리아루트
채보 : 김혜정

바깥에서 안으로, 진편은 달팽이집 안에서 바깥으로 동시에 달려 나간다. 달려가다가 상대편을 만나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은 출발했던 자기 집으로 되돌아간다. 진쪽에서는 재빨리 다음 사람이 나아간다. 이긴 사람은 계속 뛰어간다. 상대편 담안까지 먼저 도착하는 편이 이긴다.

인접국가 사례 중국 연변에서 수집된 달팽이놀이는 우리의 달팽이놀이와 거의 유사하나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는다. 뒤에 나오는 사람이 이겨서 앉아 있는 사람을 쳐주면 그제야 살아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의의 이 놀이는 방법이 간단하고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길 때 즐거움이 있으며, 또 달팽이집을 따라 달릴 때 느끼는 어지럼증에 한층 재미를 느낀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이 놀이를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참고문헌 | 민속놀이(김광언, 대원사, 1989), 전래놀이 101가지(이상호, 사계절, 1999).
필자 | 박장영(朴長煐)

두꺼비집짓기놀이

정의 모래와 흙이 있는 공터나 시냇가에서 어린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노는 놀이.

유래 옴두꺼비는 평상시에 독사를 보면 피하지만, 알을 갖게 되면 도리어 독사를 찾아가서 독을 내뿜으며 싸우다가 결국 독사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그러나 두꺼비는 독사에게 잡아먹히면서 남겨둔 독을 독사에게 쏘아 죽게 한다. 그러면 옴두꺼비 뱃속의

달팽이 심디스마



두꺼비집짓기 놀이
경북 포항시 심디스마

알들은 엄마 두꺼비와 독사를 먹이로 하여 새끼 옴두꺼비로 태어난다. 두꺼비집짓기놀이를 할 때 부르는 노래 중에서 '헌집'은 바로 자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어미를 말하고, '새집'은 새끼 옴두꺼비 자식들을 뜻한다.

내용 놀이 방법은 우선 어린이들이 모여 모래 속에 한 손을 넣고, 그 위에 나머지 한 손으로 주위의 모래를 모아 덮는다. 모래를 둥그렇게 모아 덮고 한 손으로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견고하게 잘 두들겨야 나중에 무너지지 않는다. 노래가 끝나면 손을 살며시 뺀다. 손을 뺀 후 집이 무너지지 않고 집이 커야 승리한다.

놀이를 할 때 만들어진 집 모양이 두꺼비집과 같이 생겼다고 '두꺼비집짓기놀이'라고 하고, 모래가 적당히 있는 곳에서 모래를 다져서 형태를 갖추려면 적당한 습기가 필요하므로 비온 다음 날이 좋다. 이 놀이를 할 때에는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까치야 까치야, 헌이 줄게 새이 다오."를 부른다. 이 노래는 손바닥 또는 납작한 돌로 두드려 다질 때 부르며, 두드리는 박자에 맞추어 부르기 때문에 박자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의의 어린이들은 모래, 밀가루, 찰흙을 만지며 노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이 놀이를 통해 손으로 만지는 즐거움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전래놀이 101가지(이상호, 사계절, 1999), 민속놀이와 명절 상, 하(대산출판사, 2000).

필자 | 박장영(朴長煐)

방아깨비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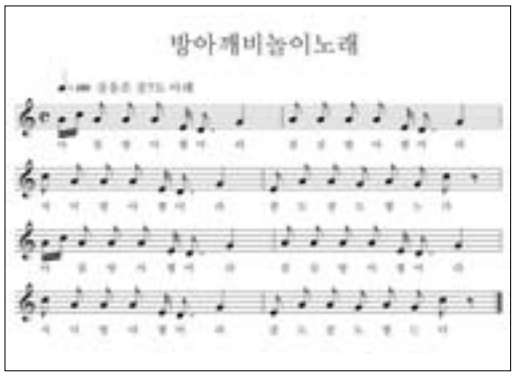
정의 주로 방아깨비가 많이 보이는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풀밭이나 야산에서 방아깨비를 잡아서 하던 놀이.

내용 방아깨비나 메뚜기는 몸의 빛깔이 녹색 또는 회색이고 몸의 길이가 길고 다리가 유난히 긴 곤충이다. 마을 어귀 수풀에서 놀거나 야산에 소꼴을 먹이러 가서 어린이들은 이 방아깨비를 잡아서 논다. 방아깨비를 잡아 두 다리를 손으로 잡고 흔들면 마치 절구공이로 방아를 찧듯 몸통을 계속해서 상하로 끄덕거린다. 이 놀이의 승부는 방아깨비를 각자 잡아서 동시에 방아를 찧게 하여 오래 찧는 쪽이 이긴다. 아이들은 방아깨비의 뒷다리를 잡고 "아침 방아 찧어라. 저녁 방아 찧어라. 콩콩 찧어라."라는 노래를 부른다. 방아깨비는 마치 노래에 박자를 맞추듯이 껑충껑충 방아를 찧는다. 이 동요는 가사가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로 놀이를 할 때는 '방아깨비를 찧어라.'를 반복한다. 이 놀이가 끝나면 방아깨비를 놓아 주기도 하지만 구워 먹기도 한다.

의의 이 놀이는 방아깨비를 잡기 위해 풀밭을 이리저리 깡충깡충 뛰어다니므로 자연스럽게 신체를 단련시킬 수 있다. 아울러 멋진 군것질거리이기도 하다.



방아깨비 발상윤



방아깨비놀이노래
구송 : 권남순(충북 보은군 내북면)
채록 : 코리아루트
채보 : 김혜정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필자 | 박장영(朴長煐)

뱃놀이

☞ 선유(船遊): 여름편

살냉이놀이

정의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새겨진 엽전으로 행하는 내기 놀이의 한 종류. 주로 여름철에 행해지던 남성들의 놀이이다. 전남 진도 지역에서는 살냉이라고 하나, 강원 지역에서는 사시랭이 또는 싸시랭이라고 한다. 놀이를 할 때 떠들썩하게 노래를 부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어원 및 유래 놀이의 명칭인 살냉이 또는 사시랭이의 의미를 알 만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놀이 방법을 통해서 몇 가지 짐작할 수 있다. 상대방의 숫자를 죽이는 놀이라는 의미에서 살(殺)+내기로 보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숫자를 살리는 놀이라는 의미에서 살[生]+내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기'가 '냉이'로 쓰이는 다른 용어들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시랭이라고 불린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놀이의 유래에 대해서도 각 지역의 특수한 역사와 지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진도 지역은 고려 삼별초 전란시 몽고에 끌려갔던 진도 주민들이 10여년 만에 돌아오면서 몽고 또는 만주 지방에서 배워 온 놀이를 전파했다는 것이다.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은 이 마을이 예부터 동(銅)을 캐는 마을이었던 데 착안하여 이 마을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민속놀이는 그 지역과 관련된 유래가 전승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한편 놀이 도구인 상평통보에 주목하여 상평통보가 제작된 조선 숙종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와 노래의 사설에 병자호란이 나오는 것에 주목하여 임·병란시에 병사들에 의해 행해진 놀이로 보는 경우도 있다.

내용 살냉이놀이 또는 사시랭이놀이는 전남 진도, 강원도 태백과 삼척, 경북 지역에서도 전승되어 온다.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민속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짙다. 각 지역에서 전승되는 놀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놀이에 참여하는 인원, 사용된 엽전의 개수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놀이의 본질은 같다.

전남 진도에서 전승되는 살냉이놀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놀이 기구는 상평통보 27닢과 목침 1개, 토시 1개이다. 상평통보 뒷면에는 1자부터 10자까지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1자부터 7자까지는 각각 세 닢이고 8자, 9자, 10자는 각각 두 닢으로 모두 27닢이다. 각 숫자는 점수와 관련이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점수도 높다. 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놀이꾼 세 사람과 패를 잡는 꼬쟁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

놀이 방법은 목침을 중앙에 놓고 놀이를 하는 세 사람과 꼬쟁이가 둘러앉는다. 먼저 꼬쟁이가 1자, 2자, 3자가 새겨진 엽전을 엎어놓고 놀이꾼에게 집게 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꼬쟁이는 가장 낮은 1자를 뽑은 사람을 선(先)으로 하여, 오른쪽 순으로 세 닢씩 나누어 준다. 제일 먼저 패를 받은 사람부터 엽전 세 닢 중 상대방이 없을 듯한 것을 목침 위에 올려놓으면서 숫자를 암시하는 노래 "나간다 나가신다. 일파만항(一碧萬頃) 넓은 바다 님이 가는 뱃길일세……." 하고 부른다. 이 노래를 들으면 나머지 두 사람은 선(先)이 내놓은 숫자가 1이라는 것을 쉽사리 알아차린다. 만약 두 사람이 선이 내놓은 숫자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패를 하나 골라 토시에 집어넣는다. 그러나 선이 내놓은 숫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패를 목침 위에 올려놓으면서 "개소리 마라, 양반소리 나가신다. 삼신산이 어디메냐 봉래(蓬萊)방주 명주로다……." 하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선이 잡히게 되고 그 사람이 선이 된다. 먼저 선과 다른 사람은 엽전 한 닢을 벌금으로

낸다. 이런 방법으로 1판에 3회씩 모두 3판을 논다. 판이 모두 끝나면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이 그 날 장원이 된다. 때에 따라서 술이나 돈을 걸고 내기를 하기도 한다.

의의 살냉이놀이는 내기놀이지만 다른 내기놀음인 화투, 투전, 마작과는 달리 도박성보다는 유희성이 강한 놀이이다. 놀이를 하면서 해학성이 두드러지는 노래를 부른다는 점에서 개방적이다. 노래 사설을 보면 현장의 분위기를 즉흥적으로 옮기기도 하고,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도 많다. 곧 살냉이놀이는 내기놀이가 지닌 오락성과 흥미 있는 노래가 빚어내는 유희성이 복합되어 서민들의 오락이 되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珍島郡誌(珍島郡, 1976), 진도속요와 보존(진도민요보존회, 1986), 예향진도 제26호(진도문화원, 1993), 사시랭이놀이(태백시청 홈페이지, http://www.tour.taebaek.go.kr), 한국 민요의 분류에 관하여(최상일, http://www.urisori.co.kr).

필자 | 이옥희(李玉姬)

서리

정의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단지 약간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곡식이나 과일을 훔쳐 먹는 일종의 장난. 서리는 먹을 것이 흔하지 않았던 시대에 배도 채우고 재미도 느낄 수 있었던 애교스러운 도둑놀이였다. 서리의 주요 대상은 밀, 보리, 콩, 감자, 고구마, 가지, 옥수수, 단수수, 오이, 참외, 수박, 감, 살구에서 닭서리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서리는 주로 곡식과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여름에 밭에서 이루어진다.



서리 이서지

내용 참외나 수박을 심은 밭에는 으레 밭을 지키기 위하여 밭머리나 밭 한가운데에 원두막을 짓는다. 원두막은 기둥 4개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보릿짚으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만들고, 그 밑에 판자나 통나무로 높게 바닥을 만든다. 사방은 보릿짚이나 밀짚을 엮어 위아래로 열고 닫히게 되어 있는데, 더우면 막대기로 버티어 열 수 있었고 땅에서는 사다리를 놓아 오르내리도록 하였다. 보리나 밀을 베고 그 밭에 주로 참외와 수박을 심기 때문에 원두막을 지을 때는 보릿짚과 밀짚이 흔하다. 원두(園頭)라는 말은 원래 참외, 오이, 수박, 호박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 중에서도 수박이나 참외, 딸기는 현장에서 따먹기 쉬어 원두막을 짓고 지켰다.

여름철의 참외서리와 수박서리는 고향, 친구와 함께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즐거운 추억거리다. 오후에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참외밭 곁에 있는 개천가에서 멱을 감으면서 원두막의 동향을 살핀다. 배가 실쭉해지면 또래 아이들은 근처 참외밭에 몰래 들어간다. 두서너 명은 원두막에서 낮잠 자는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한두 명은 살금살금 기어서 밭 가장자리에 있는 참외를 얼른 따가지고 줄행랑을 친다.

밤은 개구쟁이들에게 참외서리하기 좋은 시간이다. 저녁을 먹고 더위와 모기를 피해 동구 밖 버드나무 아래로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나온다. 저녁으로 먹은 보리밥은 금세 소화가 다 되고 밤이 으슥해지면 마음은 참외밭으로 향한다.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게 하려고 개천가의 진흙으로 온몸을 검게 위장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고는 참외밭 근처까지 기어간다. 또 다른 한 명은 원두막 근처에서 주인이 잠자는지 어떤지를 뻐꾸기 소리로 알려준다. "뻐꾹뻐꾹" 하고 울면 돌격대는 행동을 개시한다. 주인도 뻐꾸기 소리가 나면 아예 큰 소리로 "다

른 참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하고서는 그냥 내버려둔다.

이러한 서리에는 불문율이 있었다. 서리를 하되 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서리한 것을 두고두고 먹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먹어치운다. 그것으로 배를 채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기나 할 정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서리한 것은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한 집에 계속해서 서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골고루 한다.

서리는 장난꾸러기 마을 악동들이 주로 떼를 지어서 농사지어 놓은 농산물을 훔쳐 먹는 일종의 장난이다. 여름철의 참외서리와 수박서리뿐만 아니라 봄에는 밀서리, 가을에는 콩서리와 사과서리, 겨울에는 닭서리까지 한다.

밀서리는 밀이 누릇누릇 익어 갈 무렵 마을의 꾼들이 떼를 지어 오후에 소먹이와 소꼴을 베러 간다. 소꼴을 다 베어 놓고는 들판의 밀밭으로 가서 밀대를 한아름 베어서 불을 붙이면 밀이삭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잘 구워진 밀을 손바닥에 놓고 후후 입김을 불어 가며 비비면 탄 껍데기는 날아가고 익은 밀알만 남는다. 가을의 콩서리도 밀서리와 비슷하다. 나무꾼 아이들이 나무를 한 짐 지고 내려 오다가 모여서 쉬는 참에 콩을 꺾어 모닥불을 지피고, 그 위에 콩가지를 얹어 놓고 이리저리 뒤적이면 콩꼬투리 안에서 콩이 적당히 익게 된다. 이렇게 익은 콩을 주위에 둘러앉아 까먹는다. 밀서리와 콩서리는 주로 오후에 하는데, 곶감서리와 닭서리는 밤에 한다.

긴긴 겨울 저녁에 어느 사랑방에 모여서 새끼를 꼬거나 혹은 노름을 하다가 자정이 넘어 속이 출출해지면 그 중 한두 사람이 허술한 집 닭장에 들어가 소리 없이 닭을 잡아다가 볶아 먹는다.

의의 서리와 원두막은 오늘날의 삭막한 인정 속에 오아시스 같은 마음의 여유를 주는 풍속이자 풍물이다. 서리는 청소년들에게만 관용되던 장난으로 선조들의 넉넉한 인심을 읽을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천진기(千鎭基)

선유(船遊)

정의 배를 타고 여러 가지 풍류를 즐기는 놀이. 주유(舟遊), 뱃놀이라고도 한다. 『고려사(高麗史)』에 보이는 수희(水戱)는 궁중에서 오락으로 벌이던 선유인 듯하다. 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거나 물고기를 보고 즐기는 일을 관어(觀魚)라고 하였는데, 이 관어는 배를 타고 하기도 하고 별도로 설치한 관어대(觀魚臺)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배를 타고 하는 관어는 선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내용 배는 한 척을 띄우기도 하고 여러 척을 동시에 띄우기도 하며, 여러 척을 연결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도 한다. 신윤복의 '주유청강(舟遊淸江)'에는 배가 한 척 나타나고, '무숙이타령'에서는 두 척을 연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나라 사신 예겸의 기록에는 세 척을 연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배에는 차일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선유는 낮에 하기





1 배노름하고
기산풍속도 김준근

2 대동강물놀이 송석하

도 하고, 밤에 하는 경우도 있다. 밤에 하는 경우에는 불꽃놀이를 겸하기도 하였다.

일반 서민들은 주로 삼복에 선유를 즐겼다. 배를 타고 고기를 낚아 매운탕을 끓여 먹거나 어죽을 쑤어 먹으며 하루를 즐겼다. 반면에 고급 관리들이나 선비들의 선유는 거창하고 화려하였다. 배를 타고 그 자리에서 혹은 이동해 가며 주변의 경치를 즐기기도 하고, 흥취에 따라 즉흥시를 읊기도 하며, 자리를 함께 한 악공과 기녀들의 음악과 춤을 즐기기도 하였다. 술과 음식도 물론 빠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고기를 잡아 회를 쳐서 먹거나 매운탕을 끓여 먹는 즐거움도 곁들였다. 이들의 선유는 음력 7월 기망(旣望, 16일)에 베푸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소동파(蘇東坡)의 '적벽부(赤壁賦)'의 영향인 듯하다.

송나라의 소동파는 1082년 7월 기망 밤에 적벽에서 뱃놀이를 하고 '적벽부'라는 명문을 남긴 바 있다. 홍양호(洪良浩)는 중원절(7월 15일) 밤에 평양의 대동강에서 선유를 즐긴 체험을 '부벽루감고사(浮碧樓感古事)'라는 시로 남겼다. '무숙이타령'에서 김무숙은 7월 기망(旣望, 16일)에 한양의 한강에서 선유를 베풀었다고 하였다. 하회의 선비들도 매년 7월 기망에 낙동강에서 선유를 즐겼다.

윤두수(尹斗壽)의 『평양지(平壤志)』에 따르면, 고려의 임금들은 대동강에서 선유를 자주 벌였다. 조선시대에는 평안감사가 평양을 거쳐가는 조선과 중국의 사신들을 위하여 선유를 베풀었다. 평양감사향연도(平壤監司饗宴圖), 평양감사환영도(平壤監司歡迎圖) 같은 여러 기록화를 보면, 특히 밤에 벌이는 선유는 거창하고 화려하였다. 강에는 수십 척의 배가 떠 있고 평양성에는 성곽을 따라 횃불을 꽂아 놓았다. 집집마다 등불을 달고 강변의 구경꾼들은 횃불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강물 위에는 횃불을 담은 그릇들이 떠 있다.

한강에서의 선유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한양가', '무숙이타령'에 나타난다. '무숙이타령'에서 장안의 갑부인 대방왈자 김무숙은 7월 기망에 한강에서 선유를 크게 벌인다. 배 두 척을 연결해 놓고 차일, 화문석, 청사등롱, 수파련으로 장식한다. 그리고 재인들의 산대놀음, 거사와 사당의 가무, 명창들의 판소리, 크고 작은 물고기 회와 매운탕을 즐긴다.

조선시대에 하회의 선비들은 매년 7월 기망 밤에 낙동강 부용대와 만송정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선유를 하였다. 부용대에서 강 건너 만송정까지 공중에 줄불을 설치하여 허공에서 불꽃이 순차적으로 타들어가게 하고, 부용대 절벽 위에서는 불꽃들을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뜨리고, 강물 위에는 달걀 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불꽃들을 띄웠다. 그리고 청사초롱으로 장식된 배 안에서 술과 즉흥시와 기녀들의 시창, 가무, 가야금 연주를 즐겼다. 현대에 와서는 전승이 끊겼다.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平壤誌, 뱃놀이(김광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민속놀이론(임동권·정병호·김선풍, 민속원, 1997), 선유놀음의 무대와 객석(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태학사, 2002).

필자 | 전신재(全信宰)

수희(水戱)

⇨ 선유(船遊): 여름편

잠자리잡기

정의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맨손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잠자리를 잡는 놀이.



잠자리잡기 서현강

내용 잠자리잡기는 전국적으로 널리 행해진 여름철 놀이로 잠자리를 잡으며 노는 놀이지만, 잠자리를 많이 잡는 것으로 승부를 내기도 한다. 잠자리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마당 빗자루를 이용하여 날아가는 잠자리를 덮치는 방법이다. 이는 고추잠자리가 떼를 지어 있을 때에 좋은 방법이다. 빗자루를 한 번 내리칠 때 몇 마리에서 수십 마리의 잠자리가 잡히는데 한 마리씩 날개를 접어 손가락 사이에 끼워 보관한다. 한참 지나면 양손가락에 고추잠자리가 가득하다. 둘째, 검지를 펴서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잡는데, 이는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잠자리 눈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셋째, 왕잠자리의 암컷을 잡아 실로 발을 묶어 날려서 잡는 방법이다. 특히 경북에서는 왕잠자리를 왕철뱅이라고 하는데, 푸른색의 암컷을 실에 묶어 손에 쥐고 있으면 원을 그리며 난다. 이때 수컷이 다가와서 암컷의 머리와 몸통 사이에 수컷의 꼬리 집게로 연결하여 한 덩어리로 붙었을 때 실을 당겨서 수컷을 잡는다. 연못이나 웅덩이에서 이 방법으로 왕잠자리를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주로 잠자리채로 잡는다.

의의 잠자리잡기 놀이는 많이 잡은 쪽이 이기므로 어린이들이 들판을 뛰어다니며 잡기도 하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날렵하게 잡기도 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이 놀이를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다시 도전함으로써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민속놀이(김광언, 대원사, 1989).

필자 | 박장영(朴長煐)

천렵(川獵)

정의 더위를 피하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끼리 냇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하루를 즐기는 놀이. 천렵은 봄이나 가을에도 즐기지만 여름철, 특히 삼복(三伏) 중에 주로 이루어진다.

내용 뜻이 맞는 사람끼리 삼복 중에 냇물이나 강가에서 헤엄도 치고 그물을 쳐 놓고 고기도 잡고, 그 잡은 고기를 솥에 걸어 놓고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즐긴다.

정학유(丁學游)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 "앞내에 물이 주니 천렵을 하여보세. 해 길고 잔풍(殘風)하니 오늘 놀이 잘 되겠다. 벽계수 백사장을 굽이굽이 찾아가니 수단화(水丹花) 늦은 꽃은 봄빛이 남았구나. 촉고[數餘]를 둘러치고 은린옥척(銀鱗玉尺) 후려내어 반석(磐石)에 노구 걸고 솟구쳐 끓여내니 팔진미(八珍味) 오후청(五候鯖)을 이 맛과 바꿀소냐." 하여 그 재미를 노래하고 있다.



천렵 이서지

강화도에서는 여름에 친구나 마을 사람들이 모여 투망 혹은 소쿠리를 가지고 냇가로 몰려가서 민물고기를 잡는다. 두레나 물을 품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가서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만들어 농주(農酒)를 마시면서 씨름도 하고 목욕도 하며 하루를 보낸다.

의의 천렵은 고대의 사냥과 고기잡이 습속이 후대에 여가를 즐기는 풍속으로 변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더운 날씨에 일하던 고달픔을 잊고 마음껏 하루를 즐기는 이 천렵은 물맞이, 탁족, 모래뜸질 같은 풍속과 함께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歲時風俗(江華文化院, 1990),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編(서울特別市, 1993).

필자 | 천진기(千鎭基)

풍뎅이놀리기

정의 여름철에 풍뎅이를 놀리며 노는 놀이.

내용 풍뎅이는 등껍질이 푸른색 광택을 띠고 딱딱하며 몸은 둥근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활엽수 잎이나 참나무 진, 꽃과 열매 따위를 먹고 살며, 우리나라에서는 식물의 뿌리에 해를 가하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크기는 매우 작은 것부터 10센티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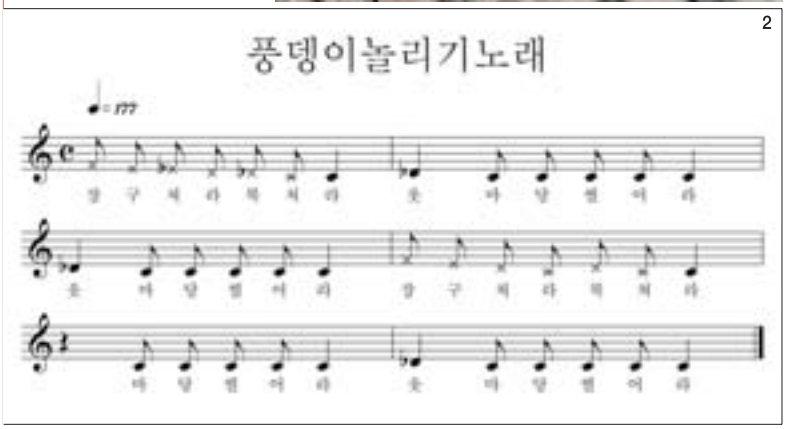
풍뎅이는 6~7월 사이 성체로 눈에 띈다. 여름이 되면 아이들은 풍뎅이를 잡아다가 평평한 바닥에 풍뎅이를 뒤집어 놓는다. 다리가 짧고 등이 둥그렇게 휘고 등껍질이 딱딱하여, 뒤집어진 채로 날개를 파닥거리면 풍뎅이는 제자리를 맴돌게 된다. 몸을 일으키기 위해 심하게 날갯짓을 하면 바닥에 먼지가 일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이를 풍뎅이가 청소를 하는 것이라 여겨 "앞마당 쓸어라. 뒷마당 쓸어라." 하고 노래를 부른다. 때로는 편을 갈라 풍뎅이를 놀리며 내기를 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양동이에 물을 채우고 그 속에 풍뎅이를 넣어 풍뎅이가 물에 뜬 채로 양동이 벽을 따라 뱅글뱅글 돌게 하거나, 풍뎅이 머리나 배 부분을 실로 묶어 실을 길게 뺀 다음 실 끝을 잡고 풍뎅이를 뱅글뱅글 돌리며 놀리기도 한다. 물에 풍뎅이를 띄워 놀릴 때는 "핑겡아 핑겡아, 장꼬방에 물떠 놨다. 뱅뱅돌아라."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1 풍뎅이 심디스마

2 풍뎅이놀리기노래
구송 : 진옥순(전남 보성군 먹굴마을)
채록 : 코리아루트
채보 : 김혜정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忠淸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5), 韓國民謠集Ⅳ(任東權 編, 集文堂, 197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김계연(金桂淵)

거창삼베일소리(居昌-)

정의 경남 거창군 일대에서 삼[麻]을 재배하여 삼베를 짜는 전 과정에서 부르던 전승 민요.

기원 및 과정 쌈은 『삼국지(三國志)』「위지 동이전」 마한조(馬韓條)에 "삼을 삼고 누에를 길러 옷감을 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三國史記)』「신라본기(新羅本紀)」 유리 니사금조에도 부녀자들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길쌈 내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유래가 오래되었다. 거창은 예부터 삼베의 주요 생산지였으며, 삼베일과 삼베일소리가 널리 전승되어 왔다. 그 밖에 함경도의 북포(北布), 영남의 영포(嶺布), 강원도의 강포(江布), 전남 곡성의 돌실나이가 유명하다.

삼베일은 음력 3월 하순에 삼씨를 뿌린 후 6월 말 무렵에 잎을 치고 삼곶에 삶아 삼을 짼 다음, 7월에 삼을 삼는다. 그리고 다시 물레질을 하여 삼실 꾸러미를 만들고 실에 풀을 먹인 후 베틀에 올리게 된다. 대개 날씨가 추워지는 추석 전에 작업이 끝난다.

내용 거창삼베일소리는 삼밭매는소리, 삼잎치는소리, 삼곶소리, 삼삼는소리, 물레소리, 베나르기소리, 베메기소리, 베짜는소리의 8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삼밭매는소리는 삼밭을 매면서 교환창으로 부른다. 경남 지역의 밭매는소리는 대개 독창 형식이다.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불꽃같은 더운날에 한 골매고 두골매고, 세골을 접어드니 님의생각 절로 난다." ② 삼잎치는소리는 음력 유월 하순 무렵 삼을 세워 놓고 긴 대나무칼로 삼잎을 내리치며 부른다. 독창으로 많이 부르지만 노랫말이 고정되어 합창하는 경우도 많다. ③ 삼곶소리는 삼곶(혹은 삼굿)에 삼대를 찌며 부르는 소리이다. 삼곶은 삼을 찌는 흙

구덩이를 말한다. 삼을 찌기 전에 삼곶 위에 간소한 제물을 차리고 고사를 지낸다.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불을 때어 삼을 찔 때 "삼꿎이여" 하고 소리친다. "임금아들 이도령은 천령산 처녀보고, 쉰질되는 담을 넘다, 자주고름 자천령을 한주름을 째었구나……." ④삼삼는소리는 삼을 삼는다는 것은 가늘게 짼 삼실 끝을 서로 이어 길게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데, 삼실에 침을 묻혀 허벅지에 대고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실끝이 이어져 길게 된다. 안동의 삼삼기 노래는 다음과 같다. "진보청청 진삼가리, 영해영덕 뻗쳐놓고, 비비치라 내리치라. 울아버지는 관솔패고, 우리엄마 밤참하고, 우리오빠 관솔놓고, 밤새도록 삼은삼이, 한발이고 반발일레." 거창의 삼삼는소리는 교환창으로 부르는데 품앗이 두레삼을 주로 한다.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이삼삼아 옷해입고 무덤산에 놀러가세, 칠월인가 팔월인가 벌초군이 만발했네……." ⑤물레소리는 물레질을 하여 삼 꾸러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른다. 물레소리는 물레질하는 작업 과정이 노랫말에 담겨 있어 삼베일과 물레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⑥베나르기소리는 삼실에 잿물을 먹인 후 이것을 다시 익혀 풀어내려 날을 고르는데, 이를 베나르기라 한다. 거창 베나르기소리로는 서사민요 '사모곡'이 쓰인다. ⑦베메기소리는 베틀의 날줄(바디)에 실을 끼워 도투마리에 감아올리며 보리겨나 나락 등겨로 끓인 풀을 먹이는 과정에서 부른다. 이때 시집살이노래를 많이 부른다. "안의 거창 조시랭이 열다섯에 머리얹어, 열에여섯에 시접가니, 시접가던 샘일만에 밭이라꼬 매라하니, 어머님도 들어보소 저의밭이 오데있소. 뒷동산에 올라서면 광너르고 사래진밭이 내밭이네……." ⑧베짜는소리는 도투마리를 베틀에 올려 삼베를 짜는 과정에서 부른다. 일반적으로 '베틀가'라 하는데, 거창 지방의 경우 '월궁에 노던선녀'로 시작되는 노랫말이 많이 쓰인다.

특성 길쌈 노동은 산업화에 밀려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특히 삼베일은 경남 거창과 경북 안동(임소), 전남 곡성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거창 삼베일소리는 두레일에 적합한 교환창이 많고, '어사용' 가락을 사용한 삼곶소리, 베나르기소리로 '사모곡'을, 베매기소리로 '시집살이노래'를 가창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삼베 제작 과정에 소리를 곁들여 일의 기능과 소리의 상관성을 잘 보여준다. 거창삼베일소리는 삼밭을 매는 데서부터 삼베를 짜는 과정까지 부녀자들이 느끼고 겪어야 했던 삶의 고통과 임에 대한 사랑이 진솔하게 표현된 여성의 소리라는 점에서, 그리고 점차 사라져가는 삼베일의 작업 과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삼베 관련 소리로는 거창삼베일소리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어 있고, 곡성 돌실나이(삼베짜기)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2호로, 안동포 직조기능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居昌의 民謠(居昌郡, 1992), 영남의 소리(김기현 · 권오경, 태학사, 1998), 민요와 한국인의 삶(박종섭, 문창사, 2002),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1, 2(최상일, 돌베개, 2002).
필자 | 권오경(權五慶)

논매고오는소리

정의 농민들이 논을 매고 나서 마을로 돌아오면서 하는 소리. 대개 논매기를 거의 끝내고 논두렁으로 나오면서부터 하기 시작하여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한다. 한여름에서 늦여름까지 논매기를 하는 동안 매일 한다는 점에서, 한 해의 논매기를 완전히 마치고 농사장원을 뽑아 마을로 행진하면서 하는 '장원례소리'와 구별된다. 장원례소리가 농민들에게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반면, 논매고오는소리는 농민들이 논둑길을 걸어가면서 단순히 여흥을 즐기는 노래이다.

유래 들에서 논매기를 하던 농민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은 대개 하루의 작업을 마친 뒤이지만, 때로는 작업 도중에도 점심이나 새참을 먹으러 마을로 들어가기도 한다.

논매고오는소리는 그 성격상 장원례소리로 발전하기 전 단계의 노래로 볼 수 있다. 마을의 규모와 일꾼들의 숫자, 그리고 일꾼 조직의 성격과 마을의 문화적 풍토에 따라, 논둑을 오가면서 여흥삼아 노래를 부르던 풍습이 본격적인 장원례로 발전한다.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에서는, 논매기를 마치고 그 날의 으뜸 일꾼을 뽑아 사다리나 지게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칭칭이소리를 했다고 하며, 이때 주인집에서 갖가지 음식과 술을 내놓아 그

날의 노동에 보답했다고 한다. 이것은 본격적인 장원례가 형성되기 전 단계의 관행으로 볼 수 있다.

내용 논매고오는소리는 예전에 여럿이 길을 오가면서 부르던 길군악, 질꾸내기와 같은 길노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논매고오는소리로는 영남 지방에 널리 퍼진 칭칭이소리가 대표적이다. 칭칭이소리는 대개 '칭이야칭칭나네'라는 후렴구를 가지지만, '치기나칭칭나네' 또는 '치나칭칭나네', '친친친나레' 처럼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논매고오는소리에는 흔히 풍물 반주가 곁들여지며, 흥겨운 춤을 추는 것은 물론이다. 칭칭이소리는 영남 지방에서 논매고 올 때뿐 아니라 잔치판이나 놀이판에서도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이다. 논매고오는소리로 부른 칭칭이소리 가사는 다음과 같다.

"자, 모도 이제 참 먹으로 들어가세."
치기나 칭칭나네 치기나 칭칭나네
가세 가세 참 먹으로 가세 치기나 칭칭나네
우리야 농부들 들어나 보소 치기나 칭칭나네
우리야 이렇게 살며는야 치기나 칭칭나네
몇백 년이나 살고나 보나 치기나 칭칭나네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 편)

칭칭이소리는 대개 굿거리장단에 맞으며, 노랫말은 앞소리꾼이 적당히 주워섬기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다.

논매고오는소리는 근래의 민요 수집 과정에서 농업 노동의 관행에 대한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지면서 장원례소리와 구별하여 정립된 민요의 명칭이다.

지역사례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보면 논매고오는소리는 주로 경상도에 분포한다. 곧 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경북 문경군 산양면 신전리의 칭칭이소리가 그 예이다. 경상도에서는 같은 칭칭이소리라 하더라도 이를 논매고오는소리로 부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장원례소리로 부르는 곳도 있다. 본격적인 장원례를 많이 하는 전남과 전북에서는 장원례소리 외에 논매고오는소리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한국민요대전 경상남도 편(문화방송, 1994),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필자 | 최상일(崔相一)

논매기소리

정의 모심기가 끝나고 논매기를 하면서 부르는 소리. 세 번의 논매기를 할 때마다 소리를 한다.

내용 모심기가 끝나고 20여 일이 지나면 논에 잡풀이 돋기 시작하여 논매기를 하게 된다. 논매기는 보통 세 번을 하는데 아시논매기, 두벌논매기, 세벌논매기가 된다. 아시논매기를 초벌논매기, 아이논매기라고 하는데, 보통 호미를 가지고 논을 매지만 땅이 무른 논은 그냥 손으로 매기도 한다. 두벌논매기는 아시논매기가 끝난 뒤 2주 정도 지나서 한다. 세벌논매기 역시 두벌논매기가 끝난 뒤 2주 정도 지나서 하는데, 이때가 되면 잡풀이 무릎 정도까지 자라게 된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세벌논매기를 만물논매기라고도 한다. 이때는 날씨가 가장 무더운 칠월 염천이며 거기다가 왕성히 자란 모나 잡풀이 논매는 사람의 팔이나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땀냄새로 인해 쇠파리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고되다.

논매는소리는 아시논매기 소리일 때는 메나리조인 어산영 가락으로 부르지만, 두벌, 세벌논매기일 때는 가락이 빨라진다. 논매기소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데, 심한 경우는 물 건너 마을과 물 안



논매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국립민속박물관

마을의 논매기소리가 다를 수도 있는 가장 향토색이 짙은 소리이다.

논매기소리는 한 줄 4토막에, 한 토막의 음수율이 4·4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음수율이 3·3조 또는 3·4조로 불리기도 하며, 선후창의 형식을 취하여 선창자가 소리를 메기면 다른 사람들이 후렴을 받아서 부른다. 경상도 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상사디여"로 후렴을 받는데, 충청도 지역에서는 "얼카동아리"로 받기도 하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에이요라 방아요"로 받기도 한다. 소리의 마디가 끝나고 나면 "얼씨구.", "잘한다.", "좋다." 같은 추임새가 들어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 후후후후" 하면서 길게 뺀다.

논매기소리에는 풍농을 기원하거나 애정, 성본능 그리고 해학과 풍자가 담긴 내용이 가장 많다.

농부들아- 에이- 오늘일기가 화창한데
논이나 한번 매어보세
올놀놀 상사디야 올놀놀 상사디야
논을매세 논을매세 이논배미 논을매세
열두마지기 논배미를 이리저리 둘러매세
이논배미 벼를가까 한암매고 돌아보니
중참때가 되었구나
두암매고 돌아보니 점심때가 되었구나
이논에다 수확을내여 구시월 추수를 하여
한마지기 수확을하면 넉섬닷섬 수확을 하고
고왕간에 재워놓고 만백성이 먹고사네
애화올놀놀 상사디야
일락서산에 해는지고 월출동녁에 달이돋네
들어가세 들어가세 주인댁으로 들어가세
막걸리한잔씩 논아먹고 놀고가세 놀고가세
마구재이로 띠(뛰)어노세 풍년일세 풍년일세
금년수확이 풍년일세 애화올올 상사디야
(제보자: 박종석, 남, 70세, 경남 거창군 가지리)

얼캉 동아리 얽어너머쳐 동아리로구나
얼카 동아리 이논매고서 둥너머가세
날살려라 나살려라 한양낭군아 나를 살려라
삼신산에 낭구여서(나무를 베어서) 수심산에다
집을 짓고서
얽어너머쳐 동아리로구나 처먹진안해도 논은잘판다
떳다보아라 그뭣이떳느냐 저들가운데 백골이떳구나
만물이들었네 만물이들었어 이산저산에 만물이들었어
올카 동아리 이팔청춘아 웃지말어라
어꺼저끼(어제 그저께)가 나도청춘인데 얽어너머쳐
동아리로구나
봄이오면은 오시마하더니 잎이다져도 소식이없구나
산에올라서 옥을캐니 이름이좋아서 산옥이라더냐
얽어너머쳐 동아리로구나 봄아봄아 따뜻한봄아
이팔청춘아 피끓는봄아 얽어너머쳐 동아리로구네
있는사람(없는사람)은 고생이런만 한번잘못은 병가
상사라
올카 동아리
(제보자: 김만배, 남, 63세,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곰방네- 곰방네- 곰방네- 네에-
오늘 김씨네 못논을 한번 잘 매줍시더 네에
널널널 상사디야 널널널 상사디야
이상사가 누상사냐 김서방네 논을매면
일심합력하여서 일심합력 하여서 골-고루 파주세
맹깨디는 허지말고 정조식으로 파서주세
김서방에 못논매니 잘매며는 막걸리 한사발
못매며는 욕이 서마디 우리 역군들 말들어라
사장네논을 일심동력 잘두맨다 잘두맨다
목이말라 못하느냐 목말르면 막걸리주고
배가고파서 못한다면 이밥먹일테니 잘도해라
우리역군들 잘도한다 차는합차 타구가는
양춘가절 다넘어가구 망~막한 찬바람에
귀한꿈도 다깨졌네 시야시한 무제런데
다시점진 못하나 한번가면 고만인데
오시오긴 어려워라 이세상에 하직하고
지옥으로 나는가면 언제다시 생겨나나
가요가요 나는가요 잘두하고 잘두한다
누굴믿고 살려느냐
(제보자: 김기영, 남, 68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필자 | 박종섭(朴鍾燮)

☞ 쌈싸는소리: 여름편

물푸는소리

정의 농업 노동요의 하나로, 논에 물을 퍼 넣으면서 하는 소리. 물 푸는 도구를 이용하여 규칙적으로 논에 물을 푸면서 일정한 곡조를 넣어 물 푸는 횟수를 헤아린다. 일부 학자나 현지 가창자들이 사용하는



물품는소리, 물두레소리는 모두 물푸는소리와 같은 말이다. 또 물푸는소리는 사용하는 도구와 작업 형태에 따라 용두레질소리, 맞두레질소리, 무자위질소리로 나뉘는데, 현지 가창자들은 흔히 물푸는소리 대신 이들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강원 영동지역에서는 용두레를 파래라고 하고, 그것으로 물푸는소리를 파래소리라고 한다.

유래 논에 물을 푸는 것은 벼농사의 특성상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리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논에는 비가 오지 않아 논에 물이 마를 때마다 물을 퍼 넣어야 했다. 특히 물이 있어야만 하는 모내기 직전에 물을 푸는 일이 많았다.

물푸기는 물이 있는 곳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 도구가 달라진다. 논 옆으로 개울이 흐르는 곳에서는 개울을 막아 수위를 높인 뒤 용두레를 사용하여 비교적 쉽게 물을 풀 수 있다. 용두레는 세 개의 장대를 삼각뿔 모양으로 묶어 세우고, 그 꼭대기에 줄을 매어 구유 모양의 긴 두레박을 매달아 혼자서 물을 푸는 도구이다. 논 옆에 둠벙이 있을 경우에는 상자 모양의 두레박 네 귀퉁이에 줄을 달아 양쪽에서 두 사람이 마주잡고 물을 퍼 올리는데, 이것을 맞두레라 한다. 그 밖에도 장대 끝에 바가지를 매단 두레박이나 물레방아 모양의 무자위(또는 물자새)로 물을 푸기도 했다. 용두레질이나 맞두레질은 여건에 따라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하기도 했다.

내용 물푸는소리는 기본적으로 물푸는 횟수를 헤아리는 소리이다. 물푸기는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이므로 숫자라도 세어 지루함을 달래는 것이며, 작업량을 헤아리기 위한 것이다. 숫자를 세는 방법도 마을마다 또는 가창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가 하면, 아래에서처럼 적당한 노랫말을 넣기도 한다.

야달 아홉 열이 두레네 올라간다
어느 새끼(어느 사이에)
올라갔냐 잘도 헌다
야달 아홉 새로 열이네 그렇지 그렇지
열이 아홉 시무 두레 올라간다
물을 실코 올라간다 어느 새
이 물 품어서 모를 심구고 어느 치 어느 치
모를 심구면 먹을 것 나온다 올라간다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 편)

두레박 수를 세는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숫자를 하나부터 세지 않고 열부터 세기 시작해서 백까지 센 다음 앞에서 생략했던 열을 거꾸로 세어 뒤로 붙이는 방법이다.

열이로다 열에하나 열에둘로
사오이십 스물하나 스물둘로
오륙삼십 서른하나 서른둘로
팔 사 십 마흔하나 마흔둘로
백에절반 쉬흔하나 쉬흔둘로
열로육십 육십하나 예순둘로
중간칠십 일흔하나 일흔둘로
고릉팔십 팔십하나 야든둘로
아홉아흔 아흔하나 아흔둘로
열로백번 백이가고 백에 분수
열이남고 아홉남어 야달남어…
둘이남어 하나남어 운수로다
쉬어갖고 허세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 편)

무자위(물자새)를 밟으면서 하는 노래는 동작과 관계가 없으므로 숫자를 세지 않는 대신 적당한 노랫말을 붙인다.

밟어밟어 밟어밟어
물자새를 밟어
넘어가네 넘어가
고개고개 물자새

고개 넘어가네
탁탁 닷 마지기가
반은물을 품었구려

(한국민요대전 충청남도 편)

물푸는소리는 황해도와 평안도에서도 많이 하였다. 이 지역의 물푸는소리는 혼자서 하는 용두레질소리가 많다. 황해도의 물푸는소리는 다음과 같다.

어기영차요 물 넘어간다 하나에 둘이라 둘 서이요
십년 대한에 왕가물일세
일구 여덜 아홉 열 열들이 찼구나 물 넘어간다
하나에 둘이라 둘서이요 땅이 석자가 타들어가누나
일구 여덜 여들 아홉 열 스물이로다 물 넘어간다
하나에 둘이라 둘서이요 세넷이요 네다섯이로다
천하지 대본은 농사이라네
일구 여덜 여덜 아홉 삼십이 찼구나 물 넘어간다

(황해북도 인산군, 북한민요전집·황해도 편)

이러한 형태의 물푸는소리는 평안도, 황해도지역을 비롯해서 경기도 강화, 김포에서도 나타난다.

의의 물푸는소리는 노래 자체가 매우 단순하지만, 재래식 논농사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는 민요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가창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노래에 변화를 추구해온 과정을 알 수 있는 민요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 편(문화방송, 1993),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민요대전 충청남도 편(문화방송, 1995),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1, 2(최상일, 도서출판 돌베개, 2002), 북한민요전집 -황해도편 음반해설집(방송문화진흥회, 서울음반, 2004).
필자 | 최상일(崔相一)

밭밟는소리(밧불리는소리)

정의 소말[牛馬]을 이용하여 밭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 노동적 성격이 강한 노래로 제주도에서는 밧불리는소리 또는 밧불리는노래라고 한다. 밭을 밟는 일은 밧불리기라고 하며, 좁씨나 메밀 같은 곡식의 씨앗을 뿌리고 난 후 씨앗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하여 소나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는 것을 말한다. 밧불리는소리는 검질(김)매는 사대소리, 타작하면서 부르는 마당질소리와 함께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내용 제주도는 일찍이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발달했다. 특히 척박한 땅을 일구고 개간하며 피나 조, 밀과 같은 잡곡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화산재 토양의 특성 때문에 곡식 농사는 씨앗을 뿌려도 바람에 날려 땅에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나 말, 사람이 직접 발로 밭을 밟아주어야만 한다.

말 100마리 정도를 키우는 테우리들이 목장에서 놀던 말을 찾아 50마리 정도를 끌고 와 마을 인근 지경의 밭을 밟아주었다. 밭을 밟고 난 후에는 비가 오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마가지'라고 한다. 비가 오면 땅이 굳어져서 싹을 틔우기가 어렵고, 비록 좁씨가 싹이 나더라도 뿌리내릴 수가 없어 생육이 부진하게 된다. 밤에는 수많은 말을 들에 매어놓아서 새벽녘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고, 날이 밝으면 다시 밭을 밟게 된다. 대체적으로 밧불리기는 보름 정도가 걸린다.

선소리꾼은 회초리를 들고 말 뒤에 서서 선소리를 하며, 후렴 받는 사람들은 선소리꾼 뒤에서 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경계하며 받는다. 이러한 작업은 빙 둘러가면서 밭을 밟도록 말을 이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노래가 하는 것이다.

보유자는 이명숙(李明淑, 1931년생, 제주도 조천읍 함덕리)이다. 구연 사설을 정리하면, 후렴으로 연 구분이 분명하다.

어러러월월 어러러월월 월월ᄒᆞ민
고개숙이멍 돌아나온다
어러러와 월월월(와하아 월하량).
요ᄆᆞᆯ덜아 저ᄆᆞᆯ덜아 어러러 구석구석 마다 씨난듸어
시(씨가 나온 곳이 없이) 곱이창창 돌아들멍 멘짝ᄒᆞ
게(아주 평평하고 미끈하게) 볼라도렌(밟아 달라고)
ᄒᆞ는구나.
어러러려 월월월 (와하아 월하량).
제석할마님아 어러러 요조랑 불리건 남댕이랑(나무
자루) 두자두치.
고고리랑(조 이삭) 나컨 덩드렁 막개만씩 나게 흡서.
어러러러 하 월 월월월 (와하아 월하량).

노래는 마소 떼와 대화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소리의 강약을 잘 처리하고, 리듬의 장단, 꺾는 목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 산북 지역의 특성을 지니는데, 산남 지역의 밧불리는소리와 그 형식 구성상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라산 남쪽 지역의 특성을 보이는 성읍리(조을선, 여, 1915년생, 타계)의 밧볼리는 소리를 보면 자유리듬이나 '도레미솔라'의 5음계로 구성되어 있고, '도'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 산남 지방 고유의 전통을 드러낸다.

어러러 헤 어러렁 - 에헤양.

오홍허으어 월월월월월 월월월.

한라산에 산목이 쫄르민(한라산의 산자락이 짧게 보이면) 사흘 안에 비가 온다 ᄒᆞ는구나.

오홍어으어 월월월월월 월 - 월 - 월.

밧볼리는소리의 노랫말은 노동과 직접 연결되어 기능성을 표출하는 사설이거나 또는 짐승과 같이 하는 노동의 특성상 인간과 짐승간의 노동 진행을 위한 신호와 대화가 주를 이룬다. 이는 특히 원시 민요에서 볼 수 있는 점으로 동물과 인간 사이의 교감을 통한 우주 자연의 생명력과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농부들의 심정이 잘 표출된다.

참고문헌 | 濟州島 勞動謠 硏究(趙泳培, 예솔, 1992),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편(문화방송, 1992), 영상복원 제주민요(제주KCTV 제주방송, 제주도, 2003), 제주도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제주도, 2003).

필자 | 좌혜경(左惠景)

쌈싸는소리

정의 농업 노동요에 속하는 논매는소리의 하나. 곳에 따라서는 매조지는소리, 외염싸는소리라고도 한다. 논을 매는 것은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며, 여러 사람이 나란히 늘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며 일을 한다. 그런데 논매기의 마무리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서 있거나 속도를 늦추고, 양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보다 서둘러 나아가면서 동그랗게 원을 만들며 한곳으로 모이면서 끝낸다. 이렇게 논매기를 마무리하는 행위를 쌈싸기라고 한다. 동그랗게 둘러싸는 것이 쌈을 싸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말이다. 쌈싸는소리는 이처럼 논매기를 마무리하며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이 노래는 한 논의 작업을 마무리할 때마다 부르기때문에 다른 논으로 옮기기 전에 부르게 되고, 또 참이나 식사를 위해 논에서 나올 때도 부른다.

내용 쌈싸는소리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식으로 보면 가사와 후렴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의미 없는 입타령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어위싸오 어위싸오

우리농부들 쌈한번싸세 어위싸오

제주원님은 말가죽쌈 어위싸오

남원원님은 처녑(천엽)쌈 어위싸오

임실원님은 해우(김)쌈 어위싸오

장수원님은 곤달로(산나물)쌈 어위싸오

우리농부는 상추쌈 어위싸오

휘휘둘러라 쌈싸세 어위싸오

(다함께) 위이 워어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 편, 문화방송)

디야 호오호 디야 호오호

디야 호오호 디야 호오호

디야 호오호 디야 호오호

디야 호오호 디야 호오호

디야 호오호 디야 호오호

디야 디야

(다같이) 이후후후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 편, 문화방송)


1


2

1~2 쌈싸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국립민속박물관

전북 장수와 경북 상주에서 쌈싸는소리로 부르는 싸호소리와 디야호소리이다. 가창 방식은 둘 다 선후창이다. 그러나 싸호소리는 두 마디의 사설과 후렴으로 되어 있고, 디야호소리는 입타령으로만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사설과 후렴으로 이루어진 쌈싸는소리의 내용은 일정하지 않다. 사설은 선창자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부르기 때문이다. 위의 싸호소리는 논매기의 쌈싸기와 식사의 쌈싸기를 말장난으로 활용하여 재미있게 사설로 구성하였는데, 이처럼 선창자는 무엇이든지 노래할 수 있다.

논매기는 중간에 참을 먹으며 하루종일 진행한다. 그러기에 논을 매면서 하는 노래는 오랫동안 길게 부른다. 그러나 쌈싸기는 일 끝에 잠깐 동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쌈싸는소리는 빠르고 짧게 불러야 일의 상황과 어울린다. 쌈싸기의 시간이 길지 않고, 또 일을 끝내려는 심리가 몸놀림을 빠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쌈싸는소리는 빠르고 짧은 것이 특징이다. 쌈싸는소리가 디야호소리처럼 입타령으로만 구성된 것이 적지 않고, 또 싸호소리처럼 사설이 있는 경우에도 길이가 두 토막을 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뭔가 표현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에 내용 없는 입타령만으로도 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고, 또 한 행의 사설 길이가 짧아야 작업의 빠른 호흡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쌈싸는소리는 노래 끝에 구호를 함께 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이 노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여름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으로 옷을 적시며 하는 작업이기에 논 하나를 다 매고 마무리할 때마다 갖게 되는 보람과 성취감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쌈싸는소리에는 일꾼들의 이러한 현장의 정서가 배어 있다. 노래를 마치며 함께 외치는 구호를 통해 일을 해낸 기쁨을 표출해 내는 것이다. 참을 먹기 위해 쌈싸는소리를 부른 경우에도 작업의 고통을 잠시 뒤로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쁨이 구호로 표출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기에 쌈싸는소리를 부를 때는 거의 춤추듯이 몸을 놀리며, 끝에 구호를 외칠 때는 만세를 부르는 듯한 동작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구호는 곳에 따라 같지 않다. 전북에서는 위의 예와 달리 보통 "위여차"라고 하며, 경북에서는 위의 예처럼 "이후후후"라고 한다.

의의 곳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은 다르지만, 논매기는 하루 종일 하는 것이기에 작업의 상황과 진도에 따라서 보통 여러 노래가 구연된다. 위의 디야호소리도 그 앞에 잘도하네 소리를 느린 것과 빠른 것 두 가지로 부르고, 또 방아소리를 부른 다음에 이어진 노래이다. 그러므로 쌈싸는소리는 작업의 종결뿐만 아니라, 공연의 종결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여러 노래를 이어간 뒤 빠르고 짧은 노래를 통해 뒤를 급격히 매듭짓는 것이다. 이것은 분위기를 절정부에 올려놓고 종결함으로써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일인데, 이러한 상황이 작업의 완성감으로부터 갖게 되는 현장적 정서와 맞물려 연출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강등학 외, 도서출판 월인, 2002).
필자 | 강등학(姜騰鶴)

계집의 말은 오뉴월 서리가 온다

정의 여인네의 저주와 원한의 후유증을 경계해서 되새길 때 쓰는 속담.

내용 이 말은 여인이 원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일부함원(一夫含怨) 오월비상(五月飛霜), 필부함원(匹夫含怨) 유월비상(六月飛霜), 앙천면곡(仰天面哭), 유월상강(六月霜降)과 같은 맥락의 속담이다. 옛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일상생활에서 처신이 여의치 못했다. 더욱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남존여비의 관습에 얽매여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다가, 극한상황에 다다르면 그간 쌓인 울분이 폭발하고 만다. 이때 사무친 울분과 격정의 원성이 예사롭지 않아서 오뉴월 불볕더위에도 서릿발을 내리게 할 정도로 앙갚음의 결과가 무섭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계집의 곡한 마음은 오뉴월에 서리가 친다.", "계집의 말은 오뉴월에 서리가 싸다.", "계집의 악담은 오뉴월에도 서리가 친다.", "계집의 원한은 오뉴월에 서리를 내린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속담사전(임동권,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늦모내기에 죽은 중도 꿈적거린다

정의 모내기의 바쁜 경황을 떠올릴 때 쓰는 속담.

내용 벼농사는 4월 하순 모판을 다져 파종을 한 다음부터는 차츰 바빠지기 시작한다. 모판에 모가 자라면 논밭을 갈고 물을 담아 써레질을 한 다음 옮겨 심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호남 지방에서 재래종 일반벼는 치자꽃이 만발하면 모가 한창이라고 해서 유월 초순과 중순을 넘기지 않으려고 서두른다.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것과 오후에 심은 것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유월에 마무리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겼다. 그렇게 전력을 기울이다가 일손이 달려 칠월로 밀려나면 늦모내기가 되어 벼 수확에 차질을 빚게 된다. 비록 늦었지만 중복에 모내기를 하여도 잡곡보다는 낫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안타까워 죽은 중마저 거들어 주려고 꿈틀거리며 움직인다는 것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늦모는 대추를 코에 꽂아가며 심는다.", "늦모는 하루가 다르다.", "만모는 손에 든 모와 땅에 꽂은 모가 다르다.",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 "모내기철에는 아궁이 앞 부지깽이도 뛴다.", "모내기는 치자꽃 필 때가 지나면 늦다.", "상강 구십일 두고 모 심어도 잡곡보다 낫다.", "소서 넘으면 새색시도 모심는다.", "소서 모는 지나는 행인도 달라든다.", "칠월 늦모는 원님도 말에서 내려 심어주고 간다.", "하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농사속담집(전라남도 농촌진흥원, 1979),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고재환(高在奐)

메뚜기도 여름이 한철

정의 전성기가 길지 않음을 빗대어 풍자할 때 쓰는 속담.

내용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나름대로 전성기가 있게 마련이다. 메뚜기는 여름철이 되면 논두렁과 들판에 퍼져서 제 세상을 만난 듯이 번성한다. 문제는 그 왕성한 활력과 번식도 한여름이 지나면 풀이 꺾여 자생력을 잃고 사라져 버린다. 이와 같은 현상은 메뚜기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써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또 절정기도 오직 한때에 불과할 뿐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사람인 경우 뜻을 이뤘을 때 우쭐해져서 의기양양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한여름철 메뚜기와 다름없는 생애를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뻐꾸기도 유월이 한철이다.", "메뚜기도 유월이 한철이다.", "쉬파리도 여름이 한철이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속담사전(임동권,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미끈유월

정의 음력 6월을 달리 부르는 말. 농사일이 바빠 6월이 미끄러지듯 빨리 지나간다는 뜻이다.

내용 '미끈하다'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미끄러울 정도로 흠이나 거침새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생김새가 보기에 훤칠하고 말쑥하다는 것이다. 미끈(미낀) 6월이라고 한 것은 6월이 농사철이기에 모내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때라는 의미이다. 이 속담은 아무리 농사일을 열심히 해도 해가 짧을 만큼 할 일이 많아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뜻한다. 말하자면 미끄러지듯 6월이 흘러간다는 말이다. 결국 가장 바쁜 농사철이 찾아왔음을 뜻한다. 농사의 전성기를 뜻하는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이라는 속담 역시 미끈유월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농경사회의 문화가 몸에 베여 있는 민족에게 특히 이 시기에는 매사에 바쁘게 움직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그래야 다음 수확을 맞이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새國語辭典(동아국어사전연구회, 동아출판사, 1989),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필자 | 박상규 (朴相圭)

여름비는 잠비, 가을비는 떡비

정의 여름에 비가 오는 날은 잠자기가 좋고, 가을에 비가 오는 날은 잘 먹게 된다는 말.

내용 여름에 비가 오면 일을 쉬게 되고 다른 할 일이 없이 낮잠을 자게 되므로 잠자기 좋고, 가을에 비가 오면 일을 쉬면서 풍성한 수확물로 떡을 해서 먹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 조상들이 계절별로 내리는 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사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속담으로 자연을 해석하는 낙관적인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여름비는 더워야 오고 가을비는 추워야 온다.", 봄에는 식량이 귀해 비 오는 낮에 낮잠을 자지만 가을에는 곡식이 흔해 쉬면서 떡을 해먹을 수 있음을 이르는 "봄비는 잠비요 가을비는 떡비라.", 봄비가 자주 오면 풍년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 부인들 인심이 후해진다는 뜻으로 "봄비가 잦으면 마을 집 지어미 손이 크다.", "가을비는 시아버지의 수염 밑에서도 긋는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韓國俗談集(韓國民俗學會 編, 瑞文堂, 1972),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서문당, 1983), 조선속담집(엄병섭·박용순·김종선·류영걸, 사회과학출판사, 1992).

필자 | 김경섭(金鏡燮)

여름살은 풋살

정의 여름철의 노출 현상을 조롱해서 꼬집을 때 쓰는 속담.

내용 여름철은 무더워서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살을 많이 드러내 놓고 지낸다. 노출을 꺼리던 옛날에는 아무리 무더워도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후미진 곳이 아니면 함부로 옷 앞섶을 열거나 윗도리를 벗고 살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인 경우는 대담해서 대낮에 속옷 바람으로 방바닥에 드러눕거나 등에 물을 부어 열기를 식히게 되므로, 피부의 노출이 어느 때보다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여성도 남성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평소 잘 드러내지 않던 흰 살결을 내보이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래서 옛 분들은 여름살을 풋살이라고 해코지해서 나무랐던 것이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필자 | 고재환(高在奐)

여름 소나기는 밭고랑을 두고 다툰다

정의 여름철 소나기의 불규칙한 속성을 상기시킬 때 쓰는 속담.

내용 여름철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린다. 그런데 내리는 것이 일정치 않아 같은 장소에서도 많이 쏟아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내리거나 전혀 안 내리는 곳도 있다. 밭에 나란히 붙어 있는 고랑인데도 한쪽 고랑에는 내려서 땅이 홍건히 젖지만, 바로 옆에 있는 고랑에는 내리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 이런 현상은 같은 울타리 안에서도 일어난다. 앞마당에는 마구 쏟아지는데, 장독대가 있는 뒤뜰에는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장된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사실 그대로를 실감나게 드러낸 말로써 여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여름 소나기는 콧등을 두고 다툰다.", "오뉴월 소나기는 닫는 말(노루) 한쪽 귀는 젖고 한쪽 귀는 안 젖는다.", "오뉴월 소나기는 말등(소등)을 두고 다툰다.", "오뉴월 소나기는 지척이 천리이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정의 농번기에는 하루라도 놀면 그만큼 농사에 피해가 있다는 뜻. 훗날을 위해 바쁠 때는 한시라도 게을리 하지 말라는 말이다.

내용 한창 일을 해야 할 때 하루 일을 게을리하면 나중에 열 배의 고통이 따를 수도 있음을 경고한 속담이다. 따라서 이 속담은 오늘의 한 가지 일이 앞날의 열 가지 결과를 가져오니 한시라도 게을리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며, 사람이 행동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여름에 먹자고 얼음 뜨기.", "여름에 하루 노는 것이 겨울 열흘 노는 것보다 지루하다."가 있으며, 러시아 속담에도 "여름 하루는 일년을 먹게 한다."가 있다.

참고문헌 | 속담사전(방종현·김사엽 공저, 문성각, 1958),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우리말 속담 큰사전(송재선, 서문당, 1983), 세계속담 대사전(서정수, 한양대출판부, 1988), 조선속담집(엄병섭·박용순·김종선·류영걸, 사회과학출판사, 1992),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필자 | 김경섭(金鏡燮)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아니 앓는다

정의 여름철에 감기를 앓는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혹은 여름 감기는 매우 고약하다는 뜻이다.
내용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여름에 감기 드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됨됨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 그런 사람을 비웃는 데 쓰는 속담이다. 간혹 여름 감기는 개도 조심해야 할 정도로 매우 고약함을 뜻하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감기를 앓는 것보다 여름에 감기에 걸리면 손을 쓰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韓國俗談集(韓國民俗學會 編, 瑞文堂, 1972), 속담풀이사전(한국고전신서 편찬회, 홍신문화사, 1991), 한국의 속담 용례사전(정종진, 태학사, 1993), 우리속담풀이(원영섭, 세창출판사, 2000).
필자 | 김경섭(金鏡燮)

오뉴월 감주 맛 변하듯

정의 오뉴월 단술[甘酒] 맛이 변하듯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혹은 곧 변하여 못쓰게 됨을 뜻한다.
내용 여름에 담근 감주는 맛이 쉽게 변한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는 속담이다. 또는 변하여 못쓰게 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오뉴월에 식혜 변하듯 한다."가 있는데 이는 마음이 몹시 변덕스럽게 변함을 뜻한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우리말 속담 큰사전(송재선, 서문당, 1983), 한국의 속담 용례사전(정종진, 태학사, 1993), 우리속담풀이(원영섭, 세창출판사, 2000).
필자 | 김경섭(金鏡燮)

오뉴월 개팔자

정의 여름철에 개가 그늘에서 낮잠만 자듯 여름에 일없이 잠만 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내용 농부들은 더운 여름에 논밭에서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하는데, 개는 더위를 참지 못하여 그늘에 누워 있다가 낮잠을 자곤 한다. 농부들은 이런 개의 처지가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름철에 일없이 잠만 자는 사람을 빗대어서 "오뉴월 개 팔자"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 큰사전(송재선, 서문당, 1983).
필자 | 최운식(崔雲植)

오뉴월 녹두 깝대기 같다

정의 매우 신경질적이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톡 쏘는 것을 이르는 말.
내용 여름에 잘 익은 녹두 꼬투리를 건드리면 깝대기가 터지고 녹두알이 튀어나온다. 녹두 깝대기처럼 건드리기만 하면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을 빗대어 "오뉴월 녹두 깝대기 같다."라고 한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 큰사전(송재선, 서문당, 1983),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한울아카데미, 1993).
필자 | 최운식(崔雲植)

오뉴월 두룽다리

정의 때와 장소는 물론이고 격에 맞지 않는 것을 나무라서 비꼴 때 쓰는 속담.
내용 두룽다리는 털가죽을 둥글고 길쭉하게 꿰매서 만든 방한용 모자이다. 그 모자를 여름철에 꺼내어 쓰고 다닌다면 정상이 아니다. 몸이 추워 떨리는 병이 있거나 정신 이상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뉴월 여름철에 그 두룽다리를 꺼내 쓰는 것은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이것을 확대해석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격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함으로써, 주위사람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여름에 솜옷, 겨울에 베옷.", "여름 화로, 겨울 부채.", "장날 말좆 지고 간다.", "한더위 털감투."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속담사전(임동권, 민속원, 2002),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오뉴월 땡볕의 바지락 풍년이다

정의 오뉴월의 땡볕에 수온이 오르면 바지락의 생육이 왕성해지고 많이 잡힌다는 뜻.

내용 오뉴월이 되어 바닷물의 수온이 적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지락이 빠르게 번식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특히 칼슘 대사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속의 조갯살이 성장하는 것에 비해 패각(貝殼)이 아주 커져 풍성하게 자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겉으로는 풍성하게 바지락을 잡은 듯이 보여도 그 속은 별로 차 있지 않아 실제로 먹을 것이 별로 없다. 이 속담은 외관상으로는 보기 좋으나 그 실속은 거의 없음을 꼬집는 의미로 흔히 사용된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빛 좋은 개살구."가 있다.

참고문헌 | 漁村俗談集(全羅南道, 1980),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권태효(權泰孝)

오뉴월 배 양반이요, 동지섣달은 뱃놈

정의 뱃사공 노릇은 여름에는 좋지만 겨울에는 고생스러움을 이르는 말.

내용 강 위에 배를 띄워 사람들과 짐을 날라주는 뱃사공은 여름철에는 물 위에서 더운 줄 모르고 지낸다. 오뉴월에 뱃사공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양반놀음이나 다름없지만,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과 날씨로 고생을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속담이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필자 | 최운식(崔雲植)

오뉴월 병아리 하루 볕이 새롭다

정의 짧은 동안에 자라는 정도가 뚜렷함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

내용 음력 오뉴월에는 햇볕이 좋아 동식물이 부쩍부쩍 자라므로, 하루라도 햇볕을 더 쬐면 그만큼 더 자란다는 뜻으로 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오뉴월 볕 하루만 더 쬐어도 낫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필자 | 최운식(崔雲植)

오뉴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정의 여름철 손님 접대의 어려움을 나타낸 속담.

내용 음력 오뉴월은 무더운 여름철인데다 입맛을 돋울 먹거리도 변변치 않아 집안 살림을 맡고 있는 아녀자들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시기이다. 이런 때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더 난처해진다. 마땅히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고 흐트러진 살림살이를 보이게 되니, 흉잡힐 것이 걱정되어 찾아온 손님이 호랑이처럼 두려운 대상으로 느껴지기 십상이다. 그리하여 옛 분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바쁜 농번기나 한여름에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실례로 알고 삼가는 것이 양식 있는 사람의 도리로 알았던 것이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필자 | 고재환(高在奐)

오뉴월 쇠불알 늘어지듯

정의 상기가 없는 무기력한 생태를 빗대어 조롱할 때 쓰는 속담.

내용 뚝심의 상징인 황소도 여름철 무더위에 시달리면 기진해서 불알을 축 늘어뜨린다. 심하면 입까지 벌려 혀를 길게 빼고 침을 흘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쉰다. 황소뿐만이 아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어

서 평상시 행동이 느리고 트릿하거나 무기력해서 굼뜰 때가 있다. 또 생활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쪼들리면 주눅이 들어 칠칠찮게 보인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남 말하기 좋다고 나무라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뉴월 쇠불알이라고 빈정거렸던 것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한여름 엿가락 늘어지듯."이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필자 | 고재환(高在奐)

오뉴월에 똥 도둑도 못 해 먹겠다

정의 사람됨이 모자라고 바보 같은 사람을 이르는 말.

내용 오뉴월 농가는 거름이 한창 부족할 때이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농촌에서는 흔히 남의 집 똥도 서로 져 간다. 그런데 이 일조차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제 집 농사는 이미 다한 셈이다. 이렇듯 행동이 굼뜨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제 아비 아잇적만도 못하다.", "똥물에다 치어 죽이려 해도 똥이 아까워 못 죽이겠다.", "저런 걸 낳지 말고 호박이나 낳았더라면 국이나 끓여 먹지.", "날 적에 봤더라면 도로 몰아넣었겠다.", "나올 적에 봤더라면 짚신짝으로 틀어막을 걸."이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 -改訂版-(李基文, 一潮閣, 1962).
필자 | 신경숙(愼慶淑)

오뉴월 장마는 개똥장마다

정의 오뉴월 장마는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쓸모도 있다는 뜻.

내용 개똥이라 하면 흔하고 하잘 것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똥은 비료가 흔하지 않던 시절 퇴비로써 중요한 구실을 하기도 했다. 개똥망태, 개똥삼태기 같은 말은 바로 하잘 것 없으면서도 동시에 귀한 퇴비 역할을 했던 개똥을 주워 나르던 망태나 삼태기를 일컫는 말이다.

음력 오뉴월은 장마철이다. 이때 오는 비는 흔하기 이를 데 없다. 또 장마인 까닭에 대개는 수해를 가져온다. 이렇듯 오뉴월 장마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인 것이다. 그런데 오뉴월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 농촌은 대개 가뭄에 시달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가뭄 속에 쏟아지는 오뉴월 장맛비는 가뭄이 든 논에 아주 좋은 해갈이 된다. 그런 점에서 오뉴월 장마는 언제나 수해를 일으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농사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하잘 것 없고 종종 피해를 입히는 것일 지라도, 때로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신경숙(愼慶淑)

오뉴월 장마에 토담 무너지듯

정의 오뉴월 장마에 쉽게 무너지는 흙담처럼 힘없이 내려앉음을 이르는 말.

내용 토담은 흙으로만 쌓은 담, 곧 흙담을 말한다. 토담은 비가 내리면 빗물을 흠뻑 흡수하게 마련이다. 오뉴월은 장마철이니 이때 내리는 비의 양은 아주 많다. 따라서 토담이 오뉴월 장마를 만나면, 장맛비를 한껏 흡수하여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게 된다. 이렇듯 쉽게 무너지고 내려앉는 형상을 일컬을 때 쓰는 속담이다.

참고문헌 |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서관, 1993).
필자 | 신경숙(愼慶淑)

유월 발바닥 사흘 뜨거우면 누어서 먹는다 (유월 발창 사흘 지저우민 누엉 먹나)

정의 유월 더위에 부지런히 밭에 나가 곡식을 파종해 두면 한해살이는 걱정 없다는 뜻.

내용 더운 유월에는 조를 파종하여 밭밟기를 해야 하며, 좁씨가 땅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데는 마른 장마인 마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침 곡식을 파종한 때에 장마라도 겹치면 조농사를 그르치게 된다. 한편, 띠왓(때밭)을 일구어 메밀 파종을 해두면 그 해의 곡식 걱정은 덜게 된다.

발창은 발바닥의 제주말이다. 제주도에서는 뜨거운 상태를 '지접다'라고 한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소

와 말을 이끌고 좁씨를 땅에 정착하도록 밭밟기를 해야 하고, 메밀을 파종하기 위해 때를 일구는 때왓농사는 땅을 일구기 위해 우선 따비질을 해야 한다.

덥고 힘들지라도 부지런히 노력하는 근면한 사람은 나중에 안정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이 담긴 속담이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필자 | 좌혜경(左惠景)

유월 보름날은 고양이 코도 따스하다 (유월 보롬날은 고냉이 코도 멘도롱ᄒᆞᆫ다)

정의 음력 유월 보름 무렵이면 고양이도 코를 사타구니에 굳이 파묻을 필요가 없을 만큼 덥다는 뜻. 유월 보름의 심한 무더위를 표현할 때 쓰는 속담이다.

내용 고양이는 따뜻한 것을 좋아해서 온기가 있는 곳을 찾는 습성이 있다. 개와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잠을 잘 때 코를 제 품 속에 묻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는 코를 따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음력 유월은 몹시 무더운 때이므로 고양이도 코를 사타구니에 굳이 파묻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여름 서너 달 가운데 가장 더운 때가 유월 보름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늘 추운 듯이 제 코를 품에 박고 자는 고양이를 적절한 비유로 등장시켰다. 비슷한 제주도 속담으로 "고냉이도 유월 초ᄒᆞ르가 싯나(고양이도 유월 초하루가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담은 누구에게나 하늘이 주는 좋은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쓰기도 하지만 유월의 무더위를 강조할 때도 쓴다.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에게 유월이야말로 제철을 만났다고 할 정도로 무덥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事典(宋在璇, 東文選, 1995), 濟州島俗談辭典(제주도, 1999).
필자 | 조현설(趙顯卨)

유월 장마는 쌀 창고, 칠월 장마는 죽 창고

정의 음력 유월에 지는 장마는 쌀농사에 필요하지만, 음력 칠월에 지는 장마는 해롭다는 뜻.

내용 유월에 드는 장맛비는 늦은 모심기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필요하지만, 벼이삭이 필 무렵인 칠월에 드는 장마는 벼에 크게 해롭다는 것을 '육칠월'과 '쌀죽'의 대조법을 사용해 간명하게 표현하였다. 실제로 가을에 비가 자주 오면 벼가 단단하게 익지 않고 푸석푸석해진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곡우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가물면 흉년이 든다."라는 것이 있다. 절기상 곡우(穀雨) 무렵에는 못자리를 만드는데, 이때 때맞춰 비가 오면 못자리가 잘 되어 풍년이 들지만 가물면 못자리와 모심기가 늦어져 흉년이 든다는 뜻이다. 모두 강수량이 흉풍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논농사와 관련된 속담이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조현설(趙顯卨)

유월 타작은 애기 젖먹이면서 한다

정의 모내기를 끝내고 하는 유월 보리타작은 다소 여유가 있다는 뜻.

내용 옛 농촌에서는 유월을 '미끈유월'이라고 불렀다. 미꾸라지가 '미끈' 손에서 빠져나가듯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한 달이 후딱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다. 농사가 그만큼 바쁘다는 말인데 모내기와 보리베기가 모두 유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밭에 보리를 심는 곳에서는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경상도나 전라도와 같은 이모작(二毛作) 지대에서는 보리를 베자마자 논을 갈아 모내기를 해야 했으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이 시기가 절기상으로는 망종(芒種) 무렵인데, 이 무렵 초여름에 농부들은 보릿고개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땀은 땀대로 흘려야 하니 신세타령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모내기를 끝내고 수확한 보리를 타작할 때가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보릿고개도 끝자락을 보이니 젖을 먹이는 아낙들도 마음이 한결 놓인다.

참고문헌 |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1, 2(최상일, 돌베개, 2002),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 -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조현설(趙顯卨)





生業

생업

김매기는 잡초를 제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포기 사이의 굳어진 겉흙을 부수어
공기가 잘 통하고
수분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갈이 작업인
사이갈이의 기능도 한다.
따라서 김매기는
궁극적으로 작물이
최대 결실을 맺도록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마련해 주는 작업이다.

감자캐기

☞ 감자심기: 봄편

김매기

정의 작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쓸데없는 풀을 없애고 작물 포기 사이의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일. 논이나 밭에 자생하는 불필요한 풀을 기음이라 하고 이를 손이나 연장으로 뽑아버리거나 흙에 묻어 없애는 일을 '김매다'라고 하며, 매는 곳에 따라서 '논매다' 또는 '밭매다'라고 한다.

내용 논과 밭에서 기음(잡초, 잡풀)은 작물에 공급되는 양분을 빼앗고 햇빛과 바람을 막아 작물의 생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작물이 허약해지고 쉽게 병이 들어 수확량이 줄기 때문에 잡초도 가뭄이나 병해충과 같이 작물 재해의 한 가지로 간주하여 방제의 대상이 된다.

김매기는 잡초를 제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포기 사이의 굳어진 겉흙[表土]을 부수어 공기가 잘 통하고 수분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갈이 작업인 사이갈이[中耕, 鬪土]의 기능도 한다. 따라서 김매기는 궁극적으로 작물이 최대 결실을 맺도록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마련해 주는 작업이다.

농경의 기원 이래 인류는 잡초와 끊임없는 투쟁을 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리와 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배작물이 여름 작물이기 때문에 잡초 또한 여름 잡초가 주류를 이룬다. 겨울 잡초는 혹한기가 수반되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크게 번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류도 많지 않아 방제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름잡초는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가 그것들에게 최적의 서식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육이 매우 왕성하고 번식력 또한 강해서 좀처럼 방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예부터 "호미 끝에 자연히 일백 그루의 벼가 생긴다." 하고, "싹이 사람의 노력을 안다." 하여 김매기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였다. 그리고 "상농(上農)은 풀을 보지 않고 김을 매고, 중농(中農)은 풀을 보고야 비로소 김을 매며, 풀을 보고도 김을 매지 않는 것은 하농(下農)이다."라는 속담에서처럼 잡초 방제에서도 예방(豫防)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방법 김매기를 하는 시기, 횟수, 방법은 재배 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조선조의 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說)』과 『색경(穡經)』의 기록을 정리하면, 벼나 조와 같은 화본과 작물은 3~4회 이상 자주하면 좋고, 참깨는 3회, 콩과 팥은 2회, 녹두와 밀, 보리, 삼은 1회가 적당한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콩과 팥은 김매기를 대충하는 것이 좋은데 호미질을 너무 깨끗이 하면 줄기가 상하여 열매가 잘 여물지 않는다고 한다.

논매는 방법에서 『농사직설』과 『색경』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농사직설』에서는 "김매기는 모두 3~4회 하는데, 모가 반 자(15센티미터) 정도 자라면 처음 호미로 매고 마지막 김매기가 끝나고 벼가 익으려 할 때 논물을 빼고 논바닥을 말린다. 벼의 성장은 오직 논매기에 달렸다. 올벼는 성장이 빠르므로 조금이라도 김매기를 늦출 수 없다. 잡초가 생기면 비록 모가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매야만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색경』에서는 "모가 7~8치(21~24센티미터) 정도 자라면 잡초도 함께 자라므로, 이때 낫을 물에 넣어 풀을 베어 버리면 잡초도 시들어서 죽는다. 그리고 6월에는 잡초를 발로 밟아 진흙 속에 묻어 버리면 논이 깔끔하다."라고 하였다. 『색경』에서 호미로 김을 매는 내용이 없이 낫으로 베고 발로 밟는 방법만을 기록한 것은 당시 누구나 사용하는 호미는 생략하고 대신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의 김매기 방법은 제초제 사용이 일반화된 근년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김매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국립민속박물관

얼마 전까지도 농촌에서 시행된 전통적인 논매기 방법은 일년에 서너 번 매는데, 모를 내고 15~20일 지나면 호미로 처음 매고 다시 10~15일 간격으로 맨다. 처음 김매기를 초벌, 두 번째는 두벌, 세 번째는 세벌, 그리고 마지막을 망시라고 한다. 초벌과 두벌매기는 호미로 매고 세벌과 망시는 손으로 잡초만 뽑아내거나 발로 밟는 방법을 쓰는데, 이를 '훔치다'라고 한다. 물론 세 번째 김매기가 마지막이 되면 세벌이라 하지 않고 망시라고 한다.

밭매는 방법은 재배작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밭에서도 호미가 대표적인 연장이지만, 잡초 뿌리나 줄기를 캐고 자르고 묻는 기능 가운데 어느 것이 그 지역에 적당한가에 따라 호미의 모양이 다르다. 또한 밭골이나 땅바닥에 무성한 풀은 밀낫을 사용하면 신속히 뿌리를 잘라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콩이나 조를 심은 밭에서는 극젱이로 땅을 긁으면 고랑 사이에 난 풀을 쉽게 자르거나 묻어 버릴 수 있다. 김매기의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어릴 적에 조와 구분하기 어려운 강아지풀을 구별하기 위해 잎에 붉은 빛이 나는 조를 격년으로 파종하는 방법도 있었다.

연장 잡초를 방제하는 방법에는 잡초를 손이나 연장으로 뽑거나 소각, 침수의 방법으로 죽게 하는 물리적 방제, 잡초가 서식할 공간이 없도록 윤작하거나 피복작물을 재배하고, 잡초를 먹이로 하는 생물(오리, 거위, 우렁이 등)이나 미생물을 천적으로 투입하는 생물적 방제, 제초제와 같은 농약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제가 있다.

물리적 방제에 속하는 김매기는 맨손으로 잡초를 뽑아내거나 발로 밟아 버리는 원시적 방법과 함께 호미, 극젱이, 괭이, 밀낫, 칼자매, 매번지, 중경제초기 같은 연장을 이용하여 잡초를 제거한다.

이들 가운데 호미는 김매기의 가장 대표적인 연장이고, 극젱이는 콩과 같은 일부 밭작물의 제초와 중경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밀낫은 풀뿌리와 줄기 사이를 잘라내는 연장으로 호남 지방에서 주로 사용하였고, 칼자매와 매번지는 북한 지방에서만 사용한 연장으로 극젱이처럼 소에 메어 쓴다. 중경제초기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어 김매기의 수고로움을 줄이는 데 한몫을 하였지만, 제초가 깔끔하게 되지 않는 단점 때문에 호미를 대신하지는 못했다.

호미는 비록 작고 가볍지만 비대칭 역삼각형의 날을 가진 독특한 구조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연장으로,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거나 자르고, 흙을 고르고 일구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지녔다. 외국에도 우리의 호미와 비슷한 연장이 있기는 하지만 비대칭 구조는 우리 호미뿐이다.

우리 호미는 재배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쓰는 지역의 토양과 기후 특성에 따라 그 기능과 모양이 매우 다양하다. 호미는 크게 논호미와 밭호미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논호미가 밭호미보다 날이 크다. 논호미는 재배조건이 같은 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모양이나 기능의 차이가 없지만 밭호미는 매우 다양하다.

밭호미는 논호미처럼 날 끝이 뾰족한 외귀호미와 날끝이 넓은 양귀호미로 구분되고 이 두 호미의 중간 형태도 수없이 많다. 밭호미는 사용하는 지역의 토양과 기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지는데, 비가 많은 곳은 외귀호미를 쓰고, 비가 적은 곳에서는 양귀호미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비가 많은 곳은 풀뿌리가 땅속 깊이 박히기 때문에 끝이 뾰족하고 가벼운 외귀호미가 좋고, 반대로 건조한 지역에서는 뿌리가 얕아 넓은 날로 땅을 긁어만 주어도 풀이 뽑히기 때문에 날이 넓고 무거운 호미를 쓴다.

관련풍속 김매기는 잡초를 방제해야 하는 시기가 고온다습한 여름철이고, 제초작업의 속성상 흐린 날보다는 뙤약볕에서 해야만 효과적인데다가 호미라는 연장이 허리를 크게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야만 일이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농사일이다. 더구나 김매기에는 시기적 제약이 있어서 일시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만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나 논을 맬 때는 마을의 남자들을 모두 동원하여 공동 작업하는 일종의 영농조직인 두레가 조직된다. 그리고 두레로 김매기를 할 때는 일을 쉽고 즐겁게 하기 위해 사물을 갖춘 농악이 따르고, 김매기소리와 같은 농요를 불렀다. 또한 백중 무렵에 마지막 김매기인 망시가 끝나면 힘든 농사일을 마감하고 추수를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지방에 따라 호미걸이, 호미씻이, 풋굿, 백중놀이 같은 민속놀이가 벌어진다. 그러나 논매기와는 달리 밭매기에는 두레가 없고 품앗이 정도만 있다. 밭농사

는 집집마다 재배작물이 다양하고 작업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김매기와 관련된 지역적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사용하는 연장의 종류와 모양, 두레의 구성과 민속놀이 방법이 지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논매기에서 초벌매기를 경기도에서는 애시논맨다, 아시논맨다 하고, 충청도에서는 애벌맨다 하기도 한다. 그리고 두벌은 재벌맨다 하는 곳이 있으며, 전북 김제 지방에서는 세벌매기를 아가씨한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망시를 만두리한다고 한다.

논매기에는 논호미를 쓰는데 호남 지방에서는 쇠스랑처럼 생긴 날을 가진 독특한 모양의 호미를 쓰기도 하고 호미자루를 물 묻은 손이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는 새끼를 감아 쓰기도 한다. 밭에서는 비가 많은 남쪽 지방에서는 작고 가벼운 외귀호미를 쓰고, 비가 적은 북쪽 지방에서는 크고 무거운 양귀호미 계열의 호미를 쓴다. 그리고 같은 외귀호미라도 내륙 지방의 것보다는 남쪽 해안 지방의 것이 더 작고 가벼워서 골갱이로 불리는 제주 호미는 작다 못해 마치 갈고리처럼 생겼다.

한편 중부 지방에서는 논매기를 할 때 마을에서 두레를 짜는데, 이때 두레풍장이 딸리게 된다. 풍장은 농기(農旗), 영기(令旗), 북, 꽹과리, 징, 장고, 호적 따위로 편성하고 마을에서 들로 나가고 들어올 때 길군악을 친다. 김매기 할 때 풍장이 따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북장단에 맞추어 김매기소리를 한다. 영남에서는 두레로 논매는 날이면 동네 남자들이 모두 나와 동과 서, 두 패로 나누어 김매기를 하고 농악도 두 패로 나누어 각기 따라가면서 친다. 김매기를 늦게 마친 편이 술이나 음식을 내고, 김매기가 모두 끝나면 마을 어귀나 쉴 만한 곳에서 한바탕 놀고 새참도 먹는다. 호남에서는 지심매기굿이라는 김매기 농악을 하는데 용기(龍旗)와 영기(令旗)를 마을 입구에 세워 두고 사물을 치며 들로 나가며, 논에서는 개화꽃을 꽂은 패랭이를 쓴 무동 두 사람이 춤사위를 하고, 총각 한 사람이 곤장을 메고 일을 감독하고, 다른 한 사람은 못방고를 쳐서 흥을 돋운다. 나머지 사람들은 김매기소리를 하면서 논을 맨다.

현대의 김매기 최근에는 대부분의 농사에서 김매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김매기를 하지 않게 되어 두레나 민속놀이도 자연히 사라졌다. 김매기를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물론 제초제의 등장과 작물 재배기술이 발달한 때문이다.

밭작물의 경우 처음부터 잡초가 발생하지 못하게 땅에 비닐 필름을 깔고 그 위에서 재배하는 멀칭재배기술이 보급되어 김매기가 전혀 필요 없게 되었다. 멀칭재배는 흙의 수분 증발을 막고 땅의 온도를 높여 작물 생육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제초제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논에서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분해되는 종이 필름을 논바닥에 깔고 그 위에 모내기를 하는 방식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멀칭재배가 어려운 작물은 제초제를 살포하여 잡초를 방제한다. 제초제는 적용 특성에 따라 정해진 잡초만 없애는 선택형 제초제와 그렇지 않은 비선택형 제초제가 있고, 살포 방식에 따라 토양에 살포하여 잡초의 발아를 억제하는 토양처리제와 잡초의 잎과 줄기에 뿌려 말라죽게 하는 경엽처리제가 있다.

참고문헌 | 農事直說, 穡經, 韓國 在來農耕의 地域差(張籌根 외,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學出版部, 1983), 農樂(鄭昺浩, 열화당, 198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재배학범론(조재영 외, 향문사, 2000),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필자 | 박호석(朴虎錫)

담뱃잎따기

☞ 담배심기: 봄편

메밀파종

정의 밭에 메밀[蕎麥, 木麥]의 씨를 심는 일.

내용 마디풀과의 일년생 초본인 메밀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재배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부터 식용해 온 곡물로서 구황작물의 하나였다. 원산지가 동북아시아로 추정되고 있어 중국을 통해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메밀은 서늘하고 축축한 기후를 좋아하고 특히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매가 충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산간 지방에서 많이 재배하였다. 북부 산간 지방에서는 주로 여름메밀을 단작(單作)하고 남부

지방에서는 가을메밀을 밀, 보리, 감자, 삼을 재배한 밭의 후작(後作)으로 재배한다. 그리고 가뭄으로 모내기를 못한 논의 대파(代播)작물로 재배한다.

메밀은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아서 메밀쌀로 만들어 밥을 짓기도 하고, 가루를 내어 국수를 만들어 먹으며 묵, 과자, 만두, 전을 만드는 데도 쓴다. 최근에는 메밀의 열매는 물론 잎과 줄기에서 혈압강하제로 쓰이는 루틴(rutin)을 추출하기도 한다.

내용 재배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메밀은 제때 심는 것이 중요한데, 입추(立秋)가 6월에 있으면 입추 전 3일 이내에, 7월에 있으면 입추 후 3일 이내가 파종 적기이다. 그러나 서리가 일찍 내리는 곳에서는 일찍 파종하는 것이 좋으며 입추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권2 교맥조(蕎麥條)에서 메밀은 갑자, 임신, 신사, 임오, 계미일에 심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메밀은 거친 땅에 재배하는 것이 좋으며, 5월에 땅을 갈아두었다가 풀이 썩기를 기다린 다음 6월에 다시 갈고 파종할 때 한 번 더 간 다음, 종자 한 말에 재거름 한 섬을 섞어서 파종한다. 재가 적으면 재를 종자에 버무리기만 한다. 버무리는 방법은 먼저 외양간 거름을 태워서 재를 만들고 외양간의 오줌을 통에 가득 담아 거기에 메밀 씨를 반나절 가량 담갔다가 건져서 앞서 만들어 놓은 재에 버무린다. 메밀은 비록 메마른 밭이라도 거름을 많이 쓰면 수확이 많고 만약 비옥한 땅이라면 불을 놓아서 갈고 씨를 뿌리면 다른 곳의 2배 이상을 거둘 수 있다.

메밀은 밑동 쪽부터 먼저 익고 다 익은 열매는 잘 떨어지기 때문에 열매의 절반 정도가 검은색을 띠면 곧바로 수확한다. 수확 시기는 중부 지방이 양력 10월 상순이고, 남부 지방은 10일 정도 늦다. 『농사직설(農事直說)』 종교맥조(種蕎麥條)에도 "열매가 절반은 검고 절반이 흰빛일 때 베어 거꾸로 세워 두면 모두 검게 된다."라고 하였다. 메밀은 낫으로 베어 말렸다가 열매가 완전히 건조되면 도리깨나 탈곡기를 이용하여 타작한다.

참고문헌 | 農事直說, 農政新編, 穡經, 增補山林經濟, 作物學概論(趙載英 외, 鄕文社, 1962).

필자 | 박호석 (朴虎錫)

여름바령

☞ 봄바령[糞田]: 봄편

조파종[粟播種]

정의 볏과에 속하는 일년초 작물인 조[粟]를 심는 것.

내용 한반도가 대부분 도작문화권(稻作文化圈)이라면, 제주도는 전작문화권(田作文化圈)에 속한다. 그 까닭은 두 지역의 토양이 썩 다르기 때문이다. 두 지역의 100씨씨 당 토양 무게를 대비할 때 한반도가 130그램이면 제주도는 60그램 안팎이다. 그러니 제주도는 빗물이 땅거죽에 머물지 못하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린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논이 귀하다. 제주도의 논은 전 경지면적 중 1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도는 전작(田作)에서 배수(排水) 걱정이 없으므로 모두 살파(撒播)에 의존하였다. 그러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한국의 농사 속담은 제주도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제주도는 모든 곡물을 뿌릴 뿐 심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조의 파종은 음력 6월 초하루를 전후해서 이루어진다. 조파종은 보리 그루에서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파종 전에 두 차례의 밭갈이가 이루어진다. 이때의 밭갈이를 두고 "보리그루 거시린다."라고 하였다. 두벌갈이가 끝나면, 섬비로 밭을 고른다. 이를 섬비질이라고 한다. 섬비는 나뭇가지로 평평하게 결어 만든 끌개로 이것을 소에 매거나 인력으로 끌며 밭을 고른다. 150평을 기준으로 한 되의 씨앗을 뿌린다. 뿌린 씨앗이 골고루 발아(發芽)하게 잘 뿌려주는 일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모양의 파종을 정씨라고 한다. '정'은 한자어 정(正)에서 비롯하였을 것이다. 씨앗을 뿌린 후 우마(牛馬)를 이용하여 밭을 밟기도 하고, 돌로 만든 돌테와 나무로 만든 낭테를 마소에 매어 끌며 땅 거죽을 밟는다. 이를 밧불림이라 한다. 제주도는 화산토(火山土)이니 잘 밟아주어야 보수력(保水力)이 뛰어나 조의 씨앗이 발아가 잘 된다.

파종하고 20일이 지나면 조의 모종은 5센티미터쯤 자란다. 이즈음에 첫 밭매기가 이루어진다. 조모종은 발아가 잘 된 것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모종이 촘촘히 난 곳의 것을 뽑아다 듬성한 곳에 심고 방을 고른다. 한 조리 폭으로 조 모종의

방(房)을 마련해 준다. 이런 일을 두고 방골름이라 한다. 첫 밭매기의 방골름은 김매는 일도 없진 않으나, 모종의 방을 찾아주는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첫 밭매기를 두고 방골름검질, 거리세움검질이라고 한다. 이후 15일 간격으로 모두 3~4회에 걸쳐 밭매기가 이어진다.

조는 상강(霜降) 전에 거두어들인다. 낫으로 베어 밭에서 말린 다음 집으로 운반한다. 일정한 장소에 눌(가리)을 만들어 저장한다. 틈이 날 때마다 낫으로 이삭을 따서 모아두었다가 연자매 또는 도리깨로 타작한다.

탈곡(脫穀)은 보통 연자매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정도 탈곡이 이루어지면 연자매 돌리기를 멈추고 키로 바람을 일으켜 쭉정이나 겨를 날려 버리기를 반복한다. 탈곡이 덜된 조를 늬골랏다고 한다. 그런 것만 모아 다시 탈곡한다.

참고문헌 |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고광민, 대원사, 2004).
필자 | 고광민(高光敏)

참외수확

☞ 참외파종: 봄편

콩수확

☞ 콩파종: 여름편

팥파종

정의 팥[小豆]의 씨앗을 밭에 심는 일.

내용 콩과의 일년생 초본인 팥은 중국 남부 지방이 원산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재배되어 온 작물이다. 팥의 품종은 줄기가 곧게 서는 보통 팥과 덩굴로 자라는 덩굴팥이 있고, 알곡의 색깔에 따라 붉은팥, 검정팥, 푸른팥, 얼룩팥이 있다.

예부터 팥은 아무 때나 잘 자라서 여름에 여무는 것은 2월 보릿골에 심고, 가을에 여무는 것은 보리를 베고 그 그루 위에 심는다. 3월에 심으면 5월에, 5월에 심으면 7월에, 7월에 심으면 9월에 다 자라지만, 흉년에 양식을 돕지 못하고 소출도 적은 작물로 여겼다. 우리나라에서 팥은 6월에 보리를 베고 파종하는 가을 팥이 주종이다. 팥은 떡, 과자, 빵의 소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밥에 넣어 짓거나 죽을 쑤어 먹는 데에도 쓴다.

예전에는 보리를 심었던 밭에 팥을 심었다. 그러면 재배 시기가 조금 늦어지므로 땅이 넉넉한 집은 지난해 조밭을 그대로 두었다가 팥을 심기도 한다. 팥은 뽕나무 오디가 검붉게 익을 무렵의 비 오는 날을 택하여 파종한다. 팥 파종 방법은 콩 그루갈이와 같이 종자를 보리 그루에 흩어 뿌린 다음 극젱이로 갈아엎는 방법과 호미로 5치 간격으로 심을 곳을 파고 2~3알의 씨를 넣은 다음 흙으로 덮는 방법이 있다. 씨를 많이 넣으면 빽빽하여 결실이 적으므로 적당히 넣고 비옥한 땅에는 드물게 심고 척박한 땅은 조밀하게 심는다.

싹이 나서 잎이 퍼지게 되면 호미로 김을 매고 5~6매의 잎이 나면 한 번 더 김을 맨다. 호미질은 한두 번 대충 해야 한다. 호미질이 깨끗하면 줄기가 상하게 되고 줄기가 상하면 잘 여물지 않는다. 특히 꽃이 필 때는 김매기를 해서는 안 된다. 거름은 인분과 잿거름을 쓰되 많이 넣지 않는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권2 소두조(小豆條)에서 팥 심는 날은 갑자, 을축, 임신, 병자, 무인, 임인일이 좋고 6월 토끼날[卯日]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재배법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밭보리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루갈이가 없을 뿐이다.

수확방법 예전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수확을 하였다. 그리고 깍지가 붉어지고 줄기색이 누렇게 바래면 낫으로 베어 얼루기에 걸쳐 말렸다가 도리깨로 탈곡한다. 요즘은 콩과는 달리 잎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잎과 깍지가 황갈색으로 변하면 수확하는데 한 포기에도 익는 정도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70~80퍼센트 성숙하면 수확한다. 대체로 양력 10월 상순에 낫으로 베어 말렸다가 콩 탈곡기로 한다.

참고문헌 | 農事直說, 農政新編, 穡經, 增補山林經濟, 作物學槪論(조재영 외, 鄕文社, 1989).
필자 | 박호석(朴虎錫)

호박따기

☞ 호박심기: 봄편

고등어잡이

개관 고등어는 운동성이 강한, 농어목의 연안성 물고기이다. 고등어란 이름은 등이 둥글다는 데서 나왔는데 고동어, 고망어, 돔발어라는 방언을 갖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크기를 기준으로 고도리, 열소고도리, 소고도리, 통고도리로 구분한다. 동해의 주요 근거지는 강원도 주문진, 경북 포항, 부산이고, 서해는 황해도 장산곶, 충남 외연도, 전남 신안 흑산도, 남해는 제주도, 전남 완도 청산도, 전남 여수 거문도 근해가 어장이다.

매년 10월부터 남쪽으로 이동해 수심 200~350미터의 깊은 바다에서 월동한 후 봄에 북상한다. 서식 수온은 10~22도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에 떼지어 산다. 산란기와 성어기는 5~7월인데, 알은 물에 떠돌아다니거나 밑으로 가라앉아 50시간 만에 부화한다. 수명은 6~7년으로 새우류, 갑각류, 동물성 프랑크톤을 즐겨 먹고, 멸치 따위의 작은 물고기나 오징어류도 좋아한다. 같은 종류라도 배 쪽에 검은 점이 있는 망치고등어는 맛이 없고, 한 개의 엷은 금색선이 있는 것이 상등품이다.

내용 본격적인 고등어잡이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소개되었다. 지금부터 470년 전 우리 민족은 고등어를 영양식품으로 상식하면서 어업도 경영해 왔다. 이때 후릿그물이나 정치망, 유자망을 사용했을 것이다.

맛은 담백하며 국을 끓이거나 젓을 담글 수 있으나, 회나 어포를 만드는 데는 부적당하다. 추자도 근해에서는 5월에 낚시에 걸리기 시작해서 7월에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가 8~9월에 다시 나타난다. 흑산도 근해에서는 6월에 낚시에 걸리기 시작해서 9월에는 사라진다. 낮에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잡기 어려우며, 또한 맑고 밝은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낮에는 그물을 칠 수 없고 밤에 불을 밝혀서 낚는다. 섬사람에 의하면 건륭경오(1750)에 일대 성어기를 맞이했으나, 가경을축(1805)에 와서는 흉작으로 변했다고 한다.

정약전(丁若銓)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는 주광성, 희명성을 이용하여 횃불을 밝혀 고기를 유인하는 분기망이 주된 어법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어로기술이 발달하고 대형화되면서 두 척의 배가 함께 나가 밑구멍이 뚫어진 그물로 어군을 둘러싸는 건착망으로 발전했다. 정어리처럼 난류성 물고기여서 그물 옆과 위로만 올라가지 밑으로는 빠져나가려 하지 않는 습성을 이용한 어구이다. 고등어가 흔하던 일제강점기에는 건착망 어선 허가장 하나만 가지면 천석꾼보다 부자였다고 한다.

가공법 고등어가 많이 잡힐 때면 염장품이나 통조림, 간유를 만들어 농어촌으로 보낸다. 간고등어는 배에서 바로 소금에 절인 뱃자반을 제일 알아줬으며, 염장 방식에 따라 독간잽이와 얼간잽이 두 종류로 나뉜다. 독간잽이는 큰 독에 소금 한 켜, 고등어 한 켜씩 켜켜이 쌓아 간을 진하게 한 것이다. 살이 발효되어 불그스레한 색을 띠면 쌀뜨물에 담가 소금간을 살짝 뺀다. 그런 다음 아궁이 군불에 석쇠를 얹혀 자글자글 굽는다. 얼간잽이는 간을 삼삼하게

〈고등어잡이〉
1 대형 선망 운반선 고등어 양육
2 고등어 정리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김상수





한 것이다. 물기를 적당하게 맞춰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기술로, 간잽이는 오랜 미립에 의해 감을 잡는다. 내륙지방인 안동의 경우 구한말부터 간고등어가 특산품으로 유행했으며, 한때 30여 곳의 도가가 있을 정도로 염장업이 성행했다.

기타 고등어는 우리 민족과 친숙한 물고기이다. 도시는 물론이고 산간벽지 구석구석까지 널리 소비된 대중식품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등어를 가리켜 '바다의 보리'라고 하였다. 영양가는 높지만 값이 싸 가난한 백성들이 많이 먹는 생선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늦가을에 잡힌 고등어를 일품으로 쳤다. 그래서 "가을 배와 가을 고등어는 며느리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고등어에 들어 있는 DAC(도코사헥사엔산)라는 지방산은 뇌세포를 활성화해 학습효과를 높여준다고 한다. 셀레늄이라는 무기질 성분은 암, 간장질환, 심장병 같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문헌 | 고기잡이 여행(정기태, 바보새, 2004).
필자 | 권삼문(權三文)

노랑쟁이 물에

정의 노랑쟁이를 자유롭게 채취하는 일을 두고 이르는 말. 노랑쟁이는 밭의 거름용 해조류(海藻類)의 이름이다. 학명(學名)은 '*Sargassum ringgoldianum*'이다. 노랑쟁이를 두고 제주도 북서부에서는 지름몸, 남서부 일대에서는 느렁몸이라고 한다. '물에'는 물[水]과 처소격 조사 '에'로 이루어진 말로 '조문'의 반대어이다. 제주도 해녀들이 미역,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를 일정 기간 채취를 금지하였다가 날을 정하여 채취하는 일을 두고 조문 또는 허채(許採)라고 하고, 해녀들이 자유롭게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두고 '물에'라고 한다.

내용 노랑쟁이 물에는 음력 6~7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때가 바로 노랑쟁이가 거의 성숙할 시기이다. 제주도 북동부지역에서는 노랑쟁이를 채취하려는 해녀들 여럿이 동아리를 이룬다. 해녀들은 하늬바람이 부는 날을 골라 부표(浮漂)인 테왁을 짚고 낫을 들고 바다로 나간다. 각자 잠수하여 낫으로 노랑쟁이를 베어 내면, 노랑쟁이는 물 위에 둥둥 뜬다. 노랑쟁이는 바람과 물살에 따라 갯가로 밀려든다. 하늬바람이 잘 불어야 노랑쟁이가 갯가로 잘 몰려든다. 남자들은 그것을 건져내어 지게에 지고 뭍으로 나른다. 그것을 말려 서로 똑같이 나눈다.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에서는 시기와 기연(機緣)이 다른 노랑쟁이 물에가 전승하였다. 제주도 어디에서건 음력 3월 보름 전후에 미역 허채(許採)가 이루어진다. 그때 노랑쟁이는 해녀들이 미역을 따려고 잠수할 때 발이나 몸에 걸리적거려 귀찮은 존재가 된다. 미역 허채에 앞서 해녀들이 잠수하여 노랑쟁이를 낫으로 베어낸다. 노랑쟁이는 물 위에 둥둥 뜨고 하늬바람에 밀려 갯가로 오른다. 그것을 뭍으로 날라다 말려서 서로 나누어 잘 보관하였다가 음력 10월 보리를 파종한 밭에 추비(追肥)로 쓴다. 1970년대 화학비료가 흔해지면서 이런 세시풍속도 자취를 감추었다.

참고문헌 | 바다밭 이야기(고광민, 제주학4, 제주학연구소, 1999).
필자 | 고광민(高光敏)

농어잡이

개관 농어는 농어목 농어과(*Family Moronidae*)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연안, 동중국해, 대만에 걸쳐 분포한다.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는 농어를 깍정이라 하였고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는 걸덕어(乞德魚)라 하였다.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는 농어의 한자식 이름인 노어(鱸魚)를 노응어라고 하였는데 농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농어는 지역에 따라 경남 통영에서는 농에, 부산에서는 까지맥이, 전남에서는 깔다구, 껄떡이로 불린다.

내용 농어의 외형적 특징은 몸은 긴 타원형으로 가늘고 길며 옆으로 납작하다. 두 눈 사이는 약간 솟아올랐고, 콧구멍은 두 쌍이다. 입은 크고 위턱은 아래턱보다 짧으며, 그 뒤끝은 아래쪽에 있다. 양턱에는 매우 작은 이빨이 띠를 형성한다. 가슴지느러미는 몸 중앙보다 약간 배 쪽에 있으며 뒷가장자리가 둥글다. 뒷지느러미는 두 번째 가시가 가장 길고 강하며, 등지느러미 연조부의 중간 아래에서 시작되고 기저의 길이는 매우 짧다. 측선(옆줄)은 몸 중앙보

다 약간 등 쪽에 있으며 꼬리지느러미까지 거의 실직선으로 뻗어 있다. 몸과 머리는 빗비늘로 덮여 있고, 아래턱의 배쪽 면에는 비늘이 없다. 몸의 등쪽은 푸른색을 띠며 측선을 경계로 배쪽은 은백색을 띤다. 어릴 때에는 옆구리와 등지느러미에 작고 검은 점이 많이 흩어져 있으나, 성장함에 따라 검은 점의 수가 적어진다. 등지느러미의 회갈색 바탕에 2~3개 가량의 동공보다 약간 작고 어두운 갈색의 둥근 무늬가 나타난다. 가슴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는 갈색을 띠며 배지느러미의 앞쪽은 약간 어둡지만 뒤쪽은 투명하다. 꼬리지느러미는 어두운 갈색을 띤다.

농어는 봄과 여름에는 먹이 활동을 위하여 내만의 얕은 곳으로 이동하고, 겨울철에는 월동과 산란을 목적으로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어릴 때는 봄에 연안이나 내만에 들어오며 여름에는 내만의 기수 또는 담수역까지 들어왔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바다의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농어의 식성은 체장이 20센티미터 이하로 작을 때는 새우류나 소형 어류를 주로 먹으며, 그 이상 성장하면 어류나 큰 새우를 주로 먹는다. 산란기는 봄철이며, 산란장은 암초지대로써 외양수의 영향을 받는 연안이며 암컷 1마리가 18~22만 개의 알을 낳는다. 부화 후 만 1년이면 체장 26센티미터로 자라서 7년이 지나면 70센티미터까지 자라는데, 최대 크기는 약 1미터까지 성장하는 개체도 있다.

어획방법 농어는 주로 저연승어법(deep longline fishery: 주낙 가운데 낚시를 바닥 가까이까지 내려 저층에 서식하는 어류를 어획하는 어업)의 일종인 주낙으로 잡는다. 농어 주낙은 전남 서부 연안에서는 밀물 때 만조 약 3시간 전에 닻, 부표, 낚싯줄 순으로 던져 놓는다. 그때 낚시가 해저 바닥에 붙어 버리거나 해조류에 의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 5개마다 소형 뜸을, 10개마다 발돌을 모릿줄에 달아서 수심 10~20미터 사이 암초 주변의 펄이나 모래에 던져 놓는다. 주로 4월부터 10월까지 조업이 이루어지는데, 9월과 10월에 어획량이 많다. 어획물 중에서는 농어가 봄철에는 약 40퍼센트, 가을철에는 약 60퍼센트를 차지한다. 5톤급 소형 어선에서 3~4명이 조업을 하는데 해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로 꽃새우, 중하, 밴댕이를 미끼로 사용한다.

인천 영흥, 덕적, 쌍섬 주변에서의 농어 주낙은 수심 약 10~20미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용 어구수, 조업방법, 조업시간은 전남 서부 연안에서와 거의 같으나, 유일한 차이점은 어획물이 거의 농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농어는 함정 어구인 1각망에서도 어획되는데 이 어업은 전남 진도의 연안 수심 10미터 내외인 곳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1


2

〈농어잡이〉
1 개막이그물의 농어
2 각망그물의 농어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김상수

기타 농어는 예부터 우리나라의 명산물로 선조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으며, 세소어업의 중요한 대상이었다. 생선회뿐만 아니라 소금절임, 말려서 먹기도 한다. 농어는 흰살 생선이지만 지방이 많고 비타민A와 D가 풍부하며 각종 필수아미노산도 많이 들어 있고 어린 고기보다는 성어가 될수록 더 맛이 깊어진다. 농어는 인체에 꼭 필요한 타우린과 비타민

B_2가 많이 있어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다. 생선치고는 단백질이 많고 열량도 높다. 생선회를 먹을 때 채소를 곁들여 산성식품을 중화해서 정상적인 혈액이나 체액을 유지하도록 생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서 농어 어획량은 연간 1,500톤 정도이다.

참고문헌 | 蘭湖漁牧志, 雅言覺非, 玆山魚譜, 韓國魚圖譜(鄭文基, 一志社, 1977), 한국연근해 유용어류도감(국립수산과학원, 예문사, 1999),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과학원, 2002), 수산연감 2005(한국수산회, 2005).

필자 | 장창익(張昌翼)

새우잡이

개관 새우는 한자어로 하(鰕, 蝦)라 한다. 『재물보(才物譜)』에서는 인충(鱗蟲), 『물명고(物名攷)』에서는 개충(介蟲), 『전어지(佃漁志)』에서는 무린류(無鱗類)에 속하는 것이라 하였다. 장미류(長尾類)라고도 하는데, 꼬리가 길다는 뜻이 아니라 배가 발달하였다는 뜻이다.

다리가 열 개(다섯 쌍)인 바다에 사는 무리를 십각류(十脚類)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게, 집게, 새우가 포함된다. 십각류는 몸의 형태와 유영형태에 따라 몸이 옆으로 납작하고 헤엄치기에 알맞은 유영류(遊泳類)와 몸이 원기둥 모양이거나 등배쪽으로 납작해서 기어다니기에 알맞은 보행류(步行類)의 두 부류로 나눈다. 새우류는 유영류 전체와 보행류 일부를 포함한다.

새우 화석은 고생대의 데본기에서부터 나타난다. 현재 전 세계에 약 2,50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100여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우는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머리와 가슴은 한 개의 껍데기로 덮여 있으며 배 부분은 일곱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유로이 구부릴 수 있다. 몸은 가늘고 길며 머리 가슴 길이가 몸 길이의 절반 이하이다. 이마 앞부분이 입 앞쪽에 달라붙지 않는다. 배는 크고 좌우대칭이다. 배의 끝부분은 좌우대칭인 꼬리부채를 이룬다. 제4, 5 가슴다리가 퇴화된 것도 있다. 또한 새우와 비슷한 형태인 가재는 새우와 게의 중간형으로 앞의 큰 발은 집게발로 되어 있으며 긴 촉각(더듬이)이 있는 무리를 일컫는다고 표기되어 있다.

새우에 관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식 표기는 보리새우류(Prawn), 생이류(Shrimp), 가재류(Lobster) 세 가지이다. 가재는 형태 및 분류학 위치가 새우와 가까워 같은 무리로 취급한다. 특히 보리새우류와 생이류의 정의는 국제식량기구에서 펴낸 책의 설명과 같이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호주 빅토리아박물관에서 소개한 내용을 근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보리새우류는 생이류와 같은 십각목에 속한다.

〈닻자망새우잡이〉
1 그물 올리기
2 그물에 걸린 새우와 잡어
3 탈망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임자도 심디스마

〈연안새우잡이〉
4 밀대 그물로 바닥 훑기
5 그물 올리기
6 그물에 잡힌 새우
충남 보령군 대천면 심디스마








하지만 보리새우류는 알을 수중에 방란하며 배부분(머리와 꼬리 사이 부분) 첫 번째 마디 껍데기가 두 번째 마디 껍데기를, 두 번째 마디 껍데기가 세 번째 마디 껍데기를 덮고 있는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이류는 알을 배부분에 부착하여 기르다가 새끼새우 상태로 부화시켜 바다로 내보내며, 배부분 두 번째 마디 껍데기가 첫 번째와 세 번째 껍데기를 덮고 있는 형태적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가재류는 집게발의 형태와 껍데기의 두께로 보아 게류에 가까울 것으로 여겨지나, 배부분과 꼬리의 형태적 특징이 새우류에 가까워 새우무리에 속한다. 하지만 육질이 단단하고 배부분이 길어 일반 새우류에 비해 매우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보리새우류 종류에는 거제도 일원에서 많이 잡히는 오도리라 불리는 보리새우, 서해 보령 및 무창포에서 왕새우라 불리는 대하, 중하, 꽃새우와 젓새우가 있다. 생이류 종류에는 동해에서 주로 잡히는 도화새우(붉은새우), 북쪽분홍새우(단새우)와 동해남부와 남해 일원에서 많이 잡히는 자주새우(진흙새우, 보리새우), 서해에서 많이 잡히는 돗대기새우가 있다. 가재류에 속하는 것은 제주도 근해에서 잡히는 펄닭새우, 닭새우, 가시발새우 및 부채새우와 남해안 일대에 잡히는 매미새우가 있다.

새우의 종류는 학술적인 분류 외에도 장사치들이나 어민들의 입으로 전해오는 명칭 또한 다양하다. 왕새우인 대하는 한 마리의 무게가 무려 50그램 정도로 새우 중 가장 크며, 오도리인 보리새우는 한 마리의 값이 무려 4,000원 이상이다. 그 밖에도 김장철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젓새우와 돗대기새우가 있으며 새우 젓갈 중 제일인 청정한 민물에만 서식하여 토하라는 새뱅이가 있다.

내용 새우는 사람의 손으로 잡기에는 너무 빠르고 작아서 그물과 같은 도구를 이용한다. 새우는 종류와 어획 지역에 따라 맛과 이용 방법이 다르며 어획 시기와 방법에 따라 새우잡이의 명칭이 각각이다. 수심이 깊은 동해에는 조석에 관계없이 언제든 배를 타고 나가 어구를 드리워 새우를 잡을 수 있으며,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이 심한 서해에는 물의 흐름을 잘 이용한 새우잡이가 예부터 발달되어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다. 남해 동쪽에서 동해안의 새우잡이 방법이 많이 이용되며, 서쪽에서 서해의 새우잡이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우만을 잡을 수 있는 그물과 어법이 개발되어 새우를 낚시 미끼로 이용하거나 김장철 젓갈로 어민들에게 높은 소득을 안겨준다.

새우잡이 어구는 해역에 따라 특이한 형태로 발달하여 이용되고 있다. 동해의 새우잡이 어업은 수심이 깊어 주로 통발(원형 또는 사각의 형태이며 중간에 청어나 꽁치를 미끼로 끼워 고기 또는 새우를 잡는 어구) 어업이 발달하였으며, 이 밖에도 자루같이 생긴 그물을 전개판으로 펼쳐 바닥을 끌면서 어획하는 저인망 어업을 통해 북쪽분홍새우, 도화새우, 진흙새우, 가시배새우를 잡는다. 남해에서는 새우조망이라 하여 저인망의 그물 형태이지만 그물망 입구에 대나무, 참나무, 플라스틱 파이프, 철재 파이프를 붙여 제작한 어업이 가장 대표적인 새우잡이 어업이다. 새우조망 어업은 그물 입구에 붙인 파이프가 모래바닥이나 진흙바닥을 탁탁 칠 때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새우를 잡는 어업으로 생이 무리와 보리새우 무리를 어획하며 현재 남해안 일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저인망 어업과 유사한 쌍끌이저인망(두 척의 배가 하나의 그물을 전개판 없이 동시에 끄는 어구) 어업과 외끌이저인망(한 척의 배가 자루같이 생긴 그물을 전개판 없이 끄는 어구) 어업으로 대롱수염새우, 꽃새우를 잡는다. 자망은 예전에는 명주실로 이용하였는데 요즘은 낚싯줄로 만들어진 배구 네트 형태의 그물을 한쪽 끝은 추를 부착하여 바닥에 가라앉히고, 다른 한쪽은 부표를 붙여서 띄워 움직이는 고기와 새우류를 잡는 어구인데 이 방법으로 보리새우를 잡는다. 서해에서는 다양한 새우잡이 어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획량 또한 매우 많다. 서해의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주로 남해에서 이용되는 새우조망 어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에서는 물의 흐름에 따라 자루 모양의 그물의 입구를 물의 흐름을 타고 움직여 고기와 새우들을 잡는 낭장망과 주목망 어업은 큰 보리새우 무리들을 어획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하는 주로 자망 어업으로 잡는다. 젓새우와 돗대기새우는 해선망, 주머니얽애그물, 주목망 어업으로 서해 남부 해역에서 많이 잡는다. 해선망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 특히 협수로에서 배를 고정

시키고 수해(뜨게 하는 부분)와 암해(가라앉게 하는 부분)에 자루그물을 설치하여 조류의 흐름에 의해 1일 4회 조업하는 어구이다. 주머니얽애그물은 한 겹의 그물감에 주름을 많이 주어 젓새우들이 주로 얽히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 그물을 넓게 펼쳐 조수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어획하는 어구이다. 무창포와 대천의 해변에 주로 서식하는 새우와 비슷한 형태를 띤 곤쟁이는 밀대그물로 잡는다. 밀대그물은 그물코가 매우 작은 그물을 사용하여 바닥에 붙는 그물 끝에는 추를 달고 그물 양쪽 옆은 대나무나 플라스틱 파이프를 붙여 손잡이로 사용하는 어구이다. 밀대그물 어업은 바닥에 붙은 추가 모래 위를 치면서 곤쟁이를 위로 뜨게 한 후 손잡이를 앞으로 밀면서 잡는 형태이다.

조리법 새우는 활어부터 구이와 젓갈까지 다양한 형태로 먹는다. 활어새우로는 보리새우와 동해에서 잡히는 도화새우, 북쪽분홍새우가 이용되고 있으며, 봄과 가을철에 남해안과 서해 남부 지역에서 보리새우를 먹고, 그 밖의 새우는 사철 동해안의 횟감으로 즐길 수 있다. 구이로는 크기가 큰 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가장 맛있는 것은 대하이다. 대하 외에도 중하, 꽃새우를 서해안에서 맛볼 수 있고, 동해안에서는 진홈새우, 가시배새우를 즐길 수 있으며, 남해안에서는 보리새우, 대롱수염새우를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새우들은 물론 삶아서 먹기도 하지만 제맛을 즐기려면 숯불이나 소금 위에 굽는 것이 좋다.

젓갈로 이용되는 새우로는 젓새우, 돗대기새우, 새뱅이, 곤쟁이가 있다. 젓새우는 어획되는 달에 따라 불리는 이름과 값이 다르다. 동백하젓은 음력 2월에 잡히는 젓새우로 담근 젓갈을 말하며, 희고 깨끗하다. 오젓은 음력 5월에 잡히는 젓새우로 담근 젓으로 어체가 견고하지 못하고 붉은색을 띄며 조리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육젓은 6월에 잡히는 새우로 담근 젓으로 어체가 크고 흰 바탕에 붉은색이 섞여 있고 새우젓 중 최상품에 해당한다. 김장용으로 가장 선호한다. 어젓은 음력 9월에 어획된 새우로 담근다. 9월에 젓새우는 붉은색을 띄며 잡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추젓은 음력 10월에 어획된 젓새우로 담근다. 이때 젓새우는 어체가 연약하고 희다. 젓새우젓은 토굴에서 3개월 정도 숙성해야만 제맛이 난다. 토하젓은 깨끗한 하천이나 논가에 서식하는 새뱅이로 담근 젓을 말하며, 곤쟁이는 해변 모래사장에 서식하는 작은 곤쟁이로 담근 젓을 말한다. 요즘은 김치를 담을 때 젓갈이나 액젓 대신 생새우를 갈아서 많이 쓴다. 또한 서해안에서는 대하나 중하를 통째로 젓갈을 담아먹기도 한다.

참고문헌 | 物名攷, 才物譜, 佃漁志, 한국동식물도감 -새우편-(김훈수, 문교부, 1977), 한국새우류도감(국립수산진흥원, 2001),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과학원, 2002).

필자 | 최정화(崔廷華)

오징어잡이

개관 오징어는 함경북도 연안과 울릉도, 독도 부근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많이 잡힌다. 오징어류는 염분이 높은 곳을 좋아하여 내만에는 오지 않는다. 또 부유생물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밤에 표층으로 많이 올라온다.

내용 오징어는 수직운동이 심해 낮에는 100~200미터 깊이에 있다가 밤이 되면 얕은 수면으로 올라와 소형 어류를 잡아먹는다. 이때 행동이 공격적이면서 불빛에 잘 모이는데 이 습성을 이용하여 채서 낚는 채낚기가 대표적인 어법이다. 옛날에는 대나무에 줄을 묶은 대낚시, 보채의 양쪽 끝에 복합낚시 4~5개를 단 보채낚시가 대부분이었으나, 근래 들어 한 가닥의 줄에 30여 개의 낚시를 단 수동롤러와 자동 조획기가 등장했다.

채낚기는 플라스틱, 나무, 납으로 미끼 모양을 만들어 낚시채에 붙인다. 색채를 넣거나 형광물질을 발라 자연산 미끼처럼 보이도록 하고 집어등으로 어획 효과를 높이는 게 특징이다. 어선들은 1~2킬로와트의 백열등을 수십 개씩 사용하거나 아크 방전식으로 30~130킬로와트 정도까지 밝힌다. 집어등은 배의 가장자리 안쪽에 설치하되, 불빛이 수중에 투과하는 각이 20도 내외가 되게 하여 낚시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조업시간은 해가 진 직후부터 해가 뜰 때까지이며 일몰 직후와 일출 직전에 잘 걸린다.

그 밖에 어군을 탐색한 후 그물을 던져 양망하는 유자망을 사용하거나 수심이 얕은 연안에선 어구를 닻으로 고정시킨 저자망으로도 잡는다. 유자망은 이빨이 강한 오징어가 그물을 절단하는 현상이 잦아 어부들의 손길이 더 바쁘다. 화살오징어라 불리

는 한치는 집어등을 이용하여 어군을 모은 뒤 까래그물, 날개그물, 고기받이로 된 상자형의 채들망으로 잡는다. 잡은 오징어는 덕장에서 동해의 자연바람에 10여 일 말린 뒤 판매했다.

기타 최근에는 비닐하우스에서 건조기를 이용하여 24시간 만에 건조시켜 옛 맛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동해시에서는 매년 9월초 오징어축제를 열고 채낚기 현장체험도 갖는다. 울릉도 부근에서는 저녁때가 되면 등불을 달고 오징어잡이배가 떠난다. 밤이면 섬 부근에 많은 배들이 모여서 불을 켜고 오징어잡이 하는 광경은 또 하나의 구경거리이다. 울릉도에서는 대부분 오징어잡이를 하며 지낸다.

참고문헌 | 조선의 바다(박승국·윤익병, 한국문화사, 1999), 고기잡이 여행(정기태, 바보새, 2004).
필자 | 권삼문(權三文)

새우젓담그기

정의 작은 새우에 소금을 뿌려 젓갈을 담그는 것. 새우젓은 하해(蝦醢), 백하해(白蝦醢), 백하(白蝦)젓, 세하(細蝦)젓이라 하며 줄여서 새젓이라고도 한다.

유래 새우젓 담그기는 대부분 배 위에서 이루어진다. 주요 젓갈 산지는 서해안이며, 전남 신안과 충남 홍성 광천 새우젓이 유명하다.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많이 소비되었으며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새우젓 담그기가 배에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나온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志)』에는 새우 한 되에 소금 넉 되를 넣어 염장한다고 소개했다.

내용 김치 및 다른 식품의 조미용으로 쓰거나 반찬 등 일반식용으로 이용된다. 김치에는 생젓갈 또는 액젓을 쓰며 돼지고기 편육에 곁들여 먹거나 찌개, 나물, 계란찜에 넣는다. 민간에서 돼지고기나 감을 먹고 체했을 때 소화제로 이용되기도 한다.

새우젓을 음력 3~4월에 담그면 춘젓, 5월이면 오젓, 6월이면 육젓, 삼복 이후 9~10월이면 추젓, 11월이면 동젓, 1~2월이면 동백하젓이라 한다. 늦봄부터 초여름에 잡히는 아주 작은 새우로 담근 곤쟁이젓, 초가을에 잡히는 어린 새우로 담근 자하젓[紫鰕醢, 자젓, 감동젓], 9월에 담근 엇젓, 돗대기새우로 담근 돗대기젓(됫대기젓, 뎃데기젓), 중하로 담근 중하젓, 전라도에서 나는 아주 작은 보라색 새우로 담근 고개미젓도 있다. 한편 전남 남부지역에서 11월경 나는 민물새우로 담근 토하젓도 있다. 좋은 새우젓은 육질이 토실토실하고 액즙이 유색으로 맑으면서 풍미가 좋은 것인데 새우의 산란기인 유월에 담근 육젓을 으뜸으로 친다.

담그는 방법 신선한 새우를 바닷물로 씻어낸 후 새우와 소금을 30~40퍼센트 비율로 고루 섞어 지하 저장고나 토굴, 터널 같은 13~20도 되는 음지에서 4~5개월 발효 숙성시킨다. 소금농도는 원료의 선도, 제조 시기, 온도에 따라 조절한다. 자하젓은 상온에서 5~7일간 보관 후 숙성시키며 토하젓은 생토하에 20퍼센트 염도의 소금물을 넣어 2~4주간 숙성시킨다.

참고문헌 | 蘭湖漁牧志, 林園經濟志, 韓國水産志(朝鮮總督府農商工部水産局, 1908~1911), 한국수산물명산품총람(수협중앙회·수협문화사, 2000).
필자 | 정현미(鄭賢美)





〈새우젓 담그기〉
1 젓새우 세척
2 소금에 버무린 젓새우
3 새우젓 위판장
전남 신안군 김상수


農者天下



陽曆歲時

양력 세시

현충일에는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반기(半旗)를 게양하고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묵념을 올려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며
국립현충원·국립묘지·전쟁기념관·독립기념관 등
위령을 모신 곳을 방문하여 헌화한다.
기념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데
서울에서는 국립현충원에서
대통령 이하 정부와 의원들과
국민들이 참석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헌화·분향·헌시 낭송 순으로 진행된다.

6·25사변일(六二五事變日)

정의 매년 6월 25일은 '6·25사변일'이라는 국가기념일이다. 6·25사변일은 1973년 3월에 시행된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정, 주관하고 있다. 그 후 매년 기념행사를 통해 6·25의 의의를 되새기면서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을 강조하고 이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나 정부의 공식기관에서 '6·25사변'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6·25전쟁, 한국전쟁이라고 표현한다. 북한을 국가체로 인정한 후부터는 사변, 동란이라는 말 대신 전쟁이라고 불러 오고 있다. 사변과 전쟁의 차이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사변은 "한 국가 또는 사회 내부에서 권력 및 정통성을 획득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무력 폭력이며, 아방의 주체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불법시하는 경우"에 쓴다. 전쟁은 "국가간(교전단체)에 상호 자국의 의사를 상대국에 강제하기 위한 무력 행사이며, 두 나라 또는 이상이 그들의 평화상태를 끝내고 병력에 의하여 적대행위 또는 적대조치를 취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6·25를 전쟁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아직 6·25전쟁과 한국전쟁의 용어는 통일되지 못하였다. 두 용어의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내란적인 성격에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국제전적인 성격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편이다. 한편 학자에 따라서는 6·25의 용어를 '남북전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6·25가 역사학계에서 역사용어로 제자리를 잡으려면 보다 심도 있는 성격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용 6·25사변일이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도 기념행사는 계속 있어 왔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부터 국방부와 문공부가 주관하여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반공웅변대회, 반공포스터대회, 글짓기대회 같은 것이었는데 이런 대회를 통해 북한의 남침 사실을 성토하고 국민들의 반공 안보의식을 높였다. 기념대회는 각 도시별, 직장별, 학교별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들에게 6·25의 참상과 교훈을 상기시켜 반공정신을 가다듬는 한편, 참전용사와 전몰용사,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명예를 선양한다는 의미가 있다. 1973년부터는 국가기념일로 법제화되어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6·25전쟁은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되어 유



1


2

1 6·25 관련 구호
2 6·25 3주년 기념행렬
국가기록원

엔군의 반격, 중공군의 개입과 후퇴, 그리고 전선의 교착과 휴전이라는 국면을 거치면서 3년 1개월 동안 전개되었으며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전개되었다. 지금까지 6·25전쟁에 관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 중 전쟁의 결과와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은 3년간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38도 분단선을 허물어뜨리지 못하고 다시 휴전선으로 대체하여 재분단되었다. 이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치른 전란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군사작전으로 인한 1차적 피해와 이념투쟁에 의한 2차적 피해가 중첩되었으며, 핵무기를 제외한 최신 살상무기가 좁은 전장에 동원됨으로써 살상력을 더하였다.

인명 피해를 보면 한국군(경찰 포함) 63만 명, 유엔군 55만 명을 포함 119만 명이 전사, 전상, 실종되었고, 북한군 80만 명, 중국군 123만 명, 약 204만 명의 손실이 생겨 군인 피해만도 총 322만 명에 달하였다. 또한 1952년 3월 15일까지 발생한 전재민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 휴전 때까지 이 숫자는 훨씬 늘어났겠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인구의 1/2 이상이 전화(戰禍)를 입었다. 따라서 피해를 입지 않은 가족이 없었으며 전사상자의 혈육과 이산가족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6·25의 연장선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물적 피해도 인명 피해 못지않게 컸다. 부산 교두보를 제외한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37도선과 38도선 사이의 지역에서는 세 차례의 피탈과 탈환이 반복되었다. 남한 제조업은 1949년 대비 42퍼센트가 파괴되었고, 폭격의 피해가 컸던 북한은 1949년 대비 공업의 60퍼센트가 파괴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개인의 가옥과 재산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군사작전에 이용된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및 산업시설이 크게 파손되었고, 군사시설로 전용된 학교, 공공시설도 파괴되어 국민생활의 터전과 사회 경제체제의 기반이 황폐화되었다.

무엇보다 쌍방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거나 남북통일로 승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불안한 휴전상태로 대치하게 되었다. 이는 남북이 하나로 되기는커녕 전쟁 이전 현상으로 회귀한 채 냉전굴레를 벗지 못하고, 그 틀 속에서 분단과 대결을 다시 계획하게 된 불행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휴전은 '군사행동(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의미하는 군사적 조치였다. 휴전(Armistice)은 종전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가교였고, 이에 따라 휴전으로 일단 정전(Cease-fire) 조치를 취하고 휴전체제를 구축한 다음 이를 평화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곧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열어 평화적 해결 방안과 외국군의 철군 등 정치현안을 다루기로 협정하였다.

그러나 정치회담은 회담 참가국과 장소 문제로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좌초되어 본회담은 협상에 명시된 3개월 내에 열리지도 못하였다. 다행히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문제를 다루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 외상회담의 주선으로 1954년 4월 26일 뒤늦게 정치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통일정부 수립 방안에 있어 자유선거 방식과 유엔 감시를 둘러싸고 타협의 자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6월 15일 결렬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쌍방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거나 남북통일로 승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불안한 휴전상태로 계속해서 대치하게 되었다. 휴전협정의 이행관리 및 감독기능이 마비되어 휴전이 언제 열전으로 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전후 우리 민족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인고의 한 세대를 지냈으며, 그것이 곧 복구와 재건의 원동력이 되었다.

특징 6·25전쟁은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성격도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6·25전쟁은 민족전쟁인 동시에 침략전쟁이며 이념전쟁의 성격을 띤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북한정권이 남북한 내부의 민족 갈등 속에서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구상한 데서 비롯되었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 정부를 타도하고 대신 통일된 공산주의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여 개시된 전쟁이었다.

둘째, 6·25전쟁은 기원과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에서 국제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전쟁은 특이하게도 준비, 결정, 개시, 전개 등 모든 과정에서 스탈린의 지도와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특히 유엔군과 중국군이 참전한 후에는 지원의 차원을 넘어 유엔군사령관과 중국군사령관이 남한과 북한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공산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

사하였다는 점에서도 국제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전장이 한반도에 국한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었다. 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침략자를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하고 이에 대응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중국군 등 공산군이 가세함으로써 20개국의 전투부대와 그 밖의 여러 국가의 지원부대가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열전을 벌인 전쟁이었다.

넷째,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핵시대에 치러진 국지전이며 제한전이었다. 군사적으로 당시 미소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였고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였음에도 이의 사용을 억제하였으며 또 유엔군측이 전쟁을 한반도 내에 국한시키고 전쟁 목표를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한다는 데 한정시켰다는 점에서도 제한전의 성격을 띤다.

참고문헌 | 나의 回顧錄(趙炳玉, 民敎社, 1959), 老兵의 恨(金錫源, 育法社, 1977),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신용하 외, 동아일보사, 1987),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연구(서중석, 지식산업사, 1989), 실증자료로 본 한국전쟁(문화공보부, 1990),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한국사회학회, 풀빛, 1992), 이승만과 나라세우기(조선일보, 1995),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 2(박명림, 나남, 1996), 한국전쟁(채한국·정석균·양영조, 국방군사연구소, 1997).
필자 | 양영조(梁寧祚)

현충일(顯忠日)

정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 매년 6월 6일이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유래 및 제도화 예부터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각각 사초(莎草)와 성묘(省墓)를 하고, 6월 6일 망종(芒種)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져 왔다. 또한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將兵)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익고 새롭게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정부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전사자를 포함해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귀신[無祀鬼神]을 모신 제사일에는 망종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1953년 휴전 성립 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전사자를 추모하고 기념하려는 의도에서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도록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충기념일과 6월 25일 한국전쟁을 연계해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함으로써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1970년 1월 9일 국립묘지령 제4510호로 연 1회 현충추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었으며,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내용 현충일의 추모 대상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인데, 제정 당시에는 한국전쟁 전사자에 한정되었다가 1965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092호로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부터 순국선열을 함께 추모하게 되었다. 이는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일제의 잔영을 청산하지 못한 자유당과 민주당 정부의 무능을 공격하고 혁명의 당위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묘지에 순국선열을 모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1997년 4월 27일 국가기념일로 제정, 공포된 순국선열의 날에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충일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를 추모하는 날인만큼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거행하고 있다.

현충일에는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반기(半旗)를 게양하고 아침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며, 국립현충원, 국립묘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위령을 모신 곳을 방문하여 헌화한다. 기념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데, 서울에서는 국립현충원에서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과 국민들이 참석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분향, 헌시 낭송 순으로 진행된다.





1 현충일 기념식
2 현충일 헌화
국가기록원

인접국가사례 미국에서는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데이(Memorial Day)로 정해 전몰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거행한다. 데코레이션데이(Decoration Day)라고도 불리는 전몰자 추도기념일은 1865년 5월 30일 남북전쟁(1861~1865)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추도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사람들도 함께 추도한다. 공휴일로 지정된 이 날은 대부분의 주에서는 5월 마지막 월요일이지만 남부지역의 주에서는 4월 26일, 5월 10일, 6월 3일에 추도식을 거행하는 곳도 있다. 일본에서는 1963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로 정해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1982년 정부가 이 날을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날'로 정의하였다.

참고문헌 | 報勳三十年史(國家報勳處, 1992),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김민환, 韓國學報99, 一志社, 2000), 현충일 추념사의 내용과 상징화 의미분석 1961~1979(김현선, 淸溪論叢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顯忠日의 創出過程 -殉國先烈과 戰歿將兵을 中心으로-(지영임, 比較民俗學 25, 比較民俗學會, 2003).

필자 | 한철호(韓哲昊)

환경의 날(環境-)

정의 매년 6월 5일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

유래 19세기 이후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인구의 폭발적 증가, 그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및 인간에게 미치는 치명적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20세기 중반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 환경회의가 열렸다. 총 113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 257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에서는 '유엔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되었고,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 창설과 유엔환경기금 설치를 합의함으로써 환경 관련 국제기구가 처음 탄생하였다. 이후 유엔환경계획에서는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설정해서 세계 각국 정부와 기구들이 환경보전 행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스톡홀름 선언을 계기로 국제 환경보호를 위한 수많은 국제협약이 채택되었고,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관심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와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계승,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책 때문에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오다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을 근간으로 한 분야별 개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환경법 체제의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1992년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 참가를 계기로 국제적 환경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환경보호를 비롯한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

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본령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후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환경보전 내지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환경의 날 제정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환경보호라는 가치의 인식 증가 및 시민사회의 성장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1996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매년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내용 환경의 날 행사는 크게 기념식과 테마행사로 나뉘는데, 중앙 기념식은 환경부와 민간단체, 경제5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지방은 환경관리청이 환경보전협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계획에 따라 개최한다. 테마행사는 환경보전실천운동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산하기관 및 단체별로 기관 특성을 살린 환경테마를 선정해 환경친화적 행사를 여는데, 환경보전 캠페인과 전시회 같은 홍보행사, 세미나, 심포지움, 토론회 같은 학술행사, 글짓기, 웅변대회 같은 문화행사가 주를 이룬다.

참고문헌 |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김민환, 韓國學報99, 一志社, 2000), 신국제환경법(노명준, 법문사, 2003).
필자 | 이재협(李哉協)

머그데이(Mug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키스데이(Kiss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

정의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오랫동안 단오 무렵을 전후하여 치러온 전통적인 민속축제. 1967년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강릉단오제에는 대관령국사성황신격 내외를 봉안하고 제례와 굿, 탈춤이 벌어진다. 강릉의 옛 지역에는 부족국가시대 동예국이 있었는데 매년 음력 10월이면 무천제가 거행되었다.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추수감사제의 성격으로 행해졌는데, 5월의 축제는 파종 축제로 풍년을 기원하는 기원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강릉단오제는 여름철 명절의 하나인 단오를 기해서 행하지만, 음력 3월부터 5월까지 택일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으로 추강 남효온의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 권5 「유금강산기(游金剛山記)」에 따르면 영동 민속은 매년 3~5월 중에 날을 가려 무당과 함께 바다와 육지에서 나는 음식을 장만하여 3일 동안 산신제를 지내며, 배불리 먹고 즐겁게 보낸 후 장사꾼들은 물건을 사고팔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강릉단오제는 안산 대관령이 신성한 지역이라고 오랫동안 전해 오는데, 강릉 출신 조선조 문인 교산 허균이 쓴 「대령산신찬병서(大嶺山神贊幷書)」에는 1603년경 대관령에 산신당이 있었고, 신라대장군 김유신을 모셨다고 전하였다. 이보다 앞서 고려 초 명주장군 김순식이 왕건을 돕기 위해 대관령을 넘어가면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고려사(高麗史)』에 전한다.

강릉의 향토지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에는 성황신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조선 영조 임오년(1762) 여름 호장 최광진이 성황사에서 국사성황신을 모셨다가 보내는 날 중앙에서 파견된 이규를 맞이하지 못했는데, 그가 성황신을 모욕하는 말을 하자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지역에서 신봉하는 국사성황신의 영험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다. 강릉에서는 『고려사』에서 왕건의 꿈에 승속 2인이 도와주었다는 기록에 의거하여 승려를 대관령국사성황신인 강릉 출신 나말여초(羅末麗初) 승려 범일 국사로 보고 있으며, 속인은 산신으로 추앙된 김유신 장군이라고 믿는다.

조선 후기에도 지속적으로 전승된 강릉단오제는 일제강점기에 미신으로 몰려 중단되는 위기를 맞이하여 기우제만 지내기도 했으며,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생활상태 조사에도 기록되었고, 경성제대에 있던 일본학자 아키바 다까시(秋葉隆)가 1928년 강릉을 답사하면서 기록을 남겼다. 1960년대부터 임동권, 최상수, 임석재 같은 민속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여, 1967년 1월 16일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강릉단오제는 지정문화재행사, 민속놀이행사, 경축문화예술행사로 진행된다. 2005년 6월 9일부터












〈강릉단오제〉
1 단오 체험장 입구
2 단오 체험장
3 수리취떡 만들기 체험
4 민속공연장
5 국사행차
6 신목행차
7 조전제
8 단오별신굿
9 송신제
10 소제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변 안광선

13일까지 열린 행사 내용을 보면, 신주빚기는 5월 12일(음력 4월 5일) 옛 강릉관아인 칠사당에서 있었고, 5월 22일(음 4월 15일) 영신행사로서 대관령산신제, 국사성황제를 지냈다. 그리고 본격적인 축제는 6월 9일(음 5월 3일)부터 영신행차를 비롯하여 남대천변에서 조전제, 단오굿, 관노가면극이 13일까지 행해졌다. 민속행사는 씨름, 그네, 투호, 줄다리기, 사투리경연, 풍물경연대회가 있었고, 단오민속체험행사로 신주미시음회, 수리취떡만들기, 천중부적그리기, 열두띠찍기, 관노탈그리기, 부채그리기, 창포머리감기와 무형문화재 행사로 무속악발표회, 농악경연대회, 학산오독떼기공연, 사천하평답교놀이 공연이 있었다. 이 밖에 경축행사로 장기왕대회, 사진공모전시회, 한시백일장, 학생미술실기대회와 전국남여시조경창대회 같은 50여 개 행사가 거행되었다.

참고문헌 | 惺所覆瓿藁, 秋江先生文集, 江陵端午祭(秋葉隆, 日本民俗學2-5, 1930), 增修臨瀛誌(농택성, 강릉고적보존회, 1933), 江陵端午祭(任東權, 文化財管理局, 1966), 嶺東民俗志(崔喆, 通文館, 1972), 강릉 단오굿(김선풍 외, 悅話堂, 1987), 江陵官奴假面劇硏究(張正龍, 集文堂, 1989), 강릉단오민속여행(장정룡, 斗山, 1998), 江陵端午祭硏究(김선풍 · 김경남 공저, 보고사, 1998), 강릉단오제(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江原道 民俗硏究(張正龍, 국학자료원, 2002), 강릉단오제(장정룡, 집문당, 2003).

필자 | 장정룡(張正龍)

☞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 여름편

경산자인단오 한장군축제 (慶山慈仁端午韓將軍祝祭)

정의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서 매년 단오에 벌이는 지역 축제. 자인면은 원래 자인이라는 고을의 치소(治所)가 있던 읍치(邑治)로 이 축제는 자인고을에서 벌이던 단오축제를 계승하였다. 행사는 계수나무가 우거진 계정숲과 자인면 일원에서 열리며 한장군놀이보존회 주관으로 단오를 전후해서 3일 동안 진행한다.

유래 이 축제의 유래는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인읍지(慈仁邑誌)』에 따르면, "9세기 전후 신라시대에 왜구들이 자인의 도천산(到天山)에 성을 쌓고 기거하면서 주민들을 괴롭히자, 한장군이 그의 누이와 함께 버들못[柳提]에서 여원무(女圓舞)와 배우잡희(俳優雜戱)의 놀이판을 벌여 이들을 유인, 섬멸하였다."라고 한다. 이후 한장군은 자인태수가 되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주민들은 그의 충의를 추앙하여 여러 곳에 사당을 세우고 단오에 추모제를 모신 후 여원무와 배우잡희, 무당굿, 씨름, 그네 등 다양한 놀이를 3~4일 동안 즐겼다고 한다.

이와 같은 축제 전통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승력이 약화되었다가, 1971년 한장군놀이가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면서 한장군문화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 뒤 1991년에 한장군을 추모하는 한묘대제(韓廟大祭), 여원무, 호장굿, 자인팔광대(慈仁八廣大), 무당굿이 펼쳐지는 자인단오제가 되었다가, 1996년부터 경산시의 후원으로 경산자인단오 한장군축제로 명칭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행사는 2005년을 기준으로 보아 크게 본행사와 부대행사로 나뉜다. 본행사는 축제기간 3일 중 둘째 날(단오)에 집중적으로 거행한다. 첫째 날은 원효대사 탄생지인 자인의 제석사에서 원효성사 탄생 다례재를 올리고 시가지 가장행렬인 호장굿을 한다. 가장행렬의 선두에는 장산사명기(獐山司命旗)와 한장군기를 세워 지역의 수호신인 한장군을 추앙한다. 둘째 날에는 진충묘에서 거행하는 한장군제를 시작으로 고적퍼레이드, 창포머리감기, 풍물패축하공연, 경축식, 여원무, 읍면동 씨름대회, 큰굿(무당굿), 계정들소리, 사물놀이, 난타공연, 자인팔광대공연, 계정숲 열린음악회 등의 행사가 벌어진다. 셋째 날에는 무용축제한마당, 초청공연, 치어리더공연, 대학풍물놀이경연대회가 개최된다. 부대행사로는 단오부채나누기, 창포체험, 흙빚기 놀이, 닥종이전시회, 시와 그림의 만남전, 다도시음회, 한장군오누이사진찍기, 한방무료진료, 어린이놀이마당 등이 펼쳐진다. 특히 계정숲 입구에는 대형 그네 2개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그네를 탈 수 있다. 축제행사의 으뜸은 한장군놀이의 여원무와 계정들소리, 자인팔광대 공연이다. 한장군놀이에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여원무를 벌여 왜구를 유인하여 섬멸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계정들소리 공연에서는 지신밟기, 목도, 망깨, 농업노동요 등의 흥겨운 민요가 연행된다. 또한 자인팔광대에서는 양반과 본처, 후처의 갈등을 희극적으로 그려내고, 줄광대와 곱사가 나와서 관중을 즐겁게 한다.







〈경산자인단오 한장군축제〉
1 한장군제
2 한장군묘제
3 여원무
4 무당굿
5 무당굿
경북 경산시 자인면 최호석

의의 이 축제는 강릉단오굿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오축제이다. 비교적 온전하게 전통 축제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참고문헌 | 慶北禮樂誌(嶺南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영남대학교·경상북도, 1989), 자인단오굿(김택규, 比較民俗學13, 比較民俗學會, 1996), 한장군놀이(韓將軍놀이)(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필자 | 한양명(韓陽明)

⇨ 한장군놀이(韓將軍-) : 여름편

법성포단오제(法聖浦端午祭)

정의 세시문화를 소재로 한 민속문화축제. 축제 시기는 음력 5월 5일 단오부터 3일간이고 장소는 숲쟁이공원과 전남 영광 법성포 곳곳에서 열리며 법성포단오보존회가 주최한다.

유래 숲쟁이에서 벌어진 법성포단오제는 법성진(法聖鎭)이 중종 9년(1514)에 설치되고 숲쟁이에 진성(鎭城)이 축조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단오절이 절기적으로 법성포의 파시(波市)와 일치하므로 단오제 또한 파시와 연계하여 개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늘날 법성포단오제의 모습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해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1회 법성포단오제가 열렸는데, 이는 법성단오제전보존회와 법성포청년신의회가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거행한 것으로 단오제, 영광굴비아가씨선발대회가 행사의 중심이 된다. 1990년에는 기간을 하루 더 늘려서 2005년까지 제17회에 이르고 있다.

내용 법성포단오제는 1989년 5월에 처음 시작하여 영광굴비아가씨선발대회와 함께 거행되었다. 전통문화행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나 영광굴비를 홍보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전통문화 재조명에 역점을 두고 개최된 것은 1994년이라 할 수 있다. 법성포단오제의 핵심 내용은 풍어를 기원하는 산신제, 당산제, 용왕제, 국악경연대회, 민속문화행사이다.

1994년도의 행사 내용을 보면 인의제(산신제), 용왕제(칠산풍어제), 당산제, 선유놀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런 제의적인 행사는 본래 단옷날에 거행되지 않았으나, 전통문화를 재조명한다는 명분 때문에







〈법성포단오제〉
1 한제(恨祭) - 행아헌례
2 제석굿
3 제석굿
4 첨작례
5 넋풀이
전남 영광군 법성포 장정식

행사 내용으로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2000년에는 제1회 전국국악경연대회가 개최되면서 과거 법성포단오제가 명창들의 등용문이었던 전통을 되살리고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2005년도 행사 내용은 첫째 날에 전국국악경연대회, 전국연날리기대회, 인의제(산신제), 당산제, 길놀이, 용왕제, 선유놀이, 씻김굿, 연등시가행진이 열리고, 둘째 날에 전국국악경연대회, 사생대회, 열린음악회, 셋째 날에 씨름을 비롯해 민속놀이 경연, 민속놀이 시범 행사가 펼쳐졌다.

참고문헌 | 靈光 法聖鎭城(順天大學校博物館 · 靈光郡, 2001).
필자 | 표인주(表仁柱)

아우내 단오절 민속축제 (- 端午節民俗祝祭)

정의 음력 5월 5일 단오절을 기념하여 충남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 8개 면이 전통민속놀이를 가지고 자웅을 겨루는 행사이므로 흔히 '병천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라고도 한다.

유래 아우내 단오절 민속축제는 1970년대 초반 시장상인들이 옛 아우내 장터의 번영을 되살리고 사라져 가는 우리 민속놀이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오절에 행사를 열자는 의견을 내어 시작되었다. 이에 1974년 천안문화원(현 아우내문화원)에서 천안시청과 전국문화원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아우내 장터에서 제1회 '단오절 그네대회'를 갖게 된 것이 효시가 되었다.

행사 초기에는 2~4년마다 그네대회만 개최하여 오다가, 1984년 제4회 대회부터 행사 명칭을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로 바꾸고, 1990년 제9회 대회부터는 거의 매년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병천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 거북놀이가 재현되었는가 하면 행사 종목도 씨름, 널뛰기, 윷놀이, 그네뛰기로 확대되었다. 1992년에는 팔씨름, 토막뺏기가 추가되고 군민노래자랑과 흥겨운 국악공연이 베풀어졌다. 그 뒤 1995년 시군 통폐합으로 천안시와 천원군이 통합됨에 따라 천원문화원의 명칭을 아우내문화원으로 변경하여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1997년에는 행사 명칭을 '단오절 민속축제'로 바꾸었다.

내용 아우내 단오절 민속축제는 선조들의 슬기와 해학이 깃든 전통민속놀이 경연을 통하여 주민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축제가 열리는 장소는 아우내 장터로, 이곳은 1919년 3·1운동 당시에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한 항일만세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난 역사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부흥을 위한 대규모 줄다리기가 개최된 곳이기도 하다. 행사 참가 범위는 아우내문화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8개 면, 천안시 병천면,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풍세면, 광덕면, 동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며, 일부 민속놀이는 외지인의 참여도 허용된다. 경연 종목은 씨름, 그네뛰기, 팔씨름, 줄다리기, 제기차기, 풍물대회인데, 그네뛰기를 제외한 종목은 남녀 혼성팀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시상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하여 1~4위까지 포상이 주어진다. 그 밖에 부대행사로 시민노래자랑과 국악공연이 이틀에 걸쳐 다채롭게 펼쳐진다.

아우내 단오절 축제는 2003년 단오절까지 제21회를 거듭하는 동안 지역문화의 창달과 계승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다소 시들해지고, 2004년부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2년 동안 중단된 상태이다.

참고문헌 | 천안의 향토축제(천안문화원, 1997), 아우내 단오축제(아우내문화원, 1998), 2002 아우내 민속놀이(아우내문화원, 2002).

필자 | 강성복(姜成福)

옥포대첩기념제전(玉浦大捷紀念祭典)

정의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매년 6월 16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옥포대첩 승전을 기념하여 열리는 축제. 옥포대첩기념제전은 거제시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거제 옥포만에서 일본의 수군을 맞아 최초의 승첩을 거둔 옥포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지역 축제이다.

유래 옥포대첩기념제전은 1963년 6월 27일, 경남 거제시 장승포읍 아주리에 옥포정이 낙성된 날을 기념하여 제1회 옥포대첩 기념제전을 연 것이 그 효시이다. 이후 1990년 파랑포 해변에 옥포대첩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6년 이상의 공사 끝에 1996년 6월 22일 기념관과 옥포루, 기념탑, 참배단, 사당을 건립하게 되었다. 이 날 낙성식과 더불어 제34회 옥포대첩기념제전을 매우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1997년까지는 이 기념제전을 음력 5월 7일에 개최하였으나, 행사일이 농번기와 겹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고 절기상 비가 오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1998년부터는 옥포대첩일인 음력 5월 7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6월 16일에 옥포대첩 기념제전을 열게 되었다. 기념제전은 거제 시민과 내외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행사, 문화예술행사, 민속행사, 초청행사, 기타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내용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는 경남 거제시 일원에서 6월 16일을 전후하여 3일간 열린다. 기념제전을 통하여 충무공의 우국충정을 기리고, 시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한다. 2005년에는 6월 18일~19일 양일간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시내 곳곳에서 열렸다. 모든 행사는 거제문화원이 주관하며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에서 주최한다.

주요 행사는 개막행사, 문화예술행사, 민속행사, 특별행사, 체험마당, 기타 행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5년에는 5개 분야 총 42개 종목의 행사가 열렸다.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막행사로 거제향교와 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제전 첫날 아침에 옥포대첩기념공원 효충사에서 제례봉향을 하고, 이어서 제전위원회의 주관으로 옥포매립지 특설무대에서 각급 기관 단체장과 재외향인, 거제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린다. 이 날 오전 옥포매립지 축구경기장에서는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제전 축하 시범공연이 벌어진다. 제전 기간 중 열리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옥포대첩기념관에서 열리는 임란사료전과 백일장대회, 사생대회, 휘호대회, 옥포대첩기념사진전시회, 각종 연극 및 음악경연대회가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민속행사로는 장승포항에서 풍어기원제와 만선 해상 퍼레이드를 내용으로 한 승첩풍어제가 열린다. 또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체 및 개인 투호대회와 윷놀이대회,

석전대회, 국악한마당, 연날리기를 비롯하여 거제시 민속놀이인 팔랑개어장놀이와 '굴까로가세' 공연이 열린다.

그 밖의 특별행사로 어린이 이순신 및 12수호선녀 선발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선발된 사람은 승전행차 가장행렬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옥포해전에서 첫 승첩을 올리고 행진하는 행렬을 재현한 '옥포대첩 승전행차 가장행렬'이 열린다. 각 지역단체의 문화공연과 노래자랑, 거제시 궁도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남녀 궁도대회 같은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린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마당 행사로는 옥포매립지 체험마당을 중심으로 고색한지공예, 종이공예, 거북선 만들기 행사가 열린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祝祭의 理論과 現場(김선풍 外, 月印, 2000), 巨濟市誌 上卷(巨濟市誌編纂委員會, 2002), 제43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안내문(옥포대첩기념제전 위원회, 2005).
필자 | 류종목(柳鍾穆)

평해남대천단오제(平海南大川端午祭)

정의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에서 해마다 단오를 맞아 벌이는 지역 축제. 이 축제는 평해읍을 거쳐 동해로 흘러가는 남대천변의 체육공원과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데, 평해읍에서 주최하고 평해읍청년회가 주관한다. 축제는 음력 5월 4일 단오 전날부터 시작하여 이틀간 열리고 본격적인 행사는 단오에 집중되어 있다.

유래 현재 평해읍은 울진군에 속해 있지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울진군에 통합되기 전까지는 평해군으로 어엿한 하나의 고을이었다. 이 지역은 추석보다는 단오를 중히 여기는 단오문화권에 속하는 곳으로 평해의 읍치(邑治)에서 벌이는 단오제는 고을 축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평해의 단오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승력을 잃고 점차 사라져 가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평해읍청년회에서 뜻을 모아 다시 시작하였으며 2005년 현재 제22회 단오제가 열렸다. 애초에는 씨름과 그네 같은 놀이 중심으로 소박하게 축제를 벌였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월송큰줄당기기와 기줄당기기 같은 전통놀이와 다양한 연행 종목을 수렴하여 행사 규모가 커지고 있다.

내용 2005년 6월 11일~12일에 걸쳐 열린 단오제 행사는 영상홍보(울진 친환경농업엑스포, 단오제), 시가행진, 제천의례, 개회식, 월송큰줄당기기, 창포머리감기, 길놀이, 특공무술, 리동별윷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기줄당기기, 신라국악예술단공연, 합기도시범, 한터울사물패공연, 한마음잔치, 천연염색체험, 짚공예체험, 장승·솟대만들기, 떡매치기, 농경문화체험, 한지공예전시, 단오관련사진전시, 서예백일장, 지역특산물홍보장, 울진군씨름왕선발대회, 울진군민노래자랑, 무속제(굿), 연날리기, 풍물야시장 등으로 모두 24개 종목이 펼쳐졌다.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 가운데 평해 지역의 전통민속으로 주목되는 것은 월송큰줄당기기와 기줄당기기이다. 월송은 평해읍에 속하는 한 마을로 조선시대에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주둔하는 월송진(越松鎭)이 있었던 곳이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하여도 이 마을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큰줄당기기를 벌였는데 월송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마을 줄의 특징은 각편이 용(암줄)과 범(숫줄)을 상징하는 한편, 암줄의 줄목에는 원삼족두리로 가장한 신부가, 숫줄의 줄목에는 사모관대로 가장한 신랑이 올라탐으로써 두 줄을 결합하여 줄을 당기는 행위가 곧 남녀의 성적 결합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한편 기줄당기기는 바다 생물인 게의 행태를 모방하여 벌이는 줄당기기이다. 기본형은 두 사람의 부녀자가 목에 줄을 걸고 반대 방향으로 엎드린 뒤 앞으로 나아가 끌려가는 쪽이 지는 놀이인데, 놀이의 재미를 위하여 두 사람씩 겨루는 형태와 다섯 사람씩 겨루는 형태로 변화시켜 전승하고 있다.

의의 축제를 주관하는 곳에서는 옛 평해 고을에 전승되어 오던 단오제의 전통을 잇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행사 내용을 보면 줄당기기와 같은 다른 세시의 전통민속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예행사를 포괄함으로써 현대적으로 재창출한 지역 축제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제22회 평해남대천단오제 팜플렛(평해읍청년회, 2005).
필자 | 한양명(韓陽明)

현산문화제(峴山文化祭)

정의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단오를 전후하여 군민 화합과 번영을 위해 열리는 종합형 향토축제.

유래 현산문화제의 시원은 양주성(襄州城)인 양양읍성의 축성을 계기로 그곳에 성황신을 봉안하면서 제사지낸 것에서 비롯된다. 고려 목종 10년(1007), 이 지역에서는 현재의 양양읍 성내리를 중심으로 현산을 주맥으로 한 양주성을 쌓고 외적을 막았다. 당시 남쪽 고지에 성황사를 짓고 부사 또는 현감을 제주로 하여 순국영령을 위무하고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봄과 가을에 택일하여 지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매년 5월 단오를 기하여 장군성황신을 수호신으로 삼고 제를 올리고 굿을 성대히 하였다. 고을 부사가 처음 부임할 때는 반드시 현재의 서문리 양지마을 샘물인 고치물을 마시고 성황신을 참배하였다. 또한 제수를 만들 때도 반드시 고치물을 사용하였는데, 이곳에는 경비병 두 명이 항상 지켰으며, 인근에는 상여까지 못 다니게 하며 부정을 막았다고 주민들은 전한다.

1908년 일제강점기에 전통문화 말살정책에 의한 훈령으로 성황당이 철폐되었다가, 1919년 기미독립만세운동 후 옛날 모습의 세 칸으로 복원하여 매년 단오제 때 성황제를 지내고 남대천변에서 며칠간 별신굿을 하였다. 6·25한국전쟁 당시 제당이 파괴되어 장군성황제는 지속되지 못했는데, 이후에 주민들이 힘을 합쳐 1968년에 새로 성황당을 건립하였고, 1990년 제12회 현산문화제 때 중건하였다. 이곳에는 이 고장의 수호신인 현산성황대신과 화재를 막아주는 용왕신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1979년부터 현산문화제를 이곳에서 시작하여 신을 봉안하여 남대천변으로 옮겼는데, 선두에는 신목과 장군성황신 위패를 봉안하고 양주방어사 행차, 오산리 신석기인 가장행렬 등으로 거리축제마당이 펼쳐진다.

내용 강원도 양양의 향토축제인 현산문화제는 1979년부터 시작되었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열리는 행사로서 제27회 현산문화제가 2005년 6월 17일~18일 이틀간 양양 남대천 둔치, 문화복지회관, 현산공원에서 거행되었다.

행사 내용은 3·1만세운동 및 양주방어사, 대포수 군만호 행차가 재현된다. 먼저 제물을 만들기 위해 양양군수가 고치물제사를 지내는 것을 시작으로 성황제, 성황굿, 별신굿이 열리고, 탁장사놀이, 조산농악, 전통혼례, 굴렁쇠굴리기, 그네뛰기, 널뛰기, 목침뺏기 같은 민속행사가 열린다. 그 밖에도 한시백일장, 시화전, 분재전시, 공예특산품만들기체험, 통배경기, 꽃누르미전시, 양봉꿀전시가 있고, 향토음식 맛자랑 행사도 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 열린다. 먹거리로 향토음식점을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고향의 맛을 보여준다.

현산문화제에는 지역의 민속놀이가 펼쳐지는데 패다리놓기와 귀애파기놀이를 하고, 양양 동구리농요도 부른다. 이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탁장사놀이는 실존인물 설화를 배경으로 놀이화한 것이다. 현산문화제에서는 매년 탁장사뽑기를 하는데 황장목을 지게로 지는 장사힘겨루기가 진행된다. 탁장사는 양양군 서면 송천(소래) 출신의 탁구삼이라 전한다. 조선 말기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당시 전국의 목재를 모았는데, 공물로 바칠 황장목이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 개자니골과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가마골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 당시 강릉에는 연곡에 사는 권장사가 있었고, 양양 탁장사와 서로 경계선에 베어 놓은 황장목을 지고 가기로 했는데, 권장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탁장사가 이것을 지고 서림까지 내려오면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1984년 제2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을 차지하기도 한 탁장사놀이는 탁장사의 후계자를 뽑는 놀이로 황장목을 지게에 올려놓고 멀리 가는 사람을 탁장사로 호칭하고 지게 가마에 태워 축하해 주었다고 한다. 탁장사의 구전설화는 탄생담, 힘자랑, 힘겨루기 설화 등으로 다양하게 구전되고 있다.

참고문헌 | 鄕土誌(襄陽郡 敎育廳, 1968), 鄕土誌(양양문화원, 1976), 양주지(양양군, 1990), 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江陵大學校博物館, 1994), 양양현산문화제의 현황과 확대방안(장정룡, 양양문화원, 1995), 한국의 지역축제(문화체육부, 1996), 양양탁장사 설화연구(장정룡, 江原民俗學13·14, 江原道民俗學會, 1998), 양양군 민속지(장정룡 외, 양양문화원, 2001).

필자 | 장정룡(張正龍)

ㄱ

가락문화제(駕洛文化祭) 105
가례(家禮) 150
가면희(假面戱) 186
가묘(家廟) 170
가야진사(伽倻津祠) 106
가야진용신제(伽倻津龍神祭) 106
가을장마 15
각력(角力) 196
각서(角黍) 24, 134, 152, 171, 299
각저(角觝) 196
각저(角抵) 196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92, 95, 103, 257, 258
261, 262, 268, 378
각희(角戱) 196, 206
간괘(艮卦) 280
간등(看燈) 38, 62
갈꺾기 24
감로수[甘露水] 45
감응굿 145
감자 환갑 219
감자심기 360
감자천신 219
감자캐기 360
감주 24, 46, 295, 354
갑신정변(甲申政變) 103
강강술래 291
강경여자고등학교 262
강령가면극 176
강령탈놀이 176
강령탈춤(康翎-) 176
강릉관노가면극(江陵官奴假面劇) 133, 181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 113, 131, 138, 156
158, 180, 279, 378
강릉지(江陵誌) 139
강릉학산오독떼기(江陵鶴山-) 226
강안전(康安殿) 40
강철이 223
강포(江布) 344
강회 54
개똥장마 279, 330, 356
개역 24
개장국 22, 278, 282, 304, 307, 309, 313
개화(改火) 317
갱신(更新) 223
거름주기 20
거리풀이굿 145
거북선축제(-祝祭) 104, 269
거창삼베일소리(居昌-) 344
거휘리(擧揮罹) 88
건괘(乾卦) 32, 123, 280
건단(乾團) 291, 295, 298, 299, 302
건답직파재배(乾畓直播栽培) 235
건월(乾月) 30, 32, 33
검은콩[蒸黑豆] 24 41, 58
격구(擊毬) 131, 183, 198
격구희(擊毬戱) 183
격몽요결(擊蒙要訣) 152
격봉(擊棒) 183
격오(格五) 335
경국대전(經國大典) 95
경금(庚金) 305
경도잡지(京都雜志) 57, 121, 161, 164, 192, 198, 300, 311
경도희(競渡戱) 131
경령전(景靈殿) 38
경산자인단오 한장군축제(慶山慈仁端午韓將軍祝祭) 380
계관(鷄冠) 27
계두(鷄頭) 27
계삼탕(鷄蔘湯) 307, 308
계음(禊飮) 276, 290, 302
계집의 말은 오뉴월 서리가 온다 351
계추(季秋) 70
계하(季夏) 166, 276, 280, 281, 317, 320
고구마 21, 85, 340
흠정고금도서집성(欽定古今圖書集成) 49
고누 335
고독(蠱毒) 166
고등어잡이 365
고려기(高麗伎) 134, 198
고려사(高麗史) 38, 42, 49, 57, 61, 63, 139, 152, 153
183, 190, 194, 198, 206, 218, 224, 234
276 290, 302, 320, 321, 329, 341, 378
고상안(高尙顔) 152
고수레 328
고슴도치 17
고양이 123, 203, 352, 357

고월(皐月) 123
고유제(告由祭) 117, 272
곡우(穀雨) 30, 66, 67, 70, 114, 315, 357
공물(供物) 223, 385
공민왕(恭愍王) 40, 49, 61, 190, 234
공치기 183
과녁두(瓜綠兜) 334
과일나무시집보내기[嫁樹] 162
과하주(過夏酒) 330, 333
과학의 날(科學-) 92, 96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376
관노가면극 142, 182, 380
관등(觀燈) 30, 35, 38, 55, 62
관등가(觀燈歌) 62
관등놀이(觀燈-) 42, 55, 57, 60
관등절(觀燈節) 42, 62
관례 260
관불회(灌佛會) 44
관상감(觀象監) 121, 160, 161
관어(觀魚) 336, 341
관어대(觀魚臺) 341
관혼상제(冠婚喪祭) 260
관대[花蓋] 139
괴하(槐夏) 30, 32, 33
괴훈(槐薰) 32
구강의 날 95
구괘(姤卦) 123
구망(句芒) 71
구산성황신제 143
구양수(歐陽修) 32
구월(具月) 280, 281
구월(姤月) 123
구장(狗醬) 307, 308, 309, 311
구토월(具土月) 280, 281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224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71, 152, 224, 329
군웅굿 145
군위삼장군제(軍威三將軍祭) 146
굴등놀이 55
굴원 130, 136, 171, 172, 315
궁궁이꽂기[川芎-] 159
권법(拳法) 194, 207
권벽(權擗) 156
권영하(權寧夏) 146
권현망어법(權現網漁法) 244
규곤요람(閨壼要覽) 54, 312
규아상 299, 332
규합총서(閨閤叢書) 172, 307, 309, 330, 334
그네뛰기[鞦韆戱] 22, 58, 122, 135, 184
그루갈이[根耕] 85, 364
근로자의 날(勤勞者-) 256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 206
금봉화(金鳳花) 72
금사화(禁蛇花) 72
금산농바우끄시기(錦山-) 324
급성자(急性子) 72
기곡제(祈穀祭) 49, 71
기로소(耆老所) 132
기미독립만세운동 385
기복신앙(祈福信仰) 51
기선건착망(機船巾着網) 88
기우제(祈雨祭) 21, 22, 70, 107, 120, 218
222, 324, 329, 378
기주떡[起酒餠] 332
기줄당기기 384
기증병(起蒸餠) 332
기지시줄다리기(機池市-) 108
기청제(祈晴祭) 326
기후(氣候) 14, 31, 279
기후점(氣候占) 159
길노래 346
길놀이 106, 178, 188, 193, 200, 203, 226, 272
길성(吉星) 166
길쌈 344
김구(金九) 92
김규식(金奎植) 93
김극기(金克己) 276, 290
김동하(金東夏) 145
김매기 19, 67, 85, 120, 231, 292
303, 320, 321, 328, 360, 364
김명광 114
김석출 114
김수로왕 105
김신묵(金信默) 142
김용(金涌) 156
김용관(金容瓘) 92
김유신(金庾信) 132, 138, 148, 378
김유신사(金庾信祠) 146

김일출 176
김종군(金鍾群) 146
김종직 271
김진덕(金振悳) 142
김해오광대 106
김현감호조(金現感虎條) 53
까마귀울음점 225
깐깐오월 231
깡깡 오월, 미끄덩 유월, 어정 칠월, 건들 팔월 231
깻국탕 308, 312
꽁치잡이 239
꽃창포(Iris ensata Thunb. var. spontanea Nakai) 25
꾀꼬리 3

ㄴ

나례(儺禮) 161, 192
나례희(儺禮戱) 186
나무공[毛毬] 183
나병의 날 95
나부질소리 230
낙안읍성 123, 270
낙안읍성축제(樂安邑城祝祭) 270
낙화놀이 55, 60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 88, 366, 371
남악신(南岳神) 114
남악제례 115
남효원 157
낫치기놀이 336
내각선(內角扇) 131
넙치 21
노동절(May Day) 94, 256
노랑쟁이 물에 366
노승춤 179, 205
노승-취발이춤 178
노장놀이 193
노장춤 189
노적소리 230
녹두(綠豆) 84
논갈이 24, 327
논고사 292
논둑제 326
논매고오는소리 345
논매기 21, 227, 327, 345, 350, 360
논매기소리 21, 346
논멕이기 278
놀탈이 188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67, 212, 277, 303, 314, 343
농바우끄시기 324
농사비 278, 305
농사직설(農事直說) 21, 85, 234, 327, 360
농상의식촬요(農桑衣食撮要) 162
농상집요(農桑輯要) 162
농신제(農神祭) 23, 278, 290, 292
농어잡이 366
농장희(弄杖戱) 183
뇌성(雷聲) 122, 279, 297
느티떡 31, 41, 50, 54
늦모내기에 죽은 중도 꿈적거린다 352

ㄷ

다산집(茶山集) 127
단군신화 171, 218
단선(團扇) 150
단양(端陽) 130, 134, 136, 137, 138
단양수리(端陽-) 134
단오(端午) 22, 120, 130, 226, 272, 276, 299, 301 306, 333, 378, 380, 381, 384, 385
단오고사(端午告祀) 22, 131, 149
단오굿 145, 153, 158, 208, 380
단오문화권(端午文化圈) 158, 384
단오물 잡으면 농사는 다 짓는다 212
단오물[端午雨] 159, 212
단오부적(端午符籍) 160
단오부채[端午扇] 150
단오빔(端午-) 131, 162, 170
단오사(端午使) 157
단오사선(端午賜扇) 150
단오선(端午扇) 150, 152
단오성묘(端午省墓) 152
단오장(端午粧) 132, 161, 168
단오절사(端午節祀) 152
단오제(端午祭) 131, 138, 157, 182, 210, 381, 384, 385

단오진선(端午進扇) 150
단오차례(端午茶禮) 153, 170
단오천신 156
단오첩(端午帖) 131, 153, 156
단종(端宗) 109
단종문화제(端宗文化祭) 31, 109
달점[月占] 123
달팽이놀이 337
닭 잡아먹는 날 24
닭죽 308, 309, 310
담배심기 24
담뱃잎따기 362
담수직파재배(湛水直播栽培) 235
당서(唐書) 317
대관령국사성황신격 378
대관령산신제 139
대금계제(大禁戒祭) 157
대대례(大戴禮) 161
대두(大豆) 84
대마 21, 218
대산대(大山臺) 200
대서(大暑) 19, 25, 276, 282, 284, 320, 321
대추나무시집보내기 162
대쾌도(大快圖) 198, 207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大韓民國臨時政府樹立記念日) 92
대향(大饗) 71
댓부르기 121, 213
더위지기(Artemisia iwayomogi) 25
데코레이션데이(Decoration Day) 377
도리깨질소리 211
도리깨춤 146
도문대작(屠門大嚼) 82, 84
도미잡이 241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記俗詩) 165
독립운동 93
돌복 171
돌실나이 344
돔 21, 242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22, 30, 41, 42, 54, 57, 72, 121
130, 136, 153, 160, 161, 162, 164
165,166, 167, 170, 171, 186, 198
291, 296, 298, 300, 301, 304, 307
308, 312, 317, 333, 334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95, 365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150, 290
동동(動動) 34, 49, 136, 164, 172, 303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 22, 276, 290, 296
동물(動物) 17
동물점(動物占) 225
동백하젓 370, 370
동예국(東濊國) 142, 378
동의보감(東醫寶鑑) 27, 84, 174, 175, 308, 309, 310
동젓 371
동지(冬至) 71, 120, 131, 152, 175, 218, 308
동학농민혁명기념제(東學農民革命記念祭) 123, 270
동해 보역새[洑役事]놀이 46
동해안별신굿 158
두꺼비집짓기놀이 337
두레 20, 320, 343, 361
둑직이제 326
둔괘(遯卦) 280
둔월(遯月) 280
둔촌잡영(遁村雜詠) 290
뒷놀이 178, 200
들놀음 180, 203
들망어법[敷網漁法] 243
등(燈)놀이 55
등간(燈竿) 30, 55, 61, 62
등공양(燈供養) 38
등바루놀이 75
등불써기놀이 76
등석(燈夕) 42, 47, 62
등석시부(燈夕詩賦) 48
등타령(燈打令) 62
뜸부기 18

ㄹ

로즈데이(Rose Day) 269

ㅁ

마당굿 155
마당딱이춤(마당깨끼) 146

마당질소리 211, 349
마보단(馬步壇) 224, 329
마사(馬社) 224
마상격구(馬上擊毬) 183
마야부인 44
마조(馬祖) 224
만기요람(萬機要覽) 151
만두(饅頭) 31, 74, 298, 332, 334
만병해독단(萬病解毒丹) 166
만석승무(曼碩僧舞) 157
만석중놀이 41, 57, 60
만하(晩夏) 280, 281
만함식(滿艦式) 104
말날[午日] 333
말뚝이춤 179
말복(末伏) 16, 24, 83, 277, 281, 292, 304
305, 307, 308, 315, 316
말후(末侯) 67, 218, 320
망예(望瘞) 329
망제(望祭) 71
망종 넘은 보리, 스물 넘은 비바리 217
망종(芒種) 24, 67, 120, 124, 216
217, 219, 237, 357, 376
망종보기(芒種-) 122, 215, 216, 217
맞그네뛰기(쌍그네뛰기) 186
매림(梅林) 124
매복(每伏) 304
매실 124, 125, 174
매우(梅雨) 124, 125
매월(梅月) 124
매자우(梅子雨) 124
매천(梅天) 124, 125
매하(梅夏) 124, 125
매헌(梅軒) 110
매헌문화제(梅軒文化祭) 110
맥량(麥凉) 22, 32, 66
맥추(麥秋) 30, 32, 33, 66, 125
맨드라미(Celosia cristata L.) 27
맹진국 할마님 등국날 44
맹하(孟夏) 30, 33, 66, 67, 70, 231, 281
머그데이(Mug Day) 279, 378
메김소리 76
메나리 77, 212, 227
메뚜기도 여름이 한철 352
메모리얼데이(Memorial Day) 377
메밀[蕎麥, 木麥] 21, 24, 211, 218, 294
301, 349, 357, 362
메밀파종 356, 362
메이데이 256
며느리날 135
멱라수(覓羅水) 130, 136
멸치잡이 242
멸치젓담그기 252
명조(鳴蜩) 34, 125
명종실록(明宗實錄) 198
모내기 20, 31, 67, 120, 160, 190, 203
212, 216, 218, 234, 238, 277, 283
292, 320, 327, 352, 357, 362
모래찜질 278, 306, 313
모시조개 245
모심기 24, 46, 66, 78, 79, 120, 218, 219
229, 231, 234, 320, 346, 357
모심는소리 76, 79, 230
모찌기 78, 237
모찌는소리 78, 237
목민심서(牧民心書) 157
목은선생문집(牧隱先生文集) 290
목중춤 188, 205
못자리고사(-告祀) 31, 70
묘련사(妙蓮寺) 40
묘제(墓祭) 152
무궁화(無窮花, Hibiscus syriacus L.) 27
무당굿 145, 158, 210, 380
무라야마(村山知順) 185, 199
무복(巫服) 171
무상일수(無霜日數) 85
무숙이타령 341
무언극 146, 182
무언인형극(無言人形劇) 57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194
무천제(舞天祭) 142, 378
무형문화재 106, 108, 132, 138, 146, 176, 188, 190
203, 208, 226, 229, 345, 349, 378, 380
문소전제(文昭殿祭) 70
문수법회(文殊法會) 40
문종(文宗) 72, 109, 258
문창범(文昌範) 93
문호장굿(文戶長-) 153, 158

물레소리 344
물맞이 23, 276, 282, 287, 290, 296, 302, 343
물명고(物名攷) 368
물박치기[水缶戱] 30
물장구놀이[水缶戱] 41, 58
물제 222
물총새 18
물푸는소리 347
미끈 유월, 건들 칠월, 서드레 팔월 231
미끈유월 276, 352, 357
미나리 환갑날 135
미나리강회 31, 54
미로단오굿 158
미륵보살회(彌勒菩薩會) 40
미만두 299, 332
미암일기(眉巖日記) 252
미얄영감-미얄할미춤 179
미얄춤 189
미역해경 79
미월(未月) 276, 280, 281
민어탕 278
민요권(民謠圈) 76
밀개떡 294
밀국수 291, 298, 302, 313
밀그스름 217
밀만두 299, 334
밀수제비 24
밀쌈 298, 300
밀양아리랑대축제(密陽-大祝祭) 123, 271
밀전병(-煎餠) 276, 290, 295, 298, 300, 302

ㅂ

바다의 날 257
바지락캐기 245
박가분(朴家粉) 162, 163
박금천 114
박물지(博物誌) 246
박용녀(朴龍女) 142
박정희 96, 104, 265
박제룡 46
반딧불이 57, 216, 280, 286, 321
반빙(頒氷) 326
반선희(半仙戱) 184
반야심경 52
반죽선(斑竹扇) 131
반하(半夏) 218
반화(頒火) 317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105, 268, 378
발명의 날(發明-) 46, 257
밧볼리는소리 349
밧볼리는코ᄉᆞ 328
방렴(防簾) 88
방생(放生) 63
방아깨비놀이 338
방울증편 332
방재의 날(防災-) 258
방천놀이(防川-) 226
밭고사 292, 326
밭밟는소리 349
밭제 277, 290, 292
밭볼리는소리 328, 350
배후리어법[船引網漁法] 243
백마자탕(白麻子湯) 308, 312
백선연(白善淵) 40, 49
백주집(白洲集) 159
백중(伯仲) 190, 196, 203, 276, 295, 296, 306, 315, 361
백첩(白貼) 131, 151
백희(百戱) 48
뱃놀이[船遊] 60, 198, 339, 341
뱅어젓 252
번암집(樊巖集) 157
범일(梵日) 138, 378
범치명(范致明) 213
범패(梵唄) 23, 53
본산대탈춤 186
본초강목(本草綱目) 124, 246
봇물싸움놀이 46
봇제사 46
봉산탈춤(鳳山-) 134, 176, 186, 202, 205
봉선(鳳仙) 72
봉선잡의(奉先雜儀) 152
봉선화(Impatiens balsamina L.) 22, 27, 31, 72
봉선화물들이기[鳳仙花染指] 72
봉수망(捧受網) 240, 247
봉안굿 144, 158

봉안제(奉安祭) 142
봉은사(奉恩寺) 38, 49, 52, 290
봉황(鳳凰) 27, 311
봉황죽(鳳凰竹) 72
부덕쑥 25
부뚜[風蓆] 238
부부의 날(夫婦-) 259
부정굿 114, 142
부처님오신날 43
분(粉) 162
분단(粉團) 298, 299
불설시등공덕경(佛說施燈功德經) 47
불제(祓除) 276, 290
불탄생상(佛誕生像) 45
불탄일(佛誕日) 38, 43, 44, 45
불탄회(佛誕會) 44
붕어죽[鮒魚粥] 309
블랙데이(Black Day) 31, 105
비열(比熱) 282
비염(比炎) 282
비염(沸炎) 282
빈순애(賓順愛) 113, 142
빙고전(氷庫典) 326

ㅅ

사기(史記) 127, 305, 307
사당춤 189
사마주(四馬酒) 333
사마천(司馬遷) 127
사빙(賜氷) 326, 327
사시제(四時祭) 153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 83
사오주(四午酒) 333
사월 달 부지깽이는 땅에 꽂아도 순난다 79
사월 무지개에 곡가(穀價)가 오른다 79
사월 물살 칼 받아 든다 79
사월 초파일 22, 31, 38, 42, 43, 44, 46, 49, 52 54, 55, 57, 59, 60, 61, 62, 63, 106 185, 193, 199, 203, 272
사월 초파일날 굴비 대가리 짓마르듯 63
사월 파일 등(燈)대 감듯 63
4월(四月) 19, 24, 30, 122, 125, 216, 352, 367
사월(巳月) 33
4·19혁명기념일(四一九革命記念日) 31, 96
사자춤 178, 189, 205
사자후(獅子吼) 44
사중월(四仲月) 152
사증(沙蒸) 306
사천(祀天) 71
산가청사(山家淸事) 213
산대(山臺)놀이 180, 190, 200, 203
산대도감(山臺都監) 186, 190
산대희(山臺戱) 186
산림경제(山林經濟) 83, 165, 252, 307, 309
산맥이제 139
산메기 22, 139, 149, 158
산멱이 149
산목란 25
산목련 25
산신굿 145
산신제(山神祭) 22, 114, 115, 138, 378, 381
산유화가(山有花歌) 77, 229
살냉이놀이 339
삼경일(三庚日) 305, 313
삼계탕(蔘鷄湯) 16, 22, 249, 278, 282 287, 304, 309, 313
삼곶소리 344
삼국사기(三國史記) 34, 38, 106, 252, 344
삼국시대 45, 111, 183, 206, 294, 307
삼국유사(三國遺事) 38, 53, 136
삼국지(三國志) 57, 120, 126, 309, 311, 344
삼밭매는소리 344
삼복(三伏) 22, 277, 281, 283, 286, 287, 292 296, 304, 321, 330, 342, 343, 371
삼복더위 16, 249, 277, 313, 321
삼복비[三伏雨] 305, 306
삼복에 비가 오면 보은(報恩) 처자(處子)가 울겠다 315
삼복지간(三伏之間)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316
삼사순례(三寺巡禮) 52
삼삼는소리 344
삼오주(三午酒) 333
삼잎치는소리 344
삼장군당(三將軍堂) 132, 146
삼척기줄다리기 157
삼헌례(三獻禮) 329

상강(霜降) 352, 364
상박(相撲) 196
상애떡 298
상원연등회 47
상음신사(霜陰神祠) 132, 155
상음신사제(霜陰神祠祭) 155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 224
상좌춤 178, 188, 200, 205
상좌춤놀이 193
상촌고(象村稿) 159
상추이슬분바르기 163
상평통보 339
상화(霜花) 74, 298, 300
상화병(霜花餠) 24, 291, 298, 302
새우잡이 368
새우젓담그기 371
새우조망 369
새젓 371
색경(穡經) 83, 360
색동옷 170
샌님, 미얄할미, 포도부장놀이 193
샌님-말뚝이놀이 193
생강재배(生薑栽培) 31, 82
생업(生業) 19
서경(書經) 127, 281, 282, 283, 284
서낭굿 145, 158
서두우(鋤頭雨) 279
서리 340
서월(暑月) 282
서유문(徐有聞) 152
석가모니(釋迦牟尼) 38, 42, 43, 44, 54, 62
석가여래(釋迦如來) 43
석가탄신일 40, 47, 50, 54, 55, 58, 60
석전(石戰) 106, 134, 189
석존(釋尊) 43, 51
석존강탄회(釋尊降誕會) 44
석탄일(釋誕日) 38, 43
선농제향(先農祭享) 111
선농탕(先農湯) 112
선목제(先牧祭) 224
선위대왕(宣威大王) 132, 155
선유(船遊) 341
섣달 그믐날 흰떡 맞듯 한다 315
설기떡 54
설문해자(說文解字) 70
설빔 131, 162
설영굿 145
성년식 260
성년의 날(成年-) 123, 260
성도일(成道日) 38
성불도(成佛圖)놀이 41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138, 139
성염(盛炎) 282
성조굿 145
성주 276, 295, 328
성주동이 395
성탄절 41, 58
성호사설(星湖僿說) 171, 312
성황굿 145, 385
성황당 139, 385
성황제 139, 158, 385
세계보건일 95
세계적십자의 날 95
세시잡기(歲時雜記) 153, 161, 164, 300
세시풍속(歲時風俗) 22
세시풍요(歲時風謠) 131, 213
세조 109, 155, 160
세조실록(世祖實錄) 195
세족(洗足) 314
세존굿 114, 145
세종대왕 탄신일 262
세종실록(世宗實錄) 194, 258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84, 252
소 군둘레 끼우는 날 135, 136
소 시집가는 날 135, 136
소 코뚜레 끼우는 날 135
소두(梳頭) 290, 296
소만(小滿) 24, 30, 66, 67, 120
소매각시 146, 182
소사(小祀) 224, 329
소서(小暑) 24, 25, 120, 124, 217, 219, 249, 276, 280
282, 284, 285, 304, 304, 320, 321, 328, 352
소서 모는 지나가는 행인도 달려든다 352
소서가 넘으면 새 각시도 모심는다 320
소정방(蘇定方) 146
소제(燒祭) 142, 188
소찬(素饌) 55
소홍도(小紅桃) 72

속명루 132, 166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 317
손꽁치잡이 239
송명희 114
송신제(送神祭) 142, 158
송파산대놀이(松坡山臺-) 134, 190
송편 41, 291, 294, 302
쇄미록(鎖尾錄) 252
쇠코 뚫는 날 136
수각아(水角兒) 334
수고(水鼓) 58, 59
수교위[水角兒] 24, 291, 298
수교자(水餃子) 298
수단(水團) 24, 291, 295, 299, 301, 302
수두(水頭) 290, 296, 302
수련(Nympaea tetragona var. angusta Casp.) 26
수뢰(水瀨) 120, 130, 136
수륙재(水陸齋) 40
수리취[戍衣翠] 120, 130, 172
수리취떡 24, 132, 171, 212
수리치떡 136, 171, 173
수릿날 22, 130, 136, 142
수박(手拍) 194, 206
수박(手搏) 134, 194, 206
수박재배 83
수박희(手搏戱) 134, 194, 206
수벽치기 194
수벽타(手擗打) 194
수부(물장구)놀이 41
수부(水缶) 50, 58
수부희(水缶戱) 30, 58
수서(隋書) 131, 309
수수 21, 24, 85, 301
수요절(秀要節) 34
수포악(水匏樂) 58
수희(水戱) 341, 342
숙회(熟膾) 54
순화(鶉火) 125
술의(戌衣) 131, 136, 172
술의일(戌衣日) 132, 172
숭어(崇魚) 74, 231
숭우단(崇雩壇) 71
스승의 날 262
습재집(習齋集) 156
승두선(僧頭扇) 131
시경(詩經) 34, 125, 284, 287
시루떡 23, 70, 291, 294
시시딱딱이 146, 182
시왕풀이굿 155
시의전서(是議全書) 54, 299, 300, 309, 310, 312, 334
시중굿 145
시하(始夏) 30, 33, 34
식목일(植木日) 31, 99
식물(植物) 25
식해법(食醢法) 252
신길자 114
신농씨(神農氏) 293
신당서(新唐書) 224
신돈(辛旽) 50
신석남(申石南) 142
신익희(申翼熙) 93
신장수놀이 193, 200
신주부 침놀이 193
신주빚기 142, 380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72, 87, 155
신할아비와 미얄할미 200
신할애비, 신할미놀이 193
실치잡이 246
심청굿 145
12율(律) 125, 280, 285
12차(次) 125
싸리나무(Lespedeza bicolor TURCZ.) 26
쌈싸는소리 350
씨레시침 327, 330
씨레씻이 23
썩은달 276, 283
쑥[艾] 164
쑥떡 132, 171
쑥호랑이 164
씨름 22, 61, 164, 138, 188, 193, 196, 203, 207, 343
씨름무덤[角抵塚] 196

O

아산 성웅이순신축제(牙山聖雄李舜臣祝祭) 112
아언각비(雅言覺非) 366

아우내 단오절 민속축제(-端午節民俗祝祭) 382
악양풍토기(岳陽風土記) 213
악해독(嶽海瀆) 71
안창호(安昌浩) 93
애사당 북놀이 193, 200
애엽병(艾葉餠) 171
애호(艾虎) 121, 132, 163
액달[厄月] 279, 283
앵도숙(櫻桃熟) 156
앵두정과 156
앵두천신[櫻桃薦新] 156
앵두편[櫻桃片] 156
앵두화채[櫻桃花菜] 24, 132, 156, 173
앵하(鶯夏) 34
야채박록(野菜博錄) 22
약(藥)의 날 95
약쑥베기 164
양반광대 146, 182
양반마당 200
양반-말뚝이춤 178
양반춤 189, 205
양주별산대놀이(楊州別山臺-) 134, 192, 200
양촌집(陽村集) 168
양효(陽爻) 32, 123
어간장(fish sauce) 253
어두선(魚頭扇) 131
어린이날 41, 123, 263
어만두(魚鰻頭) 24, 31, 74
어머니날 264
어버이날 123, 259, 264, 268
어알탕 24, 134, 173
어육장법(魚肉醬法) 253
어장(漁帳) 88
어전(漁箭) 88
어죽(魚粥) 24, 309, 342
어채(魚菜) 24, 31, 74
여름 소나기는 밭고랑을 두고 다툰다 353
여름[夏] 14
여름바령 363
여름비는 잠비, 가을비는 떡비 353
여름살은 풋살 353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353
여아절(女兒節) 137
여원명(呂原明) 153
여원무(女圓舞) 208, 380
여월(余月) 30, 33, 34
역어유해(譯語類解) 184, 246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 22, 134
연꽃[睡蓮] 26, 42, 281
연등(蓮燈) 30, 38, 43, 47, 50, 52, 58, 61, 62, 63
연등공양(燃燈供養) 38, 47
연등놀이(燃燈-) 50, 55, 59, 63
연등도감(燃燈都監) 40
연등설회(燃燈設會) 38
연등일(燃燈日) 43
연등축제 38
연등회(燃燈會) 38, 45, 47, 53, 55, 61, 190
연병(連餠) 24, 291, 295, 300
연복사(演福寺) 40
연산군(燕山君) 50, 84
연상시(延祥詩) 153
연잎, 눈끔적이놀이 193
연잎과 눈끔적이 200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30, 121, 130, 136, 151, 166
167, 171, 299, 309, 317
염열(炎熱) 282, 283
염증(炎蒸) 283
염증두(鹽蒸豆) 54
염지갑(染指甲) 22
염해법(鹽醢法) 253
영감 · 할미광대춤 205
영광굴비 381
영도풍어제(影島豊漁祭) 113
영동산신제 138
영등(影燈)놀이 50, 55, 59, 63
영산단오굿 153
영제 329
영조실록(英祖實錄) 153
영포(嶺布) 344
예기(禮記) 33, 70, 127, 131, 156, 219, 280, 286, 296, 311
예산대(曳山臺) 200
옐로우데이(Yellow Day) 123, 269
오광대 180, 203
오금잠굿 157
오금잠놀이 157
오금잠제(烏金簪祭) 157
오농어 육숭어 사철준치다 231
5농 6숭(五農六崇) 231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아니 앓는다 254
5농 6숭이요, 오륙서에 준 사철이라 231
오뉴월 감주 맛 변하듯 354
오뉴월 개팔자 354
오뉴월 녹두 깝대기 같다 354
오뉴월 두룽다리 354
오뉴월 땡볕의 바지락 풍년이다 355
오뉴월 배 양반이요, 동지섣달은 뱃놈 355
오뉴월 병아리 하루 볕이 새롭다 355
오뉴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355
오뉴월 쇠불알 늘어지듯 355
오뉴월 장마 22, 330, 356
오뉴월 장마는 개똥장마다 356
오뉴월 장마에 토담 무너지듯 356
오뉴월에 똥 도둑도 못 해 먹겠다 356
오독(五毒) 164
오독떼기 226
오례찬실도(五禮攢室圖) 252
오미자화채 173
5월(五月) 24, 120, 293, 326, 363, 365, 370, 378
오월(午月) 120, 125, 175, 217
오월 농부, 팔월 신선 231
오월 단오 안에는 못 먹는 풀이 없다 212
5·16군사정변 97, 256, 265, 268, 376
5·18민주화운동기념일(五一八民主化運動記念日) 265
5월운동 267
오젓 370
오제(五帝) 71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88, 152
오징어잡이 370
오희문 352
옥추단(玉樞丹) 121, 132, 160, 166, 317
옥포대전 기념축제 104
온양문화제(溫陽文化祭) 112
올게심리 295
올베심리 291
옴두꺼비 337
옴중, 먹중놀이 193
완두(豌豆) 84
왕륜사(王輪寺) 40
왕벚나무 116
외각선(外角扇) 131
외그네뛰기 186
요염(燎炎) 282, 284
욕불(浴佛) 44, 45, 61
욕불공덕경(浴佛功德經) 45
욕불기(浴佛器) 42, 44
욕불일(浴佛日) 43, 45
욕불행사(浴佛行事) 42, 43
욕불회(浴佛會) 44, 50
욕수(蓐收) 71
욕화재(浴化齋) 44
용두레 348
용봉탕(龍鳳湯) 310
용신제(龍神祭) 107, 276, 290, 292, 295
용왕제 75, 106, 108, 278, 291, 292, 302
용재총화(慵齋叢話) 121
용제(龍祭) 277, 292
우물고누[格五] 335
우뭇가사리 21, 366
우박(雨雹, hail) 15
우사단(雩祀壇) 71
우요삼잡(右攢三匝) 53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 88
운천집(雲川集) 156
웅산신당(熊山神堂) 72
웅산신당제(熊山神堂祭) 72
웅황주(雄黃酒) 164
원구단(圓丘壇) 71
원구제 71
원추리(Hemerocallis fulva L.) 25
월덕(月德) 166
월복(越伏) 277, 281, 305
월송큰줄당기기 284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138, 378
유두(流頭) 22, 67, 152, 169, 226, 283, 290
285, 292, 295, 296, 297, 303, 306
307, 326, 330, 334
유두고사 278, 292
유두국수 24, 275, 277, 292
유두뢰(流頭雷) 277, 292
유두면(流頭麵) 24, 292, 301
유두물 22, 67, 277, 292
유두에 소 타지 말고 팔월에 타라 303
유두연(流頭宴) 276, 290, 302
유두음(流頭飮) 276, 290, 302
유두잔치[流頭宴] 295, 296, 303
유두제 22, 302

유두천등 277, 297
유두천신(流頭薦新) 24, 297
유두콩 297
유두하네비 277, 297
유두할아버지 24, 297
유등(流燈)놀이 117
유만공(柳晩恭) 131, 213, 304
유빈(蕤賓) 125
유선(油扇) 151
유선희(遊仙戱) 184
유열(榴烈) 126
유열(庾熱) 284
유염(庾炎) 284
6월(六月) 14, 22, 276, 283, 297, 317, 330, 360
유월(流月) 280, 285
유월 농부가 팔월 신선이 된다 231
유월 발바닥 사흘 뜨거우면 누어서 먹는다 356
유월 보름날은 고양이 코도 따스하다 357
유월 보름날 닭 모가지 비틀 듯하다 315
유월 장마는 쌀 창고, 칠월 장마는 죽 창고 357
유월 저승을 지나면 팔월 신선이 돌아온다 231
유월 타작은 애기 젖먹이면서 한다 357
유월스무날 303
유하(維夏) 30, 33, 34, 35, 66
유화(榴花) 126
유화월(榴花月) 126
유희춘 278, 308, 309, 311
육개장 166
육모초(六母草) 47
육바라밀(六波羅蜜) 151
육전조례(六典條例) 370, 371
육젓 370, 371
윤봉길(尹奉吉) 94, 110
은율탈춤(殷栗-) 230
음복례(飮福禮) 112, 329
음식디미방 172, 253, 299, 307, 330, 332, 333
이규경(李圭景) 88, 152
이규보(李奎報) 185
이능화 138
이동녕(李東寧) 92
이동휘(李東輝) 93
이무(李茂) 146
이봉창(李奉昌) 94
이순신(李舜臣) 103, 112, 115, 198, 263, 269, 383
이슬털기 163
이승만(李承晩) 93, 96, 256
이시영(李始榮) 93
이앙법(移秧法) 20, 76, 78, 190, 234
이언적(李彦迪) 152
이윤경(李潤慶) 151
이이(李珥) 152
이지온 157
익모초(益母草, Leonurus sibiricus L.) 25, 120, 132, 164 166, 172, 213
익모초즙(益母草汁) 165, 166
익재집(益齋集) 168
인동(Lonicera japonica Thunb.) 25
인조 151, 186, 192
인종(仁宗) 50
임석재 176, 378
임원경제지(林園經濟誌) 242, 371
임자수탕(荏子水湯) 312
임종월(林鐘月) 280, 285
임진왜란 113, 116, 156, 195, 198, 208 258, 260, 269, 271, 283, 285
임천충혼제(林川忠魂祭) 114
임하필기(林下筆記) 72
입동(立冬) 317
입절일(立節日) 317
입추(立秋) 14, 22, 30, 277, 281, 304 305, 313, 315, 321, 326, 363
입춘(立春) 153, 317
입하(立夏) 14, 30, 133, 66, 67, 317
입하 바람에 씨나락 몰린다 66, 67
입하물에 써레 싣고 나온다 66

ㅈ

자금정(紫金錠) 166
자리돔 248
자리잡이 248
자산어보(玆山魚譜) 87, 89, 241, 242, 246, 249
자연관상점(自然觀象占) 297
자인단오굿 208
자인읍지(慈仁邑誌) 208, 380
자인팔광대(慈仁八廣大) 210, 380

작은단오[小重午] 130, 135
작은보름[小望] 130
잠자리잡기 342
장군성황제 385
장떡 292
장명루(長命縷) 132, 166
장보고 257
장빙고(藏氷庫) 326
장시(杖匙) 183
장애인의 날(障碍人-) 101
장애자(障碍者)의 날 101
장어잡이 249
장자마리 146, 182
장재인(張在仁) 142
장지(長志) 219
장지연전서(張志淵全書) 213
장치기 183, 336
장하(長夏) 280, 281, 285
재물보(才物譜) 195, 206, 242, 368
재시(財施) 51
재양(災陽) 280, 285
재향군인의 날(在鄕軍人-) 268
적벽부(赤壁賦) 342
적전례(籍田禮) 112
전갱이잡이 86
전교자(煎餃子) 298
전어지(佃漁志) 241, 242, 368
전폐례(奠幣禮) 112, 147, 329
절사(節祀) 152
절선(節扇) 150
접선(摺扇) 150
정경궁(廷慶宮) 40
정동유(鄭東愈) 183, 336
정보통신의 날(情報通信-) 280, 281, 285
정송오죽(正松五竹) 195, 206, 242, 368
정약용 51
정약전(丁若銓) 87, 89, 365
정양(正陽) 30, 33, 34
정언횡 157
정조(正朝) 131, 152
정조식(正條植) 235, 347
정종 326
정현(鄭玄) 71
제동서원(濟東書院) 148
제등행렬 53, 55, 58, 60
제민요술(齊民要術) 162, 213
제봉집(霽峰集) 159
제석굿 145
제석할망제 328
제호탕(醍醐湯) 132, 160, 166, 173, 174
조[粟] 363
조규돈(曹圭燉) 142
조당집(祖堂集) 138
조상굿 114, 145
조상단지 291, 295
조상모시기 149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 138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299, 300
조선민족음악전집 78
조선상식(朝鮮常識) 28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0, 44, 150, 190 198, 206, 329, 342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 300, 308
조선요리학(朝鮮料理學) 242
조소앙(趙素昻) 93
조식(早植) 235
조염(早炎) 126
조전제(朝奠祭) 142, 380
조파종[粟播種] 363
종묘대제(宗廟大祭) 72
종성(鍾城) 226
주례(周禮) 70, 224, 252, 311, 317, 329
주양(朱陽) 126
주역(周易) 32, 123, 280
주영편(晝永編) 22, 290
주유(舟遊) 341
주자가례(朱子家禮) 153, 260
주하(朱夏) 126
죽맥(竹麥) 67
죽미일(竹迷日) 213
죽서문화제(竹西文化祭) 158
죽엽주 213
죽추(竹秋) 31, 67
죽취일(竹醉日) 213
준치[鱒魚] 174, 333
준치국 174, 333
줄다리기 108, 210, 383
줄불놀이 23, 57, 59

중광전(重光殿) 38
중려(仲呂) 30, 35
중류(中霤) 317
중마당 200
중복(中伏) 16, 22, 276, 281, 272, 304, 305
307, 308, 312, 313, 315, 316, 321, 352
중사(中祀) 70, 106, 112
중오(重午) 130, 137, 152
중오절(重五節) 130, 137
중요무형문화재 108, 113, 132, 138
176, 188, 190, 208, 345
중종실록(中宗實錄) 88
중하(中夏) 70, 127, 131
중하(仲夏) 120, 127, 219, 224, 281, 296
증교자(蒸餃子) 298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 229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234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74, 252, 309, 333, 363, 364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 138, 378
증염(蒸炎) 285, 286, 287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47
증편(蒸片) 332
증편[蒸餠] 334
증흑두(蒸黑豆) 54
지갑화(指甲花) 72
지리산남악제(智異山南岳祭) 31, 114
지리산약수제 114
지봉유설(芝峰類說) 172
지상격구[步擊毬] 183
지심매기굿 362
진남제 269
진어(眞魚) 333
진해군항제(鎭海軍港祭) 31, 115
찔레꽃(Rosa multiflora Thunb.) 25

ㅊ

차륜병(車輪餠) 171
차사(茶祀) 152
차월(且月) 280, 285, 286
차형원(車亨元) 145
참깨 21, 161, 312, 360
참나리(Lilium lancifolium Thunb.) 26
참외밭고사 292, 329
참외서리 294, 340
참외수확 364
참외제 292
창포(菖蒲) 25, 122, 127, 132, 159, 161, 164
167, 168, 170, 172, 175, 210, 212
창포물에 머리감기 22
창포비녀[菖蒲簪] 22, 132, 159, 160, 167
창포주(菖蒲酒) 127, 134, 168, 175
창포탕(菖蒲湯) 132, 161, 168
채송화(菜松花, Portulaca grandiflora Hooker) 27
채제공(蔡濟恭) 157
처서(處暑) 296, 304, 305, 315
척주지(陟州誌) 157
천궁꽃기(川芎-) 159, 170
천둥소리 277, 292, 297, 302
천렵(川獵) 22, 278, 343
천신(薦新) 293, 295, 300
천신제(薦新祭) 276
천왕굿 145
천왕호장굿 155
천중부적(天中符籍) 22, 160, 170
천중절(天中節) 121, 127, 130, 134, 137
철변두(徹邊豆) 329
청단놀음 211
청어잡이(靑魚-) 87
청화절(淸和節) 35
초복(初伏) 16, 22, 156, 276, 281, 292, 304
305, 307, 308, 313, 315, 316
초복날 소나기는 한 고방의 구슬보다 낫다 316
초파일[初八日] 23, 30, 38, 106, 171, 176, 185
193, 199, 200, 203, 272, 333
초파일불공[初八日佛供] 50
초파일에 물 담으면 농사 망한다 63
초파일연등 40
초하(初夏) 30, 33, 34, 35, 66, 281
초후(初候) 67, 320, 321
최상수 178, 378
최식(崔寔) 156
최이(崔怡) 42, 49, 185
최재형(崔在亨) 93
최치원 45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 138

추독단(追毒丹) 166, 170
추분(秋分) 14
추석빔 131
추재집(秋齋集) 168
추젓 253, 370
추천희(鞦韆戱) 184, 205
축융(祝融) 71
춘젓 253, 371
춘첩자(春帖子) 153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70
춘추좌전(春秋左傳) 70
춘향대제 106
춘향제(春香祭) 123, 272
충렬사(忠烈祠) 103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 103
충무공탄신일(忠武公誕辰日) 103, 263
충제(蟲祭) 24, 292, 329
취발이놀이 193
측우기(測雨器) 258
치염(熾炎) 285, 286, 287
치우부적(蚩尤符籍) 132, 160, 170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清規) 45
칠사(七祀) 317
칠사당 142, 380
칠석(七夕) 166, 292, 296, 307
칠석고사 292
칭칭이소리 345
7월 늦모는 원님도 말에서 내려 심어 주고 간다 321
칠첩(漆貼) 131, 151
칭칭이소리 345

ㅋ

콩 15, 21, 41, 54, 84, 120, 211, 291
295, 301, 302, 312, 320, 340, 360, 364
콩국수 312
콩수확 364
콩파종 31, 84
키스데이(Kiss Day) 279, 378

ㅌ

타구(打毬) 183
타권(打拳) 206
타맥요(打麥謠) 211
탁견(卓見) 206
탁족(濯足) 22, 278, 314, 316, 343
탄생불(誕生佛) 42, 44, 50
탈곡(脫穀) 85, 237, 364
탈춤 22, 134, 139, 176, 186, 190, 203
탑돌이(塔-) 22, 41, 52
태견 206
태백산신(太白山神) 157
태을자금단(太乙紫金丹) 166
태종실록(太宗實錄) 160, 190, 194
태종우(太宗雨) 23, 122, 225
태촌집(泰村集) 152
태평고(太平鼓) 58
택견 195, 206
터주가리 294
테우리 328, 349
토왕일(土旺日) 317
토용(土用) 321
톳채취 89
투골초(透骨草) 22

ㅍ

파강회 24, 54, 55
파일놀이[八日-] 55, 60
팔관회(八關會) 38, 62, 170
팔먹중 곤장놀이 193
팔목중놀이 200
8사(八蜡) 326
팔일장(八日粧) 55, 60
팥[小豆] 84, 364
팥죽 277, 304, 307, 308, 313
팥파종 364
패랭이꽃(Dianthus chinensis L.) 26
편수(片水) 24, 299, 302, 334
평해남대천단오제(平海南大川端午祭) 279, 384

포박자(抱朴子) 160
포신(酺神) 329
포월(蒲月) 120, 127
포은선생문집(圃隱先生文集) 168
포제(酺祭) 329
풍괘(風卦) 123
풍뎅이놀리기 344
풍류세시기(風流歲時記) 168
풍어굿 139, 269
풍어제 113, 269
풍운뇌우(風雲雷雨) 71
필모떡 327

ㅎ

하동문화제(河東文化祭) 31, 117
하마비(下馬碑) 148
하삭음(河朔飮) 315
하선동력(夏扇冬曆) 22
하소정(夏小正) 132
하오(夏五) 127
하장동저(夏醬冬菹) 22
하지(夏至) 14, 21, 120, 216, 217, 219, 281, 305, 320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 219
하지점(夏至點) 218, 219
학산성황제 143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248, 371
한국어도보(韓國魚圖譜) 87
한림별곡(翰林別曲) 185
한묘대제(韓廟大祭) 380
한산대첩기념제 104
한식(寒食) 38, 100, 109, 152, 185, 376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 42, 59
한장군놀이(韓將軍-) 134, 208, 380
한정록(閑情錄) 83
할마님등국날 44
할미마당 200
함박꽃나무(Magnolia sieboldii K. Koch.) 25
합죽선(合竹扇) 131, 150
해동죽지(海東竹枝) 195, 206
해바라기(Helianthus annuus L.) 27
해원천도굿 155
향사(享祀) 148
향토예비군의 날(鄕土豫備軍-) 104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105
허목(許穆) 157
허채(許採) 366
헌화가(獻花歌) 144
헛목(상좌)춤 205
현병(懸甁) 224
현산문화제(峴山文化祭) 279, 384
현우경(賢愚經) 47
현충사(顯忠祠) 103, 113
현충일(顯忠日) 279, 376
형월(螢月) 280, 286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132, 164, 168, 175
호기놀이[呼旗戱] 55, 60
호기아이들놀이[呼旗童戱] 61
호박순치기 306
호박잎때리기 306
호장굿 153, 208, 380
호천상제(昊天上帝) 71
호환설화(虎患說話) 144
혹염(酷炎) 276, 285, 286, 287
홍다구(洪茶丘) 84
홍만선 252
홍석모(洪錫謨) 54, 57, 155, 167, 212, 304, 307
홍염(烘炎) 285, 286, 287
홍영식 102
화상싸움(火桑-) 210
화엄경(華嚴經) 47
화전놀이 213, 226
화조(花朝) 49
화채 132, 173, 299
화풍(和風) 127
환경의 날(環境-) 377
황명(蝗螟) 329
황종(黃鐘) 35, 125, 285
황충(蝗蟲) 329
홰나무잎떡 55
회향시석굿 155
효령사(孝靈祠) 132, 146
후직(后稷) 71, 111
후토(后土) 71
훈몽자회(訓蒙字會) 87, 184
훈요십조(訓要十條) 38, 49

집필자

강등학(姜騰鶴) 강릉대학교
강성복(姜成福) 충청매장문화연구소
강정식(姜晶植) 제주대학교
강현모(姜賢模) 한양대학교
강혜경(姜惠卿) 숙명여자대학교
고광민(高光敏) 제주대학교박물관
고재환(高在奐) 전 제주교육대학교
권삼문(權三文) 경북구미시청
권오경(權五慶) 부산외국어대학교
권태효(權泰孝) 국립민속박물관
김경남(金京南) 중앙대학교
김경섭(金鏡燮) 서강대학교
김계연(金桂淵) 국립민속박물관
김동섭(金東燮)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김명자(金明子) 안동대학교
김민환(金玟煥) 서울대학교
김삼기(金三基) 문화재청
김삼대자(金三代子) 전 국립민속박물관
김상보(金尙寶) 대전보건대학
김선풍(金善豊) 중앙대학교
김수미(金秀美) 국립민속박물관
김승찬(金承璨) 부산대학교
김시덕(金時德) 국립민속박물관
김윤정(金潤貞) 국립민속박물관
김재호(金在浩) 안동대학교
김정석(金正錫) 고려대학교
김종대(金宗大) 중앙대학교
김종인(金鍾忍) 나사렛대학교
김 준(金 準) 목포대학교
김진구(金眞久) 국립수산과학원
김창호(金昌鎬) 국립민속박물관
김태수(金泰水) 삼척시립박물관
김혜경(金惠慶) 전북대학교
나경수(羅景洙) 전남대학교
류종목(柳鍾穆) 동아대학교
박구병(朴九秉) 전 부경대학교
박상규(朴相圭) 경원대학교
박선애(朴善愛) 국립민속박물관
박장영(朴長煐) 안동민속박물관
박종섭(朴鍾燮) 계명대학교
박호석(朴虎錫) 농협대학
박환영(朴奐榮) 중앙대학교
배영동(裵永東) 안동대학교
변은숙(邊銀淑) 명지대학교
상기숙(尙基淑) 한서대학교
서연호(徐淵昊) 고려대학교
서영대(徐永大) 인하대학교
서해숙(徐海淑) 전남대학교
석대권(石大權) 대전보건대학
성병희(成柄禧) 전 안동대학교
신경숙(愼慶淑) 한성대학교
신종원(辛鍾遠) 한국학중앙연구원
신하령(申河令) 서울대학교 규장각
안상복(安祥馥) 강릉대학교
안지원(安智源) 서울대학교
양영조(梁寧祚)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양종승(梁鍾承) 국립민속박물관
양진조(梁鎭潮)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정칠(劉正七) 경희대학교
윤덕인(尹德仁) 관동대학교
윤숙경(尹淑澋) 전 안동대학교
윤숙자(尹淑子)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이경엽(李京燁) 목포대학교
이남숙(李南淑) 이화여자대학교
이병옥(李炳玉) 용인대학교
이상고(李相高) 부경대학교
이소라(李素羅) 민족음악연구소
이승수(李承洙) 중앙대학교
이영옥(李永玉) 부산여자대학교
이옥희(李玉姬) 전남대학교
이 욱(李 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재협(李哉協) 경희대학교
이종진(李鍾振) 전주문화원
이찬욱(李燦旭) 중앙대학교

이창식(李昌植) 세명대학교
이필영(李弼泳) 한남대학교
임규호(林奎晧) 서울대학교
임장혁(任章赫) 중앙대학교
임희수(林姬洙) 중앙대학교
장장식(張長植) 국립민속박물관
장정룡(張正龍) 강릉대학교
장정수(張貞守) 고려대학교
장창익(張昌翼) 부경대학교
전경욱(田耕旭) 고려대학교
전신재(全信宰) 한림대학교
정병삼(鄭炳三) 숙명여자대학교
정상박(鄭尙朴) 전 동아대학교
정승모(鄭勝謨) 지역문화연구소
정연학(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정종수(鄭鍾秀) 국립춘천박물관
정현미(鄭賢美) 국립민속박물관
정형호(鄭亨鎬) 중앙대학교
정호기(鄭滸基) 전남대학교
조승연(趙承衍) 국립민속박물관
조현설(趙顯卨) 서울대학교
조후종(趙厚鐘) 전 명지대학교
좌혜경(左惠景) 제주대학교
주영하(周永河)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인택(朱仁鐸)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진경환(秦京煥) 한국전통문화학교
진성기(秦聖麒) 제주민속박물관
진철승(陳哲丞)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차용준(車庸準) 창원대학교
천진기(千鎭基) 국립민속박물관
천혜숙(千惠淑) 안동대학교
최덕원(崔德源) 전 순천대학교
최상일(崔相一) 문화방송
최수빈(崔秀彬) 인하대학교
최운식(崔雲植) 한국교원대학교
최은수(崔銀水) 국립민속박물관
최인학(崔仁鶴) 전 인하대학교
최정화(崔廷華) 국립수산과학원
추명희(秋明希) 전남대학교
편무영(片茂永) 일본 愛知大學
표인주(表仁柱) 전남대학교
한복려(韓福麗) 궁중음식연구원
한양명(韓陽明) 안동대학교
한철호(韓哲昊) 동국대학교
한형주(韓亨周) 고려대학교
함한희(咸翰姬) 전북대학교
현원복(玄源福)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홍성훈(洪性薰) 가락고등학교
홍윤식(洪潤植) 전 동국대학교

편찬팀

기 획 : 천진기
김종대, 장장식, 황보명, 최명림

편수원 : 김계연, 김수미, 김창호, 박선애, 이정기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편

발 행 일	2005년 12월 26일
발 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1(전화 02-3704-3114)
	www.nfm.go.kr
기 획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한국세시풍속사전편찬팀
감 수	임동권, 장주근
윤문 · 교열 · 교정	김형윤 편집회사
제 작	임학래
디 자 인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0152-000083-01
Published	Dec 2005
Publisher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www.nfm.go.kr
Production	Design intro / www.gointro.com